장편소설

새날을 불러

(하)

백 보 흠

문학예술출판사
주체100(2011)

제 1 장

1

뭍에서 멀리 떨어진 외로운 섬마을같이 백리수해의 한점 공지에 고독하게 앉아있는 송강—여기가 안도현의 소재지이다.

울창한 수림에 둘러싸인 현소재지 성문앞으로는 푸른 강물이 마치 유구한 세월과 더불어 빚어진 다난한 인생사연들을 전하는듯 밤낮으로 중얼거리며 유유히 흐르고있다. 이 고장 사람들이 서문강이라 부르는 이 강은 멀리 백두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송화강의 물줄기이다.

현소재지주변에는 자그마한 마을들이 밀림의 바다속에 띠염띠염 널려있다.

1930년 1월초, 말파리 한대가 송강에서 서쪽으로 10여리 떨어진 울창한 수림속으로 천천히 미끄러져가고있었다. 말파리뒤에는 짐보따리를 실은 자그마한 발구 한채가 달려있었다. 말파리에는 무송에서 안도로 이사해가시는 강반석녀사의 일가분들이 비좁게 앉아계시였다. 리보익할머님과 강반석녀사 그리고 어린 두 자제분, 김형권동지와 부인 채련옥 이렇게 여섯식구였다.

해저무는 숲속에선 얼고 굶주린 승냥이들이 울기 시작했다. 아득한 밀림의 바다에서 울려오는 승냥이의 울음소리는 가위눌린 사람의 비명처럼 아츠럽고 무시무시하였다.

일가분들은 무송을 떠나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옹근 엿새동안 혹한의 밀림속을 지나왔었다. 맨 첫날에는 인적없는 적막한 밀림속으로 70여리를 지나 어슬막에 쑹지허라는 부락에 도착하시였다. 이곳에는 처서군들이 숙식하는 함바 한채가 있었지만 방마다 사람들이 꽉 들어차있어 앉아있을 자리가 없었다. 하는수없이 일가분들은 언 강냉이떡을 녹여서 끼니를 에우고 함바부엌바닥에 짚을 깔고 누

워 쪽잠들을 자시였다. 이튿날에는 쑹지허를 떠나 온종일 눈덮인 밀림속을 헤쳐가다가 류수허의 어느 산간마을에 머물러 하루밤을 보내시였다.

무송에서 안도로 가는 밀림의 바다속에 외로이 자리잡고있는 마을과 마을사이는 대체로 하루길이 되는 거리였다. 어떤 때는 숨차게 말파리를 몰아 100리이상 달려야 마을이 나타났다. 엿새동안 계속된 고달픈 려행길에서 누구보다 수고를 많이 한분은 강반석녀사이시였다. 려행도중 익은 음식을 덥히거나 잠자리를 꾸리고 거두는 앞치닥뒤치닥거리들을 다 녀사께서 말아하시였다. 늙으신 시어머님과 동서는 그런 일에 아예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였다.

일가분들이 농가의 부엌바닥에서 쪽잠을 잘 때에도 녀사께서는 언제나 바람받이에 앉으시였다. 고달픈 려행길에 녀사의 속병이 더치여 노상 명치어방이 칼끝으로 쑤시는듯 하였지만 신병의 고통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였다. 녀사께 있어서는 마음속 고통이 참기 어려운것이였다. 지금 녀사의 모든 생각은 길림에서 옥고를 치르고계시는 아드님께 집착되여있었다.

(성주야, 차디찬 감방에 있자니 얼마나 춥겠느냐? 한달음에 달려가 이 어미의 품으로 네 온몸을 녹여주고 아픈 상처를 감싸주고싶다만 그건 네가 바라는게 아니기에 나는 지금 길림이 아니라 안도로 가고있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맏아드님께서 화전에서 《ㅌ. ㄷ》를 조직하고 무송에 오신 그때부터 오늘까지 수년동안 아드님의 지도를 받아온 반일부녀회 조직책임자이시였고 김형권동지와 두 자제분, 채련옥이들도 《ㅌ. ㄷ》산하의 공청원, 소년동맹원, 반일부녀회원들이였다.

《ㅌ. ㄷ》의 한 가정이 감옥에 계시는 혈육이며 지도자이신 한별동지의 뜻을 받들어 지금 거처지를 옮기고있는것이다.

녀사의 일가분들보다 한달 앞서 조선녀, 김순애, 민옥 등 무송의 세 반일부녀회원들도 조직의 지시에 따라 가족들과 함께 안도로 이주하였다. 어찌하여 조직에서는 녀사의 일가분들을 그 멀고도 험한 안도의 수림지대에로 보내는것인가.

녀사께서는 언제인가 하신 맏아드님의 말씀을 몇번이나 되새겨보시였다. 맏아드님께서는 안도는 철길과 자동차길, 도시들에서 멀리 떨어진 수림지대여서 일제의 마수가 덜 미치는 곳이고 연길, 화룡, 왕청, 훈춘지구와 무송, 돈화, 화전뿐아니라 륙읍일대를 비롯한 국내북부지구와 련계된 동만의 중심구역이며 주변이 온통 험준한 산악과 밀림으로 뒤덮여있어 장차 항일무장투쟁의 본거지를 꾸리는데서 가장 주목되는 곳이라고 하시였다.

녀사께서는 맏아드님가까이에서 활동하는 길림조직에서 일가분들을 안도로 이주시키도록 한것은 단지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항일독립운동의 큰 경륜, 아드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라고 생각하시였다.

땅, 따땅!

별안간 밀림에 메아리치는 총소리에 녀사께서는 생각에서 깨여나시였다. 말파리가 우뚝 멎어섰다.

《이게 웬 총소리냐?》

말파리안쪽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리보익할머님께서 사방을 둘러보시였다. 앞에서 말을 몰아가던 김형권동지께서도 긴장한 눈길로 총소리가 울린쪽을 내다보시였다.

밀림에 메아리친 여러방의 총소리는 우뢰의 여운처럼 우르릉거리며 멀리로 사라져갔다.

《내가 가보라요? 어딘지…》

동생을 꼭 껴안고있던 철주가 벌떡 일어나며 말파리에서 뛰여내리려고 했다.

《가지 말아, 사냥군들이겠지. 여긴 사냥군들이 많다.》

채련옥이가 안심시키듯 례사로이 말하였으나 얼굴은 불안스러운 기색이였다.

또다시 총소리가 울리였다. 얼마후 말같은 노루 한마리가 말파리앞을 가로질러 저쪽 츠렁바위가 있는 덤불속으로 달아났다.

《사냥군들이 옳군. 자, 황룡(말)아! 어서 가자, 이젠 거의 왔다. 10리남짓이 가면 집이 보일게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일가분들을 태우고 여러날 숲속의 눈길을 헤쳐

온 역마의 잔등을 채찍손잡이로 두드리시였다.

말파리는 다시 움직이였다. 멍에를 멘 공골말은 눈가루를 한벌 뒤집어써서 온 몸뚱이가 부루말처럼 은백색으로 번쩍거리였다. 목적지에 거의 다달았다는 김형권동지의 말씀을 알아들었는지 공골말 황룡은 흥분하여 코투레질을 하며 억차게 멍에를 끌었다. 그러나 얼마 못가서 말파리는 다시 멎어서게 되였다. 금술을 드리운 화려한 유개마차 한대가 길을 가로막고 서있었기때문이였다. 마차옆에는 《창비공산당!(공산당 총살!)》이라고 흰 천에 피빛으로 쓴 표어가 기발처럼 꽂혀있었다. 숲속 어디에선가 《창비!》하는 돼지멱따는 소리같은 괴성이 울리면서 또 한방의 총소리가 밀림에 메아리쳤다. 그와 거의 동시에 처량한 비명소리가 일어났다. 그것은 총에 맞은 어떤 생명체의 단말마적인 부르짖음이였다.

총소리에 기겁을 했는지 숲속에서 울리던 승냥이의 울음소리는 가뭇없이 잦아들었다.

(사람을 쏴죽였는가?)

《창비 공산당!》이라는 표어와 요란한 총소리 그리고 마지막숨을 몰아쉬는듯 한 처량한 비명소리는 강반석녀사께 불길한 예감을 일으켰다.

그이께서는 무송을 떠나올 때 안도의 실태를 대충 료해하시였었다. 기차길은 물론이고 자동차길과도 멀리 떨어져있는 안도는 국가행정기구의 통제가 덜 미치는 대신 한두명의 토호들이 무제한한 세도를 쓰는 소왕국이였다. 안도현소재지를 포함한 소사하 이남구역의 수백리 넓은 땅을 독차지하고있는 무한장이라는 지주는 가병만 하여도 60여명이 되고 8개의 보위단까지 통솔하고있는데 전체 보위단원의 수가 500여명이나 된다고 하였다. 그가 소유한 땅이 얼마나 많은지 농토구역들에 박아둔 마름이 10여명이나 되였다. 소사하 이북구역은 쌍병준이라는 지주가 역시 가병과 보위단원들을 거느리고 사방 수십리의 넓은 땅을 관할하고있다고 하였다.

동북의 반동군벌들은 대도로와 멀리 떨어진 깊은 산림지대들을 다스리기가 시끄러워 그곳 토호들에게 무제한한 권력을 주는 방법으로 저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공산당세력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있었다.

토호들은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죽일수 있었다. 그들은 자기 비위에 거슬리는자가 있으면 공산당의 모자를 씌워 죽이였다. 이렇게 되여 안도에서는 무한장의 말이 곧 법으로 되였다. 그가 《창비!》하면 죽어야 하는것이다.

유개마차때문에 길이 막혀 말파리는 생눈길을 헤쳐 에돌아나갔다.

《서라!》

말파리가 유개마차를 에돌아 본길에 들어서자 누구인가 성나서 고함을 질렀다. 노루가죽등거리에 승냥이털모자를 쓴 몸이 뚱뚱한 사람이 마차안에서 뛰여내렸다. 뒤따라 군용외투 비슷한 누런 털외투를 어깨에 걸친 안경을 낀 사나이가 느릿느릿 걸어나왔다. 방금 짐승의 피를 마신듯 그들의 입언저리엔 시뻘건 피가 게발려있었다.

주변에서는 개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디서 오는 사람들인가?》

노루가죽등거리를 입은자가 눈을 부라리며 중국말로 물었다.

《어디서 오든 무슨 상관이요?》

김형권동지께서 말파리에 앉은채 서툰 중국말로 언짢게 내뱉으시였다.

《무슨 상관이냐고? 여기는 무한장도단장(총단장)님의 땅이야. 누구도 마음대로 못 다닌다.》

그는 자기가 무한장지주의 집사 겸 마름이고 안경을 낀 사람은 보위단 부도단장이라고 했다.

마름이라고 뻐기는 그자도 그래, 보위단 부도단장이라고 하는 안경쟁이도 그래 모두 술에 거나하게 취해있었다.

《적은이, 다투지 말고 통행증을 보여주세요.》

강반석녀사께서 김형권동지께 조용히 이르시였다.

《여기 통행증이 있으니 와서 보시오.》

김형권동지께서는 덧저고리 안주머니에서 통행증을 꺼내시였다.

마름은 시적시적 걸어와서 통행증을 나꾸채듯 받아쥐였다.

통행증에는 이렇게 씌여있었다.

《이들의 통행과 잠자리를 성의껏 보살펴드릴것이다.》

통행증에는 봉천경찰국의 붉은 인장이 큼직하게 찍혀있었다. 이것

은 조직망에 들어있는 무송경찰서 감찰계장과 장울화의 아버지 장만정이 돈을 들여서 낸 통행증이였다.

호통을 치던 마름의 태도는 순간에 일변되였다. 그는 보위단 부도단장이라는 안경쟁이에게 통행증을 내보이며 무어라고 쑹얼거리였다.

안경쟁이는 말파리에 앉아계시는 일가분들과 발구에 실은 짐보따리들을 찬찬히 훑어보고나서 통행증을 받아쥐였다. 서른대여섯 났음직한 사람이였다. 균형잡힌 몸매에 둥글사 한 얼굴이 보기 좋게 살이 올라 먼발치에서 볼 때에는 아주 유순하고 점잖은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그가 가까이 접근하는 순간 녀사께서는 가슴이 섬찍하여 흠칫 몸을 떠시였다. 안경밑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새까만 그의 눈알맹이가 살모사의 눈알같이 독살스러웠기때문이다.

그는 잠간이면 볼수 있는 통행증을 오래동안 들여다보았다. 한참만에 고개를 쳐든 그는 김형권동지께 시선을 돌리였다.

《어디로 가시려는지 오늘은 송강려관에서 주무셔야 하겠군요.》

류창한 조선말로 물어보는 부도단장 왕방초의 목소리는 아주 부드러웠다.

《우리는 여기서 살자고 왔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오. 나는 의원이여서 송강시내에 의원방이나 하나 차려놓고 지내자고 합니다. 떠도는 말이 안도가 살기 좋다고 하고 또 여기 흥륭촌에 우리 가시집이 있고 해서 어머님, 형수님, 조카애들까지 다 데리고 왔습니다. 채승락이라고 알겠는지 그가 나의 장인입니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어차피 앞으로 다 알게 될 일이여서 모든것을 터놓고 말씀하시였다. 무송을 떠나기 전에 현정부 의학회에서 실시한 내과, 외과시험에 합격하여 정식 의사자격을 받은 그이께서는 당분간은 송강시내에 의원약방간판을 걸어놓고 혁명사업을 하실 작정이였다.

《채승락이가 장인이란 말인가요? 알고말고요. 몇년전에 타지방으로 갔다가 지난달에 여기로 왔지요. 채승락이가 장인이라…》

마름이 고개를 기웃거리며 말끄리를 별스레 길게 끌었다.

아마도 그는 봉천경찰국과 간단치 않은 인연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한갖 독립군하급인물이며 사냥군이였던 채승락의 사위라는 말에 의아해하는것 같았다.

《그런데 당신들은 여기서 무얼 하시오?》

김형권동지께서 《창비 공산당!》이라고 쓴 표어를 얼핏 스쳐보며 물으시였다. 왕방초도 표어에 눈길을 돌리였다.

《우리 보위단원들이 사격훈련을 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림지대에 있는 짐승들을 공산분자로 보고 사격훈련을 합니다. 훈련도 하고 짐승도 잡고 일석이조이지요. 상급의 통보에 의하면 공산분자들이 동만에 있는 지주들을 다 타도해버리고 쏘베트화할 개꿈을 꾼다는것 같소. 얼빠진것들… 허허허.》

왕방초는 고개를 뒤로 제끼고 비양조의 너털웃음을 쳤다.

《그야말로 앙천대소할 일이지. … 우리 관할구역에는 단 한명의 공산분자도 얼씬 못할거요. 그놈들이 나타나면 모조리 짐승처럼 때려잡겠소, 저 노루처럼!》

왕방초는 입술을 사려물며 유개마차옆을 가리켰다.

강반석녀사께서는 그제야 마차옆에 네다리를 늘어뜨린채 모로 쓰러져있는 노루를 보시였다. 방금 이 두사람이 노루의 멱을 찔러 더운 피를 받아서 한사발씩 마신듯싶었다. 아까 말파리앞을 가로건너 덤불속으로 사라진 말같은 노루는 저 죽은 노루와 한쌍이였던지 모른다.

《오늘 우리는 공산분자로 의심되는자 두놈을 총살하였소. 우리가 공산분자들을 어떻게 총살하는지 아시오?》

안경밑에서 굴러다니던 왕방초의 새까만 눈알이 굳어지듯 한자리에 멎어버렸다.

《제1차 세계대전시기 영국의 고위급정객들중에는 사냥을 아주 즐기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제일 즐긴 사냥은 사람사냥이였다고 하오. 그는 수림지대에 사형언도를 받은 죄수를 풀어놓고 달아나게 하고는 그뒤를 좇아다니며 총질을 했소. 마치 산중에 나타난 노루를 발견하면 따라다니며 사냥을 하듯이 말이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이 수림지대에 공산분자들을 풀어놓고 사냥을 하오, 허허허.》

왕방초는 또다시 너털웃음을 쳤다. 착취자, 억압자들속에는 웃음

의 보자기속에 비수를 넣고 다니는 위선형과 살륙의 이발을 숨김없이 드러내놓는 야수형이 있는데 왕방초는 아마도 두번째 형에 속하는것 같았다.

(저놈은 사람이 아니라 악귀로구나!)

녀사께서는 소름이 돋는것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웨치시였다. 안도보위단우두머리들이 생각했던것보다 훨씬 더 포악하고 사나운 놈들같았다.

《날도 저물었는데 어서 가보시오. 여기서 살겠으면 사흘안으로 현관공서에 가서 호적등록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7살이상 60살이하의 남자들은 리력서를 써서 현경찰서에 바쳐야 합니다. 자, 그럼…》

왕방초는 일가분들을 둘러보며 손을 흔들었다.

《쩌!》

김형권동지께서 고함을 지르면서 채찍으로 공골말의 잔등을 힘껏 쳐갈기시였다. 황룡은 비명같은 코투레질을 하며 전률을 일으키듯 몸을 떨었다.

말파리는 눈길을 지치며 빠르게 달리였다.

리보익할머님께서 걱정스레 말씀하시였다.

《우리 증손일 잡아가둔 놈들도 저런 짐승같은 놈들일테니 그 애가 얼마나 고생하겠니, 이 엄동설한에 랭돌바닥에서…》

강반석녀사께서는 지난 20여일새에 폴싹 늙으신 시어머님의 초강초강해진 얼굴을 측은히 바라보시였다. 가슴이 미여지는것 같으시였다. 4년전 여름 대영마을에 나가 시어머님을 모시고 무송으로 돌아오던 가슴아픈 추억이 되살아오르시였다. 그때는 김형직선생님을 잃은 쓰라린 마음을 안고 시어머님과 한마차에 앉아 무송으로 들어갔었는데 오늘은 사랑하는 아드님이 체포된 암담한 소식을 듣고 안도로 들어서고있었다. 그때는 무송의 소남문 파수막에서 친일반동경찰로부터 반일공산분자들을 멸살시키겠다는 몸서리치는 악담을 들었는데 오늘은 안도의 반공보위단 부도단장으로부터 공산분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겠다는 피비린 목소리를 듣고계시였다.

어찌하여 이다지도 모진 생활이 그칠줄 모르고 거듭된단 말인가.

2

날은 이미 어슬어슬해져서 서문강주변 마을에서 등불이 반짝이였다.

말파리는 강기슭을 따라 미끄러져가다가 서문강다리목에서 멎었다. 다리건너편으로 송강시가를 둘러친 높다란 토성이 보이였다. 토성과 서문강사이의 공지에 크고작은 집들이 드문드문 널려있는데 이고장 사람들은 그 마을을 서문밖마을이라고 하였다.

말파리는 강다리를 건너 서문밖마을로 들어섰다.

《다 왔어요. 저기 보이는게 마춘욱이네 객주집입니다.》

김형권동지께서 다리아래쪽으로 보이는 덩치가 큰 기다란 단층집을 가리키시였다. 그 집 지붕우에 다락이 있어 한쪽측면으로 보면 마치 2층집 같았다.

이윽고 말파리는 객주집앞마당으로 들어섰다.

불빛이 불그스름히 내비친 객주집의 여러 지게문들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얼른거리였다.

이곳에 나들이 온 사람들은 밥값이 비싼 성안의 려관이나 술집보다는 눅은 값으로 탁배기라도 배불리 마시면서 자유롭게 타령도 하고 주정도 부릴수 있는 경성려인숙—마춘욱이네 객주집을 찾았다. 10여년전에 여기서 처음 려인숙을 경영한 마춘욱이 아버지가 함경북도 경성군 오천면 북남리사람이여서 문기둥에 《경성려인숙》이라고 크게 간판을 내걸었지만 사람들은 이 집을 려인숙이 아니라 객주집이라고 불렀다.

아버지가 병사한 이후 려인숙경영을 인계받은 마춘욱은 새해에 잡혀 갓 서른이 되는 젊은 려관업자로서 이곳 반제청년동맹원들과 련계를 가지고있는 사람이였다. 한때는 정의부계통의 독립군들과 관계하며 무송, 림강일대에 자주 드나들어 김형직선생님은 물론 강반석녀사와도 안면이 있었다.

이날도 경성려인숙은 손님들로 법석거리였다. 지게문앞 기다란 토

방에는 손님들의 짚신짝들이 가득 널려있는데 건드러지게 내뽑는 취기어린 타령소리, 주정을 부리는 욕지거리들, 챙강챙강 놋사발 부딪치는 방안의 소음이 마당에까지 울려나왔다.

말파리는 마구간과 외양간이 있는 뒤마당으로 돌아갔다. 지치고 흥분한 공골말이 요란한 코투레질을 하며 마구간앞에 멎어서자 뒤마당쪽으로 난 객주집부엌문이 벌커덕 열리더니 노루가죽덧저고리를 입은 마춘욱이 뛰쳐나왔다. 뒤따라 처서군들처럼 통버선에 짚신감발을 한 스무살안팎으로 보이는 두 청년이 달려나왔다.

《아, 이제야 오시누만. … 이틀째 목이 빠지게 기다렸소. 방금전에도 이 사람들과 다리목에서 기다리다 돌아왔다오.》

마춘욱이가 김형권동지께 몇마디 하고는 말파리에서 내리시는 리보익할머님과 강반석녀사께 《먼길에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하고 정중히 인사를 올리였다.

보통키에 얼굴이 유순하게 생긴 농군형의 사나이였다.

《이 집의 신세를 지게 됐어요.》

강반석녀사께서 다정히 인사를 받아주고 시어머님의 갖저고리잔등에 묻은 눈가루와 검부레기들을 털어드리시였다. 안도에서 집을 구할 동안은 녀사께서 마춘욱이네 객주집에 거처하시도록 이미 조직선을 통해 약조가 되여있었다.

마춘욱을 따라나온 두 젊은이가 리보익할머님과 강반석녀사께 굽석굽석 절을 올리였다. 첫눈에 날래고 쾌활해보이는 청년은 리영배라고 소개했고 듬직하고 침착해보이는 청년은 김철희라고 했다. 송강에서 남쪽으로 가면서 정업툰, 대흥툰, 흥륭촌, 한흥툰, 쓰우리 등 여러 마을들이 있는데 그들은 흥륭촌의 반제청년동맹원들이였다.

마춘욱이 그들에게 손짓을 하며 서둘렀다.

《자, 추운데 어서 안방으로 모시세.》

리영배와 김철희는 발구에 있는 이사짐들을 하나씩 둘러메였다.

객주집은 정지방, 손님방, 안방, 뒤고방 등 여러칸이 되였다. 함경도식으로 부엌과 새문없이 련결된 정지방뒤벽에는 쪽문이 두개 있는데 하나는 손님방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다른 하나는 주인집식구들

이 쓰는 안방과 통하는 문이였다. 두칸으로 된 안방에 뒤고방으로 들어가는 자그마한 널쪽문이 또 하나 있었다.

리영배가 일가분들을 모시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종일 불을 땐듯 방안이 화끈하였다. 웃방에는 네댓채의 이불이 쌓여있고 아래방에는 반짇고리따위의 녀인들이 쓰는 물건들과 두리상 하나가 놓여있었다. 장지문을 단 사이벽에는 유리병모양의 석유불초롱이 걸려있어 아래웃방이 다 환하게 불빛을 받았다.

부엌일을 하던 마춘욱의 어머니 김씨와 안해 백춘화가 기름에 쩌들은 누런 행주치마를 두른채 안방으로 들어와 일가분들께 인사를 올리였다.

김씨는 이제 쉰살대밑에 들어선 중늙은이이고 백춘화는 아직 서른 안팎의 젊은 녀성이였다. 김씨는 초면인 리보익할머님의 손을 잡고 마치 오래동안 같이 지낸 동서간처럼 무랍없이 수다를 떨었다.

《성님, 이 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하셨겠수다. 우리 춘욱이가 열흘전부터 무송에서 귀한 손님이 오신다면서 안방을 깨끗이 거두라고 야단했지오다. 그래 쓸구 닦구 했지만 워낙 촌집이라 루추하오다.》

김씨가 새 구름노전을 깔고 새로 도배까지 한 안방을 둘러보며 민망해하자 리보익할머님께서 흔연히 웃으시였다.

《뭐가 루추하다고 그러시오. 나라를 잃고보니 이 촌로친네도 제 집을 떠나 여기저기 굴러다니며 려관방신세를 많이 졌는데 이 방은 상등방이웨다.… 이러나저러나 우리 맏며느리가 얼마동안 이 집에 폐를 끼치게 될것 같은데 안됐소.》

《원 성님두, 폐는 무슨 폐라고 하오다. 우리 춘욱이가 줄창 말했지오다. 이제 무송에서 오시는 손님들은 전주 김씨가문인데 모두 뜻이 높은분들이라구서. 그리구 맏며느리 강씨부인은 학식이 높구 또 길쌈과 바느질솜씨는 누구도 따르지 못한다면서…》

거센 북방사투리로 굳어진 김씨는 무슨 말인가 계속하려다가 며느리가 옆구리를 찌르며 무어라고 소곤거리자 《에구, 이 정신빠진게. 손님들 시장하시겠는데 저녁대접할 생각은 감감 잊어버리구 사설질만 하다니…》하고 일어났다.

얼마후 리영배와 김철희가 두리상을 펴고 저녁음식을 날랐다.

흰쌀밥을 듬뿍 담은 양재기, 꿩고기국, 메돼지고기볶음, 닭알볶음… 두리상이 모자라게 음식그릇들이 가득 올랐다.

《아니, 무슨 음식을 이렇게 잔치상처럼 차렸소?》

리보익할머님께서 안방문으로 부엌쪽을 내려다보며 미안쩍어하시였다. 강반석녀사께서도 음식그릇들을 상우에 바로놓으며 말씀하시였다.

《이런 밥상을 세번만 차리면 객주집이 아예 거덜이 나겠어요. 무송에선 구경도 못하던 흰쌀밥을 이렇게 한양재기나 담았구만요.》

《무스거 차린게 없수다, 돈 들인것두 없구.》

수다스러운 김씨가 또다시 안방문앞에 나앉으며 메돼지와 꿩고기는 사냥을 한것이고 흰쌀은 근간에 이곳 촌마을들에서 묵은 땅들을 신풀이하여 논농사들을 하기때문에 드문히 구경을 한다고 하였다.

무한장지주가 신풀이한 밭은 2년동안, 논은 4년동안 소작료를 물지 않도록 계약을 해서 모두 죽을내기로 땅을 개간하였지만 마름놈들이 빌려쓴 소, 농기구사용세와 꾸어먹은 쌀을 곱으로 받아내서 농민들은 해마다 가을철이면 빈털터리가 되여 나앉는다는것이였다. 게다가 신풀이한 논은 4년동안 소작료를 물지 않도록 계약했던것을 2년으로 깎아버려 농민들의 신세가 말이 아니라고 하였다.

《무한장이란 놈이 보통 무서운 놈이 아니오다. 그앞에서는 기뻐도 웃지 못하고 슬퍼도 울지 못하오다. 그놈의 입에서 〈창비〉라는 말이 튀여나오면 보위단에 끌려가 죽는판이오다. 왕방초라는 부도단장은 또 얼마나 무서운지… 그저 그것들의 세상이오다.》

《어머니, 이젠 그만하구 저녁을 들게 하세요. 국이 다 식겠어요.》

며느리의 지청구를 듣고야 김씨는 주책머리없는 로친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탓하며 물러났다.

일가분들은 엿새만에 처음으로 뜨끈한 온돌방에서 두리반에 둘러앉아 저녁진지를 드시였다.

녀사께서는 돌뿌다귀같이 단단하고 예리한것이 자꾸만 명치에 치받치면서 가슴부위가 아파나 밥은 뜨는둥마는둥 하고 장국물만 겨우 한사발 비우시였다.

어린 자제분들은 얼굴이 흠뻑 젖도록 땀을 내면서 한사발 가득 넘치게 국밥을 말아서 그릇을 다 내였다.

채련옥이도 놋대합에 밥을 말아서 맛나게 들었다.

김이 문문 피여오르는 흰쌀밥에 뜨끈한 장국으로 빈속을 공구고 얼었던 몸을 녹이게 되자 자제분들은 밥술을 놓기 바쁘게 방바닥에 고꾸라졌다.

곯아떨어진 조카들을 하나씩 안아서 웃방에 눕힌 김형권동지께서 이불 두채를 아래방에 내려놓으며 안해에게 《어머니 이불을 펴드리고 어서 형수님이랑 같이 눕소.》하고 이르고는 웃방으로 올라가 장지문을 닫으시였다.

얼마후 안방은 굳잠에 든 일가분들의 깊은 숨소리로 가득찼다. 춥고 바람세찬 엿새동안의 간고한 행군을 거쳐 새로이 맛보는 달콤한 안식의 밤이였다.

녀사께서는 채련옥이옆에 누웠으나 밤이 이슥해지도록 잠을 못 드시였다. 그이께서는 차고 캄캄하고 악취풍기는 길림감옥에서 신고하시는 맏아드님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서 어른거리시였다. 십여년전 김형직선생님을 면회하러 맏이를 데리고 가본 평양감옥에 대한 몸서리치는 인상이 녀사로 하여금 길림감옥의 참상을 상상하시게 하였다.

녀사께서 제일 걱정되시는것은 길림의 반동군벌들이 맏아드님을 왜놈들에게 넘기지 않겠는가 하는것이였다. 그렇게 되면 끝장이였다.

왜놈들은 만주땅에서 독립운동을 하거나 정치운동을 하던 조선사람들을 넘겨받으면 무조건 사형을 하거나 장기형을 먹이였다.

녀사께서는 정작 안도땅에 오셨지만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연하시였다. 무송에 계실 때에는 언제나 맏아드님과의 긴밀한 련계속에서 부녀회사업을 하고 또 주변에는 김형직선생님의 친지분들이 많아 마음이 든든하시였었다. 그러나 안도는 말그대로 산설고 물설고 사람설은 고장이였다.

조직선을 타고 여기로 오셨지만 이제는 아드님의 지도선이 쉬이 와닿을것 같지 못했다. 그래도 의지하실수 있는것은 시동생과 무송에서 이주해온 반일부녀회원들이였다. 안도의 혁명조직들은 혁명사

업경험이 어린 사람들이고 수적으로도 얼마 되지 않았다. 더구나 이곳에는 녀성조직이 전혀 없었다.

당장은 누구의 지도와 방조를 받을 형편이 못되고 오히려 녀사께서 이곳 혁명조직원들을 이끌어가야 할 어려운 처지에 직면하시였다.

정지방에서는 온종일 손님들 시중에 시달린 주인집녀인들의 잠꼬대섞인 로곤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속에서 이따금 가느다란 녀인의 신음소리가 일어났다. 어렴풋이 들려오던 신음소리가 차츰 커지더니 모진 동통에 몸을 비틀며 내지르는듯 한 급한 비명으로 번지였다. 그 소리는 도덕적한계를 넘어 곁사람들도 자지 못하게 집안을 들썩하게 하였다.

《아이고, 아이고. 아고, 배야!》

금시 숨이 넘어가는듯 한 소리에 녀사께서 벌떡 일어나시였다.

《아니, 이게 웬 소리냐?》

리보익할머님께서도 지금껏 잠들지 못한듯 이불을 헤치고 일어나시였다. 녀사께서 쪽문을 열고 정지방으로 내려가시였다.

정지방 등디목에 누워있던 어느 녀인인지 허둥거리며 등디에 겨릅대를 찔러 불을 붙이였다. 불깃한 겨릅등빛이 배를 그러안고 대굴대굴 굴고있는 한 녀인을 어렴풋이 비치였다. 누데기쪼박을 다닥다닥 무어서 치마저고리라고 만든 넝마같은것을 걸친 젊은 녀인이였다. 그녀자는 어찌나 동통이 심한지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젖가슴에서부터 두덩뼈어방까지 붉은 살을 드러내놓고 주먹으로 배를 두드리다가는 손으로 꼬집어뜯군 하였다.

《아이고 배야, 나 죽는다.》

《이 한밤중에 무슨 소동이냐?》

금시 잠에서 깨여난듯 요우에 일어나앉은 김씨가 방바닥과 배허벅을 허비며 울어대는 녀자를 눈이 둥그래서 지켜보았다. 며느리 백춘화도 일어나 시어머니곁에 어리둥절해 앉아있었다. 겨릅등을 들고선 녀자는 겁질린 얼굴을 하고 부들부들 떨고있었다.

김씨는 그 녀자(그는 식모였다.)에게 괜히 화를 냈다.

《이거 보라구, 곁에 석유불초롱이 있는데두 궁상스레 겨릅등은 어째 켜들고 서있나?》

그제서야 젊은 식모는 벽에 걸려있는 석유불초롱에 불을 달고 겨릅등을 꺼버렸다. 환자는 몸을 비틀고 다리를 버둥거리며 점점 더 야단스레 소리를 질렀다. 녀사께서 그 녀자의 곁에 다가가앉으시였다. 스무살전으로 보이는 애젊은 녀자인데 머리가 다 풀어져서 처녀인지 시집간 녀자인지 알수 없었다.

《어디가 아파요?》

《밸이 끊어지는것 같아요. 엄마, 나 죽는다.》

《저녁에 무얼 자셨어요?》

녀사께서 녀자의 배를 문지르며 물으시였다.

《이 집에서 장국밥 한그릇 얻어먹었는데… 엄마, 나 죽는다. 아이고 배야…》

배를 그러쥐고 소리지르며 아픔을 호소하는 녀인을 내처 흘겨보고 있던 김씨가 어성을 높였다.

《그만 아부재기치라니! 사설질하는걸 보니 죽을것 같지 않다. 젊은게 배 좀 아픈걸 가지고 안방손님까지 못 자게 고아대느냐. 이제 남정네 손님들까지 내려와 그 시뻘건 배를 보게 하문 어쩌자구, 쯔쯔…》

그러거나말거나 환자는 그냥 비명을 질렀다.

《엄마, 나 죽는다. 의원 좀 불러줘요. 아이고, 밸이 막 끊어지는것 같아요.》

《이 밤중에 의원은 어디서?…》

김씨는 혀를 찼다. 그리고는 그 녀자의 넝마같은 치마저고리를 흘겨보면서 중얼거리였다. 《정신빠진게, 이 추운 동삼에 맨발에 짚신을 꿰구 정업툰에서 여기까지 시오리눈길을 걸어왔으니 속탈이 나지 않구 어찌겠냐. 버선이 없으문 헝겊으로라두 발을 싸매고 다닐게지, 쯔쯔…》

녀사께서 버둥거리는 환자의 발을 내려다보시였다. 곰발통같이 시꺼먼 더께가 한벌 앉았는데 군데군데 트고 갈라진 살짬에 피딱지가 붙어있었다. 무슨 일로 이 녀자가 밤중에 버선도 신지 않은 맨발로 객주집에 찾아왔는지는 알수 없었다. 김씨의 말대로 헝겊으로라도 발을 싸매고 다녀야지 엄동설한에 맨발로 십여리눈길을 걸어왔으니 속

안의 장기들이 편안할수가 없었다. 뼈속에 스며드는 심한 랭한은 촉한이나 위장병을 유발시키기마련이였다. 그것은 녀사께서 너무도 많이 체험하신 일이였다. 추운 겨울밤 느닷없이 찾아온 독립운동자들의 피젖은 옷을 싸들고 바람부는 강가로 나가 몇시간씩 손발을 얼구며 빨래를 하고나면 위경련이 일어나군 하시였다. 무시로 예고없이 찾아오는 독립운동자들의 때식을 보장하느라 끼를 번지신 일은 몇번이던가.

환자의 병을 짐작하신 녀사께서는 얼른 안방으로 들어가 늘 가지고다니는 찜질돌과 약통을 찾아들고 정지방으로 내려오시였다. 전문의원인 시동생께 알리시려다가 곤히 잠들었기도 하거니와 위장병에 대해서는 자신께서 의원들 못지 않게 알고있기에 깨우지 않으시였다.

녀사께서는 찜질돌을 등디에 파묻은 다음 주인집녀인들에게 더운물 한사발에 숟갈과 놋종발뚜껑을 가져오라고 이르시였다. 그러자 겁질린 얼굴을 하고 등디목에 엉거주춤 서있던 식모가 재빨리 부엌으로 내려갔다.

오랜 식모살이에 눈치가 빨라지고 일손이 여물대로 여문 그 녀자는 잠간새에 녀사께서 이르신대로 물사발과 숟갈, 놋종발뚜껑을 들고왔다. 얼굴이 예쁘장하게 생긴 식모는 서른살 됐을가말가한 백춘화또래의 젊은 녀자였다.

《아이고ㅡ 아이고, 엄마ㅡ 나 죽는다. 아이고, 배야ㅡ》

환자는 여전히 배를 그러쥐고 태질을 하였다.

녀사께서는 약통에서 빨간 약 두알을 꺼내여 놋종발뚜껑에 담은 다음 더운물을 부어 숟갈로 문질러 푸시였다.

놋종발뚜껑에 골숨하게 풀어진 붉은 액체가 방안에 알싸한 향기를 풍기였다. 그것은 김형권동지께서 강반석녀사를 위해 갖가지 건위보약과 진통제를 넣어 지으신 창제알약이라는 고려약이였다. 원래 그 약을 처음 만드신분은 김형직선생님이시였다. 녀사의 속병을 고치시려고 새로 창안조제한 약이래서 창제알약이라 이름지은 그 고려약은 위경련을 진정시키는데 특효가 있었다.

《자, 약을 자시자요. 이 약을 쓰면 곧 나아요.》

배를 그러쥐고 어린아이처럼 울고있는 환자의 상반신을 안아일으

킨 녀사께서 약을 한순갈 떠서 입안에 넣어주시였다. 창제알약에는 꿀도 들어있어 먹기도 좋았다. 반정신이 나간 녀인은 녀사의 품에 안긴채 어미새한테서 먹이를 받아먹는 새끼새처럼 입을 재게 놀리며 약을 받아넘기였다.

《자, 이젠 가만히 누워서 돌찜질을 하자요. 약을 먹었으니 곧 나을거예요.》

녀사께서는 덩치 큰 녀인을 눕히고 등디에 파묻었던 돌을 헝겊에 싸서 환자의 배우에 올려놓으시였다. 평생 약을 써보지 못한 녀인이여서 약효가 인차 일어났는지 아니면 의술은 인술이라 녀사의 정성이 신기한 효력을 냈는지 방금까지 죽는다고 야단을 하던 녀인이 긴트림을 하더니 아무 소리없이 살풋이 눈을 감았다.

녀사께서 환자에게 요를 덮어주시고 한무릎 물러앉으시였다.

요밑에서 시원스레 풍풍 가스방출되는 소리가 났다.

《던적스러운게, 창피한것두 모르구 풍풍거리며 방안에 퀴퀴한 냄새를 퍼뜨리다니, 쯔쯔…》

입을 실그리며 혀를 차는 김씨의 푸념섞인 너스레에 방안의 녀인들이 모두 소리내여 웃었다.

이때 안방문가에서도 가벼운 웃음소리가 울리였다.

리보익할머님께서 여태 정지방을 지켜보고계셨던것이다.

《병자가 깊이 잠든걸 보니 이젠 배가 편안한가보오.》

그제야 리보익할머님을 띠여본 김씨가 눈을 치뜨며 안방쪽으로 돌아앉았다.

《에구, 이거 정말 성님까지 쉬지 못하게 복새를 놓았소다. 그건 그렇구 우리 춘욱이가 말끝마다 강씨부인은 학식과 덕이 높은분이라고 하더니 실루 맏며느님이 천하명의오다. 방금까지 죽는다고 대굴대굴 굴던게 저렇게 편안히 곱게 자지 않소다.》

《우리 며느리가 명의라는걸 이제야 알았소?》

리보익할머님께서 롱조의 말씀을 하며 웃으시였다.

맏며느님이 명의라는 치사를 들을법도 하였다. 맏아드님께서 팔도구, 림강, 무송에서 광제의원, 순천의원, 무림의원간판을 걸고 지내실 때 맏며느님의 정성스러운 구완으로 살아난 독립군들과 병자

들이 수없이 많다고 하지 않았는가.
할머님께서는 갑자기 기침을 깇으시였다. 불현듯 사무쳐오는 맏아드님에 대한 생각은 길림감옥에 갇히신 맏손자님에 대한 걱정으로 번지시였다.
저렇게 든든하게 생긴 젊은 녀인도 십여리눈길에 랭한을 맞아 급병이 드는데 하루도 아니고 수십일이나 랭돌바닥에서 지내는 맏손자님의 몸이 어찌 무사할가싶었다. 벌써 무슨 몹쓸 병이 침습했을것만 같으시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갑작스레 창백해지시는 시어머님의 얼굴을 측은히 지켜보시였다.
《어머니, 이젠 주무세요.》
《오냐, 어서 아에미도 눈을 붙이거라.》
《예, 자겠어요.》
무릎을 짚고 일어난 녀사께서는 그제야 객주집녀인들에게 환자의 가정래력을 물으시였다. 그 녀자는 어린 남동생 하나를 데리고 남의 집 곁방살이를 하는 정업툰의 처녀였다. 아버지는 2년전에 논풀이를 하다가 일터에서 급사하고 지난해에는 어머니와 두 동생이 병들어죽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굶어죽었다고 해야 할것이다. 그 처녀는 래일이 송강 장날이여서 사흘동안 툰장네 집 방아를 찧어준 품삯돈으로 새벽장을 보려고 객주집을 찾아왔던것이다. 처녀의 성은 안가인데 《선둥이》라고 불렀다. 맨 처음에 태여난 자식이래서 부모들이 지은 상스러운 이름이였다.
《불쌍한 처녀로군요. 이젠 별탈이 없을것 같으니 마음놓고 주무세요.》
녀사께서는 주인집녀인들을 안심시키고 안방으로 들어가시였다.
정지방녀인들은 석유등을 끄고 자리에 누웠다.
겨울밤의 정적을 누비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깊은 숨소리, 잠꼬대소리…
그러나 강반석녀사께서는 려인숙 닭우리에서 새벽닭이 울 때까지도 잠을 못 드시였다.

3

강반석녀사께서는 정지방에서 두런거리는 소리가 나자 자리에서 일어나시였다.

정지방에서 자던 주인집녀인들이 손님들의 조반을 차비하는지 석유등을 켜놓고 부엌에 내려가있었다. 정업툰의 처녀도 언제 앓았던가싶게 걸싸게 돌아치며 부엌일을 돕고있었다.

녀사께서는 어둠속을 더듬어 약통에서 창제알약을 여라문알 꺼내여 종이에 싸시였다. 그리고 웃방에 올라가 보짐 하나와 버선 한컬레를 들고 정지방으로 내려가시였다.

《처녀가 부엌일을 하는걸 보니 병이 다 나은 모양이구만.》

들고온 물건들을 정지방아래목에 내려놓은 녀사께서 소여물가마에 물을 붓고있는 처녀를 보며 웃음을 지으시였다.

《어마나!》

숫진 처녀는 무안을 타며 고개를 수그리였다.

《처년 조반을 하고 성안으로 장보러 간다지?》

《네, 정말 고마워요. … 그런데 약값을…》

《약값이 걱정되나?》

녀사께서 웃으시며 창제알약을 싼 약종이와 탐탐하고 깔끔하게 누빈 하얀 무명솜버선을 들어보이시였다.

《여기에 약이 몇알 있으니 앞으로 혹시 배가 편안치 못하면 두알을 더운물에 풀어먹으라구. 처녀의 병은 발을 차게 해서 생긴 병이니 오늘 장보러 갈 땐 이 버선을 신으라구. 자, 돈걱정은 말고.》

녀사께서 소리내여 웃으시였다.

처녀는 눈을 둥그렇게 뜨고 어리둥절해하였다. 처녀뿐아니라 이남박으로 쌀을 일던 백춘화도, 물동이를 이고 부엌문을 나서려던 식모도 그리고 부엌아궁이앞에 쭈그리고앉아 불을 지피던 김씨도 의외로운듯 일시에 녀사께로 시선을 옮기였다.

녀사께서는 곁에 놓인 풀색보짐을 풀고 밤색치마저고리와 머리수

건을 꺼내시였다.
그것은 무송을 떠나올 때 녀사께서 친히 길쌈을 하여 짜신 아랑주천으로 지은 치마저고리인데 하나는 시어머님께 드리고 하나는 마춘욱 어머니의 몫으로 남겨두신것이였다.
머리수건도 두개 만드시였다. 옷을 지을 때 나온 자투리로 리보익할머님의 머리수건은 평안도식으로, 김씨의 머리수건은 함경도식으로 마르시였다. 평안도녀인들의 머리수건은 장방형의 흰 천을 네겹으로 접어서 머리로부터 이마까지 덮는데 정수리는 내놓고 뒤를 나비매듭으로 묶는다. 그러나 함경도에서는 바른 사각형의 흰 천을 세모나게 접어서 머리전체를 덮지만 끝을 매지 않고 곱게 접어넣는것이 평안도와 다른 점이였다.
《뭐 가져올게 없어 내 손으로 중조 할머니의 치마저고리 한벌을 지어왔는데 마음에 들겠는지 모르겠어요.》
중조란 김씨의 손자 즉 마춘욱의 아들이였다. 이제 여섯살난 중조는 소란스러운 정지방이 싫어서 늘 아버지와 함께 골방에서 잤다.
《아니, 그게 내 입으라는 옷이오다?!》
늙었지만 아직 옷새암이 많은 김씨는 부지깽이를 내던지고 구들우로 뛰여올라왔다. 그는 먼저 저고리를 들어보았다.
《에그마, 이게 명주저고리로구마. 어쩌문사 동정을 요렇게도 새뜻이 달구 깃고대를 깔끔하게 댔을가. 기차라, 이 회장을 맞물린거!》
《중조 할머니, 그러지 말고 한번 입어보세요. 몸에 맞겠는지 모르겠어요.》
녀사께서는 저고리를 손에 들고 좋아하는 김씨에게 치마까지 내보이시였다. 폭은 호고 단을 접어서 주름까지 일매지게 낸 주름치마였다.
김씨는 몸에 둘렀던 헌 행주치마며 허드레옷을 훌렁 벗어버리고 치마저고리를 입은 다음 머리수건까지 동이였다.
《어마나, 어머니가 색시같네.》
식모가 손벽을 치며 탄성을 올리였다.
《내 난생 이렇게 곱게 지은 명주치마저고리는 처음 보는구마!》

김씨는 입이 함지박처럼 되여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였다. 그는 아랑주천을 명주천으로 혼동하고있었다. 아랑주란 명주실날에 무명실과 명주실씨를 두올씩 섞바꾸어서 짠 천인데 하도 솜씨있게 정성스레 짠 천이여서 명주처럼 보였던것이다. 명주천이 아니라 아랑주치마저고리란 말에 김씨는 더욱 놀라와했다.

보자기 맨밑에는 행주치마 세벌이 있었다. 행주치마 역시 아랑주로 마르었는데 아래우와 량옆에 네개의 꽃송이를 수놓았다. 아래우는 붉은 실로, 량옆은 푸른 실로 각이한 모양의 꽃을 조화롭게 수놓았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꽃이 아니라 붉은 실로는 《애국》, 푸른 실로는 《화목》이라는 조선글자를 꽃모양으로 수놓은것이였다. 이것도 녀사께서 려인숙부엌일을 하는 세 녀인에게 주자고 생각을 많이 하고 지으신것이였다.

《오늘 아침부터 당장 이 행주치마를 두르고 일하세요.》

녀사께서는 행주치마를 하나씩 나누어주시였다. 엉겁결에 행주치마를 받아쥔 백춘화와 식모는 잠시 어정쩡해있다가 기름에 누렇게 쩌들은 헌 행주치마를 벗어던지고 새 행주치마를 둘렀다.

《꽃행주치마를 두르니 아주머니들의 얼굴두 꽃같아요.》

선둥이가 행주치마를 두른 두 녀인을 번갈아보며 희한해하였다. 새 치마저고리를 벗어서 개여놓고 허드레옷을 다시 입은 김씨도 꽃행주치마를 두르더니 《내같이 늙은것한테는 좀 별나다니.》하고 어줍어하며 부엌으로 내려왔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다시 구들로 올라와 아랑주치마저고리를 가슴에 붙안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뒤고방에 우리 시어머니 의농이 있어요. 옷을 건사하러 갔어요.》 하고 백춘화가 영문을 몰라하시는 강반석녀사를 돌아보며 소리없이 웃었다. 그는 시어머니의 성미가 괴벽하고 드살세서 쩍하면 말다툼을 한다고 하였다.

《제가 시어머니흉을 보는게 아니라 사모님께서 당분간 우리 집에 계신다니 미리 알려드려야 하겠기에… 털어놓고말하면 시어머니때문에 망신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했는데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모든 가정이 화목한 애국가정이 되기를 바라서 행주치마에 〈애국〉과

〈화목〉이라는 글자를 꽃모양으로 수놓았어요. 손님들에게도 교양이 될가 해서…》
《그러니 이게 글자란 말입니까?》
백춘화는 놀라며 새삼스레 행주치마를 내려다보았다.
《왜, 글자가 알리지 않는가요?》
백춘화는 주밋거리며 얼굴을 붉히였다. 객주집의 세 녀인은 다 까막눈이였던것이다. 물론 선둥이도 글을 몰랐다. 이것을 알게 되신 녀사께서는 녀자들도 글을 배워야 한다고 일깨워주고 여기에 계시는 동안 자신께서 짬짬이 배워주겠다고 하시였다.
《아직도 사람들은 봉건유습때문에 녀자들에겐 글도 안 배워주고 온전한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고있는데 우리는 이런 봉건유습을 반대해서 글도 배우고 떳떳한 이름을 가져야 해요. 참, 중조 어머니는 이름이 있는가요?》
《예, 백춘화예요. 시어머니는 김청숙이고 우리 시아버지가 개명한분이여서 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식모의 이름은 장영숙이예요.》
온전한 이름이 없는것은 정업툰처녀였다.
녀사께서는 부엌일을 같이 도우면서 정업툰처녀의 이름을 빛날 선, 구슬 옥자를 따서 안선옥이라고 지어주시였다.
인정에 굶주렸던 정업툰처녀는 값진 약을 써서 병을 고쳐주고 버선을 신겨주고 이름까지 지어주신 녀사의 품에 안겨 흐느껴울었다.
무송에도 온전한 이름을 못 가진 녀자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것으로부터 반일부녀회사업을 시작한 녀사이시였다.
더도 말고 안도에 이주해온 세명의 무송반일부녀회원들중 조선녀와 김순애도 녀사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였다.
그날 아침 손님들은 조반상을 받을 때 애국과 화목이라는 꽃글자를 수놓은 주인집녀인들의 행주치마를 보고 희한해하였다.
입심이 걸고 반죽좋은 김씨가 손님들앞에서 간밤에 정업툰처녀의 급병을 고쳐주고 자기한테 아랑주치마저고리를 지어주신 강반석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글 잘 알고 덕이 높고 병 잘 고치는 천하의 명

의라느니, 옷 짓는 솜씨는 송강의 왕뚱뚱이(송강시가의 유명한 양복사의 별명)를 찜쪄먹는다느니 별의별 자랑을 다 하였다. 그 소문은 이튿날에 벌써 산지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곳곳에서 손님들이 모여드는 려관이나 려인숙, 객주집들은 대중여론의 집합장소인 동시에 온갖 소문을 각 지역에 날려보내는 소식통이기도 하였다.

리보익할머님께서는 객주집에서 하루밤 쉬고 셋째며느리 채련옥이와 함께 흥룡촌 사돈집으로 가시고 김형권동지께서는 의원약방을 꾸린 송강시내로 들어가시였다.

자제분들을 데리고 객주집에 떨어진 강반석녀사께서는 당초의 계획대로 무송에서 가지고온 손재봉기로 삯바느질을 하시였다. 삯바느질과 삯빨래는 집안살림을 보태는데도 다소 도움이 되지만 그보다는 각계각층의 녀인들과 접촉하는 교제적인 로동이므로 녀성들을 장악하고 쟁취하는데 있어서 더없이 유리한 공간으로 되였다.

객주집 손님방에서 늘어놓은 김씨의 입담으로 하여 녀사의 바느질솜씨에 대한 소문이 린근부락에 파다히 퍼져서 첫날부터 많은 손님들이 옷감을 들고 마춘욱이네 집 안방으로 찾아들었다.

그무렵 무송반일부녀회원들인 조선녀, 김순애, 민옥이들도 객주집에 찾아와 인생의 은인이며 조직책임자이신 강반석녀사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다.

미인박명이라고 용모가 절색인것으로 하여 무송에서 아버지를 잃고 본인도 자살까지 기도했던 양지촌처녀 조선녀는 대흥툰마을에 어머니를 모시고있고 한때 이름조차 못 가진 무지렁이 농군녀성으로서 30대초에 아이를 다섯이나 낳고 가난에 시달리던 다산모 김순애는 정업툰에 집을 잡았으며 무송의 유명한 점술업자 민태감로인의 손녀인 민옥은 송강시내에서 할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고있었다.

강반석녀사께서 친히 글을 배워주고 이름까지 지어주며 한걸음한걸음 손잡아 이끌어 키우신 이 무송의 첫 반일부녀회원들은 녀사께서 안도에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있었던것이다.

녀사께서는 그들을 만나신 자리에서 안도지구에 녀성혁명조직을 내오기 위해 각자가 먼저 자기 거주지역을 책임지고 합법적인 녀성친목단체인 부녀친목회를 조직하도록 과업을 주시였다. 그리하여 민

옥은 송강지구, 김순애는 정업툰지구, 조선녀는 대흥툰지구, 채련옥은 흥릉촌지구를 말게 되였다.

녀사께서는 서문밖마을을 담당하시면서 안도현관내의 모든 지역, 모든 혁명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여야 하시였다.

4

이날은 송강 5일장이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개업을 시작한 시동생의 의원약방에 들려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한 의논도 하고 저자도 보기 위해 새벽참에 길을 떠나시였다.

이른아침이지만 성문으로 벌써 많은 장군들이 밀려들고있었다. 그들은 대개가 다 허술한 토스레옷을 걸치고 꿰진 버선이나 헝겊을 둘러감은 발에 짚신을 꿰지른 가난한 농군들이였다.

송강시가는 무송시가에 비해 훨씬 작고 단조로왔다. 무송은 성둘레로 깊은 해자가 파있고 우물정자로 된 길거리들에 살림집들이 추녀를 맞대고 촘촘히 들어앉아있었으나 송강은 성앞에 해자도 없고 거리도 남북방향으로 큰길 두줄기가 뻗어있을뿐이였다. 살림집들이 성글게 들어앉은 큰길 좌우로는 인력거나 겨우 드나들수 있는 좁은 길들이 무질서하게 나있었다. 송강시내에도 조선인거주민들이 적지 않았지만 무송의 소남문거리처럼 조선사람들만이 한데 모여사는 조선인거리가 없었다.

장마당은 시가의 동쪽 한모서리에 있었다.

녀사의 저자보자기에는 무송을 떠나올 때 장울화네 일가가 로자로 쓰라고 드린 명주천 한필이 들어있었다. 그것을 무명천으로 바꾸어 앞으로 삯바느질을 할 때 요긴하게 쓰시려는것이였다.

큰길에서 갈라진 소로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기던 녀사께서는 《무림약방》이라는 간판을 띠여보고 우뚝 서시였다. 돌연히 가슴이 활랑거리시였다. 눈에 익은 붓글씨 《무림》이라는 정자체의 한문글이 녀사의 심금을 세차게 울린것이였다.

약방 빈지문은 닫겨있었다. 금시 그 빈지문을 열고 김형직선생님께서 걸어나오실것만 같아 마음을 진정하실수가 없었다. 빈지문우에 걸어놓은 간판글은 김형직선생님의 글체를 모사한것이였다.

백성들의 병치료를 위해
좋은 일 많이도 하신이
서예가이신 그대의 필치 무림의원
길이 빛나리

원대한 뜻 이루지 못하고
가신 그대 그리워
흐르는 눈물 걷잡을수 없어라

김형직선생님의 장례식날에 흐느끼며 읊은 장만정의 추도시가 녀사의 귀가에 쟁쟁히 울려오는듯싶었다.

며칠전부터 시동생께서 개업을 시작한 무림약방은 이름그대로 약판매를 전문으로 하면서 병도 보아주는 집이였다. 정면에 고려약과 신약을 진렬한 약매대가 있고 그옆에 자그마한 치료실이 붙어있으며 치료실뒤에는 부엌이 달린 살림방 한칸이 있다고 했다.

원래 이 집은 오칠성이라는 상인이 경영하던 잡화상점이였다. 2년전 여름 상점주인이 병사한 다음부터 그의 아들 오방원이 상점을 경영하였는데 김형권동지의 영향하에 반제청년동맹원이 된 그는 잡화상점을 의원약방으로 전환시켜 며칠전부터 개업을 시작했었다.

갑자기 어디선가 떠들썩거리는 소리에 그이께서는 고개를 돌리시였다. 저편 큰길가에 숱한 사람들이 모여서서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주변이 들썩하게 웃고 떠들어댔다. 그중에는 녀인들도 여러명 섞여있었다.

녀사께서도 호기심이 생겨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덩치가 꽤 큰 합각지붕의 조선식건물앞에 사람들이 진을 치고있었다. 그 건물 출입문우에 나붙은 《안식관》이라는 한문간판을 보는 순간

녀사께서는 깜짝 놀라시였다.

(아니, 여기도 안식관이 있는가?)

불현듯 무송 북문거리에 있던 도복음이 경영하던 음식집 안식관이 눈앞에 떠오르시였다.

신약성서의 한구절인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이들은 모두 나에게 오라. 그대들을 쉬게 하리라.》라는 조선글과 중국글로 쓴 족자를 《안식관》간판 좌우에 걸어놓았던 잊을수 없는 집이다. 안식관주인 도복음은 실지 구국의 무거운 짐을 지고다니는 독립운동자들에게는 무료로 음식봉사를 하며 편히 쉬도록 정성껏 보살펴주어 먹새좋은 안송총관 최진용이 노상 찾아다니며 음식대접을 받았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안식관주인을 애국적이고 량심적인 기업가로 생각하고있었으나 그는 일본간첩이였다.

그런데 이 송강거리에 인생을 실패한 도복음의 음식집과 똑같은 《안식관》간판을 내건 건물이 있으니 녀사께서 놀라지 않을수 없으시였다. 간판만 같은것이 아니라 건물의 외형도 비슷하였다. 간판 량옆에 족자를 걸어놓은것조차도 신통히 같았다. 그러나 족자의 내용은 달랐다. 이곳 간판에는 《게으른자여! 개미한테서 배우라!》라는 족자가 걸려있었다.

여기 안식관의 주인은 어떤 사람일가? 어떻게 되여 이 송강땅에 무송의 안식관과 똑같은 건물이 서있단 말인가?

오래도록 의문에 잠겨 서있던 녀사께서는 한참만에야 사람들이 진을 친쪽으로 다가가시였다.

《아니?!》

녀사께서 또 한번 놀라며 우뚝 서시였다. 안식관외벽에 수묵화형식의 대형만화가 그려져있기때문이였다.

《안도거주민들의 수난》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벽의 절반면이 가득차게 그린 대짜배기락서였다.

《하하하… 거참, 신통한 그림이요.》

녀사의 바로 옆에서 검정두루마기를 입은 중늙은이가 만화를 보며 크게 웃어대고있었다.

이마에 《안주민씨》라는 이름을 새긴 말라꽝이거인이 가시밭에

누워있는데 운동복에 《무씨》, 《왕씨》, 《쌍씨》, 《손씨》, 《제씨》라는 표식을 단 다섯명의 뚱뚱보들이 말라꽝이거인 《안주민씨》를 타고앉아 내리누르기경기를 하고있고 한편 《물북—조씨》, 《물남—류씨》, 《화요—최씨》라는 표식을 단 세명의 운동선수는 《안주민씨》의 팔과 다리들을 하나씩 붙잡고 잡아당기기경기를 하고있었다.

《저 〈안주민씨〉의 배를 타고앉은 뚱뚱보들의 잔등에 붙어있는 〈무씨〉요, 〈왕씨〉요 라는 글자들은 뭘 말하는거요?》

누데기옷을 입은 한 젊은이가 누구에게라없이 묻자 검정두루마기를 입은 중늙은이가 《아니, 그것도 모르겠나.》하고 만화의 내용을 설명해주었다.

《〈안주민씨〉라는건 안도거주민들을 말하는것이고 〈무〉는 무한장지주, 〈쌍〉은 쌍병준지주이고 〈왕〉자는 보위단 부도단장 왕방초고 〈손〉자와 〈제〉자는 현장과 경찰서장의 성을 딴거요.》

《경찰서장이 뭐 뚱뚱보요? 말라꽝이지.》

《이 답답한 사람 보지. 그래서 만화가 아닌가. 주민들을 못살게 억압한다는 뜻이야.》

만화에서 잡아당기기경기를 하는 《물북—조씨》, 《물남—류씨》는 안도지구에서 분파투쟁을 하며 주민들을 사분오렬시키고있는 반공민족주의자들인 조희재와 류호를 의미한것이였다. 《화요—최씨》는 화요파계통의 종파사대주의자인 최동화를 말하였다.

흥륭촌으로 4도백하라는 강이 흐르고있는데 언제부터인지 알수 없으나 이 고장 사람들은 강북쪽지역을 물북, 남쪽지역을 물남이라 부르고있다. 지금 물북에서는 정의부계통의 민족주의자인 조희재가 《청년회》, 《농민협회》를 비롯한 자치제단체들을 조직하여 지반을 꾸려놓았으며 물남에서는 참의부계통이였던 류호라는 사람이 서당훈장질을 하면서 《청년회》, 《소년회》, 《농민협회》, 《로인금주회》를 조직해놓고 조희재네 물북패와 등을 돌려대고있었다.

원래 안도지구는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 등 3부민족주의자들이 저마끔 드나들며 행세질을 하던 복잡한 곳이였다. 오늘은 형식상으로나마 3부를 통합하여 《국민부》라는것을 내왔으나 조락되여가

는 민족주의독립운동자들은 지난날의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아직까지 손바닥만 한 한마을에서도 물북이니 물남이니 정의부니 참의부니 하는 금을 그어놓고 으르렁대고있었다.

한편 1920년대 화요파소속의 조선공산당원이였던 최동화라는 사람이 최근 안도지구에 《무산혁명단》이라는 비합법적인 《혁명단체》를 조직하고 처서판의 로동자들과 농민청년들을 찾아다니며 《혁명바람》을 불어넣고있었다.

그는 멀지 않아 동만지구에서 10월혁명과 같은 무산계급의 대폭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에 무한장, 쌍병준이와 같은 지주계급뿐아니라 조희재, 류호와 같은 봉건량반가문이나 부르죠아출신의 민족주의자들도 타도해버리게 된다고 선동하고있었다. 지어 그는 식모를 고용하고있는 마춘욱이와 같은 려관업자들도 타도대상에 포함시키게 된다고 하였다.

최동화는 맑스주의고전을 무불통달한 맑스주의리론가로 자처하는 인물인데 실지 그는 머리가 명석하고 언변이 좋았다. 맑스주의리론을 푸는데서 막히는데가 없어 누구도 그 사람하고는 언쟁을 걸어볼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인물이 지금 송강에서 70여리 떨어진 고등창에 비밀거처를 두고 맹활약을 벌리고있었다.

그는 로동자들은 물론 고농, 빈농을 비롯한 모든 소작농들은 앞으로 있게 될 위대한 무산계급의 폭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장차 착취와 압박이 없는 좋은 세상에서 살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레닌이 로씨야라는 한개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을 성공한것처럼 만주의 한개 성 또는 한개 지역에서 능히 공농쏘베트사회를 건설할수 있다는것이였다.

항간에 떠도는 무산계급의 폭동소문이 무한장과 쌍병준지주들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조선농민들과 처서판로동자들에 대한 그들의 감시와 탄압이 우심해지고있었다. 며칠전에는 로도구에서 처서판로동자 두명이 공산당과 련계된 무산혁명단이라는 협의를 받고 보위단 훈련장에서 총살당하였다. 이것이 바로 강반석녀사와 일가분들이 안도에 도착하신 날 저녁에 있은 일이였다.

녀사께서는 이 아침 안식관에 락서된 대형만화까지 보니 안도지구의 실태가 더 명백히 안겨오시였다. 그 만화는 한갖 어린이들이나 불량배들이 장난거리로 그려놓은 보통락서와는 전혀 다른 일종의 수준있는 정치만화였다.

만화를 보면서 사람들은 저마끔 한마디씩 하였다.

《안식관의 벽을 다 어지럽혀놓은 이 그림을 보면 주인이 복통이 터지겠소.》

《그러게 말이오다. 목재상한테서 돈을 꾸어가면서 2년동안이나 역사질을 해서 겨우 지어놓은 집이라는데 개업을 한지 며칠도 안되여 이런 락서를 해놓았으니 쯔쯔… 락서한 녀석이 누구인지 심술이 바르지 않은 놈이오다. 하필 이 집 벽에 검댕이칠을 할건 뭐요.》

《집이 타도 빈대 죽으니 좋다고 미운 놈들에게 독침을 놓은 그림을 보니 속이 후련하오.》

녀사의 주변에서 만화구경군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누구인가 락서한 그림옆에 씌여있는 한문자들을 가리키며 큰소리로 물었다.

《이건 무슨 글자요? 난 까막눈이 돼서 보구두 모르겠소.》

녀사께서는 그제야 만화옆에 내리쓴 한문자들을 보시였다. 만화에만 쏠리였던 군중의 눈이 그쪽으로 옮겨졌다. 그들은 거의다 한문은커녕 조선글도 모르는 무식자들이였다.

《형님, 이 첫번째 한문자가 무슨 자요?》

아까 사람들에게 만화의 뜻을 해설해주던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중늙은이가 아침추위에 우들우들 떨면서 뒤사람에게 물었다.

《서양물을 먹은 임자가 모르는걸 내가 어떻게 알겠나.》

《두번째 한문자는 계집 녀이고 다음은 돌 석, 많을 다, 그 다음자를 또 모르겠다. … 이 자가 뭔지 누구 알 사람이 없소?》

한문자들에 손을 짚어가며 읽어나가던 검은 두루마기가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누구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젠장, 이렇게도 식자가 없나?》

검은 두루마기는 곁에 서있는 헌 무명저고리를 입은 젊은이에게 이

동네 어느 집에 가서 옥편을 빌려오라고 하였다. 그러자 젊은이가 두 손으로 언귀를 문지르며 푸념하듯 말하였다.

《아니, 어느 집에 가서 옥편을 구해오란 말이오다. 모르면 그저 넘어가소그래. 무슨 과거시험이라고 그리 안달이 나서 그러시오다. 령감님, 그놈 한문자때메 옘병 앓겠소다.》

《하하하…》

군중들속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 젊은이 한마디 말에 열마디 대꾸질을 하누만. 심부름 안 들겠으면 그만둘게지 무스게 말이 그리 많소.》

《아, 령감 됐소. 젊은 사람이 롱담으로 한 말인데…》

《요즘 젊은이들이 버르장머리가 없단 말이웨다.》

검은 두루마기는 노여운듯 눈꼬리를 치켜들고 세차게 혀를 갈기였다. 이윽고 다음글자에 손을 짚은 그는 또다시 머리를 기웃거리였다.

《이 글자는 〈이〉자 같으룩한데 까리까리하다. 〈유〉자 같기두 하구… 개똥같이 모를 글자가 이리 많아…》

검은 두루마기가 화를 내며 너무도 애바르게 투덜거려 녀사께서 가까이 다가가 조용히 알려드리시였다.

《〈유〉자가 아니라 너 〈이〉자입니다.》

순간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녀사께로 쏠리였다.

보통농촌녀인들처럼 수수한 무명덧저고리에 목도리를 두르고 보자기를 든 녀사께서 천자문을 뗐다는 늙은이도 모르는 한문자를 알려주시니 모두 놀라는 기색이였다.

모르는 한문자때문에 화를 내며 애태우던 중늙은이는 놀라기보다 기뻐하였다.

그는 너 이자의 아래와 우에 있는 글자도 모르겠다고 하였다.

《웃글자는 죽 죽자이고 아래것은 문둥이 라자입니다. 로인님께서 다 아시면서 시험을 치십니다.》

녀사께서 웃으시였다.

《아니웨다. 내라는게 어렸을 때 겨우 천자문이나 외운 형편인데 그나마 다 까먹어버려 이런 획이 많은 한자들이야 모르지오다. 저 첫 글자는 무슨 글자웨까?》

두루마기늙은이는 맨 웃글자를 가리키였다.

《그건 〈팔〉자인데 깨뜨리다, 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여덟이라는 수자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여덟 팔자와 통하는 글입니다.》

사람들은 한층 더 희한해하며 수선거리였다. 《요즘 서문밖 객주집에도 글 잘하고 용한 녀의원이 와있다고 하오.》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가만가만, 조용들 하시오. …》

성수가 난 중늙은이가 곁에 서있는 사람들을 밀어제끼며 한자뜻을 풀이해보려고 눈을 쪼프리였다. 《깨뜨릴 팔에… 아니 여덟 팔로 풀어야 될것 같군. … 여덟 팔에 계집 녀에 돌 석, 많을 다, 죽 죽, 너 이, 문둥이 라… 가만, 이게 뜻이 이어지지 않는다. …》

늙은이가 녀사를 돌아보며 의아해하였다. 기실 매 한문자의 뜻은 명백하였으나 일곱자로 된 전체 문장의 뜻은 해득하기가 어려웠다. 전혀 뜻이 이어지지 않았다.

녀사께서도 뜻풀이가 되지 않아 의문스러워하시는데 아까 중늙은이한테 퉁을 먹은 그 젊은이가 《한문의 뜻을 풀이하지 말구 한문의 음자들을 그대로 이어보니 말이 되는것 같수다. 보시오, 〈팔녀석 다 죽이라〉 여기 만화에 그려있는 여덟놈을 다 죽이라는 뜻이 아니오다?》하고 떠들었다.

《딴은 그런것 같애! 하하하, 한문을 한글자도 모르는 무식자가 글풀이를 했구만. … 한문자를 가지고 이런 장난질을 할줄이야 누가 알았겠소.》

중늙은이가 무릎을 치며 순수 한문표음으로 글을 만든것이 틀림없다고 하였다.

《부인님의 생각은 어떻습네까?》

녀사께서도 그럴상싶으시였다. 옛글에도 한문자의 뜻에는 관계없이 순수표음을 써서 풍자한것들이 있었다.

《하하하… 옳거니… 여덟 녀석 다 죽이라! 하하하…》

중늙은이는 그냥 웃어댔다. 이때 술렁거리는 사람들속에서 헌옷을 걸친 한 처녀가 녀사께로 달려왔다.

《어머니!》
녀사께서 깜짝 놀라시였다. 안도로 이사오신 첫날밤, 위경련으로 소동을 일으켰던 정업툰의 처녀였다.
《아니, 이게 누구야, 선옥이로구나!》
녀사께서 거의 본능적인 인정의 분출로 선옥이를 품안에 꽉 안으시였다. 하얀 버선을 신은 선옥이의 짚신발이 눈에 밟히시였다. 넝마옷에 말쑥한 흰 버선은 구색에 맞지 않았다.
군중의 시선이 쏠려 녀사께서는 선옥을 데리고 으슥한 골목길로 들어가시였다.
《그래 그후엔 배가 일없었나?》
《아무 일 없어요. … 어머니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객주집엘 들렸댔는데 장보러 가셨다더군요. … 난 그림구경을 하면서두 어머닐 보지 못했는데 글쎄… 한문글잘…》
선옥은 기쁨에 목이 메여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슴뻑이였다.
《이젠 장마당으로 가자. 그러지 않아 널 한번 만나자고 했다. 네 옷을 한벌 해놓았다.》
녀사께서 장마당이 있는 동쪽골목길을 걸어가며 말씀하시였다.
《어마나, 그렇게 천을 다 쓰시면 어떻게 해요.》
《일없다. 이사올 때 어느 고마운 부자집이 로자로 보태쓰라고 비단천 한필을 주어서 그걸 무명천으로 바꾸면 너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을 몇벌 해줄수 있다. 네 동생의 옷도 한벌 해주련다. … 그새도 너네 오누이가 밥을 굶으며 지냈겠구나.》
《김순애어머니랑 조선녀언니랑 어머니에 대한 말을 많이 하며 저를 친딸처럼 보살펴줍니다.》
밝은 웃음을 짓는 안선옥은 객주집에서 보실 때보다 한결 활기있고 명랑해졌다.
녀사께서는 며칠전 무송반일부녀회원들을 만나시였을 때 김순애에게 한마을에 같이 있는 안선옥이네 오누이를 잘 돌봐주라고 하였는데 김순애는 물론 대흥툰에 있는 조선녀까지 그들을 돌봐주고있다고 하니 녀사의 마음은 기쁘시였다.
녀사께서는 어느덧 장마당앞에 이르시였다. 송강근처뿐아니라

흥릉촌, 로도구, 소사하사람들까지 장을 보러 와서 장마당안이 법석거리였다.

5

점심때가 좀 지나서 녀사께서는 집이 먼 안선옥을 먼저 보내고 무림약방을 찾아 골목길을 걸어가시였다. 점심은 송강시내 남동쪽변두리에 있는 민옥이네 집에서 안선옥이와 함께 하시였다. 민옥이 할아버지 민태감로인은 안도에 와서는 점술업을 그만두고 자그마한 문방구점을 차려놓았다. 로인이 70고령에도 잎돈을 벌어들이는데다 민옥이 어머니는 떡장사를 하여 그 집에서는 괜찮게 살고있었다. 원래 무송에서 점술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약차해서 민로인은 이곳에 오자마자 살림방이 세칸이나 되고 문방구가게점까지 달려있는 기와집을 샀었다.

무림약방은 민옥이네 집에서 초간히 떨어져있었다.

녀사께서 무림약방앞에 이르시였을 때 체구가 름름하고 얼굴도 멀쑥한 젊은이가 약방매대에서 몇명의 고객들과 이야기를 하고있었다. 그는 손님들에게 약선전을 하고있던중인지 녀사를 띠여보자 대뜸 《어머닌 무슨 약을 사시렵니까? 보아하니 얼굴에 병색이 도는데 병이라는건 시초에 약을 써서 고쳐야 합니다.》하고 좋은 약이 많으니 사가라고 하였다.

녀사께서는 그가 시동생과 함께 무림약방을 경영하는 오방원이라고 짐작하였지만 짐짓 정색을 짓고 말씀하시였다.

《난 의원선생한테 병을 보이러 왔소. 의원실이 어데 있는가요?》

《예, 그래요? 저기 저 나무쪽문을 열고 들어가면 됩니다.》

오방원은 매대 한쪽옆으로 나있는 문을 가리켰다.

녀사께서는 매대앞을 돌아 의원실로 들어가시였다.

한쪽벽에 퇴창문이 달려있는 자그마한 방에 등받이가 없는 몇개의 나무의자와 간소한 의료기구들이 놓여있었다. 흰 위생복을 입으신

김형권동지께서는 나무침대에 웬 남자를 눕혀놓고 배에다 동침을 놓고있었다. 누워있던 중년사나이가 긴 트림을 하더니 《동침을 꽂으니 저리 속이 쑥 내려가누만.》하고 중얼거리였다.

《이젠 됐습니다. 먹은 음식이 일시 걸렸댔으니 별일 없을겝니다. 그런데 손님은 음식조절을 잘하고 술을 안 마셔야 합니다.》

《눈앞에 술이 보이는데 어떻게 안 마실수 있습니까. 콩닦은것과 술병, 기생첩을 옆에 놓고는 못 견딘다고 하지 않나요, 허허허.》

침대에서 일어난 환자는 껄껄 웃으면서 주머니에서 지전 한장을 꺼내였다.

《동침 한대 놓아주고 무슨 돈을 받겠습니까.》

환자의 등을 밀어내보낸 김형권동지께서 소독약물에 손을 씻고 돌아서다가 녀사를 띠여보고 반색을 지으시였다.

《아니, 형수님이?!》

《장도 보고 적은이네 약방도 구경할겸 왔어요. 이른아침에 여길 들렸댔는데 빈지문이 닫겨있어 그냥 지나갔어요. … 그런데 때식이랑은 제대로 끓여자시는가요?》

녀사께서는 의원방을 둘러보며 다심히 물으시였다.

《예. 우리들끼리 대수 끓여먹습니다. 어서 여기 앉으십시오.》

김형권동지께서 등받이없는 의자를 녀사께 가져다드리였다.

《적은이 일을 방해시키지 않고 한가지만 잠간 알아보고 가겠어요.》

녀사께서는 안식관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아침에 보신 만화이야기도 하시였다. 그 소문은 한나절새에 온 시내에 퍼져서 김형권동지께서도 이미 알고계시였다.

《웬 아주머니가 누구도 모르는 한문자를 알려주었다는 말을 듣고 혹시 형수님이 오시지 않았는가 했는데 제 짐작이 맞았구만요.》

《나서지 않으려고 했는데 글자를 몰라 너무 안타까와들 해서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만화를 락서한 사람이 누구일가요?》

《예. 그게 누구인지 여기 조직원들도 전혀 짐작이 안 간다고 합니다.》

벽의 절반면을 가득 채운 복잡한 대형벽화를 그리자면 아무리 서둘러도 두세시간품은 실히 들었을것이다. 밝은 낮에는 할수 없는 락서여서 밤에 그린것이 분명한데 어둠속에서 어떻게 그런 세부묘사들을 할수 있었겠는가. 게다가 보위단원들이 두시간에 한번씩 야경을 돌기때문에 아무리 밤이라도 그처럼 품이 드는 락서를 하기는 어려운 일이였다.

《만화락서도 놀라운 일이지만 송강에 무송의 안식관과 같은 식당이 있으니 참 별일이예요.》

《예. 저도 이번에 와서 그 식당을 보구 여간 놀라지 않았습니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이곳 안식관주인도 혹시 도복음이와 같은 일본간첩이 아닌가싶어 바로 그저께 저녁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았다고 하시였다.

안식관주인 김광문은 정의부 교육부와 련계를 가지고 교육사업을 하던 혁신파민족주의자였다. 흥륭촌에 맨먼저 반서당형식의 사립학교를 세우고 교육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김광문이였다. 그후 정의부의 보수파민족주의자인 조희재가 흥륭촌에 오게 되자 김광문은 그에게 스스로 교육사업을 인계하고 멀찌감치 송강으로 이주하여 료리점을 경영하였다.

김광문은 조희재와는 이전부터 사이가 좋지 못했기때문에 그가 나타나자 같이 있기가 싫어 일부러 자리를 피한것이였다. 조희재도 훈장질을 얼마 하다가 류호라는 사람이 나타나자 교육사업에서 손을 떼고 대흥툰으로 자리를 옮겨 물북지역에 여러 자치단체들을 꾸려놓고 총재의 자리에 올라앉았다.

조희재와 류호는 1906년 가을 서울에서 박은식, 리갑을 비롯한 애국적인 지식인들이 서부지방출신들로 서우학회를 조직하였을 때 그 학회의 평의원으로 있던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였다. 그들은 그때부터 서로 의가 맞지 않아 어울리지 못했었다.

이렇게 흥륭촌학교는 몇년사이에 교원이 세번이나 바뀌게 되였다. 슬픈 망명생활을 하며 여기저기 방향없이 굴러다니다가 우연히 한곳에 모여들게 된 류호, 조희재, 김광문은 서로 소원했던 과거의 감정

이 그대로 련속되여 여기서도 호상 곁을 주지 않고 살았다. 세월이 갈수록 그들의 사이는 더욱더 버성거렸다. 하지만 그들이 직접 마주앉아 싸우는 일은 거의 없고 뒤에 돌아앉아 서로 헐뜯기내기를 하였다. 간접적으로 듣는 욕설은 신경을 더 자극한다.

김광문이 사회운동에서 손을 떼고 식당영업으로 돌아설 때에도 조희재에 대한 험담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조희재라는 량반이 사회운동이요 뭐요 하고 소리치며 애국자인양 하지만 실상은 순진한 동포주민들에게서 돈과 쌀을 옭아먹는 위선자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에게 먹는것을 봉사하는것이야말로 가장 리롭고 안전한 성업중의 성업이라고 하였다.

처음에 소규모의 료리점을 운영하던 그가 《안식관》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큰 식당을 경영하게 된데는 사연이 있었다.

최진용이 안송(안도—무송)총관을 할 때 이곳에 와서 김광문이한테서 음식대접을 받으면서 무송 안식관주인 도복음에 대하여 인도주의자이니 애국자이니 하고 요란스레 선전을 하였다고 한다. 최진용의 선전에 충격을 받은 김광문은 도복음에 못지 않는 인도주의적인 훌륭한 식당을 경영하여 인기를 모아볼 생각을 하였다. 그것은 류호와 조희재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였다. 그는 2년동안 고심분투한 끝에 드디여 이해 설날을 계기로 안식관을 개업하였다.

김광문의 안식관은 첫날부터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음식값을 눅게 정하고 료리를 깨끗하고 맛있게 하였으며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겐 특별봉사를 하고 게으른자, 건달뱅이들에게는 개미처럼 부지런하도록 일깨워주었다.

《최진용선생은 그림까지 그려가며 무송의 안식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던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도복음이 일본간첩이였던 사실을 자상히 이야기해주니 그는 낯이 새까맣게 질리더군요. 그 사람은 여태 도복음이가 살아서 식당경영을 하고있는줄 알고있었습니다. 최진용선생이 고향으로 돌아간것도 모르고요. 그는 내앞에서 〈일본간첩의 흉내를 낸 이놈의 집을 콱 허물어버릴테다. 내가 미친 짓을 했군.〉 하고 화를 냈습니다.》

김형권동지께서는 기가 막힌듯 긴숨을 쉬시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새삼스레 최진용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였다. 함경남도 홍원출신인 그는 원래 몸을 아끼고 말에 비해 실천성이 없기때문에 김형직선생님으로부터 여러번 추궁을 받았지만 잘 고쳐지지 않았다. 명색이 안송총관이란 사람이 교통이 불편한 안도에는 단 한번밖에 와본적이 없는것 같았다. 그나마 료리점에서 술대접을 받으며 안식관자랑이나 하고 돌아간 모양이였다.

그는 장작림폭사사건이 있은 후 이제는 늙어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김광문은 아직도 그가 안송총관을 하고있는줄로 알고있었다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였다.

녀사께서는 이곳 안도지구가 무송지구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시였다. 류호, 조희재, 최동화와 같은 영향력이 큰 인물들의 분파활동으로 하여 군중들은 사분오렬되여있고 무한장, 왕방초를 비롯한 지주, 보위단, 경찰, 관헌들의 탄압에 눌리워 기를 펴지 못하고있었다.

현재 안도지구의 혁명조직은 너무도 미약하였다. 녀사께서 며칠 료해하여본데 의하여도 여기 조직원들은 수적으로도 적은데다 알맹이를 똑똑히 쥐지 못한채 덤벙덤벙 지내고있는것 같으시였다.

조직에서 쥐여야 할 알맹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군중을 장악하고 쟁취하는것이였다. 그런데 우리 조직원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 겉으로 빙빙 돌아가고있었다. 그러다보니 만화락서와 같은 큰 사건이 벌어져도 그 장본인이 누구인지 전혀 짐작조차 못하고있었다. 군중속에 깊이 들어갔다면 안식관의 주인 김광문에 대해서도 이미 파악할수 있었을것이다.

녀사께서는 심중한 표정을 짓고 말씀하시였다.

《여기 주민들은 모두 반일감정이 강하지만 단합이 못되고있어요. 길림조직에서는 주민들을 단합시켜 안도지구를 애국화하라고 우리를 여기로 보냈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에는 핵심조직원들이 다 모여서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 의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형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시급히 회합을 한번 가집시다.》

문득 울리는 손기척소리에 두분의 대화가 끊어졌다. 세명의 손님

이 의원방으로 들어왔다.

《환자들이 오는데 어서 일을 보세요.》

녀사께서는 손님들이 듣지 못하게 회합날자는 후에 토론해서 정하자고 이르고 의원방을 나서시였다. 그이를 따라나오신 김형권동지께서 약방에 서있는 오방원의 어깨를 치며 《이보게, 내 늘 말하는 우리 형수님일세.》하고 녀사를 소개하시였다.

《그렇습니까?》

오방원은 눈을 치뜨며 놀라와했다.

《전 그런것도 모르고… 사모님, 그런데 왜 벌써 가십니까?》

《가까이 있으니 앞으로 자주 만나겠는데요.》

녀사께서는 고개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오시였다.

겨울하늘은 뜨물빛처럼 흐려있었다. 차고 매운 바람이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녀사께서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안식관쪽을 돌아보시였다. 검은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그 주변에서 뭐라 소래기를 지르며 왔다갔다 하였다.

6

강반석녀사께서는 한낮이 훨씬 기울어 객주집에 도착하시였다. 주인집녀인들은 점심설겆이를 마치고 련이어 저녁차비를 하고있었는데 정지칸에 낯모를 두 녀인이 앉아있었다.

그중 한 녀인은 까만 명주두루마기에 양털목도리로 겨울옷차림을 깔끔하게 하였으나 다른 한 녀인은 누덕누덕 기운 헌옷에 꿰진 버선을 신고있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어서 점심을 드세요.》

피쌀을 일고있던 백춘화가 이남박에 떠있는 까끄라기를 건져내며 녀사께 하는 말이였다. 부뚜막안쪽에 흰 보자기를 덮은 개다리밥상이 놓여있었다. 녀사의 점심상인것 같았다.

《지금이 어느때라고 아직 점심을 못 먹고 다니겠어요. 송강에서

철주 삼촌도 만나보고 아는 집에서 점심을 푸짐히 대접받고 왔어요. 참 접때 이 집에서 자고간 정업툰처녀를 만나서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아니, 그 앨 어디서 만났소다?》

아궁에 불을 지피던 김씨가 허리를 펴고 일어섰다.

녀사께서는 그를 만나신 이야기를 간추려 하시고 정지방으로 올라가시였다.

《오늘은 녀손님들이 많이 오셨군요.》

녀사께서는 정지방에 앉아있는 두 녀인에게 고개인사를 하며 보짐을 내려놓으시였다. 그 녀자들은 객주집에 숙식하러 온것이 아니라 녀사께 옷감을 맡기러 온 손님들이였다.

《강녀사입니까? 조춘희라고 합니다.》

명주두루마기를 입은 녀자가 앉은자리에서 상체를 약간 들면서 고개를 숙여보이였다. 이제 스물네댓났음직한 젊은 녀자인데 닭알형의 희고 말쑥한 얼굴은 웃음 한점 없는 도고하고 새침한 표정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정중히 일어나서 절을 하고 엉거주춤 서있는 녀인의 얼굴은 누데기같은 옷을 걸치고 찾아온것이 부끄럽고 민망스러워서인지 잔뜩 주눅이 든 기색이였다. 서른예닐곱 되여보이는 나이지숙한 녀인이였다.

《바느질감들을 내놓으세요. 제 재간으로 할수 있는것이면 해드리겠어요. … 앉으세요. 왜 그렇게 서계세요.》

녀사께서는 서있는 녀인을 앉히시고 바느질감들을 보시였다.

《본가어머니의 치마저고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조춘희가 보자기를 풀고 눈같이 흰 비단천을 들어보이였다. 치마저고리 한벌감으로는 천이 많아보였다.

《웬 천을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두벌 지으시려는가요?》

녀사께서는 명주천을 쓸어만지며 물으시였다.

《아니예요. 한벌을 짓고 남은 천은 삯값으로 내려고 해요.》

그때 안도에서는 천으로 등가교환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명주치마저고리 한벌감천이면 옷짓는 삯값으로는 어방없이 높은것이였다. 곁에 앉은 가난한 녀인은 불시에 눈이 덩둘해서 안절부절하였다. 그

엄청난 삯값에 경악하는 모양이였다.
녀사께서 웃으며 말씀하시였다.
《치마저고리 한벌을 짓는데 무슨 삯값을 그리 많이 내겠어요. 본가집어머니는 지금 년세가 얼마인가요?》
옷이란 나이와 체격에 어울리게 지어야 하기에 녀사께서 물으시는것이였다.
《올해 갓 쉰입니다. 제 몸을 보고 옷을 지으면 될거예요.》
조춘희는 녀사의 손을 내려다보며 말하였다. 그 녀자는 트고 구불고 악마디진 녀사의 손을 보며 의아해하는것 같았다. 학식이 있고 병잘 고치는 명의로 소문을 낸 녀인의 손이 왜 저렇게 농군의 손같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값진 약을 써가며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자선가가 무엇때문에 천스러운 삯바느질을 하는것일가? 하고 많은 의문을 굴리고있는듯 했다.
하기는 조춘희가 여기로 찾아온데는 옷을 지으려는 목적보다 여러가지 기이한 소문을 내고있는 강반석녀사란 도대체 어떤 녀성인지 알아보려는 마음이 더 컸었다.
《저의 아버진 삯값을 넉넉히 드리라구 몇번이나 당부했어요. 그러니 사양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조춘희는 여전히 강반석녀사의 손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말하였다. 그러자 김씨가 고개를 끄덕거리며 께끼였다.
《저 새애기 아버지가 참 어른이지오다. 본가집도 그래, 시집도 그래 드르르하오다. 우리같은것들과는 다르지오다.》
《친가부모들이 어디 계신가요?》
녀사께서 물으시였다.
《저의 본가는 대흥툰에 있습니다. 조희재라고… 본가아버지는…》
조춘희는 불시에 놀라시는 녀사의 얼굴빛을 일별하고 하던 말을 뚝 끊었다.
《조희재선생이 본가아버지예요?》
불현듯 녀사께서는 이날 아침에 보신 대형만화가 눈앞에 떠오르시였다. 이곳 주민들을 사분오렬시키고있는 안도의 세 명물들중의 한

사람이 조희재라고 하였다. 그가 거처하고있는 대흥툰은 서문밖마을에서 20리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흥륭촌 다음으로 큰 마을이였다. 그곳에는 무송반일부녀회원 조선녀가 있었다.

《저희 아버질 아십니까?》

《만나뵌적은 없지만 성함은 많이 들었습니다. 시부모님들은 어디 계신가요?》

녀사께서는 조춘희의 얹은 머리에 꽂힌 금비녀를 보며 물으시였다.

《예, 봉천에 계십니다.》

《봉천에요?… 먼 도회지에서 본가집나들이를 오셨군요.》

녀사께서는 본가에 무슨 대사라도 있어 나들이를 왔는가고 물으시였다.

조춘희가 선뜻 대답을 못하고 머밋거리는데 김씨가 《저 새애긴 송강에 있소다.》하고 삐치고는 그의 남편이 송강에서 손꼽히는 목재상이라고 하였다. 여기 서문강에 무어 내려보내는 떼들은 거의다 조춘희의 남편이 주관하는 목재라는것이였다. 남편이 목재계약을 하러 사처에 돌아다니기때문에 조춘희는 늘 본가집에 와있다고 하였다.

《봉천에 계시는 시아버지두 큰 공장을 가지고있는 어른이시오다. … 송강에 있는 안식판두 새애기 남편한테서 돈을 받아가지고 지은 집이오다.》

자본과 인격을 동일시하는 김씨는 춘희네 시가자랑을 하며 떠들어댔으나 본인은 비위에 거슬리는지 반죽좋은 객주집늙은이에게 눈을 할깃하고는 새초롬히 고개를 돌리였다. 눈치빠른 백춘화가 시어머니의 옆구리를 찌르며 무어라 소곤거리였다. 잘 알지도 못하는 남의 집안일에 대해 새없이 삐치지 말라고 주의신호를 하는것 같았다.

녀사께서는 조춘희의 보자기에서 명주천을 꺼내며 말씀하시였다.

《내 바느질솜씨가 변변치 못해요. 하지만 정성껏 지어보겠어요. 두벌감을 가져왔으니 본가어머니와 시어머님께 다 입혀드리도록 두벌을 지읍시다.》

조춘희는 시어머님한테는 명주치마저고리가 여러벌 된다고 하면서 한사코 옷 한벌감천을 삯값으로 내겠다고 하였다.

《시어머님께 옷이 많아도 며느리가 지어보내면 아주 기뻐하실거예요.》

강반석녀사께서는 조춘희의 뒤에 불안스럽게 앉아있는 녀인에게 시선을 돌리시였다. 《그 집의 옷감도 봅시다.》

그 녀인은 무릎에 얹혀있는 헌 보짐을 풀지 못하고 주무럭거리였다. 조춘희의 명주천옷감에 비하면 너무도 보잘것없는 옷감을 차마 내놓기가 부끄러워서였다.

《참, 그 집에선 어디서 오셨는가요?》

《저두 대흥툰에서 왔소다. … 조희재선생님 계시는…》

녀인은 송구스레 조춘희를 얼핏 스쳐보고는 더듬거리였다. 대흥툰의 녀인이라면 조춘희와 아는 사이겠는데 그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데면데면하게 앉아있었다. 대흥툰녀인은 한참 좀자르다가 헌 보자기를 풀며 자기는 추위막이등거리를 지으러 왔다고 하였다. 그의 헌 보짐안에는 여러번 빨아서 다 헐어빠진 발이 굵은 아마천이 있었다. 처서판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입힐것이라고 하였다.

《헌 천일수록 바느질을 곱게 해야 합니다. 내 몇집 돌아보니 바느질을 할 실조차 없는 집들이 있어요. 나한테 솜이 좀 있으니 솜을 넣고 잘 만들어보자요. 무명등거리와 아마천등거리 두벌을 지어드리겠어요.》

녀사께서 아마천을 들어 조춘희의 비단천옆에 놓으시였다. 조춘희는 헐어빠진 아마천의 먼지가 묻을가봐서인지 자기 비단천을 멀리 티여놓았다.

녀사께서는 그의 행동이 마음에 거슬리였으나 내색을 하지 않고 대흥툰녀인에게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오늘 밤중으로 옷을 다 만들어놓겠어요. 주인이 산판에서 얼마나 춥겠어요.》

녀인은 고마와할 대신 당황해하였다. 아마천등거리 한벌값을 치를만 한 돈도 변변히 마련하지 못한 그는 무명과 솜을 살 형편이 못되였던것이다.

《고맙소다. 그런데 제겐 돈이…》

《돈걱정은 하지 마세요. 바느질값과 천값은 이다음 나라를 찾고 아주머니의 살림이 쭉 펴이게 될 때 물겠으면 무세요.》

녀사께서 인자하게 웃으시였다.

녀인은 검버섯이 한벌 돋은 여윈 얼굴에 어정쩡한 기색을 지은채 류달리 큰 두눈을 꺼벅거리며 멀긋멀긋 녀사를 쳐다보았다. 삯값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잘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였다. 녀사께서는 안방에 들어가 긴 나무자와 연필과 쪼박종이 두장을 들고 정지방으로 나오시였다.

《자, 여기다 집주소와 이름들을 쓰세요. 여러 사람들한테서 옷감을 받기때문에 헛갈리지 않도록 주소성명을 쓴 종이쪽지들을 붙여놓자고 해요.》

조춘희는 얼른 연필을 받아 무리 조, 봄 춘, 녀자 희자를 쓰고 그 밑에 《안도현 대홍툰 조희재 집》이라고 주소를 밝히였다. 그리고 연필을 곁에 앉은 녀인에게 넘기였다.

《아이구, 내사 까막눈이오다.》

그 녀자는 자기 몸에 불똥이라도 튀여오는것처럼 덴겁하여 웃몸을 뒤로 젖히며 손을 내저었다. 그는 헌옷을 입은데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만 글을 모르는것은 마치 응당한 일인것처럼 조금도 수치감을 느끼는것 같지 않았다.

《앞으로 글을 배워야 하겠어요. 저 벽을 좀 보세요.》

녀사께서 가갸표를 써붙인 바람벽을 가리키시였다. 그것은 녀사께서 글을 모르는 객주집녀인들을 위해 친히 백로지에 붓글을 써서 붙이신것이였다. 한주일째 밤마다 짬을 내여 배워주시여 백춘화와 장영숙은 받침이 없는 글자들은 읽을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녀사께서는 객주집녀인들뿐아니라 그동안 모든 서문밖마을사람들과 접촉하면서 환자가 있으면 정성껏 병도 보아주고 글을 배우라고 가갸표도 써주시였다. 그리고 가난한 녀인들이 부녀친목회같은 자치녀성단체를 뭇고 서로 도우며 한식솔처럼 살아가도록 따뜻이 일깨워주시였다. 녀사의 미덕에 감탄하여 마을의 늙은이들까지도 그이를 보기 드문 녀중군자(덕행이 높은 녀자)라고 하면서 길가에서 만나도 허리굽혀 인사를 올리였다.

녀사께서는 대흥툰녀인에게 정겹게 말씀하시였다.

《내가 가갸표를 베껴줄테니 그걸 가지고가서 글을 아는이들에게 찾아가 짬짬이 배우세요. 우리 나라를 찾고 좋은 세상을 만들자면 녀자들도 글을 알아야 해요. 대흥툰에는 조선녀라는 처녀가 있으니 그 처녀한테서 글을 배워달라고 하세요. 참, 조춘희아지미한테 배워도 되지요. 오늘은 내가 대신 손님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드리겠으니 부르세요.》

그 녀자는 대흥툰 돌배나무집 홍씨로 적어달라고 하였다. 그에게도 이름이 없었던것이다.

녀사께서는 홍씨네 남자형제들이 주자돌림이라고 하여 홍주향으로 이름을 지어주시고 종이쪽지에 《안도현 대흥툰 홍주향》이라고 써서 보여주시였다.

《이름이 이렇게 생겼으니 잘 보세요. 한문으로 풀이하면 주향은 부을 주자에 향기 향자 즉 향기를 부어준다는 뜻입니다. 이 글종이는 주향아주머니가 가지고다니며 보세요.》

종이쪽지를 받아든 녀인은 녀사의 따뜻한 인정에 가슴이 젖어들어 《고맙소다.》하고 눈을 슴벅거리였다.

조춘희는 여전히 새침한 얼굴을 하고 까딱없이 앉아있었다.

이윽고 녀사께서 옷주문자들이 가지고온 천의 치수를 재여보려고 하시는데 느닷없이 부엌문짝이 와지끈거리더니 누런 외투에 털모자를 쓰고 장총을 멘 세명의 보위단원이 부엌으로 쓸어들었다. 뒤따라 보통보위단원들과는 다른 고급황색모직외투를 입은 왕방초가 안경알을 번뜩이며 들어섰다.

녀인들은 모두 소스라쳐 놀랐다.

《마춘욱이 어디 있는가?》

《예, 옆산에 사냥을 나갔소다.》

왕방초의 사나운 기상을 보고 김씨는 대번에 기가 죽었다.

《한가하게 사냥놀이만 다니는가?》

《놀이하는게… 아니지오다, 손님들… 음식감을… 저, 안주감이랑 마련하느라…》

《마춘욱이 일하는 방이 어딘가?》

《저기 뒤고방이오다. 안방으로 들어가… 있수다.》

김씨는 사람을 파리죽이듯 하는 왕방초가 무슨 일로 자기 아들을 찾는지 영문을 몰라 사시나무떨듯 했다. 백춘화도 겁에 질려 눈이 화등잔처럼 되여 서있었다.

《뒤고방에 들어가 글 쓴 종이나 공책이 있으면 다 가지고 오라!》

왕방초가 장총을 멘자들에게 고개짓을 하자 그중 한놈이 군화를 신은채로 정지방으로 올라가 안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정지방에 앉아있는 녀인들을 훑어보던 왕방초의 살모사눈알이 강반석녀사의 시선과 마주쳤다.

《아, 강부인이시로군. 부인은 오늘 아침 송강성안에 가시지 않았댔나요?》

왕방초는 한결 부드러운 어조로 물었다. 그러나 역시 느닷없는 질문이였다.

《예, 장보러 갔다가 조금전에 돌아왔어요.》

《안식관벽에 락서한 그림을 보셨지요? 거기 씌여있는 한문자를 웬 녀인이 읽어주었다는데 혹시 부인이 아닌가요?》

《예, 한문자를 몰라 모두 안타까와하기에 알려주었어요.》

《우리는 락서자를 색출하려고 송강시내는 물론 주변농촌마을들에 대한 가택수색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니 실례이지만 부인님의 글씨도 좀 보아야 하겠습니다. 글자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검토받아야 합니다.》

왕방초는 피를 본 굶주린 승냥이처럼 진정을 못하고 정지방을 왔다갔다하였다. 방바닥에는 보위단원들의 목구두발자국과 왕방초의 장화발자국이 여러군데 찍혀있었다. 눈가루와 흙이 묻은 어지러운 신발로 정지방과 안방을 마구 걸어다니는 이들의 무례한 행패에 녀사께서는 분격을 참을수 없으시였다.

《여기는 신을 벗고 다니는 방이요. 우리는 이 방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소. 그런데 소똥, 말똥을 밟고다니던 그 군화로 방바닥을 밟고 다니면 되겠소? 나라와 백성을 보위한다는 보위단원이 그런 란폭한 행위를 하면 되는가.》

왕방초의 찡그린 얼굴에 괴이한 웃음기가 떠돌았다.

《적대자들에게 우리의 정치가 무자비하며 반항자들에게 우리의 법이 무섭고 엄하다는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강부인은 만민에게 인도주의를 하라는건데 누가 누구를 하는 정치에서 사실상의 인도주의는 통하지 않습니다.》

왕방초는 누빈 얼굴을 하고 방바닥에 찍힌 자기의 장화발자국을 내려다보며 계속하였다. 《우리 공자님과 맹자님도 덕으로 정치를 하라고 했지만 그건 지상공론이고 망론이요. 사실상 덕치를 해서 성공한 정치가는 력사에 없습니다. 백성들속에 적대자, 반항자가 숨어있는데 어떻게 덕치를 하는가. 필요없소, 총살해야 하오. 창비!》

왕방초는 돌연 손을 쳐들며 고함을 질렀다. 그리고는 방안의 녀인들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가라앉히였다.

《방안에서 군화를 신고다니는 우리를 원망하지 말고 만화락서를 하는 놈들, 붉은 마귀들, 반항자들을 원망하시오. 그놈들때문에 이런 행패를 당하는거요. 이 이상 더 긴 설명을 할 시간이 없으니 여러말할것없이 부인의 글체를 좀 봅시다. 내놓으시오.》

왕방초는 손을 흔들면서 불같이 재촉하였다. 녀사께서는 흔들어대는 그자의 손을 쳐갈기고싶은것을 가까스로 참으시였다. 문득 방금전에 홍주향의 주소와 이름을 쓰신 글쪽지가 생각나 그것을 왕방초에게 내미시였다.

《이게 방금 내가 쓴 글씨이니 어서 보세요.》

왕방초는 글쪽지를 받아서 한참 들여다보더니 외투주머니에 찔러넣었다. 전문가들을 불러다 글씨검토를 하고있기때문에 가지고가야 한다는것이였다.

《저 녀자는 누구요?》

왕방초는 놀란 얼굴을 하고 앉아있는 조춘희에게 손가락질을 하였다. 조희재의 딸이라고 하자 그는 입을 씰그리며 중얼거렸다.

《조희재의 딸?… 딸이 제 아버지의 만화야 그리지 않겠지.》

조춘희는 왕방초의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어리둥절해하였다. 대흥툰본가집에서 곧장 여기로 온 그 녀자는 만화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고있었다.

왕방초는 누데기옷을 걸친 홍주향을 보고는 어디에서 왔는가, 글을 쓸줄 아는가 꼬치꼬치 캐여물었다.

뒤고방에 들어갔던 보위단원이 누런 뚜껑을 한 공책 한권을 들고 나왔다. 마춘욱의 물건이였다.

《이 사람의 수준에선 그런 고급한 락서를 하지 못해! 그러나 공책은 가지고가자. 하긴 만화락서는 어느 한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협동공작을 한거야.》

왕방초가 공책을 들여다보고 보위단원들에게 하는 말이였다. 이윽고 그는 안방을 기웃이 들여다보면서 녀사께 자제분들이 어디에 갔는가고 물었다. 그는 글을 아는 사람이면 소년이건 늙은이이건 관계없이 다 검토해보려는 모양이였다.

《그 애들은 강판에 나가 노는것 같아요.》

왕방초는 자제분들이 쓰는 공책까지 걷어가지고나왔다.

《이 집 식모는 어디 있는가?》

왕방초는 부엌에 서있는 김씨와 백춘화를 번갈아보았다.

《식모는… 처서판에서 일하는… 제 서나한테… 찾아갔소다. … 통버선이 다 해졌대서… 통버선 한컬레 지어가지구 갔소다.》

김씨가 겁에 질려 떠듬거렸다. 드살이 센 녀인이 왕방초앞에서는 고양이와 맞다든 쥐처럼 오금을 못 펴고 바들바들 떨었다.

《통버선? 요즘 알게 됐는데 식모의 남편도 나쁜 놈이야. 이름이 곽청도지? 최동화네 무산혁명단패야. 여기 객주집을 타도해버리겠다는 놈이야. 객주집주인들은 자기 네편네를 종으로 부려먹는 착취자라는거요. 곽청도도 이제 잡아다 심문해보고 총살해버리겠소. … 손님방에 사람이 있는가?》

왕방초는 손님방의 쪽문을 가리켰다.

《점심을 먹구 다 나가구… 두사람이 누워있는것 같소다.》

김씨의 목소리는 한층 더 떨리였다.

《어떤 자식이 누워 자는가?》

왕방초는 쪽문을 발로 차서 열어젖뜨리고 손님방으로 들어갔다. 장총을 멘 두 보위단원도 왕방초가 하는 본새대로 군화발채로 따라들어갔다.

네개의 방을 터쳐서 통방으로 만든 길게 련결된 손님방은 휑뎅그렁하였다. 농군복차림의 두 남자가 텅 빈 방 한복판에 목침을 베고 누워있었다. 한사람은 수염이 더부룩한 텁석부리이고 다른 한사람은 스무살도 안돼보이는 애된 젊은이였다.

두사람은 다 술에 취해 곯아떨어져있었다.

《네놈들은 대낮에 일도 하지 않고 자빠져 잠만 자고있는가? 일어나라!》

왕방초는 세상모르고 자고있는 텁석부리의 허리통을 장화발로 들이찼다.

《어이쿠!》

장화코숭이에 허리를 채운 텁석부리는 신음소리를 내며 돌아누웠다.

《일어나라! 이 자식아!》

장총을 멘 보위단원이 왕방초의 본을 따서 텁석부리의 허리통에 발길질을 하였다. 《이 자식아! 지금이 어느땐데 자빠져 자는가, 이 게으름뱅이야.》

보위단원이 이번에는 군화발로 텁석부리의 엉뎅이를 들이찼다. 그는 조선말을 모르는지 중국말로 소리를 쳤다.

아직 잠이 깨지 않은 게슴츠레한 눈으로 보위단원을 올려다보던 텁석부리가 《이 간나새끼, 남이야 자든 말든 내 밥먹구 자는데 네놈이 무슨 상관이야.》라고 중국말로 마주 소리쳤다. 중국말을 괜찮게 번지는 사람이였다. 보위단원에게 감히 쌍욕을 퍼붓는것은 술에 취한자의 한갖 만용에 불과했다.

《이 자식 뭐가 어째? 너 누구한테 이놈저놈 하는거야.》

보위단원이 총탁으로 텁석부리의 잔등을 내리쳤다.

《어이쿠!》

텁석부리는 등뼈를 만지면서 끙끙 갑자르는 소리를 내다가 스르르 눈을 감더니 드렁드렁 코를 골았다. 모든 신경과 감각이 마취되여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것 같았다.

《개새끼들, 개같은 새끼들…》

텁석부리는 잠꼬대를 하며 푸푸 입김을 불었다. 그의 옆에 누워있

던 애숭이는 매를 한대도 맞지 않았지만 옆에서 고아대는 바람에 술기운이 말짱 가셔진듯 눈을 뜨부럭거리였다.
《이놈이 보위단원을 보고 이놈저놈하는걸 보니 심상치 않아… 어디 네가 좀 말해봐라. 네놈들이 안식관에 만화락서를 했지, 엉?》
텁석부리의 거동을 한참 눈여겨보던 왕방초가 공포에 질려있는 어린 청년에게 다가서며 물었다.
《만화락서라는게 무스게오다?》
어질고 순박한 청년은 왕방초의 말뜻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텁석부리가 《쌍 개새끼들… 만화락서라는게 무슨 말라빠진 소리야… 우리를 못살게 구는 놈들 다 죽이라! 개새끼들.》하고 중얼거리였다. 술에 노그라져 잠을 자면서도 신기하게 왕방초의 말을 다 알아들었다.
《다 죽이라? 이놈이 진짜 수상한 놈이다.》
왕방초가 급히 외투단추를 벗기고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들었다.
《수상하다, 수상해. … 이 박치근이 수상하구말구… 세월을 잘못만나 그러지 네깐놈들을 그저…》
텁석부리는 그냥 쑹얼거리였다.
《이놈의 자식이 술취한양하며 야료까지 부려?》
왕방초는 주먹으로 텁석부리의 면상을 쥐여박고나서 권총구멍을 그의 이마빡에 가져다댔다. 그제야 텁석부리가 조금 정신이 들었는지 눈이 뗴꾼해서 왕방초를 올려다보았다.
《너 만화락서했지? 공산당이지?》
《아까부터 만화락서라는건 무슨 도깨비같은 소리야? 그래, 내가 했다. 어쩔테냐?》
《야 형님, 이러지 말아요. 죽어요, 죽어…》
겁에 질린 애숭이청년이 울상이 되여 텁석부리의 몸을 흔들어댔다. 그리고는 왕방초의 장화발을 붙들고 사정을 했다.
《이 형님은 술마시면 제정신이 아니오다. 그런 못된 버릇이 있소다. 용서해주오다.》
《야, 너 뭘 그렇게 무서워해! 이것들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야. 개새끼들, 다 죽이라, 다 죽여!》
왕방초의 어칠한 고함소리와 거의 동시에 땅! 하는 요란한 총성이

울리였다.

《어이쿠!》

겁에 질려있던 어린 청년이 총소리에 놀라 넉장거리를 하였다. 정지방의 녀인들이 모두 비명을 지르며 손님방 쪽문으로 몰려왔다.

녀사께서도 여간 놀라지 않으시였다. 어지럽게 뛰노는 가슴을 붙안고 손님방으로 뛰여올라가시였다.

매캐한 화약내가 풍기였다. 뒤로 나자빠진 청년은 눈을 까뒤집은채 까딱없었다. 기절하여 넘어진것 같았다.

텁석부리는 얼이 빠져 멍청히 누워있는데 그의 팔굽옆 방바닥에 시커먼 구멍이 뚫려있었다. 왕방초가 방바닥에 대고 총을 갈겼던것이다.

혼절했던 청년은 인차 깨여났으나 눈알이 곧아진채 아무 말도 못하고 온몸을 떨기만 하였다.

《이놈들을 묶으라!》

왕방초가 권총을 쥔 손을 내저으며 고함을 지르자 보위단원들이 외투주머니에서 굵은 삼노끈을 꺼내여 종이퉁구리를 묶듯이 텁석부리의 몸뚱이를 꽁꽁 묶었다. 그들은 청년의 몸도 그런 식으로 묶어놓았다.

《나가자!》

보위단원이 총탁으로 텁석부리의 잔등을 찌르며 소리쳤다.

요란한 총소리에 일순 놀라서 얼빠진듯이 앉아있던 텁석부리는 《어서 날 잡아잡수시우, 살고싶지 않소.》하고 묶이운 몸을 뒤채이며 소리질렀다.

《이 자식 아직 속이 살아서 기승을 부려.》

보위단원이 총탁으로 텁석부리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다. 팔과 몸뚱이를 한데 묶이운 텁석부리는 절구통이 넘어지듯 방바닥에 나동그라졌다. 대번에 그의 코에서 걸죽한 피가 흘러내려 입언저리의 수염을 검붉게 적시였다.

《이게 무슨짓이요?》

녀사께서는 자신도 모르게 보위단원들의 앞을 막아나서시였다.

《너는 뭐야. 같이 죽고싶은가, 비켜라!》

무지막지한 보위단원이 녀사를 옆으로 밀치였다.

녀사께서 비칠거리며 벽을 짚으시였다.

《잠간 거기 서시오. 내 당신들에게 보여줄것이 있소.》

녀사께서는 보위단원의 길을 막은 다음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 연필과 종이 한장을 들고나오시였다. 그리고 보위단원들을 세워놓고 종이장에 무슨 글인가를 쓰시였다. 녀사의 의외로운 행동에 왕방초와 보위단원들뿐아니라 방안의 녀인들도 어리둥절해하였다.

녀사께서는 글을 쓴 종이를 보위단원들에게 보이시였다. 조선말을 모르는 그들과는 대화가 잘 통하지 않기때문에 글을 쓰신것이다.

《나는 오늘 당신들의 폭행을 보고 놀라지 않을수 없다. 죄없는 백성들을 마구 때리고 총질을 하는 당신들의 만행에 대해 봉천경찰국과 장학량사령에게 신소하겠다. 일개 보위단원이 무슨 권한으로 죄없는 사람을 제멋대로 때리고 죽이고 하는가. 알아두라, 여기가 심산벽지이지만 법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보위단원들은 글종이를 받아쥐고는 볼 생각도 안하고 무슨 뢰물이라도 섬겨바치듯 굽신거리며 왕방초에게 두손으로 받들어올리였다.

《그건 당신들에게 보이려고 쓴거니 당신들이 보라, 조선말을 잘하는 부도단장에게는 이따 말로 하겠다.》

녀사께서 입에 선 중국말을 서툴게 천천히 옮기시였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이름자도 쓸줄 모르는 문맹자들이였다. 녀사께서 무한장의 보위단원들중 글을 모르는 문맹자가 90프로이상이라는것을 아시게 된것은 썩 후날이였다.

정신병자처럼 발광을 하던 왕방초는 녀사의 글을 읽어보고 네겹으로 접어 외투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강부인은 안식관의 족자를 보지 못했소? 〈게으른자여! 개미에게서 배우라!〉라고 씌여있지요. 이자들은 대낮에도 일 안하고 술먹고 낮잠자는 게으름뱅이요. 건달부리고 게으르기때문에 가난하게 살고있지만 마치 자기네들의 가난이 지주, 자본가때문이라고 하오. 고약하단 말이요. 대낮에 낮잠자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라는데 대해 이새끼, 저 새끼 야료를 부리며 반항하고있소. 바로 이런자들이 공산당패의 부추김을 받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며 사방에 불손한 락서

를 하며 돌아가오. 자기 말로도 락서를 했다고 했소.》

왕방초는 이를 악물고 권총을 쥔 손을 내흔들며 묻지도 않는 자기 가문의 래력을 말하였다. 그는 자기 할아버지는 로씨야 원동에 여기 무한장지주의 땅보다 더 넓은 땅을 가지고있었다고 했다. 그것은 서태후집권시 자기 할아버지가 쑥밭을 개간하여 얻은 땅이라는것이였다. 그런데 10월혁명이후 로씨야의 《붉은 마귀》들이 할아버지의 피땀이 어린 광대한 땅을 다 빼앗아갔다면서 이를 갈았다.

《이번 락서는 틀림없이 공산당패가 한짓이요. 거기에 최동화놈의 상판도 그려있는걸 보면 화요파와 엇서있는 엠엘파공산당패가 락서질을 했소. 유산계급과도 싸우고 자기네들끼리도 헤게모니쟁취를 위하여 피를 물고 총부림을 하는게 공산마귀들이요. 이런 붉은 마귀들이 우리를 죽이고 이 세상을 뒤집어엎으려고 하는데 어찌 우리가 그놈들을 용납할수 있겠는가. 공산분자들이 유산계급에게 무자비하듯이 나도 공산패들에게는 사자이고 승냥이이고 살인귀요.》

왕방초는 장학량사령과 봉천경찰국장이 바로 자기들에게 이 세상을 뒤집어엎으려는 공산당패들, 민심을 어지럽히는 불평불만자들, 란동을 부리는 건달뱅이들을 마음대로 처리할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며 으르렁거리였다.

《강부인은 이걸 알아야 합니다. 피차 재미없으니 일후에는 우리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마시오.》

실지 왕방초는 그자신의 말대로 원동지구에 수천헥타르의 땅을 가지고있던 지주의 아들이였다. 그는 제정로씨야때 모스크바에 가서 중학공부를 하다가 10월혁명바람에 아버지와 함께 백계로씨야사람들속에 묻혀 중국으로 도망쳐와 대학물도 먹어보고 군사학교도 다니였다. 이런 경력을 가진자가 어떻게 되여 안도현 심산오지의 한낱 토호밑에서 보위단 부도단장노릇을 하고있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놈들을 끌어내라!》

왕방초의 지시에 따라 두명의 보위단원이 인사불성이 된 텁석부리를 맞들고 정지방을 거쳐 부엌문밖으로 나갔다. 다른 한명의 보위단원은 삼노끈을 쥐고 애숭이청년을 개처럼 끌고갔다.

왕방초는 표독스레 안경알을 번뜩이면서 그들의 뒤로 천천히 걸

어나갔다.

뒤마당에서 말투레질소리가 울리였다. 왕방초의 군마가 흥분하여 투레질을 하는 모양이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정지방에 무수히 찍혀진 구두발자국을 비통하게 내려다보다가 공포에 질려있는 녀인들을 둘러보시였다.

《잡혀간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인가요?》

《우리 대흥툰사람들이오다. 서로 외사촌간입지.》

홍주향이 몸을 덜덜 떨면서 말하였다. 두사람중 나이가 어린 청년은 윤현칠이라는 열여덟살되는 아주 마음착한 젊은이이고 텁석부리는 박치근이라는 소문난 주정군이라고 하였다. 그도 평시에는 부지런하고 어른스럽지만 술이 들어가기만 하면 입에서 뱀이 나가는지 구렝이가 나가는지 모른다는것이였다. 박치근은 텁석부리여서 얼핏 보면 서른대여섯 되여보이지만 스물세살밖에 안되는 청년이라고 하였다.

《그 젊은이들이 글공부는 좀 했는가요?》

녀사께서 그들에게 만화락서의 혐의를 씌우려는 왕방초의 행투리를 생각하며 물으시는 말씀이였다.

《글공부가 다 무스게오다. 말은 천연스레 잘하지만 우리와 한가지로 판무식자오다.》

박치근은 원래 흥륭촌에서 살던 물남지구청년회 회원이였는데 물남자치단체 총재인 류호가 로인금주회를 조직하여 술을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게 통제하기때문에 짐을 싸가지고 고모가 있는 대흥툰으로 이사와 물북지구청년회 회원이 되였다고 했다. 말하자면 류호네 물남국에서 조희재네 물북국으로 넘어간 월경자였다.

박치근의 고모가 바로 윤현칠의 어머니였다.

녀사께서는 손바닥만 한 땅에서 물북이요 물남이요 하며 울타리를 치고 살아가는 금단의 경계선부터 깨버려야 하겠다고 생각하시였다.

류호의 말이 나오자 김씨가 색을 먹고 끼여들었다. 《류호령감이라는게 학식이 높다고 합디다만 그렇게 막대기처럼 꽛꽛한 령감이오다. 남정네들한테 술을 못 먹게 하니 누가 좋아하겠소, 우리같은 객주집을 망하게 하자는게지. 류호령감에 비하문사 조희재선생님이

야 대틀이라니.》

《그래두 류호령감을 좋아하고 조희재령감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홍주향이 무심결에 중얼거리다가 화닥닥 놀라며 목을 움츠렸다. 그는 곁에 조희재의 딸 조춘희가 앉아있는것을 깜빡 잊어버렸던것 같았다.

조춘희는 홍주향에게 등을 돌려대며 녀사께 물었다.

《보위단사람들이 만화소리를 자꾸 하는데 그건 뭡니까?》

《참, 모두 만화사건을 모르는것 같구만.》

녀사께서는 이날 아침 송강거리에서 본 만화에 대하여 자상히 이야기해주고 방금 왕방초의 하는짓을 보니 만화가 안도주민들의 원한을 그대로 드러낸 그림같다고 하시였다.

조춘희의 얼굴이 해쓱하게 질리였다. 만화의 인물들중에 자기 아버지도 끼여있으니 속이 좋을수 없었다.

녀사께서는 그 녀자의 기분에 거슬릴것을 생각하면서도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안도주민들이 왕방초같은 악질관헌들의 행패를 받는것만도 원통한 일인데 이국땅에 와서 동족끼리 물북이요, 물남이요 하며 패를 갈라 등을 돌려대고 살아가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예요. … 그런데 식모남편이 무산혁명단이라는건 사실인가요?》

《예, 그년의 남편이 무산패라든지 갑산패라든지 그런 놈이오다.》

김씨가 돌연 화를 내며 입을 열었다. 《보위단에선 요즘에야 그걸 알게 된것 같은데 우린 벌써 오래전에 알고있었소다. 그녀석이 우리 집을 들부시겠다구 했다오다. 길러준 개 주인의 발뒤축을 문다더니 거렁뱅이 한가지던 제 네편넬 먹여주구 입혀주구 했는데 무스거 종처럼 부려먹는다구? 우리 집을 들부셔버리겠다구?》

《중조 할머니, 그 소릴 누구한테 들었나요?》

녀사께서 자못 심중해지시였다. 이번에는 백춘화가 대답하였다.

《지난 섣달 그믐께 흥륭촌 촌장이 우리 집에 들려 그런 뚜뚜한 소리가 들린다면서 주의하라고 지나가는 말처럼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부터 그 소릴 자꾸 입에 올려 왕방초의 귀에까지 들어간것 같아요.》

《무스거? 내가 고아대서 왕방초의 귀에 들어갔다구?》

부지깽이로 부엌바닥을 두들겨대는 김씨의 얼굴이 험악해졌다. 백춘화는 시어머니의 드살에 이미 습관됐는지 못 들은척 하고 자기 말을 계속하였다.

《워낙 흥륭촌 촌장놈이 못된 놈이예요. 있는 소리, 없는 소릴 제멋대로 지어가지구 무한장과 왕방초한테 고해바치며 알랑거리는 놈이예요. 그놈이 공산당패요 하구 고해바치면 우둔한 무한장은 그 말을 곧이 듣구 창비! 하고 소리친답디다. 식모남편이 무엇때문에 우리 집을 타도해버리겠다구 하겠어요.》

《야야, 너 뻐꾸기같은 소릴 하지두 말아라.》

김씨가 부지깽이를 들고 삿대질을 하며 며느리를 눌러놓고 강반석녀사를 돌아보았다. 《그런 말을 한게 적실하오다. 그놈이 그전에는 나한테 곱삭곱삭 인사두 잘하구 살갑게 굴었는데 무산패라든지 갑산패라든지 하는 공산당패에 들어간 다음부터 우리 집에 오지두 않구 어찌다 만나서두 본체만체하구 달아나군 하오다. 내 그래 무산놈들이 못된것들이라구 말하오다. 그 무산패녀석들이 제일 나쁜 공산당줄거리라오다.》

수심에 잠겨 옆에서 듣고있던 조춘희가 기분에 어울리지 않게 갑자기 손으로 입을 싸쥐며 키득거리였다. 김씨가 무산혁명단의 무산을 지방이름인 함경북도 무산으로 생각하고있기때문이였다.

김씨는 조춘희를 잠시 어안이 벙벙해 지켜보다가 《그놈이 죄가 돌아 제 명을 다 채우지 못하게 됐다니.》하고 혼자소리로 중얼거리였다. 그러나 겉으로는 식모의 남편을 꾸짖었지만 속으로는 위험에 처한 그 사람때문에 불안해하는것 같았다. 드살로친이라고 하지만 인정이 있는 녀인이였다.

녀사께서도 식모남편이 걱정되시였다. 그 남자가 일하는 정업툰처서판은 여기서 불과 시오리밖에 안되는 곳이였다. 눈에 달이 오른 왕방초가 지금 그쪽으로 말을 달리고있는지도 몰랐다.

녀사께서는 홍주향을 돌아보시였다.

《참, 아주머니의 주인도 처서판에서 일한다고 했지요?》

《예, 정업툰처서판에서 식모의 남편과 같이 일하오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객주집식모뿐아니라 그의 남편 곽청도와도 잘 아는 사이였다. 곽청도는 세상 어질어빠진 사람으로서 무슨 사상운동에 가담할 재목이 못된다고 하였다. 언젠가 혁명가라는 수염투성이의 사람이 처서판에 와서 폭동을 선동한적은 있었다고 한다.

《내 생각에는 흥륭촌 촌장놈이 지어서 한 말이 그렇게 퍼진것 같아요. … 가만, 내가 이렇게 앉아있어선 안되겠소다.》

홍주향은 자기 남편에게도 무슨 화가 미칠것 같은 예감이 들었는지 아니면 조춘희와 한자리에 있기가 피로와서인지 갑자기 서두르며 일어섰다.

《예, 부탁한 옷은 걱정말고 빨리 주인을 만나 보위단에서 처서판을 검색할것 같다는 말을 미리 해주는게 좋겠어요. 특히 식모의 남편한테 꼭 알려줘야겠어요.》

홍주향은 인차 객주집에서 떠나갔다. 조춘희는 좀 늦어 대흥툰에서 보낸 말파리를 타고갔다.

녀사께서는 기분이 어수선하여 일손이 잡히지 않으시였다.

제 2 장

1

송강시내와 서문밖 곳곳에 다음과 같은 공시가 나붙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공산폭도들에게 추종하여 민심을 소란시키고 현정부관헌들을 인신모독하는 불순락서를 한 공산폭동음모가담자들인 박치근(거주지 대흥툰), 윤현칠(거주지 대흥툰), 고덕삼(거주지 송강), 공쇠똥이(거주지 로도구)들은 1월 3일(음력) 보위단훈련장에서 사형집행을 한다. 이외 공산폭도들과 련계된 반란음모자들을 계속 색출중에 있는바 자백하는자들은 관대히 용서한다. 그러나 락서공모자들을 숨기거나 동조하는자들에 대해서는 락서공모자와 같이 취급한다.

안도현 현공서, 현경찰서, 현보위단》

공산폭동음모가담자 및 락서공모자들에 대한 사형집행공시는 무림약방으로 가는 길에도 나붙었다. 오고가는 행인들은 누구라할것없이 걸음을 멈추고 놀란 눈으로 공시문을 지켜보았다. 공시문은 중국글과 조선글로 두장 붙이였다.

강반석녀사께서도 공시문앞에 오래도록 서계시였다. 그이께서는 래일 핵심조직원들의 회합을 하기로 결심하고 시동생께 찾아가시던 길이였다.

《난 글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광고요?》

꿰진 덧저고리를 입은 중년남자가 호기심어린 얼굴을 하고 옆사람에게 물었다.

《좋은 글이 아니웨다. 사람을 죽인다는 광고웨다.》하고 알려준

옆사람이 사형수 네사람중 자기는 한사람밖에 모르겠다고 하였다. 그가 알고있는 사람이란 송강장마당에서 거간질도 하고 되거리장사도 하며 그럭저럭 살아가는 고덕삼이였다. 그러자 누구인가 박치근, 윤현칠은 대흥툰의 농사군이고 공쇠똥이는 로도구처서판에서 일하는 벌목공이라고 하였다. 박치근, 윤현칠은 서문밖 마춘욱이네 객주집에서 왕방초에게 주정질을 하다가 붙들려가고 고덕삼, 공쇠똥이는 안식관 외벽에 락서한 만화를 보며 이러쿵저러쿵 실없는 말을 한것이 경찰서장의 귀에 들어가 체포되였다고 했다.

《그러니 이 네사람이 진짜 락서를 하고 폭동음모인지 역모인지 그런데 가담했는가요?》

《가담하긴 무스거 가담했겠소. 나두 그날 만화를 구경했는데 그림은 여간 잘 그리지 않았습데다. 처서군과 농군들이 그런 그림을 어떻게 그리구 그 어려운 한문자를 어떻게 쓴다는건지. 고덕삼이란 령감이 천자문을 좀 외운 령감인데 그날 중뿔나게 나서서 한문자풀이를 하며 만화에 대해 실없는 소릴 좀 했지요. 그걸 어느놈이 경찰서장한테 고자질했는지… 공쇠똥이는 아주 까막눈인데 괜히 글자풀이에 끼여들었다가 된벼락을 맞았수다.》

《장보러 온 아주머니가 모르는 한문자를 알려주었다는데 그 아주머닌 무사한가요?》

누구인가 이렇게 말하자 어떤 중년사나이가 그 아주머니인즉은 서문밖 객주집에 와서 자선사업을 하고있는 돈도 있고 학식도 높은 녀자인데 장학량사령급의 큰사람들과 관계하는 대단한 집안이기때문에 여기 관헌들도 어쩌지 못하는것 같다고 하였다.

말이란 이렇게 터무니없이 보태지는것이다.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을 주의깊게 듣고있던 녀사께서는 자신에 대한 말이 나오자 자리를 뜨시였다.

골목길을 걸어가는 녀사의 눈앞에 자신께 한문자를 물어보던 두루마기차림의 중늙은이와 한문자의 표음을 듣고 《팔녀석 다 죽이라》라는 조선말을 생각해낸 젊은이의 얼굴이 떠오르시였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덕삼, 공쇠똥이는 틀림없이 그들이였다.

녀사께서는 자신에 대한 별의별 소문이 떠도는데 대해서도 자못 놀

라시였다. 장학량사령급의 큰사람들과 관계하는 돈많고 학식이 높은 자선가라니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랑설인가. 워낙 항간에 떠도는 말속에는 과장되고 지어낸 말도 있지만 반드시 참고해야 할 진실이 더 많았다.

피를 즐기는 무한장, 왕방초를 비롯한 악질관헌들은 만화락서를 구실로 살인극을 벌릴 심산같았다. 트집을 걸 건덕지가 없어서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놈들이였다.

그들자신도 네명의 사형수들이 락서자도 폭동음모가담자도 아니라는것을 번연히 알고있으면서 락서자들에 대한 분풀이를 하지 못해 그따위 터무니없는 조작을 하는것 같았다. 녀사께서는 미타한자들에 대해서는 류형이 아니라 가차없이 총살해버려야 한다던 왕방초의 살기에 찬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시였다.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죽게 된 동포들을 강건너 불보듯 할수 없으시였다.

녀사께서는 약방앞에 이르러서야 번거로운 생각에서 벗어나시였다. 마침 김형권동지께서 약방매대에서 오방원이와 무슨 이야기를 하고계시였다.

《형수님 오셨습니까?》

김형권동지께서는 녀사께서 오시기를 기다린듯 그이를 살림방으로 안내하시였다.

함경도식정지방처럼 부엌과 벽이 없이 련결되여있는 정지방에는 이불 두채와 두리상 하나가 있을뿐 값나는 가구들은 하나도 없었다. 자그마한 주철가마 한개를 걸어놓은 부엌에도 오지물드무와 궤짝을 뜯어서 대충 만들어놓은것 같은 찬장과 양철가시대야밖에는 다른 물건이 없었다.

가시대야에는 빈그릇들이 그대로 물에 잠겨있었다. 녀인들의 손이 전혀 가닿지 않은 궁색한 생활이 첫눈에 알리는 부엌이였다. 녀사께서는 팔소매를 거두고 부엌에 내려가 가시물속에 잠겨있는 그릇들을 닦으며 시동생께 물으시였다.

《약방주인이 아직 총각인가요?》

《예, 오방원이 그 사람두 이젠 장가를 가야겠는데… 형수님, 여

기에 와서까지 부엌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만두십시오. 이제 그 사람이 다 합니다.》

김형권동지께서 설겆이를 하시는 녀사를 만류하시였다.

《적은이가 사는 집이니 내가 부엌에 내려오지요.》

녀사께서 웃으시며 그냥 그릇을 닦으시였다. 잠간사이에 그릇들을 말끔히 씻어 찬장에 들여놓은 녀사께서는 주철가마에 걸레질을 하시였다.

녀사의 손이 닿는 곳마다에서 반짝반짝 윤기가 돌았다.

《래일 민옥이네 집에서 회합을 가지는게 어떨가 해서 의논하러 왔어요. 적은이도 거리에 나붙은 공시를 보았겠지요?》

녀사께서 부엌을 거두고 정지방으로 올라가며 심중히 물으시였다.

《예, 보았습니다.》

김형권동지의 표정은 사뭇 침울하시였다.

《만화사건이 이렇게 험악하게 번져질줄은 몰랐어요.》

녀사께서는 안도현의 관공서, 경찰서, 보위단의 우두머리들이 이 기회에 조금이라도 미타하게 생각되거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들을 모조리 압살해버리려는것 같다고 하시였다. 그것은 객주집에 와서 란장을 부린 왕방초의 포악한 행위를 보고도 알수 있었다.

《난 이 걸음으로 현장을 찾아가 어떻게 되여 그 네사람들이 만화락서자로 밝혀졌는지 알아보자고 해요. 재판도 하지 않고 사형을 집행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현장을 만나야겠어요.》

그것은 녀사께서 방금 결단을 내리신것이였다.

《현장한테요?》

김형권동지께서 어깨를 흠칫하며 눈을 치뜨시였다.

《예, 안도현의 최고관헌을 만나야겠어요. 사형수 네사람에 대해 내가 좀 알고있어요.》

그들이 락서했다는건 말도 되지 않았다.

녀사께서는 우리 주민들이 때려도 잡아가도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공포에 떨기만 하니 안도통치자들의 전횡이 점점 더 심해진다고 생각하시였다.

《형수님의 의사에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현장을 만나는 일은

다른 사람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형수님은 나서지 마십시오.》
김형권동지께서는 만류하시였으나 녀사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께서 현장을 만나야 한다고 하시였다. 왜냐하면 사형수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셨기때문이였다. 그들중 두명은 만화락서가 그려진 현장에서 그리고 다른 두명은 마춘욱의 객주집에서 보시였다. 대홍툰의 농민청년들인 박치근, 윤현칠들이 취중에 말 몇마디 과격하게 했대서 총탁으로 치고 발길로 차서 인사불성이 되게 하고 삼노끈으로 꽁꽁 묶어서 개처럼 끌고간 보위단원들의 만행에 대해서 본 그대로 현장에게 고발하실 작정이였다. 이를테면 자신께서 그 증인으로 나서시려는것이였다.
《저는 그놈들이 형수님한테까지 무슨 혐의를 씌울가봐 걱정됩니다. 형수님이 한문자를 해득해준걸 언터구로 잡을수 있습니다. 그날에 말 몇마디 한걸 가지고 만화락서자요, 폭동음모가담자요 하고 죄명을 씌우는 놈들이 아닙니까.》
《바로 그에 대해 항의하자는거예요. 위험하다고 모두 몸을 사리면 놈들의 행패는 점점 더 심해질거예요. 사람을 살리는것보다 더 중한 일이 어디 있겠나요. 이제 현장이랑 만나보구 사형수들에 대한 석방운동을 크게 벌려야겠어요. 석방운동을 통해 주민들을 단합시키고 군중을 장악하고 조직을 강화할수 있어요. 래일 회합에서 그 문젤 의논해보자요. 당장은 내가 현장을 만나봐야겠어요.》
단호한 결심을 표명하시는 강반석녀사의 절절한 말씀은 김형권동지의 마음을 틀어쥐고 흔들었다.
문득 김형권동지께서는 무송의 왕지주가 조선녀를 첩으로 만들기 위한 음흉한 계책을 꾸미고있을 때 가병을 거느린 지주집에 단신으로 찾아들어가 담판을 벌리신 형수님을 상기하시였다. 김성주동지께서 무송경찰서에 체포되시였을 때도 녀사께서 반일부녀회원들과 무송주민들로 롱성투쟁을 조직하고 석방운동을 성공시키시였다. 녀사께서는 이미 많은 경험을 축적한 세련된 지도자이시였다.
그렇다, 형수님의 말이 옳다. 단합은 모든 혁명사업의 기초로 되고 언제나 견지하여야 할 혁명의 목적이고 동시에 방도이다 하고 김형권동지께서는 생각하며 녀사를 존경어린 눈으로 바라보시였다.

《…형수님, 현장을 만나시겠으면 철주를 데리고가는게 좋을것 같아요. 현장은 조선말을 전혀 할줄 모르니 철주한테 통역을 하게 합시다.》

중국말을 모국어처럼 자유롭게 하는 김철주는 중국말로 연설도 아주 잘하였다.

예술적소양이 높은 둘째아드님이 공연무대에서 격정적으로 연설할 때면 중국인들이 모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군 했었다.

《그게 참 좋겠어요. 내 중국말이란게 서툴러서 겨우 뜻은 전해도 감정을 통하게는 못할거예요.》

《내가 사람을 띄워 철주를 불러오겠으니 이 방에서 기다리십시오.》

김형권동지께서는 급히 밖으로 나가시였다.

어떻게나 빨리 련락을 했는지 김철주는 반시간도 못되여 녀사께 달려왔다.

녀사께서는 지체하지 않고 아드님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도 로도구에 갈 먼길차비를 하고 나서시였다. 사형수 공쇠똥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려는것이였다.

2

현관공서는 현소재지 서북쪽에 동남향을 하고있었다. 그 동쪽 가까이에 경찰서가 마주서있었다.

송강시가의 일반살림집들은 무송에 비해 보잘것없었지만 관공서와 경찰서건물은 오히려 더 크고 으리으리해보였다. 그것만 보아도 당국에서 이곳의 폭압기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돌리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현장사무실에 들어가자면 대문을 세개나 거쳐야 한다고 했다.

첫째 대문 량옆에 한길이나 되는 높은 가림담벽이 둘러쳐있는데 보위단제복을 입은 젊은이가 장총을 메고 대문앞에 서있었다.

녀사께서 아드님과 함께 보초소앞으로 다가가시자 보초병이 눈알

을 사무럽게 굴리며 꽥소리를 질렀다. 다가서지 말라는 호령이였다.
《현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김철주가 류창한 중국말로 찾아온 용건을 말하자 보초병은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눈짓을 하였다. 접수실로 가라는 뜻이였다.
보초소 오른쪽에 접수실이 있고 왼쪽에 위병실이 있었다. 접수실에는 안경을 낀 나이지긋한 사나이가 새깃을 꽂은 긴 펜대를 들고 앉아있었다.
김철주가 현장을 만나러 왔다고 하자 그는 안경테를 우로 제끼며 무슨 일로 만나자는가고 하였다.
《만화락서사건과 관련된 용건입니다.》
《엉?》
접수원은 놀란 소리를 지르더니 두분의 얼굴을 번갈아 훑어보았다.
《주소성명을 대시오.》
그는 김철주가 부르는대로 접수대장에 적고 어린애손바닥만 한 종이쪽지를 창구밖으로 내밀었다. 출입증이였다.
대문안에는 갖가지 나무들이 건성드뭇하게 서있는 정원이 건물들사이로 길게 뻗었는데 동쪽에는 세무국, 필사실 등 간판을 단 별채들이 정원쪽을 마주 향해 서있고 서쪽에는 재정국과 심문대기실, 위병실이 나란히 서있었다. 다시 두번째 대문안으로 들어서니 중간마당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위단제복을 입은 보초병이 지키고있었다. 세번째 대문안에는 현정부의 본채들이 주런이 늘어서있었다. 동쪽은 사무실들이 있고 서쪽에는 재판소가 자리잡고있었다. 뒤뜨락에 현장실, 과장실 그리고 판사실이 있었다. 현공서의 건물은 모두 푸른 나무벽체에 붉은 물결무늬를 입혀 고대의 사원같은 인상을 주었다.
녀사께서는 산골관공서의 기구가 이처럼 요란하고 복잡한데 놀라시였다.
《어머니, 현관공서건물이 무송보다 더 요란하지요?》
《정말 그렇구나.… 주민들이 이 건물만 보아도 무서워하겠다.》
모름지기 경찰서의 내부건물들도 이에 못지 않게 요란하리라고 생각되시였다.
현장실 바깥출입문으로 들어가시니 첫방에 《대기실》이라는 문패

가 붙어있었다.
대기실쏘파에 무료하게 앉아있던 젊은 녀자가 녀사의 출입증을 자세히 뜯어보고나서 현장사무실로 들어갔다.
이윽고 현장실에서 나온 그 녀자는 대기실문가에 서있는 녀사더러 들어가보라고 고개짓을 하였다.
깨끗한 마루방으로 된 현장실은 정면에 현장이 쓰는 큰 탁상이 있고 창문가에 손님용나무의자가 여러개 놓여있었다. 출입문으로 들어가면서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벽에 《자족불욕(현재의 자신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면 욕을 보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쓴 커다란 천족자가 걸려있었다. 창문이 있는 왼쪽벽에는 《태강즉절(지내 굳고 단단하면 잘 꺾인다는 뜻.)》이라는 족자가 걸리고 바른쪽벽에는 《사필귀정(일은 반드시 바른데로 돌아간다는 뜻.)》이라는 족자가 걸려있었다.
당시는 방안에 족자를 걸어놓는것이 풍습이기도 했지만 4자성구가 정자체로 씌여있는 이 세개의 족자는 하나의 맥으로 통해있는 현장의 좌우명인듯싶었다.
현장은 작은 키에 몸이 똥똥하고 넓은 얼굴과 큰 머리에 이마가 약간 벗어진 40대의 사나이였다. 난쟁이처럼 하체에 비해 상체가 커서 어딘가 기형인같은 인상을 주었으나 얼굴 하나를 떼여놓고보면 억실억실한 눈이며 높은 코마루며 복스러운 큰 귀며 이목구비의 선이 굵직굵직하고 시원하게 조화된 잘생긴 사람이였다.
그는 탁상앞으로 걸어나와 창문가에 놓인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시오. 나는 부인의 성함을 익히 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선과 계몽사업을 하고있다고 부인을 칭송하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나는 우리 산골현에 부인과 같은 현숙한분이 온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하고 침이 마르도록 한참 치사를 하고나서 눈을 쪼프리며 김철주를 가리켰다.
《제 아들입니다. 저는 중국말이 서툴러서 통역을 시키려고 데리고왔습니다. 병진년생(1916년)이니 음력으로 보면 열세살밖에 안되는 소년입니다.》
녀사께서는 쉬운 말들은 서툴러도 직접 중국말로 하시였다.

《대단히 숙성합니다. 난 열여덟살쯤은 된 청년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장은 아주 친절하고 점잖게 뜨직뜨직 사담을 벌리였다.

녀사께서는 곧 찾아오신 용건을 말씀하시였다.

《저는 이번 락서사건과 관련해서 현장님께 몇가지 알아보고싶은 것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김철주가 통역하였다.

현장은 일순 놀라는듯 눈섭을 구핏하며 눈을 크게 떴다. 그가 놀란것은 녀사께서 제기하신 방문용건때문이 아니라 억양이 음악적이고 발음이 매우 정확한 김철주의 능숙하고 세련된 화술때문이였다.

《중국말을 참 잘하누만.》

현장은 탄성을 올리고나서 어느 학교에 다녔는가, 어느 유능한 화술전문가한테서 화술지도를 받지 않았는가, 방송원이나 배우로 발전할 생각이 없는가 하고 계속 사담을 늘어놓다가 천천히 녀사를 돌아보며 용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시문에 이름을 밝힌 네명의 사형수가 진짜 만화를 락서하고 폭동음모에 가담한 사람들인가 하는것입니다. 사형수들을 알고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생 그림이라고는 그려본적도 없는 촌사람들이기때문입니다. 그들중 세명은 제 이름자도 쓸줄 모르는 문맹자들입니다. 제 보기에도 그들을 만화락서자라고 하는것은 리치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역에 편리하도록 녀사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끊으시였다. 김철주는 녀사의 감정을 그대로 담아 손세를 써가며 격렬한 항변의 어조로 마디마디에 힘을 주어 통역하였다.

묵묵히 방안을 거닐던 현장이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물론 문맹자가 직접 락서할수는 없소. 네명의 사형수들은 락서공모자들입니다. 다시말해서 락서자가 만화를 그리는 동안 그들은 망을 보았소. 두시간에 한번씩 야경군이 거리를 순회하는 조건에서 그렇게 큰 만화를 혼자서는 그릴수 없습니다. 여러명이 공모했습니다. 공모자 몇놈은 아직 붙잡지 못했습니다. 만화락서를 한 화백도 못 잡

구요.》

《네명의 사형수들이 스스로 락서공모자라고 자백했는가요?》

《글쎄요. 자백했기에 극형을 받게 됐겠지요.》

현장은 마치 자기와는 관계가 없는 일인것처럼 애매한 대답을 하고 문득 반문하였다. 《부인은 사형수들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들속에 친척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친척도 없고 개인적으로 특별히 인연을 맺은 사람도 없습니다.》

녀사께서는 고덕삼, 공쇠똥은 만화락서장소에서 보았고 박치근, 윤현칠이들은 마춘욱이네 객주집에서 우연히 보게 된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시였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무엇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쓰며 내 방에까지 찾아왔는가요?》

사근사근하게 대해주던 현장의 얼굴에서 갑자기 싸늘한 랭기가 풍기였다.

《무엇때문이라니요?》

불쑥 반문하시는 녀사의 눈빛도 날카로와졌다. 그이께서는 다소 노기를 띤 어조로 여기 안도땅에 와있는 조선주민들은 모두 나라를 잃고 가랑잎처럼 여기저기 굴러다니다가 산설고 물설은 산간벽지에 찾아든 불쌍한 망명객들이며 이주민들이다, 나 역시 일본놈들이 없는 안도현은 조선의 망명객들이 편안히 살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고 찾아왔다, 기쁨도 설음도 같이 나누며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할 동포들이 죄없이 사형을 당하게 된것을 보고 어찌 수수방관할수 있겠는가, 설사 우리 동포가 아닐지라도 죄없이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어찌 참을수 있겠는가 하고 말씀하시였다.

《죄가 없다는건 뭐요? 부인은 무슨 근거로 그들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가?》

《무슨 근거인가고요?》

녀사께서는 격분한 어조로 그 근거를 말씀하시였다.

만화가 발견된것은 전전 5일장 이른아침이였다. 따라서 만화락서는 틀림없이 그 전날 밤에 했을것이다. 그런데 박치근, 윤현칠 청년

들은 그 시각에 대흥툰 자기 집에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마을사람들이 다 보증할수 있다.

녀사께서는 이렇게 론증하시고 《다른 두명의 사형수들에 대해서도 그날 밤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현장님이 대답해주세요. 무슨 근거로 그들을 만화락서공모자로 보는지.》하고 들이대시였다.

김철주는 주먹까지 흔들면서 격렬하게 그러면서도 녀사의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조리있게 통역하였다.

녀사께서는 어린 나이에 그처럼 담차고 도도한 자세로 훌륭하게 통역하는 김철주를 대견하게 바라보시였다.

현장은 갑자기 피로를 느낀듯 탁상을 돌아 의자에 맥없이 주저앉았다. 그는 지그시 눈을 감으며 입을 열었다.

《나는 그들을 심문하지 않았으니 그들에 대해 알고싶으면 보위단부도단장과 경찰서장에게 찾아가시오. 그들이 심문을 하고 사형처분을 했으니까.》

《현의 호주이고 최고관헌인 현장님께서 그걸 모르시다니요? 현장님께 심문정형을 보고도 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형처벌을 한단 말입니까?》

녀사께서는 현장의 말을 인정하시지 않았다.

현장은 여전히 눈을 감은채 모든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중얼거리였다.

《부인, 알아두시오. 현의 최고집권자는 현장이 아니라 보위단 도단장이요. 이것은 장학량총통의 의사요. 무한장은 장학량총통의 작고한 아버지 장작림산하의 중대장이였소. 쌍병준은 분대장이였고… 그런 사람들이요.》

녀사께서는 현장의 머리뒤로 바라보이는 족자《자족불욕》에 눈길을 돌리시였다. 다음엔 《태강즉절》을, 그다음에는 《사필귀정》을 생각깊이 더듬으시였다.

저 현장이란 사람은 진짜 권력에 대해 체념한채 현내주민이야 어떻게 되든 국록이나 타먹으면서 태평스레 지내는 사람인가.

현장은 다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비껴있었다.

《다시 말하지만 사형수들에 대한 문제는 무한장이나 왕방초부도 단장하구 토론해야 됩니다. 그러니 중뿔나게 나서지 않는게 좋을것 같아요. 부인까지 공모자로 취급당할수 있지요. 내가 부인을 위해 도와줄수 있는것은 이것뿐이요. 나서지 마시오.》

현장은 진심으로 권고하는것 같았다.

녀사께서는 명색뿐인 이 최고행정책임자와는 의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시였다.

녀사께서는 한숨을 지으며 일어나시였다.

현장실에서 나오신 녀사의 마음은 복잡하시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무한장을 만나볼것인가 아니면 왕방초를 찾아갈것인가? 녀사의 뇌리에 불쑥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시였다. 물북지역에서 사회운동을 하고있다는 조희재와 협력하여 석방운동을 벌려보실 생각이였다. 사형수들은 모두 물북지역 사람들이였다. 더우기 박치근, 윤현칠들은 조희재가 거처하고있는 대흥툰의 청년들이고 물북청년회 회원들이였다. 조희재야말로 박치근, 윤현칠들이 만화락서자가 아니라는것을 누구보다 잘 알수 있을것이다.

음력 1월 3일, 사형집행날자는 아직 보름남짓이 남아있었다.

3

송강시내의 자기 집에서 며칠 지내고 다시 본가로 가려고 길차비를 하고나선 조춘희는 아침 10시경 대흥툰에 도착하였다.

수림에 둘러싸인 자그마한 분지에 20여채의 농촌집들이 땅버섯처럼 여기저기 널려있었다. 그속에 덩치가 큰 기와집 한채가 왕벌모양으로 유표하게 자리를 틀고 앉아있었다. 그것이 조춘희의 본가 조희재의 집이였다.

고유한 조선집구조형식으로 한 뜨락안에 본채와 사랑채를 따로 지은 조희재의 집은 본채의 살림방만 하여도 네칸이나 되였다. 이렇게 큰집에서 조희재내외가 초년과부가 된 며느리와 손자 하나를 데리고 살았다. 송강에서 대흥툰까지 20리가까이 걸어오는 동안 조춘희

의 양털목도리에는 서리가 하얗게 불리였다. 그가 부엌으로 들어서자 정지방에서 반짇고리를 펴놓고 앉아있던 안씨가 반색을 지으며 일어섰다.

《날씨가 여간 차지 않은데 네가 새벽길을 걸었구나.》

안씨는 오래동안 헤여져있은 집난이를 맞는것처럼 떠들어대며 딸의 두루마기어깨우에 묻어있는 눈가루들을 털어주었다.

《아버지 계시나요?》

조춘희는 두루마기를 벗어 아무렇게나 내던지고 아래목 포단밑에 손을 넣었다.

《사랑채에서 무슨 회합을 하는가부다, 쯔쯔…》

안씨는 무엇이 맞갖잖은지 이마살을 찌프리며 혀를 찼다.

이 집 사랑방은 조희재가 전적으로 글방 겸 회합장소로 쓰고있다.

청년회요, 농민협회요 하는 자치단체 회장, 분회장들이 한주일에 한번씩 사랑방에 모여앉아 객담을 하다가 술판을 벌리고 헤여지군 하였다. 그때마다 안씨와 며느리는 손님들 대접할 음식차비를 하여야 하니 그들의 회합을 귀찮게 여기였고 시끄러워하였다. 본채에는 정지방에 달린 부엌과 안방부엌이 있는데 지금도 며느리가 안방부엌에서 손님들 점심차비를 하고있었다.

회합을 하러 올 때마다 손님들이 쌀과 돈, 술안주들을 들고와서 주인집살림에는 전혀 손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보탬을 주지만 살림걱정이 바이 없는 안씨는 음식시중드는 일이 부담스러웠다. 회장, 분회장들이 들고오는 술과 음식감들은 모두 회원들의 집에서 옭아낸것들이였다. 달마다 받아들이는 회원비도 이런 회합놀음에 써버렸다.

조춘희도 아버지가 조직하는 회합이 한낱 말돌이와 같은 시시껄렁한 모임이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이 추운 날에 마차를 내지 않고 걸어온것 같구나. 쯔쯔…》

안씨는 추위에 빨갛게 언 딸의 두볼을 치떠보며 애처로와했다.

《어머니두, 가난한 농촌마을에 마차를 타고다니면 말을 들어요. 그러잖아 아버지가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고있잖아요.》

조춘희는 반어리광으로 어머니에게 눈을 할기죽하는데 그 예쁜 얼

굴이 아직 처녀같았다. 그는 시집을 간지 3년이 돼오도록 태기가 없었다.

《네 아버지두 김광문이네 식당에 났다는 만화소문을 들은 다음부터는 심기가 좋지 않아 걸핏하면 괜히 나한테 역정을 쓰군 한다. 게다가 저녁마다 현칠이 에미와 치근이 색시가 찾아와 보위단에 잡혀 들어간 제 아들, 서나를 빼내달라고 울며불며 조르니 늘 오만상을 찌프리고있다. 글쎄 네 아버진들 무슨 용빼는 수가 있겠니.》

안씨는 보위단원들이란 염라졸같이 사나운 놈들이니 괜히 서뿔리 그런데 나서다간 자기 집안까지 화를 입게 된다고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조희재일가는 먹을것 입을것 걱정없는 오늘의 생활이 허물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있었다. 한때 조희재는 조선독립운동을 한다면서 왜놈들을 치러 위험구역에도 뛰여들군 하였지만 감옥세례를 받고 저세상으로 갔거나 병신짝이 되여 나온 사람들을 보고는 비폭력무저항주의라는 합법적인 《애국투쟁》의 길로 완연히 키를 돌리였다. 독립군 지휘관으로 활동하던 그의 아들도 적탄에 치명상을 입고 자리보전을 하고 누워있다가 마침내는 저세상으로 갔다. 이 가정적 비극이 그로 하여금 무저항주의로 돌아서게 한 가장 큰 요인으로 되였다. 여기서 뭇사람들로부터 애국선각자로 떠받들리는 안창호의 인격혁신론과 자아혁신론, 교육과 산업의 진흥으로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실력배양론은 조희재로 하여금 애국자의 체면을 세우면서도 위험이 없이 편안하게 살수 있게 하는 유일무이한 최선의 방도였다. 그때문에 조희재는 안창호의 실력배양론이 성공할수 없는 개꿈과 같은 것이라는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숫제 사람들앞에서 열을 올리며 그것만이 유일하게 피해없이 나라의 독립을 성사시킬수 있는 길이라고 력설하고있었다.

조희재의 속내를 누구보다도 깊이 들여다보고있는 사람은 조춘희였다. 사범학교 졸업생이고 서울연예전문학교 중퇴생인 조춘희도 아버지가 선택한 길을 지지해주고있었다.

《어머니, 송강거리에 저 앞집의 윤현칠, 박치근이들을 사형한다는 광고가 나붙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가? 술 먹구 주정질을 좀 한 사람을 사형

하다니?》
안씨의 눈이 금시 튀여나올것 같았다.
《그것들이 만화락서질을 하고 반란음모에 가담했다나요. 음력 1월 3일 사형한대요.》
《뭐라구? 네 아버질 망신시킨 락서질을 그것들이 했단 말이냐? 원 세상에… 은혜를 원쑤로 갚는다더니… 그래가지구두 감옥에서 빼내달라구 맨날 찾아왔단 말이냐? 괘씸하고 뻔뻔스러운것들.》
안씨의 낯빛이 파랗게 질리였다.
박치근, 윤현칠은 조희재의 각별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온 젊은 이들이였다. 흥륭촌에 있던 박치근이가 안해를 데리고 물북으로 이사해올 때 조희재는 류호와 물남사람들이 보란듯이 성대한 환영식을 조직하였을뿐아니라 집을 마련해주고 살림에 보태라고 부부가 한달 동안 먹을수 있는 쌀과 상급사무원의 두달분로임과 맞먹는 목돈을 주었다.
박치근이가 류호에게 뒤발질을 하고 물북으로 넘어온 덕에 그의 밭은 친척인 윤현칠이네까지 혜택을 입었다. 한번은 윤현칠이가 쌀이 떨어져 고초를 겪고있을 때 좁쌀을 소두 한말이나 거저 준적이 있었고 회원비를 물기 어려워할 때는 가끔 면제시키기도 하였다.
물북지역에서 받아내는 사회단체회원비도 약차하지만 목재상인 사위한테서 드문히 목돈을 받아쓰는 조희재는 돈을 내서 극빈한 사람들에게 가끔 선심을 베풀군 하여 마음을 크게 쓸줄 아는 인물이라는 치사를 받았다. 특히 조희재는 자치단체 회장, 분회장들의 살림을 각별히 보살펴주었다. 그는 회원비의 많은 몫을 회장, 분회장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농민협회요, 청년회요 하는 자치단체조직들에서 받아들이는 회원비는 조희재의 총찰밑에 회장들이 직접 독단적으로 관할하기때문에 그들이 마음대로 류용할수 있었다. 조희재총재가 이처럼 회장, 분회장들을 특대해주니 그들이 좋아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에 비하면 물남의 류호는 근검하고 성실하다는 호평을 받는 대신에 마음을 쓸줄 모르고 딱딱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류호는 그 누구도 회원비를 사취하지 못하게 매달 깐깐히 총화하고 그 돈이 철저히 공동사업에 리용되도록 일상적으로 자금통제사업

을 하고있기때문에 물남의 회장, 분회장들은 회원비의 덕을 볼수 없었다. 그들은 물북의 회장, 분회장들을 부러워하였다.

학생들의 월사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있는 류호는 누구에게 선심을 쓸만 한 재력도 없거니와 소털을 뽑아 제 구멍에 꽂는 딱딱한 성미여서 회장, 분회장들이 재미없어하였다.

그러나 일반회원들은 회원비를 자치단체 간부들에게 뜯기우지 않기때문에 류호를 좋아하였다. 결국 일반회원들은 류호를 좋아하고 간부들은 조희재를 좋아하였다. 그런데 로인금주회를 조직하는 바람에 일반회원들까지 류호에 대한 불만을 일으켜 박치근이 물북으로 이사해가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던것이다.

조희재는 박치근이가 물남에 대고 뒤발질을 하고 물북으로 넘어왔기때문에 쾌재를 올리며 그를 안아주고 애무해주었었다. 그러고보면 조희재는 신축성있게 예술적으로 인기술을 쓰는 사람이라면 류호는 나무처럼 꿋꿋하고 고박한 사람이였다.

몇몇 자치단체 간부들에게 선심을 쓰는 방법으로 군중을 이끌고나가는것이 조희재의 특기라면 비록 예술적인 인기술은 없지만 정직성, 성실성으로써 군중의 신임을 받아 자치단체조직을 운영해나가는것이 류호의 장기였다. 조희재와 류호는 각기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있어 물남과 물북지역들이 어느 한편에 흡수되지 않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있었다.

《어머니, 윤현칠이랑 박치근이랑 평시에는 어쨌나요? 아버지한테 무슨 반감이 있지 않았나요?》

조춘희는 새침해서 눈시울을 치켜들었다. 원래 이 마을 주민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그는 시집을 간 다음부터는 더욱 농촌동포들에 대해 관심을 돌리지 않아서 그 두 청년에 대한 파악이 전혀 없었다.

《이 마을에 네 아버지한테 반감을 가질 사람이 어디 있겠니. 더구나 박치근이와 현칠이는 네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을대로 받은 아이들이지. 네 아버지야 인심이 후하고 사람좋으니 저렇게 사방에서 손님들이 모여들지 않니. 물남의 류호령감집엔 사람 하나 얼씬하지 않는다더라.》

안씨는 류호를 비난하며 입을 삐죽거리고는 다시 발끈 성을 냈다.

《박치근이, 현칠이 그녀석들이 네 아버질 욕되게 했단 말이냐, 천하 고약한 놈들. 이제 그 에미년하구 치근이색시년이 오면 방치를 들구 내쫓겠다.》

《아이구 어머니, 그만하고 가만 계셔요. 아버지넨 지금 무슨 회합을 해요?》

조춘희는 어머니의 신경을 누잦혀주려고 일부러 말머리를 돌리였다.

《무슨 회합을 하는지 알게 뭐냐, 공연한 말씨름을 하다가 술먹고 헤여지는거지…》

이제는 안씨의 눈에도 이 집에서 하는 회합이 아무런 실속도 없는 공리공담으로 보이는 모양이였다.

조춘희도 그들의 회합을 시답지 않게 여기지만 무슨 말들을 하는지 듣고싶어 포단밑에 넣었던 손을 뽑고 일어섰다. 그가 부엌문을 열고 나서는데 두 녀인이 마당으로 들어서고있었다. 한 녀인은 토스레저고리에 아마천치마를 두른 중년녀인이고 다른 한 녀인은 쪼박천들을 대서 궤진 구멍들을 메꾼 엿새 무명치마저고리에 헌 짚신을 신은 젊은 녀인이였다.

그들은 사형선고를 받은 윤현칠의 어머니 박씨와 박치근의 안해였다. 그들은 조춘희를 보자 허리를 굽히고 절을 하였다. 조춘희는 처음 보는 녀인들이여서 잠시 주춤거리였다.

《어디서 오셨나요?》

《이 마을 안깐들이오다. 조선생님을 뵈오러 왔소다.》

중년녀인이 굽신거리며 죄지은 사람처럼 입안소리로 중얼거리였다.

조춘희는 그제야 그들이 사형수들의 어머니와 안해임을 짐작하였다.

《방으로 들어가 기다리세요. 지금 회합을 하시는데 곧 모셔오겠어요.》

조춘희는 쌀쌀하게 이르고 사랑채를 향해 걸어갔다.

후끈한 기운이 도는 사랑채 부엌아궁에 시뻘건 잉걸불이 무드기 쌓여있는데 부뚜막에 나란히 걸어놓은 두개의 주철가마들에서 흰 김발

이 새여나왔다. 부엌과 정지방이 한칸으로 되여있는 본채와는 달리 사랑채는 부엌과 방을 토벽으로 막고 한옆대기에 조그마한 새문을 달아놓았다.

방안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으나 그곳에서 주고받는 말들이 또렷이 들리였다. 누구인가 한창 열을 올리고있었다.

《송강 안식관벽에 락서한 만화가 안도동포주민들에게 주는 영향은 참으로 막심하외다. 그런데 우리 조희재선생님을 계급투쟁밖에 모르는 최동화공산당 미치광이나 음양오행론을 악용하여 동포들의 단합과 화합을 방해하는 류호령감따위와 같은 분파쟁이로 몰아서 욕된 그림을 그려놓았으니 어디 참을수 있는가요. 더우기 기절초풍할 일은 여기 대흥툰청년회원들속에서 만화락서자들이 두놈이나 나타난것이외다. 음 음…》

아궁이앞에 오금을 꺾은채 목소리에 귀를 강구고있던 조춘희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그러니 이 사람들도 대흥툰의 두 청년이 사형선고를 받은걸 알고있단 말인가? 아버지는 그걸 알고있으면서도 어머니한테 말하지 않았는가?)

여러가지 의문들이 떠올랐다.

방금 새되게 열을 올린 목소리는 조춘희가 여러번 들어본 대흥툰 농민협회장의 목소리였다. 이윽고 웅글은 목소리가 동을 달았다.

《공산당패들이 폭동이요, 뭐요 하더니 중국관헌들의 신경을 건드리는 락서까지 하며 소동을 피우니 참 야단이요.》

《정말 공산당이 했을가요? 그런데 어째 만화에다 최동화까지 그려넣었을가요?》

누구인가 반신반의하자 웅글은 목소리가 짜증을 냈다.

《아까 조희재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뒬로 들었소? 공산주의자들속에도 여러 파가 있어서 서로 권력쟁탈전을 한다지 않았소. 그자들속에 파가 많지만 모두 하나와 같이 폭력으로 세상을 뒤집어엎자는 미치광이들이요. 약자의 처지에서 강자들에게 폭력저항이요, 타도요 하는자들이야말로 정신병자가 아니겠는가. 지금까지 맨주먹으로 일제와 싸우다 죽은 과격파애국자들이 작히나 많소. 그 사람들이

가져다준것이 뭐요? 수천수만의 인명피해를 낸것밖에 있는가. 그런데도 최동화와 같은 공산당패들이 계속 적수공권으로 폭력투쟁을 벌려 만주땅에 무산계급의 세상을 만들겠다 하니 닭알로 바위를 쳐서 깨뜨리겠다는 얼빠진짓이 아니웨까?》

이 웅글은 목소리는 물북청년회 회장이였다.

그는 한때 정의부산하 독립군부대에서 폭력투쟁을 주장한 가장 적극적인 주전자였었다. 하지만 지금은 얼굴색 하나 붉히지 않고 공산당패들을 미치광이들이라고 욕질을 해대며 비폭력무저항주의를 부르짖고있었다.

《예ㅡ 여러분들이 대체로 다 옳은 말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득 울리는 아버지의 저력있는 목소리에 조춘희는 반사적으로 어깨를 흠칫하였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운동이 장장 수십년 혈투의 힘든 길을 거쳐왔지만 그 어떤 결실도 얻지 못한것은 무엇때문인가?》

조희재는 이렇게 절절히 자문하고 오열에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하였다. 《그것은 청년회장이 말한바와 같이 명백한 운동방향과 리론이 없이 그리고 실력배양을 뒤전에 밀어놓고 적대자와 맨주먹으로 저돌적인 충돌을 한때문이외다. 둘째로는 우리 나라에 예로부터 존속해온 벼슬아치들의 편협과 당쟁의 악습이 오늘에 이르러서도 근절되지 않고있기때문이외다.

돌이켜보시오. 과거의 력사가 어떠했소. 오직 자기만이 옳고 자기와 상치되는 의견이나 다른 신앙, 리념에 대해서는 용납할줄 모르는 극심한 편협이 단결과 화합을 깨뜨렸고 사리사욕을 앞세우는 당쟁이 국정을 어지럽혔소. 자, 봅시다. 리조 초기에는 불교에 대한 유교의 파쟁이 극심했는데 이것은 세종, 세조때에 극렬했다가 중종, 명종때에 이르러 유교의 절대적인 우세로 끝을 맺었지요. 그뿐아니라 또 사화라는것이 발달하여 동서, 로소, 남북의 추한 투쟁이 국력을 쇠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당쟁에만 눈이 벌개서 교육도, 산업도, 치산치수도, 군대도 다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반대파를 죽이고 저를 보존하기에 급급했을뿐이외다. 아 아, 참으로 이같이 절통한 일이 어디 있소.》

조희재가 가슴을 두드리는지 연탁을 두드리는지 탁탁 무엇이 부딪치는듯 한 소리와 함께 눈물젖은 기침소리가 들려왔다.

조춘희의 눈언저리도 쩌릿해졌다. 그것은 지난날 우국지사들에게서 자주 들어오던 소리였으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그대로 자기 가슴으로 옮아오는것 같았다.

《리조 말기에는 또 어떠했소?》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에 떨리고있었다.

《갑신에는 김옥균의 개화당과 민비일족의 사대당이 피를 물고 싸웠고 청일전쟁때에는 친청파와 친일파가, 로일전쟁 당시에는 친로파와 친일파가 상대파를 죽이고 자기를 살리기 위해 그야말로 생사결판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나라가 망하지 않을수가 있습니까.

나라가 망한 뒤에는 당쟁과 파쟁이 없었는가요? 여러분, 대답해보시오.》

좌중을 향해 물어보는 조희재의 목소리에는 피가 타고 애가 끊기는듯 한 절통함이 배여있었다.

《같은 독립군안에도 무슨 단이요, 무슨 회요, 무슨 부요 하는것이 많아 8단 5회 3부라 했고 같은 파안에서도 개인지도자를 중심으로 혁신파요, 보수파요 하는 갈래가 생겨 제개비네 집안이라 했소. 동북땅에 존재한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안에도 군정파요, 민정파요, 보수파요, 혁신파요 하는 여러 갈래의 파가 생겨 옥신각신 티각태각하지 않았는가요. 3부가 합동한 국민부가 생긴 이래 여전히 파가 갈라져있어 집안싸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더두 말고 여기 안도현에도 류호의 물남패요, 조희재의 물북패요, 최동화의 공산패요 하는 여러 패들이 서로 눈을 흘기적거리며 사람당기기를 하여 우리가 만화의 인물로 조소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외다. 그렇다고 나라도 민족도 소외하고 애오라지 계급투쟁밖에 모르는 저 최동화나 민족안의 분렬을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음양론자인 류호라는 사람한테 안도의 거주민들을 맡기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떤때는 이꼴저꼴 보지 말고 안도땅에서 훌 떠나고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솟구쳐오르군 하지만 대아를 위해 소아를 버려야 한다는 옛 성인의 뜻을 따라 여태 여기에 버티고앉아있습니다. 아 하—》

땅이 꺼지는듯 한 조희재의 탄식하는 소리가 그 무슨 폭풍소리처럼 청중의 가슴을 뒤흔들어놓은듯 별안간 방안이 소연해지더니 농민협회장의 목소리가 또다시 울렸다.

《조선생이 안도땅을 뜨시다니 그 무슨 소리오이까. 조선생님께서 계셔야 안도땅이 평정되고 안도의 조선거주민들이 마음편히 살수 있소이다. 조선생님이 가시면 우리모두는 일조에 고아의 신세가 됩니다. 물남은 물남이고 최동화는 최동화이고 우리 물북만이라도 조선생님을 모시고 화평하게 살고싶소이다. 안 그렇소, 여러분?》

방안에서 다시 웅성거리는 소리가 크게 울리였다. 그것은 농민협회장의 말에 열렬히 호응하는 청중의 반향이였다.

조춘희는 가슴이 뿌듯해졌다. 아버지에 대한 물북지역 기둥인물들의 신망이 두텁다고 생각되였던것이다.

《자, 조용하시오!》

조희재의 목소리가 다시금 저력있게 울리였다.

《방금 농민협회장이 말한것처럼 제 생각도 물북지역 조선주민이라도 편안히 살도록 해야 하겠다는것이외다. 우리는 타산없는 폭력과 무모한 저항을 절대 금하여야 합니다. 만화락서로 저항한자들이 어찌되였소? 사형선고를 받지 않았소. 우리가 수천수만의 시체우에 영웅담이나 기록해선 뭘하겠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조희재특유의 수사학적물음에 청중이 한껏 긴장해진듯 방안이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누구누구해도 안창호선생의 독립운동이 그중 따를만 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춘희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지었다. 새말이 나올줄 알았는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안창호의 독립운동론이 나오기때문이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안창호의 사상은 민족개조사상이고 안창호의 민족운동은 인격혁신과 자아혁신을 내용으로 하는 흥사운동이외다. 선생은 흥사운동이란 상쟁의 세계에서 상애의 세계(서로 싸우는 세계에서 서로 사랑하는 세계)에로, 무정한 사회에서 유정한 사회에로, 불신의 사회에서 신의의 사회에로 나라와 백성을 이끌어가는것이라

일렀습니다. 교육과 산업을 진흥시켜 민중의 얼을 깨끗이 정화하고 지성도를 높이고 재력을 넉넉히 하는것, 이것이 안창호선생의 국권회복의 방략이외다.》

이때 부엌문이 벌컥 열리였다. 때국이 꾀죄한 허드레옷을 입고 흰 수건을 이마에 동인 젊은이가 몸을 떨면서 부산스레 뛰여들었다. 그는 돌쇠라는 이 집의 하인인데 익살스럽고 너스레를 잘 쳐서 리도령의 방자라고들 하였다.

《어이 추워. 웬놈의 날씨가 이 모양이야.》

《쉿, 조용해요.》

조춘희는 떠들어대는 그에게 손가락을 입에 대보였다.

《일없수다. 밤낮 같은 소릴 하는 회합인걸요.》

돌쇠는 방안사람들이 다 들을만큼 그냥 큰소리로 떠들어댔다. 그는 회합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양이였다.

《아이, 안에서 다 듣겠어요. 그런데 손에 든 그 종이는 뭐예요?》

《헤 헤… 보시다나.》

방자는 조춘희에게 글쪽지를 내보이였다.

《고기가 흐집니다.》

삐뚤삐뚤한 서툰 글씨가 쪼박종이에 가득 채워져있었다. 회합을 그만하고 단고기추렴을 하라는 돌쇠의 독촉장이였다.

조춘희는 그만 웃음이 터져나왔다. 이날 점심에는 단고기추렴을 하게 된 모양이였다. 류호의 음양론에 의하면 단고기는 여름에 먹어야 좋은것으로 되여있다. 왜냐하면 단고기는 더운것과 화합이 되고 찬것과는 상극이기때문이였다. 그래서 단고기추렴을 한 뒤에는 오뉴월에도 김이 문문나는 뜨끈한 물로 입가심을 해야지 찬물을 먹으면 배탈이 난다고 한다.

류호는 병리학도 음양론에 기초해서 해석을 했다. 그러나 조희재는 여름보다도 겨울에 단고기추렴을 자주 벌리였다. 겨울에 벌리는 그의 단고기추렴은 류호의 극단적인 음양론에 대한 조롱인지도 모른다. 술을 받아놓고 단고기추렴을 할 때면 실지 그는 류호를 조롱하기가 일쑤였다. 앞에서는 상쟁의 세계에서 상애의 세계에로, 분렬과

불화의 세계에서 단결과 화합의 세계에로라고 웨치면서도 실지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리론가들이 좀 많은가.

돌쇠의 떠드는 소리를 듣고 누구인가 금시 새문을 열어젖힐것 같아 조춘희는 종이쪽지를 휘뚜루 내던지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고기가 흐집니다.》라는 글쪽지로 하여 회합에 대한 영상이 더욱 흐려졌다.

조춘희는 아버지의 위선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이렇게 매번 뜻대로 되지 않는것이 괴로왔다. 류호네 물남에서는 아버지를 위선자, 나아가서 사회운동협잡군이라고까지 비난한다고 한다. 무식하면서도 령리한 돌쇠의 글쪽지가 은을 냈는지 벌써 사랑채 부엌문가에서 두런거리는 소리가 났다.

조춘희는 자기 몸을 숨기듯 얼른 부엌안으로 들어갔다. 순간 그는 의외의 광경에 눈이 떼꾼해졌다. 박치근의 안해와 윤현칠의 어머니는 보이지 않고 강반석녀사께서 어머니와 마주앉아 이야기하고계시기때문이였다.

안씨가 일전에 녀사께서 지어주신 명주치마저고리를 내놓고 치사를 하고있었다.

《아니, 어쩌면 사람을 보지도 않고 이렇게 몸에 딱 붙게 지으셨어요?》

안씨는 저고리소매와 깃을 만져보기도 하고 도련을 꺾은 저고리자락을 쓸어보기도 하면서 오십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맵시있게 지은 옷을 보기는 처음이라며 연방 격찬을 하였다.

《잘 지어보자고 애는 썼지만 재간이 모자라 제대로 된것 같지 못해요. 그러나 옷이 몸에 붙는다니 마음이 놓입니다.》

녀사께서 조춘희를 띠여보고 반색을 지으시였다.

《춘희로구만!》

《아이, 강녀사께서 어떻게 우리 집을…》

《어머님께 지어드린 옷이 어떤지 알아보고싶고 또 아버님께 긴히 부탁할 일도 생겨 겸사겸사 왔어요.》

녀사께서는 춘희가 곁에 앉도록 옆에 놓인 반짇고리를 치워주시였다.

《현칠이 어머니랑은 갔어요?》
조춘희는 녀사의 곁에 다가앉으며 어머니 안씨에게 물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내쫓았다. 체면없는것들…》
안씨는 발끈 성을 내고는 딸더러 빨리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하였다.
조춘희는 녀사께서 무슨 일로 아버지를 찾아오셨는지 무척 궁금했으나 캐여묻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얼마후 조춘희가 아버지를 데리고 들어왔다. 조희재는 새해에 갓 쉰이라고 하지만 아직 40대초의 혈기방장한 장년처럼 젊어보였다. 키가 크고 부얼부얼한 얼굴에 주름살 하나 패이지 않아 폭싹 늙은 안해에 비하면 3년이 아니라 10년이나 아래로 보이였다. 하기는 언제인가 처음 온 손님이 안씨를 조희재의 로모인가 하여 무릎을 꿇고 절을 해서 웃긴 일도 있었다고 한다.
녀사께서 얼른 일어나서 조희재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시였다.
《강반석이라고 합니다. 바쁘신 선생님의 시간을 빼앗아 죄송합니다.》
《원 천만에… 부인의 성함은 익히 들어 알고있습니다. 우리 로친의 옷을 정성스레 지어주어서 감사합니다. … 어서 편히 앉으시오.》
조희재는 친절하게 자리를 권하였다. 그는 정지방 웃목에 점잖게 올방자를 틀고앉았다. 명주바지저고리를 입은 그는 부드러운 인상을 주면서도 행동거지가 아주 점잖고 틀지였다.
《나한테 무슨 부탁이 있어 오셨다는데?》
조희재는 안주머니에서 누런 도금을 한 회중시계를 꺼내더니 눈을 쪼프리고 들여다보았다. 그러한 그의 행동과 표정은 찾아온 용건을 빨리 간단히 말해달라고 독촉하는듯싶었다.
녀사께서는 만화락서사건으로 억울한 혐의를 쓰고 사형선고를 받은 대흥툰청년들을 구원할 방도를 의논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그 젊은이들이 만화락서를 했다는것은 전혀 리치에 맞지 않습니다.》
녀사께서는 차근차근 그 리유를 말씀하신 다음 도회지와 멀리 떨

어진 심산벽지인 여기 관헌들과 토호들은 소왕국을 차려놓고 제 마음대로 전횡을 부리고있다는것, 정당한 신소도 자기들의 비위에 거슬리거나 리익에 저촉되면 잔인하게 묵살해버린다는것, 그때문에 대흥툰청년들을 구원하자면 이 마을의 어른들이 그들의 무죄를 보증하는 마을주민들의 집단보증서를 만들어가지고 안도현의 최고관헌들에 대항하여 석방운동을 벌려야 될것 같다고 하시였다.

조희재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지어졌다.

《그러니 나더러 보증서를 들고 석방운동을 벌리라는거요? 무한장을 찾아가라는건가요?》

한참만에 불쑥 내뱉는 조희재의 질문은 아주 언짢은 어조였다.

《선생님께서 시간이 없으면 청년회 회장이 가도 될것입니다. 박치근, 윤현칠청년들이 이곳 청년회 회원이라니…》

《부인이 그런 일로 왔다면 돌아가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조희재는 표표한 얼굴로 일축해버리였다. 그는 방금 회합에서도 남의 땅에 와있는 약소민족의 망국인으로서 이곳 통치자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일을 하는것은 매우 위험한것이므로 저항의 자세가 아니라 무저항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데 합의를 보았다고 강조하고 《칼자루를 쥔 사람들이 주민들의 보증서따위에 눈섭 하나 까딱할것 같습니까. 부인도 말씀한것처럼 그들은 흰것도 붉은것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애들이 만화락서를 하지 않았다 해도 폭동음모가담자가 아니라는데 대해서는 우리도 보증할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두사람을 살리려다가 온 마을이 화를 입을수 있습니다. 제3자인 부인보다도 마을사람들을 거느리고 사는 내 속은 더 탑니다. 무슨 생각인들 안했겠소. 그럼 손님들이 기다려서… 실례합니다.》

움쭉 일어선 조희재는 장지문을 열고 웃방으로 올라갔다. 손님들이 기다리는 음식칸이 그쪽으로도 통해있었다.

녀사께서는 그만 아연해지여 덤덤히 앉아계시였다.

웃방에 올라갔던 조희재는 무슨 생각이 났던지 장지문을 도로 열고 정지방을 내려다보았다.

《들리는 말은 부인님이 이곳에 와서 녀성들도 글을 배워야 한다, 앞으로 부녀회같은것을 조직해서 애국계몽운동을 해야 한다 하고 선

동을 하신다는데 일후 다시는 물북녀자들에게 그런 선동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바입니다. 서문밖마을엔 벌써 부녀친목회라는게 조직됐다는 말이 있는데 나는 물북의 자치단체를 거느린 총재로서 그런걸 허락할수 없습니다. 사회에 암닭이 성하면 재화가 미치기마련입니다.》

그때문에 조희재는 녀성단체만은 조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물남의 류호도 남자는 양이고 녀자는 음이므로 녀자는 그저 남자를 따르면 되는것이지 우로 솟구쳐올라 활개짓을 하면 재난이 미친다고 하면서 그전에 김광문이라는 사람이 조직했던 녀성단체를 해체시켜버렸다고 했다. 그는 류호의 말을 시답지 않게 여기지만 그 말만은 잘한것으로 본다는것이였다. 그리스도교의 성서에도 남자의 갈비뼈로 녀자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는가, 남녀동등이라는건 공산분자들이 하는 소리이니 여기 관헌들의 비위를 크게 거슬리게 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오금을 박고 뒤를 이었다.

《부인을 위해 다시 권고하는데 자선운동이나 하지 남의 마을에 와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마시오. 시국말로 스트라익(폭동)바람은 일으키지 마시오. 어느 한 인사도 말했지만 요즘 공산파들의 영향으로 혁명, 혁명 하며 학생은 선생배척, 로동자는 자본가배척, 농민은 지주배척 그저 배척바람으로 질서의 문란과 인정의 랭각이 첨단에서 첨단으로 뻗어나가는데 이런것은 다 도덕의 쇠퇴를 초래할뿐이외다. 원래 반역성이란 마귀의 특성이외다.》

청산류수처럼 거침없이 긴말을 늘어놓은 조희재는 안씨를 돌아보면서 점심때가 되였으니 손님에게 음식대접을 잘하라고 점잖게 이르고 헛기침을 깇으며 장지문을 닫았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졸지에 온몸의 맥이 풀리시였다. 크게 믿고있던 조희재의 마음을 움직일수 없겠다는 실망과 좌절감에 전신이 나른해지시는것이였다.

녀사께서는 무릎을 짚고 일어서시였다. 그러자 안씨가 곁따라 일어서며 녀사의 손을 붙잡았다.

《우리 령감을 리해해주셔요. 만환지 뭔지 거기에 령감의 이름과 얼굴도 들어있다는 말을 들은 다음부터 심기가 좋지 않아 요즘은 집

에서도 줄창 저런답니다. 모처럼 오셨는데 점심이라도 들고가셔야 제 마음이 편할게 아니겠어요. 령감도 점심을 꼭 대접하라 일렀는데…》

안씨는 강반석녀사를 랭대한 남편의 무례한 행동을 변명하느라 중언부언하였다. 녀사께서는 진지를 드실 생각이 전혀 없으시였으나 안씨의 성의를 생각하여 도로 앉으시였다.

《이 집의 음식솜씨가 여간 아니라는데 그럼 왔던김에 맛볼가요.》

녀사께서는 흔연히 웃으며 롱조의 말씀을 하시였다.

안씨는 반색을 짓더니 점심을 차비하려는지 밖으로 나갔다. 조춘희는 두리상을 펴고 행주질을 하였다.

《녀사님, 저의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까지 살아오던중 오늘의 생활이 제일 편안하고 행복하답니다.》

녀사께서는 눈을 치뜨고 조춘희를 의아히 지켜보시였다.

《제 말이 역설처럼 들릴지 모르겠으나 그건 사실이예요.》

구한국시대엔 정객들의 당쟁과 탄압, 병란과 궁중소요로 하여 조씨네 집안이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고 한다. 량반유생인 춘희 할아버지는 갑신정변때 하마트면 개화파에 몰려 참살당할번 했다고 한다. 망국이후 왜놈들을 반대하여 저마다 독립운동을 벌리던 때에는 춘희네 집에도 늘 총칼의 위험이 와닿군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위험이 없이 살아가고있지요. 약자의 저항은 재난을 가져오는것밖에 없다는 피의 교훈을 얻고 아버지가 새길을 선택한 덕이예요. 이 안정이 무너지는것을 부모님들은 바라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서명운동을 반대하는거니 리해해주세요.》

녀사께서는 억이 막혀 한숨을 지으며 고개를 저으시였다.

《난 리해되지 않네. 지금 안도주민들은 죄없이 잡혀가고 죽음을 당하고있네. 더두 말고 이 마을 청년 두명이 당장 죽게 되지 않았나. 모두 이렇게 전전긍긍하고있는데 자치단체 총재네 집이 편안하고 행복하다니 어떻게 리해할수 있겠나. 서명운동조차 하기를 무서워하는 생활이 안정된 생활일가?》

이때 밖에 나갔던 안씨가 들어와 조춘희와의 대화가 끊어졌다. 인차 점심상이 차려졌다. 이 집의 생활수준을 말해주는 대단한 성찬이였다.

녀사께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수저를 드시였다.

4

조희재네 집에서 나온 강반석녀사께서는 조선녀의 집으로 향하시였다.

아침보다 날씨는 더 춥고 사나와졌다. 설한풍이 휘몰아치는 속에서 쩡, 쩡 나무 터갈라지는 소리가 총성처럼 울리였다. 숲속의 눈밭을 기여다니는 꿩들이 그 소리가 울릴 때마다 놀라서 푸드득푸드득 날아오르군 하였다.

마을 한끝 산기슭 외딴뜸에 땅버섯처럼 앉아있는 초가집 한채가 바라보이자 녀사께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금시 주저앉을듯싶은 키낮은 추녀, 찌그러진 지게문, 삐뚤서하게 서있는 절구통같은 통나무굴뚝… 방금 보신 조희재네 집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오막살이초가집이였다.

녀사의 뇌리에 잊지 못할 추억들이 갈마드시였다.

아버지는 돈회계도 제대로 못하는 모자라는 외팔이불구이고 어머니는 한뉘 자리에 누워 골골 앓기만 하는 고삭부리여서 조선녀야말로 고생과 천대속에 살아온 처녀였다.

녀사께서는 김형직선생님의 발기에 의하여 력사적인 무송회의가 진행되였던 1925년 8월 조선녀네 세식구를 처음 보시던 일이 새삼스레 상기되시였다.

조선, 만주, 중국본토, 연해주, 아메리카주 등 국내외의 모든 독립운동단체 대표들이 무송 양지촌 김하일집에서 중대회합을 한창 하고있을 때 개똥녀(조선녀)네 세식구가 상한 물고기를 먹고 식중독을 일으켜 사경에 처하게 되였다. 그러나 누구도 돌봐주는이가 없었다. 이것을 아시게 된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독립운동의 운명과 관련되는

그 중대한 회의를 두시간이나 중지하고 개똥녀네 식구를 응급처치하신 다음 소남문거리 무림의원으로 보내여 강반석녀사의 간호를 받게 하시였다.

녀사께서는 밤을 새워가며 그들을 정성껏 간호하여 병을 완쾌시키고 당목천을 사서 옷주제가 한심한 그들에게 여름옷과 겨울옷을 각각 한벌씩 지어주시였다.

그때 사람들은 녀사께서 친히 머리를 감겨 비다듬어주고 새옷을 입혀주신 개똥녀의 절색의 용모에 놀라게 되였다. 무송현성은 물론이고 동만일대에서 개똥녀의 미모에 견줄만 한 처녀는 없다고들 모두 말하였다. 하지만 그 절색의 미모로 하여 조선녀는 얼마나 복잡한 인생곡절을 겪었던가.

무송의 왕지주가 조서방의 요구에 의해 조선녀를 첩으로 맞았다는 법문서를 조작하여 조서방은 들메나무에 목을 매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조선녀도 자살을 기도하여 강물에 몸을 던졌댔으나 마침 거루배를 타고 강을 건느던 독립군총각인 곽명준이 손을 써서 죽지 않고 살아날수 있게 되였다.

그때도 강반석녀사께서 한 처녀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해 가병을 거느린 왕지주의 집에 단신으로 찾아들어가 그놈의 법문서가 글모르는 조서방과 개똥녀를 속여서 조작한것이라는것을 끝내 밝혀내시였다.

그것은 한몸을 내대는 희생성이 없이는 할수 없는 일이였다.

녀사께서는 어쩌면 지금 무송에서와 같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희생성을 요구하는 엄중하고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게 되였다고 생각되시였다.

안도의 무한장은 무송의 왕지주와는 대비도 되지 않는 권력과 재력을 겸비한 지주이고 일단 자기만 결심하면 아무런 주저도 없이 사람을 죽여버리는 무서운 폭군이였다. 아마도 그래서 조희재도 뒤를 사릴것이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사형수들을 살려내야 한다.)

녀사께서는 굳게 마음다지며 걸음을 옮기시였다.

얼마후 조선녀의 집 마당에 들어서신 녀사께서는 닭도 개도, 돼지우리와 외양간도 없는 호젓한 빈 뜨락을 둘러보고 조용히 주인

을 부르시였다.

《선녀 있나?》

대답이 없었다.

두번 세번 주인을 불러도 응대가 없어 부엌문을 열어보시였다. 문은 걸려있지 않는데 방은 비여있었다.

밖에서 보기와는 달리 퍼그나 아늑하고 어느 구석에나 녀인의 알뜰한 손이 가닿은 깨끗한 방이였다. 낡은 왕골노전을 깐 방바닥은 매일 걸레질로 닥달을 한듯 반짝반짝 윤기가 돌고 바람벽도 흰 종이로 도배를 하여 방안이 눈부시도록 환하였다. 부엌에 걸어놓은 주철가마 두개도 얼마나 대우를 냈는지 마치 까만 오지물을 들인것 같았다.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맞춤히 놓여있어 재미스럽게 눈맛을 돋구었다. 째지게 가난한 살림에도 거둠질과 옷단장을 깨끗이 하여 가난티가 나지 않게 살아가시는 녀사의 본을 그대로 배우고 따르는 무송시절의 반일부녀회원 조선녀였다.

조밥을 물에 말아놓은 양재기와 된장단지 하나가 부뚜막에 놓여있었다. 집주인이 점심을 먹다가 어디로 나간것 같았다.

반시간 좋이 기다려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녀사께서는 목도리를 다시 두르고 밖으로 나오시였다.

잠시 마당에서 발볌거리던 녀사께서는 박치근, 윤현칠의 가족들을 만나볼 생각으로 걸어온 마을길을 되짚어 걸어가시였다. 그들의 집은 조희재의 집에서 멀지 않은 큰 길목에 나란히 서있었는데 윤현칠이네 집 토방에 많은 신발이 놓여있었다.

방안에서 도란거리는 녀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녀사께서 조용히 주인을 부르자 도란거리던 소리가 뚝 끊어지더니 한 젊은 녀인이 지게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다.

《어디서 오셨나요?》

《이 집 아주머니를 만나자고 서문밖마을에서 왔어요.》

《이 집 어머닌 누굴 만나볼 경황이 없는것 같아요. 좌우간 들어오세요.》

녀사께서 방안에 들어서시자 아래웃방에 앉아있던 여러 녀인들의 시선이 일시에 그이께로 쏠리였다. 순간 그들속에서 《아니,

사모님!》하고 다급히 부르며 뛰쳐일어서는 녀인이 있었다. 조선녀였다.

《선녀로구나, 집에 갔댔다. 네가 여기 와있었구나.》

녀사께서는 선녀의 두손을 마주잡고 밝은 웃음을 지으시였다. 흰 무명치마저고리에 가랑머리를 땋아늘이고 붉은 댕기를 드린 선녀의 얼굴은 마치 활짝 핀 한떨기 목란꽃같았다.

《사모님, 어떻게 이 집엘?》

《조희재선생님이랑 너랑 좀 만나보자구…》

녀사께서 말을 채 끝맺기도 전에 웃방에서 뭐라고 소리치며 뛰쳐내려오는 녀인이 또 있었다. 일전에 마춘욱이네 객주집에 와서 남편의 등거리를 지어간 홍주향이였다.

《아, 주향아주머니로군요.》

녀사께서 반색을 지으며 홍주향의 손을 잡아흔드시였다. 흥분한 홍주향은 방안의 녀인들에게 소리쳤다.

《내가 말한 그 형님이요. 천과 솜을 대서 등거리를 두벌이나 지어주고 내 이름까지 지어주신 그 형님…》

이미 그에게서 녀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번 들은듯 녀인들이 줄레줄레 일어섰다. 그런데 이때 아래목에서 별안간 통곡소리가 울리였다.

《내 아들아! 현칠아! 네가 죽는다니 웬말이냐, 으흐흐…》

녀사께서 놀라서 돌아보시니 아래목에 이불을 깔고 누운 중년녀인이 주먹으로 방바닥을 두드리며 넉두리를 하고있었다.

《내 스무살도 되기 전 초년과부가 되여 너 하날 보구 이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네가 죽으면 어쩐단 말이냐. 세상 착하디착한 너한테 무슨 죄가 있다구 사형한단 말이냐! 이 벼락맞을 놈들아! 내 아들을 내놓아라!》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 녀인은 윤현칠의 어머니였다. 그는 아침에 박치근의 안해와 함께 조희재의 집을 찾아갔다가 아들이 사형언도를 받았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고 집에 돌아온 후부터 쓰러진채 일어나지 못하고있었다.

조선녀는 점심밥을 먹고있을 때 박씨가 기절했다는 말을 듣고 근

처녀인들과 함께 부랴부랴 여기로 달려왔다고 한다.

박씨의 머리말에서는 갓난애기를 안은 젊은 녀인이 쿨쩍거리며 울고있었다. 그는 박치근의 안해였다.

《사모님, 이 마을의 박치근, 윤현칠청년을 사형한다는 공시가 송강시내에 나붙었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조선녀는 아직도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였다.

《사실이다. 내가 직접 보았다. 그래서 내가 여기로 왔다.》

녀사께서는 비통하게 뇌이며 박씨의 곁에 앉으시였다.

박씨는 계속 주먹으로 방바닥과 가슴을 치면서 원성을 터뜨리였다.

《치근이 그녀석이 못된 녀석이야. 술을 마시겠으면 자기나 마실게지 왜 우리 현칠이를 끌고가서 그런 날벼락을 맞게 하나 말이다. 술을 마시지 말라고 바른 말을 해준 류호령감한테 뒤발질을 하고 넘어온 그녀석을 받아준 내가 잘못이지, 내가 죄돌았지… 아이고, 현칠아! 너 없인 난 못산다. 네가 죽는 날… 나도 사형장에 나가 같이 죽겠다. 으흐흑…》

《형님, 어찌겠소… 마음을 굳게 먹소.》

홍주향이 박씨의 팔을 잡아흔들며 목메인 소리로 위로하였다. 그러자 박씨가 그 녀자를 멍하니 올려다보더니 이불밑에서 소년의 주먹만 한 동그란 물건을 들어보이며 울음을 터뜨리였다.

《동서, 이것 보게. 우리 현칠이 장가갈 때 쓰자구 내가 이걸 고이고이 간수해두고있었네. … 그런데 장가두 못 보내구… 아이구, 가슴이야!》

박씨는 또다시 주먹으로 가슴을 치면서 서럽게 흐느끼였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앙증스러운 작은 물체가 방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녀사께서 노란빛을 띠는 그 고운 물건을 손에 드시였다. 그것은 결혼식날에 쓰는 사랑의 합근박이였다.

그것을 드신 녀사의 손이 가늘게 떨리였다.

옛날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시집 장가를 보낼 자식들이 있는 부모들은 따뜻한 볕이 쪼이는 봄날 돌각담밑 깨끗한 땅에 애박씨를 심었었다. 가을에 애박덩굴이 돌각담을 뒤덮을 때 애박을 정히 따서 집안에 간수해두고있다가 결혼식날에 그것을 둘로 쪼개여 한쪽(수박 즉

신랑박)에는 청실을 달고 다른쪽(암박 즉 신부박)에는 홍실을 달았다. 그것을 합근박이라 했다. 이 사랑의 박에 술을 담아 신랑신부가 동시에 마시면 간접적으로 입을 맞추는것으로 보았다. 서양사람들은 결혼식날에 숱한 잔치군들이 보는 앞에서 신랑신부가 직접 입을 맞추게 하지만 우리 조선사람들은 합근박으로 간접적으로 입맞추기를 시키였다. 합근박에 의한 간접적인 입맞춤은 인생반려의 변심없는 사랑을 약조하는 고상하고 웅심깊은 례식이였다. 그러나 그 아름답고 고상한 조선의 결혼풍습은 일제가 이 나라를 강점한 이후부터 점차 사라져버려 1930년 당시 만주 이주민속에서는 애박의 종자씨를 가지고있는 집이 없었다. 걸음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고달프게 살아가는 조선이주민들은 애박씨를 심을 경황조차 없었던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형수 윤현칠의 어머니가 합근박을 간수해두고있은 것이였다.

녀사께서는 기가 막히시였다.

박씨의 넋두리는 계속되였다.

《송강에 있는 점쟁이령감이 우리 현칠인 스무살을 넘겨서 장갈 보내야 좋다길래 이걸 금뎅이처럼 건사해두고있었는데… 그럴줄 알았으면 장가라도 보냈을걸… 내 아들아! 현칠아!…》

박씨가 주먹으로 가슴을 탕탕 치면서 큰 울음을 터치자 박치근의 안해도 드디여 엉엉 소리를 내며 울었다.

방안은 울음소리로 소연해졌다.

녀사께서는 한무릎 나앉으며 통곡하는 박씨의 한쪽손을 감싸쥐시였다.

《현칠이 어머니… 그만 진정하세요. 아드님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아들이 죽지 않는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이였는지 박씨는 울음을 그치고 녀사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내 아들이 죽지 않는다고요? 어디서 온 손님이게?》

그러자 홍주향이 입을 열었다.

《형님, 일전에 내 말하지 않았소. 내 이름을 지어준 그분이요.》

박씨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녀사의 손을 꽉 움켜쥐였다. 그것

은 마치도 물에 빠진자가 무엇이든 손에 닿는대로 힘껏 움켜쥐는것과 같은 단말마의 힘이 느껴지는 손이였다.

《내 아들이 죽지 않는다고요?》

녀사께서는 애박을 박씨의 손에 쥐여주시였다.

《그래요. 죄없는 아들이 왜 사형을 당하겠어요. 꼭 살리겠어요. 그러니 이 애박을 잘 건사해두었다가 아들 잔치날에 쓰세요.》

녀사의 이 말씀이 박씨에게 얼마나 큰 위로로 되였는지는 녀사자신께서도 모르시였다.

방안은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녀사께서는 움쭉 일어서시였다.

《저기 애기를 안은 아주머니가 박치근의 안사람같은데 울지 말고 힘을 내요. 여기 앉아 울기만 해서야 무슨 소용이요. 남편을 살려낼 방책을 찾아야지.》

녀사께서는 옷고름으로 눈굽을 찍고있는 홍주향을 돌아보시였다.

《주향아주머니도 그날 박치근이와 윤현칠청년이 잡혀가는걸 보았지요. 누가 먼저 트집을 걸었소? 보위단놈들이요. 그놈들이 먼저 잠자는 청년들에게 발길질을 하며 행패질을 했지요. 아주머니, 우리는 이에 대해 보증을 서야 해요.… 모두 힘을 합쳐 석방운동을 벌려야 해요. 안녕히들 계세요.》

녀사께서는 녀인들에게 모두거리로 고개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오시였다. 조선녀가 따라나왔다.

녀사께서는 큰길목에 나와 조선녀에게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시간이 없어 긴말을 못하겠다. 래일 아침 열시경까지 민옥이네 집으로 오너라. 핵심조직원들의 회합을 해야겠어. 우리 조직이 앞으로 무엇을 목표로 삼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투쟁해야 하겠는가를 토론하자는거다. 당장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한다. 사형수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말이다. 석방운동을 통해 주민들을 단합시켜야 한다. 이런것들을 잘 생각했다가 좋은 의견을 내놓아라. 흥룡촌의 리영배와 김철희한테는 내가 알릴테니 선녀는 김순애아주머니에게 련락해다오.》

《련락을 제가 다 할테니 사모님은 걸음을 마세요.》

《안야, 선년 여기 있으면서 현칠이 어머니랑 위로해주라구.》

녀사께서는 합근박을 내보이며 서럽게 흐느끼던 박씨의 모습이 눈에 감치여 가슴이 저리시였다. 《선녀, 그렇게 하라구. 정업툰은 멀지 않으니 순애아주머닌 저녁녘에 짬을 봐서 만나도 될거네. … 참, 어머닌 어디 계시나? 집에 없더군.》

《만경대할머닐 만나뵙겠다구 흥룡촌에 갔어요.》

《그래, 그럼 거기서 혹시 만날수 있겠구만. 자, 어서 들어가게.》

녀사께서는 선녀의 어깨우에 다정히 손을 얹으시였다. 갑작스레 서북쪽에서부터 세찬 바람이 눈가루를 말아올리며 두 녀인을 향해 줄달음쳐왔다.

녀사께서는 서북풍을 등지고 눈에 다져져 미끈미끈한 달구지길을 바삐 걸어가시였다.

5

하얀 명주바지저고리에 파란 대님을 매고 방안에 앉아있던 민태감로인은 벽시계가 여덟점을 치자 움쭉 일어섰다. 잠시 방안에서 서성거리던 그는 급히 밖으로 나가 가게방 빈지문에 휴일표딱지를 걸어놓고 성문쪽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아침 10시경부터 핵심조직원들이 자기 집에서 비밀회합을 하기때문에 로인은 어지간히 긴장되여 있었다.

거리에는 칼을 찬 순경들과 장총을 멘 보위단원들이 밀려다니였다.

민로인은 찬바람 부는 집앞거리에 한참이나 서있다가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합각지붕을 얹은 그의 집은 함경도식으로 된 정지방과 가게방이 달린 웃방, 안방, 뒤고방 등 방이 네칸이나 되였다. 그중 안방을 통해 조그마한 쪽문을 열고 들어가게 된 뒤고방은 대낮에 소를 잡아도 모를만큼 깊숙한 방이여서 비밀회합을 하기에 좋은 방이였다.

민로인의 유일한 살붙이인 손녀 민옥은 조반술을 놓기 바쁘게 회의손님을 맞으러 성문쪽으로 나가고 며느리는 회합장소인 뒤고방을

거두러 들어가서 집안은 빈집처럼 조용하였다.
민비시해사건이 있은 을미년부터 사람의 길흉, 화복을 론하는 미신적인 학문인 《명과학》책들을 탐독하기 시작하여 장장 수십년세월 점술업을 해온 그는 안도에 이주해와서는 몸에 배일대로 배인 그 노릇을 그만두고 자그마한 문방구점을 경영하고있었다.
민로인이 한평생 애착을 가지고 진행해온 점술업을 그만둘 용단을 내린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강반석녀사의 진지하고도 고심어린 교양에 의해 반일호제회 회원이 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책임감이 작용한데 있었다.
그런데 전번 만화락서사건과 관련하여 현당국에서 글체조사를 벌리던 때 민로인의 방에서 당사주책이며 토정비결, 행년수와 같은 미신책들이 한보따리 나지는 바람에 그가 관록있는 점술업자였다는것이 알려지게 되였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민비의 친척으로서 고종때 궁중점술을 한 령절스러운 점술군이 송강시내에 와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송강주변마을사람들은 물론 멀리 100여리밖 농촌주민들까지 쌀자루를 지고 민로인의 집을 찾아와 운수점을 쳐달라고 졸라대는 난처한 일이 자주 벌어지군 하였다.
세상이 어수선해질수록 사람들은 자연히 미신에 매달리게 된다. 돈걱정이 없는 부자와 벼슬이 높은 당당한 권력자들도 집안이 편안치 못할 때에는 운명의 보호를 받기 위해 점술쟁이한테 머리를 숙이고 찾아와 빌붙기 일쑤이다.
천하를 쥐고있는 나라의 임금도 점술군을 옆에 끼고 정사를 본다고 하지 않는가.
민태감로인이 궁중점술군이였다는것은 보태진 말이고 민비의 친척이였다는것도 누구인가 지어내서 퍼뜨린 헛소문이였다. 그가 점술업에서 손을 뗀것은 결코 무신론자로 전환되였기때문이 아니다. 그는 여전히 이 우주에는 절대의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있었다. 그는 물론 자기가 하는 점술풀이가 거의다 사실에 맞지 않는 엉터리답을 내고있는데 대해서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부정확성은 이 세상에 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점술법자체의 제한성에 있다고 보고있었다.

그때문에 민로인은 비록 점술업을 그만두기는 하였으나 당사주책이며 행년수풀이책같은 미신책들을 무시로 뒤적거리며 혼자서 점을 쳐보군 하는것이다.
가게방을 닫아버린 이날이야말로 한가해져서 민로인은 앉은책상에 마주앉아 옛날에 보던 《명과학》 서적들을 뒤적거리였다.
보통사람들은 보고도 알수 없는 괴이한 그림들과 별스러운 글자들로 가득찬 점술책을 들여다보면서 그가 주문을 외우듯 입안으로 쑹얼거리고있을 때 별안간 앞마당에서 요란한 말투레질소리가 울리였다. 이어 부엌문쪽에서 주인을 찾는 남자의 크고 거친 목소리가 들리였다.
민로인은 장지문을 열고 고개를 내미는 순간 가슴이 선뜩하여 저도 모르게 웃몸을 흠칫하였다.
고급털외투를 입은 키가 작고 몸이 똥똥한 중년사나이가 부엌문앞에 서서 방안을 들여다보고있었다. 그의 어깨너머로 장총을 멘 보위단원들이 보이였다. 순간적으로 로인의 머리를 친것은 보위단에서 벌써 사형수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비밀회합을 하게 된것을 알아차리고 이 집을 검색하러 오지 않았는가 하는것이였다.
털외투를 입은자는 무한장의 집사였다.
민로인은 벽에 걸린 괘종을 올려다보았다. 아홉시가 가까와오고있었다. 이제 한 반시간만 지나면 회의손님들이 밀려올수 있었다.
《어떻게 오셨는가요?》
민로인은 집사의 조선말이 서툴기때문에 중국말로 불안스레 물으며 엉거주춤 일어섰다.
《령감의 이름이 민태감인가?》
《그렇소이다. 왜 그러시오?》
《령감이 오늘 좋은 일을 좀 해야겠소. 무한장도단장님의 며느님이 령감의 점술이 높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셨으니 성의를 다해야하겠소.》
집사는 명령조로 뇌까리고 돌아섰다. 그제서야 로인은 마음을 놓을수 있었다.
얼마후 붉은 꽃수를 놓은 화려한 풀색비단다부산자를 입은 금귀걸

이를 한 젊은 녀인이 들어왔다. 그가 바로 무한장의 며느리 즉 보위단 참모장 무태극의 안해였다. 오동통한 얼굴에 눈, 코, 입, 귀가 여무지게 맺혀서 오돌차보이는 녀자였다.

민태감로인이 일어나서 류창한 중국말로 무한장 며느리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였다.

《이렇게 루추한 집에 고명하신 도단장님의 며느님이 왕림하시니 황공하옵니다.》

《로인님의 점술이 용하다기에 찾아왔어요. 아버님이 가보라고 하셨어요.》

그 녀자는 웃방으로 올라가 민로인이 내놓은 방석에 한무릎을 세우고 앉았다. 민로인은 초조한 마음으로 벽시계를 올려다보았다. 회합시간이 가까와오고있었다. 마당에서 두런거리는 말소리가 들리는것으로 보아 무한장 며느리를 호위하기 위해 숱한 가병들이 따라온것 같았다.

《소인은 점술업을 그만둔지 오랩니다. 그러나 도단장님의 며느님이 모처럼 오셨으니 점술이 변변치 못하지만 성의껏 해보겠소이다. 잠간 기다려주시오이다. 내 얼른 례복을 갈아입고 오겠소이다.》

민로인은 손님들을 앉혀놓고 급히 뒤고방으로 찾아갔다. 그의 며느리가 먼지가 오른 왕골노전에 물걸레질을 하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있었다.

《아에미야, 얼른 성문으로 가봐라. 회의손님들을 여기로 오지 않게 해야겠다.》

《아니, 왜요?》

며느리가 걸레질하던 손을 멈추고 눈을 치떴다.

《무한장의 며느리가 가병들을 달고 점을 치러 왔다. 회의손님들이 우르르 밀려오면 저것들이 이상하게 볼수 있다. 매사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니 네가 빨리 가서 그걸 알리고 오는 길에 무림약방에도 들려라.》

《알겠어요.》

민옥의 어머니는 얼른 허리를 펴고 일어나서 나갈 차비를 하였다.

며느리가 나간 뒤 민로인은 안방 장농에서 례복을 꺼내였다. 이욱

고 그는 푸른 구슬을 드리운 검은 사모에 발톱 다섯을 가진 룡을 금실로 수놓은 정승의 례복같은 으리으리한 옷을 입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준저리콩처럼 좀스럽게 생긴 로인이지만 요란스레 의관을 정제하니 자못 위엄스럽게 보이였다. 그는 지체가 높은분들이 신수를 보러 오면 례의를 지켜 점술군례복을 착용한다고 하였다.

《무엇을 보시려고 합니까. 사주팔자점을 치렵니까, 행년수를 보시렵니까?》

민로인은 앉은뱅이책상을 마주하고 올방자를 틀면서 눈을 쪼프리고 무한장의 며느리 왕옥숙을 건너다보았다.

《태기가 있은지 얼마 안되여 밤마다 꿈자리가 사납고 몸이 편치 않아요. 여러가지 약을 써보았지만 말을 듣지 않으니 아버님이 운수점을 한번 쳐보라고 하시더군요. 겸해서 사주팔자를 보았으면 합니다.》

(무한장놈이 운수점을 쳐보라구 며느릴 내보낸걸 보니 그놈의 속이 편안치 않은 모양이구나.)

불현듯 민로인은 이 기회에 무한장일가를 혼쌀내우고 혁명조직의 일을 도와줄 충동으로 가슴이 부풀어올랐다.

민로인은 태연히 입을 열었다.

《먼저 사주팔자점을 쳐보는게 어떨가요?》

《예, 사주점을 쳐줘요. 우리 아버님께서는 저를 보내면서 점을 쳐서 만화락서자를 잡아내보라고 했어요. 용한 점술군은 범죄자도 잡아낸다고 합니다.》

왕옥숙은 흑진주처럼 새까만 눈을 깜빡거리며 민로인의 마음을 중떠보는듯 도두룩한 입술에 야릇한 웃음기를 띠였다.

《만화락서자는 이미 잡아내지 않았는가요. 접때 거리에 나붙은 공시는 무언가요?》

민로인은 짐짓 시치미를 뗐다.

《아직 다 잡아내지 못했다나봐요. 뭔가 까리까리한게 많은가봐요. 로인님이 잡아내기만 하면 큰상을 받게 될거예요.》

《점술군이 그런 점은 좀해서 치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하고 민로인은 그 리유를 말하였다.

옛날 동방의 한 왕국에서 있은 일이라고 하였다. 무엇이든 다 알아맞히는 신비스러운 점술군이 있다는 소문이 궁중에까지 퍼져서 하루는 왕이 그 점술군을 불러들여 그대가 점술이 높은것으로 소문이 자자하니 실지 점술이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하노라 하고는 조그마한 나무곽을 내놓고 그안에 무엇이 있는지 맞혀보라고 하였다.

점술군은 점괘를 굴려서 풀이를 하고는 쥐가 열마리 있다고 대답하였다.

왕은 네 점술이라는게 그리 신통치 못하구나 하며 나무곽뚜껑을 열어보이였다. 곽안에는 쥐가 한마리밖에 없었다. 그런데 점술군은 자기의 점술법은 절대로 틀리는 일이 없다고 하면서 쥐가 열마리 있다고 하였다.

《네 눈으로 똑똑히 보라, 한마리다.》하고 왕이 곽을 가까이 가져다보이여도 점술군은 열마리라고 우기였다. 왕은 대노하여 일국의 왕앞에서도 붉은것을 희다고 우겨대는 저 요사스러운 놈을 릉지처참하라고 령을 내리였다. 점술군은 형리들에게 끌리워나가면서도 곽안에는 틀림없이 열마리의 쥐가 있다, 내 죽어서 기어이 이놈의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고 하였다.

점술군은 그날로 참살당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날에 곽안에 있던 쥐가 아홉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그러고보면 곽안에 열마리의 쥐가 있었다는 점술군의 말이 옳았다. 이 일이 있은지 몇년후 내란이 일어나 나라는 망하고 왕은 반란자들에 의해 참살당하였다. …

《점술군은 자고로 이와 같이 삽한 일을 당하는 때가 종종 있소이다. 그러니 만화얘긴 하지 말고 부인의 사주팔자와 행년수나 봅시다. 부인의 생년이 어떻게 되는가요?》

민로인은 당사주책을 펼쳐놓고 점을 칠 차비를 하였다.

《저는 병오년생이예요.》 하고 대답하는 왕옥숙의 얼굴에 긴장이 어리였다.

《병오년이면 천간은 〈병〉이요, 지지는 〈오〉이라 말해로군.》

민로인은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목청을 돋구어 간지(천간과 지지)를 외우고는 당사주책을 번지며 륙갑을 짚었다.

《그다음은 태여난 달과 날자를 말하시오.》

《3월 18일입니다.》
민로인은 흥얼거리며 또다시 륙갑을 짚고는 태여난 시간은 언제인가고 물었다.
《시간은 딱히 모르겠는데 점심때에 해산했다고 해요.》
《점심때이면 오시가 아니면 미시이겠는데 옛날에는 대개 오시에 밥을 먹었으니 오시로 잡읍시다. 오시면 말에 붙는구만.》
민로인은 이렇게 중얼거리고는 륙모점패 4개를 집어가지고 방바닥에 쥐여뿌리였다. 대굴대굴 굴러가던 4개의 륙모점패가 멎었다. 로인은 나무모웃면에 새겨있는 글자와 그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고 당사주책을 몇장 번지더니 숙연히 눈을 감았다.
왕옥숙은 한껏 긴장되여 당사주책에 새겨있는 복잡한 그림과 글자들을 건너다보았다. 하지만 그 그림속에 담겨있는 신비의 세계를 알수 없었다.
《아하… 왜 이렇게 흉하게 나오는가. 팔문중에 제일 흉한 상문이 나오누만.》
한참만에 눈을 뜬 민로인은 어두운 얼굴빛을 하고 머리를 흔들었다. 《이제 며칠 있으면 경오년 음력설이 되는데 경오년부터 운수가 사나와지누만. 독안에 들어가도 팔자도망은 못한다는 말이 있지요. 팔자고치는 액막이는 없는데…》
《경오년부터 운수가 나쁘다고요?》
무한장의 며느리는 순간에 낯빛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전신을 떨었다.
《가만, 경오년 행년수를 봅시다. 한해신수는 능히 액막이를 할수 있으니 행년수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구 방비해봅시다.》
민로인은 당사주책을 덮고 행년수풀이책을 몇장 번지고는 《병오년 3월 18일생이라.》 하고 흥얼거리며 신수책을 들여다보았다. 이윽고 다섯개의 점패알을 굴리고나서 보통사람들이 알아들을수 없는 괴상한 소리가락을 뽑으며 신수책의 그림과 점패의 그림들을 맞추어 보았다.
《틀림이 있을라구. 경오년의 신수가 아주 나빠!》
《어떻게 나쁜가요?》

왕옥숙은 울상을 짓고 한무릎 다가앉았다.

민로인은 시집에서 무슨 불효한짓을 해서 저세상으로 간 시할머니가 노염을 타고있다고 하였다. 먼저 애기를 밴 손자며느리한테 살이 붙었다는것이다. 불초한 자손들이니 아예 대를 잇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다며 걱정하였다. 잘못하면 집안이 망할수 있다고 하였다.

《뒤로 오는 호랑이는 물리쳐도 앞으로 오는 신수는 물리치지 못하오이다.》

《아니, 이제 방금 한해신수는 막을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리구 우리 시집에서 불효한짓을 했다는것도 모르겠어요. 우리 시아버님은 효성이 지극합니다. 해마다 빠짐없이 정성스레 조상제를 한답니다.》

《내가 그 집 일을 어떻게 알겠소만 불효한짓을 한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민로인은 그러면서 외가편에 해되는 일을 한게 없는가고 시아버지한테 조용히 물어보라고 하였다.

민로인은 점치는 일을 그만 그치려는듯 당사주책과 신수책을 접어버리고 머리에 썼던 관을 무릎옆에 내려놓았다.

불안스레 이쪽저쪽으로 움직이던 왕옥숙의 눈동자가 한자리에 굳어졌다. 그는 민로인에게 다가앉으며 《그럼 어떻게 해야 시할머님의 노염을 풀어드릴수 있을가요? 그것만이라도 알려주세요.》하고 애원하였다.

민로인은 시할머니의 친척에게 해되는짓을 말아야 하고 시할머니한테 용서를 비는 제를 지내야 될것 같다고 하였다.

《제일 중요한건 시아버지가 해를 입힌 외가친척을 빨리 알아내는 거웨다. 내가 점을 친데 의하면 시할머닌 한족도 만족도 아니웨다. 중국사람이 아니웨다. 시아버지외에는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합네다.… 내 여태 점을 쳐보면서 이렇게 왕청같이 나오는 점은 처음입니다. 너무 왕청같이 나오니 나도 믿기가 어렵소이다.》

《시할머니가 중국사람이 아니라고요?》

왕옥숙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하여 한층더 새까맣게 질리였다. 그 녀자는 진정을 못하고 안절부절하다가 10원짜리 지폐 한장을 내

놓고 비칠거리며 일어섰다. 중소 한마리가 20원을 하고 쌀 한말이 1원을 하던 때이니 왕옥숙이 내놓은 돈은 대단한 액수였다.

왕옥숙은 가버렸으나 민로인은 눈을 감고 석불처럼 까딱없이 앉아있었다.

방금 그가 무한장며느리앞에서 말한것은 모두 지어낸것이였다. 그것은 순전히 추리에 기초한 모험적인 발언이였다. 언제나 무엇인가를 예언하려고 하고 알아내려고 애쓰는 오랜 점술업자들이 대체로 그러하듯 민로인에게도 비상한 환상력과 추리력이 있었다.

민로인은 무한장의 어머니를 조선사람으로 의심하고있었다. 그것은 점을 치러온 어느 한 중국인로인으로부터 청일전쟁전야에 무한장의 아버지가 조선을 드나들며 되거리장사질을 한 상인이며 그의 부인은 전족을 하지 않은 녀인이였다는 말을 들었기때문이였다. 보통사람들은 무심히 들을수 있는 이 말에서 로인은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된것이다.

민로인은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한편 오히려 말썽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으로 다소 불안하기도 하였다.

그 시각 무림약방치료실에서는 핵심조직원들의 비상회의가 진행되고있었다. 민로인의 통보를 받고 회의장소를 갑자기 옮긴것이다.

강반석녀사와 김형권동지, 흥륭촌 반제청년동맹원들인 리영배, 김철희, 무송반일부녀회출신들인 채련옥, 조선녀, 김순애, 민옥, 송강반제청년동맹원인 오방원 등 아홉명의 조직원들이 회합에 참가하였다. 그들은 치료실에 있는 등받이 없는 둥근 의자에 앉거나 혹은 침대가녁에 걸터앉아 격식없이 모임을 하였다.

먼저 김형권동지께서 비상모임을 하게 된 취지를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난해 가을 한별동지께서 반동군벌들에게 체포되신 후 곽명준이 무송에 와서 핵심조직원들의 가족들을 다른 지역에 이주시킬데 대한 길림조직의 지시를 전달한 이후로는 지금까지 련락이 끊어져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다는것, 모든것을 자체로 결심하고 행동하여야 하는 불리한 시기에 만화사건과 관련된 뜻하지 않은 엄중사태가 빚어져 비상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는것, 그리하여 강반석녀사의 제의에 의하여 조성된 난국을 타

개하기 위한 긴급모임을 가지게 되였다는것을 말씀하고 우선 당장은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그것은 아무런 죄도 없이 만화락서의 혐의를 받은 네명의 사형수들을 구원하는 문제였다.

김형권동지의 첫 발언에 이어 강반석녀사께서 의자에서 일어나시였다. 단정하게 바른가리마를 탄 녀사의 얼굴은 이 며칠새 퍼그나 수척하고 창백해지시였다.

《다 알고있는것처럼 현관공서와 경찰서, 보위단에서 공시한 네명의 사형수들은 만화락서자도 아니고 폭동음모가담자도 아니예요.》

이렇게 서두를 떼신 녀사께서는 긴 설명이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사형수들을 구원하기 위한 군중적인 석방운동을 벌리자고 호소하시였다. 몇년전 맏아드님께서 무송경찰서에 체포되시였을 때에는 조직원들이 발동하여 군중적인 롱성투쟁을 벌리였지만 여기서는 주민들의 준비상태를 고려하여 사형수들의 무죄를 보증하는 군중서명운동을 벌리는것이 십분 성사될수 있는 일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미 서명운동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생각해두고 계시였다. 네명의 사형수들에 대한 서명문건을 개별적으로 각각 따로 작성하고 보증자들의 이름을 적어 지장이나 도장을 찍게 하면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우리는 이 서명운동이 군중을 장악료해하고 군중을 단합시키는 운동으로 되게 하자요. 일거이득, 삼득이 되도록…》

녀사께서는 서명운동을 신속히 결속하기 위해 핵심조직원들이 한 구역씩 담당하도록 책임분담까지 짜놓으시였다.

흥륭촌, 쓰우리, 한흥툰 등 물남지역은 리영배, 김철희, 채련옥이 담당하고 대흥툰, 정업툰은 조선녀, 김순애가, 송강은 오방원, 민옥이가, 로도구일대의 처서판은 김형권동지가 그리고 서문밖마을과 그 부근의 처서판들은 자신께서 담당하도록 하시였다.

《우리가 해설사업을 잘하면 많은 군중이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호응해나서리라고 봐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수 있는데 의견들을 내놓으세요.》

녀사께서는 회원들을 둘러보며 의자에 앉으시였다. 그러자 침대에

걸터앉아있던 리영배가 걱정어린 표정을 지은채 움쭉 일어섰다.
《사모님께서 정말 깊이 생각하고 최선의 방법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물남에서는 주장군때문에 서명운동을 벌리기가 제일 힘들것 같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요. 주장군이라니?》
김형권동지께서 속눈섭을 치켜올리며 물으시였다.
흥륭촌사람들은 술때문에 물북으로 이사해간 박치근에게 《주장군》이라는 패호를 붙였다고 한다.
《물남의 청년회를 배반하고 물북으로 도망친 박치근을 물남사람들이 보증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류호령감은 박치근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박치근이 물북으로 이사해간 다음에 류호령감이 〈술을 절대적으로 금한다〉라고 밝혔던 로인금주회준칙 조항을 〈폭주를 금한다〉로 고쳤다던데요. 박치근의 덕에 금주법이 페지되고 건강에 맞춤한 정도의 술을 마실수 있게 되였으니 물남국사람들은 그를 욕할것이 아니라 개국공신으로 떠받들어야지요.》
김형권동지께서 하시는 롱조의 말씀에 모두 웃음을 터뜨리였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요. 조그마한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웃마을들끼리 무슨 적대국처럼 살아가고있으니 어디 됐소? 이번 서명운동이 물북이요, 물남이요 하는 지역할거관념을 마사버리기 위한 투쟁의 제1보가 되게 하자는거요. 우리가 해설사업을 잘해서 물남사람들이 박치근을 보증하는 일에 호응해나서게 되면 물북과 물남을 가로막은 장벽에 첫 구멍을 뚫는것으로 될거요. 안 그렇습니까?》
《옳아요!》
강반석녀사께서 김형권동지의 말씀에 동을 다시였다.
《지금까지 우리 조직원들이 류호나 조희재선생들이 조직한 자치단체에 들어가지 않고 물우에 뜬 기름처럼 따로 떨어져 생활했는데 그게 아주 잘못된것 같아요. 이번 서명운동을 벌리는 기회에 그들의 자치단체에 들어가겠다고 청원하세요. 그래야 그들을 교양하고 쟁취할수 있을게 아니예요.》
녀사께서는 치료실 한쪽구석에 나란히 앉은 무송반일부녀회원들을

정겹게 돌아보며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조선녀랑 김순애아주머니랑 꽤 할수 있을것 같아요?》

《사모님, 우리들에 대해선 푹 마음을 놓으시오다.》

김순애가 사내들의 주먹같은 큰 주먹을 흔들며 일어섰다. 울쑥불쑥한 얼굴에 관골이 우악스레 치솟고 뼈대가 굵은 김순애는 젊은 나이때 벌써 조무래기들을 다섯이나 달고 고생한 다산모여서 펴그나 결늙었지만 언제나 생기에 넘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반일부녀회원이였다. 몇년전만 하여도 글 한자 모르는 까막눈이고 온전한 이름도 가지고있지 못하던 그가 이제는 조선글을 줄줄 읽고 정치적식견도 있는 녀성으로 자라난것이다.

녀사께서는 오늘 민태감로인과 그의 며느리가 비밀회합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각적으로 관심을 돌린것을 보시고도 호박넝쿨은 덕대만큼 오르고 사람도 깨우치는만큼 자란다는 말이 옳다고 생각하시였다.

무송에서 반일부녀회를 갓 결성하던 시기 제일 헤살을 놀고 애를 먹인 사람이 민태감로인이 아니였던가. 반일부녀회와 야학방에서 미신을 반대하는 토론을 한다고 하여 그가 한번은 야학방 벽에다 간사할 간, 요망할 요자와 같이 녀자 녀자와 합쳐져 나쁜 뜻을 가지게 되는 한문자들을 여라문개나 붙여놓고 야료를 부려서 사람들을 아연실색케 하였다. 그는 인간적으로 침을 뱉기울 일을 한두번만 하지 않았었다. 조선녀의 미모에 탐을 낸 무송의 왕지주가 그 처녀를 첩으로 맞아들이기 위한 법문서를 조작할 때에도 그는 지주한테서 꾹돈을 받아먹고 법문서날조에 공모하였다.

이러던 민태감로인이 오늘은 반일호제회 회원으로 자라나 혁명사업을 힘껏 도와주고있었다.

녀사께서는 지난 기간 나라와 가정은 한피줄이라는 원리로 가정애국화에 힘을 넣으신 보람이 있다고 생각되시였다. 여기 안도에 이주해온 반일부녀회원들의 가족들은 모두 반일호제회 회원들이였다. 이를테면 애국화된 가정들이였다.

녀사께서는 혁명조직이 황무지화되여있는 여기 안도에서도 애써 힘을 들이면 능히 온 가정, 온 마을을 애국화하고 주민들을 통일단

합시킬수 있다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으시였다.
녀사께서는 문득 조선녀를 돌아보며 조용히 물으시였다.
《선녀 조춘희와 이야길 좀 해봤나? 조희재선생의 딸 말이야.》
《한번도 대상하지 못했어요. 그 녀잔 밖에 잘 나다니지도 않거니와 마을녀자들하고 말을 하지 않아요. 얼음같이 차고 농군녀자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못된 녀자예요.》
녀사께서는 심중해지시였다. 계속 본가살이만 하고있는 그 녀자의 비정상적인 생활에 무엇인가 남모르는 곡절이 있는것 같으시였다.
《선녀야, 그 녀잘 멀리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한번 만나봐라. 남편이 집에 붙어있지 않는 큰 목재상이여서 본가에 와있다는데 어쩐지 그런것 같질 않다.》
《남편소박을 받은게 안야?》
김순애가 선녀를 돌아보며 자기 짐작을 말하였다.
《그 녀잘 멀리서 한번 봤는데 선녀만 한 미인은 못돼두 아주 곱게 생겼더구나. 일색소박이라고 나도 요렇게 곱게 생겨서 남편소박을 얼마나 받았니.》
웃음 한점없이 정색하여 우스개소리를 하는 김순애의 능청스러운 너스레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리영배가 허리를 쥐고 제일 크게 웃어댔다.
《아니, 저 아저씨 어째 저렇게 웃소. 거짓말같아 그러오? 아무래두 여기 안도 본토배기 조직원들을 위해 남편 소박받던 얘길 해야겠군.》
김순애는 부녀회와 야학방에서 문맹을 퇴치하고 연설하는 법까지 배워서 어깨가 으쓱해졌을 때의 이야기를 꺼내였다.
《내가 글을 줄줄 읽을 때까지도 우리 집 나그네는 까막눈이였소. 그래 걸핏하면 남편을 앉혀놓고 글을 배우라고 훈시질을 하고 저녁에 야학이나 부녀회모임에 갈 때면 부뚜막에다 백산학교에 다니는 애들에게 〈나는 오늘 부녀회사업이 바빠서 저녁을 못 지으니 너희들끼리 끓여먹어라.〉라는 글쪽지를 써놓고 가군 해서 나그네가 온전한 저녁을 자시지 못했다오. 아무리 어질어빠진 사람이라도 밸이 안나겠소. 한번은 부녀회모임을 하고 돌아오니 지게문들이 다 안으로

걸려있지 않겠소. 문을 열라고 고아대니 안에서 나그네가 하는 말이 촌년이 아전서방을 하면 속곳에 단추단다더니 눈이 시여서 네 꼴은 못 보겠다, 막잡은 메주덩이같은 상판에다 밥도 짓지 않고 돌아치는 그따위 녀잘 데리고있어 뭘해, 이제부터 아예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게 아니겠소. 그래 싸움이 벌어져 동네방네 소문이 났소. 그런데 점쟁이령감이… 여기 민옥이 할아버지 말이요, 우리 사모님이 집방문 가셨을 때 그 일을 낱낱이 고해바치면서 부녀회에 들면 녀자를 그렇게 못쓰게 만들기때문에 손녀를 부녀회에 안 보내겠다구 야단했다오. 그 일로 해서 다음번 부녀회모임때 내가 눈알이 쏟아지게 비판을 받았소. 우리 무송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라났소. 가만 보면 사람 키우는것도 곡식 자래우는 일과 한가지같소. 뼈심을 들여 정성스레 가꾸면 충실한 열매를 보기마련이라오.》

우스개소리로 시작된 김순애의 이야기는 의미깊은 결구로 끝을 맺었다. 방안에는 잠시 숙연한 침묵이 흘렀다.

비밀모임은 그후 약 반시간동안 앞으로의 행동방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토론을 하고 인차 헤여졌다. 모임을 끝낼 때 강반석녀사께서는 합법적인 부녀친목회를 조직하는 문제, 만화락서자를 알아내는 문제, 최동화산하의 무산혁명단을 경계하는 문제 등 일련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6

조선녀는 대흥툰에 돌아오자바람으로 이미 파악된 몇명의 녀인들을 데리고 윤현칠의 집으로 찾아갔다. 박씨는 그때까지도 자리보전을 하고 애처롭게 아들을 부르며 울고불고하였다. 며칠째 머리를 풀어헤친채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누워있으니 아들보다 먼저 그 녀자가 잘못될것 같았다.

흰자위가 많아지고 눈알이 곧아진 그 녀자의 눈에는 벌써 죽음의 망령이 비쳐오는듯 했다.

《아이고 현칠아, 내 아들아!》

박씨는 멍하니 천정을 올려다보며 아들을 불렀다. 며칠째 그 애끊는 부름을 반복하여 이제는 목이 다 쉬여버리였다.

조선녀가 혼절한 사람의 손처럼 꽛꽛해진 박씨의 여윈 손을 따뜻이 잡아쥐였다.

《어머니, 걱정하지 말아요. 현칠일 살려내자고 모두 들고일어났어요. 접때 서문밖사모님이 말씀하셨지요. 울지만 말고 모두 힘을 합쳐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어머니, 이것 보세요.》

조선녀는 윤현칠의 이름으로 된 보증서명문건을 들어보이였다. 아직은 한사람의 서명자도 없는, 다만 윤현칠의 무죄를 법앞에서 보증한다는 글이 씌여있는 종이장이였다.

《그게 뭔가?》

글을 모르는 박씨는 16절용지보다도 더 크게 도전한 장방형의 백로지를 의아하게 지켜보았다.

《어머니, 여기에 아들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글을 썼어요. 이제 그밑에다 그것을 보증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 지장을 찍어요. 여러 지역에서 이런 운동이 벌어져요. 그러니 아들은 꼭 살아나요.》

조선녀는 방금 같이 따라온 박치근의 안해에게도 남편의 이름으로 된 서명문건을 보여주었다. 박치근의 안해도 글을 모르는 녀자였다.

《자, 여기 모인 사람들부터 이름을 적자요. 내가 먼저 이름을 적고 지장을 찍겠어요.》

조선녀는 민태감로인의 문방구점에서 가지고온 가는붓과 먹즙단지를 내놓고 두장의 문서장에 각각 이름을 적은 다음 그옆에 손도장을 찍었다. 그다음에는 홍주향이가 삐뚤삐뚤하게 제 이름을 적고 손도장을 찍었다. 그 녀자는 강반석녀사를 만나뵈온 후 조선녀에게서 매일 저녁 글을 배워 서툴게나마 제 이름자는 쓸수 있게 되였다. 그밖의 다른 녀자들은 까막눈들이여서 할수없이 조선녀가 대필을 하고 지장을 찍게 하였다.

두명의 녀자는 온전한 이름이 없어 그 자리에서 이름을 지었다.

조선녀는 서명을 끝낸 다음 녀인들에게 진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제부터 글도 배우고 서로서로 도우며 살아가자요. 힘

을 합치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어요. 우리가 왜 글을 배워야 하는가?》

조선녀는 이렇게 자문하고 글을 모른탓에 피눈물나는 곡절을 겪은 자신의 과거사를 숨김없이 다 이야기하였다. 그 이야기를 듣고 녀인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박씨가 선녀의 손을 움켜쥐고 《선녀가 그런 처녀였구나. 그러니 내 아들을 살리자고 이렇게 아글타글하누나. 고맙네, 고마와.》 하고 목메인 소리를 하였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부녀친목회를 뭇자요. 친목회란 바로 이렇게 친형제처럼 서로 의지하고 화목하게 살아가기 위한 조직이예요. 걱정이 생기면 같이 걱정해주고 불행이 생기면 같이 도와…》

조선녀는 이야기를 잇지 못하고 흠칫 고개를 돌리였다. 검은색명주두루마기를 입은 한 중년사나이가 인기척도 없이 불쑥 지게문을 열고 들어서기때문이였다. 그는 대흥툰농민협회 회장이였다. 뒤따라 밤색모직외투를 입은 조희재가 청년회회장과 함께 들어섰다. 그들의 느닷없는 출현은 조선녀를 몹시 당황하게 하였다. 녀인들이 모두 줄레줄레 일어섰다.

조희재가 헛기침을 하며 녀인들을 둘러보았다.

《음, 현칠이 어머닐 위로해주자고 다들 와있는 모양이군. … 그래야지. 그렇게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하네. … 나도 임자(박씨)가 며칠째 밥도 먹지 않고 울고있다기에 마음이 놓이지 않아 왔네. 우리가 현칠이와 치근일 살려보자고 여러모로 힘써봤지만 원체 못된 사건에 말려들어서 어쩔수가 없네. 아, 이게 다 나라가 없는탓이야.》

조희재는 구슬프게 긴 탄식을 하고 박씨에게 아들이 잘못되여도 산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위로하면서 십원짜리 지페 두장을 내놓았다. 그는 녀인들속에 박치근의 안해가 끼여있는것을 보고 마침 그 녀자한테도 찾아가려고 했다면서 역시 지페 두장을 들려주었다.

《치근이와 현칠인 내가 각별히 사랑하던 청년일세. 그런데 나도 모르게 공산당패에 들어서 나쁜짓을 했거던. …》

조희재는 또다시 긴 한숨을 쉬며 방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순간 보증서명을 한 두장의 종이장을 띠여본 그의 눈살이 꼿꼿해졌다. 서둘

러 종이장을 집어든 그는 볼편을 실룩거리며 조선녀를 돌아보았다.
《이건 뭔가? 누가 동네 어른도 모르게 이런짓을 하나?》
조희재의 얼굴이 갑자기 사나와졌다. 농민협회장과 청년회장이 우르르 달려와서 종이장을 맞들고 같이 들여다보았다.
조희재의 경악한 표정을 일별한 조선녀는 가슴이 떨리였으나 사실대로 말하였다.
《그러지 않아도 선생님을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대흥툰의 청년들을 구원하기 위해 석방운동을 벌리자고 합니다.》
《누구의 머리에서 이런게 짜졌어? 방자하기란… 일전에 서문밖마을에서 자선운동을 한다는 녀자가 찾아와서 대수 이런 말을 삐치길래 콱 눌러놓았는데… 이게 그 녀자의 추동질로 하는짓이 아닌가? …두사람 살리자다가 온 동네 사람을 죽이자고 그래? 공시에 써붙인걸 못 봤나? 만화락서자를 숨기거나 동조하는자들도 같은 형벌을 가하겠다고 했어. 경찰관들이나 보위단원들이 이걸 보면 어쩌자구 그래?》
조선녀는 종이 찢어지는 소리에 소스라쳐 놀라며 고개를 돌리였다. 농민협회장이 보증서명문서장을 북북 찢어서 휘뚜루 방안에 뒤여뿌리였다. 청년회장은 먹즙을 부엌에 내던지고 붓대를 꺾어서 짓밟아버렸다. 그들의 조폭한 행동은 조선녀의 피를 끓게 했다.
《이게 무슨 짓이예요, 그걸 왜 찢어요? 사람을 어떻게 보는거예요?》
격분으로 해서 조선녀의 눈이 숯불처럼 타올랐다.
《원쑤들앞에서는 굽신거리고 인민들에게는 승냥이처럼 사납게 구는 비렬한 폭도들! 녀자라고 숙보지 말라!》
처녀의 서리찬 반발에 조희재는 가슴이 섬찍해졌던지 가벼운 전률을 일으키며 두 회장을 꾸짖었다.
《정말 그게 무슨짓인가? 일이 잘못됐으면 옳게 신칙해서 바로잡아주면 되는거지 그런 란동질을 하면 되나… 그리고 조선녀도 잘못이 많아. 이런 일이야 동네어른들한테 물어보구 해야지. 이 서명운동이란게 현정부당국에 주먹질을 하는 폭동과 같은건데 어쩌자구 이런 삽한 장난질을 하나. 우리 나라 력사에두 한놈의 역적때문에 한

마을의 전체 주민이 참살당한 일이 있어.… 다시 이런 놀음을 해선 안되겠네. 다 죽어… 다…》

새하얗게 질린 조선녀의 얼굴을 쏘아보는 조희재의 머리에 문득 《아, 요염하기가 나라를 망치겠구나》라는 한시의 한구절이 떠올랐다. 눈같이 하얀 얼굴에 연하게 피여오른 홍조, 티 한점없이 맑은 눈우에 휘우듬히 나래쳐오른 긴 살눈섭, 그림처럼 정교하게 선을 그은 코날, 붉은 장미잎을 오려붙인듯 한 입술, 말로는 형용할수 없는 처녀의 아름다움이 짜장 한 동네를 녹여낼것 같은 무서운 생각에 조희재는 다시한번 전률을 일으켰다.

그는 두 회장을 둘러보았다.

《이보게들, 안되겠네. 청년회와 농민협회에서 긴급회합을 가지게. 동네에 불결한 공기가 떠도니만큼 미리 방비해야겠네. 큰일나겠네.》

조희재는 가랑잎처럼 방바닥에 흩어져버린 종이쪼박들을 짓밟으며 지게문앞으로 걸어갔다. 농민협회 회장이 얼른 지게문을 열어주고 컹컹 하늘소기침을 깇으면서 조희재를 그림자처럼 따라나갔다. 그들이 나간 다음 청년회장이 녀인들을 둘러보며 눈알을 부라리였다.

《나쁜 년의 추동질에 말려들지 마오. 아주머니들도 치근이, 현칠이처럼 잡혀가 죽고싶어서 이런짓들을 하는가?》

그는 홱 몸을 돌려 조선녀에게 눈총을 쏘며 소리쳤다.

《뭐라구? 비렬한 폭도? 어디서 저런 요사스러운 독사가 우리 동네에 굴러들어와 불집을 일으키는지 모르겠거던. 야, 너 또 이따위 짓을 하면 보위단 왕방초한테 알리겠어! 알겠는가, 엉?》

청년회장은 주독이 올라 새빨개진 코날개를 벌름거리며 조선녀에게 주먹질을 하고 지게문을 빠져나갔다.

《아이고, 바라볼게 없구나! 망했구나!》

겨우 일어나 앉았던 박씨가 쓰러지면서 절망적인 울음을 터치였다.

조선녀는 가슴이 찢기는것 같았다. 방안에 흩어진 종이쪼박들이 마치 칼탕을 맞아 널려진 자기의 살점처럼 느껴졌다.

《현칠이 어머니, 왜 자꾸 울어요. 저것들이 저런다고 못할게 아

니예요. 아들을 살려내자요. 기어이 살려내자요. 백번을 찢으라! 백번을 다시 할테다.》 하고 웨치는 선녀의 눈에 피같은 눈물이 맺히였다. 그것은 현칠이 어머니가 아니라 자기자신에게 웨치는 량심과 의지의 호소였다.

7

강반석녀사께서는 날이 어두워졌을 때 객주집으로 돌아오시였다. 보증서문건을 들고 서문밖마을을 한바퀴 돌고 정업툰처서판에까지 갔다오시다보니 날이 저물어졌다.

험한 산길을 다니였으나 의외로 일이 잘되여 녀사께서는 힘든줄도 모르고 기운이 나시였다.

서문밖마을은 매집마다 다 서명사업에 참가하여 보증서종이가 모자라 새 종이를 한장 더 만드시였다. 그것은 녀사께서 평시에 이 마을사람들과 늘 접촉하면서 신망을 얻으신 덕이였다.

정업툰처서판은 녀사께 있어서 비록 생소한 곳이지만 정의감과 동정심이 많은 로동자들이 반동관헌들의 전횡에 분개해하면서 저마다 서명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여기서는 녀사께서 직접 나서지 않고 객주집식모의 남편과 홍주향의 남편을 내세우시였다. 일전에 왕방초가 무산혁명단이니 뭐니 하며 식모의 남편을 잡아가겠다고 으르렁댔지만 아무런 단서를 잡지 못하기도 하고 같이 일하는 로동자들이 모두 보증해나섰기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물러갔다고 한다.

녀사께서는 무산혁명단의 폭동선전에 말려들지 않도록 곽청도와 홍주향의 남편에게 주의를 주고 처서판을 떠나시였다.

녀사께서 객주집부엌으로 들어서시자 저녁손님들을 다 치르고 정지방에 앉아 글쓰기련습을 하고있던 백춘화와 식모가 그이의 저녁상을 차리려고 일어섰다.

《저녁은 먹고 왔으니 어서 글공불 하세요.》

녀사께서는 정지방에 놓여있는 학습장 두권을 펼쳐보시였다. 백춘화와 장영숙이 밤마다 글공부하는 학습장이였다. 녀사께서는 아무리

바빠도 객주집녀인들에게 글을 가르쳐주는 저녁일과를 여태 한번도 번지신적이 없었다.

《글씨가 점점 여물어가요. … 내 없는 새에 누구 찾아온 사람은 없었는가요?》

《대흥툰처녀가 왔댔어요. 곱게 생긴 조선녀라는 처녀가…》

식모가 학습장을 받으며 대답하였다.

《조선녀가? 무슨 일로요?》

녀사께서는 저으기 긴장해지시였다.

《모르겠어요. 정업툰산판으로 가셨다니까 알겠다면서 인차 갔어요.》

조선녀가 무엇때문에 찾아왔댔을가? 녀사께서는 저으기 불안을 느끼시였다.

《그다음 찾아온 사람은 없는가요?》

녀사께서는 일단 큰일을 벌려놓았기때문에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였다.

《젊은 중국인부부가 왔댔어요.》

이번에는 백춘화가 대답을 하고 그 사연을 말씀올리였다.

객주집녀인들이 저녁차비를 하고있을 때 쓰우리에 집이 있다고 하는 젊은 중국인부부가 찾아왔는데 남편은 애기를 업고있고 안해는 헌보자기를 든채 흐느껴울고있었다. 웬일인가 물으니 애기가 몹시 앓아서 집을 떠나 송강병원에까지 40여리를 허둥지둥 달려갔으나 치료비와 약값이 너무 높아서 병도 못 보이고 돌아왔다고 하였다. 치료비가 눅다는 무림약방도 빈지문이 닫겨있어 이제는 어쩌는수없이 애기를 죽이게 됐구나 하고 눈물을 흘리고있는데 누구인가 서문밖객주집에 가난한 사람들에게서는 돈을 받지 않고 병을 보아주는 용한 녀의원이 있다고 하여 찾아왔다고 하였다. 아이를 업고온 중국인청년의 이름이 진춘발이라고 하였다. 그들부부는 날이 어슬어슬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녀사께서 오시지 않으니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그래요?》

녀사께서는 사뭇 마음이 무거워지시였다. 그이의 낯빛이 어두워지

는것을 보고 김씨가 《내가 그것들을 돌려보냈수다. 철주 엄마가 무스거 돈이 많아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다 공짜루 약을 주구 병을 보아주겠소다.》 하고는 자기 눈으로 본것만 해도 녀사께서 돈받지 않고 약지어주고 옷지어준것이 여라문집 된다고 하면서 지금세월에 그렇게 인심을 쓰고는 못산다고 손을 내저었다. 사실 김씨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진춘발부부가 그냥 기다릴것 같아 이 집 녀의원이 오늘은 오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해서 돌려보냈었다.

《그 사람네 애기가 어떻게 앓던가요?》

녀사께서는 자신을 믿고 찾아왔다가 절망에 빠져 돌아갔을 중국인 젊은 부부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감치여 마음을 안정시킬수 없으시였다. 인간에 대한 그이의 정은 중국인이라고 다를것이 없었다.

객주집녀인들의 말은 애기의 몸이 불덩이같고 쌕쌕 숨을 가쁘게 쉬면서 자주 기침을 깇고 젖을 빨지 못하더라고 하였다. 병증상을 보면 폐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였다. 폐염을 방임해두면 생명이 위험할수 있었다.

녀사께서는 안방으로 들어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약통들을 뒤적이시였다. 셋째는 벌써 방구석에 굻아떨어져있고 둘째아드님은 중국어문으로 된 무슨 소책자를 읽고있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왜 그렇게 늦으셨어요?》

김철주는 책읽는데 옴하여 정지방에서 주고받는 이야기도 듣지 못한것 같았다.

녀사께서는 긴 이야기를 하실수가 없어 정업툰처서판에 갔다오는 길이라고 얼추 대답을 하고 약통에서 소화제, 강심제, 감기약과 폐염에 쓰는 약을 골라내시였다.

《철주야, 오늘은 너희들끼리 자거라. 내 어딜 좀 가봐야겠다.》

《아니, 이 밤중에 어딜 또 가신다고 그러세요?》

김철주는 눈을 치뜨고 어머니를 의아히 바라보았다.

《애기 앓는 집이 있으니 가봐야겠다.》

녀사께서는 약주머니를 보자기에 싸들고 정지방으로 내려가시였다. 쓰우리 진춘발이네 집으로 찾아가시려는것이였다.

《오늘은 자기절로 글공부를 하세요. 아무래도 쓰우리에 가봐야겠

어요.》
《아니, 쓰우리엘요?》
객주집의 세 녀인은 모두 눈이 둥그래지며 놀란 소리를 질렀다.
《아니, 쓰우리가 어디라고 이 밤중에 간다고 하오다. 못 가오다.》
김씨가 덧저고리를 입고 목도리를 두르시는 녀사의 앞을 막아나섰다.
백춘화와 장영숙이도 만류하였다. 이 추운 겨울밤에 40리길이 잘되는 쓰우리에 간다는것은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였다. 남정네들도 여간해서는 나설수 없는 길이였다. 더구나 쓰우리는 녀사께서 한번도 다녀보시지 못한 초행길이였다.
《중국인애기가 페염같아요. 페염이라면 빨리 손을 써야지 위험합니다. 그 젊은 부부가 날 믿고 찾아왔댔겠는데… 가야 해요.》
《안되오다, 안돼! 정신이 나갔소다. 낯도 코도 모르는 중국집애기가 무스거라고 이 밤중에 간단 말이오다.》
김씨는 한사코 못 간다고 막아나섰다. 아닌게아니라 이 녀인에게는 낯도 모르는 앓는 애기때문에 한밤중에 40리 초행길에 나서시려는 녀사의 희생성이 전혀 리해되지 않았다.
《어머니, 저하고 같이 가요.》
김철주가 어느새 바깥옷차림을 하고 정지방으로 내려왔다.
녀사께서는 불현듯 가슴이 뭉클해지시였다. 왜 진작 둘째아드님의 방조를 생각지 못했던가? 이제는 둘째아드님도 혁명의 길에서 한몫 단단히 할 때가 된것이다.
그의 나이가 열네살이다. 바로 맏아드님께서 지금의 김철주의 나이와 같은 때에 화성의숙에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였다. 하여 그 뿌리에서 자라난 혁명조직들이 여기 안도의 심산벽지에도 뻗어나게 되였다.
녀사께서는 마음이 든든해지시였다. 억센 아드님, 더없이 미더운 조력자가 따라나선것이다.
《걱정들 마세요.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오겠어요.》
김철주는 객주집녀인들에게 헌헌히 웃어보이였다.

《아이구, 이럴줄 알았으문 내사 그것들을 기다리게 할걸…》
김씨는 자기의 새빠진 처사를 후회하며 울상을 지었다.
녀사께서는 둘째아드님을 앞세우고 밖으로 나가시였다.

8

녀사께서 쓰우리에 도착하신것은 밤 2시경이였다.
쓰우리란 시오리라는 중국말로서 흥륭촌에서 시오리 떨어진 마을이래서 붙여진 이름이였다. 쓰우리로 들어가는 입구에 초가집 한채가 마을을 지키는 위병소처럼 서있었다.
《어머니, 저 집이 김철희형님네 집 같아요. 그 형님네 집이 쓰우리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다고 했어요.》
김철주가 달빛속에 어렴풋이 륜곽을 드러낸 초가집을 가리켰다.
《그 집이 옳은것 같다. 돌아갈 땐 저 집에도 들려보고 흥륭촌에 계시는 할머니도 찾아뵙자꾸나.》
흥륭촌에서는 서명사업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리영배의 말대로 류호와 그곳 청년회원들이 말썽을 부릴가봐 걱정이시였다. 밤날씨가 여간 차지 않았으나 40리길을 줄곧 급하게 걸어온 어머니와 아들의 이마에서는 후끈한 땀김이 피여오르고있었다.
동구에 서있는 독립가호를 지나자 여기저기 널려있는 초가집들이 바라보이였다. 불빛 하나 없는 마을은 정적에 묻혀있었는데 저쪽 어둠속에서 한점의 불꽃이 가물거리였다.
녀사께서는 불을 켠 그 집에 찾아가서 진춘발의 집을 알아보자고 하시였다.
《어머니, 몸이 일없어요?》
김철주는 여기로 오는 동안 어머니의 속병을 내처 걱정하였지만 이제야 비로소 물어보았다.
《아무 일 없다. 40리길을 씽씽 걸어오는것을 보고도 걱정이냐?》
얼마후 녀사께서는 희미한 불빛이 내비치는 초가집앞에 이르시였다.

《계십니까?》
김철주가 조용히 주인을 불렀다.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두세번 더 불러서야 방안에서 《거 누구요?》 하는 겁기에 질린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한밤중에 느닷없이 손님이 찾아와 무서운 생각이 드는 모양이였다.
《여기 쓰우리에 진춘발이라는 중국인이 살고있다는데 미안하지만 그 집이 어디인지 알려줄수 없습니까?》
《그 집은 왜 찾는가요? 이 밤중에…》
주인은 여전히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집안에서 반문하였다.
《그 집 애기가 앓는다고 해서 병을 보아주려고 합니다.》
《예?!… 내가 진춘발입니다.》
그제야 지게문이 벌컥 열리였다. 헌 토스레옷을 걸치고 까치둥지같이 머리가 더부룩한 젊은이가 눈이 퀭해서 두분을 내다보았다. 병원을 찾아 40리길을 걸어가서도 돈때문에 병을 못 보이고 울면서 돌아왔는데 전혀 알지 못할 사람들이 한밤중에 병을 보아주러 왔다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였다.
《진춘발형님이요? 형님이 용한 녀의원을 찾아 서문밖 객주집에 왔다가 돌아갔다기에 의원을 모시고 왔어요.》
김철주가 웃음기를 띠고 중국말로 대화를 하였다.
진춘발은 토방에 나와 강반석녀사께 넙적 큰절을 하였다.
《하늘에서 귀인을 내려보내주셨구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춘발은 강반석녀사의 한팔을 두손으로 잡고 연신 굽석굽석하면서 방안으로 모시였다. 조그마한 정지방과 부엌이 한칸으로 되여있는 집안은 좁고 루추하였다. 퀴퀴한 냄새, 누데기이불과 누데기옷… 굴왕신같은 방 한구석에 젊은 녀인이 애기를 헌 포대기에 감싸안고 앉아있었다.
《이 애기가 앓는다는 애긴가요?》
녀사께서 녀인의 품에 안겨있는 애기의 머리와 손발을 만져보시였다. 돌도 돼보이지 않는 애기인데 숨이 가빠 여린 코날개를 발름거리며 쌕쌕거리고있었다. 이미 혼수상태에 들어간 애기의 온몸은 불

덩이같았다.

《몇살인가요? 아들인가? 딸인가?》

《딸이예요. 이제 한달 지나면 돌이 됩니다.》

진춘발의 안해도 조선말을 아주 잘하였다.

《언제부터 애기가 앓기 시작했어요?》

며칠전에 어머니가 애기를 업고 종일 밖에서 절구질을 하였는데 그날 저녁부터 열이 나고 기침을 깇으며 앓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며칠 지나면 나아지리라고 생각했으나 점점 더해진다는것이였다.

녀사께서는 감기에 들렸던 애기의 병이 폐염으로 번졌다고 생각되시였다. 지난 기간 김형직선생님의 치료사업을 조력해드리는 과정에 소아림상경험도 어지간히 쌓은 녀사께서는 자신의 진단에 확신을 가지시였다. 그이께서는 감기와 폐염에 쓰는 구생알약(이것은 창제알약처럼 김형직선생님께서 직접 제조하고 이름지으신 약이였다.)을 꺼내여 4등분한 다음 눈물을 뚤렁뚤렁 떨구고있는 녀인의 등을 어루만지며 위로하시였다.

《너무 걱정말아요. 이것을 젖물에 풀어먹이면 나을거예요. 숟갈을 가져와요.》

진춘발이 얼른 일어나서 한쪽 모서리가 이지러진 놋숟갈을 안해에게 가져다주었다. 애기어머니의 영양상태가 좋지 못한것 같았지만 오랜 시간 애기에게 젖을 물리지 못한탓인지 젖통이 괜찮게 불어있었다.

녀사께서는 손수 숟갈에 젖물을 받아 알약쪼각을 푸시였다. 그런데 혼수상태에 빠진 애기에게 약을 먹이는것이 조련치 않았다. 진춘발에게 애기의 입을 억지로 벌리게 하여 녀사께서 숟갈에 담긴 약물을 조금씩 넣어주시였다.

약물에 개끼울 때마다 애기가 콜롱콜롱 기침을 하여 한참씩 기다리군 하시였다. 이렇게 여러번 신고하여 숟갈에 담긴 약물을 다 먹이시였다.

녀사께서는 아래목 뜨뜻한 자리에 애기를 눕히게 하고 중국인부부더러 이제는 안심하고 눈을 붙이라고 하시였다. 앓는 애기때문에 며칠동안 잠을 못 자고 여기저기 뛰여다닌 진춘발부부는 안심하라는

의원의 말에 시름을 놓은듯 인차 노그라졌다. 김철주도 바람벽에 잔등을 기대고 잠들었다.

방안은 세사람의 고단한 숨소리로 가득찼다. 그러나 녀사께서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애기의 자각상태를 내내 살펴보고계시였다. 주인부부에게는 안심하라고 위로하였으나 약효가 어떻게 나겠는지 걱정스러우시였다.

두시간 좋이 되였을 때 녀사께서는 등잔불을 들고 애기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시였다. 발가우리하게 상기된 애기의 얼굴에 좁쌀알같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내돋고 숨결도 한결 고르로와졌다. 손발과 귀뿌리를 만져보니 열도 내리고있었다. 애기의 병이 기적적으로 호전되고있었다.

얼마 지나자 애기가 킹킹거리며 입술짬으로 빨간 혀를 내밀었다. 어머니의 젖을 빨려는 본능적인 식욕의 자각현상이였다. 위험계선까지 들어섰던 애기의 병이 호전되고있다는것이 이제는 확정적이였다.

녀사께서는 부뚜막에 고양이처럼 쪼그리고 누워있는 애기어머니를 깨우시였다.

《애기가 살아난것 같은데 젖을 물려봐요.》

《예?!》

애기어머니는 화닥닥 놀라며 눈을 비비였다. 한순간 얼친것처럼 두리번거리던 그는 모성애의 본능으로 애기에게 손을 뻗치였다.

《어마나, 열이 내렸네.》

애기를 품에 안은 그 녀자는 본능적으로 중국말로 탄성을 올리였다. 김철주도 잠에서 깨여나고 진춘발도 일어나 앉았다.

《여보, 애기가 살아났어요. 열이 다 내렸어요. 이것봐요, 젖을 빨아요.》

며칠동안 굶은 애기는 맹렬하게 어머니의 젖을 빨아댔다. 녀사께서도 애기의 병이 이렇게 빨리 호전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시였다.

《굶었다가 갑자기 젖을 많이 먹으면 체할수 있으니 이젠 그만 빨려요.》

안해와 함께 정신없이 애기를 들여다보고있던 진춘발은 별안간 녀사께 돌아앉더니 두손을 땅바닥에 짚고 굽석굽석 절을 하였다. 그

리고는 부엌바닥으로 뛰여내려가서 헌 나무가시그릇옆에 놓여있는 좁쌀자루를 들고 올라왔다.

《선생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우리 집엔 이 좁쌀밖에 없으니 허물치 말고 받아주십시오. 가을에 가서 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진춘발이!》

녀사께서는 다정히 부르시였다. 《우리가 돈이나 쌀을 바라고 밤길을 걸어 이 집을 찾아왔겠어요. 나도 자식을 셋이나 길러본 어머니예요. 나를 용한 의원으로 알고 임자네들이 서문밖려인숙에도 왔댔다는데 소문이 그렇지 나는 의원이 아니라 여기 농군이나 다름없어요. 내가 병든 사람들에게 약쓰는 법을 대강 알고있는것은 의원이였던 이 철주 아버지가 병자들을 치료하는것을 보고 눈에 익혀두었기때문이고 자식을 셋이나 키우면서 애기들의 병에 대해 경험을 얻었기때문이예요. 그 좁쌀자루를 어서 제자리에 가져다놓아요. … 앞으로도 우리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자요.》

녀사께서 좁쌀자루를 진춘발에게 밀어놓으시자 애기어머니가 돌연 녀사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고마와요.》

녀사께서는 흐느끼는 애기어머니의 들먹이는 어깨를 쓰다듬으시였다. 알고보니 그들부부는 부모친척 하나 없는 젊은이들이였다. 애기어머니는 올해 열아홉살이고 진춘발은 스무살이라고 하였다. 애기어머니는 원래 제 성도 모르고 온전한 이름도 없었는데 결혼후 호적등본을 낼 때 장가 성에 옥이라는 이름을 달아 장옥이라고 올렸다고 한다.

녀사께서는 동실한 얼굴에 류달리 눈매가 곱고 살결이 맑은 장옥의 얼굴을 애틋이 지켜보시였다. 진춘발은 키는 별로 크지 않지만 사내답게 얼굴의 선들이 굵직굵직하고 어깨가 철판처럼 든든해보이는 젊은이였다. 장옥은 부모의 이름도 모르고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열세살때 연길현의 어느 부자집에 팔리여 종살이를 하였는데 주인집의 구박이 너무 심해서 뛰쳐나와 방랑거지생활을 하게 되였다. 그때 사람들은 장옥이 나타나면 두꺼비거지라고 하였다. 방랑생활에 트

고 얼고 부어오른 소녀의 손잔등이 두꺼비잔등처럼 험상스러웠기때문이였다.
진춘발은 장옥이와는 달리 자기 집 래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있었다. 그의 할아버지는 청일전쟁때 평양에서 일본군의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한다. 그는 할아버지의 유골이 이제는 평양땅의 한줌 흙으로 되였을것이라며 한숨을 지었다. 그의 아버지도 청나라 군대에 복무하였는데 어느해인가 역모사건에 걸려들어 참살당하였다. 련좌법에 의해 일가친척들도 거의다 처형되여 가문의 씨가 말라버리게 될 위험에 직면하자 백부되는이가 잡혀가면서도 진춘발이만은 요행 빼돌리였다. 그때부터 그는 문전걸식하며 중국의 곳곳을 굴러다니다가 안도현의 수림속에까지 와닿게 되였다. 그리하여 심산오지에서 자기와 같은 혈혈단신의 고아인 장옥이를 만나 아무런 례식도 갖추지 않고 결혼을 하였다고 한다.
젊은 나이에 광활한 중국땅을 떠돌아다니며 별의별 고생을 다 겪은 진춘발은 로씨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숱한 외국인들을 보고 조선, 중국의 두 나라 말을 아주 잘하였지만 글은 한자도 쓸줄 모른다고 하였다. 장옥이 역시 알짜 문맹자였다. 망국의 길을 걸어온 조선의 근대, 현대의 력사가 복잡하지만 중국의 력사도 다난하기 이를데 없었다. 반인민적인 봉건통치배들로 하여 조중 두 나라 인민은 피눈물나는 수난의 길을 걸어왔다.
《어머니, 저희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의지가지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 내내 사랑해주십시오.》
진춘발이도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하고 어깨를 떨었다. 장옥은 숫제 엉엉 소리를 내며 울었다.
녀사께서는 그의 어깨며 머리며 잔등을 쓰다듬어주시였다.
《그래그래, 임자네들을 내 친아들딸처럼 생각하겠네. 나라는 달라도 인정은 같은거야.》
녀사께서는 가슴이 아파 이슥토록 말씀을 잇지 못하다가 근엄한 표정을 지으시였다.
《임자네들은 무엇때문에 자기들이 마소처럼 천대받으며 고생스레 살아왔는지 그걸 똑똑히 알아야 하네. 그것은 썩어빠진 봉건통치배

들과 반동군벌때문이네.》

녀사께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력사가 오래고 문화가 발달했던 조선도 봉건통치배들때문에 날로 국력이 쇠퇴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마침내는 하잘것 없는 왜놈쪽발이들한테 먹히우게 됐다고 울분을 터뜨리시였다.

《여기 안도에 와있는 조선사람들은 다 왜놈들의 악정을 피해 쫓겨온 사람들이네. 중국사람들도 단단히 정신을 차려야 하네. 조선에서 고기맛을 본 왜놈들은 중국땅까지 삼키려고 벌써 야금야금 만주땅을 먹어들어가고있네. 일본놈들과 중국반동정부가 있는 한 임자네들은 이 고생을 면치 못하네. 그러므로 조중인민들은 힘을 합쳐 왜놈들과 친일반동관헌들을 몰아내고 인민의 세상을 만들어야 하네.》

진춘발부부는 정신을 가다듬고 녀사의 말씀을 새겨들었다. 눈바람 휘몰아치는 밤길도 마다치 않고 찾아와 자기네 어린 딸의 생명을 구원해주신분의 말씀이니 마디마디가 그들의 가슴에 속속들이 배여들어갔다.

녀사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이 옳게 살아가자면 친구를 잘 사귀여야 한다고 이르면서 여기 쓰우리근처와 흥륭촌에 리영배, 김철희와 같은 좋은 청년들이 있으니 앞으로 그들과 가까이 지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철주하고도 형님, 동생 하며 친혈육처럼 지내라고 하시였다.

《우리 철주가 중국글을 잘 보니 글도 배워줄수 있네.》

《어머니, 우리는 이제부터 어머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어머니이고 장옥의 어머니입니다. 우리에게 어머니가 생겼습니다.》

진춘발의 얼굴은 상기되여 적동색으로 번들거리고 두눈은 기쁨에 넘쳐 번쩍거리였다. 장옥은 녀사의 한팔을 가슴에 꼭 그러안은채 《마마(어머니), 제 머리를 쓸면서 복을 빌어주세요.》 하고 애원조로 말하였다. 녀사께서는 장옥에게 미신적인것이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그의 소원대로 중국인부부의 행복한 앞날을 진심으로 빌어주시였다.

《내 아들딸 진춘발이와 장옥이들이 하늘의 비익조처럼, 땅우의 련

리지처럼 금슬좋고 행복한 애국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마!》
장옥은 녀사의 팔을 더욱 힘껏 그러안았다. 비익조란 사랑을 상징하는 환상적인 새이고 련리지는 두그루의 나무가 이어져 하나로 됐다는 뜻으로서 금슬좋은 부부의 사랑을 의미하는 나무였다. 당시 부부의 행복을 축원할 때 중국인들이 자주 외우던 말이였다.

×

녀사께서는 날이 밝자 진춘발의 집을 나서시였다. 한밤을 꼬박 새웠으나 숨져가던 어린 애기의 생명을 구원한 기쁨으로 피로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시였다. 하면서도 조직에서 벌린 사형수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서명운동에 대한 조바심과 불안에서 순간도 벗어나실수 없었다.
녀사께서는 가는 길에 김철희의 집에 들려 흥륭촌의 서명사업실태를 료해하시였다.
제일 걱정했던 흥륭촌에서는 일이 뜻밖으로 괜찮게 되였다. 흥륭촌의 젊은 녀인들은 거의다 채련옥이와 김철희의 안해, 박치근 안해의 동무들이므로 모두 서명운동에 참가하였다. 더욱 놀라운 일은 류호가 자기 배반자인 박치근을 보증한것이다. 채련옥의 아버지 채승락이가 이전부터 잘 알고있는 류호를 찾아가 서명운동의 취지를 이야기하고나서 불쌍한 박치근의 처자와 윤현칠의 어머니를 생각해서 선의를 베풀어달라고 간청하였다. 류호는 오래동안 침묵을 지키고있다가 그 서명운동을 누가 주관하고있는가고 물었다. 그는 아마도 사형수들이 모두 물북사람들이니 조희재가 주관하는 서명운동이라고 생각했던것 같았다. 그래서 채승락은 이 마을의 리영배, 김철희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것이라고 하였다. 그 말에 류호의 굵은 눈섭이 구핏하였다. 리영배, 김철희라면 자기의 음양론을 비과학이라고 비난하는 청년들로서 물남청년회에도 들지 않고 이른바 신식공부를 한다는 청년들이였다. 언제인가 그는 리영배를 불러앉혀놓고 임자네들이 음양론을 비과학이라고 한다는데 그건 스스로 무식을 폭로

하는걸세, 음양론은 과학이며 최고의 동양철학이네, 공산주의자들이 모순의 통일성을 말하는데 그게 바로 음양의 조화를 의미하는 거네, 원리가 같아, 맑스의 계급론도 다 음양론으로 해석할수 있네, 리제마의 사상의학도 음양론에 기초한거네, 나도 신식학문을 임자네만큼은 터득했네, 우리 청년회에 들어가지 않아도 좋으니 노루꼬리만 한 지식을 가지고 입을 나불거리며 음양론을 비난하지 말게 하고 되게 꾸중을 했었다.

《그 애들이 주관한거라구요?》

류호는 한참만에 심각한 표정을 짓고 물었다.

《예, 그 젊은이들이 이제야 선생의 깊은 학문을 다소 터득했는지 물남청년회에 들겠다고 합니다. 저더러 류호선생께 말씀올려달라고…》

《받지 않겠소!》

류호는 고개를 저으며 채승락의 말을 잘라버리였다.

《그러나 보증서명은 하겠소. 박치근이 그녀석은 만화락서에 공모할만 한 재목이 못돼! 그래 서명하는거요.》

류호는 이러면서 보증문서에 제 이름을 적고 허리에 차고 다니는 도장집에서 오랜 력사가 깃들어있는 네모 호박도장을 꺼내 힘있게 눌렀다.

녀사께서는 조선녀네 대흥툰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알게 되시였다. 그제야 어제 조선녀가 객주집에 찾아온 까닭도 짐작하게 되시였다. 류호는 배반자의 무죄를 보증해주고 조희재는 서명운동을 막아버렸으니 상식으로써는 리해할수 없는 일이였다.

녀사께서는 그길로 대흥툰에 찾아가시였다. 조선녀는 보증서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조희재를 비롯한 자치단체 책임자들의 눈을 피해가며 극비밀리에 서명운동을 벌리고있었다. 그런 속에서도 19명의 사람들이 서명사업에 참가하였다. 그중 녀성들이 15명이고 남자는 고작 4명뿐이였다.

조선녀는 기어이 더 많은 서명자들을 쟁취하겠다고 하였다.

그로부터 이틀후 사형수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서명사업은 결속되였다.

서명사업에 동원된 주민들의 수는 무려 900여명이나 되는데 그중에는 중국인들도 적지 않았다. 이것은 녀사로서도 상상할수 없었던 대성과였다. 안식관주인 김광문이까지도 서명사업에 참가하였다. 특히 의외로운 일은 그가 김형권동지께 봉인도장이 여러개 찍혀있는 커다란 편지봉투를 주면서 일후 현정부에 보증서를 바칠 때 그것도 함께 바쳐달라고 한것이였다. 무슨 편지인가 물어도 똑똑히 알려주지 않고 석방운동에 도움이 되는 편지이니 안심하라며 빙긋이 웃기만 했다는것이다.

서명사업은 성공하였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여야 보배이다.

이 보증서를 가지고 무한장, 왕방초와 같은 안도현의 포악한 권력자들과 대결하여야 할 더 어렵고 큰일이 앞에 있었다.

9

송강거리 동남쪽으로 뻗은 마차길을 따라 걸어가느라면 두길이나 되는 토담벽을 높이 둘러치고 남향으로 넉자폭에 다섯자높이의 으리으리한 대문을 세운 궁궐같은 건물을 보게 된다. 대문앞에는 언제나 장총을 멘 젊은 파수병이 승냥이같은 개 한마리를 데리고 립초를 서고있다.

단청이 짙은 벽에 푸른 돌기와지붕을 얹고 학의 날개같이 건듯 쳐들린 추녀로 고전적운치를 돋군 ㅁ자형의 본채와 각이한 형태의 여러 사랑채들이 담장안에 널려있는 이 집이 바로 안도현의 최고재력자이며 권력자인 무한장의 집이였다.

해가 질무렵이였다.

무한장은 아들과 함께 조상들의 신주를 모신 사당방안에서 모친의 상문제상을 살펴보고있었다. 검은 벽체에 붉은 기와를 얹은 이 사당집에 들어오자고 해도 대문과 중문을 거쳐 사랑채 일각문을 지나야 했다.

무한장은 쉰살을 갓 넘긴 중늙은이였다. 그러나 6척정도의 보

기 좋은 키에 균형잡힌 체구와 혈색좋은 길둥그런 얼굴은 아직 정력이 넘친 30대의 젊은이같았다. 그의 얼굴에서 가장 특징적인것은 류달리 큰 귀였다. 어느 관상쟁이의 말에 의하면 길게 내리붙은 그 큰 귀가 바로 권력과 금력이 당당한 대부호로 되게 한 복귀라고 한다.
네면이 검은 벽체로 된 사당방 정면에 어머니의 신주가 모셔져있고 그앞에 제상이 즐비하게 차려있었다.
오늘 밤 12시에 지낼 어머니 상문제의 차비가 제대로 됐는지 살펴보기 위해 무한장이 아들을 데리고 들어온것이다. 접때 며느리가 민태감로인의 집에 가서 사주팔자와 행년수점을 쳐보고 온 다음부터 내내 속이 께름해있던 그는 마침내 모친의 상문제를 지내기로 결심했다. 상문제는 죽은 사람에게는 복이 있고 산 사람에게는 탈이 없게 하는 제였다.
《얘야, 제상이 이만하면 될것 같으냐?》
무한장은 아들을 돌아보며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보다 작은 키에 얼굴이 동글납작한 아들은 외모부터 유순하고 어질어보이였다. 그는 보위단의 참모장이라고는 하지만 유명무실하였다. 모든 일은 다 부도단장 왕방초가 하였다.
아들은 침울한 표정을 하고 제상을 바라보았다.
《내 보기엔 제상이 이만하면 괜찮은것 같다.》
무한장이 아들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이번에 흥룡촌 촌장이 제물을 구하느라 수골 많이 했다. 언제 봐도 그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이라면 발벗고나선다. 김춘봉이란 사람 말이다.》
《제상이나 잘 차려선 뭘합니까? 아버지가 해를 입혔다는 할머니의 친척을 알아내서 잘못을 빌고 도와줘야 하지 않는가요?》
아들 무태극은 여전히 침울한 기분에 잠겨있었다.
《내겐 외가친척이 없다. 민령감이 그 점만은 잘못 쳤다. 할머니의 일가분들은 청일전쟁이 일어날무렵 모두 왜놈들한테 멸살됐다. 할아버지도 그놈들한테 죽고…》
무한장에게 있어서 일본놈과 공산당은 불구대천의 원쑤였다. 그때문에 그는 일본놈이나 공산당과 연줄을 가지고있는자들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고 가차없이 죽여버리는것이였다.

《만화락서와 공산당폭동음모에 가담한 네명의 사형수들을 확인이 되면 보위단훈련소에서 총살할게 아니라 네거리에 내다가 릉지처참할테다.》

이를 갈며 뇌까리는 무한장의 흰자위많은 눈에서 살기가 번뜩이였다.

《아버지, 그 사형수들이 정말 폭동음모에 가담했을가요? 현장의 말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일전에 강반석이라는 부인이 현장한테 찾아가 사형수들이 억울한 죄명을 쓴데 대해 하나하나 근거를 까밝혔다고 합니다.》

《맹물단지같은 현장의 말은 믿을게 못돼! 그 사람이 나한테도 찾아와서 인도주의적인 자선가요 뭐요 하면서 강씨부인의 상소에 대해 참작해보는게 어떠냐고 머저리같은 소리를 하길래 콱 쏴줬다. 반대로 왕방초는 강씨부인을 의심하고있다. 서양에도 유산자출신의 녀성공산운동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런 녀자와 비슷한데가 있다는거다. 로씨야와 중국의 대도회지에서 큰 공부를 한 왕방초가 똑똑한 사람이야.》

무한장은 결패가 있고 원쑤들에게 무자비한 왕방초의 사나운 성미가 마음에 든다고 하였다. 그에 비하면 우유부단하고 량순한 아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았다.

《나는 너도 왕방초처럼 되기를 바란다. 철저한 반일반공분자가 되길 바란단 말이다.… 사형수들에 대해서는 점쟁이의 말을 들어봐도 그렇고 나도 좀 까리까리하다. 그래 앞으로 좀 더 알아보자는거다.》

문득 출입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스레 울리였다.

《뭐야?》

《저올시다.》

집사의 목소리였다.

《왜 그러느냐?》

《저, 강반석이라는 녀자가 도단장님을 뵙자고 한답니다.》

《강반석?》

무한장의 얼굴에 강한 파문이 일어났다. 무태극이도 뜻밖인듯 눈섭을 치켜올리였다.

《무슨 일로 날 만나겠다는거야?》

《만화락서사건으로 체포된 사형수들과 관련된것이라고 합니다. 꼭 만나야 한답니다.》

무한장과 무태극은 거의 동시에 눈을 흡뜨며 서로들 마주 바라보았다. 강반석녀사의 방문용건이 심상치 않았기때문이였다.

《아버지, 만나보십시오.》

무한장은 잠시 생각에 잠겨 묵묵히 서있다가 손님을 응접실로 안내하라고 일렀다. 그리고 아들을 돌아보며 왕방초를 데리고 응접실로 같이 오라고 하였다.

응접실은 본채에 있었다. ㅁ자로 된 본채 현관문으로 들어가면 좌우로 긴 복도가 나지는데 왼쪽복도에 마주한 세번째 문이 응접실 출입문이였다.

무한장은 사당방에서 나오는 길로 곧장 응접실로 찾아갔다.

나무바닥으로 된 채광이 좋은 방이였다. 벽둘레로 탁자들과 의자들이 주런이 놓여있고 방복판에 장방형의 긴 응접탁과 등받이에 짐승가죽을 씌운 고급의자들이 응접탁 량편에 각각 네개씩 놓여있었다.

특별한 장식이 없는 안쪽 방벽에 걸려있는 길이가 석자는 됨상싶은 기다란 벽시계가 세월의 흐름을 새겨주듯 뚝딱뚝딱 소리를 울리고있었다.

얼마후 누런 보위단복에 권총을 찬 왕방초와 사민복을 입은 무태극이 들어와서 응접탁을 마주하고 앉은 무한장을 가운데 두고 량편에 갈라앉았다.

《그 녀자가 또 무슨 시끄러운걸 들고나오겠는지. 이번엔 좀 무섭게 굴어야 하겠습니다. 나이도 있는 녀자여서 사정을 보아주니 점점 더 돌아친단 말입니다. 정 시끄럽게 굴면 그 녀자도 잡아가둡시다.》

왕방초가 안경밑에서 살모사눈알을 굴리며 단호한 태도를 보이였다.

무한장은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때 집사가 강반석녀사를

모시고 응접실로 들어왔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무명치마저고리에 갖저고리를 받쳐입고 붉은 보자기를 손에 드시였다.

녀사께서는 방안에 세사람이 앉아있는것을 보고 다소 놀라시였다. 왕방초가 그속에 끼여있는것이 좋지 않게 생각되시였다.

녀사께서는 무한장을 향해 정중히 인사를 하시였다.

《강반석이라 합니다. 바쁘실텐데 면담을 청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소. 거기 앉으시오.》

무한장은 범털가죽을 댄 의자등받이에 틀지게 웃몸을 기대며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였다. 그것은 등받이에 노루가죽을 씌운 의자였다.

《사형수들때문에 왔다던데 무슨 일인가요?》 하고 묻는 무한장의 시선은 녀사의 무릎우에 얹혀있는 붉은 보자기에 가있었다.

녀사께서는 긴장되시였다. 드디여 운명의 시각이 찾아온것이다. 그동안 핵심조직원들은 당국에 보증서를 어떤 방법으로 제출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깊이 토론했었다. 여러가지 방안이 나왔지만 강반석녀사께서 4명의 사형수들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자신께서 직접 최고실권자인 무한장을 찾아가겠다고 하시였다. 그에 대해 조직원들은 사뭇 불안해하였다. 그들의 머리속에 무한장이라는 인간은 살인귀와 같은 악착한 폭도로 인찍혀져있기때문이였다. 녀사께서는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내가 알아본데 의하면 요즘 무한장은 며느리를 내세워 점을 치러 다니게 한다고 한다, 자기들이 한 일이 마음에 꺼리기때문이다, 그러니 900여명의 보증서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에게 함부로 란폭한짓을 할수 없다, 설사 그를 찾아가는 일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형수들을 구원하는 일에 몸을 사린다면 앞으로 무슨 혁명을 할수 있겠는가, 군중을 위해 목숨을 내대는 사람만이 군중을 쟁취할수 있다고 절절히 말씀하고 무한장과 대결하러 오신것이다.

녀사께서는 보자기를 풀고 그안에서 20여장 되는 보증문서장들과 김광문의 편지봉투를 무한장앞으로 내밀었다.

《도단장님, 그걸 보십시오.》

《이건 뭐요?》

무한장은 학습장처럼 하나로 묶은 보증문서장을 집어들었다. 왕방초와 무태극이도 고개를 기웃하고 그것을 넘겨다보았다. 그들의 눈에 이런 글이 밟히였다.

《저희들, 안도주민들은 박치근, 윤현칠, 고덕삼, 공쇠똥에게 사형처분을 한 현정부의 처사가 부당하다는것을 밝히기 위해 아래와 같은 군중보증서를 구비하였으니 부디 깐깐히 살펴보고 4명의 사형수들을 석방시켜주기 바랍니다.》

무한장의 얼굴이 이앓이를 하는 사람처럼 찌프러졌다. 왕방초가 보증서의 글을 좀 더 자세히 보고싶었던지 무한장의 손에 들려있는 종이묶음을 잡아당기였다.

《가만 있게. 내가 다 본 다음에 보게.》

무한장이 왕방초의 손을 쳐갈기고 장을 번지였다.

시뻘건 혹은 시꺼먼 손도장들로 가득찬 종이장이였다. 이런 종이장들을 20여장 묶어놓았다. 서명자들이 900여명이나 되니 종이장수가 많아진것이다.

무한장은 몇장 번져보다가 성난 얼굴을 하고 보증문건을 활 내던졌다. 그의 눈시울이 부르르 떨고 눈두덩의 살집들이 경련이 일어난듯 실죽거리였다.

왕방초가 얼른 보증문건을 받아가지고 재빨리 훑어보았다.

녀사께서는 한층더 긴장해지시였다.

왕방초는 무한장과는 달리 20여장 되는 보증서를 한장도 빠짐없이 깐깐히 뜯어보았다. 한장을 번지는데 이삼분은 실히 걸리는것 같았다.

《무얼 그렇게 오래 보나?》

무한장이 답답증이 나는지 십여분이 지나도록 계속 종이장을 붙들고있는 왕방초에게 짜증을 냈다.

《도단장님! 이런건 찬찬히 뜯어봐야 합니다.》

왕방초는 별스레 입귀를 실그러뜨리고 조소와 같은 이지러진 웃음을 지었다.

녀사께서는 걸핏하면 발작적인 광증을 일으키는 이 야수형의 인간이 흥분을 누르고 아주 침착하게 보증서를 뜯어보는데 저으기 놀라

시였다. 감정을 묻어둘줄 모르는 성미급하고 속이 얕은자로 생각하였는데 그런것만 같지 않으시였다.

보증서묶음을 한장한장 번지며 깐깐히 뜯어보던 왕방초가 갑자기 고개를 쳐들며 소리쳤다.

《이건 반란이다! 도단장님, 반란입니다!》

그는 주먹으로 보증서묶음을 꽉 누르며 악에 받쳐 계속 뇌까렸다.

《주민들속에 불평불만을 조성해서 소요를 일으키는게 공산분자들의 수법입니다. 벌써 이 안도땅에 붉은 마귀들의 무산폭동의 서곡이 울리고있습니다.》

왕방초는 안경알을 번뜩이며 녀사께 눈총을 쏘았다.

《어느 공산분자가 이 반란을 조직했는가?》

드디여 왕방초의 히스테리적인 광증이 발작하였다.

《당신은 이게 반란이라고 생각되는가요?》

녀사의 눈에서도 번개불같은 증오의 섬광이 번뜩이였다.

《반란이 아니고 뭔가. 우리는 철저히 법심리에 기초해서 4명의 죄수들에게 사형처분을 내렸소. 그런데 공산분자들이 터무니없이 이걸 뒤집어놓고 군중의 불만을 조성하여 이런 보증서를 조작했소. 말하라! 어느 단체, 어느 놈이 이걸 조종했는가? 바로 당신인가?》

왕방초는 녀사의 가슴을 찌를듯이 권총을 내뻗치였다.

《그렇소. 바로 내가 참다참다못해 현정부에 군중보증서를 제출할 결심을 하게 됐소.

당신은 법심리에 기초해서 사형처분을 했다는데 언제 재판을 했는가? 당신들에게 법이라는게 있소? 당신의 그 총이 곧 법이요? 아무사람이나 마음대로 죽일수 있는 법이요?》

《그렇소. 총칼이 없이 법은 존재하지 못하오. 총이 없는 법이 어디에 있는가.》

《왕방초! 좀 가만있게. 마저 들어보잔 말이요.》

무한장이 참을성없이 지껄여대는 왕방초의 어깨를 내리눌렀다.

녀사께서는 응접탁에 풀어헤쳐진 보증문서장을 가리키며 말씀하시였다.

《그 보증서는 민심이요. 반란이 아니라 민심을 모은거요. 그것은 민심이기때문에 삽시에 저렇게 수많은 군중이 서명운동에 동원되게 된거요. 사형수들을 석방하시오! 이 보증서에 적혀있는것처럼 그들이 만화락서자가 아니란것은 너무도 명백하오. 설사 만화락서자라고 해도 어찌 사형처분을 할수 있단 말이요. 옛날 어느 임금은 궁중에 올려보낸 류민도(류랑걸식하는 백성들의 참상을 그린 그림)를 보고 백성의 하정을 헤아려 선정을 베풀었다고 했소. 당신들도 만화락서를 보고 노발대발하며 사람들을 죽이려들지 말고 자기 잘못을 고쳐야 할게요.》

왕방초의 갑작스러운 웃음소리에 녀사께서는 말씀을 끊으시였다.

《하하하, 원쑤들에게 선정을 베풀라? 그건 레닌파들에게 프로레타리아독재를 하지 말라는것과 같소. 이런 보증서는 아무런 효력도 없소. 그러니 불살라버립시다.》

왕방초는 주머니에서 성냥갑을 꺼내더니 잽싸게 성냥가치 한개를 뽑아냈다. 드윽 하는 소리와 함께 새빨간 성냥불이 켜지는 순간 무태극의 주먹이 성냥불을 든 왕방초의 손을 억차게 쳐갈기였다. 성냥불은 응접탁우에 날아떨어져 거물거리다가 몇점의 시커먼 재티를 남기고 꺼져버렸다.

《당신은 미쳤소?》

무태극은 놀란 얼굴을 하고 왕방초를 쏘아보았다. 왕방초도 무태극을 마주 쏘아보았다. 안경밑에서 독을 풍기는 그의 새까만 살모사 눈알은 마치도 뭐가 무서워서 불에 덴것처럼 그래! 이 비겁쟁이야 하고 쏘아붙이는듯 했다. 그러나 감히 그에게 욕설을 퍼붓지는 못하고 《이따위 보증서는 빈 종이장이야!》 하고 녀사께 소리질렀다.

《그렇다. 빈 종이장이다.》

무한장이 왕방초의 말을 되받아외우며 손바닥으로 응접탁을 두드리였다. 《이따위 종이문서나 말로는 보증할수 없다. 만화락서자를 내앞에 끌어다놓으라. 그것만이 보증될수 있다. 그렇게만 하면 사형수들을 석방하겠다. 사형날자전으로 만화락서자를 잡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법심리에 의한 판결이 정확하다는것을 인정하고 사형을 집행하겠다. 이젠 그만하자!》

무한장은 면담을 그치려는듯 응접탁을 짚고 일어섰다. 그는 아들보다도 왕방초의 말을 언제나 중시하였다. 아들에 대한 그의 혈육의 애정은 말할수없이 깊었으나 세상을 보는 눈과 일을 처리하는 수완이 왕방초보다 자기 아들이 훨씬 못하다고 생각하기때문이였다.

《아버지!》

무태극은 응접탁에서 물러서려는 무한장을 급히 불렀다.

《아버지, 저는 이 보증서가 민심이라고 한 강부인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옛사람들도 〈천인소지무병이사(천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면 병이 없이 죽는다.)〉라 하였는데 이것은 민심을 어겨서는 안된다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여보여보, 참모장!》

왕방초가 무태극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일어섰다.

《우리 중국이 쇠퇴몰락한건 성인, 현자님들의 명언이 너무 많았기때문이요. 공자, 맹자, 순자… 저저마다 깊은 철학과 명언, 금언을 내놓았지. 중국은 바로 그것때문에 퇴보했소. 천인소지무병이사? 고작 900명의 손도장이 찍힌 이 보증서가 그렇게 무섭소? 원쑤에게 양보하면 우리가 죽소. 이게 진리요. 때문에 그 보증서는 불살라버리고 손도장을 찍은 놈들도 모조리 잡아다 초달을 해야 해! 900명이 아니라 만명이라도…》

왕방초의 입귀에서 거품이 끓어올랐다. 무한장은 여전히 왕방초의 말에 공감하는듯 고개를 끄덕거리였다.

《부도단장의 말이 옳다. 난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 나에게 엇서는자들은 모조리 죽일테다.》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면서 아버님은 오늘 무엇때문에 할머님의 상문제를 하시려는겁니까?》

일순 무한장은 입이 굳어진듯 말없이 아들을 지켜보았다. 신을 두려워하면서도 신을 무시하고 잔인한 칼부림을 하는 유신론폭군들이 수없이 많다. 무한장도 그런 사람인지 모른다.

《그건 도단장님의 효도요. 무서워서 제를 지내는게 아니요.》

왕방초가 무한장을 두둔해나서면서 응접탁에 놓여있는 김광문의 편지를 집어들었다. 《도단장님! 이 편지를 안 보시겠습니까? 이걸

마저 보구 가십시오.》
《참, 이 편질 못 봤군.》
무한장은 봉인도장이 여러개 찍혀있는 편지봉투를 왕방초에게서 받아들며 그게 무슨 편지인가고 녀사께 물었다.
언쟁하는 세사람을 갈마보며 생각이 복잡해졌던탓에 녀사께서는 김광문의 편지에 대해서는 가뭇 잊어버리고계시였다.
《저도 그게 무슨 편지인지 모릅니다. 보증서를 바칠 때 함께 바쳐달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사형수들을 살려줍시사 하는 청원서같은거겠지요. 김광문이도 인도주의자로 자처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은 4명의 사형수들에게 다 보증서명을 했더군요.》
왕방초가 빈정거리듯 말하였다. 녀사께서는 누가 누구를 보증했는가에 대해서까지 깐깐히 살펴보고 머리에 새겨두고있는 왕방초의 세밀성과 집요성에 자못 놀라시였다.
의자에 도로 앉은 무한장은 편지봉투를 해빛에 비쳐본 다음 천천히 겉봉을 뜯었다. 봉투안에서 흰 속지가 넉장이나 나왔다. 장문의 편지였다. 무엇이 맞갖지 않은지 입안으로 쑹얼거리며 편지지에 눈을 주던 무한장은 갑자기 눈을 홉뜨며 《이놈이!》 하고 소리질렀다.
《도단장님, 왜 그러십니까?》
왕방초가 의아해하면서 무한장이 집어든 편지종이를 넘겨다보았다. 무태극이도 머리를 기웃하였다.
무한장은 좌우에 다가붙은 두사람을 밀어제끼고 편지를 읽기 시작하였다. 그의 얼굴빛은 점점 더 시꺼멓게 질리고 편지종이를 쥔 손은 경풍이라도 일어난것처럼 후들후들 떨리였다.
《이건 변고로다, 변고!》
글을 다 읽고난 무한장은 주먹으로 응접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왕방초가 응접탁에 흩어진 넉장의 편지지를 서둘러 그러모아 안경밑으로 바싹 가져다댔다. 그도 역시 편지지를 들여다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안절부절하였다. 그러나 점차 그의 얼굴에 독기가 풍기며 입안에서 빠드득빠드득 이를 가는 소리가 응접탁 건너편에 앉으신

녀사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내 이놈을 붙잡아 명태자반을 만들테다.》
왕방초는 손에 들었던 편지종이를 응접탁에 휘뚜루 쥐여뿌리고 미친 사람처럼 응접실밖으로 달려나갔다. 이번에는 무태극이가 흩어진 종이장들을 그러모았다. 그는 처음부터 실색한 얼굴을 하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글을 읽었다.
《아버지, 보세요. 왜 제 말은 듣지 않고 그 사람의 말만 듣습니까? 난 언제건 꼭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무태극이가 아버지를 돌아보며 원성을 터뜨리였다. 그때까지 무한장은 눈을 감고 범털가죽의자등받이에 웃몸을 기댄채 아무 말도 없었다.
(김광문의 편지에 무엇이 씌여있기에 저리들 놀라는가?)
녀사께서는 무태극이 떨궈놓은 종이장들을 집어드시였다. 순간 흰 종이에 정자로 내려쓴 새까만 붓글자가 눈에 밟히였다.

희세의 폭도 무한장, 왕방초 보아라!
이놈들아, 똑똑히 알아두라. 만화락서자는 바로 나, 김광문이다. 귀축도 낯을 붉힐 잔인무도한 악행을 일삼아온 네놈들이 이제 또 죄없는 사람들을 락서공모자로, 폭동음모가담자로 몰아 사형처분을 하는 흉한 놀음을 벌리고있다만 나의 만화공작을 도와준 협력자는 오직 한사람, 경찰서 부서장뿐이다.
나라를 잃고 가랑잎처럼 바람에 흩날려 여기 안도현 수림지대에까지 밀려온 나는 처음 소학교 훈장질을 하는 기간에만도 사람들을 파리죽이듯 하는 네놈들의 폭행을 수없이 목격하였다. 그후 훈장질을 그만두고 조그마한 음식점을 경영할 때에도 나는 네놈들에 대한 이곳 주민들의 원한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치를 떨었다. 오죽하면 주민들이 너희네 보위단을 사람을 죽이는 《창비단》이라고 불렀겠는가. 네놈들이 최근 4～5년동안에 죄없는 사람들에게 공산당의 죄명을 씌워 죽인것만 해도 손으로 꼽을수 없다. 문자그대로 네놈들은 《창비단》의 두목이다.
네놈들의 그 만행을 보며 나는 매양 이를 갈고 치를 떨었지만 어

찌할 도리가 없었다. 나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었기때문이다. 이런 때 안송총관 최진용선생이 나의 초라한 음식점에 찾아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도복음이라는 애국기업가가 무송에 안식관이라는 조선민족양식의 음식각을 짓고 독립운동자들에게 무료봉사를 하면서 일본군과 반동군벌들의 비밀자료들을 빼내여 제공해주고있다는 것이였다. 그의 말에 큰 감동을 받은 나는 도복음씨의 모범을 따라 송강에도 안식관을 꾸려놓고 반일애국자들을 도와주고 네놈들과 같은 폭압자들에게 타격을 주는 의로운 일을 하고저 결심을 다지였다. 그때부터 재력이 있는 어느 한 목재상의 자금을 빌어 만 2년동안 역사질을 벌려온 나는 올해 양력설날에 마침내 안식관을 개업하게 되였다. 그런데 개업한지 며칠 안되여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으니 내가 사표로 삼아온 도복음은 애국기업가가 아니라 일본간첩이였다는것이다. 그 사람은 이미 몇해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저승으로 갔으며 도복음을 선전한 최진용총관은 장작림폭사사건이후 만주땅을 떠나 고향으로 갔다고 했다. 결국 나는 일본간첩의 흉내를 낸것이다. 이 얼마나 경악할 무서운 일인가.

절망과 고민에 빠진 나는 일본간첩의 흉내를 낸 그 수치스러운 안식관에 불을 지르고 그속에 뛰여들어가 내 한몸도 불살라버리려고 했다. 허나 이때 그러한 최후의 만찬회(자살)가 매우 무의미하고 비렬한 행위라는것을 깨우쳐준이가 있었다. 예로부터 원쑤에 대한 반항의 표시로 제몸을 스스로 불사르는 분신자살이라는것이 있었지만 자기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혐오와 저주로 하여 목숨을 끊는 그러한 죽음은 떳떳한 분신자살로도 될수 없었다. 이러한 의식이 머리를 치는 순간 나는 자신이 가장 미워하는 안도의 여덟 명물을 풍자한 대형만화를 안식관벽에 그려놓을 생각을 하게 되였다. 이 대형만화는 밝은 대낮에는 그릴수 없으므로 현성안의 밤순찰을 조직하는 경찰서 부서장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다. 그는 평시에 나와 감정이 통하던 정의감이 강한 반일경찰관이였다.

우리는 5일장 전날 밤을 택하였다. 이날 밤 부서장이 일부러 야간순찰을 조직하지 않았기때문에 마음놓고 왕붓으로 대형벽화를 그릴수 있었다.

누구를 물론하고 만화를 보고는 통쾌해하였다. 나는 자신의 만화가 주민들의 가슴에 응어리진 원한을 다소나마 풀어주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흐뭇하였다. 그런데 그 만화로 하여 주민들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하였다. 죄없는 사람들이 만화락서공모죄를 쓰고 사형을 받게까지 되였으니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때 마침 사형수들을 석방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벌어져 나는 그 운동에 적극적으로 합류하는 한편 만화락서의 전말사연을 세상에 공개할 용단을 내리였다.

무한장악당들아! 만화락서는 바로 이렇게 되여 하게 된것이다. 나는 공산당도 아니고 어느 자치단체에 가담한 사람도 아니다. 이제는 할말이 있는가? 사형수들을 당장 석방하라! 네놈들의 죄행은 이미 만사람들앞에 드러났다. 민심은 천심이거니 네놈들이 천벌을 면할수 있는가? 우릴 잡을 궁리는 아예 말라!

편지를 읽은 녀사께서는 너무도 놀라 한동안 묵묵히 앉아계시였다. 안식관주인이 락서를 했으리라고는 녀사께서도 전혀 생각지 못하신 일이였다.

녀사께서는 편지종이를 간종그려 무한장에게 넘겨주며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정말 놀라운 일이예요. 도단장님은 지금까지 누구의 말에 넘어가서 이런 큰 실수를 했습니까? 도단장님이 죽이려고 한 그 네명의 사형수들은 모두 도단장님처럼 왜놈들을 불구대천의 원쑤로 여기는 사람들이예요.

여기에 서명한 900명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안도에 거주한 조선주민들은 모두 왜놈들을 철천지원쑤로 생각합니다. 도단장님이 진정으로 왜놈들을 미워한다면 친일분자인가 반일분자인가를 놓고 벗과 원쑤를 갈라보아야 할거예요.》

《아버지, 이제 뭘 더 생각할게 있어요. 사형수들을 석방시킵시다. 제가 철문을 열겠어요.》

무태극이 응접탁을 짚고 움쭉 일어섰다. 우유부단하고 주대가 없는 그가 이렇게 단호하고도 완강한 태도를 보이기는 처음이였다.

《석방시키라! 대신 김광문이와 부서장놈을 잡아넣으라. 괘씸한 놈들!》

무한장은 주먹으로 응접탁을 내리치며 뇌까렸다. 그는 만화락서자들의 사지를 찢어버리겠다고 이를 갈며 응접실을 나섰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김광문이와 부서장은 벌써 멀리로 솔가도주한것이다.

×

그날 저녁 네명의 사형수들이 모두 석방되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그 기쁜 소식을 김형권동지께 전하고 대흥툰으로 가시였다. 온 동네가 명절처럼 흥성거리였다.

박씨와 박치근의 안해 송진녀는 음식을 차려놓고 손님들을 청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대흥툰의 청년회 회장과 농민협회 회장은 보위단이 사형수들을 석방시킨것은 그들과 련계되여있는 폭동음모가담자들을 잡아내기 위한것이라고 찬물을 끼얹으며 돌아갔다.

녀사께서는 격분을 참지 못해 조희재를 찾아가시였다.

《이번에 류호선생님이랑 물남사람들이 대흥툰청년들을 살려내기 위해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했어요. 그런데 여기 청년회, 농민협회 회장들은 물북청년들을 살려낸데 대해 기뻐할 대신 가짜석방이니 뭐니 하며 돌아가니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조선생님이 회장들을 옳게 교양하고 류호선생님과 사이좋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녀사께서는 이렇게 몇마디 충고하고 밖으로 나오시였다. 한참 걸어가다가 뒤에서 인기척이 나서 돌아보시니 조춘희가 따라오고있었다.

《아니, 춘희가… 왜?》

《녀사님, 전 언제부터 묻고싶었어요. 녀사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안도에 왜 오셨나요? 목적이 무엇인가요?》

춘희의 느닷없는 질문에 녀사께서 정색을 지으시였다.

《안도에 왜 왔겠나, 살자고 왔지. 나는 자식을 가진 어머니이고 나라를 잃은 불행한 망국민이고 그래서 남편도 일찍 여읜 조선의 보

통녀인일세.》
녀사의 목소리는 불현듯 비분에 떨리시였다.
《나도 춘희한테 묻고싶은것이 많네만 오늘은 년장자로서 한가지 조언만을 주고가겠네. 춘희는 젊은 나이에 늘 본가에 와서 동무도 없이 혼자 지낸다는데 그러지 말고 애국계몽사업을 하며 사람들과 섭쓸리는게 좋을것 같네. 이 마을녀인들에게 글도 배워주고 정도 나누며…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사람들을 멀리하면 눈이 멀어져 인생길을 옳게 걷지 못하네. … 날씨도 찬데 이젠 그만 돌아가게.》
녀사께서는 춘희의 어깨를 다정히 다독여주고 걸음을 옮기시였다.
이날 밤 녀사께서는 박씨네 집에서 주무시였다.

10

날이 어두워졌을 때였다.
무릎까지 내리드리운 긴 솜덧저고리에 개털모자를 쓰고 목이 긴 통버선에 헌 바랑을 진 처서군차림의 사나이들이 무엇을 경계하는듯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레 마춘욱이네 려인숙마당에 들어섰다.
등잔불이 불깃하게 비친 려인숙지게문앞에는 수십컬레의 짚신짝들이 널려있었다. 사람의 그림자들이 언뜻거리는 지게문안에서는 언제나 그러하듯 비탄조의 타령소리, 주정군들의 악다구니, 왱강댕강 놋사발을 굴리는 소리들이 번잡하게 울리였다.
처서군차림의 사나이들은 손님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무엇을 의논하는듯 앞마당에 둘러서서 수군거리였다. 모두 다섯명인데 바랑아구리로 톱자루들이 삐죽이 나와있었다.
《선생님, 시장하시겠는데 우선 저녁을 들고 만나보십시오.》
다섯명의 처서군들중 누구의 입에선가 이런 말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그럼 들어가 저녁을 하세. 그러나 추워두 한사람씩 교대로 망을 봐야겠네.》

선생님으로 존대를 받고있는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레 하는 말이였다. 그의 지시대로 처서군들은 마당에 한사람을 남겨두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네개의 장지문을 틔여놓고 통방으로 만든 길고도 넓은 방에는 함바나 국수집에서 흔히 보게 되는 기다란 나무밥상을 네개나 잇대여 놓았는데 매 밥상마다에 사람들이 과히 비좁지 않게 앉아있었다.

방금 들어선 네명의 처서군은 빈자리가 있는 웃쪽으로 가 두사람씩 밥상에 마주앉았다. 세사람은 이제 스무살안팎의 새파란 젊은이들이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한사람만이 중년배의 사나이였다. 그 사람은 면도질을 하지 않아 턱수염이 구두솔같았으나 얼굴살갗은 유난히 희고 맑아서 추위에 얼고 볕에 그슬린 처서군들의 거무틱틱한 얼굴빛과는 뚜렷이 구별되였다.

식모인 장영숙이가 소주병과 국수그릇을 담은 나무쟁반을 들고 처서군들의 옆에 앉은 농군차림의 세 남자의 식탁으로 걸어갔다. 쟁반에 담긴 음식그릇들을 손님들의 상에 내려놓고나서 새로 들어온 처서군들에게 물었다.

《손님들은 무슨 음식을 가져올가요?》

《국수 다섯그릇에 소주 두병을 가져옵소.》

한 젊은이가 《애국》과 《화목》이라는 붉은 꽃송이를 수놓은 장영숙의 행주치마를 지켜보면서 주머니안에서 지페 한장을 꺼내놓았다. 안주는 그 돈어치만큼 적당히 차려오라고 하였다.

지페를 내놓은 젊은이가 정지방으로 나가는 장영숙을 가리키며 식탁에 마주앉은 중년사나이에게 말하였다.

《선생님, 저 녀자가 접때 말한바 있는 곽청도라고 하는 사람의 색시 같습니다.》

《곽청도라니?》

중년사나이는 기억이 나지 않는듯 머리를 기웃거리였다.

《제가 접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프로레타리아사상을 주입해도 먹어들지 않는 돌대가리가 있다구요.》

《아하, 여기가 어디라구…》

중년사나이는 펄쩍 놀라며 젊은이에게 눈짓을 하고 주변의 사람들

을 쭉 둘러보았다. 약간 벗어진 이마, 여덟 팔자를 그린 짙은 눈섭, 우묵할사한 눈확에서 날카롭게 번쩍이는 갈색눈동자, 이런 세부들의 종합체를 이룬 그의 얼굴은 몹시 영민하고 성칼진 인상을 주었다.

객주집녀인들이 음식을 날라올 때까지 네사람은 말없이 조용히 앉아있었다. 장영숙이가 그들의 식탁우에 국수그릇과 소주병을 내려놓고 뒤따라 백춘화가 메돼지고기볶음이며 고사리, 도라지따위의 산나물그릇들을 챙겨놓았다.

백춘화가 돌아서려고 할 때 중년사나이가 문득 손을 쳐들었다.

《가만, 강반석이라는 녀자가 지금 있습니까? 이 객주집에 거처하면서 자선사업을 하고있다는 녀의원 말이요.》

《예, 안방에 계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사나이는 안방이 어디 있는가고 반문하였다.

《정지방 저켠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음, 알겠소.》

사나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저가락을 량손에 쥐더니 닭알과 메돼지고기꾸미를 놓은 메밀국수타래를 든장질하여 풀어놓은 다음 국물맛을 보았다. 그리고는 식초병과 간장병을 기울여 간을 맞추고 후르륵 후르륵 소리를 내며 맛스럽게 국수를 먹었다.

《촌객주집치고는 음식을 깨끗이 잘하누만.》

《선생님, 선주후면이라는데 술을 몇잔 하고 국수를 드실걸 그럽니다.》

옆에 앉은 젊은 처서군이 소주를 부어놓은 놋잔을 두손으로 정중히 선생님에게 권하였다.

《난 술을 안하겠네. 이제 사람을 만나야겠는데 술냄새를 풍기면 되겠나. 임자네들이나 속을 데우고 빨리 밖에 나가 교대를 하게.》

밖에서 망을 보는 청년을 생각해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였다.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여서 국수를 먹으면서도 밖에다 망을 세워놓는지 알수 없었다.

이때 그들의 옆좌석에서 탁배기사발을 기울이고있던 농군차림의 손님들이 만화락서사건으로 체포되였던 네명의 사형수들이 석방된

이야기들을 하였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있던 선생님이 몹시 놀라며 농군들에게 말을 걸었다.

《그 사람들이 석방되였단 말이요?》

《손님은 아직 그것도 모르시오? 어제 저녁에 다 나왔소. 송강일판에 소문이 자자한데…》

《사형한다고 공시까지 하고는 어떻게 석방시켰는가?》

《어디 먼데서 오신 모양이구려.》 하고 방금 탁주를 들이킨 농군이 손으로 입언저리를 문대고나서 대흥툰을 비롯한 여러 농촌마을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벌린것이며 김광문이와 경찰서 부서장이 솔가도주한것이며 근간에 있은 기담들을 늘어놓았다. 그가 사실보다 이야기를 더 보태고 윤색해서 소문을 이미 들은 손님들까지 희한해하며 재미있게 듣고있었다.

《안식관주인이 경찰서부서장을 끼고 만화락서를 할줄이야 어찌 알았겠소. 사실 신통하게 그린 만화지. 바줄당기기를 하는 조희재, 류호, 최동화에 대한 그림이 얼마나 신통하오. 허허허.》

만화이야기를 꺼낸 농군이 탁배기를 한모금 들이키고나서 껄껄 웃어댔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한마디씩 하였다.

《만화에 나오는 최동화는 무슨 에미네파라든지 간나파라든지 하는 공산분자라는데 미치광이랍데다. 그저 덧대놓고 폭동, 폭동 하는 미치광이래요.》

《허허… 에미네파가 아니라 엠엘파요. 맑스—레닌주의의 략자요. 그리고 최동화는 엠엘파가 아니라 화요파요.》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저편에서 듣고앉아있던 헌 양복을 입은 젊은이가 페병환자처럼 창백한 얼굴에 랭소를 지으며 말참견을 하였다. 그는 조희재라는 사람은 무저항주의를 부르짖는 위선적인 비겁분자이고 최동화는 중국공산당에 잘 보이기 위해 폭동이요, 혁명이요 하며 돌아가지만 실상은 그도 겁쟁이라고 하였다.

《그래두 그 사람이 리론은 대단하대요. 리론투쟁에서는 누구도 그 사람을 당하지 못한대요. 화요파에서두 이거래요.》

탁배기패 농군들과 조금 떨어져앉은 두루마기 입은 중년배의 사람이 엄지손가락을 내밀었다.

《말방구요, 말방구… 나도 그 사람을 한번 본적이 있는데 말방구요.》
헌 양복쟁이가 입을 삐죽거리며 코웃음을 치는데 어디선가 《여보, 허튼소리 말라!》 하는 고함소리가 터져나왔다. 선생님과 마주앉아 소주를 마시던 젊은이가 벼락처럼 내지른 고함소리였다.
《뭐, 말방구? 다시 그따위 악다구니를 하면 사등뼈가 부러질줄 알라! 뭐, 최동화선생을 만나봤다구? 허풍쟁이같은거.》
숯불처럼 타는 처서군젊은이의 눈이 방금 최동화를 말방구라고 모욕한 헌 양복쟁이를 무섭게 쏘아보았다. 그러나 병색이 짙은 헌 양복쟁이도 만만치 않았다.
《야, 뭐 어째? 이놈아, 너 정말 사등뼈 부러지구싶으니? 내 한달동안 염병을 앓아 기운이 없지만 아직 너같은건 네댓개 달라붙어도 한주먹으로 콩가루 만들어! 이놈아, 여기 좀 오라!》
헌 양복쟁이가 젊은 처서군에게 지시손가락을 갈구리모양으로 구부리며 오라는 시늉을 하였다. 양복쟁이의 야료에 극도로 분개한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당장 때려엎을듯이 주먹을 부르쥐고 밥상머리를 돌아섰다. 주먹싸움이 벌어질듯싶은 일촉즉발의 순간 가운데지게문이 열리더니 보위단 정복과 비슷한 누런 외투를 입고 군용개털모자를 쓴 두 젊은이가 불쑥 방안으로 들어섰다. 그와 거의 동시에 웃쪽지게문이 또 열리더니 몸이 장대한 젊은 처서군이 허둥거리며 들어와서 자기 동료들인 처서군패들에게 입안소리로 수군거리였다.
《선생님》으로 불리우는 중년처서군이 저가락을 놓고 급히 일어섰다. 그는 웬일인지 국수를 마저 먹지 않고 서둘러 지게문을 열고 도망치듯 밖으로 뛰쳐나갔다. 동행했던 젊은 처서군들도 보위색외투를 입은 사람들을 힐끔힐끔 곁눈질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저 사람들이 왜 모두 비실비실 피해가나요?》
탁배기패 농군이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방금 들어선 저 누런 외투를 입은 사람들을 보위단으로 알고 도망해갔습니다. 맨처음에 빠져나간 수염많은 사람이 바로 최동화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사람 솥뚜껑을 보고 놀란다는게 저런거지요. 허허.》

헌 양복쟁이가 저쪽 빈 식탁에 앉아있는 보위색외투를 입은 두 젊은이를 가리키며 허구픈 웃음을 지었다.

《아니, 그 사람이 최동화란 말이요? 그럼 젊은인 그 사람을 뻔히 알면서 말방구라고 했소?》

최동화를 리론가로 추어올리던 두루마기 입은 사람이 눈이 둥그래서 헌 양복쟁이를 바라보았다.

양복쟁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국수사발을 비우고는 밖으로 나갔다. 양복쟁이가 나가자 그의 곁에 앉아있던 나이지긋한 손님이 방금 나간 젊은이가 흥륭촌 훈장 류호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최동화란 사람이 류호에 대하여 제일차적인 타도대상인 봉건량반족속의 반공민족주의자라고 노상 험담질을 해서 그가 일부러 최동화를 앞에 앉혀놓고 면박을 준 모양이라고 하였다. 그는 몇년전부터 할빈인지 어딘지 대도회지에 나가 고학을 한다고 하였는데 요즘 몸에 병이 들어 집에 와있다는것이다. 고학을 하는 젊은이들은 대체로 자기 보신을 위해 유술, 권투, 격술 같은 특기를 하나씩 배워두고있다고 하였다.

이때 장영숙이 나무쟁반을 들고 들어와 처서군들이 남기고간 음식그릇들을 거두고 저쪽 먼발치에 앉아있는 보위색외투를 입은 두 젊은이에게로 갔다.

《무슨 음식을 차려올가요? 국수도 있고 국밥도 있습니다.》

《국수 두그릇을 주시오. … 그런데 한가지 물읍시다. 근간에 김형권이라는 의원이 가족들을 데리고 안도에 이사해왔다는데 모릅니까?》

건장한 체구의 얼굴 너부죽한 젊은이가 물었다.

《예, 왔습니다. 그분의 형수님이 우리 객주집에 와계십니다. 강반석이라고…》

《아, 그래요? 지금 만날수 있습니까?》

그 청년은 환성을 지르듯이 웨치면서 벌떡 일어났다.

《만날수 있지요. 그런데 어디서 온 손님이예요?》

장영숙은 의아해하는 눈길로 그 청년의 얼굴을 찬찬히 지켜보았다.

《난 길림에서 왔어요. 곽명준이라고 강반석어머님의 아들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요. 밥은 후에 먹고 우선 어머니를 만나뵈와야겠어요.》

곽명준은 정지방으로 내려갔다. 그와 동행한 곱살하게 생긴 젊은이도 따라내려갔다.

손재봉기를 돌리고있던 녀사께서는 느닷없이 들어서는 두 젊은이를 보고 처음은 어정쩡해하시였다. 누런 외투를 입고 면도도 제대로 하지 못한 곽명준을 인차 알아보시지 못한것이다. 곽명준이도 격정이 북받쳐올라 한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엉거주춤 서있다가 《어머니!》 하고 달려와 녀사의 두손을 잡아쥐였다.

《아니, 이게 누구요, 명준이로구만!… 어떻게 기별도 없이 불쑥 날아왔나?》

녀사께서는 기쁨에 넘쳐 곽명준의 등을 어루만지시였다. 이밤 녀사께서는 조선녀의 첫날옷을 지으시는중이였다. 방안에 엎디여 책을 읽던 두 자제분들도 《명준형님!》 하고 소리치며 일어섰다.

《오, 너희들 컸구나!… 철주는 아주 어른이 다됐구나!》

곽명준은 철주를 그러안고 기뻐서 떠들다가 옆에 서있는 젊은이를 돌아보았다.

《여, 태설이, 내가 늘 말하던 강반석어머니이시오. 한별동지의 어머님이시란 말이요.》

강태설은 외투를 벗고 무릎을 꿇으며 녀사께 절을 올리였다.

녀사의 가슴은 걷잡을수없이 설레였다.

드디여 길림의 조직선이 와닿았구나!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던가. 이제 조직의 행동방향도 똑똑히 알게 되고 우리 성주의 소식도 듣게 되리라.

우리 성주가 무사한지? 혹시 감방에서 병을 만나지는 않았는지…

아드님의 소식을 알고싶은 녀사의 마음은 급하였으나 애써 참으시였다.

장영숙이와 백춘화가 나무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참, 저녁전이겠구만. 어서 저녁을 들게.》

녀사께서는 얼른 두리상을 펴시였다. 두리상에는 순식간에 푸짐한 음식이 차려졌다. 좁쌀밥을 담은 놋종발, 뜨끈한 두부장국, 거기에 메밀국수도 곁들이였다.

《아니, 무슨 음식상이 이렇게 요란한가요… 우린 이만한 밥값을

낼 돈이 없는데…》

곽명준이 롱조의 말을 하며 밥상앞에 마주앉았다.

《뭐 차린게 없어요.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흰쌀밥을 드리지 못해서 안됐어요.》

백춘화가 푸대접을 하는것 같아 민망해하였다.

《중조 어머니, 이 사람이 바로 대홍툰 조선녀의 랑군이 될 사람이예요.》

《아이, 그래요? 요즘 사모님이 대흥툰처녀의 첫날옷을 지으시더니… 잔치하러 왔어요?》

백춘화는 웃음기를 담고 곽명준의 너부죽한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명준은 그저 벌쭉벌쭉 웃기만 하였다.

《어서들 들게. 우린 방금 밥을 먹었네.… 저녁을 먹고 천천히 그지간 지낸 이야길 하세.》

녀사께서는 곽명준이네가 밥상을 물린 다음에도 맏아드님의 소식을 묻지 않으시였다. 아니, 묻지 않았다기보다 어쩐지 두려운 생각이 들어 물으실수가 없었다.

곽명준이도 한별동지에 대한 이야기를 인차 꺼내지 못하였다. 그 이야기는 너무도 깊고 넓어서 선뜻 허두를 뗄수 없었던지 모른다.

녀사의 가슴은 해일이 일어난 바다의 물때처럼 설레이시였다.

11

밤은 깊어갔다.

사방은 쥐죽은듯 고요했다. 법석 떠들던 손님방도, 녀인들이 부산스레 돌아치던 정지방도, 길림청년들이 이야기꽃을 피우던 안방도 이제는 굳잠에 든 사람들의 로곤한 숨소리만 들릴뿐 깊은 정적에 묻혀있었다.

안방구석에 누운 강반석녀사의 생각은 길림감옥에 갇힌 맏아드님께로 달리시였다.

곽명준이한테서 맏아드님의 소식도 듣고 조직의 행동방향도 전달

받으니 가슴에 쌓였던 온갖 시름이 다 풀리시였다. 그러면서도 이 추운 겨울 옥고를 치르는 아드님에 대한 생각으로 잠드실수가 없었다.

길림감옥은 간수가 가운데 앉아있으면서 사방을 감시할수 있게 동서남북으로 복도를 내고 그 복도의 량편에 감방들이 붙어있는 십자형의 건물이라고 한다.

맏아드님께서 갇히신 감방은 북쪽 복도의 맨 끝에서부터 두번째 칸이였다. 종일 가도 해빛이 들지 않는 북향이여서 여름에는 벽과 바닥에서 곰팡내가 지독하게 풍기고 겨울이면 벽마다 성에가 눈처럼 불리여있는 방이였다. 맏아드님께서 이 감옥으로 이송되였을 때는 가을이였는데 감방안이 겨울처럼 음산하고 따뜻한 목이 하나도 없는 랭돌바닥이였다. 바로 이런 방으로 무거운 쇠덩어리가 매달린 족쇄를 차고 들어서시였다.

군벌당국은 맏아드님에 대해서는 일반잡범들과는 차별을 두고 가장 혹독하고 엄격하게 취급하였다. 일체 면회와 차입을 금지시키고 외부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이의 곁에서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였다.

하지만 맏아드님께서는 실망하지 않고 옥중에서도 파괴된 조직을 살려내며 혁명군중을 더 크게, 더 튼튼히 묶어세울 방도를 모색하시였다. 하여 한두달사이에 여러 간수들을 쟁취하고 사상정치범들은 물론 도적질따위의 부정한짓을 해서 잡혀들어온 잡범들까지 교양하여 지금은 감옥안에서도 하고싶은것을 다 하게 되시였다고 한다. 모임을 하고싶으면 모임을 하고 다른 감방에 가볼 일이 생기면 간수들이 보는 앞에서 마음대로 이방저방 다니신다는것이였다.

녀사께서는 한 인간을 교양하여 마음을 돌려세우고 바른길로 이끈다는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도 잘 아시였다. 하물며 적기관에 복무하는 교형리들의 하수인들인 간수들과 마음이 이지러질대로 이지러진 상습적인 절도범들, 패덕한 불량배들을 교양한다는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는가. 감옥안에서 누구도 모르게 바치신 맏아드님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묶으면 몇권의 책이 될수 있다고 했다.

곽명준이와 함께 안도로 온 강태설이도 맏아드님께서 감옥안에서 교양하여 혁명의 길로 이끄신 청년이라고 했다.

아드님께서는 페쇄된 감옥안에서 더 많은 책을 보고 혁명에 대한 사색을 더 깊이 하고계신다는것이였다.

그이께서 요구하시는 책은 거의다 손정도목사의 막내딸 인실이가 구해드리였다. 손정도목사의 온 일가가 그이의 옥바라지를 지성껏 해드리였다.

맏아드님께서는 여러 혁명조직원들과 지어 간수들의 도움도 받으면서 지금 감방안에서 조선혁명의 대경륜을 펼치고계시였다. 우리 나라의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런 식으로 혁명을 해서는 안된다는것을 심각히 깨달은 그이께서는 혁명운동의 새로운 길을 매일과 같이 모색하고계신다는것이였다. 그이의 머리속에서 어떤 위대한 경륜이 설계되고있는지 아직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녀사께서는 이제 아드님에 의해 기필코 새로운 투쟁의 시대가 도래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으시였다. 새날을 불러오는 그 성스럽고 의로운 투쟁에 녀사께서는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리라 마음다지며 이밤을 지새우고계시였다.

돌이켜보면 김형직선생님께서도 감옥안에서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무산혁명에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시였다. 불행한 망국노의 아들들이여서 아버지도 아들도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실 방책을 감옥안에서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녀사의 가슴은 에이는듯 아프시였다.

이밤 녀사께서 곽명준이로부터 전달받은 조직의 지시는 크게 세가지였다.

하나는 안도지구에서 조직을 확대강화하고 주민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 힘을 집중하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항일무장투쟁을 위한 군사정치적준비사업을 지금부터 예견성있게 진행하는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녀사의 거처지를 흥륭촌으로 옮기여 그곳에 혁명의 발판을 닦으시는것이였다.

김형권동지께는 압록강국경지구에서 정치공작사업을 하면서 장백지구에 정치조직을 튼튼히 꾸릴데 대한 과업이 맡겨지시였다.

그리하여 안도지구조직의 사업에서는 하나의 큰 변동이 일어나게

되였다.

물론 녀사께서도 길림손님들에게 그동안 안도에서 진행한 사업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시였다. 그들은 녀사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과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던지 녀사께서는 정지방의 괘종이 새벽 한시를 알리는 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시였다.

그이께서는 석유초롱불을 쳐들고 조심스레 발을 저겨디디며 부엌으로 내려가시였다. 이제 날이 새면 연길쪽으로 떠나게 될 강태설의 길차비를 해주시려는것이였다.

강태설은 조직의 지시를 받고 연길로 가는 길에 녀사를 뵈옵기 위해 이곳에 들리였다고 했다. 곽명준은 녀사의 이사를 방조해드리고 다시 길림으로 돌아가게 되여있었다.

부뚜막에는 몇시간전에 녀사께서 기장쌀을 불구어놓은 두되들이 이남박이 놓여있었다. 객주집에서 새벽밥을 지을 때 곁가마에 쪄서 떡을 몽그려 강태설의 길량식에 보태려는것이였다. 언제이건 출옥하실 아드님을 기다리며 장만해두시였던 기장쌀이였다.

부엌바닥에는 비누물에 불구어놓은 빨래함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길림청년들의 빨래감들이였다. 그들이 입고온 저고리가 기름때에 절어있어 겉천을 뜯어 비누물에 치개여 불구어놓으신것이다. 그것을 빨아 말리워 저고리에 씌우고 해지지 않도록 촘촘히 누비면 저고리는 한결 더 아늑하고 포근해질것이다.

녀사께서는 빨래함지를 이고 서문강으로 나가시였다. 눈과 얼음에 덮인 강판 군데군데에 얼음구멍들이 있었다.

서문밖녀인들은 그 얼음구멍에서 빨래도 하고 물도 길어먹었고 사내들은 작살로 물고기를 꿰질러 잡아냈다.

그러나 이 깊은 밤에는 얼음구멍에 찾아온 사람들이 한명도 없었다.

이따금 쩡쩡 얼음터지는 소리가 일어날뿐 얼어붙은 서문강은 산중무덤같은 정적에 깊이 깔려있었다.

녀사께서는 넙적돌이 놓여있는 얼음구멍앞에서 빨래함지를 내려놓으시였다.

동그랗게 도려낸 얼음구멍안에서 검푸른 물이 번뜩이였다. 겨울의 모진 추위는 서문강에 두터운 얼음장을 덮어놓았으나 강물은 멈춤이 없이 줄기차게 흐르고있었다.

그 어떤 모진 추위도 강물의 흐름을 멈출수 없듯이 압제자들의 그 어떤 탄압도 혁명의 바다로 향하는 투쟁의 흐름을 멈출수 없을 것이다.

녀사께서는 헹구어낸 빨래감들을 넙적돌에 얹어놓고 방망이로 내리치기 시작하시였다.

탕, 탕, 탕… 빨래방치소리는 겨울밤을 탄주하는 타악기소리처럼 장쾌한 가락으로 밤공기를 울리며 멀리로 메아리쳐갔다.

몇시간후 녀사께서는 서문강다리를 건너 숲속의 발구길에까지 나가 강태설을 바래워주시였다.

제 3 장

1

흥륭촌은 혼성키나무들과 떨기나무들에 둘러싸인 30여호되는 고원지대 농촌이였다. 마을 한복판으로 자그마한 강줄기가 흐르는데 이것이 이도강의 지류인 4도백하이다. 마을 서쪽에 펼쳐진 논들은 4도백하의 물로 개간한것이였다. 4도백하는 비록 크지 않은 강이지만 흥륭촌의 논밭을 살찌우고 마을주민들에게 생명수를 부어주는 어머니의 젖줄기처럼 귀중한 강이여서 한때는 마을이름도 강이름 그대로 4도백하라고 하였고 모든 지역의 이름들을 강과 련결시켜 불렀다.

그런데 4도백하를 중심으로 주민들속에 지역본위주의적이고 할거주의적인 폐단이 조성되여 자그마한 한마을에서도 물북이요 물남이요 하면서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경원시하고 눈을 흘기적거리며 살아가게 되였다. 그전날 정의부요, 참의부요 하는 민족주의독립운동자들이 이 고장에 할거하면서 주민들에게 그런 악영향을 주었다.

설을 쇤지 한주일 남짓이 지났을 때였다.

이사짐을 실은 소달구지 하나가 싸락눈을 맞으며 흥륭촌마을로 천천히 들어서고있었다. 강반석녀사의 이사짐이였다. 이사짐이라야 이불 두채, 작은 솥 한개, 궤짝과 손재봉기 하나가 전부였다. 만경대에서 봉화리로, 그다음 중강을 거쳐 림강, 팔도구, 무송, 안도로 이렇게 여러차례 자리를 옮기실 때마다 집안물건이 하나씩 덜어져 이제는 남은것이 달구지에 골숨하게 실은 그 물건들뿐이였다.

달구지가 마을어구에 들어서자 길가에 웅기중기 모여서있던 여라문명의 청년들이 마주 달려와 강반석녀사께 저마끔 절을 올리였다. 그들은 리영배, 김철희와 같은 반제청년동맹원들이거나 대흥툰의 박

치근, 윤현칠, 쓰우리의 진춘발과 같이 강반석녀사와 인연을 맺게 된 린근의 청년들이였다.

《임자네들이 그동안 수고가 많았네, 추운 겨울에 집을 수리하느라…》

녀사께서는 개울건너편 밋밋이 둔덕진 곳에 동향으로 서있는 동기와집을 바라보시였다. 그 집이 바로 이제 녀사께서 계실 집이였다. 원래 다 헐어빠져 내버린 집을 청년들이 모다붙어 열흘새에 아예 번듯한 새 집으로 만들었다. 정지방외에도 두칸이 더 달려있는, 농촌집으로서는 덩지가 큰 집이였다. 녀사께서 야학방을 운영할것을 예견하여 칸을 늘이고 방에다 칠판까지 걸어놓았다. 그동안 사돈집에 계시던 리보익할머님께서는 벌써 셋째며느리와 함께 그 집으로 자리를 옮기셨다고 한다.

녀사께서는 지난 열흘동안도 곽명준이와 조선녀의 결혼식을 치르시느라 이곳에 와볼 사이도 없이 분주히 보내시였다. 신랑, 신부의 첫날옷을 친히 지어준 녀사께서는 그들의 례장품교환도 격식을 갖추어주기 위해 김형권동지와 무송반일부녀회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사방 뛰여다니시였다.

신랑은 집이 없어 민옥이네 집을 쓰고 신부인 조선녀도 집이라야 코구멍만 한 정지방 한칸뿐이여서 살림방이 두칸 되는 윤현칠이네 집을 리용하였다. 윤현칠의 어머니는 강반석녀사와 조선녀가 자기 외아들의 생명을 구원해준 은인이라면서 잔치일에 팔을 걷고나섰다. 그는 아들의 결혼준비로 가지고있던 합근박까지 내놓았다. 사형을 당하게 된 아들때문에 애박을 붙안고 얼마나 울었던 박씨인가. 사모관대와 같은 결혼식례복은 이 사람, 저 사람이 어울러 쓸수 있었지만 신랑신부의 입맞춤을 상징하는 합근박은 어울러쓰지 않는것이 철저한 관례로 되여있었다. 한번 쓰면 다시는 쓰지 못한다. 그러니 윤현칠의 어머니가 애지중지 간수해두고있은 하나밖에 없는 애박을 조선녀의 결혼식에 내놓은것은 여간한 선심이 아니였다.

부모없는 곽명준의 어머니를 대신한 녀사께서는 신랑집에서 신부인 조선녀를 맞으시였다. 신랑, 신부는 잔치상에서 자기들을 살려주고 키워주고 성례까지 치르어준 강반석녀사께 술을 부어드리였다.

녀사께서는 술잔을 받으며 《고맙다. 아들딸 많이 낳고 애국가정 꾸려서 독립된 내 나라에서 자손만대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란다.》 하고 축하해준 다음 청실을 단 수박과 홍실을 단 암박을 내놓고 신랑신부가 합근박의 술을 나누어 마시게 하시였다.

신랑집 잔치에는 만화락서협의로 사형처분을 받았던 고덕삼이와 공쇠똥이도 적지 않은 부조금을 가지고 참가했다.

이날 잔치손님들은 강반석녀사께 한쌍의 젊은이들이 백년가약을 하는 즐거운 날에 인생의 지침이 될 훈시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들의 요청을 받은 녀사께서는 훈시가 아니라 만경대에서 어린 맏아드님을 품에 안고 그네를 태우며 부르던 자장가를 부르시였다. 이것이 바로 사흘전에 있은 일이였다. 결혼식을 한지 사흘째 되는 이날은 신랑이 신부와 함께 가시집으로 가는 날이였다.

녀사께서는 이날 아침 대흥툰으로 떠나는 곽명준이와 조선녀를 바래워주고 서문밖마을을 떠나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도 길림조직의 지시에 따라 이날 장백현 국경지구로 먼길을 떠나시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이같이 물북지역에 큰 자욱을 남기고 물남지역으로 이사오시는것이다.

소달구지는 얼어붙은 4도백하를 건너 언덕길을 올라간다.

녀사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저쪽 언덕산마루에 서있는 기다란 목조건물을 바라보시였다.

《저 큰 건물은 무슨 건물인가?》

《그게 보위단건물입니다. 안도의 8개 보위단중 제일 큰 보위단이 흥륭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기와집이 물북지역을 총괄하는 류호훈장네 집이고 그앞에 있는 목조건물이 류호령감이 운영하는 서당인지 학교인지 하는 그런겁니다.》

리영배는 류호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한지 이마살을 찌프리며 말씀드리였다.

《임자네들은 아직 청년회에 들지 못했나?》

녀사께서는 류호의 말이 나오자 리영배와 김철희를 갈마보며 물으시였다.

《류호령감이 받아줘야 들어가지요. 그 령감은 사모님이 여기 와

서 야학방을 여시련다는 말을 듣고도 찌뿌둥해한다는것 갈습니다.》

《류호선생이야 오랜 교육자이고 계몽활동가인데 야학을 하면 좋아하겠지 왜 싫어하겠나. … 박치근이와 현칠이는 그새 류호선생을 한번 만나뵈웠나?》

《현칠일 보내서 내 몫까지 인사드리게 했습니다.》

박치근이 더수기를 긁적거리며 어줍게 대답하였다. 그는 면구스러워 감히 류호를 찾아가지 못하는 모양이였다. 그에게서 달라진것은 얼굴을 뒤덮었던 수염이 없어진것이였다. 그는 리영배네와 같이 열흘동안 녀사의 댁을 수리하면서 글도 배웠다고 한다. 박치근이를 따라 진춘발이와 윤현칠이들도 열심히 글을 배워 이제는 웬간한 글은 읽을수 있게 되였다고 한다. 결국 진춘발은 중국글보다 먼저 조선글을 배우게 되였다.

녀사께서는 4도백하 남쪽물가에 서있는 새 집을 향해 걸어가면서 흥륭촌에서 할 사업에 대하여 곰곰히 생각해보시였다.

흥륭촌에는 세개의 큰 장애물이 있었다. 보위단의 군사적탄압, 악질촌장의 행정적구속과 경제적략탈, 물남지역 자치단체 총재인 류호의 잘못된 사고방식, 이것이 3대장애물이였다.

2

류호는 늙은 안해가 된고뿔에 걸려 저녁을 제 손으로 끓여먹었다. 저녁상을 물리고 부엌으로 내려가 대충 설겆이를 하고 방으로 들어선 그는 마음이 심란하여 웃방 지게문가에 우두커니 서있었다. 물북의 총재 조희재네 집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초라한 두칸방이였다. 신문과 잡지책의 종이들로 얼쑹덜쑹하게 도배를 한 방벽에는 허술한 두루마기와 옷가지들이 무질서하게 걸려있었다. 가구라고는 아래방에 대모자개를 박은 낡은 농짝 두개, 웃방에 나무책궤와 앉은 책상 하나가 뎅그렁게 놓여있을뿐이였다. 웃방 안벽에 맨 당반에는 필묵이며 종이장들이며 책들이 무드기 얹혀있었다.

류호는 외모에서도 조희재와는 판이하였다. 산뜻한 명주바지저고리를 입고(때로는 양장을 한다.) 멋스럽게 코수염을 기른 조희재의 부얼부얼한 얼굴에서는 지체높은 고관이나 학자와 같은 위엄이 풍기지만 무명바지저고리에 헌 두루마기를 입고다니는 류호의 약간 철색이 도는 수척하고 꺼칠한 얼굴은 가난한 농촌중늙은이와 같은 인상을 안겨줄뿐이다. 그의 입주변에는 가위질을 하여 대강 다듬은 수염이 들쑹날쑹하게 돋아있어 어떤 때는 궁상스럽게 보이기까지 한다.

한때 류근, 박은식, 장지연과 같은 이름있는 조선의 명사들과 관계하면서 애국계몽을 해온 교육자, 문화운동자인 그의 몰골이 요즘은 여러가지 심리적고통으로 하여 더 초췌해졌다. 그의 마음을 제일 괴롭히는것은 할빈에서 고학을 하다가 극도로 신체가 허약해져 보름동안 집에 와있던 외아들을 이날 아침 돈 몇잎 쥐여주지 못하고 떠나보낸것이였다. 그것도 따뜻한 말 한마디없이 이제는 고학을 그만두고 가사를 보태는 일을 하라고 싫은 소리만 해서 보냈다. 실지 그는 아들이 건축기술을 배우기 위해 고학으로 4년제 공과전문학교를 다닌다고 하지만 도저히 성사를 볼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아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제 고집을 세워 떠나가버렸다.

지주와 관공서의 명의로 촌장이 받아내는 가렴잡세가 또한 요즘 류호의 마음을 괴롭히고있었다. 세금종목이 나날이 불어나고 액수도 높아졌다. 지금까지 촌장은 매 주민들에게서 토지세, 림야세, 집세, 생아세, 사망세, 호적등록세, 결혼등록세, 굴뚝세, 도로세, 물세 등 무려 20여가지의 세금을 받아냈는데 어제 아침 류호에게 찾아와서 이제부터 학교훈장은 학교터세, 월사금수득세(소득세), 교사세, 교탁세를 내고 학생들은 의자세와 수학세를 물어야 한다는것이였다. 왜냐하면 지주의 땅에 교사의 터를 잡았으니 터세를 내야 하고 지주의 림야의 나무로 교사를 지었으니 교사세를 내야 하며 어느 나라이든 수득세가 있으므로 학도들에게서 받은 월사금의 2할을 수득세로 바쳐야 한다는것이였다.

집안에서 이 말을 듣고있던 류호의 아들이 세상에 교탁세, 의자세를 내는 학교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 식으로 세금종목을 만들면 나중에는 밥먹는세까지 내야겠다고 항변하였다. 그러자 촌장이 세금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하는것들은 나라에 대고 주먹질을 하는 역적이 아니면 공산파들이다, 창비를 당하지 않겠으면 입부리를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을러메였다.

그 말에 아들은 분격을 참을수 없어 《아버진 자치단체 총재라면서 저런 두상태길 왜 촌장을 시켜요. 당장 갈아치우세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김춘봉은 대번에 얼굴빛이 가을고추처럼 되여가지고 《저놈이 몇년동안 도회지에서 굴러다니더니 공산당물을 먹은게 분명하구나. 도단장님과 관공서에서 제정한 세금에 대해 언감 악담질을 하는걸 보니… 네놈을 당장 잡아가게 하겠다.》 하고 야단스레 고아댔다. 실지 무한장의 심복인 김춘봉의 말 한마디면 죽을수도 있고 살수도 있었다.

부엌에서 밥을 짓던 류호의 안해 권씨가 마당으로 달려나와 김춘봉을 붙들고 몇년째 외지에 나가있는 아들 민환이 여기 사정을 모르고 무엄한 말을 하였으니 제발 용서해달라고 손이야 발이야 빌었다.

《그 애비에 그 아들이요. 애비가 늘 삐뚠 소리를 하니 아들이 저러는거요. 물북의 조희재선생은 그러지 않소. 당국에서 하는 일이라면 쌍수를 들고 지지하고 아래사람들도 그러도록 신칙을 한단 말요. 로친이 울며불며 사정을 하니 내 가긍해서 한번만 용서하겠소만… 음, 음, 이 집에서 다시한번 삐뚠 소리가 나오면 가문의 씨종이 멸할줄 아오.》

김춘봉은 가래를 톺아 내뱉고 돌아가버렸다.

류호는 이 아침 아들이 한사코 집을 떠난것은 흥륭촌 촌장의 전횡을 목격하고 받아안은 충격이 컸기때문이라고 생각되였다. 그의 안해가 된고뿔에 걸린것도 부엌밥가마에서 주걱질을 하며 땀을 흘리다가 갑작스레 마당에 뛰여나가 찬바람을 맞았기때문이였다.

(아, 장차 이 마을이 어찌되겠는고?)

류호는 긴 한숨을 쉬며 방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문득 부엌문밖에서 주인을 찾는 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류호는 첫 부름에 대답을 하지 않고 귀를 강군채 가만히 앉아있었다.

《류호선생님, 계십니까?》

부드럽고 은근한 녀인의 목소리가 다시 울리였다.

《뉘신가요?》

류호는 그제야 부엌으로 내려가 문을 열었다. 순간 그는 저도 모르게 몸을 흠칫하였다. 전혀 낯선 녀인이 문밖에 서있는것이였다. 땅거미가 진 거뭇한 어스름속에 비친 녀인의 차림새는 이 고장 농촌녀인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녀인의 어글어글한 눈에 어린 그윽한 미소와 겸허하면서도 단정한 언행에서 무지렁이 농촌녀인이 아님을 직감하였다. 녀인의 손에는 푸른 보자기가 들려있었다.

《내가 류호올시다. 한데 어디서 오신 아주머니인지?》

《예, 오늘 저 옆집에 이사온 녀자입니다. 채승락로인의 사위가 저의 시동생입니다.》

《아, 그런가요? 어서 들어오시오.》

류호는 다소 허둥거리면서 강반석녀사를 웃방으로 모시였다.

《로친이 고뿔에 걸리여 저렇게…》

류호는 찾아온 손님을 알은체도 못하고 아래목에 누워서 앓음소리를 내고있는 권씨를 가리키며 민망스러워하였다.

그는 닳아빠진 헌 초물방석을 녀사께 내놓았다.

녀사께서는 초물방석을 사양하고 군데군데에 꿰진 자리가 보이는 구름노전바닥에 한 무릎을 세우고 단정히 앉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류호의 초라한 차림새와 집안물건들을 보고 저으기 놀라시였다. 채련옥을 통해 그가 소박하고 검소한 사람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집안살림이 이렇게까지 가난한줄은 모르시였다.

강반석녀사에 대한 류호의 생각도 완전히 뒤집혀졌다. 최근 한달사이에 의로운 일을 많이 하여 뭇사람들로부터 고금에 드문 현숙한 부인이라는 치사를 받고있는 녀사께서 농군녀인들과 다름없는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다니시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것이다. 특히 그가 강한 충격을 받은것은 병색이 짙은 녀사의 얼굴과 무릎우에 올려놓은 트고 악마디진 녀사의 손때문이였다. 그전날 조춘희가 그랬던것처럼 류호도 한평생 흙물에 절고 고된 일에 치인 농군의 손보다도 더 거친 녀사의 손을 보며 많은 의문에 잠겨있었다. 그에 비하면 늙은 남자인 자기 손은 너무도 곱고 매출하였다.

손은 속일수 없는것이다. 문득 류호는 언제인가 쓰우리에 있는 중국인의 애기가 앓는다는 말을 듣고 추운 겨울밤 녀사께서 서문밖에서부터 쓰우리까지 40여리길을 걸어가서 병을 고쳐주셨다는 전설의 미담같은 이야기를 상기하였다.

류호는 40여리 밤길을 걸었다기에 건장한 녀인으로 알았는데 얼굴에 병색이 도는 신약한분이였다.

(강부인이 왜 나를 찾아왔을가?)

녀사의 방문은 류호의 마음을 번거롭게 하였다.

사실 그는 물북과 물남의 여러 젊은이들이 자기 집에서 멀지 않은 4도백하 물가의 헌집을 수리한다는 말을 들은 때부터 마음이 심란해있었다. 그것은 강반석녀사께서 그 집에 이사해와서 야학방을 차리게 된다는 놀라운 소문이 돌았기때문이였다.

강씨부인이 오면 가난한 집 아이들이 돈을 내지 않고 글을 배우고 병치료까지 받는다는 말이 집집마다 퍼져서 요즘 마을사람들이 흥성거리고있었다. 인도주의자로, 자선가로 소문이 난 강씨부인이 이제 돈을 받지 않고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글을 배워주게 된다면 약차한 월사금을 내고 공부하고있는 자기네 학교 학생들과 학부형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되겠는가? 아이들의 월사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있는 류호는 학교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단지 학교문제만이 아니였다. 강반석녀사께서 오시면 물남지역에 틀림없이 부녀친목회가 꾸려지게 될것이라고 생각되였다. 그러지 않아 십여일전에 채승락의 딸 채련옥이 찾아와서 흥륭촌에 녀성자치단체가 없는데 부녀친목회를 내오는게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내놓았었다. 물론 그는 승낙하지 않았다.

그는 음양론의 원리에 의하면 녀자는 남자에 종속되여야지 삐여져나와 활개짓을 하면 재난과 화단이 생긴다고 하였다. 남자는 양이고 녀자는 음이기때문이다. 그는 동서고금의 력사가 이 진리를 확증해주고있다고 보았다. 조선과 청국의 궁중에 녀자가 득세하여 나라가 망한 사실이 그 하나의 실례로 된다는것이다. 민비는 왜놈들의 칼에 맞아 참혹하게 급사하여 아무런 유언도 남기지 못하였으나 서태후는 죽으면서 녀자가 정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

였다고 한다.
서양에서도 남녀음양의 조화가 파괴되여 나라를 망치고 동네와 집안을 망친 실례가 허다하다고 류호는 채련옥에게 력설했었다. 류호는 친지의 딸인 채련옥은 쉽게 설복하여 돌려보냈으나 지체가 높은 강반석녀사는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하였다.
류호는 마음이 무거웠으나 전혀 내색하지 않고 태연히 입을 열었다.
《부인이 이사해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을사람들이 모두 좋아했습니다. 여기 흥륭촌에도 남새밭을 가꾸는 중국인집이 한채 있는데 그 장서방까지도 부인님이 여기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춤을 췄다고 합니다. 저도 몹시 기쁩니다.》
류호는 어쩐지 자기 마음을 속이는것 같은 생각에 얼굴을 붉히며 《헌데 부인님이 우리 집엘 어떻게?》하고 슬쩍 말머리를 돌리였다.
《예,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마을의 대소사를 다 보살피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겠습니까.》
《허허… 수고요?… 부인을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류호는 허구픈 웃음을 지었다. 이때 마침 아래방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죽은듯이 누워있던 류호의 안해 권씨가 갑자기 기침이 발작되여 쿨럭쿨럭 줄기침을 해댔다. 권씨는 숨이 막히는지 주먹으로 가슴을 두드리며 벌떡 일어나 앉았다.
《부인님의 병이 심한것 같습니다.》
녀사께서 급히 아래방으로 내려가 권씨의 잔등을 두드려주시였다. 기침이 다소 진정되였을 때 녀사께서는 권씨의 팔목에 손을 대고 맥을 짚어보시였다. 가끔 부정맥이 뛰는 빠른 맥박이였다. 신열이 높고 숨소리가 거칠었다.
《감기에 걸리였다는데 약은 쓰셨습니까?… 우리 집에 감기약이 몇알 남아있는데 가져오겠습니다.》
《그만두십시오. 로친이 사흘이 멀다하게 자리를 펴고 눕는 약골이여서 우리 집에도 약봉투는 떨구지 않고있습니다.》
류호는 탄식조로 뇌이고는 안해에게 《여보, 인사하오. 우리 마을

에 이사해오신 강씨부인이요.》 하고 알려주었다.

《예? 그래요?》

권씨도 이미 강반석녀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듯 자세를 바로하며 정중히 고개를 숙이였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마을 젊은이들이 집수리를 하는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가보지 못했어요.》

권씨는 전형적인 서울말씨였다. 잔주름이 많이 잡힌 여윈 얼굴이였으나 긴 속눈섭과 반달형의 눈매며 맑은 살결과 부드러운 코날에 조화된 이쁜 입모습이며 젊은 시절의 미모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었다.

《어서 누우세요. 감기에 들렸는데 바람을 맞으면 안됩니다.》

녀사께서는 권씨를 눕히고 류호를 돌아보시였다.

《래일부터라도 당장 야학방을 열었으면 하는데 선생님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내 의향을 물을게 있나요. 나는 그저 무색할뿐입니다. 부인님은 돈을 받지 않고 마을 어린이들에게 글을 가르치신다는데 나는 많은 월사금을 받고 배워줍니다. 나는 애국계몽을 위해 훈장질을 하는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훈장질을 합니다.》

류호는 갑자기 기침을 깇었다. 남편의 기침소리에 반사적인 자극을 받았는지 조용히 누워있던 권씨가 또다시 줄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녀사께서 권씨의 잔등을 두드려 기침을 진정시키고 류호에게 말씀하시였다.

《선생님은 면비교육을 못하시는데 대해 다르게 생각할게 없습니다. 저야 낮에는 삯바느질을 하고 밤마다 조금씩 시간을 내서 아이들에게 글을 배워주는데 무슨 돈을 받겠습니까. 사립소학교는 월사금을 받고 야학은 돈을 받지 않는것은 어디에서나 보는 상례가 아닙니까.》

류호는 아무런 응대도 하지 않고 웃방으로 올라갔다. 권씨가 자리에 누운채로 말참견을 하였다.

《우리 령감이 돈을 벌기 위해 훈장질을 한다고 하는것은 저기 물북의 조희재령감이 하는 수작질이예요. 천하 못된 령감이예요. 그 령

감이야말로 돈밖에 모르는 령감이지요. 그러니 제 딸을 열아홉살이나 우인 상처한 돈부자한테 시집을 보냈지요.》
《여보, 거 실없는 소릴 그만하지 못하겠소!》
류호가 별안간 소리를 치는 서슬에 권씨는 잠시 움츠러들었다. 녀사께서는 몹시 놀라시였다. 조춘희의 남편이 그렇게 나이많은 사람인줄은 몰랐던것이다. 이윽고 권씨는 한층 더 색을 먹고 해댔다.
《그 령감은 밤낮 당신에 대해 뒤에서 험구질을 하는데 당신은 왜 함구무언하는거예요. 그게 소용이 있어요? 그런다고 누가 성현이라고 하는가요. 나중엔 만화에까지 그려져 사람들을 웃기고…》
권씨는 또다시 줄기침을 해댔다.
《그만 진정하세요.》
강반석녀사께서는 권씨의 기침이 진정될 때까지 그의 등을 두드리시였다. 기침이 멎자 권씨는 다시 남편의 역성을 들며 조희재의 흉을 보았다. 권씨의 말에 의하면 조희재는 평생 오그랑수를 쓰며 살아가는 구렝이처럼 음흉하고 여우처럼 교활한 령감이지만 류호는 소털을 뽑아 제자리에 꽂는 고박한 령감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자기네는 가난에 쪼들리고있지만 조희재는 흥청거리며 지주나 자산가들 못지 않게 살아간다는것이였다. 한가지 실례로 조희재는 물북의 여러 자치단체의 회비를 받아서 사업비라는 명색으로 제 주머니에 넣고 일부는 회장, 분회장들에게 나누어주어 제 낯을 내고있지만 류호는 회비를 절대로 사사로이 쓰지 않고 공동자금으로 리용한다고 하였다. 농민협회 회원들에게서 받은 회비도 공동으로 리용하기때문에 물남사람들이 논밭개간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흥륭촌에 푼 논들은 다 물남사람들이 농쟁기를 사서 한거예요. 물북에선 몇명의 회장, 분회장들이 잘살고 일반주민들은 모두다 째지게 가난하지만 물남에선 회장이건 회원이건 다같이 골고루 살아요. 조희재령감은 우리 령감때문에 단합을 못한다고 시비질을 하지만 실은 그 령감이 물북, 물남이 합하는것을 바라지 않아요. 그게 합해지면 제마음대로 롱간질을 할수 없으니까요.》
《아하, 거 정말 말이 많다. 그만해!》
류호가 주먹으로 방바닥을 두드리며 안해에게 고함을 질렀다. 남

편의 노성은 반사적으로 권씨의 입에서 더 큰 기침이 발작하게 하였다. 권씨는 두손으로 가슴을 붙안고 구새먹은 통나무를 두드리는것 같은 기침을 해대면서도 무어라고 푸념을 하였다.

《그만 진정하세요. 그러면 몸에 해롭습니다. 가난한 망국인이 되여 산설고 물설은 땅에서 이국살이를 하고있는 우리 동포들이 살아갈 길은 서로 화목하고 단합하는것이라고 생각해요. 꼭 그렇게 될거예요. 무엇때문에 물북이요 물남이요 하고 등을 돌려대고 살겠어요.》

녀사께서는 권씨의 손을 따뜻이 잡아쥐시였다. 권씨는 눈을 감은채 아무 응대도 없었다. 실주름이 무수히 잡혀있는 그의 눈귀에 눈물방울이 맺히였다. 류호도 침울한 표정이였다. 그는 머밋머밋하다가 힘들게 입을 열었다.

《강부인님께 이런 말을 해서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야학방은 열되 부녀친목회같은 녀성자치단체는 꾸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녀사께서는 류호의 말에 별로 놀라지 않으시였다. 그가 녀성자치단체를 내오는데 대하여 한사코 반대한다는것은 이미 채련옥이한테서 구체적으로 들으셨기때문이였다.

류호는 침묵을 지키는 녀사를 불안스럽게 건너다보며 덧붙였다.
《우리가 옛날 서울에서 서우학회를 조직할 때 서문에도 밝혔지만 사회가 단체로 되고 안되는것으로써 문명인과 야만이 구별되고 존망이 분별되는것이외다. 크게는 국가와 작게는 자기 몸과 집을 스스로 보전하자면 사회가 단체화되여야 합니다. 고로 나는 단체를 중시하며… 예, 그래서 청년회, 농민협회, 로인회 같은 자치단체를 꾸렸습니다만… 녀성단체는 필요없으며 백해무익합니다. 앞으로 강부인님께서 이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양오행설을 미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과학이고 높은 철학입니다.》

류호의 눈빛이 사뭇 근엄해졌다. 사실 그는 모든 사물이 변화발전하고 운동한다고 보는 변증법자임에 틀림없었지만 음양의 조화에 대한 해석과 인식이 유심론적이여서 그의 사고가 진리의 궤도에서 벗어나군 하는것이다. 이를테면 그의 사고령역에 변증법적인 과학성과 관념론적인 비과학성이 공존하고있다고 말할수 있었다. 그의 남존녀

비사상이 바로 음양의 조화에 대한 관념론적인 해석으로 하여 생겨난것이였다.

《예, 선생님의 의견이 그러시다니 부녀친목회에 대해선 앞으로 좀 토론해보자고 합니다.》

녀사께서는 이렇게 공손히 말씀하고 들고오신 보자기를 풀고 4권의 책을 꺼내시였다.

《선생님, 오늘은 그만 가겠습니다. 이 책이 아이들을 가르치시는데 참고가 되겠는지 해서 가져왔습니다.》

《아니, 왜 벌써 가시겠다고 합니까. 그런데 이건 무슨 책입니까?》

류호는 녀사께서 내놓으신 인쇄한 책을 몇장 번져보았다.

《선생님과 같은 애국계몽운동가들이 이국땅에 와있는 조선의 어린이들을 위해 집필한 소학교 교과서입니다.》

그것은 김형직선생님께서 집필하신 교과서로서 무송 백산학교에서 교재로 쓰던것이였다.

물론 류호도 김형직선생님에 대하여 잘 알고있었다. 그러나 지금 자기와 이야기하시는분이 김형직선생님의 미망인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있었다. 현재 안도현관내에서 강반석녀사와 일가분들의 래력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있는 사람은 무송반일부녀회 회원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리영배, 김철희, 마춘욱뿐이였다. 적들의 감시의 눈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분간 비밀을 지키기로 하였다.

녀사께서는 권씨에게도 가겠다는 인사를 하고 부엌으로 내려가시였다.

류호는 부엌에까지 따라내려갔다.

《부인님이 이제 여기서 사시자면 고생이 많을겝니다. 여기 촌장이 아주 나쁜 놈입니다. 무한장에게 붙어서 온갖 나쁜짓을 다 합니다. 그놈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 그리구 안도현에서 인사변동이 있을것 같다는 말이 돌아가는데… 거 뭐 무한장과 왕방초 그리고 경찰서장이 파직될수 있다고들 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놈들이 죄없는 사람을 만화락서혐의자로 몰아 사형처분까지 하려댔으니 그게 보통 실책이 아니지요.》

녀사께서는 무한장집 응접실에서 본 김광문의 글이 눈에 삼삼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사변동이 있게 된다는것이 전혀 근거없는 말은 아닌것 같으시였다.

《제가 보기엔 무한장보다 왕방초가 더 나쁜 놈 같습니다. 몇번 말을 해보니 무한장은 성미가 사납기는 하지만 반일감정이 아주 강합디다. 그 점은 좋게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참… 선생님, 이 마을의 리영배, 김철희 청년들을 청년회에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외람되게 참견하는것 같은데 량해하세요.》

류호는 부엌문설주에 손을 짚고 잠시 무엇인가 생각하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다.

《부인님이 제 힘든 청을 받아주셨는데 그게 부인님의 청이라면 받아들여야지요. 털어놓고 말하면 그녀석들이 똑똑은 한데 좀 설익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류호는 기분이 좋아졌다. 그는 부녀친목회에 대한 문제가 자기의 뜻대로 락착이 된것으로 생각하는것 같았다.

《선생님,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녀사께서는 류호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오시였다. 푸릿한 밤하늘에 한쪽모서리가 이지러진 둥근달이 높이 떠있었다. 인차 정월대보름이다.

녀사께서는 쩌릿한 향수를 자아내는 열사흘달을 생각깊이 바라보며 밋밋한 둔덕길을 내리시였다. 갑자기 모난 돌덩이같은 딴딴하고 날카로운것이 명치를 치받아 녀사께서는 저도 모르게 가슴을 붙안고 신음소리를 내시였다. 무시로 일어나군 하는 배아픔이였다. 고려의학에서는 심한 위경련으로 가슴과 배가 몹시 아픈 이런 병을 《적》이라고 하였다.

웬일인지 요즘에 와서 적의 발작이 잦아졌다. 이것은 녀사께 있어서 커다란 걱정거리였다. 앞으로 맏아드님의 뜻을 받들어 넘어다녀야 할 산은 얼마나 되고 건너야 할 장강은 얼마나 되는가.

멀리서 승냥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3

날이 어슬해지자 여라문명의 어린이들이 떼를 지어 강반석녀사의 댁을 향해 물가의 둔덕을 달려올라갔다. 그들과 얼마 떨어진 곳에서는 네댓명의 아낙네들이 웃고 떠들면서 둔덕길을 오르고 있었다.

이날은 녀사의 댁에서 야학방을 여는 날이였다.

김철주와 채련옥이 마당에서 야학생들을 맞이하여 방안으로 안내하였다.

《어서들 오너라.》

칠판앞에 서서 야학생명단을 들여다보고있던 강반석녀사께서 방안으로 들어오는 소년소녀들을 다정히 맞아주시였다. 유치원나이또래의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열네댓살 되여보이는 소년들도 있었다. 그들의 뒤로 들어오는 녀인들은 대체로 처녀들과 젊은 아낙네들이였다. 이미 채련옥이가 야학생들을 장악하고 학생명단까지 만들어놓았기때문에 녀사께서는 무송에서보다 훨씬 쉽게 일을 하실수 있었다.

녀사께서는 어디까지나 자원적인 원칙에서 야학생들을 받아들이도록 하시였다. 돈을 안 받고 밤마다 글을 배워준다고 하니 어느 집을 물론하고 어린 자식들을 야학방에 보내겠다고 쾌히 동의하였다. 그러나 나이가 찬 처녀들과 젊은 가정부인들은 글을 배우고싶어도 부모들의 눈치를 보며 선뜻 말을 떼지 않았다. 이곳 농민들도 봉건유습으로 하여 녀성들이 글을 배우러 밤마다 바깥출입을 하는데 대해 달가와하지 않았다. 글 모르는 성인남자들속에는 야학방에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명도 없었다. 아이들과 녀자들속에 끼여서 생도노릇을 하기가 쑥스러워서였다.

녀사께서는 야학방을 문화적으로 꾸리기 위해서 여간 마음을 쓰지 않으시였다. 덩치 큰 집을 급히 수리하느라 도배도 못하고 삿자리도 미처 구하지 못해 집안식구들이 거처하는 맨 아래방에만 낡은 구름

노전을 깔았던것을 이틀새에 야학방으로 쓸 가운데방과 웃방을 모두 흰 종이로 도배를 하고 새 노전을 까시였다. 민태감로인이 문방구점에 간수해두고있던 백로지를 몽땅 흥륭촌에 보내고 노전도 구해드리였다. 그리고 맑은 유리를 댄 멋진 석유초롱불까지 보내여 이날 량쪽벽에 걸어놓았다.

야학생들은 방안에 들어서면서 저도 모르게 《야, 야.》 하고 탄성을 올리였다. 집안거둠질을 별로 하지 않고 되는대로 살아가던 흥륭촌사람들의 눈에는 하얗게 도배를 하고 깨끗한 노전을 깐 야학방이 무슨 별세상처럼 보이는 모양이였다.

야학생들이 방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자 리보익할머님께서는 뜨끈한 콩국물을 담은 옹배기를 들고 웃방으로 올라오시고 채련옥이는 빈 그릇들을 몇개 얹은 나무쟁반에 국자를 들고 따라들어왔다.

《추운데 오느라 수고했겠는데 뜨끈한 콩국물로 속을 덥히고 공부하소.》

할머님께서 김이 문문 피여오르는 콩국을 친히 국자로 떠서 빈그릇에 담으시였다. 이날 일가분들은 글배우러 오는 야학생들을 위해 일부러 콩망질도 하고 콩국물을 끓이시였다.

리보익할머님께서는 콩국물을 한순배 돌린 다음 아래방으로 내려가 장지문을 닫으시였다.

야학생들은 곧 자리를 정돈하였다. 앞켠에는 사내조무래기들이 앉고 뒤에는 녀인들이 자리를 잡았다.

《자, 그럼 먼저 이름을 불러보자요.》

강반석녀사께서는 칠판앞에 서서 교탁에 놓인 야학생명단을 들여다보며 이름을 부르시였다.

《리만배!》

《옛!》

이제 열살미만으로 보이는 소년이 야무지게 대답을 하며 일어섰다. 도드라진 이마밑에서 오목눈이 유리알처럼 반짝거리였다. 무명바지저고리를 입었는데 몇군데에 천쪼박을 대고 기운 자리들이 보이였다. 낡은 옷이지만 깨끗이 빨아 풀을 먹이고 다림질까지 한 옷이였다.

리만배는 리영배의 막내동생이였다. 리만배의 형 리건배도 이 자리에 와있었다.

녀사께서는 계속하여 로중봉, 유영협 등 열네댓명의 소년들의 이름을 부르고 이어서 김복진, 리옥단 등 여섯명 녀인들의 이름을 부르시였다. 야학명단에 오른 녀인들과 소년, 소녀들중에는 한명도 빠진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이때 흥륭촌 촌장 김춘봉이 무슨 장부책 같은것을 들고 야학방으로 뛰여들었다.

녀사께서는 그를 처음 보시였다. 들창코에 두볼이 처져서 신통스러운 돼지상이지만 입술만은 요염한 계집의 연지바른 입술처럼 빨갛고 얄팍했다.

《웬 사람인가요?》

녀사께서 느닷없이 뛰여든 김춘봉을 엄하게 지켜보시였다.

《예, 나로 말하면 여기 촌장이웨다. 야학생명단을 보여주시오.》

《그건 왜요?》

《왜 그런고 하면 야학생들은 누구를 물론하고 야학세를 물어야 하오. 다 알고있겠지만 이 집으로 말하면 보위단창고이던것을 도단장님께서 크게 마음을 써서 내주었소. 여기도 도단장님의 땅이니 야학터세를 물어야 하고 여기 칠판과 교탁도 다 도단장님의 림지의 나무로 만들었으니 칠판세, 교탁세도 물어야 하오. 여기서는 달구지세, 발구세, 굴뚝세도 물고있으니 법대로 해야 하오. 세금이란게 나라에 부조를 하는 애국사업이니만큼 모두가 열성을 보여야지. 세금액수는 차후 도단장님과 의논을 해서 알려주겠으니 그쯤 알아두고있으라구. …》

김춘봉은 입술이 얄팍해서인지 새새거리며 물레실을 뽑듯이 말을 거침없이 잘하였다. 그는 숫제 교탁에다 자기 장부책을 펼쳐놓고 야학생들의 명단을 옮겨베꼈다.

녀사께서는 기가 막히여 말이 나가지 않으시였다.

《촌장령감, 너무 그러지 마오. 듣자니 도단장이랑 부도단장이랑 파직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령감도 촌장질을 못해먹을거요. 촌장이 뭐 타고난 팔자인줄 알아요?》

《거 어느년이야, 어느년이 하늘 무서운줄 모르구 입을 나불나불 해!》

촌장이 눈을 동그랗게 하고 녀인들을 둘러보았다. 촌장에게 감히 쏘아붙인 녀자는 리옥단이라는 녀자였다. 얼굴이 갸름하고 몸매도 호릿하여 외모를 보면 차분하고 얌전한것 같았지만 그는 남정들 찜쪄먹게 활발하고 개방적인 녀자였다.

《보나마나 옥단이년이겠지. 너 그렇게 코아래구멍을 나불나불하다가 네 서나하구 같이 릉지처참을 당할줄 알아라!》

《촌장님, 명단을 다 베꼈으면 어서 가세요. 공부를 해야겠어요.》

녀사께서 그의 손에서 학생명단을 앗아내시였다.

《야학이란게 이렇단 말이요. 계집을 못쓰게 만든단 말이요. 너 옥단인 콩밥먹을 차비나 해라, 못된년 같으니라구. …》

김춘봉은 두덜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자, 그럼 공부를 시작합시다. 우리 글을 배웁시다.》

녀사께서는 술렁거리는 야학생들을 정돈시키고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우리는 모두 나라를 잃고 이국땅에 쫓겨와 여태 제 나라 글도 배우지 못했어요. 얼마나 원통한 일인가요.》

녀사께서는 북받쳐오르는 의분을 누르며 넝마같은 옷을 입은 어린이들을 둘러보시였다. 방금 촌장의 무도한 행위를 보고난터여서 그이의 가슴은 격분으로 끓어번지시였다.

그이께서는 야학생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듯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망국노가 되여 온갖 천대를 받으며 별의별 고생을 다 하고있지만 우리 민족처럼 슬기로운 민족은 없고 우리 나라처럼 자랑이 많은 나라는 없다고 하시였다.

녀사께서는 이제 우리가 배우려는 우리 말과 우리 글은 세계에서 으뜸가는 조선의 자랑들중의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조선에 어떤 자랑들이 있는지 야학생들자신이 대답해보라고 하시였다.

어린이들은 조선의 자랑을 알아내려는듯 맑은 눈을 깜빡이며 머리를 기웃거리였으나 녀인들은 자기가 지명될가봐서인지 까투리처럼

몸을 숨기며 고개를 수그리였다.

《어디 김복진아주머니 한번 말해보세요.》

《어마나…》

앞사람의 잔등에 몸을 가리우고 앉아있던 젊은 녀인이 기겁한 소리를 지르며 한층 더 머리를 틀어박았다. 김복진은 채련옥, 조선녀나이또래의 녀인이였다. 그의 시아버지 최두현은 채련옥의 아버지 채승락과 인간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얼굴이 둥실하고 이름처럼 복스럽게 생긴 김복진은 무안을 잘 타는 내성적인 녀인이였다.

《김복진아주머니는 대답할 자신이 없는것 같은데 리옥단아주머니가 대답해보세요.》

녀사께서는 웃으며 리옥단을 바라보시였다.

《네, 대답하겠습니다.》

리옥단은 주저없이 벌떡 일어섰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리였다. 녀사께서도 활발한 이 녀인이 어떻게 대답할지 자못 궁금하시였다. 리옥단은 기세좋게 일어났으나 대답을 못하고 주밋주밋하더니 《이 조선치마저고리가 으뜸가는 조선의 자랑입니다.》 하고 변변치 못한 자기 무명치마를 자랑하듯 흔들어보이였다. 일시에 폭소가 터졌다.

《옥단아주머니 엉터리다.》

어린이들속에서 이런 말까지 튀여나와 웃음소리는 더 커졌다.

녀사께서 손을 저으시였다.

《아니, 왜들 웃어요. 리옥단아주머니가 옳게 대답했어요. 우리 조선녀인들의 치마저고리는 세상에 자랑할만 한 옷이예요. 그에 대해선 외국사람들도 다 말하고있어요.》

야학생들은 웃음을 거두고 조용해졌다.

《옛날 이웃나라 사람이 우리 나라에 와서 치마저고리를 보고는 아무 녀인이나 조선치마저고리를 입으면 몸매가 고와지고 얼굴이 예뻐진다고 하면서 뚱뚱보에 성난 사자상인 자기 부인에게 입히겠다고 치마저고릴 열다섯벌이나 사갔다고 합니다. 왜 열다섯벌이나 사갔을가요?》

맨 앞좌석에 앉은 어린이가 대답하려는지 벌커덕 일어섰다. 까치

둥지같이 헝클어진 머리에 누덕누덕 기운 닉새무명바지저고리를 입은 여라문살 되여보이는 어린이였다.

《두고두고 입히자고 열다섯벌 사갔습니다.》

야학생들은 소년의 대답에 반신반의하며 녀사의 표정을 살피였다.

《그래서가 아니라 조선치마저고리종류가 수십가지나 되는데 어느 것이나 다 마음에 들어 열다섯벌을 사갔다고 합니다. 돈이 모자라 더 사가질 못했대요. 모양새에 따라 가른 치마의 종류만 하여도 끄리치마, 폭치마, 주름치마, 통치마, 긴치마, 도랑치마 이렇게 세일수없이 많고 색갈과 천의 종류에 따라 가른것은 더 많아요. 우리 조상들은 벌써 수천년전부터 삼과 모시로 곱게 천을 짜서 치마저고리를 해입었다고 합니다. 그래 이런 노래도 있어요.》

녀사께서는 조용히 흥치있게 노래를 부르시였다.

3월에 삼씨 심어
7월에 거두어서
닷새동안 실 더 늘고 열흘동안 씻고씻어
가는 손에 북을 들고 가는 베 짜냈더니
곱기가 매미날개같이 한줌에 찰듯말듯

《수천년전 우리 조상들이 삼으로 베를 짜서 옷을 지어입을 때 세상에는 일본이란 나라조차 없었어요.》

녀사께서는 어린 소년들을 다정히 둘러보시였다.

《지금 누나, 어머니들이 입은 치마저고리는 가난한탓에 제일 값이 없는 석새베치마저고리나 닉새무명저고리를, 그것도 다 해져서 기운것을 입고 왔지만 모양새는 얼마나 좋은가요. 일찌기 옛사람들이 조선치마는 걸치면 멋진 옷이 되고 펼치면 보자기가 되고 감싸면 포대기가 되고 눈물을 닦는 수건으로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 조선치마저고리가 조선의 자랑이라고 한 리옥단아주머니의 말은 옳아요. 우리모두 박수를 칩시다.》

녀사께서 선참으로 손벽을 치자 이십여명의 야학생들이 모두 리옥단을 돌아보며 손벽을 쳤다.

《우리 나라는 참으로 자랑이 많은 나라예요. 동방에서 력사가 제일 오랜 나라이고 문화가 제일 발달했던 나라예요. 농사법과 천문지리학이 제일 앞섰던것도 우리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콩물을 마셨는데 우리 조상들은 수천년전부터 세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콩농사를 했어요.》

녀사께서는 교탁우에 놓인 책을 집어들고 활자를 가리키며 금속활자도 우리 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만들어냈고 별과 달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천문기구도 오랜 옛날 삼국시대에 만들어썼다고 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자랑인 거북선은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제조된 철갑선이다. 고려의 도자기는 또 얼마나 유명한가.

녀사께서는 이 자리에서 우리 나라의 자랑을 다 말할수 없으므로 오늘은 우리 글을 배우러 야학방에 왔으니만큼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말과 글을 가지고있는 나라라는데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하시였다. 녀사께서는 칠판옆에 걸려있는 조선자모를 쓴 괘도를 가리키며 우리 글이 세상에서 제일 으뜸가는것은 첫째로 배우기가 쉽기때문이다, 누구든 직심스레 한주일만 공부하면 능히 글을 쓰고 읽을수 있다, 둘째로 우리 글은 무슨 소리이든 다 적고 표현할수 있기때문이다,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울음소리, 웃음소리, 그 어떤 소리도 못 적는것이 없다, 셋째로 우리 글은 그 어떤 모양과 색갈도 다 표현할수 있기때문이다, 가령 붉은색을 하나 놓고도 그 색갈의 진하고 연함을 갈라서 붉다, 빨갛다, 발그스레하다 등 수십가지로 표현할수 있다고 설명하고 칠판에다 이렇게 쓰시였다.

《로증봉어린이의 볼은 앵두처럼 빨갛고 김복진아지미의 볼은 익어가는 복숭아처럼 발그스레하다.》

녀사께서 칠판에 쓰신 글을 읽어주시자 야학생들이 일시에 유쾌한 웃음을 터치며 로증봉어린이와 김복진녀인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김복진은 부끄러워 손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어쩔줄을 몰라했다.

《복진아주머니의 얼굴이 지금은 익은 고추처럼 빨개졌어요.》

야학생들은 한층 더 크게 웃으며 흥성거리였다. 야학방은 즐거운 기분에 휩싸이였다.

녀사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우리 말과 글이 얼마나 훌륭한지 외국의 말과 한번 대비해서 볼가요. 서양말을 잘하는 사람이 그러는데 거기에선 음식을 해먹을 때 그저 끓인다, 굽는다고만 한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선 익힌다, 볶는다, 지진다, 부친다, 찐다, 졸인다, 달인다, 튀긴다 이렇게 수십가지로 표현합니다. 여기 있는 자모만 잘 익히면 그런것들을 다 쓸수 있어요. 어떤가요? 우리 말과 글이 정말 훌륭하지요?》

《예, 훌륭합니다. 일등입니다.》

어린이들이 성수가 나서 저마다 소리쳐 대답하였다.

우리 말의 우월성과 풍부성을 새롭게 인식한 녀인들도 감동한 표정을 짓고 탄성을 올리였다. 인자한 웃음이 떠돌던 녀사의 얼굴에 불시에 근엄한 빛이 어리였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진 우리 나라가 그 보잘것 없는 왜놈쪽발이들한테 먹히워 노예의 신세가 되였으니 얼마나 통분하고 부끄러운 일인가요. 왜놈들은 농사짓는 법, 천을 짜는 법, 집을 짓고 질그릇을 만드는 법, 배를 뭇는 법 등 온갖것을 우리 조선사람들한테서 배워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왜 우리 나라가 그런 보잘것 없는 왜놈들에게 먹히우게 됐는가요?》

녀사께서는 통분함을 금치 못해 주먹을 드시였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순진한 어린이들에게는 과거와 오늘의 변화가 믿어지지 않았고 력사를 모르고 지낸 녀인들에게도 나라의 흥망성쇠가 놀랍게만 생각되여 침통한 얼굴들을 하고 묵묵히 앉아 있었다.

녀사께서는 주먹을 흔들며 격해진 어조로 우리 나라가 망한것은 봉건통치배들이 썩어빠진 정치를 했기때문이다, 그들은 개인의 향락과 권력욕에만 눈이 어두워 나라의 발전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사대주의를 하며 당파싸움만 하였다, 그들은 훌륭한 우리 글을 상놈들만이 배우는 글이라고 천시하였고 배를 만들고 집을 짓는 기술자들을 쟁인바치라고 업수이 여기며 공자왈맹자왈 하고 유교경전만 외웠다, 봉건통치배들은 인구의 절반이 되는 녀자들은 글공부도 못하게 했고 조선인구의 9할이 되는 로동자, 농민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개, 돼지처럼 천대하였다, 다른 나라에선 기차를 만들고 배를 만들어 대

양을 건너다닐 때 봉건통치배들은 백성들을 착취억압하면서 권력다툼만 하였으니 어찌 나라가 망하지 않겠는가고 하시였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나라를 찾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하겠어요. 어른도 아이도 남자도 녀자도 모두 왜놈들을 내쫓고 나라를 찾으려는 한마음으로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고 뭉치고 뭉치고 또 뭉쳐야 하겠어요. 지금 안도주민들이 물북이요, 물남이요 하며 같은 동포들끼리 눈을 흘기적거리고있는데 그래선 안됩니다. 뭉치면 흥하고 흩어지면 망한다는것은 너무도 뻔한 리치가 아닌가요. 우리는 뭉쳐야 해요. 애국정신, 단합정신으로 우리 글과 우리 말을 배웁시다.》

녀사께서 백묵을 쥔 손을 머리우로 높이 쳐드시였다. 녀인들은 흥분하여 손벽을 치고 어린이들은 녀사를 따라 주먹을 쳐들며 《배웁시다!》 하고 야무진 소리로 화답하였다.

이날 야학생들은 자모표를 익히였다.

야학에 대한 폭풍같은 반향이 일어났다. 야학생들이 집에 돌아가 하루밤새에 많은것을 배웠다고, 강반석녀사께서 세상리치를 깨우치며 재미있게 글을 배워주신다고 자랑하고 선전하여 이튿날에는 네명의 녀인들이 더 참가하였다. 며칠 지나서는 남자들까지 글을 배우러 와서 야학생이 30여명으로 불어났다.

이것은 결코 저절로 얻어진 성과가 아니였다.

녀사께서는 야학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재를 깊이 연구하고 생동하고 재미있는 자료들을 풍부히 수집하여 우선 야학공부가 재미있게 되도록 하시였다.

녀사께서는 흥륭촌의 경험을 살려 쓰우리, 한흥툰, 대흥툰, 정업툰과 현소재지들에서도 야학을 운영하도록 조직원들을 발동시키시였다. 대흥툰, 정업툰의 야학은 조선녀와 김순애가 맡고 쓰우리, 한흥툰을 비롯한 흥륭촌 남쪽부락들은 김철희, 리영배, 김철주, 채련옥이들이 책임지도록 하였다. 송강야학방은 오방원과 민옥이들이 맡았다.

원래 녀사께서는 야학선생으로 조춘희도 끌어들이려고 하였으나 그가 응하지 않았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야학방을 다니는 녀인들을 중심으로 매 마을들에 녀성자치조직인 부녀친목회를 조직하시였다. 부녀친목회는 현당국에서도 합법적인 자치단체로 여기고 크게 눈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흥륭촌과 대흥툰을 비롯한 주요 농촌마을들에서는 류호와 조희재때문에 비합법적인 단체처럼 비밀리에 조직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왜놈들과 반동군벌들도 아닌 독립운동지도자라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며 비밀리에 부녀친목회를 조직하고있으니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러나 녀성단체의 비밀을 계속 지켜낼수 없었으며 또 그럴 필요도 없었다. 녀사께서는 부녀친목회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자 류호를 찾아가 사실대로 다 털어놓으시였다.

류호는 부녀친목회가 조직되였다는 말을 듣고 어찌나 놀라는지 얼굴빛이 새까맣게 질리였다.

그는 성난 얼굴을 하고 녀사께 화를 냈다.

《부인께선 왜 이제야 그걸 말해줍니까? 정말 섭섭하웨다. 당장 녀성단체를 해산해야 하겠습니다.》

녀사께서는 부녀친목회의 행동강령을 적은 종이장을 내놓으며 말씀하시였다.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 생각엔 녀성단체를 해산할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이건 뭔가요?》

류호는 판지에 백로지를 붙여 가는 붓으로 정성스레 쓴 부녀친목회의 행동강령을 한자한자 뜯어보기 시작하였다.

《우로는 시부모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시동생을 보살피는 가정주부들에 의해 가정의 화목이 꽃핀다. 가가호호의 부녀들이 서로 친목하면 온 마을이 화목해지고 부녀자들이 애국효녀, 렬녀, 현모가 되면 나라의 온 가정이 애국화되여 백성들의 통일단합이 성취되는것이니 나라에 지닌 부녀자들의 책임과 사명이 막중함을 헤아리고 부녀친목회운영에 열성을 다할것이다.》

류호는 생각에 잠겨 이슥토록 침묵을 지키였다. 부녀친목회의 행동강령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것 같았다. 그러나 녀성단체를 해체시키려는 그의 결심에는 변동이 없었다.

그는 녀사께 오늘 저녁 학교교실에서 군중강연회를 조직하겠으니 와서 들어보라고 하였다.

류호는 그날 저녁 음양론을 통속적으로 해석하는 학습강연을 하였는데 그것은 녀성단체를 해산시킬 목적으로 조직한것이였다.

그는 력설하였다.

천지만물은 오행인 수, 목, 금, 토, 화의 다섯가지를 기본요소로 하여 형성되였으며 음과 양의 조화로운 호상작용으로 영구히 보전되고있는것이다, 사회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음양의 조화가 파괴될 때 재화와 변란이 생긴다, 이 지구상에서 지진과 해일로 가끔 인명피해를 입군 하는것도 음양의 조화가 파괴되여 생기는 재화이다, 나라에 변란이 생기는것도 음양의 부조화로 일어나는 재난이다,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요, 임금은 양이고 신하는 음이요, 남자는 양이고 녀자는 음이다, 그런데 녀자들이 단체를 무어가지고 활개짓을 하면 음양의 조화가 파괴되여 자연에서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나는것과 같은 엄청난 사회적재난이 일어난다, (쏘련에는 큰 녀성단체가 있지 않는가 하는 질문에) 아라사의 녀성단체는 쏘베트국가밑에 있는 녀성단체이다, 쏘베트는 양이고 녀성동맹은 음이다, 이 음양의 조화로 무탈하다, 그러나 안도땅에는 녀성단체를 지배할만 한 유력한 사회단체도 국가도 없다, 청년회요 농민협회요 하는것이 있지만 그 힘은 너무도 유약하다, 페일언하고 오늘형편에서 녀성단체는 해체하여야 한다,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천지만물에는 화합하면 복이 생겨 흥하는것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화가 생겨 망하는것이 있다. 그 실례의 하나는 두부와 고사리, 돼지고기와 새우젓갈을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되고 속이 편하지만 닭고기와 근대, 뱀장어와 은행씨를 함께 먹으면 독이 생겨 죽거나 심한 병이 생기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이처럼 사회와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화합하면 흥하지만 반대로 망하게 되는 조화와 부조화의 관계가 있다, 남녀의 궁합을 보는것도 그때문이다, 가축이 잘되는 집과 안되는 집이 있는것도 음양설로 해석할수 있다, 류아무개가 조아무개와 같이 있으면 코코에 말썽이 생기는것도 음양의 조화가 되지 않기때문이다, 지금형편에서 이 안도주민들속에 부녀단체가 생기면 음양의 조화가 이그러져 재난이 생긴다. …

그의 강연은 로인들속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류호령감은 학식이 정말 깊소. 부녀단첸지 뭔지 그걸 빨리 없애치워야지 큰일나겠소. 원래 녀자란 요물인걸…》

늙은이들은 강연회끝에 이러루한 말들을 주고받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녀사께서는 음양론에 대한 일가견을 가지고있는 류호의 생각을 돌려세우기란 아주 힘들다고 생각하시였다. 그와 음양론을 놓고 론쟁한다는것은 너무도 힘에 부친 일이였다.

그러나 녀사께서는 이날 강연회에서 녀성단체의 조직이 시기상조라고 한 류호의 말에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다. 그러고보면 그는 녀성단체조직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반대하는것이 아니였다.

4

류호의 강연회가 있은 이튿날이였다.

왕방초가 오래간만에 흥륭촌의 보위단 병실과 훈련장들을 돌아보러 나왔다.

《저 사람이 파직된다 어쩐다 하더니 아직 붙어있는 모양이군.》

보위단 병실근처에서 돌아가는 왕방초를 띄여본 주민들은 저마다 수군덕거리였다. 그의 파직은 주민들의 념원이였다.

흥륭촌보위단의 목조병실은 마을의 동남쪽 산기슭에 있었다. 그뒤로 사격좌지들과 철봉대를 비롯한 군사훈련시설들이 갖추어진, 둘레의 길이가 400메터나 되는 넓은 훈련장이 길게 잇닿아있었다.

오전 한나절을 보위단에서 보낸 왕방초는 점심녘에 촌장 김춘봉의 집을 찾아갔다. 김춘봉의 집은 보위단 병실에서 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살림방이 세칸이 되는 본채에 고간과 뒤주를 따로 짓고 허리를 치는 널울타리를 넓게 둘러친 기와집이였다.

그는 집에 두명의 장정머슴과 한명의 녀종을 두고 무한장이 선사한 5천평의 밭을 자작하면서 촌장의 일을 보고있었다.

왕방초가 김춘봉의 집마당으로 들어서자 쇠줄로 매놓은 개가 무섭

게 짖어댔다. 김춘봉이 신발을 끌면서 달려나왔다.

《방금 저 들메나무가지에서 까치가 울기에 귀한 손님이 온다 했더니, 허허허.》

그는 마당 한귀에 서있는 들메나무를 가리키며 아첨기어린 웃음을 지었다.

촌장은 웃방으로 왕방초를 안내하였다. 흥륭촌에서는 보기드문 골풀로 촘촘히 결은 고급돗자리를 깐 아담한 방인데 후끈후끈하였다. 뒤벽에는 십장생을 그린 륙첩병풍을 치고 옆벽에는 호박과 대모자개를 박은 새까만 벽장 두개가 놓여있었다. 벽장우에는 황, 홍, 청 삼색비단방석이 여러겹 쌓여있었다.

김춘봉은 방석 두장을 내려다 왕방초앞에 깔아주었다.

《앉으십시오.》

왕방초는 안경밑에서 새까만 살모사눈알을 몇번 굴리더니 사양없이 비단방석에 올방자를 틀었다.

김춘봉은 벽모서리에 세워놓은 옻색을 먹인 새까만 두리상을 펴놓고 장지문을 열었다.

《야, 곱단아! 손님이 오셨다. 어서 술상을 들여오너라.》

귀한 손님들이 올것을 예견하여 언제든지 술상을 준비해두고있는 촌장이였다.

이윽고 바른 가리마를 탄 머리에 제비꽁지를 한 열대여섯 났음직 한 계집애가 놋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먼저 목이 긴 술병과 놋잔들을 내려놓고 방금 끓인듯 한 붕어탕곱돌장사귀들을 손님앞에 놓았다. 빈 쟁반을 들고 돌아서나간 계집애는 련이어 교즈, 오리고기훈제, 소고기볶음 등 기름진 음식들을 날라왔다. 잠간사이에 성찬이 되였다.

《뭘 이렇게 요란하게 차렸소?》

왕방초는 음식상을 둘러보며 히뭇이 웃음을 지었다.

《부도단장님이 오실것 같아 차리느라 했지만 촌바닥이라 그저 이렇습니다.》

김춘봉은 속으로 (이 사람이 파직된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무사한 모양이군.) 하고 생각하면서 놋술잔에 술병을 기울이였다. 맑은

중국백주였다.
《촌장도 이 왕방초가 파직된다는 소리를 들었소?》
왕방초가 술잔을 들며 문득 입을 열었다. 김춘봉은 속이 뜨끔하였다. 사실 그는 무한장, 왕방초들이 만화락서사건처리를 잘못한 탓으로 파직된다는 소문을 들은 다음부터 관공서 우두머리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다. 간에 붙었다가 불리해지자 섶에 붙으려고 했던것이다.
《예, 그런 뛰뛰한 소리가 돌았습니다만 난 믿지 않았소이다.》
《내가 정말 파직됐다면 어찌겠소. 그래도 이렇게 술상을 차리겠는가?》
왕방초는 입을 크게 벌리고 김춘봉을 쏘아보았다.
《파직은 파직이고 인정은 인정이지요. 내가 뭐 부도단장님의 벼슬자리를 보고 가까이하는줄 아십니까.》
김춘봉은 들창코를 벌름거리며 얄팍한 빨간 입술에 침발린 소리를 하였다. 그는 혹시 이자가 파직되여가지고 시에미역정에 개엿구리 차는 격으로 자기한테 주정질을 하려는것이 아닌가 하고 은근히 불안해하였다.
《벼슬은 벼슬이고 인정은 인정이다? 허허허… 그러나 그런 사람은 많지 못해… 내가 오늘 보위단을 좀 돌아보았는데 대하는 태도가 그전같지 않아.》
왕방초는 독주를 연거퍼 두잔이나 마시였다. 바로 어제 저녁 우로부터 인사변동지시가 내려왔다. 만화락서에 공모한 부서장때문에 서장이 파직되고 그 자리에 왕방초가 올라앉았다. 소문과는 달리 그는 파직된것이 아니라 승급하고 더 큰 권력을 얻게 된것이다. 그는 보위단 부도단장에 서장을 겸직하게 되였다. 하지만 그는 이 기쁜 인사변동에 대해 일부러 알리지 않고 보위단을 시찰하였다. 누가 진정으로 자기한테 충실할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왕방초는 지금도 김춘봉을 중떠보기 위해 인사변동에 대해 말하지 않고 딴전을 부렸다.
(이게 정말 파직된 모양이구나. 하지만 좋게 대해줘야지, 이 성미사나운 놈이 주정질을 하며 소란을 피우면 야단이지.)

이렇게 생각한 김춘봉은 접때 야학방에서 리옥단에게 쌍욕을 퍼부어준 이야기까지 하면서 무한장도단장과 왕방초부도단장에 대한 자기의 정은 변함이 없다고 하였다.

《참, 요즘 흥릉촌에서 야학을 한다지?》

왕방초가 갑자기 긴장한 얼굴빛을 하고 캐여물었다.

《예, 강반석이라는 아주머니가 와서 야학방을 차렸습니다. 얼마나 재미있게 글을 가르치는지 처음엔 얼마 안되던 야학생이 지금은 수십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김춘봉은 은저가락으로 소고기볶음 한점을 집으며 계속 씨벌이였다.

《그 강씨부인은 별난 녀자입니다. 병난 사람들을 보면 일부러 찾아가서 돈도 안 받고 비싼 약을 써서 고쳐주고 가난한 집 어린애들이 지나다니면 데려다 밥을 먹이고 옷을 기워준다지 않습니까. 저쪽 물서에 있는 배나무집 로망구와 손자한테는 아랑주천으로 옷을 한벌 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별로 가산이 푼푼치 못한 녀자인데 그런 선덕을 베푸니 수염이 허연 령감들까지 강씨부인을 보면 사모님, 부인님 하고 무슨 국모를 대하듯 하지 않습니까. 류호령감한테는 아이들을 잘 배워주라구 책을 한보따리나 주었다구 합디다. 푸접이 없는 꽁생원이고 학문에서는 제노라 하는 훈장령감도 강부인한테는 머리를 숙이며 낮추붙는다는가 봅니다. 부녀친목회에 대해서는 좀 실쭉해하지만…》

《훈장령감한테 가져다준 책이 어떤 책이요?》

왕방초가 무슨 음식인지 질근질근 씹으며 김춘봉을 노려보았다.

《마, 그 책이 무슨 책인지? 전 보지 못해서…》

《촌장이라는 사람이 그걸 알아보지 않으면 되는가. 그 녀자는 로자 룩셈부르그와 같은 녀자인지 몰라.》

《로자 룩셈부르그라니요?》

김춘봉은 왕방초의 말뜻을 몰라 메밀눈을 머룩머룩하였다.

왕방초는 이마살을 찌프리며 기막힌듯 한숨을 지었다.

원래 량반집자손인 김춘봉은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젊었을 때부터 난봉질과 협잡질을 하며 돌아쳐서 겨우 호적부나 장부책을 정

리할수 있을 정도의 글을 알고있었다. 그러나 기억력이 좋고 눈치가 빠른것으로 보아 결코 그가 머저리는 아니였다.

《여기 흥륭촌에 예수를 믿는 집이 두집인가 되는데 그 집들에서 강부인을 보고 성모 마리아라고 합니다. 로자 룩셈부르그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어떤 녀자인지 알고있는가?》

왕방초는 입술을 실그리며 별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성모 마리아라고 합디다, 허허허.》

김춘봉은 헤식은 웃음을 지었다.

《촌장, 정신을 차리시오. 강반석이란 녀자에 대해 잘 감시해야 하오.》

어금이를 꽉 깨물고있는 왕방초의 얼굴은 사납게 일그러졌다. 그는 안도현에 온지 5년이래 이번에 처음으로 강반석이라는 녀자한테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한것을 생각하며 이를 갈고있는것이였다. 그는 여태 자기가 죽이겠다고 생각한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넘긴 일이 단 한번도 없었으며 창비의 명령을 내린 후 철회한 일도 없었다. 그런데 만화사건을 구실로 자기가 직접 잡아들인 네명의 사형수들을 강반석녀사로 해서 무죄석방시키지 않으면 안되였다.

《촌장, 다시 말하지만 강씨라는 그 녀자는 아주 위험한 녀자요. 그 녀자때문에 당신의 멱다시도 졸리울수 있소. 지금 그 녀자는 주민들은 물론 무한장도단장님한테까지 인심을 사서 촌장을 비롯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모조리 물어메칠 생각을 하고있단 말이요. 그 녀자가 무엇때문에 자선사업을 하고있는지 알고있는가? 앙?》

《그런가요? 저는 보위단참모장님으로부터 새로 이사온 강씨부인을 잘 돌봐드리라는 분부를 받았기에 지금까지 좋은 녀자로만 알고…》

김춘봉은 왼쪽눈을 샐뜨면서 입술을 떨었다.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란 말이야!》

왕방초는 주먹을 밥상우에 올려놓고 김춘봉에게 경고하였다. 그 녀자가 안도에 온지 두달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모

으고 얼마나 많은 주민들을 주위에 끌어들였는가. 사형처분을 받았던 4명의 사형수들이 무죄석방된 다음부터 짜장 그들은 강씨부인을 구세주처럼 떠받들고있다. 대흥툰, 정업툰, 흥륭촌을 비롯하여 서문밖마을과 송강시내에는 강씨부인과 정으로 얽혀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이것은 매우 상서롭지 못한 일이다.

《촌장에게만 말하는데 나는 오늘 무한장도단장을 만나 강씨에 대한 경각성을 높여야지 큰일날수 있다고 했소. 이제부터는 도단장도 강씨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수 있으니 촌장은 정신을 차리고 강씨부인을 잘 감시해야 하오.》

《예, 제 불찰이 많았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주민들이 강씨부인은 성모 마리아이고 촌장은 사탄이라고 한다오. 악귀라는 소리요. 그러니 당신이 제자리에 붙어있을것 같소?》

김춘봉의 얼굴이 거뭇하게 질리였다. 탄력이 없이 처져내린 두볼이 실룩거리였다.

《촌장이 주민들한테서 세금을 받고있는데 어떤 세금을 받고있는지 세금명세장을 좀 봅시다.》

왕방초는 술잔을 집으려던 손을 불쑥 김춘봉의 가슴앞에 내밀었다. 김춘봉은 가슴이 철렁하였다. 느닷없이 세금명세를 보자고 하니 당혹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현공서나 무한장이 제정한 세금이외에도 자의대로 여러가지 돈을 받아내여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있었다. 제정된 세금도 제멋대로 몇배로 높은 가격으로 받아내여 사취하였다. 그것을 하나하나 까밝혀볼만 한 사람이 있을것 같지 않아 지금까지 그럴듯한 구실을 만들어내서 많은 돈을 먹었었다. 혹시 이것이 들장나서 나더러 사탄이라고 하지 않을가.

《세금명세를 좀 봅시다.》

왕방초는 손끝으로 김춘봉의 가슴을 쿡쿡 찌르며 독촉하였다.

(이 사람이 세금명셀 왜 보자고 하는가?)

김춘봉은 가슴이 두근두근하였다. 물론 그는 세금명세장에는 받은 액수를 그대로 적어넣지 않고 제정된 가격을 기입하였다. 미친놈이나 머저리가 아니고서는 사취한 돈을 명세장에 밝힐수 없었다. 세외

로 받은 돈들은 하나도 적어넣지 않았다.
그는 벽장에서 세금명세장들을 꺼내였다.
왕방초는 안경테를 추슬러올리고 란필로 적어놓은 수자들을 한참 들여다보고나서 김춘봉에게 시선을 돌리였다.
《이제부터는 세금을 2배로 높여서 받아내시오. 무한장과 현공서의 지시라고 하시오. 그리고 그 세금은 직접 나한테 가져오시오. 촌장이 일만 잘하면 세금의 절반몫을 아니, 때에 따라선 전량을 다 주겠소.》
김춘봉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리해가 되지 않았던것이다.
《왜 그리 놀라오? 믿어지지 않아 그러는가. 오늘 인사변동이 있었소. 서장이 실각되고 그 자리에 내가 앉게 됐소. 부도단장일을 하면서 서장을 겸하게 됐소.》
《그래요?!》
김춘봉은 눈이 둥그래졌다.
《서장님, 축하합니다. 도단장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단장이야 그저 여전히 도단장이지.》
왕방초는 시답잖게 중얼거리였다.
(이 사람을 푸대접하지 않은게 정말 잘한 일이구나.)
김춘봉은 지금 차린 술상이 자기한테 좋은 운수를 틔워주는 술상이라고 기뻐하였다.
《내가 서장이 되였으니만큼 이제부터 기강을 세우자는거요.
세금의 절반은 언제나 당신의 몫이요. 그러되 이 일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이 경찰서장하고만 련계를 가져야 하오. 다시 말하지만 세금을 2배로 높이고 무한장주인의 지시라고 하시오. 이제부터는 무한장도단장과 관련한 일체 문제를 나한테 제기하시오.》
왕방초는 그러면서 지금 공산폭도들이 지주계급을 타도하기 위한 반란을 꾀하고있으므로 무한장은 신변보위상 사민들과는 일체 접촉을 금하기로 하였다고 알리였다.
김춘봉은 속으로 쾌재를 올리였다. 경찰서장이며 부도단장인 왕방초의 보호밑에 무제한한 사취의 길이 열린것이다.

왕방초가 김춘봉에게 선심을 쓰는데는 자기 안속이 있었다. 지금 그의 가슴에서는 무한장이 가지고있는 모든 재산과 권력을 자기의것으로 전환시킬 야심이 불타고있었다. 그는 5년전 봉천경찰국장의 특별지령으로 안도현보위단 부도단장의 임명을 받고 이곳에 내려온 순간부터 안도의 광대한 땅과 수림을 자기의것으로 만들고싶은 탐욕으로 온몸이 달아올랐었다. 안도현의 대지는 로씨야의 공산주의자들에게 빼앗긴 수천헥타르를 헤아리는 원동의 수림과 농경지들에 대한 미칠듯 한 애착심과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복수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여 그는 이곳에 오자마자 공산주의자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는 한편 무한장의 땅을 가로챌 방도를 모색했었다. 하지만 그것은 쉽게 성취할수 있는것이 아니였다. 무한장은 간단한 인물이 아니였다. 그는 일찍부터 동북군벌의 두령인 장작림, 장학량과 같은 장가네 가계와 련계가 깊은 반일파계렬의 국민당원이였다.

그러나 신은 왕방초에게 행운의 손을 내밀었다. 장작림의 폭사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왕방초는 반일국민당원인 무한장의 세상이 오래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일제의 검은 손이 동북땅으로 야금야금 내뻗치고있기때문이였다. 국민당 총사령인 장개석은 이미 손문을 배반하고 반공친일의 길로 나가고있었다. 동북군사령인 장학량의 고문이 일본의 고위급장교라는 사실은 중국 동북지방에 대한 일제의 침략이 시간문제로 되였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었다.

장개석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주지방을 일제에게 넘겨주고 동북군을 서북지방으로 이동시킬 생각까지 하고있다는 말이 떠돌고있었다. 그렇게만 된다면 장학량에게 의탁해온 반일분자인 무한장은 끈떨어진 주머니가 되고말것이다. 친일을 하여 무한장을 밀어버리면 여기에 있는 그의 땅을 모두 손쉽게 자기의것으로 만들수 있었다. 지금 보위단 참모장을 하는 무한장의 아들은 물닭과 같이 맥이 없는 위인이여서 그를 제거해버리는것은 식은죽먹기였다. 무한장보다는 일본에 미소를 보내려고 하는 쌍병준지주를 다루기가 까다로울것 같았다. 쌍병준이와는 손을 잡고 무한장의 세력권을 차츰차츰 허물어버려야 했다. 그러자면 한쪽으로는 무한장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을 조성시키고 다른 한쪽으로는 무한장을 격페된 세상에서 살게 만

들어 그의 귀를 틀어막고 눈을 가리워버려야 했다. 김춘봉이한테 무한장의 이름을 걸고 주민들로부터 고률의 각종 가렴잡세를 받아내도록 부추긴것은 그때문이였다. 공산당패거리들이 무한장의 목을 따게 만들어도 좋았다.

왕방초는 김춘봉이 쳐준 술을 들이키고 조용히 물었다.

《이 마을엔 반일독립운동을 하다가 겁을 집어먹고 돌아선 사람이 없소? 일본에 전향한 사람 말이요.》

《예, 독립군에 있다가 그만두고 장사질을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연길이요, 장백이요, 조선이요 사처에 다니면서 일본령사관 경찰서 밀정질을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접때 무한장도 단장님이 그 사람을 감시하라고 합디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요?… 성근식!… 그 사람을 한번 만나봐야겠소. 다시 말하지만 이제부터는 무한장주인님과 직접거래를 하지 말고 나하고 련계를 취하시오. 내가 다 보고할테니까… 이제 1년안팎으로 좋은 세상이 오게 됩니다. 나를 믿으시오.》

《예, 저는 그저 경찰서장님이 하라는대로만 하겠습니다.》

김춘봉은 진심으로 왕방초를 섬길 결심을 하고있었다. 그가 보기에도 아라사와 중국 대도시에서 공부깨나 한 왕방초가 장차 이 안도땅을 좌지우지하게 될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원래 무한장은 흥륭촌에는 일년에 기껏해서 한두번 내려와보는 사람이였다. 한두번 내려와보는것조차 싫어서 전화를 가설한다는 말이 있었다.

《촌장한테 한가지 과업을 주겠소. 무언고 하니 지금 야학방으로 쓰고있는 강씨부인네 집을 빼앗아내시오. 참모장의 승인을 받고 그걸 수리해서 쓰고있는데 도단장의 지시로 그 건물을 다시 보위단에서 쓰게 됐다고 하시오. 그에 응하지 않으면 용서가 없다고 하시오. 당신이 야학방을 빼앗아내기만 하면 당신한테 큰 권한을 주겠소. 어떤 권한인가?》

왕방초는 쥐를 노리는 고양이처럼 김춘봉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에ㅡ 지금까지 촌장들이 각기 자기 마을 세금을 받아 현공서와 도단장에게 바치던것을 이제부터 세금만은 흥륭촌 촌장이 다 관할하

게 하겠소. 당신은 안도현의 세무소장과 같소. 대단한 권한이요, 허허허.》

김춘봉은 한껏 가슴이 부풀어올랐다.

왕방초는 김춘봉의 집에 세시간이나 앉아있었다.

눈치빠른 촌장은 왕방초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 그가 일본의 고위급인물들과 련계가 있는것 같은 기미를 챘다. 일년안팎으로 좋은 세상이 온다는 왕방초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아차렸다. 그것은 만주땅이 일본사람들의 세상이 된다는 뜻이였다.

(일본의것이 되든 중국의것이 되든 내 배 부르고 내 등때기 뜨뜻하면 되는거지. 왕방초에게 붙어야겠다.)

김춘봉의 결심은 확고해졌다.

5

아침해가 높이 떠올랐을 때 강반석녀사께서는 낫을 들고 뒤산으로 오르시였다. 이날 아침 10시부터 뒤산 곰바위터에서 부녀친목회 지회장들의 모임을 하게 되여있었다.

이깔나무숲속을 꿰질러오르던 녀사께서는 조그마한 공지를 발견하고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누구인가 나무없는 빈 땅에 보리를 심었던것 같다. 잎사귀가위선들이 누릿누릿 떡잎이 진 보리줄기 한줄기를 뽑으시니 하얗고 연한 새 뿌리들이 검고 눅눅한 흙을 한입 물고 일어선다.

《봄이 오는구나!》

녀사께서는 허리를 펴고 앞을 내다보시였다. 30여호의 집이 모여앉은 마을 저편에 논밭들이 보이였다.

이날이 경칩이였다. 벌써 어떤 농가들에서는 겨우내 골방에 깊이 간수해두었던 씨오쟁이들을 토방에 내다놓고 거풍을 하였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4도백하도 풀리기 시작하였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봄시위가 시작될것이다.

녀사께서 곰바위터에 이르시니 벌써 일곱명의 부녀친목회 지회장

들이 와있었다. 조선녀(대흥툰), 김순애(정업툰), 민옥(송강), 리옥단(흥륭촌)을 비롯해서 쓰우리, 한흥툰, 물밖마을 지회장들이였다.

녀사께서 오늘 모임을 조직한것은 지회장들호상간에 인사도 시키고 부녀친목회를 반일부녀회로 개편하시기 위해서였다.

《다들 와있었구만. 서로 통성들을 했겠지요?》

녀사께서 웃음을 짓고 그들에게로 다가가시자 흥륭촌의 리옥단이 짐짓 시치미를 뗐다.

《사모님두, 어떻게 통성을 해요. 내가 알고있는 녀자란 쓰우리 지회장뿐인데… 여기 곱게 생긴 네 아지미들은 분명 우리편 같았지만 저기 범상을 한 무섭게 생긴 아마이(김순애)는 꼭 밀정 같아서 비실비실 피했는데 그냥 따라오지 않아요.》

《호호호…》

지회장들이 모두 허리를 쥐고 웃었다. 아닌게아니라 얼굴이 이쁘장한 젊은 녀인들속에 끼여서 그런지 김순애는 이날따라 할머니처럼 더 늙어보이고 가뜩이나 솟은 관자뼈가 더 험상스러워보이였다.

《무스거, 범상이라고? 무산에서 김순애라 하면 일등미녀로 소문났으꼬마.》하고 그가 정색을 짓고 일부러 북관사투리로 떠드는 바람에 녀인들은 또 한바탕 크게 웃었다. 오직 리옥단이만이 웃지 않고 경계하는 눈초리로 김순애를 쏘아보았다.

《아마이! 아까 취조를 받을 땐 10년전에 만주에 왔다고 했지요?》

《그랬으꼬마.》

김순애는 취조받는 촌녀자시늉을 하며 겁먹은듯이 대답한다.

《김순애란 이름은 4년전에 강반석녀사께서 지어주신거라고 했지요?》

《그랬으꼬마!》

《그런데 무산에 있을 때에도 김순애라고 했다니 앞뒤가 틀리지 않는가? 우릴 내탐하러 온 밀정이 분명하다… 범상을 한 아마이로 변장을 한 이 무산 일등미녀 밀정을 체포해라!》

《호호호.》

지회장들이 또다시 허리를 쥐고 웃어댔다.

《하하하… 내 이 아재한텐 손을 바짝 들었다. 사모님은 흥륭촌에 채련옥이랑 인물이 가득한데 왜 이런 더펄대기아잴 지회장으로 선출했어요.》

사실 김순애의 말대로 조직운영경험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면 무송반일부녀회원인 채련옥이 흥륭촌지회장이 되여야 하겠으나 녀사께서는 일부러 일가분이 아닌 리옥단을 지회장으로 선출하시였다. 리옥단은 더펄더펄하며 사람들을 잘 웃기지만 살림살이를 하는것을 보면 얼마나 깐지고 암팍진지 몰랐다. 그를 지회장으로 내세우도록 녀사께 건의한 사람이 바로 채련옥이였다.

《자, 그럼 오늘 일들이 바쁘겠는데 빨리 모임을 하고 헤여지자요. 오늘 의논해보자는건 부녀친목회를 반일부녀회로 이름을 고치는 문제예요.》

녀사께서는 이날 모임도 짧은 시간에 실속있게 하기 위해 격식을 차리지 않으시였다.

지회장들의 의견은 류호, 조희재와 같은 자치단체 총재들이 부녀친목회를 조직한데 대해서도 큰 변란이 일어난것처럼 야단을 하는데 단체명칭을 반일부녀회로 개칭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안도현 관헌들속에는 친일파도 적지 않기때문에 고친 이름을 공개해서는 안돼요. 반일부녀회는 비합법적인 단체예요. 그러면 왜 단체의 이름을 고치려고 하는가. 그것은 우리 부녀단체를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라 반일애국단체로 발전시킬 때가 됐기때문이예요. … 대흥툰에서도 자치단체 책임자들이 부녀단체에 대해 심하게 강박을 한다지?》

녀사께서 조선녀를 돌아보며 걱정스레 물었다.

《강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며칠전에 우리 대흥툰에서 있은 일을 지회장들앞에서 이야기해야겠어요.》

사흘전 저녁 야학방으로 쓰는 윤현칠이네 집에 야학생들이 모였을 때라고 한다. 청년회 회장이 불쑥 뛰여들어 오늘부터 야학을 하지 못하니 헤여지라고 하였다. 녀성들의 회합장소나 다름없는 야학도 금지하도록 결정하였다는것이다.

그 말을 듣고 조선녀가 분격을 참지 못해 현당국에서도 부녀친목회와 야학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데 동포들의 리익과 편의를 돕기 위해 조직됐다는 자치단체가 야학공부도 못하게 하니 한심하지 않은가, 부녀단체를 해체할것이 아니라 그놈의 자치단체부터 해산시켜야 한다고 맵짜게 들이댔다.

그러자 청년회 회장은 대뜸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조선녀에게 야비한 쌍욕을 퍼부었다.

《네년은 잔치했으면 시집에나 가있을게지 왜 아직 가지 않고 여기서 말썽을 부려! 너때문에 이 동네에 망조가 들고있다, 마녀같은 년. 당장 나가라! 우리 동네에 못있는다.》

그의 폭언에 조선녀도 참을수 없었다.

《내 집에서 내 밥 먹고 사는데 도대체 네가 무슨 권한으로 가라 말라 하느냐. 뭐, 마녀라구? 우리 동네에 재난을 몰아오는건 바로 너다. 농군들의 피땀이 젖은 회비를 받아서는 술을 처먹구 밤낮 코끝이 빨개져 돌아가는게 누구냐? 동네 젊은이들을 살리자고 부녀자들이 서명운동을 벌릴 때 붓대를 꺾구 먹즙을 내던지며 패풍을 친건 또 누구냐? 우리가 네 불망나니짓에 수그러들었더라면 이 동네 두 젊은이는 저세상에 갔을게다. 너야말로 이 동네에서 쫓아내야 할 애물이다.》

조선녀의 맵짠 반격에 부아가 터져 리성을 잃게 된 청년회장은 주먹을 움켜쥐고 《이 쌍년, 뭣이 어째!》 하고 조선녀를 때리려고 달려들었다. 이때 조선녀가 무슨 시커먼 물체를 내들고 청년회장의 가슴을 겨누며 야무지게 소리쳤다. 《손들엇! 꼼짝하면 쏠테다!》

순간 청년회장은 소스라쳐놀라 눈을 까뒤집고 손을 든채 뒤로 비실비실 피했다. 조선녀는 쓰거운 웃음을 지으며 손에 들었던 시커먼 물건을 청년회장의 발굽밑에 내던졌다. 그것은 권총이 아니라 개다리소반다리가 끊어진것이였다. 이 집에서 못쓰게 된 검은색 개다리소반의 구부러진 한쪽다리를 토막내서 실패로 쓰고있었기때문에 반짇고리에서 그것을 집어들었던것이다.

그날에 있은 한토막의 활극을 조선녀가 생동하게 재현하여 지회장들은 모두 배를 그러안고 웃었다.

《그다음 청년회장이 어쩝디까?》

리옥단이 호기심에 차서 물었다.

《어찌겠소, 창피하니 도망쳐갔지. …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한번 내세운 일은 반드시 해야 하며 또 할수 있다는거예요. 우린 야학을 계속하고있고 부녀친목회도 보란듯이 더 소리치며 꾸려나가고있어요.》

녀사께서는 생각깊이 조선녀를 바라보시였다.

맑은 옹달샘두덩에 서리가 불리듯 맑고도 고운 조선녀의 눈에서 서리발이 번뜩이였다. 평시에 살뜰하고 상냥한 조선녀에게는 이처럼 날카롭고 모진데도 있었다. 지난날 남들한테서 천대받고 속히우며 살아온 그의 가슴에는 불의에 대한 의분이 사무쳐있는것이다. 그는 불의와 부정한것을 보고는 참지 못하였다.

녀사께서는 조선녀가 꺼낸 대흥툰의 이야기를 의의있게 결속지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시였다.

《대흥툰청년회 회장은 내 보기에도 방정한 사람갈질 않아요. 그런자들과는 가차없이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도지구에 있는 여러 자치단체 책임자, 회원들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하겠어요. 그가 누구든 어느 단체에 가담했든 왜놈들을 미워하는 반일분자이면 다 단합할수 있다고 보아요. 그렇게 놓고보면 우리편은 9.999할이예요. 우리가 이길수 있는 요인은 여기에 있어요. 시간도 없는데 그 이야긴 그만하고 회합의 본안건을 놓고 합의를 봅시다. 부녀친목회를 반일부녀회로 개칭할데 대한 의견에 찬성하는 지회장들은 손을 드세요.》

일곱명의 지회장전원이 손을 들었다.

《전원이 찬성했으니 이제부터 우리는 부녀친목회간판을 걸고 내적으로 반일부녀회의 일을 해야겠어요. 아까도 얼핏 말했지만 부녀친목회와 반일부녀회는 임무와 사명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어요. 부녀친목회는 친목을 목적으로 한 한갖 자치단체라면 반일부녀회는 반일항쟁으로 조선독립을 성취할 목적을 둔 혁명조직입니다. 그러면 반일부녀회에서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가요?》

녀사께서는 조직을 확대강화하면서 마을을 애국화하고 주민들을

통일단합시킬데 대한 안도지구 혁명조직들의 일반적과업을 말씀한 다음 반일부녀회조직앞에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한평생 농사를 지으신 우리 시아버님은 그전에 나라와 가정은 한 피줄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본가아버지는 제 몸을 수양하고 가정을 구제한 다음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평정해야 한다는 〈수신제가후치국평천하〉라는 명구를 자주 외웠어요. 두 아버님들께서 하신 말씀속에는 가정을 떠나 나라를 생각할수 없고 나라를 떠나 가정을 생각할수 없다는 깊은 뜻이 담겨있어요. 여기서 가정을 구제한다는것은 돈을 모아 가정의 가난을 구제한다는 말이 아니라 가정을 애국화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부녀친목회의 행동강령 서문에도 가가호호의 부녀들이 서로 친목하면 온 마을이 화목해지고 부녀자들이 모두 애국효녀, 렬녀, 현모가 되면 나라의 온 가정이 애국화되고 백성들의 통일단합이 성취될수 있다고 밝혔어요. 이것은 녀성들의 혁명조직인 반일부녀회에서도 사업의 기초로, 씨알맹이로 삼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회장들은 정중한 얼굴빛을 하고 녀사의 뜻깊은 말씀을 머리속에, 심장속에 깊이 새겨두고있었다. 녀사께서는 이어서 조선국경지구와 동만의 주요현들인 무송현, 돈화현, 화룡현, 연길현, 장백현들과 접촉해있는 안도지구의 지정학적특성을 설명하고 장차 피끓는 청년독립운동자들이 안도지구를 거점으로 하여 반일항전을 벌릴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물론 꼭 그렇다고 단정할수는 없지만 길림조직에서 안도지구를 아주 중시하고있으니만큼 우리 반일부녀회원들은 안도지구를 애국화된 땅으로 만들어야 할거예요. 마을을 애국화하는데서는 그 어느 조직보다도 녀성조직의 힘이 크다는것을 감히 말할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이건 왜놈들과 결판을 내야 하니만큼 부녀회원들은 지금부터 반일항전준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실례로 안도의 수림지대에는 옛날 독립군들이 묻어놓은 총기류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부녀회원들이 그런것들을 알아내서 조직에 보고하면 그게 다 반일항전에 도움을 주는 일이예요. 우리의 최종목적은 나라를 찾고 좋은 세상을 꾸

리자는것이니 마땅히 무장활동에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녀사의 뇌리에는 불현듯 김형직선생님께서 림종의 침상에서 내놓으신 두자루의 권총이 떠오르시였다.

그이께서는 끝으로 안도지구에 뿔뿔이 조직되여있는 자치단체들을 모두 쟁취하여 항일애국의 기둥에 묶어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이날은 안도지구 녀성조직의 활동을 한계단 더 높이 비약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날이였다.

이 회합을 지도할 때에도 녀사께서는 적이 요동하여 심한 아픔을 느끼시였으나 내색을 하지 않으시였다.

6

이튿날 아침 강반석녀사의 일가분들이 조반상에 오붓이 둘러앉았다. 밥상에는 꼬들꼬들한 조밥양재기에 시래기된장국과 김치밖에 없는 어설픈 음식이 올랐지만 오래간만에 한식구가 모인 단란하고 따뜻한 가정적분위기로 하여 방안에는 웃음꽃이 함뿍 피였다.

그러나 인차 할머님의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덮이였다.

《우린 이렇게 뜨뜻한 아래목에서 조밥이나마 더운 국을 해서 먹고있는데…》

할머님께서는 길림감옥의 차디찬 랭돌바닥에서 고생하시는 맏손자님에 대한 생각때문에 수저를 들지 못하시였다.

조반상우에 피여났던 웃음꽃이 스러지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수저를 쥔 손들이 굳어진듯 움직이지 못하였다.

이때 느닷없이 문밖에서 주인을 찾는 소리가 들렸다.

강반석녀사께서 얼른 부엌으로 내려가 문을 여시였다. 무명덧저고리에 낡은 털모자를 쓴 젊은이가 토방아래 서있었다. 대흥툰의 윤현칠청년이였다.

《아니, 현칠이가 어떻게? 어서 들어오게.》

《사모님, 들어갈새가 없습니다. 저 오늘 새벽에 큰어머니가… 저 조선녀누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녀사께서 소스라쳐 놀라시였다. 참으로 천만뜻밖이였다. 어저께 지회장모임에 왔을 때 조선녀는 어머니가 건강한 몸으로 잘 지낸다고 했었다. 녀사께서는 믿어지지 않으시였다.

《여직 별일이 없었는데… 주무시다 돌아갔습니다.》

녀사께서는 방안으로 들어가 서둘러 덧옷을 입으시였다.

《아니, 박씨로친네가 돌아갔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밖에서 하는 소리를 들으신 리보익할머님께서도 무척 놀라와하시였다. 조선녀의 딱친구인 채련옥이도 길떠날 차비를 하였다.

《집거둠질은 내가 할테니 어서들 가봐라. 철주도 가서 조상을 해라.… 끌끌한 사위를 맞구 좋아하던 그 로친이 왜 갑자기 돌아간단 말이냐.》

리보익할머님께서 박씨에 대한 련민의 정으로 눈굽을 적시였다.

녀사께서는 대홍툰에까지 어떻게 갔는지 알지 못하시였다.

박씨의 시신은 윤현칠이네 웃방에 옮기였다. 선녀네 집이 좁아서 잔치때에도 윤현칠이네가 집을 내주었는데 이번에도 집을 내서 상가일을 보게 하였다. 결국 선녀네의 상혼대사를 다 그 집에서 치르게 되였다. 경사스러운 결혼잔치와는 달리 남의 집 장례를 위해 방을 내주는 일은 좀해서 볼수 없는것이였다. 현칠의 어머니 박씨는 고인과 자기는 동성동본의 밀양 박씨인데다 고인의 딸이 자기 아들의 생명을 구원해준 은인이라면서 장례를 자기 집에서 하자고 솔선 방을 냈다고 한다.

아래방에는 조객들이 술상을 펴놓고 앉아있고 시신을 모신 웃방에는 박치근이 조상하는 사람들에게 향불을 피워주며 상주노릇을 하고 있었다. 조선녀 어머니 박씨에게는 밭은 친척이 하나도 없는데다 갓 맞은 사위도 길림으로 가고 없는터여서 역시 밀양 박씨인 박치근이 상주노릇을 하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자제분들을 데리고 웃방으로 들어가시였다. 시신을 가리운 백포앞에 《밀양 박씨》라고 쓴 붓글과 놋술잔이 놓여있었다.

녀사께서는 자제분들에게 말씀하시였다.

《양지촌 큰어머님께 절을 드려라.》

김철주는 동생과 나란히 시신앞에 무릎을 꿇고 놋술잔을 정중히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향불을 피운 박치근이 김철주가 받아쥔 술잔에 세번 꺾어서 술을 부었다. 어린 자제분들은 례식대로 손바닥을 땅에 짚고 세번 큰절을 올리였다.

《어머니, 강반석어머님께서 오셨어요.》

죽은이와 대화를 하는 박치근이의 처량한 목소리에 따라 녀인들의 곡성이 울리였다.

녀사께서는 백포를 헤치시고 눈을 감고 자는듯이 누워있는 박씨를 내려다보시였다. 새옷을 입히고 화장을 곱게 시켜 살아있을 때보다 오히려 젊어보이였다. 박씨가 입은 옷은 녀사께서 무송에 계실 때 지어주신 흰 명주치마저고리였다. 박씨는 그 옷을 한번 입어보고 여태 간수해두고있었다.

녀사의 눈앞에 조서방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기 성씨의 본도 모르고 한평생 가까운 동무도 없이 외토리로 지낸 조서방은 죽었을 때에도 조상하는 사람이 없었다. 조객이라야 근처집 세사람뿐이고 상가음식을 보아주는 녀인도 그 집의 안사람들밖에 없었다. 그래서 십리나 떨어진 소남문거리에 계시는 녀사께서 옹근 이틀밤을 곤두새우며 상가음식을 보살펴주시였다. 그때 곡을 하는 박씨의 얼굴은 살이 쭉 빠지고 피기가 없어 산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해골같이 보이였다. 이미 그의 몸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것 같았었다. 장례날에 상여군들이 흥얼거리던 타령은 또 얼마나 구슬펐던가.

이승에서 고생많던 조서방
저승에 가서 복락을 누리소
초로인생 무상토다
어허 어허 어허야

조서방은 지금 양지촌의 으슥한 산속에 누워있다. 그 건너편 언덕에는 김형직선생님의 묘소가 있다. 느티나무 한그루가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넋을 새긴 애국의 표대처럼, 기발처럼 서있는 묘소…

선생님의 장례식날에 조서방도 서럽게 울었다. 모자라는 사람이였지만 그도 자기를 사람대접해주고 병나면 귀한 약을 써주신 선생님의 은혜를 알고있었던것이다.

녀사께서는 허리를 굽혀 박씨의 얼굴을 쓸어만지시였다.

아, 저승과 이승의 거리는 멀다더냐, 가깝다더냐. 한발 내디디면 저승이요, 한발을 물러서면 이승이 아닌가. 하늘도 무심하다, 이제 사위를 얻고 재미를 붙이게 된 녀인을 데려가다니…

조서방이 죽었을 때와는 달리 지금 아래방에는 조객이 가득 넘쳐나고 부엌에는 온 동네 녀인들이 다 드나들며 상가일을 돕고있었다. 녀사께서는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시였다.

《사모님! 이젠 나오세요.》

녀사께서는 허리를 펴고 고개를 돌리시였다. 베치마를 입고 머리에 흰 댕기를 드린 조선녀가 채련옥의 손을 잡고 서있었다.

《선녀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사모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닌 행복하게 웃으며 돌아갔어요. 바로 어제 저녁에도 성주 어머니 덕에 너희들이 남부럽지 않게 성례를 치렀으니 난 이제 죽어두 한이 없다구… 그 사람(곽명준)도… 빨리 길림에 가서 철주 형님 옥바라지를 해드리라는 우리 어머니의 독촉을 받구… 서둘러갔는데…》

오히려 제편에서 녀사를 위로해드리던 조선녀는 끝내 오열을 터뜨리였다.

《얘 선녀, 그만 그쳐.》

채련옥이가 조선녀의 들먹이는 어깨를 흔들며 손등으로 눈굽을 훔쳤다. 채련옥, 채주선, 조선녀는 무송의 3대미처녀였고 핵심반일부녀회원이였다. 이제 조선녀까지 머리를 얹었으니 그들은 모두 집안의 주부들이 되였다.

(채주선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녀사께서는 채련옥이와 조선녀를 갈마보며 련상적으로 채주선을 생각하시였다.

맏아드님께서 반동군벌들에게 체포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비상비밀회합을 하던 날 무송에 남아있게 된 그가 한별동지의 사진을 가지고

싶다며 서럽게 흐느끼던 일이 새삼스레 가슴을 허비였다.
《동서는 선녀와 동무해서 앉아있게. 내 부엌엘 좀 나가보겠네.》
대사집에 가면 부엌일을 돕는데 습관된 녀사께서는 아래방을 지나 부엌으로 내려가시였다. 10여명의 녀인들이 물김이 뽀얗게 서린 부엌에서 지짐을 부친다, 국수반죽을 한다, 술상을 차린다 하며 분주히 돌아쳤다.
녀사께서 안도에 도착하신 첫날 밤 급성위경련으로 배를 그러안고 야단했던 정업툰처녀 안선옥, 마춘욱이네 려인숙에 옷을 지으러 왔던 홍주향, 박치근의 안해, 윤현칠의 어머니… 거의 다 한두번씩 만나보신 반일부녀회원들이였다. 정업툰의 지회장 김순애도 보이였다.
《수고들 하십니다.》
녀사께서 팔소매를 걷어붙이며 모두거리로 인사를 하시자 부엌일을 하던 녀인들이 일제히 고개들을 돌리였다.
《아이, 어머니 오셨네.》
부뚜막에서 메밀가루를 반죽하고있던 안선옥이가 가루묻은 손을 들며 달려갈듯 한발을 내짚었다.
《사모님, 부엌엔 어째 들어오시오다, 일손이 너무 많아서 걱정인데.》
부엌문가에서 풍로불을 마주하고 앉아 지짐을 부치고있던 박씨가 일어서서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씻었다.
《선녀의 잔치때도 이 집의 신셀 많이 졌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도와주니 정말 고마와요.》
《원, 별말씀을… 우리 현칠이를 살려주신 사모님과 선녀아재의 은혜에 비하문사 아무것도 아니지오다.》
강반석녀사보다 두살아래인 박씨는 열일곱살에 아들을 낳고 그 이듬해에 남편을 잃은 초년과부였다.
《건넌집 형님(조선녀의 어머니)이 늘 사모님의 은혜를 잊을수 없다구 하더니… 글쎄 하루밤새 갑자기 돌아갈줄이야…》
박씨는 옷고름으로 눈굽을 훔치더니 청년회장에 대해 욕을 해댔다. 며칠전에 부녀친목회를 해산시키라고 패풍질을 한 청년회장이 어제밤에 또다시 술에 취해가지고 조선녀네 집에 달려들어 부녀친목회인

지 뭔지 재수대가리 없는 요사스러운 계집단체를 당장 해산해버리라고 헤살을 부렸다고 한다. 그뿐이 아니라 조선녀모녀더러 래일중으로 짐을 싸가지고 대흥툰에서 나가라고 주정질을 하였다는것이다.

조선녀 어머니가 주정질하는 청년회 회장에게 밤중에 외간남자가 술에 취해 녀자들집에 와서 무슨 무례한짓이냐고 되게 꾸짖어 겨우 쫓아버렸다. 그다음 인차 자리에 들었는데 새벽에 깨여나서 보니 박씨의 몸이 싸늘하게 굳어져있었다는것이였다. 의학에 무식한 녀인들이지만 박씨의 급사를 청년회 회장의 주정질과 련관시켜보고있었다.

녀사께서도 원래 심장이 약했던 박씨가 그밤에 갑자기 놀래서 자다가 심장마비를 일으키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드시였다.

마침 이때 조객들의 음식대접을 주관하던 사람이 새문가에 와서 조희재선생님이 조상하러 왔으니 술상을 잘 차려야겠다고 하였다. 그 소리에 녀인들이 수군덕거리며 방안을 들여다보았으나 조희재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한 박씨만은 방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어라 혼자소리로 중얼거리였다.

방안에 앉아있던 조객들은 대감님 대령한듯 일제히 일어나서 허리를 굽석거리며 인사들을 했다.

조희재는 농민협회 회장과 청년회 회장을 거느리고 왔다. 그들이 고인을 조상하러 웃방으로 올라가자 상주의 소임을 맡은 박치근은 무우를 먹고 체한 사람처럼 찌뿌둥해서 인사도 하지 않고 향불을 피우고 조희재에게 술을 부었다. 조희재는 손에 든 술잔을 향불두리로 세번 돌리고나서 정중히 큰절을 세번 하였다. 농민협회장은 조희재를 따라 절을 하면서 《어이구, 어이구.》하고 구슬픈 소리로 곡을 하였다. 조희재와 농민협회 회장은 조선바지저고리를 입고 청년회장은 양복차림을 하였다. 그는 큰절을 하지 않고 현대식으로 묵도를 하였다.

조상이 끝난 다음 조희재가 박치근을 돌아보며 넌지시 한마디하였다.

《임자가 상주노릇을 하느라 수고하누만.》

《이 집엔 밭은 친척이 없습니다. 이 집 딸은 내 생명의 은인이니만큼 제가 응당 상주노릇을 해야지요.》

박치근은 찌뿌둥한 얼굴로 뻣뻣하게 대답하였다. 깔끔하게 면도질을 해서 그의 턱과 관자노리가 푸릿푸릿했다.

조희재는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였다.

《이 집 딸이 어디 있나? 좀 불러오게.》

박치근은 조희재의 손에 들려있는 부조봉투를 힐끗 스쳐보고 조선녀를 데리러 갔다. 얼마후 조선녀가 들어왔다. 베치마를 입은 그 녀자의 얼굴은 만첩으로 핀 목련화처럼 희고 단아하였다. 소복단장을 해도 그래, 베치마를 입어도 그래, 지어 누덕누덕한 허드레옷을 입어도 조선녀의 얼굴은 아릿다왔다.

《바쁘신 선생님이 모처럼 조상을 해주시니 감사하고 황공스럽습니다.》

조선녀는 조희재와의 관계를 잘 가져야 한다신 강반석어머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정중히 인사를 하였다.

《모친을 잃으니 얼마나 서럽겠나. 허나 너무 상심하지 말게. 일전에 호적등본을 보니 선녀네가 우리와 같은 창녕 조씨더구만. 무리조자를 쓰지… 이거 많지 못하지만 받아두게.》

조희재가 선녀의 손에 부조봉투를 쥐여주며 아버지다운 사랑이 담긴 부드러운 목소리로 위로하였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윽고 아래방에 세사람분의 술상이 차려졌다. 다른 조객들은 자리를 피해 멀찌감치 물러앉았다.

《상가집에 와선 술을 몇잔 드는게 도리이네. 잠간 앉았다 가세.》

조희재가 두리상을 마주하고 앉자 농민협회장과 청년회장도 상앞에 올방자를 틀었다.

산나물찬과 고기붙이안주를 정성스레 챙긴 술상이였다.

술이 몇잔 들어가자 농민협회 회장이 청년회장을 돌아보며 빈정거리는 말투로 불쑥 물었다. 《여보게, 청년회장은 한때 예수를 믿지 않았나?》

《예수를 믿다니요?》

《조상할 때 묵도를 해서 묻는 말일세. 그게 그리스도교적인 조상

이지.》

그러자 청년회장은 관혼상제도 낡고 진부한 봉건식으로 하지 말고 신식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농민협회장은 어이어이하고 곡을 하면서 절을 하던데 그게 허례허식이고 또 고상하지도 못합니다. 눈물을 흘리지도 않으면서 어이어이하고 곡을 하니 어리광대처럼 우습기도 하지요.》

《아하, 이 사람 보지. 아무것도 모르누만. 그게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 위로하는 소릴세. 자식을 이승에 남기고 저승에 간 고인의 아픈 마음을 생각하고 함께 신음소리를 내주는걸세. 말하자면 자비의 신음소리요.》

공리공담에 버릇된 이들은 상가집에 와서도 입씨름을 하였다.

그때까지 회장들의 실없는 공담을 맞갖잖게 듣고있던 박치근이 시신방에 앉아 이죽거리였다.

《상가집에 와서 어이어이하며 고인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동네청년이 죽을 고비에 들었을 때는 어째 위로의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죽으라는 말을 했나요?》

《?!…》

술상에 마주앉은 세사람이 거의 동시에 눈을 흡뜨며 박치근을 올려다보았다.

박치근은 그들에게 눈총을 쏘며 뇌까렸다.

《그런 사람이 어이어이 곡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석방운동을 하는 녀자들보고 암닭이 운다느니, 망한다느니 하며 패풍을 쳤소? 청년회장, 당신은 심지어 우리를 살려준 조선녀아주머니더러 마녀라고 했다지? 우리를 살려준게 그렇게도 원쑤같소? 어제 밤엔 또 무슨 주정질을 했소. 더럽소, 더러워. 낯가죽도 두텁지.》

《여보게 치근이, 상주가 조상하러 온 사람에게 야료를 하면 상문이 드네. … 원, 사람두…》

아래방구석에 앉아있던 조객들중 나이지긋한 사람이 당혹해하며 박치근에게 손을 내저었다. 그러거나말거나 박치근은 주먹으로 방바닥을 치며 벌떡 일어섰다.

《무슨 체면에 이 집에 와서 그따위 사설질을 하오. 내 눈에서 불

이 나니 싹 사라지오!》

《아하, 저 사람이 실성을 했나. 어찌 저렇게 실성한 놈을 시신방에 앉혀 향불을 피우게 하는가.》

농민협회장이 턱을 떨며 소래기를 내질렀다.

《내가 실성을 했다? 나를 죽이려고 한 이 개놈들아, 싹 사라져라! 저 선녀 어머니는 바루 네놈들때문에 죽었소!》

박치근이 농민협회 회장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마주 소리쳤다. 조객들이 경악실색하여 시신방에 뛰여올라가 란동을 부리는 박치근을 만류하였다. 부엌일을 돕던 박치근의 안해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줄을 몰라했다.

《어허, 과연 계집무리가 성하더니 동네가 망해가누나.》

조희재가 옷을 털며 일어나서 개탄을 하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농민협회 회장과 청년회 회장도 박치근에게 욕을 해대며 일어섰다.

박치근은 방을 나서는 그들에게 주먹질을 하며 그냥 고함을 내질렀다.

조선녀가 웃방으로 달려가 박치근에게 제발 성을 삭이라고 사정을 하고 그의 안해 송진녀는 당신은 술먹고 입건살 못해서 죽을번 했는데 아직도 채심을 못하고 주정질을 하느냐고 울면서 푸념을 하였다.

아래방에서 조객들의 음식시중을 들던 윤현칠이도 웃방으로 올라가 박치근에게 고까운 소리를 했다.

《형님은 술만 들어가면 이 모양이요. 향불은 내가 피울테니 옆집에 가 누우라요.》

《이놈아, 내가 술주정을 하는줄 아느냐? 나는 술을 한잔도 안 마셨다.》

기실 박치근은 술을 마신것 같지 않았다. 그는 술기운에 란동을 부린것이 아니라 지금껏 가슴에 응어리졌던 조희재네 패들에 대한 불만과 원한의 감정이 폭발된것이였다.

박치근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리성적인 사고를 하게 되였을 때 자기가 저지른 일을 놓고 몸서리를 쳤다. 그는 최근 리영배, 김철희의 보증으로 반제청년동맹원이 되였다. 반제청년동맹원의 첫째가는 임무는 주민들을 단합시키고 나쁜 길로 가는 사람들을 교양설복하여 옳은 길로 이끄는것이였다. 조희재산하의 청년회를 배척할것이 아니

라 청년회에 들어가 모든 청년들을 애국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오늘 다른 집도 아니고 상가집에서 무슨 망동을 부렸는가.

반제청년동맹에서 출맹될수도 있었다. 그는 사람들속에 더는 얼굴을 내밀수가 없어 자기 집에 돌아와 머리를 싸매고 누워 끙끙 앓음소리를 하였다.

7

이틀밤을 곤두새우며 상가일을 도운 강반석녀사께서는 마지막뒤치닥거리까지 말끔히 해주시고 중낮이 지나 흥륭촌으로 돌아오시였다. 그동안 야학은 리영배, 김철주들에게 맡기시였다.

《에구, 증손이 에미가 이제야 오는구나. … 밤을 꼬박 새웠을테지.》

리보익할머님께서 녀사의 피로한 안색을 살피며 혀를 차시였다.

이웃에서 상사가 나면 찾아가서 힘들고 궂은일을 맡아하는 맏며느리의 성미를 잘 아는 할머님이시였다.

《몸을 돌보거라. 아에미의 얼굴이 말이 아니다. 그러다 누우면 어쩌겠느냐.》

《원 어머니두, 상가일을 좀 돕기로 눕기까지 하겠어요.》

녀사께서는 할머님을 안심시키고 그사이 야학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다며 걱정하시였다.

《야학걱정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 아에미가 상가집에 간 그날부터 촌장이 이 집을 내라고 야단을 하고있다. 정말 하루도 편한 날이 없구나.》

《이 집을 내다니요?》

녀사께서도 깜짝 놀라시였다.

《본디 이 집은 보위단집이였는데 사정이 생겨 다시 써야 한다누나. 무한장인지 뭔지 그놈의 명령이니 할수 없다는거야. 이제 보니 그 무한장놈이 천하 고약한 놈이다. 제 입으로 이 집을 수리해서 쓰라고 해놓고 일껏 수리해놓으니 자기네가 쓰겠다고 도로 빼앗아가져?

변학도는 어디에나 있구나.》

리보익할머님께서는 격분에 치를 떠시였다. 사실 이 집은 보위단 도단장 무한장의 인가증을 받고 수리한것이였다. 도단장의 인가를 받을수 있게 된데는 그의 아들 무태극의 도움이 컸었다. 그런데 인가증에 찍힌 도장의 즙이 마르기도 전에 집을 내라고 한단 말인가.

《그래, 촌장한테 뭐라고 했나요?》

《집을 내도 아에미가 온 다음에 의논해보겠다고 했다.

내가 당장 무한장놈을 찾아가 대들이판을 벌리자고 했는데 동네사람들이 말려서 그만두었다.》

할머님께서 무한장에게 찾아가려고 할 때 마침 물동에 있는 최두현이라는 로인이 길을 막으며 그놈한텐 찾아가야 만나지 못한다고, 자기 집에 와서 같이 살자고 하였다는것이다. 한편 어린 자식을 하나 두고 호젓하게 사는 어느 늙은 내외분이 자기 집 웃방을 야학방으로 내겠다면서 악귀같은 무한장하고는 대상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한다.

일가분들을 자기 집에 모시겠다고 하는 최두현은 야학방에 첫날부터 열심히 다닌 핵심반일부녀회원인 김복진의 시아버지이고 야학방을 내겠다는 집은 소년야학생 류영협의 아버지였다.

녀사께서 무릎을 짚고 분연히 일어서시였다. 촌장을 만나보시려는것이다. 김춘봉은 집에 있었다. 그는 녀사께서 찾아오신 까닭을 짐작하고있으면서도 무슨 일로 찾아왔는가고 딴전을 부리였다.

방안에는 웬 젊은이가 앉아있었다. 방금 술추렴을 했는지 두사람의 얼굴이 다 불카해졌는데 젊은이는 잔등을 비스듬히 벽에 기댄채 고슴도치털같은 뾰족한 나무꼬챙이로 이발짬을 쑤시고있었다. 약간 불거져나온 그의 두눈은 마치 무엇에 놀랜 눈처럼 똥그랬다. 그가 바로 일전에 김춘봉이가 왕방초에게 소개한 성근식이라는 청년이였다.

《도단장이 집을 내란다고 했다는데 믿어지지 않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고 왔어요.》

녀사께서는 부엌문안으로 들어서서 말씀하시였다. 김춘봉은 성근식을 흘깃 스쳐보고 헛기침을 몇번 하더니 자못 침중하게 뜨직뜨

직 말하였다.

《예, 도단장님의 분부이니 이 촌장도 어쩔수 없구려… 흥륭촌보위단원들의 수가 더 많아져서 병실이 모자란 모양입니다. 시국이 점점 어수선해지니 보위단을 더 늘쿠는가봐요. 인사변동도 많고요.》

김춘봉은 이런 때 관헌들이 하라는대로 고분고분 말을 들어야지 큰일난다고 하였다.

《참, 어제밤 류호훈장이 경찰서에 잡혀간걸 아는가요?》

《류호선생이 잡혀가단요, 무슨 일로요?》

녀사께서는 소스라쳐 놀라며 반문하시였다.

《예, 경찰서 순사들이 잡아갔습니다. 왕방초부도단장님이 경찰서서장으로 된건 알고있나요?》

그것도 녀사께서 처음 들으시는 소리였다. 김춘봉은 전 서장은 나쁜짓을 하고 도망간 부서장때문에 철직되고 왕방초는 부도단장 겸 경찰서장으로 되였다고 마치 자기가 승급이 된것처럼 우쭐렁거리였다.

《류호선생이 무슨 일로 체포됐는가요?》

녀사께서는 왕방초의 인사조동보다도 류호의 일이 더 궁금하시였다.

《그 령감네 집에 소학교교과서들이 여러권 있었는데 거기에 아라사혁명을 소개한 글이 있었다는것 같아요. 그 소죽은 귀신같은 령감이 알고보니 공산당패거리와 내통하고있는 모양입니다. 나는 원래 훈장의 아들놈이 세금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질을 할 때 공산당물이 든 놈이라 생각했소. 매사에 주의해야지 언제 모가지가 날아날지 모릅네다.》

김춘봉은 집을 내놓는데 대해 두말하지 말라는 뜻에서 마지막말에 목이 날아난다는 말을 덧붙이였다.

녀사께서는 한층 더 놀라시였다. 류호의 집에서 발각된 로씨야 10월혁명을 소개한 소학교교과서라면 혹시 자신께서 준 교과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였다. 5학년지리교과서에 로씨야의 위치, 면적, 인구, 수도이름을 소개하고 로씨야는 1917년 2월혁명에 의해 짜리정부가 전복되였으며 그이후 레닌의 지도밑에 로씨야로동계급이 1917년 11월 7일(구력 10월 25일) 사회주의혁명을 수행

하여 공농쏘베트국가를 창건하였다고 간단히 설명된 부분이 있었다. 사회주의에 대해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글은 없었다. 그 교과서는 봉천 교육부 검열국의 검열을 거친것이였다.

《류호선생네 집에서 발각됐다는 소학교교과서는 내가 참고해서 보라고 준 책 같습니다. 그건 봉천교육부의 승인을 받은겁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을 잡아간단 말인가요?》

《뭐라구요? 아주머니가 준거라구요?… 난 아들놈이 준거라구 생각했는데…》

김춘봉이 화닥닥 놀라며 성근식을 돌아보았다. 성근식은 식곤증을 느끼는 사람처럼 하품을 하며 스르르 눈을 감았다. 류호의 집에 그런 교과서가 있다는것을 경찰서에 고발한 사람이 성근식이라는것을 김춘봉이도 알지 못했다. 그것은 그가 김춘봉을 통해 왕방초와 련계를 맺은 이후에 이룩한 첫 공적이였다. 이미 오래전부터 류호와 알고있는 사이인 성근식은 이따금 그의 집에 놀러다니는 과정에 례의 소학교교과서를 보게 되였으며 그 교과서를 가져다준 임자가 강반석녀사이시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녀사께서는 집을 내게 된 일보다도 류호의 문제가 더 급하게 되여 김춘봉의 집에 지체하실수가 없었다. 녀사께서 부엌문을 열고 나가시려는데 김춘봉이 《가만!》 하고 새되게 소리지르며 부엌쪽으로 급히 걸어나왔다.

《어제밤 류호령감이 붙잡혀갈 때 리옥단이년도 같이 붙들려갔소. 야학방에서 그년이 나한테 악담을 퍼부은 일이 생각나겠지요. 그런 년놈들은 모두 천벌을 받습네다.》

김춘봉이 얄팍한 입술새로 빨간 혀끝을 내밀며 들창코를 벌름거리였다. 녀사께서는 눈앞이 아찔하시였다. 화는 홀로 다니지 않는다더니 흥륭촌반일부녀회 지회장인 리옥단이까지 잡혀갔단 말인가?

《그러니 촌장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한 일로 옥단이가 잡혀갔단 말인가요?》

녀사께서는 의분에 치를 떠시였다.

《그게 어디 나한테만 관계되는 일이요? 그년이 도단장과 부도단장이 파직된다고 만장판에서 떠들지 않았는가. 그 헛소문을 그년이

퍼뜨렸단 말이요. 내 그때 말했지요, 그년은 릉지처참을 당한다구. 난 빈소리를 하지 않소.》

녀사께서는 촌장과 말씨름을 하실 사이가 없었다. 그이께서는 좀 더 구체적인것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류호의 집을 방문하시였다.

권씨는 머리를 싸매고 방에 홀로 앉아있었다. 그 녀자는 잡혀간 리유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는 녀사를 보자 다짜고짜로 부녀단체를 내오면 동네가 망한다고 한 자기 령감의 말이 옳다고 하며 제발 부녀친목횐지 뭔지 해체시켜달라고 하였다. 리옥단의 집을 찾아가니 어리숙한 그의 남편도 갑자기 며칠새에 흥륭촌에 재화가 겹쳐서 들이닥친것을 보면 류호선생의 음양론이 옳은것 같다고 하였다.

녀사께서는 기가 막히시였다. 말로써는 이들을 납득시킬수 없는 일이였다. 그이께서는 그길로 곧장 현소재지로 향하시였다. 마음이 급해서인지 그 먼길을 힘든줄도 모르고 단걸음에 가시였다. 상가집에서 이틀밤이나 곤두새우신 피로도 가뭇없이 사라졌다.

경찰서 접수실에 앉아있던 당직순사가 가쁜숨을 몰아쉬며 접수구앞으로 다가서시는 녀사를 의아히 내다보았다. 녀사께서 찾아온 용건을 말씀하시자 그는 결론권을 가진 서장, 부서장이 다 새로 취임된 사람들인데 어디 나가고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 누구든지 좋으니 이 사건에 대해 알만한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감찰과장의 방으로 출입증을 떼줄테니 들어가보시오.》

당직순사는 땀에 흠뻑 젖고 해쓱해지신 녀사의 얼굴색을 보고 하도 가긍해서인지 순순히 출입증을 떼주었다.

감찰과장의 방은 십자형복도로 된 동쪽켠복도 맨끝이였다. 그이께서 손기척을 하고 들어가시자 검은 경찰제복에 세개의 별을 단 사람이 출입문대각선방향의 누런 탁상을 마주하고 앉아있었다.

그는 출입증을 받아쥐고 녀사의 얼굴을 바라보며 《어떻게 왔소?》하고 심상히 물었다.

녀사께서는 찾아온 사연을 말씀하고 봉천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교과서를 가지고있는것이 무슨 죄가 되여 잡아가두는가고 항변하시였다. 그리고 세상일에 무식한 촌녀인이 촌장에게 싫은 소리 몇마디 한

것이 무슨 죄가 되는가고 들이대시였다.

《아라사는 공산당의 나라야. 공산당은 우리의 적이야. 공산당의 나라를 아이들에게 배워주니 나쁘단 말이야.》

감찰과장은 중국말을 서툴게 하는 녀사를 촌녀자로만 알고 옙도 쓰지 않았다.

녀사께서는 그에게 필기도구를 요구하여 이렇게 쓰시였다.

《류호선생이 가지고있는 교과서에는 쏘련을 좋은 나라로 선전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다만 어떤 나라인가를 해설한 글이 있을뿐이다. 그 교과서에 나쁜 글이 없기때문에 봉천교육부에서 교육용으로 쓰도록 허락했다. 그리고 류호선생이 가지고있는 교과서는 내가 준것이니 잡아가두겠으면 나를 가두라!》

당당한 항변이 울리는 녀사의 옥필에 감찰과장의 눈이 휘둥그래졌다. 무지렁이 촌녀자로 숙보았던 녀사의 학식과 초연한 품격에 놀랐던것이다. 때마침 출입문이 열리더니 뜻밖에도 현장이 멋스럽게 코수염을 기른 중년신사와 함께 들어왔다. 탁상우에 두팔을 늘어뜨리고 앉아있던 감찰과장이 갑자기 범을 본 사람처럼 와들쩍 놀라며 일어나서 거수경례를 하였다.

《이게 감찰과장의 방인가?》

방안을 둘러보며 언짢은 표정을 지은 중년신사는 방안에 서계시는 녀사를 가리키며 웬 녀자인가고 물었다. 한껏 긴장해진 감찰과장은 자기 방에 사민이 찾아온 사연을 떠듬떠듬 설명하였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녀사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덧붙여 말씀하시였다. 현장과 감찰과장이 다 중년신사앞에서 절절매는것으로 보아 그가 보통권력자가 아니라는것을 직감하시였다.

《석방시키라! 왜 쓸데없이 사람을 가두는가? 왜 자꾸 소동을 일으키게 만드는가? 누가 이따위짓을 했는가?》

중년신사의 하얀 얼굴이 무섭게 이그러지며 코수염이 털벌레처럼 움씰거렸다. 감찰과장은 사지를 떨면서 새로 임명된 왕서장이 지시한것 같다고 하였다.

《전번서장이 떨떨해서 철직시켜버렸는데 새 서장이란것두 또 그 모양인가? 안도의 민심이 흉흉하다는 말이 있어 내려와보니 과연 관

헌들의 전횡이 말이 아니야.》
중년신사는 현장을 돌아보며 고개를 내저었다. 그는 동북군사령부 인사국 부국장이였다. 교통이 불편한 이 산골현에 그처럼 큰 인물이 내려와보기는 처음이였다. 이 인물의 말 한마디면 현장이나 현경찰서장따위는 즉시 철직해임될수 있었다.
《서장은 어디 갔는가?》
《보위단 훈련장을 돌아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는 보위단 부도단장을 겸하고있습니다.》
《과장이상급 관헌들은 대기하고있으라 했는데 왜 나갔는가?》
《그 지시가 늦게… 서장은 부국장님이 우리 현에… 왕림하신것을 모르고…》
감찰과장은 턱주가리가 떨리여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이제 네가 나가서 교과서때문에 체포된 령감을 당장 석방시키라!》
부국장은 감찰과장의 가슴에 손가락질을 하며 성나서 소리질렀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류언비어를 퍼뜨려… 민심을 소란케 한 그 녀자는… 어떻게?…》
감찰과장은 여전히 턱을 떨며 떠듬거리였다.
《민심은 너네들이 소란시킨다. 보위단 도단장, 부도단장이 파직된다는 말을 한게 무슨 류언비어야. 정말 산골에 들어앉아 황제노릇들을 한단 말이야. 잡으라는 공산당은 못 잡구 촌녀자를 가두어넣어? 두사람 다 석방시켜! 그리고 보고하라! 알겠는가. … 엉?》
《예, 알겠습니다.》
두다리를 떨고있던 감찰과장은 거수경례를 하고 황급히 출입문밖으로 뛰쳐나갔다.
녀사께서도 인사국 부국장에게 인사를 하고 감찰과장을 따라나서시였다. 그이께서는 꼭 꿈을 꾸는것 같으시였다. 살아가다 일이 이렇게 잘되여보기는 처음이였다.
녀사께서는 경찰서정문에서 얼마간 떨어져있는 큰길목 느티나무밑에서 류호와 리옥단을 기다리시였다.
10여분 지나서 검정두루마기를 입은 류호가 경찰서 정문으로 비척

비척 걸어나왔다. 그는 침울한 표정을 하고 큰길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다가 강반석녀사를 띠여보고 우뚝 서버렸다. 얼마후 흰 무명치마저고리를 입은 리옥단이가 정문으로 걸어나왔다. 그 녀자는 류호와는 달리 뒤를 힐끔힐끔 돌아보면서 거의 달리다싶이 종종걸음을 하였다. 마치 뒤에서 순경들이 자기를 다시 잡으러 올가봐 겁을 내는듯 하였다. 그도 녀사를 띠여보는 순간 몹시 놀라는듯 하였으나 총알처럼 달려와 녀사의 품에 안기였다.

《사모님, 어떻게 여기 와계셔요?》

리옥단은 어깨를 떨며 흐느끼였다. 류호가 천천히 다가오고있었다.

《선생님,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녀사께서는 흐느끼는 리옥단의 어깨를 애무하면서 련민에 젖은 눈으로 류호를 바라보시였다.

《하루밤 류치장안에 있었는데 고생이랄게 있소이까? 한데 부인님이 어떻게?》

류호도 영문을 몰라했다. 서울과 평양을 돌아다니며 계몽애국운동을 할 때 석달동안 옥살이를 해본 그에게 있어서 경찰서 류치장은 생소하거나 무서운것이 아니였다.

그러나 리옥단은 남정들처럼 활발한 녀자이고 반일부녀회 지회장이지만 아직 한번도 류치장의 고통을 맛본적이 없는 이제 스물한살의 촌 새각시였다.

《자, 집으로 돌아갑시다. 가면서 이야기하자요.》

녀사께서 리옥단의 어깨에 손을 얹은채 큰길로 돌아서시였다.

녀사께서는 류호와 리옥단을 구원하였으나 보위단놈들에게 집을 빼앗긴 자신이 당한 억울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시였다. 그들에 대해서만 줄곧 마음을 쓰다보니 인사부국장을 만난 그 좋은 기회에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못하시였다.

하여 이튿날 녀사의 일가는 최두현의 집으로 거처지를 옮기고 야학방은 류영협소년의 집을 쓰기로 하였다.

만약 녀사께서 인사국 부국장에게 집을 빼앗긴 그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였을가?

그것은 알수 없는 일이였다. 다만 분명한것은 인사부국장이라는 사람도 인민의 편은 아니라는것이다. 가재는 게편이다. 그는 안도현 주민들의 어수선해진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류호와 리옥단을 석방시키게 했던것이다.

그는 닷새동안 귀빈대접을 받으며 편안히 지내다가 숱한 뢰물을 걷어가지고 돌아갔다.

그로부터 며칠후 만주의 여러 신문들에 동만지구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던 공산당의 적색폭동이 산불처럼 번져지고있다는 경이적인 소식이 실리였다.

이 급변된 동만의 정세는 아무나 마구 잡아가두어넣는 폭압행위를 금지하라고 한 인사국 부국장의 엄한 지시가 저절로 해소되게 하였다. 《간악한 착취자 지주, 자산가들을 모조리 타도분쇄하라!》라는 구호를 웨치며 류혈전을 벌리는 적색폭동소식은 안도의 통치자들도 일반주민들도 다같이 긴장하게 만들었다.

제 4 장

1

안도현 소재지와 농촌마을 주변들은 누런 보위단복을 입은 사람들로 한벌 뒤덮였다. 어떤 곳에서는 새까만 경찰복을 한 무리들이 분주히 싸다니였다. 동만지구에 일어난 적색폭동의 세찬 불길이 안도에로 번져올가봐 무한장과 왕방초를 비롯한 악질관헌들이 보위단과 경찰들을 몽땅 풀어 마을을 참빗처럼 훑고 산속을 샅샅이 헤치며 일대 검문검색을 벌리게 한것이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미타하게 생각되는자들은 즉시에 체포하여 심문을 해보고 적색요소가 다소라도 나타나면 장기형감옥소에 처넣거나 죽여버리게 하였다. 현안의 여러 처서판과 일부 농촌지역들에서 날마다 젊은이들이 폭동음모가담자라는 혐의를 받고 잡혀갔다. 살인광인 왕방초가 현장을 싸다니며 이 일을 총지휘하여 모든 사람들이 전전긍긍하였다.

《보라! 나의 예견이 맞지 않는가. 주민의 태반이 다 폭동음모가담자들이다.》

이러면서 왕방초는 적색폭동의 주모자, 주역자들이 조선사람들이므로 송강, 대홍툰, 흥륭촌을 비롯한 마을들과 물북, 물남주변 림지들에서 특별히 검문검색을 강화해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흥륭촌 촌장 김춘봉은 무슨 경사라도 난것처럼 성수가 나서 늘 벌쭉거리며 돌아갔다. 그는 이 기회를 타서 별의별 세금을 마음대로 받아내여 돈주머니를 불구려고 했다. 세금에 대해 조금이라도 불평을 부리면 적색폭동과 연줄이 있는자로 목책에 적어놓고 왕방초에게 고발하여 잡아가게 하였다. 김춘봉의 고자질로 하여 흥륭촌에서만도 여섯집이나 잡혀갔다가 세금을 물어내고야 놓여나왔다.

강반석녀사께서 일가분들과 함께 와계시는 최두현이네 집에도 벌

써 여러번 보위단과 경찰서의 검색조들이 예고없이 들이닥쳐 외지의 손님이 와있지 않는가를 알아보고 때로는 가택수색까지 하였다.
최두현이네 집은 넓은 살림방이 세칸이나 되였다. 아래방은 주인집에서 쓰고 가운데방은 베틀을 놓고 맨 웃방에 일가분들이 거처하였다. 일가분들이 이 집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부터 채련옥은 또다시 본가집으로 가고 리보익할머님께서는 두 집을 엇갈아 다니며 며느리들을 돌보아주시였다.
녀사께서는 여전히 낮에는 삯바느질과 삯빨래를 하며 혁명조직을 지도하고 밤에는 야학방에 나가 글을 가르치시였다.
야학방에서 돌아온 다음에도 녀사께서는 쉬지 않고 베틀에 앉아 천을 짜시였다. 주인집에서 잠자리에 들면 베틀을 멈추고 조용히 책을 읽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새벽에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베틀에 앉아 책을 읽거나 집일을 하시여 최두현의 며느리 김복진은 후날 녀사께서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시는지 한번도 본 일이 없다고 회고하군 하였다.
이즈음 녀사께서는 밤마다 중문으로 된 고리끼의 장편소설《어머니》를 읽으시였다. 그 책은 김철주가 송강 고서적방에서 구해온것인데 가택수색에 걸리면 말썽을 일으킬수 있기때문에 뚜껑에는 《닭기르는 방법》이라는 가금책표제를 붙이고 궤짝 널판밑에 감추어두고 보시였다. 녀사께서는 맏아드님으로부터 이미 몇년전에 고리끼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직접 읽어보기는 이때가 처음이시였다. 이 며칠새는 검색바람이 너무 심해져서 책읽는것도 삼가하시였다.
녀사께서도 동만땅을 뒤숭숭하게 하는 적색폭동소요로 하여 몹시 불안하시였다. 특히 맏아드님의 만기출옥날자가 가까와오는 때에 동만각지에서 류혈극이 벌어지고있어 마음을 조이시였다. 신경이 곤두선 반동군벌들이 감방안에 있는 사상범들에게까지 무서운 탄압을 가할것 같은 예감이 드시였다.
녀사께서 보기에 적색폭동은 승산이 없는 무모한 폭동이였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며칠전에 핵심조직원들의 긴급회의를 열고 조직적인 지시가 없는 이상 그 어떤 폭력운동에도 말려들지 말데 대한 주

의를 주시였다.

이날도 흥륭촌에서는 보위단원들이 장총을 메고 새벽부터 싸다니며 가택수색과 통행단속을 하였다.

녀사께서 방금 조반상을 물리고 부엌에서 김복진이와 함께 설겆이를 하고계시는데 문득 마당에서 《두현령감 있소?》하고 부르는 거친 목소리가 들리였다.

《에구, 촌장령감이 또 왔구나.》

가시물에 그릇들을 닦고있던 김복진이 낯을 찌프리며 중얼거리였다. 이제는 촌장의 발자국소리만 들어도 모두 머리끝이 으쓱해하였다. 세금과 부역을 독촉하고 지주와 관료들의 위협적인 공문을 조달하는것이 그 사람의 의무이기때문이였다.

《촌장이 어떻게 아침부터?》

최두현이 지게문을 벙싯하고 김춘봉을 내다보았다.

《령감네가 집세를 온전히 물지 않았더구만.》

김춘봉은 마당에 서서 집게손에 침을 바르고 세금문서장을 뒤적거리였다.

《집세를 물지 않다니? 그저께 촌장이 받아가지 않았소. 문서장을 똑똑히 보시오.》

《그저께 문거야 한집 세금이지 이 집에선 두집이 사니 두집 세금을 물어야 한단 말이요.》

《아니, 집이 한채인데 두집 세금을 문다는건 뭐요?》

《령감이 물기 싫으면 웃방사람이 물라고 하오. 도단장님의 지시니 페일언하고 물어야겠소.》

김춘봉은 문서장을 들여다보며 집세가 얼마이라고 불렀다.

터무니없이 높은 세금이였다. 집세안에는 굴뚝세와 나무세가 포함되여있어 높다고 하였다. 이 집 굴뚝은 무한장의 산림구역 나무를 켜서 만든것이고 끼마다 쓰는 부엌의 땔나무도 지주집 산에서 베온것이므로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것이였다. 리치가 그러하므로 마당에 나무바자를 친 집은 바자세를 물어야 하고 지주의 산림목재로 달구지, 발구따위를 만들어도 의당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것이였다. 세금을 받을 때마다 념불처럼 외우군 하는 소리였다.

《보위단이 마을을 보위해주니만큼 두집에서 다 보위단세도 물어야겠소. 도단장님의 말은 세금과 소작료를 가지고 가타부타하는 자들은 공산당패와 연줄을 가진자가 분명하므로 모두 창비하라는거요. …》

김춘봉은 사흘안으로 세금을 물지 않으면 보위단원들이 와서 집에 차압딱지를 붙이고 내쫓거나 아예 깜장콩알을 먹인다고 을러메고 잔기침을 하며 가버렸다.

《세금이란게 뭐 어쨌다구? 인두겁을 쓴 짐승같은 놈! 퉤!》

최두현은 괴춤에서 담배쌈지를 꺼내며 지게문밖에 침을 탁 내뱉았다.

녀사께서는 기가 막혀 덤덤히 서계시였다. 인류력사가 계급사회의 문어구에 들어서자마자 발생하여 오늘까지 수천년동안 이어지고있는 세금제도는 애국이라는 명색으로 인민들의 피땀어린 돈주머니를 긁어내는 착취계급의 잔인한 수탈수단의 하나로 리용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계급사회인 고조선때부터 조세제도가 있었지만 리조 말기에는 온갖 세금을 통한 수탈에서 그 잔인성이 최절정에 이른 때였다. 녀사께서도 어린시절부터 뼈를 갉아내는 조세제도에 시달려온 세금조달의 목격자, 수난자이시였다.

봉건통치배들은 교활하게도 세금을 물었는가 안 물었는가, 얼마나 물었는가에 따라 사람들의 인격과 애국충의를 평가하였다. 지금 쓰고있는 《구실》이라는 낱말은 본래 세금을 의미하는것으로서 사람들의 인격적가치를 가르는 기준으로 씌여왔다. 세금을 많이 문 사람은 충의가 높고 고상한 인격을 소유한 애국자로, 나라를 위한 일에서 구실을 하는 사람으로 되고 돈이 없어 세금을 물지 못한 사람은 애국충의가 부족하고 제구실을 못한 사람으로 되였다. 정의와 애국의 기발을 들고 인간을 탄압한다는것은 이런것을 두고 말하는것이 아닐가.

지난날 민족주의독립운동단체들도 조세제도를 만들어놓고 이국살이를 하는 조선동포들의 가난한 주머니를 털어냈었다. 돈이 없어 군자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친일파라는 루명을 씌워 쏘아죽이기까지 하였다.

조세제도라는 경제적착취와 정치적탄압의 올가미가 오늘도 여전히 조선이주민들의 목을 조이고있었다.

《이제보니 무한장이라는 지주놈이 정말 천하악귀로군. 그놈이 그런 악착한짓을 해서 호부자가 된 모양이지!》

최두현로인이 뻐금뻐금 곰방대를 빨면서 한숨처럼 중얼거리였다. 주먹을 움켜쥐고 말없이 지게문쪽을 노려보던 김철주가 벌떡 일어섰다.

《내 무한장을 찾아갈테야요. 진짜 굴뚝세, 마당세, 울타리세까지 받아내라고 했는지 알아볼테야요. 그게 사실이라면 중국의 조세법을 놓고 하나하나 까볼테야요.》

《아서라, 그만둬라!… 적색폭동때문에 걸핏하면 사람을 죽이는 판인데… 무슨 소린지 얼마전에 무한장을 죽이려고 지주집에 들어갔던 자객 두명이 가병에게 붙들려 총살당했대.》

그 사건으로 해서 이제는 일반사민들은 누구도 무한장을 만날수 없게 되였다고 한다. 문의하고 신소할 일이 있으면 그 알량한 김춘봉 촌장을 통해 하라는것이였다. 오직 흥륭촌 촌장만이 무한장과 접촉할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였다. 그리고 이제는 안도관내의 모든 주민들의 세금을 김춘봉이 다 맡아처리하게 되였다고 한다.

《요즘 촌장이 더 극성스레 세금독촉을 하며 우쭐렁대는걸 보니 떠도는 말이 적실한것 같다.… 그놈이 하라는대로 하지 않으면 집안에 화가 미치니 별수 없구나.》

최두현은 재털이에 대통을 털어내고 일어섰다. 촌장네 집에 세금을 물러 가려는 모양이였다.

녀사께서 웃으며 만류하시였다.

《아니, 주인집에서 무슨 집세를 또 내겠어요. 일이 이렇게 되였으니 추가로 더 내라는 집세를 제가 물겠어요. 마침 삯품을 판게 있으니 걱정마세요.》

녀사께서는 서둘러 부엌설겆이를 마치고 촌장네 집으로 가시였다. 그 집 마당에는 세금을 사정하러 온 사람들이 10여명이나 서있었다. 그이께서 집세를 물고 돌아서 나오시는데 김철주가 급히 달려와 대흥툰에서 보내온 글쪽지를 드리였다. 별모양으로 접은 종이를 펼치

시자 연필로 또박또박 쓴 글자들이 놀란 눈동자들처럼 녀사를 빤히 올려다보았다.

《사모님, 박치근이 경찰서에 잡혀들어갈 위험에 처했습니다. 조선녀.》

쪽지글을 읽은 녀사께서는 사뭇 놀라시였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박치근은 전번 상가집에서 소동을 일으킨 이후 반제청년동맹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었다. 그리고 조직의 지시에 의해 조희재에게 찾아가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조희재는 네놈은 물남에서도 변절하고 물북에서도 변절했다, 이제보니 변절은 배안에서부터 타고난 네놈의 병이다, 썩 물러가라 하고 쫓아버렸다. 그때부터 박치근은 도덕적수양에 각별히 관심을 높이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또 경찰서걸음을 하게 됐단 말인가?

녀사께서는 큰 의문을 품은채 그길로 대흥툰을 향해 종종걸음을 치시였다.

2

그날 점심때였다. 처서군모양으로 헌 무명바지저고리에 톱자루가 삐죽이 나온 대짜배기바랑을 진 세 사나이가 흥룡촌 물동마을로 조심스레 걸어갔다. 점심녘이여서인지 마을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없이 조용하였다.

《선생님, 강씨부인이 있는 집이 저기 저 집입니다.》

여라문채의 집이 몽켜서있는 물동마을어구에 들어선 세 사나이들중 스무살전으로 보이는 애된 젊은이가 얼굴이 온통 수염투성이인 중년사나이에게 최두현이네 집을 가리켰다.

《그래? 어서 가세.》

중년사나이는 사방을 살펴보고는 최두현이네 집을 향해 급히 걸어갔다. 마당에서 고양이만 한 검둥강아지가 요란스레 짖어댔다. 토방에서 산천어, 모래무치 같은 잔물고기들을 초롱에서 건져내여 처마

밑 삼노끈에 매달고있던 김철주가 마당에 들어서는 사람들을 의아해서 바라보았다.

《웬 손님들인가요?》

《이 집이 강반석부인님이 계시는 집인가요?》

중년사나이는 처마밑에 매달아놓은 물고기들을 올려다보고나서 경계하는 눈초리로 마당밖을 살피였다.

《그렇습니다. 어디서 오신 손님들인가요?》

《우린 처서군들이요. 이 집 젊은인가요?》

중년사나이는 키가 훤칠한 김철주를 스무살안팎의 청년으로 보는것 같았다.

《예, 제가 아들입니다.》

《부인님에게 이렇게 끌끌한 아들이 있었구만. 우린 어머니를 좀 만나자구 왔소. 긴히 의논할 일이 있어서…》

어머니가 대흥툰쪽으로 가고 안계신다는 철주의 말에 중년사나이는 난처한 기색을 지었다. 그러지 않아 철주도 대흥툰으로 가신 어머니의 일이 궁금하여 기다리고있는중이였다.

《꼭 만나야 하겠으면 방안에 들어가 기다려보십시오. 아침에 나가셨으니 혹시 오실지도 모릅니다.》

김철주는 웃방지게문을 열어주었다.

《그럴가… 좀 기다려볼가.》

중년사나이는 젊은 처서군들에게 짐신을 굴뚝모퉁이에 보이지 않게 숨겨두라고 이르고 먼저 방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손재봉기 한틀과 나무궤짝 한개, 이불 두채밖에 없는 방안을 둘러보고나서 《4도백하에도 물고기가 많은 모양이다.》하고 중얼거리였다.

《예, 잔고기들은 좀 있습니다.》

김철주는 초롱에서 모래무치들을 꺼내여 끈에 매달며 응대하였다. 김철주는 무송에 있을 때에도 학교공부와 새날소년동맹사업으로 어지간히 바빴지만 어떻게 해서든 틈을 내서 송화강에 나가 낚시질, 그물질, 동막이, 작살질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송어, 가물치, 산천어, 모래무치를 잡아서 고추를 말리우듯 처마끝에 매달아놓군 하였다. 길림육문중학교에서 공부하는 형님께서 방학때 오시면 반찬감으로 대

접하기 위해서였다. 지금도 그는 형님께서 출옥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매일 아침 개울에 나가 그물질을 하였다.

《젊은이는 지금 몇살이요?》

중년사나이—최동화는 정성스레 물고기를 매달고있는 김철주를 의미깊이 지켜보았다.

《열네살입니다.》

《뭐? 열네살?… 난 적어도 스무살은 됐을거라구 생각했는데 열네살! 거 숙성하다.… 중학교에 다니겠구만. 방학이 되여 왔는가?… 아니, 지금은 방학때도 아니겠는데…》

최동화는 강반석녀사의 아들이라면 틀림없이 도회지에서 학교에 다니고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적색폭동에 학생들이 많이 인입되여있기때문에 김철주의 청수한 얼굴을 새삼스레 여겨보았다.

그가 강반석녀사를 찾아온것은 적색폭동때문이였다. 그는 오래전부터 송강—흥륭촌지구에 폭동군중을 꾸리기 위해 무산혁명단청년들을 파견하였으나 공산운동에 대한 보위단과 경찰의 탄압이 심한데다 물북, 물남의 총재들인 조희재와 류호 산하의 반공세력이 강해서 도저히 뚫고들어갈수가 없었다.

그런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안도지구에 새로 나타나 주민들속에서 신망을 얻고계시는 강반석녀사께서도 적색폭동에 대해 극력 반대하기때문에 무산혁명단은 더욱 무맥하게 되였다. 그래서 강반석녀사를 만나 돌려세워보려고 여러번 시도하였으나 자기를 잡으러 다니는 경찰과 보위단의 눈이 무서워 뜻을 이루지 못했었다. 그러나 바야흐로 혁명의 폭풍이 터지기 시작한 오늘에 와서는 더는 지체할수가 없어 보위단이 진을 치고있는 흥륭촌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온것이다.

그는 류호나 조희재와 같은 반공민족주의자들은 불상용적인 적대계급으로 보고있으나 강반석녀사는 공산주의운동에로 능히 돌려세울수 있으며 군중의 신망을 독점하고있는 그이를 돌려세우기만 하면 일시에 많은 폭동군중을 규합할수 있다고 확신하고있었다.

《지금 연길에서랑 간도지구의 학생들이 적색폭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있다지?》

최동화는 처마밑에 물고기를 매달고있는 김철주의 마음을 넌지시

중떠보았다. 김철주는 대답이 없이 묵묵히 자기 일만 하였다. 통찰력이 비상한 철주는 벌써 어머니를 찾아온 처서군들이 무산혁명단패라고 짐작하였다.

처서군모양으로 행장을 하였지만 중년사나이의 하얀 얼굴빛이며 부둥부둥하고 고운 손이며 《혁명가》의 냄새가 풍기는 말투는 로동에 치여난 처서군과는 같지 않았던것이다.

《아하, 시간이 없는데… 참, 야단이군.》

문가에 올방자를 틀고앉은 최동화는 사뭇 초조해하며 문을 닫지 않고 그냥 마당밖을 내다보았다.

《의논할 문제가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김철주는 헝겊으로 손을 씻고 방안으로 들어왔다. 최동화는 아래방사람들을 경계하는듯 그쪽에 눈짓을 하였다.

《모두 논밭에 나갔습니다. 설사 주인집사람이 있어도 우리 집과 같으니 걱정마십시오.》

최동화는 젊은 처서군들에게 바깥동정을 살피라고 이르고 안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보았다.

《학생도 아다싶이 지금 간도일대에서는 착취계급을 타도, 전복하기 위한 적색폭동이 거세차게 일어나고있소. 이제 폭동의 기세는 5월 30일을 계기로 최절정에 오르게 될거요.》

최동화는 흥분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여기 송강—흥륭촌일대는 아주 저조하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첫째로 무한장, 왕방초와 같은 반공군벌들의 탄압이 심하기때문이고 둘째로는 류호, 조희재와 같은 민족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이 우심하기때문이며 셋째로는 강반석녀사와 같은 량심적인 인도주의자들까지 우리의 적색폭동에 대한 인식을 잘못 가지고 이곳 동포농민들에게 무저항주의적인 선전을 하고있기때문이요.》

최동화는 류호나 조희재와 같은 봉건적인 반공민족주의자들은 투쟁대상으로 보고있지만 인도주의적인 인테리녀성인 강반석부인은 관점만 옳게 세우면 적색폭동에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다고 하였다.

《어머니에게 말하시오.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어죽어가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동정하여 자선사업을 한다면 무산자들을 위한 정의의

항쟁인 적색폭동을 도와나서야 하며 지지해야 한다고, 어머니가 지금까지는 유감스럽게도 반동적인 무저항주의자들과 발을 맞추었소. 이곳 무산자들에게 5월적색폭동에 대한 나쁜 선전을 했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어머니의 본의가 아니며 5월적색폭동의 의의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지 못한데로부터 생겨난 오유라고 생각하오.》

최동화는 얼굴을 기웃한채 김철주의 표정을 유심히 살피였다. 그의 말을 가로챌수가 없어 참을성있게 침묵을 지키고있던 김철주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례절있게 물었다.

《아바이는 한낱 산판로동을 하는 처서군이 아니라 적색폭동을 지휘하는 혁명가인것 같은데 실례이지만 성함을 어떻게 부르시는가요?》

《학생앞에서야 무얼 숨기겠나. 내가 바로 최동화야. 영예롭게도 일전에 만화의 주인공으로까지 형상되였으니 최동화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있겠지.… 우리는 반공분자들의 모함과 악선전에 조금도 놀라지 않아, 허허허.… 만화가 나온 이후 조희재, 류호, 무한장, 왕방초들은 신경쇠약에 걸려 히스테리를 부린다지만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눈섭 하나 끄떡하지 않아, 하하하.》

최동화는 이름 하나를 대면서도 다변스럽게 여러 말을 하고 호걸스럽게 웃었다.

《선생님은 우리 어머니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신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대단한 인테리녀성으로, 돈많은 자선가로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는 학교문전에도 가보지 못한 가난한 농군의 딸입니다. 그저 독학으로 문맹을 면하였고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의원을 했기때문에 약간한 의학상식을 터득해서 누가 앓는다고 하면 집에 있는 약을 써서 병을 고쳐주군 했습니다. 저도 도회지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라 여기서 농사를 짓는 농사군입니다. 어머니는 삯바느질과 삯빨래로 생계를 유지해갑니다.》

《허허허… 학생 그러면 못써.… 이 최동화는 학생을 믿고 솔직히 모든걸 다 밝혔는데 학생은 우리를 믿지 않고 자기를 숨기면 되나. 만화를 보고 진짜 이 최동화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경계하는게 아닌가? 공산주의자는 적들한테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견결성과 철저

성이 반증되는거야. 이미 폭로된것처럼 만화락서자는 공산주의도 싫어하고 민족주의도 싫어하고 중국 국민당 관헌들도 싫어하는 무정부주의자들이야. 그런 사람들의 말을 곧이 들어서야 되나. 물론 그들이 무한장, 왕방초, 경찰서장들의 추악성과 악랄성을 풍자한것은 찬양할만 해, 허허허. … 그런데 그놈의 만화가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초상에까지 먹칠을 해서 순박하고 천진한 이곳 주민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준것 같아. 더두말구 지금 학생이 나를 경계하는것만 보지, 허허허. 나를 진짜 만화적인 인물로 보는것 같단 말이야, 허허허. …》

김철주에게 반엽을 하던 최동화는 가까운 아래사람에게 말하듯 친근한 말투로 너그럽게 웃으며 설복하였다.

《선생님, 제 말이 진실인가 진실이 아닌가 하는것은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다 알게 될겁니다. 그건 그렇구 선생님이 솔직하게 다 말씀하시니 저도 솔직한 소견을 말하겠습니다. 5월적색폭동은 승산이 전혀 보이지 않는 무모한 폭동같습니다. 벌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체포학살됐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적색폭동에 머리를 흔드는것은 바로 그 무모성때문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어른들의 말을 들어보면 경신년 대토벌때에도 리동휘선생이랑 적극적인 주전론자들이 왜놈들에게 당장 전쟁을 선포하자고 주장했으나 도저히 승산이 없는 일이기때문에 지지자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5월적색폭동이 리동휘선생의 주전론과 대동소이하지 않는가 하는것입니다.》

《그렇다?》

최동화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경신년 간도 대토벌은 최동화에게 있어서도 잊을수 없는 민족의 대참상이였다. 10여년전 훈춘지방에서 벌어진 일제의 잔인한 《토벌》로 수많은 조선주민들이 죽고 수천호의 조선가옥들이 재더미로 되였을 때 상해림시정부 초대국무총리로 있던 리동휘가 격분하여 일본에 대하여 당장 《선전포고》를 하자고 주장한적이 있었다. 그때로 말하면 3.1운동이후부터 망명생활을 시작한 최동화가 연해주를 거쳐 중국 상해에까지 밀려갔던 수난의 시기였다.

최동화는 리동휘가 조직한 고려공산당을 거쳐 1925년에 화요파소속의 조선공산당원이 된 사람이였다.

리동휘는 성미가 불같아 드문히 리성을 잃고 과격한 행동을 잘하는 전형적인 무관형이였다. 그러니 경신년 대토벌때 2천만 조선동포모두가 식칼이나 부지깽이라도 들고나와 최후의 한사람이 남을때까지 왜놈들과 싸우자고 했었다. 그는 왜놈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기 위하여 상해림시정부 국무총리의 명의로 회합을 조직하기까지 하였다. 그때 일부 과격파는 리동휘의 주전론을 지지하였지만 절대다수가 반대하였다. 그것은 적수공권으로 왜놈들과 전쟁을 하자는 그의 주장이 너무도 무모한것이기때문이였다.

어떤 청년은 비전론자들을 리완용이와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해대는 리동휘에게 정면으로 대들었다. 《총리선생님은 식칼이나 부지깽이를 들고 나가라고 격문을 뿌리겠다고 하는데 3.1봉기때에도 33인지도자선생님들이 반일봉기에 나서라는 선전문을 랑독케 하고는 일본놈들과 마주앉아 화해의 술을 마셨답디다. 총리선생은 고국에서 먼 상해에 편안히 앉아있으면서 누구더러 전쟁판에 나가라는 말씀인가요. 정말 식칼을 들고나서실 마음이 있거든 총리선생이하 주전론주장자들이 먼저 식칼과 부지깽이를 들고 앞장에 서십시오. 그러면 나도 그뒤를 따르겠습니다.》

리동휘는 주먹을 움켜쥐고 부들부들 떨었으나 항변하는 청년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화김에 발을 탕탕 구르면서 퇴장하였다.

이것은 최동화가 상해에서 직접 목격한 사실이였다.

이 상해회합에 대한 소식은 간도와 조선국내 곳곳에 퍼지여 왜놈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놈들은 상해림시정부 각료들의 1막의 희비극을 회심의 미소를 머금고 감상하였다.

최동화는 여태 그날의 일을 잊어버린채 10년세월을 보냈었다. 이제는 10년전 먼 상해에서 있은 일을 알고있는 사람도 얼마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14살 어린 소년이 그날의 희비극적인 주전론을 상기시키고있으니 감출래야 감출수 없는것이 력사인가 보다.

최동화는 김철주에게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허허허… 5월적색폭동에 대한 선전이 경신년 대토벌때 리동휘의 주전론과 대동소이하다… 학생, 모든 사물을 그렇게 형이상학적으로 고찰하면 안되네. 레닌동지께서는 폭력투쟁의 수행은 혁명의

성숙기에만 가능하다고 했네. 1920년은 혁명의 성숙기가 아니라 퇴조기였네. 리동휘국무총리는 원동에서 사회주의정치단체를 처음 조직한 사람이지만 맑스-레닌주의사상리론으로 무장된 사회주의자가 아니였네. 그는 공산주의를 신봉해서가 아니라 레닌동지가 지도하는 로씨야로농정부의 후원을 받아 독립운동을 전개해보려는 생각에서 사회주의정치단체를 꾸렸다고 말할수 있네. 이런 사람이니 혁명의 주객관적정세를 고려하지 않고 그저 주먹치기로 폭력투쟁을 주장했던것이네.》

최동화는 자기 웅변에 도취되여 불같은 말을 토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조직하는 폭동은 맑스-레닌주의혁명리론으로 무장된 공산당주도의 폭동이며 국제당의 지지밑에 벌어지는 폭동이네. 학생은 이것을 알아야 하네. 오늘이야말로 로농대중이 폭동을 일으켜야 할 혁명의 성숙기이며 전성기이네.》

그는 지금 착취계급과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이 고도로 앙양되고있다고 하면서 지구상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로농대중의 투쟁이 가장 격렬하게 벌어지고있는 대륙이 아시아대륙이라고 하였다.

《짜리전제제도를 뒤집어엎은 쏘련과 몽골혁명의 장엄한 구보에 발을 맞추어 중국, 인디아, 웰남, 먄마,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서 무산혁명의 대조류가 기운차게 격랑치고있는 때에 우리 조선의 로농대중이 잠자코 있어야 되겠는가, 간디의 비폭력불복종운동으로 세상의 눈길을 모으고 유명해진 인디아의 거리에서까지 방직공장의 무산계급들이 붉은기를 들고 시위를 단행하고있는 때에 우리 조선의 로농대중이 비폭력무저항주의요, 민족혁신, 자아혁신이요 하는 잠꼬대같은 소리에 넘어가서 상아탑에 앉아 고작 야학방을 열고 자선사업이나 하고 두세명의 사형수들을 구원하는것으로 만족해서야 되겠는가?》

힘있게 소리치며 주먹을 머리우로 쳐들어올린 최동화는 목소리가 엄청나게 높아진것을 의식하고 긴장한 눈초리로 바깥동정을 살피였다. 그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목소리를 한결 낮추고 그러나 박력있고 열정적인 어조로 계속하였다.

《우리 나라 로동계급속에서도 소극적인 파업으로부터 적극적인 폭동으로 이전되고있네. 원산로동련합단에 망라된 2천여명의 로동자들이 1만여명의 가족들과 함께 공장주들의 집을 들부시고 공장관리자들의 사택을 불사르며 여러날이나 파업을 단행한 사실을 알고 있나? 최근년간 여기 만주땅에서는 어떤 혁명의 폭풍이 불었던가?》

최동화는 저고리고름을 풀고 안주머니에 손을 찌르더니 크고작은 종이장을 여러장 꺼내여 방바닥에 펼치였다. 그것은 신문에서 주요기사들을 오려낸것이였다. 검색에 걸리면 위험한 일이였지만 그는 강반석녀사를 위해 가져왔다고 하였다.

《자, 이 글을 보게!》

최동화는 손가락으로 종이장을 가리켰다. 먼저 김철주의 눈에 밟힌것은 《동아일보》1928년 11월 2일호 《길돈선연장 기타로 길림배일 협악화, 학생들은 매일 시위행렬 계속, 천진 배일로 수일 심각》라고 찍힌 표제와 11월 13일호《할빈학생단체 길회선반대고조, 9일 경관대와 충돌》이라는 표제였다. 그밖에 중국어로 된 신문쪼박들도 길회선철도부설 반대투쟁과 일본상품배척투쟁을 소개한것들이였다.

불현듯 김철주의 가슴이 세차게 뛰놀았다. 그것은 형님께서 조직지도하신 반일항쟁이였기때문이다.

《보게! 1928년 길림에서 첫 불꽃이 튄 학생반일시위는 봉천, 할빈, 천진 등 만주 각지에 료원의 불길처럼 무서운 기세로 퍼졌네. 평화적인 시위가 점차 폭동의 성격을 띠고 만주일대를 뒤흔들었네. 수십명의 부상자가 나오고 감옥에도 끌려갔지만 폭동은 승리했네. 일제는 돈화－회령사이의 철도부설공사를 중단하고 1928년 11월 1일 돈화에서 가지기로 했던 길돈선철도개통식도 연기하게 됐네. 한갖 학생청년들의 시위가 일제와 중국반동군벌들의 간담을 얼구어놓고 수백만 대중에게 승리의 신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이제 벌어질 로농대중의 대폭동이 과연 닭알로 바위를 치는것으로 되겠는가.

학생, 대답해보게. 5월적색폭동이 무모한 폭동인가?》

최동화는 방바닥에 널려있는 신문쪼박들을 그러모으며 숯불처럼 타는 눈으로 김철주의 얼굴을 쏘아보았다.

김철주는 소문대로 최동화의 머리가 대단히 명석하고 연설을 잘한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어린 철주도 적색폭동을 한사코 휘동하는 최동화의 속심을 알고있었다. 지난 기간 만주총국을 세워놓고 당재건운동에 미쳐돌아가던 화요파, 엠엘파계통의 공산주의자들이 지금은 중국당에 전당하여 높은 자리를 따기 위해 승패여하를 가리지 않고 조선사람들을 적색폭동에 내몰고있는것이다. 최동화는 자기가 맡은 안도지구의 폭동운동기세가 저조하여 안달이 난것이다.

《왜 대답이 없는가?》

최동화가 김철주에게 대답을 재촉할 때 지게문이 벌컥 열리였다.

《선생님, 몸을 피하셔야 하겠습니다. 저쪽 길목에 보위단원들이 모여들고있습니다.》

망을 보던 젊은이가 급한 소리를 하였다.

《그래?》

화닥닥 놀란 최동화는 신문쪼박들을 급히 안주머니에 쓸어넣었다. 문밖으로 뛰쳐나간 그는 사방을 휘둘러보고 김철주에게 강조하였다.

《미구에 안도의 산악지대에서도 혁명의 폭풍이 불어칠거네. 학생은 안도주민들이 5월적색폭동에 나서도록 선동하게. 물고기나 잡으러 다녀서야 되겠나. 어머니를 못 만나고 가는데 학생이 잘 설복해보게.》

최동화일행은 번개처럼 뒤산으로 몸을 사리였다.

아침에 대홍툰에 갔던 강반석녀사께서는 저녁녘에야 흥륭촌으로 돌아오시였다. 그때 김철주는 마당에 풍로를 내다놓고 숯불을 피우고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끔 자기절로 때식을 끓이군 하였다.

《낮에 누구 찾아온 사람은 없느냐?》

녀사께서는 빨갛게 피여오르는 풍로불을 나무꼬챙이로 뒤적이며 물으시였다.

《최동화라는 사람이 왔댔어요.》

《최동화? 그 사람이 어떻게?》

녀사께서는 저으기 놀라시였다. 무산혁명단을 조직하고 적색폭동을 선전하며 다닌다는 그 사람이 찾아온것은 별로 반가운 일이 못

되였다.

김철주는 낮에 있었던 일을 자상히 이야기하고나서 박치근의 일은 어떻게 됐느냐고 걱정하였다.

《청년회장이란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더라.》

녀사께서는 풍로우에 국양재기를 올려놓으며 대흥툰청년회장을 꾸짖으시였다.

전번 상가집에서 욕을 본 청년회장이 그 앙갚음을 하려고 박치근을 모함하는 법문서를 꾸미였다고 한다. 물론 그것은 청년회장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 몇명의 측근들과 모다붙어 벌리는 사람잡이였다. 그들은 석방된 사형수들을 다시 가두어넣고싶어하는 왕방초의 심리를 타진하고 박치근을 공산당패와 련결된 위협인물로 의심된다는 신고문을 작성하여 보위단과 경찰서에 보내려고 한다는것이였다. 그들은 이 사람잡이를 위해서 현공서의 법관들과 경찰서, 보위단의 수좌급 인물들을 술대접과 뢰물로 삶아놓을 모략까지 하고있다고 하였다.

참으로 비렬한 복수였다. 그들이 사랑방에 모여앉아 쑥덕공론을 하는것을 조희재네 하인총각인 돌쇠가 눈치채고 박치근에게 직접 알려주었다고 한다.

《내가 아침에 달려가보니 그땐 벌써 박치근의 처가 시고모 박씨와 함께 조선생네 집에 가서 한바탕 싸우고 왔더라.》

그 두 녀인은 직접 조희재에게 찾아들어가 당신네들은 수백명 주민들의 보증을 받고 석방된 제 동네 젊은이를 왜 또 감옥에 넣지 못해 배를 앓는가, 우리는 입이 없고 눈이 없는줄 아는가, 당신네들이 사랑방에 모여앉아 없는 죄를 꾸며서 신고문을 만들어낸것을 다 알고있다, 우리들의 입이 터지면 당신네들이 무사치 못하다, 남잡이가 제잡이가 된다는걸 알라 하고 맵짜게 들이댔다고 한다.

조희재는 당황실색하면서 자기는 그런 일이 있은줄을 몰랐다고, 이제 알아보고 청년회장을 신칙할터이니 동네에 소문을 내여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사정을 했다는것이였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말 한마디 못하던 녀인들이 그처럼 배짱을 부리며 조희재에게 항변한것은 놀라운 일이였다. 자기를 보

호해주는 조직이 있다는 생각이 그런 배짱을 가지게 한가보았다.
그후 여러날이 지나도록 대흥툰에서는 별일이 없었다. 최동화라는 사람도 다시는 흥륭촌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불현듯 다른 걱정거리가 또 생기였다. 밀보리가 익어가기 시작하는 소만철, 안도의 농군들이 무서운 기아의 고개, 보리고개를 허덕거리며 톺아오르고있을 때 문득 강반석녀사께 긴급한 련락쪽지가 날아왔다. 그것은 장백지구에서 지하공작을 하고계시는 김형권동지로부터 보내온 련락쪽지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지금 적색폭동바람으로 연길, 룡정, 훈춘 등 간도지구가 피바다로 되였다는것, 수많은 폭동관계자들이 조선으로 압송되여가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극형과 중형을 언도받는다는것, 제일 걱정스러운 일은 폭동이전에 좌익운동으로 체포된 정치범들까지 조선으로 이송시키는것이라고 하면서 만약 중국군벌이 맏아드님을 일본놈들에게 넘겨주는 날에는 끝장이라고 하였다. 그때문에 빨리 길림에 사람을 파하여 손정도목사를 비롯한 김형직선생님의 친지들과 련계를 취하여 맏아드님이 일본놈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겠다는것이였다.
《저도 믿을만 한 사람을 길림으로 보내겠지만 형수님도 급히 사람을 파하여 재난을 막도록 해주십시오.》
련락원을 통해 보내온 시동생분의 쪽지글은 이렇게 마지막을 맺었다.
김형권동지의 편지를 받은 녀사께서는 긴장해지시였다. 물론 녀사께서도 이미 그런 불안을 느끼고계시였다.
맏아드님의 생사운명은 곧 이 나라 독립운동의 운명이였다. 녀사께서 속히 결단을 내리셔야 했다.
그이께서는 핵심조직원들의 회합을 급히 조직하시였다.
조직에서는 조선녀를 길림으로 보내도록 결정하였다. 그가 제일 적임자였다. 남편이 있는 길림으로 가는것은 누가 보아도 자연스러운 일이였고 실지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였다.
《길림에 가면 돌아오지 말고 아예 눌러앉아라. 명준이한테 편지를 쓰겠다. 거기 조직에서도 반대가 없을게다.》
녀사께서는 회합을 결속하실 때 조선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선녀는 그 말씀속에 깃든 녀사의 다심한 사랑을 알고있었다. 하지만 자기가 아주 대흥툰을 떠나가면 반일부녀회사업과 야학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일들이 걸릴수 있었다.

《사모님, 빨리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겠어요. 여기에 벌려놓은 일도 많은데…》

《그 걱정은 말거라. 큰 소가 나가면 작은 소가 대신한다고 하지 않느냐.》

녀사께서는 자신의 의사를 철회하지 않으시였다.

조선녀는 회합이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려장을 꾸리며 떠날 차비를 하였다. 길림으로 가는것은 혁명의 운명과 관련된 한시도 지체할수 없는 긴급한 문제였기때문이다.

저녁에는 벌써 조선녀가 나들이옷을 갈아입고 이집저집 다니며 작별인사를 하였다. 너무도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작별이여서 마을사람들은 놀라고 어리둥절하였다.

조선녀는 작별인사를 하러 조희재네 집에도 찾아갔다.

정지방에서 저녁상을 방금 물린 그 집 녀인들도 남편을 따라 길림으로 간다는 말에 눈들이 둥그래졌다. 조희재는 보이지 않았다.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가요?》

한마을에 몇달을 같이 있으면서도 단 한번의 대화도 없었던 조춘희가 놀란 표정을 짓고 물었다. 조선녀는 살짝 웃음을 지으며 롱조의 말을 하였다.

《여기 청년회장님이랑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 가야지요 뭐, 호호호. …》

반사적으로 흠칫 어깨를 떤 조춘희의 낯빛이 창백하게 바래졌다. 비록 우스개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그속에 서리같은 원한이 불리여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였다. 선녀는 그의 얼굴빛을 일별하고 조용히 속삭이였다.

《롱담이예요. 춘희언니도 남편을 따라 대흥툰을 떠나는게 마음 편하구 좋을것 같은데… 바늘 가는데 실은 따라가기 마련인가봐요.》

조춘희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입술을 깨물었다. 곁에서 그 말을 듣고있던 안씨는 낯빛이 하얗게 질리며 기침을 깇었다.

조선녀는 인차 말머리를 돌리였다.

《인사 못 드리고 간다고 아버님께 말씀해주세요.》

조선녀가 안씨와 조춘희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나오니 온 마을사람들이 무개마차가 서있는 큰길목에 진을 치고 서있었다. 그들속에 서계시는 강반석녀사를 띠여보는 순간 조선녀는 인두에 지지우는듯 눈뿌리가 뜨거워지고 목이 메여올랐다.

《선녀야, 어서 마차에 오르거라. 부녀회원들이 마차와 로자를 마련했다. 정거장이 있는데까지 우리 철주가 바래워주겠단다.》

녀사께서 조선녀의 손에 로자를 쥐여주시였다.

《어머니!》

선녀는 별안간 울음을 터치였다.

녀사께서는 품에 안기는 선녀의 등을 어루만지시였다. 온 동네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였다. 조춘희도 먼발치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흐느껴울었다.

조선녀는 이렇게 대흥툰을 떠나갔다.

3

조선녀가 대흥툰을 떠난 다음부터는 림시로 김철주가 15리 밤길을 다니며 그곳 야학생들을 가르치였다. 반일부녀회 지회장사업은 박치근의 안해 송진녀가 인계받았다.

조선녀가 길림으로 떠나간지 나흘째 되는 날이였다.

색이 바랜 밤색양복에 안경을 낀 웬 젊은이 하나가 4도백하 물가에 서서 사방을 두리번거리고있었다.

소리없이 농터를 누비며 흘러가는 4도백하, 유리처럼 해빛을 반사하는 맑은 수면에 제비들은 흰배를 스치며 날아예고 물가에 서있는 채양버들은 훈훈한 봄바람에 푸른 가지들을 흐느적이고있다. 논밭이 펼쳐진 마을 서쪽켠에서는 황소의 영각소리가 들려오고 나무숲이 우거진 동쪽켠에서는 나무를 찍는 도끼질소리가 메아리쳐왔다.

언뜻 보면 평화롭고 한적한듯 한 마을이였다. 그러나 곳곳에서 순

경들과 보위단원들이 눈에 쌍초롱을 켜고 집집의 울바자구멍과 창구멍을 들여다보며 노상 감시하고있는 살벌한 마을이였다.

사방을 두리번거리고있던 안경을 낀 사나이는 천천히 물동마을쪽으로 걸어갔다. 아까부터 큰길옆 이영집 굴뚝모퉁이에서 이 사나이를 수상쩍게 노려보며 수군거리고있던 두명의 보위단원이 벼락같이 소리지르며 달려나왔다.

《서라! 어디서 오는 사람인가?》

보위단원이 어깨에 멨던 장총을 벗어 앞으로 꼬나들며 눈을 부라리였다. 이때 문서가방을 옆에 끼고 마을복판으로 난 달구지길로 슬금슬금 걸어나오던 김춘봉이 껑충거리며 달려와서 《무슨 일이요? 이건 웬 사람이요?》하고 양복입은 젊은이의 아래우를 훑어보았다.

《왜 이리들 야단이요? 정말 별난 마을이로군.》

양복쟁이가 보위단원과 김춘봉을 마뜩잖게 갈마보았다.

《별난 마을이라니?… 이 손님이 셈판을 모르는것 같다. 이름이 뭐요? 어디 사람이요? 이 마을엔 왜 왔소?》

김춘봉이 메밀눈을 흘기적거리며 양복쟁이앞으로 바싹 다가섰다.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우리 외가친척이 흥륭촌에 이사왔다기에 찾아왔소. 강반석이라는 부인을 모르시오?》

《뭐, 강반석?… 그 녀자가 친척이란 말이요?》

김춘봉이 놀란 눈으로 고재봉을 치떠보았다.

《그렇소. 내 이모요. 우리 집은 돈화현 사도황구요. 훈춘현에 급히 볼일이 있어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래동안 보지 못한 이모를 만나보구 가자고 왔는데 이 마을은 온통 꽥꽥거리는 사람들뿐이로구만.》

《훈춘현?!… 훈춘현에 갔댔단 말이요?》

김춘봉은 불시에 볼살이 팽팽해지며 고재봉의 차림새를 긴장하게 훑어보았다. 적색폭동바람이 심하게 불어치는 곳이 훈춘지방이기때문이였다.

《훈춘지방에 무슨 볼일이 있어 갔댔어?》

《이 령감이 꽤 꼬치꼬치 따진다. 훈춘현 경찰서 부서장이 내 친구요. 뭘 좀 부탁할것이 있어 갔댔소.》

《훈춘현경찰서 부서장이 친구라구요?… 통행증이 있소?》

고재봉은 돈화현경찰서에서 발급한 통행증을 내보이였다. 그의 신분은 돈화현 사도황구 부백가장으로 되여있었고 통행목적은 그가 말한대로 훈춘현 경찰서 부서장을 방문하는것이였다.

《강부인네 집은 저기 저 집이웨다. 집이 없어 남의 집 곁방살이를 하고있지요.》

김춘봉은 물동마을 일각에 서있는 동기와를 얹은 토백집을 가리켰다. 그는 뻔뻔스레도 강반석녀사를 동정하듯 뇌이고는 고재봉에게 가보라고 하였다.

그 집을 바라고 걸어가는 고재봉의 가슴은 걷잡을수없이 설레였다. 이제 오매에도 그립던 강반석녀사와 일가분들을 만나뵙게 된다는 기쁨과 흥분이 가슴을 진정할수 없게 하였다. 녀사와 헤여진지는 불과 반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10년세월 떨어져있은듯 노상 그리움에 사무쳐있던 고재봉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체포되신 후 길림에서 일어난 검거의 선풍이 무송에까지 미쳐올것을 예견하고 무송혁명조직에 망라되여 활동하던 여러 세대의 집들이 안도와 돈화방면으로 이주할 때 여섯세대가 사도황구로 자리를 옮기였는데 고재봉이네 일가도 그속에 포함되여있었다.

고재봉은 사도황구에 온지 반년사이에 《동흥의숙》이라는 학교를 설립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편 부백가장이라는 간판을 가지고 사도황구와 그 주변마을들에 공청과 백산청년동맹을 조직하고 계속하여 반일부녀회와 농민동맹을 조직할 준비를 하고있었다.

이런 때 지난해 가을부터 감옥살이를 하던 **김일성**동지께서 천만뜻밖에 그의 집을 찾아오시였다. 그가 이번에 훈춘지방을 갔다온것은 경찰서 부서장을 방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김일성**동지와 련계되여있던 조직책임자들을 만나 그이의 출옥소식을 알리는 한편 조만간 중요회의를 소집하시려는 그이의 의도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흥룡촌으로 오기 전에 서문밖 객주집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녀사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다.

《고금에 그렇게 무던하고 인덕이 있는 녀자가 어디 있겠소.》하

고 마춘욱의 어머니 김씨가 눈물을 머금고 녀사의 인덕을 이야기할 때 고재봉이도 가슴이 젖어들고 목이 메여 여러번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눈굽을 훔치였다.

고재봉은 어느덧 최두현이네 집앞에 이르렀다. 녀인들이 마당에 하얀 실을 여러줄 기다랗게 늘여놓고 풀을 먹이고있었다. 고재봉은 그것이 베틀에 메울 무명낳이 씨실과 날실들이라는것을 인차 알아보았다. 수공업적으로 천을 짜는 길쌈의 한 공정이였다.

《베틀에 씨실과 날실을 걸어 베를 짜듯이 집이 가난할수록 우리 주부들이 살림살이를 빈틈없이 알뜰히 짜고들어야 해요.》

그 무엇인가를 애무하듯이 따뜻이 울리는 은근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그것은 분명 고재봉의 귀에 익은 강반석녀사의 목소리였다.

고재봉은 우뚝 멈춰서서 방금 말씀하신 녀사의 얼굴을 하염없이 지켜보았다.

아 아, 그런데 사모님의 얼굴이 왜 저렇게 수척해졌는가. 녀사의 량볼에 지어진 보조개는 예전과 다름이 없었으나 얼굴살이 쪽 빠져서 몰라보게 달라졌다. 저 병약한 몸으로 안도의 넓은 땅을 밟고다니며 조직을 뭇고 사람들의 병든 몸과 마음을 고쳐주셨단 말인가.

그리움을 안고 불원천리 안도로 총총히 걸어온 고재봉은 정작 녀사를 눈앞에서 뵈옵는 순간 몸이 얼어붙어 움직여지지 않고 말도 나가지 않았다.

실에 풀을 먹이던 녀사께서 문득 고개를 쳐드시였다. 마당밖에 서 있는 고재봉이와 눈길이 마주치셨다.

《사모님!》

고재봉은 그제야 소리치며 마당으로 들어갔다. 녀사께서 어깨를 흠칫하며 일어서시였다.

《사모님! 접니다. 고재봉입니다.》

《누구라구? 아니, 찬수 삼촌이? 백산학교 교장이…》

녀사께서 뒤말을 잇지 못하고 비칠거리며 마주 걸어나오시였다. 오금을 꺾고 무명실에 풀칠을 하던 다른 녀인들도 일어나서 어리둥절해진 눈으로 녀사와 고재봉을 번갈아보았다. 그들은 김복진이와 리옥단, 임성옥(김철희의 안해)이였다.

《사모님, 그동안 고생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할머님이랑 다 무고하십니까?》
허리를 수그리며 인사를 올리는 고재봉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였다.
《여긴 별일이 없네. … 이런 반가운 일이라구야. 찬수 삼촌이 오다니… 일가가 모두 돈화쪽으로 갔지?》
《예, 우리 집에선 사모님보다 먼저 무송을 떠났습니다.》
얼결에 무송이라는 말을 입밖에 내뱉은 고재봉은 마당에 서있는 젊은 세 녀인을 얼핏 스쳐보았다. 녀사의 전 거주지를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경계심이 그의 머리를 쳤던것이다.
《일없네. 이 아주머니들은 다 반일부녀회원들이네.》
세 녀인을 소개하신 녀사께서는 그들에게도 고재봉을 가리키며 한마을에서 같이 살며 학교교장을 하던 청년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어머니랑 다 편안하신가? 돈화 어디에 자릴 잡았나? 사도황구쪽으로 간다고 했지?》
《예, 사도황구에 여섯세대가 갔습니다. 사모님, 제가 어떻게 되여 여길 찾아온것 같습니까? 한번 알아맞춰보십시오.》
고재봉은 웃음기를 담고 반롱조의 말투로 대중할수 없는 풀이문제를 내놓았다.
녀사께서는 웃으시였다.
《별로 롱을 하지 않던 찬수 삼촌이 웬일인가? 얼굴에 웃음이 피여있는걸 보니 무슨 걱정거리나 슬픈 일을 안고 찾아온것 같지는 않군.》
《정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모르시겠습니까?》
녀사께서는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으시였다. 어쨌든 기쁜 소식이라니 좋으시였다.
《자, 밖에서 이러지 말고 방으로 들어가세. 로상에서 점심도 못했겠는데 제꺽 점심을 끓이겠네.》
《점심을 굶다니요. 사모님덕에 서문밖 객주집에서 점심을 한상 잘 대접받구 왔습니다. 사모님한테 조카벌이 된다고 하니 기장팔밥에 갖가지 산짐승고기와 물고기반찬에 꿩고기꾸미를 놓은 메밀국수까지

곁들어 어찌나 대접을 륭숭히 하는지, 허허허…》

침착하고 과묵한 성미인 고재봉은 그답지 않게 떠들고는 문득 정색을 지으며 녀사의 손을 꽉 잡아쥐였다.

《사모님, 기뻐하십시오. 한별동지가 지금 사도황구 우리 집에 와있습니다.》

《뭐라구? 성주가?!》

녀사께서는 정신을 아찔하게 하는 강한 충격에 몇발자국 비칠거리시였다. 고재봉이 얼른 달려와 녀사를 부축해드렸다.

녀사께서는 맏아드님께서 무사히 출옥하셨다는것이 꿈같이만 생각되고 믿어지지 않으시였다. 어느 한순간도 철창속에 계시는 아드님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날수 없었던 녀사이시다. 잠간 들리는 쪽잠의 꿈속에서도 차디찬 감방속에서 고생하시는 아드님을 보고 소스라쳐놀라 깨여난적이 한두번 아니시였다. 더구나 요즘은 걱정중에 더 큰 걱정이 겹쳐 가슴에 재가 앉던 녀사이시였다. 그런데 지금 아드님께서 길림에서도 몇백리 먼곳인 사도황구에 와계신다니 참으로 꿈같은 일이 아닌가.

문득 녀사의 눈앞에 평양감옥에서 나오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지팽이에 의지하여 만경대사립문으로 걸어들어오시던 광경이 련상적으로 떠올랐다. 빈사의 몸이 되신 김형직선생님을 눕히시기 위해 시아버님과 김형록시동생께서 벼짚으로 결은 들것을 들고 평양감옥으로 가셨댔으나 선생님께서는 들것은 왜 가져왔는가고, 내 발로 당당히 걸어가겠다고 분연히 웨치듯 말씀하고 동생의 몸에 의지하여 한발자국, 한발자국 힘겹게 걸음을 옮겨 만경대까지 수십리길을 걸어오시였다.

(성주도 그렇게 사도황구까지 걸어갔을가? 그 먼길을…)

녀사께서는 가슴이 찢기는것 같으시였다. 고재봉은 녀사의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위로하듯 말씀올리였다.

《사모님, 한별동지의 건강은 괜찮습니다. 출옥한 날 손정도목사님댁에서 점심 한끼를 들고 신안툰에 가서 동지들을 만나 하루밤 묵고 씩씩한 걸음으로 우리 집에까지 오셨습니다.》

《찬수 삼촌, 우리 성주야 여태 임자의 손아래 조카나 동생으로 무관하게 지내왔는데 아까부터 말씨가 왜 그러나? 젊은 애를 무슨 웃

사람 모시듯 하나.》
《사모님, 인젠 그래야 합니다. 물론 형권동무가 제 같은 또래의 친구여서 무송에 있을 때만도 제가 한별동지를 조카나 동생처럼 대했지만 이젠 그래선 안됩니다. 혁명가야말로 법도가 있어야지 혁명을 못합니다. 그리고 전 진심으로 한별동지를 지도자로, 스승으로 존경합니다.》
녀사께서는 잠시 말씀이 없으시였다. 마당에서 강반석녀사와 고재봉이의 대화를 듣고있는 세 녀인은 어리둥절해하였다. 그들은 한별동지가 어떤분이신지, 그분의 이야기가 나오자 강반석녀사께서 왜 그리도 놀라고 흥분하시는지 바이 모르고있었다.
《우리 성주가 사도황구에 갔다니 임자 어머니가 수고하겠네. 무송에 있을 때부터 임자 어머니는 우리 일로 고생을 많이 했지. 어머니는 우리 성주의 식성까지도 잘 알거야. 아무튼 임자네 집에 성주가 가있다니 마음이 놓이네. 자, 어서 방으로 들어가세.》
강반석녀사께서는 궤짝우에 개여얹은 이불 한채를 내리워 아래쪽에 펴시였다. 만가지 사연으로 얽어져있을 맏아드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시바삐 듣고싶었으나 녀사께서는 고재봉의 얼굴에 비낀 로독을 헤아리고 먼저 쉬게 하시려는것이다.
《어서 한숨 쉬게. 로독에 지쳐 임자 얼굴이 말이 아니네.》
《사모님, 이불펴고 잠잘새가 없습니다. 할머님께랑 인사를 올리고는 곧 떠나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 규률을 어기고 여기로 왔습니다.》
《규률을 어기다니?》
고재봉은 길림, 화룡, 훈춘, 룡정에 들렸다가 곧장 사도황구로 돌아가게 되여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고재봉에게 련락임무를 주어 보낼 때 안도에 들리지 말고 곧추 사도황구로 돌아오라고 하시였다. 시간이 급해서만이 아니였다. 5월적색폭동으로 놈들의 검색, 검문이 심해지고있는 때에 안도에까지 다녀온다는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였다. 원칙적으로 중요한 련락임무를 받은 공작원은 사사로운 일로 다니는것이 절대 엄금되여있었다. 그러나 고재봉은 맏아드님의 소식을 몰라 속을 태우고계실 녀사와 일가분들을 생각하고 300여리길

을 에돌아 안도에 들린것이다.

오늘은 사도황구에 도착할 날이였다.

《한별동진 안도에 편지 한장도 하지 않고 사도황구에 왔다고, 할머님과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몹시 마음을 쓰면서도 저더러 안도에 들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맡겨진 임무가 급하고 중요합니다. 지금 한별동지는 속이 새까매서 절 기다릴겝니다. 그러니 전 곧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급한 길인데도 날 보자구 300리길이나 에돌아 여길 왔나? 아닌게아니라 성주때문에 간이 말랐댔네만…》

녀사께서는 고재봉의 부르튼 입술을 측은히 바라보시였다. 고재봉은 원래 걸음이 빠른것으로 무송에서도 유명했었다.

녀사께서는 급히 일어나시였다. 고재봉이 곧 떠나야 한다니 도중길음식을 차비하려는것이다.

《사모님, 왜 일어나십니까? 사모님께 긴히 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 여기 앉으십시오.》

녀사께서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싶어 도로 앉으시였다.

《여긴 훈춘이나 연길쪽보다 좀 조용한것 같습니다. 적색폭동 말입니다. 지금 그쪽에선 수백수천명의 폭동자들이 죽고 잡혀가고 말이 아닙니다. 조직은 다 파괴되고… 한별동진 5월적색폭동이 좌경모험주의적로선에 추종하던 종파분자들이 일으킨 무모한 폭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기 사람들이 거기에 말려들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모르는 내 눈에도 그게 미친놈들이 하는짓 같네. 그래 여기 조직에서는 각성을 하고있네. … 한데 성주는 장차 어쩔 작정이라던가?》

《제가 바로 그걸 말씀드리자는겁니다. 사모님, 기뻐하십시오. 조선독립운동의 앞길이 환히 열리게 됐습니다. 한별동지가 감옥안에서 조선을 구원할 방책을 찾아냈습니다. 한별동진 지금 큰 회합을 준비하고있습니다. 그 회합에는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지도간부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걸 련락하기 위해 제가 훈춘에까지 갔다왔습니다.》

《회합을 한단 말이지.》

불현듯 가슴이 설레여 녀사께서 조용히 뇌이시였다.

고재봉은 한별동지께서 감옥안에서 구상하신 문제들을 자기도 아직 잘 모르고있지만 지금 차광수며 김혁이 같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모두 우리 혁명이 이제야 정확한 라침판을 가지게 되였다며 환성을 올리고있다고 하였다.

《사모님, 지금까지 숱한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 명백한 목표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목표가 명백해졌습니다. 어떤 혁명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혁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적인 문제까지도 한별동지가 명백히 밝히였다고 합니다. 한별동지는 저한테도 말해주었는데 이제 우리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혁명의 성격문제는 한별동지께서 사도황구에 오시기 전에 길림과 신안툰에서 차광수, 김혁, 박소심 등을 만나 토의에 붙이였는데 모두가 적극적으로 지지해나섰다고 했다. 그런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는 그 정치적용어가 녀사께는 무척 생소하게 들리시였다. 현대와 근대력사를 통해 알려진 혁명가운데는 부르죠아혁명이나 사회주의혁명밖에 없었다.

《그런 리론문제야 내가 뭘 알겠나.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봉건을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한다니 좋게 생각되네.… 그런데 그전에 성주아버지는 사회주의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네. 나도 무송에서 〈사회주의대의〉라는 책을 읽어봤지. 〈ㅌ.ㄷ〉의 강령에도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문구가 쪼아박혀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실정에서 당장은 사회주의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먼저 일제를 타도하고 봉건제도를 철폐해서 민주주의를 해야 한답니다. 당장 사회주의를 건설하면 민족자본가를 비롯한 소자산계급, 소상인들, 농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군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혁명도 아니고 부르죠아혁명도 아닌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는 새로운 혁명로선을 내놓게 되였답니다. 지금은 저도 그저 그런 정도로 알고있는데 앞으로 한별동지가 그와 관련된 책도 쓰고 보고문도 작성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보고문에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방

도와 방법적인 문제들 즉 당건설, 항일무장투쟁조직, 반일민족통일전선결성 등 혁명의 관건적인 문제들이 명백히 밝혀진다는것이였다.
녀사께서는 가슴이 벅차올라 저도 모르게 힘껏 주먹을 쥐시였다.
당건설, 조선군대창설, 반일민족통일전선형성, 이 세가지 문제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생전에 애타게 모색하고 그 실현을 위해 일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문제였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그 지원의 성업을 실현하지 못한채 큰 한을 품고 떠나가시였다. 이제 아드님께서 그 뜻을 잇기 위해 회합을 준비하고있다니 벌써 나라의 독립을 성취한것 같은 기분이시였다.
《할머님이 어디 계십니까? 제 인사를 올리고 가겠습니다.》
고재봉은 안경유리를 닦고 일어섰다.
녀사께서는 그를 데리고 사돈집으로 가시였다. 맏손자님께서 출옥하여 사도황구 고재봉이네 집에 와계신다는 꿈같은 소식을 들은 할머님께서는 기뻐서 어쩔바를 몰라하시였다. 김철주는 고재봉을 따라 형님이 계신 사도황구로 가겠다고 졸라댔다.
《형님, 철주를 보내자요.》
채련옥이도 기쁨에 들떠 철주의 편을 들어주었다.
녀사께서는 사돈집에서 고재봉이 리보익할머님과 이야기하는 사이 댁으로 돌아와 간소하게나마 도중음식을 차비해놓고 앉은책상에 마주앉아 맏아드님께 보내는 편지를 급급히 쓰시였다.
《성주야, 네가 출옥했다는 꿈같은 소식을 듣고 지금 온 가정은 기쁨에 넘쳐있다. 할머니는 너무 기뻐 덩실덩실 춤까지 췄다. 김형권삼촌은 장백쪽에 가계신다.
속옷을 보내니 갈아입어라. 지금 너한테는 밤에는 이불삼아 덮고 낮에는 막옷으로 입고다닐수 있는 덧저고리가 요긴할테지만 찬수 삼촌이 길이 바빠 당장 떠나야 한다니 덧저고리를 지을새가 없었다.
성주야, 여기 근심은 아예 말고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 나라찾는 일에 전력을 다해라. 네가 옥고를 치른 몸에도 의기를 잃지 않고 분주히 혁명사업을 하고있다니 그게 내게는 큰힘이 되고 기쁨이 된다. 할머니도 편지 한장없이 사도황구로 간 네 마음을 아시고도 남는다. 할머니는 그저 네 건강을 걱정하실뿐이다.

송계심어머니한테 내 인사를 전하거라. 모두 보고싶구나.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오늘의 고생을 옛말하며 살게 될 날이 꼭 오겠지.

동지들과 민중의 믿음을 잊지 말고 조선의 애국남아답게 싸우기를 바란다.

하고싶은 말은 산같다만 시간이 급해 이만하겠다.

부디 몸조심하거라.》

녀사께서 편지글을 얼추 한번 읽어보시였다. 너무 급하게 연필을 달리여 이것저것 두서없이 글을 쓰신것 같았다. 편지종이를 네겹으로 접은 녀사께서는 맏아드님의 속옷을 싼 보자기안에 그것을 넣으시였다. 그리고 방구석에 놓인 무명바랑을 찾아 아구리를 헤치고 보자기와 줴기밥덩이를 싼 종이꾸레미도 집어넣으시였다.

이때 마침 고재봉이와 김철주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사모님, 떠나겠습니다. 몸조심하십시오.》

《원, 이렇게두 급하게 간다구야. 정말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가누만.》

녀사께서는 무명바랑을 들고나와 철주의 잔등에 지워주시였다.

《그속에 형님 속옷 몇벌하구 편지 한장을 넣었다. 줴기밥덩이두 몇줌 몽그려넣었으니 가면서 고선생님이랑 요기하거라.》

마당에는 리보익할머님과 채련옥이 그리고 사돈집 일가분들도 와있었다. 베틀실에 풀칠을 하던 흥륭촌의 세 녀인도 그때까지 마당에 서있었다.

김철주와 고재봉은 여러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지름길이 있는 뒤산으로 총총히 톺아올랐다.

녀사께서는 그들의 뒤모습이 숲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이윽토록 마당밖에 서계시였다.

얼마후 녀사께서는 흥륭촌의 핵심조직원들을 모이게 하고 맏아드님의 소식을 전하시였다. 리영배와 김철희를 제외한 다른 조직원들은 그때 처음으로 김철주의 우로 녀사의 맏아드님이 계신다는것과 그이가 바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지도자 한별동지이시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들의 놀라움이 얼마나 컸겠는가. 한별동지의 출옥소식은 조직원들의 가슴에 크나큰 기쁨과 신심을 안겨주었다.

4

조희재는 왕방초의 호출을 받고 현경찰서로 갔다. 그의 머리속에서 여러가지 의문이 맴돌았다. 왕서장이 무슨 일로 갑자기 부르는것일가? 아무리 생각해도 짐작이 가지 않았다. 왕방초의 비위를 거슬리는 일은 단 한번도 한적이 없었으나 누구든 경찰서의 부름을 받으면 속이 께름한것이다.

경찰서 접수구앞에 이르자 당직순사는 그더러 안식관에 가보라고 하였다. 김광문이 도망친 후 안식관은 자연히 휴업을 하고 그 건물은 당분간 경찰서에서 관할한다고 했다. 만화가 락서되였던 안식관의 외벽은 몽땅 새까만칠을 해놓았다. 먹물로 락서한것을 지워버리자니 그렇게 검은칠을 한 모양이였다.

검은 제복을 입은 순사 하나가 립초를 서고있는 안식관 문앞에서 장총을 멘 젊은 보위단원이 누구를 기다리는듯 서성거리고있었다. 그 보위단원이 조희재의 신분을 확인하고 안식관 출입문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안식관은 밖에서 보기보다 내부가 훨씬 더 화려하고 아담했다. 살색나무로 바닥을 깐 복도가 우물 정자형으로 나있는데 하늘빛복도벽에는 여러가지 풍경화들이 걸려있었다.

보위단원은 복도를 여러번 꺾어돈 다음 한 방문앞에서 조심스레 손기척을 하였다.

《들어오시오.》

둥근 식탁을 마주하고앉아 홀로 차를 마시고있던 왕방초가 보위단원에게 안내되여 들어오는 조희재를 보자 밝은 웃음을 지었다. 그는 서장복을 입지 않고 양복차림을 하였다.

《이거 늙은 사람을 오라가라해서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왕방초는 보위단원을 내보낸 다음 조희재에게 원탁 맞은편 나무의자에 자리를 권하고 사기차잔에 홍차를 따르었다. 네개의 원형식탁과 여덟개의 나무의자가 놓여있는 깨끗한 방이였다. 식탁마다에는 값

진 백동차관이 놓여있었다.

《조용히 뭘 좀 물어볼게 있어서 조선생을 여기로 불렀습니다. 차를 드시오.》

《물어볼게 무엇인지?》

조희재는 차를 한모금 마시고 성급히 물었다. 그도 양복차림이였다.

왕방초는 양복안주머니에서 손바닥만 한 사진 한장을 꺼내더니 조희재의 눈앞에 가져다댔다.

《조선생, 이 사람을 알겠습니까?》

사진속에서 고급외투를 입은 마흔두세살 났음직한 사나이가 조희재를 마주보며 웃고있었다. 조희재는 부지중 눈을 홉뜨고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그 사람은 자기의 사위, 다시말해서 조춘희의 남편이였다.

조춘희의 남편은 동만지구에서 조선,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 기업가들과 거래하는 큰 목재상이였다. 시아버지도 봉천에서 방직업을 하는 자산가였다. 조희재는 4년전 순전히 돈을 보고 자기 딸을 19년이나 우인 이 목재상에게 시집을 보냈었다.

조희재가 서울에 있을 때는 땅마지기나 가지고있어 아들딸을 남부럽지 않게 공부시키고 괜찮게 살았지만 독립운동바람에 땅을 팔고 만주로 이주해온 이후부터 점점 재산이 거덜이 나서 살림이 쪼들리게 되였다. 게다가 독립군지휘관이였던 아들이 어느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 앓다가 죽게 되자 집안꼴은 더 한심하게 되였다. 세끼 밥을 먹기도 힘들게 되였다. 이때부터 그는 독립운동에 대해 환멸을 가지게 되였다. 그 운동에서 얻은것은 과연 무엇인가. 아들을 저세상으로 보낸 상실과 가난밖에 차례진것이 없었다. 결국 조희재는 집안의 가난을 구제하기 위해 19살의 젊은 딸을 조선에 있을 때부터 풋낯이나 알고있는 돈많은 목재상과 결혼시키였다. 목재상에게는 4살이나 우인 본처가 조선에 있었다. 그러나 조혼한 신식남자들이 대체로 그러하듯 그는 15년동안이나 본처와 떨어져 지내서 리혼한것이나 다름없이 된 상태였다. 조희재는 이런 관계를 잘 알고있으면서도 딸을 목재상과 결혼을 시키였다. 그로서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 어찌할

수없이 하게 된 일이였다. 조춘희도 아버지의 고통과 집안사정을 잘 알고있었으므로 묵묵히 희생의 길을 택하였다. 조희재로 볼 때 그 딸은 더없이 고마운 효녀였다.

사위는 조희재네 일가에 몇해동안 풍청거리며 살수 있는 많은 돈을 주었고 대흥툰에 큰 집을 지어주었다. 그런데 말썽은 남편에 대한 조춘희의 온곱지 못한 태도였다. 조춘희는 봉천에 가서 결혼식을 한 이후 남편과 얼마간 같이 지내고는 창피스러워서인지 남편을 멀리하고 내내 본가에 와있었다. 남편의 본집은 봉천에 있고 동만 각지에 이동숙소들이 있는데 송강에 있는 춘희의 집도 그런것이였다. 조춘희가 계속 본가살이를 해도 가만있는것을 보면 남편은 그리 악한 사람같지는 않았다. 아니면 조춘희 이외에도 녀자들이 많아 그런것쯤은 꿈만하게 생각하고있는지도 몰랐다. 원래 본처를 버리고 15년동안이나 독신으로 돌아다닌 자산가이고보면 붙어다니던 녀자들이 좀 많겠는가.

대흥툰의 주민들속에서 조춘희의 남편을 본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그런데 천만뜻밖에도 왕방초가 사위의 사진을 들고왔으니 조희재는 경악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 사람을 알만 합니까?》

왕방초는 사진을 흔들며 다시금 따지듯이 물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어떻게 서장님이?》

조희재는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것을 예감하며 맥없는 소리로 반문하였다.

《이 사람이 바로 안식관을 짓도록 김광문이놈한테 돈을 대준 사람입니다. … 조선생의 사위가 말입니다. 사위가 옳지요?》

조희재는 가슴이 섬찍하였다.

《예, 제 사위가 옳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김광문이와 경제적 거래를 하였을뿐이지 인간적으로 가깝거나 사상적으로 서로 동조하거나… 예,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 그에 대해선 제가 잘 알고있습니다.》

조희재는 입안이 얼어들어 떠듬거리였다. 왕방초가 자기 사위와 김광문의 관계를 놓고 무슨 언질을 잡으려는것 같아 두려웠다.

《허허허… 조선생, 달리 생각지 마시오. 이 사람에 대해서 색다르게 보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왕방초는 별스레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다.

《나는 도망쳐간 김광문이놈의 뒤를 캐보는 과정에 그놈이 이 사람과 돈거래를 한 사실과…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선생의 사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허허허. …》

조희재는 크게 벌린 왕방초의 입안에서 시뻘건 혀끝이 뱀의 혀처럼 날름거리는것을 보고 소름이 끼쳐 몸을 떨었다.

《조선생에 대해선 흥륭촌 촌장을 통해 좋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조선생은 보위단이나 경찰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선 무조건적으로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남에서 훈장질을 하는 류호라는 령감은 영 딴판이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질을 많이 하는 못된 령감이랍니다.》

눈알을 옆으로 피끗 돌리는 왕방초의 눈에서 살기가 번뜩이였다.

조희재는 이 표독스러운 인간과는 엇설 필요가 없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며 아첨기어린 웃음을 지었다.

《예, 저도 그 류호령감때문에 머리를 앓습니다. 방금 김춘봉촌장에 대한 말이 나왔습니다만 류호령감은 흥륭촌주민이 닭고기라면 촌장은 근대라는겁니다.》

《그건 무슨 소린가요?》

왕방초가 호기심을 가지고 물었다.

《닭고기에 근대가 섞이면 독이 생기는것처럼 주민들속에 김춘봉촌장이 끼이면 해독작용이 일어난다는거지요. 이 령감은 전탕 이런식으로 당국에 충실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애국관헌들에 대해 나쁜 선전을 합니다. 음과 양은 서로 대립되여있지만 통일되여있고 그 통일조화과정을 거쳐 천지만물이 변화발전하는데 맑스의 리론에도 그런게 있다는겁니다. 결국 음양가인 자기는 맑스의 사상을 지지한다는건데 얼마나 아짜아짜한 소립니까. …》

왕방초는 손가락으로 식탁을 똑똑 두드리면서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있었다.

조희재는 어쩐지 속이 께름하였다. 왕방초앞에서 류호에 대하여 나

쁜 말을 너무 많이 한것 같아서였다. 그것이 비렬한 행위라는것을 그는 모르지 않았다.

《류호령감이 맑스의 리론에서 어떤 공통점을 찾은데 대해서 나는 나쁘게 생각지 않습니다.》

왕방초가 손가락장단을 멈추고 불쑥 내뱉았다. 조희재는 놀라며 눈섭을 구핏하였다.

《나도 레닌의 리론들중 매우 중요한 문제에서 공통점을 가지고있습니다. 착취계급은 저절로 물러나지 않는다, 때문에 무자비한 폭력적인 방법으로 착취계급을 전복해야 한다. 이게 레닌의 사상인데 나 역시 적대자들에 대해선 맹수가 되고 악귀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왕방초는 이렇게 말끝을 맺고 조희재에게 문득 사위의 소식을 알고있는가고 물었다.

조희재는 일년가까이 사위의 소식을 모르고있었다. 굳이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딸과 사위의 관계는 이미 이그러진 상태였다. 이제는 자신의 생활토대가 어지간히 마련되여있으므로 사위가 딸을 내버린다 해도 걱정되지 않았다. 이제는 모든것을 딸의 의사와 자유에 맡기려는것이다.

《나는 그 사람의 소식을 모릅니다.》

조희재는 한참만에 대답하였다. 왕방초는 조희재의 어두운 표정을 이윽히 지켜보다가 눈길을 먼곳으로 보내였다.

《조선생! 놀라지 마시오. 사위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

조희재는 자기 귀를 의심하며 눈을 크게 떴다.

《이번 적색폭동바람에 희생됐습니다. 폭동자들이 자산가라고 하여 사위를 쇠스랑이로 탕을 쳐 죽였습니다. 폭동자들은 지주, 자본가들을 타도하라고 부르짖으면서 식당, 학교, 정미소까지도 불살라버리고 선생과 같은 민족주의자들도 반공분자라고 곡괭이로 들이팼습니다. 공산분자들의 계급투쟁이란 바로 이렇기때문에 공산주의냄새가 조금이라도 풍기면 나는 무조건 창비합니다.》

왕방초의 입술이 푸들푸들 떨리였다. 조희재는 간담이 서늘해졌

다. 쇠스랑이에 얻어맞아 만신창이 된 사위의 참상이 자꾸만 눈앞에서 얼른거렸다. 머리끝이 쭈뼛해졌다. 별로 정이 든 사람은 아니지만 죽었다고 하니, 그것도 매맞아 죽었다고 하니 가슴이 떨리고 얼얼하였다.

왕방초는 조희재의 창백해진 얼굴을 지켜보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이번에 대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백수천명의 폭동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체포하였습니다. 공산조직은 다 들장나고 군중의 신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공산당은 페허로 됐습니다. 물론 우리쪽에서도 다소 피해를 입었지만 그건 새발의 피지요. 선생의 사위가 사망된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는 간단한 자산가가 아니였는데…》

왕방초는 또다시 손가락으로 식탁을 똑똑 두드리였다. 이때 문득 조희재는 사위가 가지고있는 그 많은 재산을 누가 상속받게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것이 목재상의 미망인인 자기 딸에게 넘어올수 있다는 기대감에 그의 가슴은 어지럽게 뛰놀았다. 그러나 방금 사위의 사망소식을 들었으니만큼 그런 내색을 해서는 안되였다.

(너는 너무도 파렴치한 수전노이다.)

가슴 한구석에서 무섭게 웨치는 량심의 목소리에 조희재는 와뜰 놀랐다.

왕방초는 조희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듯 쓸쓸히 미소를 지으며 처량하게 중얼거리였다.

《목재상의 재산은 모두 그의 아버지한테 넘어갔습니다.》

조희재는 그 소리가 우뢰처럼 들리였으나 못 들은척 하였다.

《그러나 조선생의 따님이 이 안식관건물은 가질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집은 선생의 사위가 돈을 대서 지은겁니다. 김광문이란자가 그 빚값으로 이 집을 목재상에게 넘긴다는 인계문건을 만들어 자기 방 책상우에 올려놓고 도망쳤습니다. 목재상의 아버지가 그건 모르고있습니다. 그러니…》

왕방초는 안주머니에서 종이 한장을 내놓았다. 그것이 김광문의 인계문건이였다.

《김광문은 어떻게 됐는가요, 붙잡았는가요?》

《그런거나 붙잡아서 뭘하겠소. 아무때건 저절로 죽을 놈을…》
왕방초는 김광문이때문에 이를 갈면서도 딴전을 부렸다. 아직 김광문의 행처를 모르고있는것이 분명했다. 하기는 이 광활한 만주땅은 숨을데가 너무도 많았다.
조희재에게는 안식관이 조금도 탐나지 않았다. 만약 그걸 가진다면 숱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수도 있었다.
《우린 그 사람의 재산을 눈곱만큼도 다치고싶지 않습니다. 안식관은 이왕 경찰서에서 관할하였던것만큼 왕서장께서 처분하십시오.》
조희재는 왕방초의 반응을 기다리였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선생이 희사한것으로 합시다. 애국국민으로 등록할것입니다.》
왕방초는 선뜻 응하였다. 령리한 조희재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음식점에 가서 저녁이나 같이하고 헤여집시다.》
왕방초는 주먹으로 식탁을 꾹 누르며 일어섰다. 조희재도 일어섰다.
《왕서장님을 만나뵈온 기회에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장차 만주의 정세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앞으로도 오직 왕서장님께 의지해서 살아가자고 합니다.》
이것은 조희재의 아첨인 동시에 진심이기도 하였다. 보위단과 경찰서를 다 거머쥔 왕방초에게 붙어야 무난히 살아갈수 있을것이였다.
《만주의 정세?》
왕방초는 빈정거리듯 뇌이고는 바른손을 머리우로 쳐들었다.
《그건 너무도 명백하오. 만주땅은 일본사람들의 세상이 됩니다. 그건 시간문제요. 나는 당신을 믿고 진실을 말하오. 하긴 웬간한 사람은 다 예측하고있는 문제지요. 아마 조선생도 뻔히 알면서도 나를 중떠보았을겝니다.》
왕방초가 조희재의 잔등을 치며 크게 소리내여 웃었다. 조희재는 몸이 오싹해졌다.
《지금 국민당과 안도현 관헌들 내부도 매우 복잡합니다. 친일분

자, 반일분자, 중도분자, 반공분자, 련공분자, 봉건적구식보수파, 자본주의적신식혁신파 등 여러 계렬의 인물들이 혼잡되여있습니다. 실례로 무한장은 반일반공분자라면 소사하의 쌍병준지주는 친일반공분자입니다. 그들중 누가 더 전망성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조선생자신이 판단하시오. 자, 갑시다.》

왕방초는 팔을 홱 내젓고 성큼성큼 복도로 걸어나갔다.

조희재는 서문각에서 우동 한그릇을 먹고 왕방초가 내주는 고급유개마차를 타고 대흥툰으로 돌아왔다.

왕방초는 서문각에서 조희재와 헤여질 때 앞으로 김춘봉촌장과 가까이 지내고 인도주의를 한다면서 반공공작에 방해를 끼치는 강반석녀사를 경계하라고 하였다.

《강부인은 조선생편이 아니라 류호편이요. 그것은 류호훈장이 경찰서에 잡혀왔을 때 그를 희생적으로 도와준것만 보아도 알수 있소. 강부인은 조선생을 누르고 류호를 올려세우려고 하고있습니다.》

왕방초는 인사국 부국장이 강반석녀사의 말을 듣고 대번에 류호를 석방시키라고 지시한것으로 미루어보아 녀사께서 봉천의 큰 인물들과 련계되여있다고 억측하고있었다. 그러나 조희재에게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그가 녀사에 대하여 그런 터무니없는 억측을 하고있는것은 참으로 다행이였다.

《나는 일이 바빠 대흥툰에 자주 가보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조선생을 힘껏 보살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김춘봉촌장과 련계를 가지시오.》

조희재는 이 마지막말이 매우 의미심장한것이라고 직감하였다. 번거로운 생각을 굴리며 집으로 돌아온 조희재는 먼저 정지방으로 향하였다. 적색폭동으로 희생된 사위의 소식을 전하려는것이다.

(차라리 잘됐지. 우리 춘희한테는 잘된 일이야.) 하고 생각하며 정지방으로 들어서던 그는 와뜰 놀라며 한자리에 굳어졌다. 뜻밖에도 강반석녀사께서 와계셨기때문이였다. 안씨와 딸은 옷고름으로 눈물을 씻고있었다.

《왜들 울고있소? 그 사람의 소식을 들었소?》

조희재는 그들이 사위의 소식을 듣고 울고있는것으로 짐작하였다.

비록 정든 사람은 아니지만 명색은 사위이고 남편이니 눈물을 아니 흘릴수 없었다.

《그 사람의 소식이라니요?》

안씨가 조희재의 물음에 반문하였다.

《춘희 남편이 이번 적색폭동에 잘못된거 말이요.》

《잘못되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안씨는 깜짝 놀랐다. 춘희도 눈이 올롱해졌다. 강반석녀사께서도 놀라와하시였다.

《그가 죽은걸 모르고있소? 그런데 왜들 울고있소?》

조희재는 어리둥절해하였다.

《접때 남편을 따라 길림으로 간 조선녀 있잖아요. 강부인님이 그 아지미네 집안이 겪은 눈물나는 옛날이야길 했어요. 우린 그래서 울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단 말이예요?》

조희재는 어이가 없어 잠시 멍청히 서있다가 눈물에 벌겋게 짓물린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이기에 저 차거운 새침데기가 오열했단 말인가? 물론 그는 조선녀에 대한 이야기가 자기 딸의 이야기와는 대조적인 비극이라는것을 알수 없었다.

조희재는 돈을 보고 스스로 자기 딸을 나이도 많고 본처가 있는 자산가에게 시집을 보냈지만 반대로 돈회계도 할줄 모르는 불구자인 조서방은 지주의 첩으로 될 자기 딸의 손상당한 인격때문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다.

딸의 인격에 대한 립장에서 누구의 정신이 더 깨끗하고 높은가. 이 물음이 조춘희를 울리였던지 모른다. 그러나 이야기의 내막을 전혀 모르는 조희재는 대뜸 《조선녀? 난 그 애의 이름만 들어도 10년전에 먹은 송기떡이 올라와! 그래 강부인님은 그 얘길 하자고 일부러 우리 집에 찾아왔는가요?》하고 물었다.

조희재의 얼굴이 적의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 순간 그의 귀전에서는 강부인을 경계하라, 강부인은 너를 누르고 류호를 올려세우려 한다고 뇌까린 왕방초의 목소리가 세차게 울리고있었다.

녀사께서는 그의 격노한 태도에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씀하시였다.

《조선녀이야길 하자고 찾아온건 아니고 댁의 따님에게 야학선생을 해달라고 부탁하다가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 그런데 적색폭동에 사위님이 잘못됐다는건 무슨 소린가요? 사위님이 어디 계셨기에?》

《우리 집일에 상관하지 마시오. 그리구 우리 춘휠 야학선생 시킬 생각도 말고요. 다시는 우리 집마당에 들어서지 마시오.》

조희재는 웃방으로 올라가 신경질적으로 장지문을 거칠게 닫아버렸다.

조희재의 무례한 언행에 녀사께서는 아연해지시였다.

안씨는 안절부절하였다. 이윽고 웃방에서 울리는 조희재의 성난 목소리가 방안의 공기를 한층 더 랭랭하게 하였다.

《강부인님은 언젠가도 우리 춘희더러 하는 일없이 무료하게 지내지 말고 야학생들이랑 가르치며 애국계몽사업을 하라고 부추겼다는데 그건 우리 애가 무위도식한다는 비난이겠지요. 어불성설이요. 그 애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무위도식하는지 알기나 하시오?》

별안간 조춘희가 울음을 터치는 서슬에 웃방의 목소리가 뚝 끊어졌다. 녀사께서 오열에 떠는 조춘희의 어깨를 어루만지시였다.

《춘희, 그만 그쳐. … 내가 춘희에 대해 너무도 모르는것이 많은것 같네.》

조춘희의 울음은 오래도록 진정되지 않았다. 녀사께서는 그가 울음을 그쳤을 때 조희재의 집을 나서시였다. 밖은 캄캄하였다.

녀사께서 그 집 대문을 나서시는데 안씨가 달려나와 그이의 손을 붙들고 사정하였다.

《사모님, 우리 령감을 고깝게 생각지 말구 춘희를 야학선생을 하게 해주세요. 저 애가 저렇게 혼자 빈방에 내내 들어박혀있으면 병이 날것 같아요.》

녀사께 있어서 이것은 전혀 뜻밖이였다.

《그거야 이 집에서 결심할탓이지요. 조선생이 허락하지 않으니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 령감의 눈을 속이면서라도 야학에 내보내 기분을 돌리게 해

야지 안되겠어요. 우리 춘흰 속이 꽁한 애예요.》
《어머니 소원이 그렇다면야… 춘희를 좀 내보내주세요. 본인의 의향도 다시 물어보고 할말도 있어서…》
안씨는 서둘러 방안으로 들어가 딸을 내보냈다.
녀사께서는 춘희의 손을 꼭 잡아쥐시였다.
《춘희, 걸으면서 이야기하세. 방금 어머니는 아버지와 달리 춘흴 야학에 내보내달라고 했네. … 본인의 생각은 어떤가?》
춘희는 고개를 소곳한채 오래도록 잠자코 걸어가다가 오똑 멈춰섰다.
《녀사님은 아마 저를 천하 매정한 녀자라고 많이 욕했을거예요. 저는 녀사님의 진정한 조언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 지금 이 마을녀인들은 우리 아버지를 증오할거예요. 사형수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조직할 때부터 그렇게 됐지요. 그러니 제가 무슨 체면에 그들앞에 나서서 글을 가르치겠나요. 전 이미 인생을 망친 녀자예요.》
조춘희는 몸을 떨며 녀사를 외면하고 돌아섰다.
《인생을 망쳤다니 그건 무슨 소린가? 설사 잘못한 일이 있어도 고치면 되는거네. 아버지가 서명운동을 반대한것도 리해할수 있네. 아버지는 실지 마을에 더 큰 화가 미칠가봐 반대한거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지내 겁이 많아져 아직까지도 꼭 해야 할 좋은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거네.》
사실 류호는 음양의 조화가 파괴될가봐 부녀친목회를 반대하고있지만 조희재는 권력자들의 눈에 날가봐 부녀단체는 물론 야학을 운영하는것까지도 달가와하지 않는것이다. 그는 남녀음양의 조화따위는 별로 생각지 않는 사람이였다.
《나는 춘희가 다른 생각 말고 야학교단에 올라서길 바라네. 그리고 아버지가 굳세게, 청렴하게 살아가도록 잘 도와주었으면 해. 용감한 사람은 한번 죽지만 비겁한자는 두번, 세번 죽는다는 말이 있지 않나. 이건 춘희 아버지가 명심해야 할 말이라고 보네.
춘희, 나는 지금 힘든 말을 하고있네, 아버지를 위해서…》
녀사께서는 춘희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길로 야학방에 데리고 가시려는것이다.

×

고재봉을 따라 사도황구에 갔던 김철주는 6월초에 흥륭촌으로 돌아왔다.

어슬막에 집에 들어선 김철주가 무명바랑에서 먼저 꺼낸것은 맏아드님께서 보내신 편지였다.

녀사께서 급한 마음으로 겉봉을 뜯으시니 《志遠(지원), 朝鮮獨立(조선독립), 康寧(강녕)》이라고 쓴 속지가 나왔다. 붓으로 쓴 그 여덟자가 바로 아버님의 뜻을 이어 기어이 나라를 찾을 철석같은 결의와 만경대일가분들의 건강을 축원하는 뜨거운 마음이 담겨있는 아드님의 회답편지였다.

녀사께서는 몇십장 되는 긴 편지를 받으신것보다 더 흡족하고 기쁘시였다.

김철주는 사도황구의 이야기를 밤새도록 하였다. 모두가 다 녀사를 놀라게 하고 감동시키는 이야기였다.

맏아드님께서는 나날이 건강이 회복되는 속에서 조선혁명의 운명과 관련된 큰 회합을 준비하고있다고 하였다.

녀사께서는 맏아드님을 극진히 돌봐드리는 고재봉일가의 정성이 눈물이 나도록 고마우시였다. 지금 고재봉이네는 낯선 고장에 와서 객주업도 하지 못하고 첫해농사를 방금 시작한데다 누이네 자식들까지 얹혀있어 식량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했다. 그렇지만 고재봉의 어머니 송계심은 감옥독을 빼는데 좋다는 두부를 앗아 매일과 같이 맏아드님께 대접해드리고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국수분틀을 구해다가 저녁에는 그이께서 좋아하시는 국수를 누른다고 하였다. 고재봉이와 그의 매부도 이틀이 멀다하게 현소재지에 가서 보신에 좋다는 송어, 잉어와 같은 민물고기를 사온다, 부종에 특효가 있다는 상골을 잡으려고 새벽마다 샘터를 찾아다닌다 하며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있다는것이다. 아침해가 떠오를무렵이면 고산지대 샘물속에 미세한 물체가 무수히 아물거리며 움직이는데 민간에서는 그것을 상골이라 한다. 해뜰무렵이 지나면 상골이 사라지므로

그것을 잡으려면 해뜨기 전부터 샘터에서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 새벽마다 상골을 잡아온 고재봉이와 그의 매부의 정성이 얼마나 지극한것인가.

김철주는 사도황구에서 김혁, 차광수, 계영춘, 김준 등 여러명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을 만나보았는데 어느날인가는 그들이 형님께서 감옥안에서 구상하신 당건설로선문제를 놓고 토론하는것을 직접 보았다고 한다.

녀사께서는 김철주를 통해 당건설에 대한 맏아드님의 발언내용을 구체적으로 듣게 되시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속에서 당건설문제가 심각하게 론의되게 된것은 국제당에서 제기한 1국1당제원칙때문이라고 한다.

1925년 4월 우리 나라에서 조직된 공산당은 처음부터 파쟁의 길을 걷다가 국제당대렬에서 제명돼버렸다. 그후부터 만주지방에서는 화요파, 엠엘파가 해외당재건운동단체인 만주총국을 조직하여 저마끔 국제당을 찾아다니고 국내에서는 서상파가 당재건바람을 일으켰으나 파쟁과 일제의 탄압으로 하여 어느 파도 성사하지 못하고 숱한 웃음거리만 남겨놓았다.

이런 때 국제당 동양지부에서는 하바롭스크에서 조선공산당대표회의를 열고 재만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국제당에 가입하되 중국당원으로서 활동할데 대한 국제당의 결정을 통지해주었다고 한다. 이 결정이 공식적으로 채택되기 전부터 국제당의 의도를 알아차린 재만조선공산주의자들은 만주총국을 해체해버리고 중국공산당에로의 전당바람을 일으켰다. 5월적색폭동은 바로 재만조선공산주의자들의 전당바람과 련결된 폭동이다.

그러면 이 1국1당제원칙때문에 우리는 당을 건설할수 없단 말인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이 애타는 물음에 한별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문제는 1국1당제원칙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1국1당제란 한 나라에 두개의 공산당중앙이 존재할수 없고 오직 하나의 공산당중앙만이 있을수 있다는 원칙이다, 그렇다

면 우리는 만주에서 당중앙을 먼저 내오지 않고 기층당조직을 먼저 꾸려 당의 기초건설을 다지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지 않겠는가, 사실 당을 창건하는것도 기초공사를 먼저 하고 집을 짓는 건설공법과 같다고 말할수 있다, 군중지반이 없는 당중앙은 모래우의 루각과 같다,

우리는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을 골간으로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것을 확대강화하는 방법으로 당을 창건하자!…

강반석녀사께서는 격동되여 만세를 웨치고싶으시였다.

김철주는 형님과 청년공산주의자들에게 안도혁명조직의 사업정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다고 한다. 병약한 몸으로 초인간적인 활동을 벌리신 강반석녀사의 로고에 모두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였다.

이제 6월말－7월초에 카륜에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지도간부들의 회의가 열린다고 한다. 이 회의를 계기로 조선혁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것이다.

사도황구에서는 김철주의 공청가맹문제도 심의하였다고 한다.

밤새도록 들으신 사도황구이야기에서 녀사께서는 무한한 힘과 신심을 받아안으시였다.

녀사께서는 밖으로 나오시였다. 푸름푸름 려명이 트는 동쪽하늘에서 새별이 반짝이였다.

새날을 불러오는 새별, 그이께서는 김혁이 지은 새별의 노래를 조용히 입속으로 부르시였다.

《참 어머니, 제가 사도황구에 가있는 동안 대흥툰의 야학은 어떻게 됐어요?》

김철주가 녀사께 다가와서 묻는 소리였다.

《조춘희아주머니가 가르치고있다. … 이제 날이 새면 우리 조직원들에게 사도황구의 소식을 알려주어야겠다. 모두가 기뻐하고 신심을 가지게 될거다. 》

녀사께서는 유난스레 반짝이는 새별을 그냥 바라보고계시였다.

5

저녁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흥륭촌마을 집집의 굴뚝에서 흰연기가 피여오르고있었다. 마을 서쪽으로 뉘연히 펼쳐진 논밭도, 동쪽변두리를 성벽처럼 막아선 산발도 모두 푸른빛으로 단장하였다.

바랑을 지고 농립모를 쓴 젊은 사나이가 강반석녀사께서 곁방살이를 하시는 최두현이네 집마당으로 흥얼흥얼 코노래를 부르며 들어섰다.

마당에서 참새떼를 좇아다니던 복슬개 한마리가 낯선 사나이를 보더니 대가리를 쳐들고 멍멍 짖어댔다.

개 짖는 소리에 아래방지게문이 벌컥 열리더니 곰방대를 입에 문 로인이 젊은이를 띠여보고 반색을 지었다.

《이게 누군가? 형권군이 왔구만. 한데 무슨 남의 집에 온것처럼 엉거주춤 서있나.》

《그새 편안하셨습니까?》

김형권동지께서 농립모를 벗고 로인에게 정중히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시였다. 웃방길머리에서 물레질을 하시던 리보익할머님께서 문을 여시였다.

《형권이로구나.… 바랑을 진걸 보니 처가에 들리지 않고 여기로 곧장 온가보구나.》

《예. 어머님, 앓지 않으셨습니까? 형수님이랑 무고하신가요?》

김형권동지께서는 구팡돌을 밟고 토방으로 올라서시였다.

부엌에서 김복진이와 함께 저녁을 지으시던 강반석녀사께서 행주치마에 손을 문대며 밖으로 나오시였다.

《적은이 오셨군요. 장백에서 오는 길이예요?》

《장백에서 온지는 며칠 됩니다. 그새는 안도소재지에 있었습니다. 형수님, 제 기쁜 소식을 한아름 안고왔습니다.》

과묵하고 무뚝뚝한편인 김형권동지께서 싱글벙글하시였다. 그러자 리보익할머님께서 가까운 곳에 와있으면서야 왜 집에 한번 들리지 않

왔느냐고 나무라시였다.
녀사께서 어느새 찬물을 담은 놋대야를 토방에 가져다놓으시였다.
《어서 손을 씻고 저녁을 드세요.》
김형권동지께서는 뒤허리에 수건을 찬채 푸푸거리며 씨원스레 얼굴을 씻은 다음 문턱에 걸터앉아 발을 씻으시였다.
《원, 개울에 나가 손발을 씻을게지… 형수가 아직 너를 어린애 다루듯 하누나.》
리보익할머님께서 방안에 들어와 헝겊으로 발을 문대는 셋째아드님을 보며 속빈 나무람을 하시였다. 그사이 녀사께서는 저녁상을 차려오시였다. 보리와 좁쌀에 당콩을 섞은 잡곡밥이였다. 찬으로는 열무김치와 새끼손가락만 한 잔고기들을 넣고 끓인 썩장이 올랐다. 김복진이가 양재기처럼 속안이 벌떡한 나무그릇에 금방 따서 삶은 풋강냉이를 담아가지고 들어왔다.
《먼길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진은 수집게 인사를 하고 얼른 돌아서 나갔다.
리보익할머님께서도 셋째며느리에게 알리려는지 밖으로 나가시였다.
《풋강냉이가 먹음직하군요. 형수님도 하나 드세요. 그런데 철주랑은 어디로 갔습니까?》
김형권동지께서는 풋강냉이 한이삭을 녀사께 드리며 조카들을 찾았다.
《철주가 공청원이 됐어요. 사도황구에 갔다와서 얼마나 열성을 내는지 집에 붙어있지 않아요.》
녀사께서 손에 드시였던 강냉이를 도로 양재기에 내려놓고 기쁜 소식이란게 무엇인가고 물으시였다.
《이번에 카룬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지난 6월 30일부터 카륜에서 진행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지도간부들의 회의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였다.
《성주가 그 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진로〉라는 제목으로 보골 했는데 그게 바루 감방안에서 구상하고 무르익힌 조선혁명의 경륜을 피력한거랍니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조카분이 보고한 《조선혁명의 진로》에 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에 대한 규정으로부터 당건설방침, 항일무장투쟁과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 등 조선혁명의 전략전술적문제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있다고 하시였다.

《형수님, 성주는 우리 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에 대한 해설문이 내려올겁니다.》

그것은 이미 녀사께서 고재봉이와 둘째아드님을 통해 들으신것이였다.

카륜회의가 끝난 즉시 7월 3일에는 당조직결성회의를 소집하였는데 그 회의에서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차광수, 김혁, 최창걸, 계영춘, 최효일 등 십여명의 청년공산주의자들로 첫 당조직을 무었다고 하였다.

《당조직을!》

녀사께서는 두손을 가슴에 모두어붙이시였다.

당! 이것은 김형직선생님께서 관전회의에서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무산혁명에로의 방향전환의 로선을 제시하신 후부터 자나깨나 모색하시던것이였다.

《당조직의 이름은 〈건설동지사〉입니다. 이것은 당중앙이 아니라 기층당조직입니다.》

《건설동지사》라는 명칭은 밑바닥으로부터 한장한장 벽돌을 쌓아 웅대한 건축물을 형성하듯이 생사를 같이할수 있는 동지들을 한사람한사람 찾아내여 당의 기초를 축성하고 그것을 계속 심화발전시켜 그 어떤 폭풍과 지진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금성철벽의 당을 건설하려는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포부와 의지를 담고있다고 하였다.

《형수님, 저는 회의에 참가하지 못했지만 건설동지사의 첫 당조직원이 되였습니다. 김리갑, 리제우들도 회의에 참가하지 못했지만 당조직원이 되였습니다.》

《그래요? 적은이가 공산당조직원이 됐단 말이지요. 정말 기쁜 일이예요.》

녀사께서는 첫 공산당조직원들의 이름을 소중히 머리속에 새겨두

시였다. 그들중에는 최창걸, 계영춘, 곽명준이와 같이 이미 잘 알고있는 청년들도 있고 얼굴은 보지 못하고 몇해전부터 맏아드님을 통해 이름만을 기억해두고계시는 청년들도 있었다.

녀사께서는 당조직을 결성한 성스러운 집을 눈앞에 그려보시였다. 마을에서 수백메터 떨어진 쟈쟈툰 앞벌에 《진명학교》라는 간판을 써붙인 자그마한 건물이 호젓이 서있는데 개버들진펄에 에워싸인 이 촌학교 교사에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당조직결성회의가 있었다고 한다.

《그날 회의에서 당의 강령과 규약을 채택했겠는데 나도 알고싶어요.》

강반석녀사께서는 앉음새를 바로하시였다.

《강령규약은 따로 채택하지 않았답니다. 이미 〈ㅌ. ㄷ〉의 강령규약에 명백히 밝혀져있고 카륜회의에서 제기한 성주의 보고에 혁명로선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여있으니까요.》

《그러니 〈ㅌ. ㄷ〉에 뿌리를 두고있는 당조직이구만요.》

녀사께서는 맏아드님께서 화전에서 《ㅌ. ㄷ》를 조직하고 무송으로 돌아오신 1926년 초겨울을 추억에 떠올리시였다. 그때 열다섯살밖에 되지 않는 맏아드님이 스무살도 넘는 청년들로 조직된 《ㅌ. ㄷ》의 지도자로 선출되였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놀라셨던가. 이제 조직된 건설동지사의 성원들도 모두다 맏아드님보다 오륙년, 지어 10년이나 나이들이 많은 청년들이였다. 김혁, 차광수와 같이 일본에 가서 대학물을 먹은 사람들도 있고 시동생의 친구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모두가 맏아드님을 혁명의 지도자로 내세우고 그 두리에 굳게 뭉쳐있다니 참으로 그들은 지난날 지위욕에 눈이 어두워 자리다툼만을 해오던 독립군지휘관들이나 초기공산주의자들과는 전혀 다른 새형의 깨끗한 혁명가들이였다.

《형수님, 7월 6일에는 고유수의 삼광학교마당에서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였습니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조선혁명군은 **김일성**동지의 항일무장투쟁로선에 기초하여 처음으로 결성한 첫 정치 및 반군사조직이라는것, 조선혁명군을 발판으로 하여 앞으로 상비적인 혁명무력을 창건하게 된

다는것, 조선혁명군의 기본사명은 도시와 농촌에 들어가 인민대중을 교양하고 각성시켜 그들을 항일의 기치아래 묶어세우면서 무장투쟁의 경험을 쌓고 본격적인 무장대오를 결성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어 나가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점점 더 흥분을 띠고 손세를 써가며 성수가 나서 말씀하시였다.

《조선혁명군은 당면하여 혁명무장대오를 꾸릴수 있는 골간을 육성합니다. 혁명군대가 의거할수 있는 대중적지반을 꾸리고 무장투쟁을 벌리기 위한 군사적준비를 갖추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지금 조선혁명군은 제1대, 제2대, 제3대 하는 식으로 여러개의 대를 내왔다고 한다. **김일성**동지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혁명군 대장과 여러명의 혁명군지휘관들을 임명하여 당장 각 방향으로 출전의 길을 떠나게 되였다는것이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마치 어떤 전설적영웅들, 장수들에 대한 이야길 듣는것만 같으시였다.

《형수님, 성주가 저도 조선혁명군 지휘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원들을 이끌고 조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조선으로!》

《아니, 조선으로요!》

녀사께서는 가슴을 치는 강한 충격에 저도 모르게 받아외우시였다. 꿈결에도 잊지 못하는 조선, 그리운 내 나라, 내 땅으로 시동생이 대원들을 이끌고 들어간단 말인가.

《네, 조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번에 성주가 그런 임무를 주고 최효일이라는 사람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최효일은 이번 회의에 직접 참가한 동무입니다. 그도 첫 당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는 모두 최효일이한테서 전해들은것입니다. 형수님은 저한테 늘 말씀하셨지요, 총을 들고 왜놈들과 싸우는것은 남자로 태여났으면 의례히 해야 할 일이라고. 왜놈들을 한바탕 요정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 적은이가 정말 군대를 무어가지고 조선으로 들어간단 말이예요?》

녀사께서는 꿈만 같아 다시금 물으시였다.

《아직 큰 군대는 아니고 몇명의 대원을 데리고 갑니다. 자, 보십시오. 성주가 이걸 보내주었습니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웃저고리를 걷어올리시고 허리에 찬 누런 탄띠와 새까만 모젤권총을 보여드리시였다. 탄띠에는 총알이 백알이나 꽂혀있다고 했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맏아드님께서 고달픈 옥중에서 구상하신 조선독립운동의 경륜이 이렇게 즉시에 실천단계에 이르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시였었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조선독립의 날이 눈앞에 다가온듯싶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군결성식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가운데서 리제우, 공영, 박진영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작소조를 무어 신갈파로 해서 랑림산줄기를 타고 평안북도지구로 뻗어나가면서 광범한 대중속에 혁명조직을 내올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는데 그 소조의 조장으로는 리제우를 임명하셨다고 했다.

김형권동지를 조장으로 하고 최효일, 정웅 등이 망라된 소조는 장백에서 얼마동안 혁명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정치공작을 하고 압록강을 건너 풍산과 단천, 함흥을 거쳐 평양부근에까지 진출하여 국내의 조직선들과 련계를 취하면서 항일무장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군사정치공작을 하게 되였다.

《정말 장한 일이예요. 성주가 제 아버지가 바라시던 일을 시작하고있다고 생각하니 기쁘기 그지없어요. 이제 내가 적은이에게 할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공을 바라는것밖에…》

녀사께서는 엄숙한 표정을 짓고 조용히 그러나 마디마디에 정을 담아 힘있게 말씀하시였다.

《사실 성주는 조카이지만 저는 혁명의 지도자로, 령수로 받들고 존경합니다. 차광수, 김혁이들이 우리 성주를 잘 받들어야 한다고 늘 동지들에게 강조한다고 하는데 혁명의 지도자를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가를 삼촌인 제가 솔선 시범이 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자고 합니다. 꼭 성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제는 그저 형수님만 건강하면 저한테 아무 걱정이 없겠습니다.》

김형권동지께서는 녀사의 수척하신 얼굴을 가슴아프게 지켜보시였

다. 두달전에 보신 때보다도 더 수척해지신 얼굴이였다.

《제가 장백에서 약을 좀 지어왔는데 그 약만은 누구에게도 내놓지 말고 형수님이 다 쓰셔야겠습니다.》

《저번에 고재봉이 와서도 그래, 철주가 사도황구에 갔다와서도 그래 성주도 내 병때문에 몹시 걱정하더라고 합디다만 내 병이란게 그닥 큰게 아니예요. 속병이라는거야 누구나 가끔 앓는거지요. 성주가 혁명사업을 잘해나간다고 하고 적은이도 이제 총을 잡고 조선으로 들어가게 되였으니 내 병은 꼭 나을거예요. 벌써 당장 하늘로 훨훨 날아가는것처럼 몸이 거뿐하고 힘이 생겨요. 그러니 성공하기만 바라요.》

《형수님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래도 몸은 조심해야 합니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자신의 병에 대해서는 걱정말라고 다시금 이르고 언제 떠나게 되는가고 물으시였다.

《래일 가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빨리요?》

녀사께서는 다소 놀라시였다. 래일 하루 집에서 쉬고 모레 떠나면 안되는가고 하시였다. 남편과 같이 있고싶어하는 채련옥을 생각하여 하시는 말씀이였다.

《날자가 정해졌으니 가야 합니다.》

저녁상을 물린 김형권동지께서는 흥륭촌의 반제청년동맹원들을 만나보아야 하겠다며 밖으로 나가시였다.

녀사께서도 서두르시였다. 마침 맏아드님을 위해 차좁쌀을 조금 모아둔것이 있어 그것을 불구려고 이남박에 쏟으시였다.

새벽에 시루에 쪄서 몇줌 몽그려 시동생분의 길량식을 싸고 남은것은 도마에 쳐서 조반상에 놓으시려는것이다. 고물로 묻힐 팥도 삶으시였다. 그러고나서 시부모님의 옷감으로 남겨두었던 아랑주천을 궤짝에서 꺼내여 옷을 마르시였다. 여름철이지만 먼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덧옷이 필요하였다. 한낮에는 바랑에 넣어두었다가 저녁이나 밤에는 이불삼아 덮을수도 있고 날이 궂힐 때는 비옷삼아 입을수도 있었다. 맏아드님께는 덧옷을 못 지어보냈지만 시동생분의 려장

에는 꼭 덧옷을 넣으시려는것이다. 지금까지 맏아드님의 옷보다도 시동생분의 옷을 더 많이 지은 녀사께서는 몸을 재시지 않고도 옷을 마를수 있었다.

일손이 빠른 녀사께서는 자정이 되기 전에 벌써 덧옷을 거의다 지으시였다. 가장자리의 단을 접어 누비고 단추구멍만 내면 되였다.

6

김형권동지께서 흥릉촌반제청년동맹원들에게 카륜회의사상을 침투시키고 돌아섰을 때는 자정이 가까와오는 깊은 밤이였다. 안도에서 할 일을 다 마쳤다고 생각하니 웬일인지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지시였다. 사실 무장소조를 이끌고 국내깊이에로 들어가는 길은 순풍에 돛을 단것처럼 순조로이 갈수 있는 길이 아니였다. 최악의 경우 희생도 각오해야 했다. 하지만 과업의 어려움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신것은 아니였다. 돌아올 날을 기약하지 못하고 떠나자고 하니 형수님의 병이 여간 걱정되지 않으시였다. 형수님께서는 자신의 병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을 말라고 하시지만 그이의 얼굴에 짙게 스며든 병색으로 하여 의사인 김형권동지께서는 무겁고 불안한 생각에서 벗어나실수가 없었다. 한편 안해에 대한 걱정이 또한 발을 무겁게 하였다. 돌이켜보면 결혼한 이후 자주 떠돌아다니다보니 안해와 함께 단란한 가정적분위기에서 아기자기하게 지내신 일이 별로 없었다. 어려서부터 량부모의 슬하에서 고이 자란 안해는 인생고초를 크게 겪어보지 못했으므로 혼자의 힘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기에는 너무도 연약한 녀성이였다. 시집을 온 후에도 친정어머니보다 더 살틀하신 강반석녀사의 보호속에서 심신의 부담을 모르고 지냈으므로 앞으로 그 어떤 예기치 못한 고난에 부닥치게 된다면 과연 그것을 감당해낼수 있으랴싶었다. 그것은 날이 갈수록 병약해지는 형수님의 건강과 련결되여있는 불안이였다.

만약 자기가 외지에 나가있는 사이에 형수님께서 몸져누우시게 되면 현재의 일가분들의 생활이 무참히 주저앉게 될것 같은 불길한 예

감이 자꾸만 갈마드시였다. 형수님은 너무도 병약해지시고 어머니는 늙으셨고 조카분들은 아직 어리였다.

김형권동지께서 번거로운 생각을 굴리며 안해가 거처하고있는 처가집안방으로 들어가시니 뜻밖에 강반석녀사께서 와계시였다. 안해는 녀사의 옆에 앉아 덧저고리에 고름을 달고있었다.

《형수님이 오셨습니까?》

《래일 떠난다는 사람이 어딜 그렇게 다니세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다나니… 그런데 그건 무슨 옷이요?》

김형권동지께서 바느질을 하고있는 안해에게 물으시였다.

《형님이 당신거로 지으신거예요. 옷고름만 저더러 달라고 해서…》

아직도 남편앞에서 수집어하는 채련옥은 얼굴을 다소곳하고 바느질을 하였다.

녀사께서 저고리고름만은 채련옥이 달게 한것은 시동생분께서 저고리고름을 풀고 매고 할 때마다 안해의 따뜻한 사랑과 성공을 바라는 절절한 마음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형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린 김형권동지께서는 잠시 묵묵히 앉아있다가 정작 먼길을 떠나자니 집일이 몹시 걱정된다고 하시였다.

시동생의 무거운 표정을 일별하신 강반석녀사께서는 정을 담아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벌써 10여년세월이 흘렀지만 평양감옥에서 나온 형님께서 우리 가족을 둘러앉히고 하시던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 형님께서는 우리는 앉아서 굶어죽고 맞아죽을것이 아니라 일어나 왜놈과 싸워서 나라를 찾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번에 성주가 조선혁명군을 조직하고 삼촌이 무장소조를 거느리고 국내로 들어가는것을 보니 이제는 우리가 얻어맞고 쫓기기만 하는것이 아니라 왜놈들을 쳐부시고 몰아낼 때가 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삼촌의 무거운 얼굴을 보니 내 마음도 가볍지 못해요.》

《예, 조선독립의 날은 가까와오고있습니다. 이젠 그저 형수님만 건강하시면 되겠는데…》

《그런 걱정은 하지 말아요. 군사에서 대장의 얼굴이 어두우면 대원의 얼굴에도 그늘이 진다고 했대요. 집일은 조금도 걱정할게 없어요. 우리 집안에 젊고 끌밋한 동서가 있고 철주도 이제는 어른이 다 되여 공청사업을 하고있는데 무얼 걱정할게 있어요.》

녀사께서는 덧저고리고름을 달고있는 채련옥을 애틋이 바라보시였다. 이제 동서의 손으로 고름을 단 덧저고리는 총알도 뚫지 못하는 갑옷이 될거라고, 그래서 적은이가 혁혁한 공을 세우고 돌아올것이라며 녀사께서는 밝게 웃으시였다.

말없이 바느질을 하던 채련옥이 고개를 들고 남편의 얼굴을 정겹게 쳐다보았다.

《제가 어머니와 형님을 지성껏 받들고 조카들을 잘 돌보겠으니 정말 집일은 걱정마세요.》

녀사께서는 시동생분과 동서가 이야기를 마음껏 할수 있도록 일어나시였다.

《난 가겠어요. 래일 조반은 함께 우리 집에 와서 하세요.》

김형권동지께서 국내에로 떠나시기 전날 안도의 밤은 이렇게 깊어갔다.

이튿날 이른새벽에 김형권동지께서는 형수님께서 정성스레 꾸려주신 무명바랑을 지고 흥륭촌 물동마을을 나서시였다.

아침안개가 짙게 덮여있었다. 어째서인지 젖빛새벽안개는 김형권동지께 수은과 같이 묵직한 중량감을 느끼시게 하였다.

안개는 등고선을 치듯이 산아래도리를 수평으로 금을 그은채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강반석녀사와 채련옥 그리고 어린 두 자제분이 4도백하 징검다리 앞에서 김형권동지를 바래우시였다.

새벽안개가 짙게 덮인 물가에서 서로 손을 저으며 헤여진 그날의 작별이 다시 만날수 없는 마지막작별로 되리라고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때 물가에서 김형권동지를 바래우는 일가분들을 뒤에서 몰래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왕방초의 지령을 받고 일가분들을 감시하고있는 성근식이였다. 그는 한달가까이 강반석녀사의 뒤를 밟아다

녔지만 아무런 단서도 잡지 못하였다. 이날 새벽에도 김형권동지를 바래우는 일가분들을 먼발치에서 지켜보았을뿐 거리관계로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하였다. 이놈은 김형권동지의 뒤를 밟아 장백쪽으로 통하는 어느 숲속 고살길에까지 따라갔다. 그때부터 김형권동지께서는 안도에 와있던 최효일이와 동행하시였는데 이놈은 숲속길을 동행하는 두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안개가 걷히여 그자는 더는 김형권동지를 미행하지 못하였다.

며칠후 김형권동지께서는 무사히 장백현 지양개에 도착하시였다. 1930년 8월 9일에는 조선혁명군 무장소조를 이끄시고 압록강을 건느시였다.

제 5 장

1

날이 갈수록 강반석녀사께서는 맏아드님과 시동생분에 대한 생각으로 초조하시였다. 맏아드님께서 조직한 조선혁명군 무장소조를 이끌고 조선으로 들어간 시동생분의 소식이 넉달이 돼오도록 묘연하기때문이였다.

녀사께서는 음산한 저녁바람을 맞으며 대흥툰마을로 가는 달구지길을 근심에 잠겨 걸어가시였다.

립춘으로부터 시작되는 스물네절기의 스무번째인 소설이 래일모레였다. 시동생분께서는 록음이 짙은 여름철에 흥륭촌을 떠났는데 어느덧 소설절기가 찾아온것이다.

달구지길옆에 외로이 서있는 황철나무 한그루가 서리를 맞아 누렇게 시든 잎새들을 벌거숭이된 가지끝에 몇잎 달고 찬바람에 떨고있었다.

(지금 어디 있는지 철주 삼촌이 춥겠구나.)

녀사께서는 여름옷을 입고간 시동생분을 걱정하시였다.

조직에서는 김형권동지의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 오방원을 장백지구로 보냈지만 어찌된 일인지 한달이 되도록 그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다.

녀사께서는 맏아드님의 소식도 전혀 모르시였다. 카륜에서 회의를 조직한 후 맏아드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누구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길림으로 간 조선녀와의 련계도 끊어졌다. 시동생분으로부터 카륜회의소식을 들은 이후 넉달남짓이 녀사께서는 또다시 상부조직과의 련계가 없이 지내시였었다. 하지만 조직은 명백한 방향과 목표를 세우고 자신있게 사업을 밀고나갔다. 그것은 카륜회의에

서 당건설, 항일무장투쟁준비, 반일민족통일전선결성 등 투쟁방침을 명백히 제시하였기때문이였다. 그동안 녀사께서는 이 세가지 방침을 실현하는데로 자신의 모든 힘을 집중하시였다. 안도지구에도 장차 기층당조직을 내오게 될것을 예견하여 병약한 몸으로도 흥륭촌주변은 물론 멀리 소사하, 대사하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구역을 밟아다니며 혁명조직들을 확대강화하시였다.

한편 녀사께서는 항일무장투쟁방침을 받들고 소사하산과 대사하산같은 안도현 북부지구의 인가없는 수림지대에 군사훈련을 할수 있는 장소들까지 보아두시였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만주의 형세가 어수선해지고 흉흉한 소문만 떠돌아 아드님의 신변걱정에서 한시도 벗어날수가 없으시였다.

동만의 공산주의자들은 5.30폭동과 8.1폭동을 일으킨 후에도 국치일인 8월 29일을 비롯하여 10월혁명기념일, 광주폭동기념일 등 여러 기념일들에 정권전복폭동, 정권탈취폭동, 보복폭동이라는 명목밑에 수백회에 달하는 폭동을 련속적으로 파도식으로 일으켜 날마다 아까운 조선의 젊은이들이 죽거나 잡혀갔다.

수천명의 군중이 죽어가고 거리와 마을이 피로 물드는것을 보면서도 폭동지휘자들은 계속 《혁명이다! 투쟁이다! 지주를 타도하라!》하고 주먹을 부르쥐고 군중을 선동한다고 한다.

재만조선인민의 피해상이 얼마나 심했으면 8.1폭동이후 조선국내의 신간회에서 재만동포들을 위문하는 한편 장학량과 회담을 하기 위해 대표단을 무어 만주에 파견했겠는가. 그러나 신간회대표들은 일제의 단속과 탄압으로 하여 만주땅에 오래 머물러있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였다.

다행히 안도현의 물북, 물남지역에서는 적색폭동이 일어나지 않았으나 이곳 군중에 대한 반동관헌들과 군벌들의 탄압은 매우 심하였다. 동만일대에서 해를 넘기며 파도식으로 계속 일어나고있는 적색폭동을 구실로 삼아 왕방초를 비롯한 반동관헌들은 조금이라도 자기들의 비위를 거슬리는 사람은 공산당과 연줄이 있다고 트집을 걸어 잡아가거나 죽이였다. 무한장과 왕방초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있는 흥륭촌 촌장 김춘봉은 지난 한해동안 주민들로부터 별의별 명목으로

세금을 받아냈는데 그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때에는 공산당과 줄을 잡고있는자들이라고 왕방초에게 일러바치기때문에 누구든 세금에 대하여 불평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였다.

촌장놈은 세금을 받아내다못해 자기가 동네일로 발이 닳도록 뛰여다닌다면서 《보행보조금》까지 바치라고 하였다.

《거, 강부인님 아니시오?》

녀사께서 대흥툰마을로 들어서려고 하실 때 문득 어디선가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흥륭촌의 류호훈장이 정업툰쪽 큰길로 걸어오고있었다. 이날도 류호는 늘 입고다니는 평상복인 낡은 검정두루마기에 쭈그렁중절모를 쓰고있었는데 깨끗한 양복차림을 한 젊은이가 같이 걸어오고있었다.

《류선생님, 어디 갔다오십니까?》

녀사께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예, 좀…》

류호도 녀사의 곁에 다가와 걸음을 멈추고 젊은이에게 《얘야, 내가 방금 이야기한 강씨부인이다. 인사올려라.》하고는 어줍게 웃음을 지으며 자기 아들이라고 소개하였다.

얼핏 보아 류호의 아들 류민환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쪽을 닮은것 같았다. 흰 살결에 눈매와 입모습이 곱고 얼굴의 선들이 부드러운 미청년이였다.

류호는 할빈에서 고학을 하다가 학비를 당해낼수가 없어 엊그제 집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집안의 돈을 다 긁어모아 송강상점에서 옷 한벌을 사입히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하였다.

녀사께서는 그동안 류호와 자주 접촉하시였다. 이 고박한 음양가에게서 달라진것은 마을의 부녀단체에 대해 많이 양보하는것이였다. 그가 그전에는 부녀단체조직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하였지만 지금은 청년회나 농민협회와 같은 남성자치단체에 종속될것을 조건부로 하여 허락하고있었다. 그는 지금도 흥륭촌 부녀친목회가 반일부녀회로 된것을 모르고있었다.

류호와 조희재의 관계는 풀리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고있었다. 그동안에 제일 많이 달라지고 발전한것은 조춘희였다. 그 녀자는 지난

여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밤이면 야학방에 나가 성의껏 글을 가르치였다. 야학방을 출입하는 과정에 마을녀인들과도 친근해지고 기분상태도 한결 명랑해졌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눈을 속여가며 몰래 야학방출입을 하였지만 지금은 드러내놓고 다니였다. 지난봄 강반석녀사께서 야학선생을 부탁하러 춘희를 찾아가시였을 때에는 그렇게도 펄펄 뛰던 조희재가 이상하게 지금은 아무 군소리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조희재는 여전히 안에서는 청년회장과 농민협회 회장을 끼고다니고 밖에서는 왕방초와 김춘봉을 업고다니였다.

녀사께서는 그런자들과 가까이 지내는 조희재때문에 마음을 많이 쓰시였다.

《그런데 부인님이 여길 어떻게?》

류호는 불쾌한 표정을 짓고 대흥툰마을을 둘러보았다. 조희재와 앙숙인 그는 현소재지와 통하는 이 달구지길을 수없이 걸어다니면서도 대흥툰마을에는 아직 한번도 들려보지 않았다.

《여기 야학선생이 요즘 고뿔을 앓는다고 해서 병문안도 하는겸 왔습니다.》

《여기 야학은 누가 가르치는가요?》

《조희재선생의 딸 조춘희가 야학선생을 합니다.》

《?!》

류호의 짙은 눈섭이 구핏하였다. 사실 녀사께서는 조춘희가 요즘 고뿔에 앓으면서도 야학방에 나간다고 하여 걱정스러워 알아보러 오시는 길이였다.

류호는 달구지길에서 멀지 않게 있는 조희재의 집을 침울하게 바라보았다. 이때 뜻밖에도 흥륭촌 촌장 김춘봉이 조희재네 집쪽에서 이쪽을 바라고 급히 걸어왔다.

《마침 잘들 만났소, 한가지 알릴게 있었는데…》

무엇때문인지 숨가쁘게 달려온 김춘봉은 가죽들가방을 땅에 내려놓고 새까만 판지로 뚜껑을 든든히 맨 장부책을 꺼내였다. 안도주민들의 머리끝을 으쓱하게 하는 장부책이였다. 촌장은 손가락에 침을 묻혀 장부책을 벌컥벌컥 뒤지더니 이제 흥륭촌보위단에 전화가설을

하기때문에 매 집에서 쌀 한되에 돈 1원을 부조해야 된다고 하였다. 요즘 촌장은 얼굴살이 더 올라서 축 처져내린 아래볼이 허들허들하였다.

《보위단에 전화를 놓는데 우리가 왜 쌀과 돈을 내는가요?》

류호가 의문스러워하였다. 촌장이 대뜸 짜증을 냈다.

《훈장령감은 뭘 좀 내라면 꼭 시비질을 한단 말이요. 당국에서 수고스레 공사를 하는데 쌀 한되 내는게 그렇게 아깝소? 그러니 령감더러 꼼바리라고들 하지요. 흥룡촌같은 산골에 전화를 놓아준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요. 전화공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음식대접을 하는게 례의가 아니겠소.》

《고맙긴 뭐가 고맙겠소. 보위단에 놓는 전환데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요.》

《이 령감이 정말 깜장콩알을 먹지 못해 이 안달이요. 방금 조선생은 전화가설을 한다는 말을 듣고 쌀 한말에 돈을 10원이나 냈소.》

김춘봉은 조희재의 집을 가리켰다.

《그 사람은 쌀도 많고 돈도 많은 부자이니 그렇게 척척 내지만 나는 겨우 조반석죽을 하는 사람이니 부조금과 세금에 대해 따지지 않을수 없소.》

《돈이 많고 적어서 그런게 아니요. 훈장령감이야말로 생도들에게서 받아먹는 강미(글방선생에게 보수로 주는 곡식)가 약차하겠는데 쌀 한되, 돈 1원을 낼 형편이 못된단 말이요? 머리통이 글러먹고 원래 남에게 마음을 쓸줄 모르는 꼼바리니 그런단 말이요. 쌀 한되도 못 내겠다는 사람이 제 아들한텐 어떻게 고급세루양복을 해입히시오?》

들창코를 벌름거리며 장부책으로 새옷을 빼입은 류민환의 어깨를 치는 김춘봉의 얇은 입술에서 거품이 부글거리였다.

류호는 기가 막힌지 얼굴빛이 거멓게 질린채 덤덤히 서있었다.

《아버지, 내 뭐랬어요. 옷이 필요없다는데 괜히 돈을 내서 새옷을 사가지고 더러운 소릴 듣지 않나요.》

류민환은 성이 나서 침을 탁 내뱉고는 이쪽에 등을 돌려대고 걸어갔다.

《저 녀석이 어디다 침을 뱉아? 좋소, 내겠으면 내구 안 내겠으면 안 내구 령감밸대루 하오. 도단장님께서 하시는 일에 불응하는자들은 다 무사치 못해! 공산당물이 든 놈들이요.》

김춘봉은 주머니에서 연필을 꺼내여 장부책에 무엇인가 적어놓더니 깜빡 잊었다고 하면서 보위단원들이 매일과 같이 야경을 돌기때문에 달마다 매 집에서 야경세를 20전씩 물어야 한다고 하였다.

《강부인도 그리 알아두시오, 11월말일전으로 다 물어내야 하오.》

녀사께서는 아무런 응대도 하지 않으시였다. 그자와는 어떤 리치나 례의가 전혀 통하지 않기때문이였다. 그이께서는 주민들의 생활이 걱정되시였다. 한해농사를 지어 소작료와 장리빚을 물고나면 마당에 검부레기만 남는것이 이곳 농민들의 신세였다. 그런 형편에서 날이 갈수록 별의별 명분의 세금, 부역, 부조금이 늘어나고있으니 논밭가을을 한지 두석달밖에 되지 않는 지금 벌써 절량가호들이 나오고있었다.

《아무래도 물어야 할거 괜히 깐질거리지 말구 고분고분 응하는게 좋아요. 이달 그믐날까지 물지 않고 그냥 버티고있으면 큰 변이 나는줄 아오. 그러니 기한은 한주일이 남아있소. … 에헴!》

김춘봉은 턱주가리에 졸망스럽게 돋은 성근 수염을 쓸면서 헛기침을 하고 들가방을 집어들었다. 그는 정업툰쪽으로 걸어갔다.

(저 촌장놈을 더는 그대로 두어선 안되겠구나!…)

녀사께서는 김춘봉의 뒤모양을 쏘아보며 서계시였다.

류호는 고개를 젖히고 음산한 저녁하늘을 올려다보며 《아하－》하고 비명같은 탄식을 하였다.

이윽고 류호는 강반석녀사께 고개인사를 하고 허청허청 걸어갔다. 녀사께서는 멀어져가는 류호의 뒤모습을 한참 바래다가 조희재의 집으로 가시였다.

조춘희는 본채에 있는 안방 하나를 쓰고있었다. 그는 신문장들을 뒤적거리고있다가 돌쇠의 안내를 받아 들어서시는 녀사를 보고 반색을 지었다.

《아이, 사모님이 어떻게?》

《앓는다는 말이 있어 걱정스러워 왔어.》

《어마나, 별걱정을… 고뿔인걸요.》

《고뿔에서부터 만병이 시작되네. 집의 약통을 뒤지니 감기약이 몇알 남아있길래 가져왔네. … 오늘 야학은 우리 철주가 하도록 했으니 걱정말고 푹 쉬게. … 그런데 이건 무슨 신문들인가?》

녀사께서는 방바닥에 널려있는 신문들을 내려다보시였다.

《우리 집에 이따금 찾아오는 성근식이란 사람이 며칠전에 가져온건데 조선신문들이예요.》

《조선신문?》

녀사께서는 가슴이 후드득 뛰시였다. 시동생분소식때문에 신문갈증이 난 녀사이시였다.

《사모님, 이 신문을 보세요. 풍산 파발리에서 조선무장단이 〈오빠시〉라는 악질경찰을 쏴죽인게 사실이예요.》

지난 8월 중순에 정체불명의 무장단이 파발리순사부장을 사살했다는 소문은 이미 안도에까지 퍼졌었다. 강반석녀사께서는 그 무장단이 김형권동지의 무장소조일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확실한 근거가 없었으므로 기연가미연가 하시였다.

녀사께서는 신문을 들여다보시였다. 《풍산에 출현한 무장단 4명 순사부장 사살도주, 자동차를 뺏어타고 산중잠적, 무장경관 20명 급행》이라는 표제밑에 보도한 1930년 8월 16일부 《조선일보》였다.

신문에는 8월 14일 오후 5시 10분에 풍산군 파발리에 무장단 4명이 돌연히 나타나 주재소를 지나며… 순사부장을 권총으로 사살하고 북청방면으로 가는 길에 풍산주재소 순사외 수명을 싣고 마주오는 함남 제208호 자동차를 뺏아타고 후치령중부에 이르러 자동차에서 내려 종적을 감추었다고 씌여있었다.

다음날 8월 17일부 《조선일보》는 《무기는 정교, 사격법숙련, 두만강을 건너서 들어온듯, 소속단체 상금불명》이라는 표제를 달고 4명의 무장단이 가진 무기가 모두 정교하고 경관대에 여유도 주지 않고 단번에 사살한 점으로 보아 사격술도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고 보도하였다.

녀사께서는 무장단의 수가 4명으로 되여있는 사실에서 시동생분의

무장소조가 틀림없다고 보시였다.

조선국경지대와 수백리 떨어져있는 안도에서는 국내에서 발간되는 신문을 보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이날 처음으로 4명의 무장단의 총격사건과 관련된 특보기사를 읽은 녀사께서는 자못 흥분하시였다.

《사모님, 지금 파발리사람들은 〈적기가〉를 많이 부른대요. 무장단이 오빠시놈을 처단한 후부터 왜놈들은 무서워 벌벌 떤다지 않아요.》

그날 면장놈은 양복을 벗어던지고 제놈이 앉는 의자밑에 들어가 실신해 뻐드러졌고 공립보통학교 일본인교장놈은 개울가 바위밑에 대가리를 처박고 너부러졌으며 우편국, 산림보호구, 양주소주인놈들도 실종되여 찾아다니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조선혁명군이 흰옷을 입지 않고 양복을 입고다니는자들은 죽여버린다는 소문이 떠돌아 면장이하 회계원, 서기들이 모두 농민복에 낫을 들고 조선사람집에 들어가 사무를 보는 추태를 벌리고있다는것이였다.

《파발리경찰관주재소에 리가 성을 가진 순사놈이 있었다는데 그놈은 얼마나 혼이 났는지 아예 미쳐버려서 퇴직당하고말았답니다.》

(파발리에서 울린 총소리가 세상을 들었다놓았구나.)

녀사께서는 날자별로 갖추어놓은 신문을 죄다 읽으시였다. 모든 신문들은 무장단의 맹활약에 질겁하여 전전궁궁하고있는 적들의 진상을 그대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녀사께서는 1930년 9월 9일부 《동아일보》에 《절부암로상에 괴청년 질문하자 권총발사》라는 표제의 기사가 실린 이후에는 무장단의 활약에 대한 소식이 전혀 없는것이 심상치 않게 생각되시였다.

녀사께서는 신문장들을 간종그리고 춘희에게 물으시였다.

《이 신문들을 성근식이란 사람이 가져왔다고 했지?》

녀사께서는 언제인가 김춘봉의 집에서 보았던 성근식의 얼굴을 상기하시였다. 흥룡촌사람들은 그를 탐탁하게 보지 않았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에게 전향한 사람이라는것이였다. 교과서사건으로 류호가 체포되였던 일이 있은 다음부터 녀사께서도 그를 경계하시였다. 이런 사람이 조희재의 집에 드나드는것은 별로 반가운 일이 아니였다.

《예. 성근식이란 사람이 신문을 가져오긴 했는데 무장단이 순사 몇놈이나 죽여서 무슨 소용이냐고 하며 시답잖게 여겨요. 아버지도 괜히 잠자는 호랑이의 코수염을 건드려서 불집만 일으킨다구 좋아하지 않고요.》

《9월 9일이후에는 무장단에 대한 기사가 나오지 않는데 그후 어떻게 됐는지?》

《글쎄요. … 무장단이 이젠 완전히 종적을 감추고 비밀공작을 하는가봐요. 그러니 신문사들에서도 기사를 못 내겠지요.》

조춘희는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였다. 듣고보니 녀사께서도 그럴법하다고 생각되시였다.

《춘희는 성근식이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나?》

조춘희는 느닷없는 질문을 받아서인지 눈이 올롱해졌다.

《아버진 그가 마음에 꼭맞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좋아합니다.》

조춘희는 갑자기 새침해지며 아래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더러 성근식이란 사람을 주의하라고 하게. … 흥륭촌에선 그 사람이 일본밀정이라는 말이 떠도네. 무턱대고 사람을 의심해선 안되겠지만 춘희도 주의하는게 좋겠네. … 춘희가 야학선생을 한지도 이제는 서너달 잘되지?》

《그렇습니다.》

조춘희는 추연한 표정을 지었다. 야학교단에 올라설 결심을 가지게 된 그날이 언제였던가? 강반석녀사로부터 조선녀의 눈물겨운 과거사를 들은 날이였다. 그날에 남편의 참사에 대한 소식도 들었었다. 그후 알아본데 의하면 남편은 적색폭동이 최절정에 이르렀던 지난해 5월 하순 룡정목재소 로동자들한테 매맞아죽었다고 한다. 그의 시체는 해란강에 수장되여 영원히 유골조차 찾을수 없게 되였다. 그가 남편을 싫어한것은 결코 본처가 있는 나이많은 남자이기때문만이 아니였다. 진정으로 춘희가 남편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무서워한것은 그 사람의 가보철함안에서 만다빌이라는 네데를란드의 의사가 쓴 《개인의 죄악은 곧 공동의 리익》이라는 졸작의 시편을 발견하게 된때문이였다.

《… 세상사람들이여…
　큰 죄악이 없이… 재부를 누리며 안락하게 살려 함은
　필경 머리속에서만 그릴수 있는 공상세계뿐이리라
　…죄악은 …진실로 세상에 유익한것이니라
　…위대한 국민이 되려거든
　나라에 죄악이 필요함이…》

이 시를 보고난 다음부터 춘희는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은 무서운 죄악으로 가득차있다고 생각하게 되였다. 이때부터 남편을 생각만 하여도 몸서리를 치게 되였다. 그러나 그 졸작의 시가 남편 한사람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정통경제파들모두의 보편적인 사상근원으로 되고있다는것을 알지 못했다.

《춘희가 야학선생을 한지는 넉달이 됐네. 그동안에 뭔가 느낀게 없나?》

녀사께서 의미심장히 물으시였다.

《많은걸 느끼고 배웠습니다. 야학방은 저를 배워준 인생교사였습니다. 조선녀인들이 얼마나 굳세고 깨끗하고 지혜로운가를 알게 되였고 사모님의 인애정신에 반했습니다.》

조춘희의 눈가에 눈물이 가랑가랑해졌다.

《내 이야길 듣자는게 아니야. 야학생들을 배워주는 기간 이 마을에 사상부녀단체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지만 이 마을녀인들이 모두 사모님의 애국사상으로 꽉 뭉쳐있다고 보았습니다. 저도 그속에 끼여있다고 자부했어요.》

녀사께서는 조춘희의 손을 따뜻이 잡아쥐시였다.

《이 마을에는 반일부녀회라는 부녀사상단체가 있네. 야학생들속에도 반일부녀회원이 많네. 이제 며칠안으로 춘희를 반일부녀회에 받아들이는 모임이 있을거네.》

《사모님!… 고맙습니다.… 절대로 변심하지 않겠습니다.》

조춘희는 녀사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흐느껴울었다.

《다 알아, 다 알기때문에 받아들이는거야. … 우리모두 힘을 합쳐 기어이 나라를 찾자구. … 자, 그럼 난 가겠네. 약을 먹구 푹 땀을 내게.》

녀사께서는 오래도록 춘희를 애무해주고 일어나시였다.

그이께서 야학방으로 쓰는 윤현칠이네 집으로 가시자 벌써 김철주가 와있었다. 그는 녀사를 뵈옵자마자 《어머니, 오방원형님이 장백에서 돌아왔어요.》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오방원이가 왔다구?… 삼촌소식을 가져왔겠구나.》

녀사께서 성급히 물으시였다.

《삼촌소식은 별반… 장백지구 조직에서도 삼촌네 행방을 정확히 모른답니다. 대신 형님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왔어요.》

《형님소식을?!》

녀사께서는 눈이 번쩍 뜨이시였다.

《형님이 지금 어디 있다더냐?》

《그건 정확히 모르고… 그저… 형님한테 〈**김일성**〉이란 이름이 생겼대요. … 오가자라든지 고유수라든지 그곳 조직원이 장백지구에 잠간 다녀가면서 형님소식을 전했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5.30폭동과 8.1폭동이후 백색테로의 살벌한 참극이 벌어지고있는 속에서 파괴된 조직을 복구하고 카륜회의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길림, 교하, 해룡, 돈화, 화룡, 할빈, 국내 온성지구 등 조만일대의 광활한 구역을 종횡무진으로 사선을 헤쳐 다니는 과정에 동지들과 혁명군중으로부터 《**김일성**》이라는 새 존함을 받게 되시였다고 했다. 지금까지 동지들과 혁명군중은 그이를 새별과 같이 조선인민을 어둠에서 새벽길로 이끄시는분이라는 뜻에서 한 일자와 별 성자를 쓰는 일성(一星)동지, 한별동지라고 불러오다가 그처럼 위대한분을 새별에만 비기랴 하여 조선의 밝은 태양이라는 뜻에서 날 일자와 이룰 성자를 써서 **김일성**동지로 부르게 되였다는것이다.

《자세한건 장백현사람들도 모르는데 지난 몇달동안 형님이 적색폭동바람에 풍지박산이 된 혁명조직을 살려내면서 큰일을 하셨나봐요. 할빈에서 국제공산당사람들과도 론의를 했는데 그 사람들도

형님에게 혀를 찼대요. 아마 그래서 혁명동지들이 형님을 **김일성**동지로 더 높이 부르는가봐요.》

《**김일성**!》

녀사께서는 강한 충격속에 아드님의 새 이름을 부르시였다.

(어느덧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가?)

만경대그네터에서 어린 아드님의 요람을 지켜보며 조선의 아가야 우리 아가야 무럭무럭 자라서 효자동, 화목동, 나라의 영웅동이 되라고 자장가를 부르던 때가 엊그제 같으시였다.

정녕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기에 사랑하는 아드님의 빛나는 앞날을 념원하여 자장가를 부르던 자신께서 오늘은 태양으로 칭송된 **김일성**이라는 아드님의 이름을 부르시는것일가.

만경대그네터에서 부르던 자장가와 여기 안도에서 부르는 **김일성**이란 존함사이에는 하늘과 땅같은 차이가 있어 아득히 먼 세월이 흘러간듯 격세의 느낌을 받으시였다. 하지만 정작 세여보면 아드님은 아직 스무살도 되지 못한 10대의 나어린 젊은이여서 태양으로 칭송을 받고있는 사실을 선뜻 믿기가 어려우시였다.

어리신 아드님의 손목을 잡고 평양감옥으로 김형직선생님을 면회하러 가던 일과 조선을 배우라고 팔도구에서 만경대로 눈바람부는 천리길에 어린 아드님을 홀로 떠나보내며 모성애의 아픈 눈물을 흘리시던것이 결코 먼 과거의 일들이 아니였다. 그런데 어느사이 맏아드님께서 민족의 지도자, 나라의 태양으로 되신것이다.

그러한 아드님을 위해 어머니로서 한 일이 무엇이였던가.

녀사께서는 한 일이 너무도 없는것 같아 나라앞에, 아드님께, 태양의 이름을 지어드린 인민들앞에 죄송스러우시였다.

녀사께서는 지난날에도 아드님의 급격한 성장에 놀라고 어리둥절해지던 일이 한두번이 아니시였다. 10대의 어린 나이에 《ㅌ. ㄷ》를 결성하고 조선의 밝은 새날을 비치는 새별로 칭송되여 동지들로부터 한별의 이름을 받은 아드님이시였다. 하지만 **김일성**이란 이름은 이제 스무살도 되지 않는 애젊은 아드님께 있어서 너무도 높고 거룩한 이름이 아닐가 생각되시였다. 그 이름의 영예로움보다는 아드님의 어깨우에 실린 나라의 운명에 대한 책임의 중압감으로 하여 자신의

어깨까지 무거워지시였다.

과연 우리 성주가 조선의 태양이라는 동지들의 믿음을 아니, 전민족의 기대를 감당해낼수 있을가?

녀사의 생각은 자꾸만 깊어지시였다.

그러나 일찌기 소년시기에 《ㅌ. ㄷ》의 민족대강을 펼치고 지난 여름 카륜에서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혀 구국의 전망을 열어놓으신 그 비범성, 아드님께서 한 그 모든 민족사변적인 일들을 하나하나 더듬어보니 아드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굳어지시였다.

녀사께서는 **김일성**의 존함을 지닌 아드님의 어머니로서, 이 나라의 평범한 한 동포로서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아드님의 혁명사업을 높이 받들어나가리라는 뜨거운 마음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시였다.

《어머니!》

문득 부르는 철주의 목소리를 듣고 녀사께서는 깊은 생각에서 깨여나시였다.

《변대우라는 령감을 아세요? 림강에 있을 때 우리 집에 많이 다닌 령감이래요.》

《변대우? 알지. 그건 왜 묻느냐?》

녀사께서는 변대우를 알아도 잘 아시였다. 변대우는 일찍부터 조선의 북부내륙지대와 만주림강지대에서 독립운동과 교육활동을 벌리던 사람이였다.

림강의 모안산에 근거지를 둔 독립군부대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김형직선생님과 련계를 가지기 위해 순천의원에 자주 찾아오군 하였다. 녀사께서는 그가 댁에 찾아올 때마다 정성껏 식찬을 차려 대접해주군 하시였다. 한때 민족독립군 부총재, 광복군 제1병장직, 통의부의 실업부장의 직책을 력임한바 있는 그가 언젠가는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면서 쏘련의 원동지방에도 드나들었다. 그는 공산주의리론도 좀 알고있고 구학문과 신학문에 대한 지식도 있어 내노라 하는 사람이였다.

《어느해인가 그 령감이 군직이고 뭐고 다 줴버리고 어느 외딴 촌마을에 가서 학교도 세우고 농사도 지으며 조용히 살겠다면서 없어

졌다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오가자라는 마을에 있대요. 거기서 왕노릇을 하던 그 로인도 형님한테 머리를 숙이구 탄복하면서 오가자마을두 통채루 형님한테 맡겨야 되겠다고 했다지 않아요.》
김철주는 장백현에 갔다온 오방원의 귀환보고를 듣기 위해 래일 핵심조직원들이 민대감로인네 집에 모인다고 하였다.
《어머니한테는 오방원형님이 따로 말씀드리겠답니다.》
《따로 들을게 있느냐. 나도 가겠다.》
녀사께서는 흥분으로 가슴설레이며 맏아드님께서 다닌 광대한 구역을 눈앞에 그려보시였다. 길림, 돈화, 교하, 할빈 그리고 국내 두만강지구로, 다시 되짚어 두만강을 건너 훈춘, 룡정, 연길, 화룡지구를 거쳐 중부 만주지구로 이어진 몇천 몇만리나 되는 그 길은 적들의 감시가 따르는 아슬아슬한 사선의 길이였을것이다.
우리는 안도경내를 다니면서도 멀고 힘들다고 하는데 성주는 조선, 만주의 그 넓은 땅을 다 밟고다니였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가?

×

이튿날 아침 오방원을 만난 녀사께서는 맏아드님의 지도밑에 발간된 주간신문인 《볼세비크》를 보시였다. 마치 아드님을 보는듯 눈물이 나서 여러장 꿰맨 《볼세비크》신문을 쓸어보고 또 쓸어보시였다. 신문에는 맏아드님께서 카륜회의에서 한 보고《조선혁명의 진로》에 대한 해설문도 실려있었다.
《볼세비크》신문의 주필은 **김일성**동지를 조선의 밝은 미래를 비쳐주는 새별로 칭송한 노래 《조선의 별》을 지은 김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 《볼세비크》신문을 여러장 가지고온 오방원이도 김혁이 이미 희생된 사실을 모르고있었다.
녀사께서는 댁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흥툰에 들려 반일부녀회 지회모임을 조직하시였다. 조춘희를 반일부녀회에 받아들이는 모임이였다.
이날 지회모임에서 조춘희는 지나온 자기의 리력을 하나도 숨김없

이 다 이야기하였다. 이때부터 다음해 4월이 되도록 녀사께서는 여전히 맏아드님과 시동생분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을 들으실수 없었다.

2

1931년 4월 새봄이 왔다.

매운 칼바람이 아우성을 치며 대지의 뭇생명들을 죽여버리던 살륙의 겨울은 멀리 물러가고 따뜻한 소생의 봄이 찾아왔다.

산과 들은 푸르러가고 겨우내 얼어붙었던 강과 시내들은 푸른 물을 출렁이며 밤낮없이 줄기차게 흘러갔다.

자연은 거짓을 모르는 신용있는 약속자이다. 권모술수와 전횡과 탐욕이 없이 너그러이 춘하추동의 차례를 지켜 믿음성있게 변함없는 운행을 한다. 이따금 느닷없이 무서운 광란을 일으키며 변덕과 심술을 부리는 때도 없지 않지만 인차 성을 삭이고 질서정연한 생활을 유순하게 지켜나간다. 자연의 심술은 집요하지 않다.

《그런데 이 위대한 자연속에서 태여난 인간은 왜 그렇지 못한고? 왜 그렇게도 리권쟁탈에 집요하고 악착할가. 인간은 참으로 자기를 낳아준 대자연에 불초한 자식이로다.》

흥륭촌 서당훈장 류호는 이렇게 탄식을 하며 4도백하의 징검돌을 밟아 건넜다.

저녁해가 져서 서쪽하늘에는 붉은 노을빛이 어리고 동쪽하늘에는 거뭇한 어스름이 스며들고있었다. 낮과 밤의 교체법칙을 순조로이 따르는 대자연의 질서정연한 움직임이다.

류호는 개울가 언덕받이에 서있는 자기 집을 향해 허청허청 걸어갔다. 그옆으로 땅버섯처럼 옹크리고앉은 초가집마당들에는 거풍을 시키는 씨오쟁이들이 널려있다. 자연은 또다시 인간에게 밭갈고 씨뿌리는 농사철을 마련해준것이다. 그러나 농군들은 농사차비를 하는 새봄에 무서운 기아의 준령 보리고개를 생각하며 가슴을 옥죄이고있다.

《성서에도 있는것처럼 사람은 개미만도 못해.》

개미는 권력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나 평화롭게 먹을것을 여름동안에 장만하여 걱정없이 겨울을 나지 않는가.

그러나 사람은 한뉘 권력자, 주권자들에게 탄압을 받으며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고있었다.

류호는 며칠째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의 집을 돌아보고 오는 길이였다. 결석학생들이 네명이나 되는데 모두가 늘어나는 가렴잡세와 부조금때문에 학교에 강미돈(글방선생에게 보수로 바치는 곡식대신에 내는 돈)을 낼수 없어 퇴학을 시켜야겠다는것이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집들에서는 교육세, 책상세, 학교마당세, 학교도로세 등 네가지 세금을 더 물어야 하므로 고학년(3학년－5학년)에 다니는 학생들 집에서는 퇴학을 시키고 초학년(1학년－2학년)의 학생집에서는 야학으로 돌리겠다고 하였다.

야학방에서는 소학교 초학년정도의 교육을 하는데 야학세만 물면 되였다.

《그놈의 세금때문에 서당이나 다름없는 그 알량한 학교마저 페교시키고말아야겠군. … 리조 말기에 가렴잡세가 심하더니 이게 다 망할 징조다.》

류호는 울분을 터뜨리며 언덕길을 걸어갔다.

기실 리조봉건통치시기에 감옥과 곤장으로 백성들을 위협공갈하면서 강짜세금을 받아내는 놀음이 많았다. 죽은 사람의 세금을 자손들에게서 받아내는 《백골징》, 피덩어리갓난애기에게 들씌우는 《황구징》, 실지 없는 호구를 날조하여 받아내는 《첩징》, 소득세를 본인만이 아니라 일가친척과 이웃에게서까지 받아내는 《족징》과 《린징》 등 억지세금들이 좀 많았는가. 어찌 그뿐이랴.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생트집을 잡아 《불효죄》니,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다는 언턱거리를 대여 《불목죄》니 하는 별의별 죄아닌 죄를 만들어 벌금을 받아냈다.

《지금 여기서 하는짓들이 그때를 찜쩌먹겠단 말이야. 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 하소할데가 없으니 가련하기 짝이 없구나.》

류호는 또다시 절망적인 탄식을 하며 집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는 토방에 놓여있는 헌 가죽목구두를 띠여보고 눈을 치떴다. 그

것은 아들의 구두였다. 할빈에서 고학을 하다가 지난해 가을 집으로 돌아온 이후 지금까지 다섯달동안 집에는 려관방 들리듯 하고 내내 어디로 떠돌아다니는 아들이였다.

류호는 아들의 구두를 보자 반갑기보다 화가 치밀었다. 그는 웃방 지게문을 왁살스럽게 젖뜨리고 방안으로 들어섰다.

정지방에서 개다리밥상을 마주하고 저녁을 먹고있던 아들이 엉거주춤 일어섰다.

《아버님, 그새 편안하셨습니까?》

《편안치 못하다. 언제 또 나가겠느냐. 이번에는 려관밥값을 치르고 나가거라.》

류호는 짐짓 정색을 짓고 비뚠 소리를 하였다.

《령감, 실성했어요? 어찌다 들어온 애한테 그건 무슨 소리예요.》

아들이 밥먹는 모습을 측은하게 지켜보고있던 권씨가 류호에게 눈을 흘기며 나무랐다.

《실성이고 뭐고 집안에 아들 하나 있다는게 내내 애만 먹이고있으니 화가 나지 않게 됐소. 공불 성사 못하구 돌아왔으면 농살 하든지 뭘 하든지 집일을 도와야지 도무지 부모생각일랑은 할줄 모르는 불효자식이야. 집안살림을 보태지는 못할망정 제 애비가 낯을 깎이우며 받은 강미돈을 부려먹으며 싸다니니 이런 후레자식이 어디 있어.》

《령감은 그래 우리 민환이더러 농사하라는거예요?》

《그 애라고 농살 못할게 뭐야. 여기 김철희랑 리영배랑 우리 민환이만 못한 청년들인줄 알아? 다 한다하는 젊은이들이야. 그래도 농사를 짓고 집안을 돌보면서 야학생들까지 가르치고있어. 강씨부인의 아들만 봐두 나이는 어리지만 중학강독을 다 뗀 애야. 그 애도 집안일을 착실히 돌보며 야학생을 가르치구 어떤 땐 제 손으로 밥을 끓여 어머니한테 진지상을 차려올린대. 이렇게 효성을 못해도 거미처럼 제 애비, 에미의 잔등살을 파먹고다니니 우선 동네사람들 보기가 창피하다. 저 물북의 조희재령감의 딸까지도 야학생들을 가르치고있다고 하지 않니… 너같은 건달뱅인…》

울분을 터뜨리던 류호는 말끝을 맺지 못하고 지게문쪽으로 고개를

돌리였다. 마당에서 인기척이 났던것이다.

《훈장령감 계시오?》

귀에 익은 촌장의 목소리가 크게 울리였다. 류호는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는 순간 소스라쳐놀랐다. 왕방초가 경찰관 두명과 보위단원 한명을 데리고 김춘봉촌장의 옆에 서있었기때문이다.

《서장님께서 령감님의 아들을 만나러 오셨소. 아들이 집에 있지요?》

김춘봉은 이렇게 묻고는 주인의 허락도 없이 왕방초를 데리고 웃방으로 들어갔다.

《서장님, 저기 저 젊은이가 류민환입니다.》

김춘봉이 정지방에 소반을 마주하고 어리둥절히 앉아있는 류민환을 가리켰다.

《저녁을 들던중이로군. 이거 안됐소. 어서 밥을 드시오. 그동안 우리는 이 집 책구경이나 좀 합시다.》

왕방초는 점잖게 말하고 웃방을 둘러보았다. 방바닥에 신문장들이 무드기 쌓여있었다. 류민환이 오늘 가지고온 신문들이였다. 그는 객지살이를 하다가 돌아올 때면 서울에서 발간하는 조선신문들을 들고오군 하였다.

왕방초는 말없이 한장한장 신문을 번져보았다. 《동아일보》도 있고 《조선일보》도 있었는데 어떤 신문들에는 붉은 연필로 줄을 긋거나 테두리를 친것들이 있었다. 왕방초는 특별표식을 한 대목들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류민환은 될대로 되라 하고 모든것을 체념한듯이 태연히 수저를 놀리며 밥을 먹었다. 그러나 권씨는 겁기에 질려 몸을 떨고있고 류호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채 왕방초의 하는양을 지켜보았다. 경찰관들과 보위단원은 류민환이가 도망쳐나가지 못하게 하려는듯 집안의 문들을 봉쇄하고 서있었다.

신문을 다 뒤져본 왕방초는 방구석과 당반우에 무질서하게 무져있는 책들에 시선을 돌리였다. 그것은 모두 류호의 책들이였다.

왕방초는 나무궤짝우에 놓여있는 낡은 가죽트렁크를 가리켰다.

《저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아들애의 짐들이 있습니다.》

《궤짝에는?》

《거긴 옷가지들밖에 없습니다.》

《저 트렁크를 좀 봅시다. 달리 생각지 마시오. 우리는 댁의 아들이 적색폭동에 참가했다가 위험에 처하자 몸을 피해 집으로 돌아왔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자의 말에 의하면 그가 집에 돌아와서도 가만있지 않고 적색폭동에 대하여 선전하며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은 이상 아들을 경찰서에 데려다 심문해보고 물건들도 검열해봐야 하겠습니다.》

왕방초는 개먹은 말안장처럼 가죽껍질이 다 벗겨진 낡은 트렁크뚜껑을 열어제끼였다. 그안의 물건들중 절반은 속옷들이고 절반은 책이였다. 거의다 기술서적들이였다. 흥심없이 트렁크안의 책들을 뒤적거리던 왕방초의 얼굴이 갑작스레 이그러지며 안경밑에서 비수의 섬광같은것이 펑긋하였다. 그는 어찌나 놀라고 흥분됐는지 후들후들 손을 떨며 책 한권을 꺼내들었다. 내리글로 《볼세비크》라고 새기고 그 바른쪽옆에 발간년월일을 밝힌 출판물이였다.

《이건 무슨 책이야? 어디서 얻었는가? 왜 가지고 다니는가?》

왕방초는 정지방을 내려다보며 소리쳤다.

《그건 책이 아니라 신문이요. 고학할 때 부두로동자들이 돌려가며 읽는걸 하나 비럭질했습니다. 내게 필요하기때문에 가지고왔습니다.》

밥상을 물린 류민환이 배심좋게 삿끄챙이로 이끔을 쑤시며 대답했다.

《뻔뻔하기가… 저놈을 묶으라!》

왕방초의 지시에 따라 경찰관들이 번개처럼 류민환에게 달려들어 두손목에 쇠고랑을 채웠다. 류호도 신문표제를 보고 까무러칠듯이 놀랐다. 《볼세비크》란 쏘련공산당과 공산당원의 대명사와 같은것임을 그도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그는 아들이 그런 무서운 좌익출판물을 가지고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여보세요 나리님, 제발 용서해주세요.》

권씨가 웃방으로 달려올라와 《볼세비크》를 거머쥔 왕방초의 손

을 붙들었다.
《용서할수 없소. 로친의 아들은 적색폭동을 일으킨 공산당이 틀림없소. 여기 와서도 적색폭동을 선전하며 다닌 붉은 마귀요. 모든게 확실해!》
왕방초는 권씨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다.
《뭐, 적색폭동에 가담했다구요?》
류민환이 쇠고랑에 채운 두손을 내저으며 왕방초에게 대들었다.
《그 신문을 똑똑히 읽어보고 말하시오. 그 신문엔 간도적색폭동이 일어난 까닭과 폭동을 일으킨 공산주의자들을 신랄히 비판하고 욕하는 글이 씌여있소.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왔소. 우리 아버지를 타도해버려야 한다고 모독하는 적색폭동주모자 최동화의 죄행을 폭로하고 리론적으로 격파하기 위해 읽었단 말이요.》
왕방초는 그제야 《볼세비크》뚜껑을 번져보았다. 실지 거기에는 5.30폭동을 일으킨 종파사대주의자들의 탐위성과 공명심을 폭로비판하는 글이 실려있었다. 왕방초의 얼굴에 불깃한 혈조가 피여오르더니 점차 그 빛갈이 창백하게 바래여지고 다음에는 다시 검붉은 빛으로 변색되였다.
《어쨌든 이것은 공산당패들이 발간한 출판물이야. … 당장 저놈을 끌어내다 감옥에 처넣으라!》
왕방초는 경찰관에게 호령하고 밖으로 나왔다. 권씨가 버선발로 마당에 달려나와 경찰관들에게 끌려가는 아들의 발목을 붙들었다.
《얘야, 가지 말아. 가면 안된다.》
《어머니, 걱정마세요. 나는 아무 죄도 없어요.》
류민환은 자기 발목을 붙들고 늘어진 어머니의 어깨우에 쇠고랑에 결박된 두손을 얹었다. 그의 눈귀에는 굵은 눈물이 맺히였다. 가슴속에서 슴새나오는 피고름같은 눈물이였다. 경찰관도 련민의 정이 동했던지 오금을 꺾고 권씨의 작은 몸을 아들의 발목에서 떼내며 위로하였다.
《어머니, 일없을겝니다. … 걱정말고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나 다른 한놈의 경찰관은 아들을 향해 벌렁벌렁 땅바닥을 짚고 기여오는 권씨의 가슴통을 구두발로 들이찼다. 몸체 가벼운 권씨

는 저발쯤에 돌덩이처럼 날려 뒤로 넉장거리를 하였다.

얼빠진 사람처럼 서있던 류호는 마당으로 달려나가 땅바닥에 쓰러져있는 권씨를 안아다가 정지방아래목에 눕히였다. 권씨는 주먹으로 방바닥을 두드리며 울음을 터뜨리였다.

《민환아!… 민환아!… 여보 령감, 이 일을 어찌하면 좋소.》

《애비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싸다니더니… 잘됐지, 잘됐어.》

류호는 방바닥에 주저앉으며 손에 잡히는 무슨 물건인가를 휘뚜루 쥐여뿌리였다.

《여보, 그러고 앉아있으면 어쩌자는거예요. 강씨부인이라도 데려다 의논해봐요.》

죽을 곬에 드니 권씨의 머리에 먼저 떠오르는이가 강반석녀사인듯 싶었다.

류호는 뛰쳐나가 옆집아이에게 강반석녀사를 빨리 모셔오라고 일렀다.

3

강반석녀사께서는 저녁진지를 들려고 자제분들과 함께 밥상머리에 앉았다가 급한 전갈을 받고 류호의 집으로 달려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정지방으로 들어가기 바쁘게 웃방에 얼나간 사람처럼 멍청히 앉아있는 류호에게 물으시였다.

《아드님이 잡혀갔다는게 무슨 소리예요?》

류호는 방금전에 벌어진 불상사에 대해 자상히 이야기하였다.

류민환의 트렁크에서 신문《볼세비크》가 나왔다는 말에 녀사께서도 여간 놀라지 않으시였다.

《나도 그녀석한테 그런 신문이 있은줄은 몰랐지요. 자기 말로는 최동화와 론쟁을 하기 위해 부두로동자들이 읽는걸 비럭질했다는데 그게 둘러치는 거짓말 갈진 않아요. 실지 그 신문엔 적색폭동에 대해 비판하는 글이 실려있은게 확실하고 원체 우리 애는 공산정치건

자본정치건 그자체를 더럽게 생각하는 애지요. 그건 이 애비가 잘 압니다. 그 애의 꿈이라는건 건축가가 되는거웨다. 그래 고학을 한답시며 도회지에 떠돌아다니다가 여의치 못해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느 놈이 우리 앨 적색폭동가담자라고 신고했다니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할빈에선 적색폭동이란게 일어나지도 않았답니다.》

녀사께서는 지난해 가을에 읽은 《볼세비크》신문의 글들이 생생히 기억되시였다. 그것은 석문처럼 그이의 가슴에 깊이 쪼아새겨져 있었다. 특히 여러 호에 걸쳐 《볼세비크》신문에 련재된 5.30폭동의 좌경모험주의적로선에 대하여 비판한 해설문은 매우 자극적이였다. 물론 녀사께서 읽은 신문들은 《볼세비크》신문들중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류민환이 가지고있은 신문은 녀사께서 읽지 못하신 신문일수도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적색폭동에 대하여 비판한 신문을 가지고있었다니 한결 마음이 놓이시였다. 하지만 류호는 자기 아들이 《볼세비크》제호가 붙은 적색신문이 빌미로 되여 왕방초한테 잡혀갔으니 살아나지 못할것이라고 한탄하였다.

《요즘 신학문을 공부하는 젊은이들치고 좌익서적을 보지 않는 젊은이가 어디 있어요. 아마 왕방초도 많이 보았을거예요.》

녀사께서는 언제인가 조희재의 하인총각 돌쇠에게서 들은 말이 생각나시였다. 왕방초가 조희재의 사랑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적을 이기자면 적을 알아야 하기때문에 자기는 맑스나 레닌의 글을 독파했노라 자랑했다는것이다.

녀사께서는 얼굴빛이 시꺼멓게 질린 류호에게 말씀하시였다.

《선생의 아들은 적색폭동을 규탄하는 신문글을 읽었고 또 적색폭동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 신문을 가지고있었는데 무슨 죄가 되겠어요. 오히려 리치로 따지면 그런 사람을 잡아가는 경찰관들이 의심스럽지요. 입으로는 적색폭동을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실지로는 반적색폭동자들을 붙들어가니 말이예요.》

녀사께서는 그전에 사형수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집단보증서를 작성하듯이 롱성투쟁을 벌리면 능히 류민환을 살릴수 있다고 하시였다. 무송의 반동경찰관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공산당딱지를 붙여 맏아드님을 체포하였을 때 바로 녀사께서 롱성투쟁을 조직하여 석방

운동을 성사시키신 경험이 있었다.

《그런데 이 류호의 아들을 위해 롱성투쟁에 나설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민환이는 안도주민들을 위해 한 일이 하나도 없는 애웨다. 여기 주민들에게는 타관나그네와 같은 애올시다.》

《그건 걱정마세요. 능히 롱성투쟁을 할수 있어요.》

《강녀사님!》

그때까지 정지방아래목에 꼬부리고 누워서 앓음소리를 내고있던 권씨가 별안간 뛰쳐일어나며 녀사의 손목을 꽉 붙들었다.

《녀사님, 우리 애를 살려주세요. 어진 일을 많이 하신 녀사님의 말이라면 누구나 따라나설거예요. 우리 민환일 살려주세요, 으흐흑…》

녀사께서는 흐느끼며 애원하는 권씨의 손을 잡으시였다.

《울지 마세요. 울지 말고 사모님자신이 롱성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죄없는 내 아들을 당장 내놓으라고 웨쳐야 해요.》

《제 아들을 살려내는 일인데 무엇을 마다하겠어요. 칼날우에라도 올라서고 불속에라도 뛰여들겠어요.》

《선생님, 보세요. 조선녀인들은 사실 이렇게 강합니다.… 왕방초가 〈볼세비크〉 신문 이외에 다른 책을 본것은 없습니까?》

《이 신문들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류호는 옆에 무져있는 신문들을 가리키였다. 《이건 서울에서 발간하는 신문들인데 그 녀석도 국내소식이 궁금한지 어디에 나갔다가는 신문을 한아름 안고 들어오군 했지요.》

녀사께서는 조선신문들이라는 말에 돌연 긴장해지시였다. 혹시 시동생분의 소식이 실리지 않았을가싶어 급히 신문장들을 끌어당기시였다.

그이께서는 신문을 한장한장 번지며 붉은 테두리를 친 기사들을 골라내여 읽어보시였다. 그러던 녀사께서는 와뜰 놀라며 눈을 치뜨시였다. 불현듯 가슴이 널뛰듯 하시였다.

1931년 3월 26일부 《동아일보》에 《조선OO군 남녀 3명 피착》이라는 제명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있었다.

《근일에 길림성 이통현 중국공안국손에 조선OO군 남녀 3명이 피

착되여 방금 엄중한 취조를 받는중이라는데 그 사실을 탐문한바에 의하면 전기 피착된 3명중에 녀자 한명이 있다 하며 그들은 전기 이통현 고유수라는 동포가 거주하는 촌에 잠입하여 모계획을 하던중인바… 그들의 세명은 아래와 같다고 하였다. 金一成, OOO, OOO (녀자)》

녀사께서는 류호가 옆에 앉아있다는것도 잊은채 《金一成》이라고 쓴 한문자이름을 오래도록 내려다보시였다.

이 사건이 이통현 고유수에서 벌어진 일이고 3명의 피검자중 한사람의 이름이 지난해 가을 혁명동지들과 혁명군중들이 지어드린 맏아드님의 존칭 《**金日成**》과 표음이 같기때문에 경악하게 되신것이다.

고유수는 맏아드님께서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신 마을이였다. 그에 대해서는 지난해 여름 시동생분으로부터 자세히 들으신것이였다. 녀사께서는 신문에 찍힌 《金一成》은 맏아드님 김성주가 틀림없다고 생각되시였다. 아마도 탐문기자가 《**金日成**》을 《金一成》으로 잘못 적었을것이다.

체포된 맏아드님께서 이제는 살아나오지 못할것이다. 녀사의 온몸에서 식은땀이 쫙 흘러내렸다.

《부인님, 그 신문에 아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는가요?》

녀사께서 하도 오래도록 《동아일보》3월 26일부 신문을 들여다보고계시니 류호는 의아해하였다.

《아니, 그저…》

녀사께서는 대답을 얼버무리며 신문장을 번지시였다. 그러다가 또 한번 소스라쳐 놀라시였다. 이번에는 조선혁명군의 한 소조를 책임지고 압록강국경연선에서 활약하던 리제우가 사형언도를 받았다는 기사가 눈에 밟히신것이다. 그것은 1931년 3월 13일부 《동아일보》였다.

리제우가 사형언도를 받은 이 사실은 반년이상 아무런 소식도 없는 김형권동지의 불상사를 시사해주는것 같으시였다.

우리 적은이도 체포됐을가? 아니면 어느 산중에서 적들과 총격전을 벌리다가 희생되였을가?

갖가지 불길한 예감이 갈마드시였다.

《부인님, 어디 편치 않으신가요?》

류호는 해쓱해지신 녀사의 얼굴에 방울방울 진땀이 내돋힌것을 보고 눈이 둥그래졌다.

《아니, 일없습니다.》

녀사의 눈앞에는 류치장에 갇힌 맏아드님의 상처입은 모습이 그림처럼 떠오르시였다. 그이께서는 새삼스레 권씨를 지켜보시였다. 자신께서도 그렇고 저 녀인도 그렇고 이제 아들들이 잘못되면 생명을 지탱할 힘이 없어질것 같으시였다.

나라잃은 이 나라 어머니와 아들들의 수난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여지는듯 아프시였다.

《선생님, 사모님, 아드님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두 힘을 합쳐 아드님을 구원하자요.》

녀사께서는 일어나시였다.

《녀사님!》

권씨는 또다시 녀사의 손을 붙들고 흐느끼였다. 울지 말라고 권씨를 위로해주는 녀사의 가슴속에서도 뚝뚝 살점이 떨어져내리는것 같으시였다.

류호의 집을 나선 녀사께서는 다리맥이 빠져 언덕길을 내리기조차 힘드시였다.

《金一成, **金日成**》

녀사께서는 신문에서 본 한 일자가 날 일자로 바뀌여지면서 감방속에 계시는 맏아드님의 상처입은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감쳐드시였다. 절벽끝에 다닥친것처럼 가슴이 떨리고 막막하시였다. 멀리에 계시는 맏아드님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실수 없었다.

녀사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였다. 어느덧 댁의 마당앞에 이르신것이다.

이밤에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우선 리영배, 리옥단, 김철희 등 가까이에 있는 핵심조직원들을 댁으로 불러와야 했다. 그들에게 류민환이 체포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롱성투쟁을 벌리도록 호소해야 한다. 대흥툰, 정업툰, 송강의 조직책임자들에게도 빨리 련락

을 띄워 늦어도 래일 낮에는 수백명의 조직원들이 류민환의 석방을 요구하는 표어와 프랑카드를 들고 경찰서앞에 모여들게 하여야 한다.

우리의 혁명조직이란 과연 무엇이겠는가? 모든 주민들을 안아주는 어머니의 품이 되고 따뜻한 집이 되여야 한다. 류민환이라는 한 청년을 구원하면 많은 청년들을 구원하고 그 한사람을 쟁취하면 전체 주민을 쟁취할수 있다.

그렇다, 이것은 결코 류민환청년 한사람을 위한 롱성투쟁이 아니였다.

반동관헌들에 대한 원한에 사무친 조중주민들이, 아들을 가진 모든 어머니들이 이 호소에 호응해나서리라는것을 녀사께서는 굳게 믿으시였다. 일반주민들뿐아니라 선진적인 관헌들도 지지해주리라고 믿으시였다.

(조직원들과 토론하면 좋은 방도들이 나올것이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주먹을 굳게 틀어쥐고 마당으로 들어서시였다.

4

류민환은 벽마다 무시무시한 그림들이 그려있는 좁고 눅눅한 방안에 갇혀있었다.

정면벽에는 살진 독사들이 널판자우에 반듯이 누워있는 죄수의 다리와 팔, 가슴팍으로 혀를 날름거리며 기여오르는 몸서리치는 유화가 걸려있었다. 죄수는 가슴으로 기여오르는 독사를 보고 기겁하여 비명을 지르고있다. 왼쪽벽에는 험악스럽게 생긴 사나이가 불에 달군 시뻘건 쇠꼬챙이로 죄수의 잔등에 《공산당》이라는 글자를 새기고있는 고문장면을 그린 색그림이 붙어있고 바른쪽벽에는 염라졸이 저승으로 간 공산당원을 불가마에 앉혀놓고 이승에서 저지른 죄행을 심문하는 환상적인 염라청그림이 그려있었다. 뒤벽에 걸려있는 유화는 경찰서 심문장에서 솔직히 죄행을 다 터놓은 죄수가 자유로운 바깥세상으로 걸어나가는 석방장면을 형상한것이였다.

그전날 **김일성**동지께서 체포되시였던 무송경찰서 류치장이 그랬던것처럼 당시 동만의 경찰서 류치장들중 일부 특별감방들에는 그처럼 무서운 그림들을 붙여놓고 정신고문을 먼저 들이댔다.

어제 밤과 이날 오전 한나절을 정신고문방에서 지낸 류민환은 막 미쳐날것 같았다. 몸안에 칼이라도 있으면 스스로 멱을 찌르고 죽고 싶었지만 류치장으로 들어올 때 일체 소지품들을 다 빼앗기였다. 그러고보면 감방안은 자유로운 바깥세상보다도 오히려 저승길과 더 멀리 떨어져있었다.

바깥에서는 자기만 결심하고 한발자국 비켜디디면 저승길이 된다.

(옳지, 저놈의 바람벽에 머리를 짓쪼아볼가?)

류민환은 시꺼먼 옻칠을 한 나무벽을 뚫어지게 지켜보았다.

이때 소리없이 출입문이 열리더니 왕방초서장이 뒤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들어왔다. 뚜벅뚜벅 마루바닥을 울리는 그의 장화발소리가 마치 저승의 문을 두드리는 염라졸의 손기척소리처럼 들리였다.

왕방초는 석불처럼 까딱없이 앉아있는 류민환을 거느즉이 내려다보았다.

《너는 이 방에 열다섯시간 앉아있었다. 그래, 기분이 어떤가?》

류민환은 아무런 응대도 하지 않았다.

《내가 요구하는 네가지에 대해 정확히 대답하면 너는 즉시 석방될수 있다. 첫째, 〈볼세비크〉는 어디서 발간하는 신문인가? 둘째, 너는 누구와 줄을 잡고 적색폭동을 일으켰는가? 셋째, 안도에 와서 누구와 련계를 가지고 무엇을 하기 위해 어디로 돌아다녔는가? 넷째, 최동화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류민환은 눈을 뜨고 마치 책을 읽듯이 대답하였다.

《첫째, 나는 〈볼세비크〉신문사에 대해 아는것이 하나도 없다. 둘째, 나는 적색폭동에 가담한적이 없고 어느 정치단체와도 관계하지 않았다. 셋째, 나는 맞춤한 직업을 구하기 위해 연길과 장백쪽을 돌아다녔다. 넷째, 최동화가 있는 곳을 모른다.》

《허튼소리 하지 말라!》

왕방초가 발작적으로 고함을 질렀다.

《할빈은 공산당선이 제일 크게 뻗어있는데야. 국제공산당 동

양지부도 거기에 있어. 네놈이 적색폭동을 일으키다 도망쳐와서 최동화와 줄을 잡으려고 여기저기 돌아치고있는줄을 모르고 묻는줄 아는가?》

류민환은 억이 막혀 모두숨을 쉬였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한테서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들었는가? 그의 눈앞에 두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사람은 흥륭촌 촌장 김춘봉이고 다른 한사람은 조희재였다. 그밖에는 자기에 대해 나쁜 말을 할 사람이 없었다. 원래 이 안도바닥에는 자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있는 사람이 없었다.

《너는 이 왕방초와 무한장도단장님에 대해 노상 악담질을 하면서 공산당선전을 했다.》

《당신과 무한장에 대해 욕질을 한건 사실이요. 그러나 공산당을 선전한적은 없소. 공산당은 나도 싫어하오.》

《공산당을 싫어하는 놈이 〈볼세비크〉를 호신부처럼 끼고다니는가?!》

히스테리적인 발작증이 일어난 왕방초는 류민환에게 달려와 귀뺨을 후려갈겼다.

《공산당이란걸 알았으면 빨리 죽여달라. 살고싶지 않다.》

류민환이도 발광을 하였다.

《빨리 죽여달라? 무엇때문에 빨리 죽여. 우리가 그전에는 공산당이라면 즉시 〈창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해! 저승에서가 아니라 이승에서 련옥의 단근질보다 더 무서운 고문의 맛을 보이고 마지막피 한방울까지 깨깨 말리워놓고 죽인다. 알겠는가. 저 바람벽그림들을 보라!》

왕방초는 얼굴을 험악하게 찌프리고 벽에 걸려있는 그림들을 가리키였다.

류민환은 몸서리를 쳤다. 마지막피 한방울까지 말리워놓고 죽인다는 말은 참으로 무서운것이였다. 최고의 극형이였다. 이때 허리에 짧은 칼을 찬 순사 하나가 급하게 뛰여들어와 왕방초의 귀에 대고 한참이나 무어라고 수군거리였다.

《몇명이나 되는가?》

왕방초가 실색한 얼굴을 하고 순사에게 소리쳤다.

《수백명 됩니다. 저기 창문으로 다 보입니다.》

순사가 왼쪽벽에 나있는 유리창문을 가리켰다. 원래 류치장이나 감방에는 외계와 철폐하기 위해 창문을 내지 않는것이 상례이지만 이 특감방에는 큰 창문을 달아놓았다. 물론 창문을 열지 못하도록 안으로는 주먹같은 자물쇠를 채우고 밖에는 쇠살창을 쳤다. 죄수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바깥세상에 대한 유혹을 느끼게 하기 위해 달아놓은 창문이였다.

창문앞으로 달려간 왕방초는 점도록 밖을 내다보고는 새끼잃은 승냥이처럼 안정을 못하고 왔다갔다하더니 출입문을 향해 뛰쳐나갔다.

류민환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싶어 창문앞으로 걸어갔다. 순간 그는 눈을 흡뜨며 저도 모르게 외마디소리를 질렀다.

소복단장을 한 어머니 권씨가 흰 명주천에 《죄없는 내 아들 류민환을 내놓아라!》라고 쓴 표어를 기발처럼 나무대에 걸어들고 경찰서정문앞에 버티고 서있는것이였다. 어머니의 주변에도 숱한 녀성들이 여러가지 표어판들을 들고 둘러서있었다. 저쪽 건너편 현공서주변과 길거리에도 수백명의 군중이 진을 치고있는데 남자들보다도 녀자들이 더 많았다. 설레이는 군중들속에는 중국옷을 입은 사람들도 많았다.

늠실거리는 군중의 물결우에서 《조중인민들은 단결하자!》, 《죄없는 류민환을 석방하라!》, 《류민환은 적색폭동을 반대한 청년이다》, 《류민환을 체포한 경찰관들이 바로 적색폭동지지자들이다》, 《반적색폭동자 류민환을 체포한 경찰관들을 봉천경찰국에 신고하자!》등등의 각양각색의 표어와 프랑카드들이 거루배들처럼 떠다니였다.

류민환은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도저히 분별할수 없었다. 어쩌면 자기가 환각속에서 헤매이고있는듯 하였다.

경찰서정문앞에서 총칼을 휘두르며 군중을 제압하고있는 순경들에게 어머니가 주먹을 흔들면서 뭐라고 고함을 지르고있었다. 그 주변에서 숱한 녀인들이 합세하여 뭐라고 부르짖고있는데 거의다 흥룡촌녀인들이였다. 류민환은 평시에 그들과 이야기조차 해본적이 없었고

길가에서 만나도 덤덤히 지나가군 했었다. 그런데 자기가 알은체도 하지 않은 그 흥릉촌녀인들이 《죄없는 류민환을 석방하라!》라는 표어들을 기발처럼 높이 들고 서있었다.

《아니, 저 녀자가 누구야?》

류민환은 어머니와 조금 떨어진 곳에 서있는 검정두루마기차림의 젊은 녀인을 띠여보고 눈을 흡떴다. 그는 조춘희였다.

그 녀자는 《좌익신문을 읽었다는 죄명으로 류민환을 체포한 왕방초도 좌익서적을 읽었다. 좌익신문을 읽은자를 적색폭동에 가담한 공산분자로 본다면 왕방초도 공산분자이다》라는 가장 길고도 가장 위험한 표어를 들고 서있었다.

류민환이와 조춘희는 어린시절 서울에서 소꿉놀이도 같이하고 책보를 끼고 학교로 가는 골목길도 함께 다닌 송아지동무였다. 류민환이보다 세살 우인 조춘희는 그 시절 언제나 누이와 같은 살뜰한 보호자로 되여 민환을 보살펴주었다. 그러나 나라잃은 수난의 세월 류호와 조희재의 관계가 버성겨지면서 그들의 관계도 자연히 소원해졌었다.

자기 눈을 의심한 류민환은 그 녀자를 보고 또 보았다. 틀림없는 조춘희였다. 류민환은 안도주민들속에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참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인 자기를 위해 수많은 낯선 사람들이 롱성을 하고있는것도 리해할수 없는 일이지만 수화상극처럼 되여있던 조희재의 딸 조춘희가 자기를 위해 위태위태한 표어를 들고 롱성에 참가하고있는것이 너무도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괴변으로 생각되였다.

《무얼 보는가?》

류민환은 별안간 귀청을 때리는 새된 고함소리에 화닥닥 놀라며 돌아섰다. 방금 들어선듯 한 세 경찰관이 창문가로 다가오고있었다.

《넌 행여나 해서 바깥을 내다보니? 방금 서장님이 란동을 부리는 년놈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했다. 이제 보위단 200명이 여기로 와서 저것들을 다 쏴갈긴다. 창비! 알기나 해?》

세 경찰관들중 허리에 권총집을 찬자가 적의에 찬 눈으로 류민환을 쏘아보며 코수염을 씰룩거리였다. 류달리 기다란 그의 목에서 퍼런 피줄이 풀떡거리였다.

류민환은 눈앞이 아찔하였다. 총탄에 맞아 쓰러지는 어머니와 피로 물들인 송강거리의 참경을 상상하며 창문밖으로 다시 고개를 돌리였다.

《이 자식, 보지 말라는데!…》

경찰관이 구두발로 류민환의 허리통을 내차고는 승냥이처럼 시뻘건 이몸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였다.

류민환은 바깥동정을 더는 살필수 없게 되였다.

퍼그나 시간이 흘러 출입문이 열리더니 검은 양복을 입은 키가 작달막한 사람이 방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안도현 현장이였다. 그의 뒤로 경찰서 부서장이 따라들어왔다.

《당신이 류민환이요?》

현장이 류민환을 우아래로 훑어보며 물었다.

《그렇습니다.》

《짐을 찾아가지고 나가라! 이다음엔 〈볼세비크〉 같은 좌익신문이나 책을 가지고다니면 안돼! 알겠는가, 엉?!》

류민환은 너무도 뜻밖이여서 어정쩡히 서있었다. 부서장이 경찰관들에게 류민환의 손목을 묶은 쇠고랑을 풀어주라고 하였다.

현장이 방벽에 걸려있는 그림들을 둘러보고 이마살을 찌프리더니 부서장에게 조용히 귀속말을 하였다.

《경찰서에서 앞으로는 좀 신중해주길 바라오. 왜 자꾸 이런 소동을 일으키는거요. 왕서장은 지내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한단 말이요. 우에서 이 일을 알면 어쩌자는거요. …》

현장의 말을 들으며 찌뿌둥히 창문쪽을 내다보고있던 부서장이 멍청히 서있는 류민환에게 화를 냈다.

《넌 나가라는데 왜 아직 서있어?》

류민환은 그제야 출입문을 향해 뜨직뜨직 걸어갔다. 여전히 모든 일이 생시같지 않고 꿈속에서 벌어지는 일같아 슬그머니 허벅다리를 꼬집어보았다.

얼마후 그가 경찰서마당으로 나서자 표어대를 꽉 움켜쥐고 서있던 권씨가 아들을 향해 달려왔다.

《민환아! 내 아들아!》

《어머니-》

류민환은 어머니의 체소한 몸을 꽉 붙안았다. 4월의 밝은 해빛이 굳게 포옹한 어머니와 아들을 따뜻이 비쳐주고있었다. 주변에 둘러서있던 군중이 돌연 벌떼처럼 웅성거리였다.

류민환은 설레이는 군중을 향해 깊이 허리를 굽혀 감사의 절을 하였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뒤에 미소를 머금고 서계시는 강반석녀사께는 시선을 돌리지 못하고있었다. 다섯달전 대흥툰길목에서 한번 뵈온 그이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있는것이다. 그는 어린시절 소꿉놀이를 하던 때의 누나이고 어머니였던 조춘희에게 뜨거운 눈길을 보내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였다. 먼발치에서 그를 바라보는 조춘희의 눈에서도 하염없이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리였다.

그날 밤 류호의 집은 잔치집처럼 흥성거리였으나 조희재의 집에선 싸움이 나고 울음이 터졌다. 류호의 아들을 석방하기 위한 롱성에 자기 딸이 표어까지 들고나간 사실을 알게 된 조희재가 놀라서 길길이 뛰였던것이다. 사실 그것은 조희재에게 있어서 무서운 일이였다.

《너 정신이 있느냐? 이제 왕서장과 흥룡촌 촌장이 그 일을 알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나 하느냐. 류호의 아들을 잡아간건 누구의 신고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짜고 한노릇이야. 네가 미치지 않고야 제 애비가 미워하는 류호의 아들을 위해 롱성을 할수 있느냐.》

조희재는 일단 왕방초의 눈에 나면 집안이 무사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미친듯이 딸에게 욕을 해댔다. 그래서 안씨는 울고불고했으나 조춘희는 여기 물북청년을 위해 류호선생이 서명운동에 참가했으니 우리도 물남청년을 위해 롱성투쟁을 하는게 도리가 아닌가고 아버지에게 반발하였다.

5

아침해가 뜨려는듯 동쪽산마루가 감빛으로 물들여졌다.

어뜩새벽부터 강가에 나가 빨래를 한 강반석녀사께서는 장대기를

버티여 마당에 늘인 긴 빨래줄에 옷가지들을 널고계시였다.

녀사께서 커다란 나무함지에 무드기 담긴 젖은 옷들을 다 널고 돌아서시는데 색이 날은 곤색양복을 입은 젊은이가 인기척을 내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경찰서에 잡혀갔다가 며칠전에 석방된 류민환이였다. 그는 석방된 이튿날부터 아버지의 권고에 의해 낮에는 동네사람들을 도와 논밭일을 하고 밤에는 야학생들을 가르치였다. 류호는 아들이 석방된 그날 밤 안해와 아들을 앉혀놓고 이제부터는 무슨 일을 하든 강반석녀사와 의논을 하고 그이의 의사를 따르겠다고 하였다. 사실 이번에 그의 일가가 받아안은 충격은 대단히 컸었다.

《아니, 서당집에서 어떻게?》

녀사께서 마당에 들어선 류민환을 띠여보고 의아해하시였다.

《우리 어머니가 사모님을 모셔오라고 합니다.》

류민환은 어줍게 말을 떼고는 굴뚝모퉁이에 오금을 꺾고앉아 도끼자루를 맞추고있는 김철주를 띠여보고 《너희들도 같이 가자.》하고 손짓을 하였다. 아마도 권씨가 경찰서에 감금되였던 자기 아들을 구출해주신 강반석녀사께 인사차림으로 조반을 준비한 모양이였다. 녀사께서는 성의를 마다할수가 없어 《뭘 아이들까지 가겠소.》하고 머리에 썼던 수건을 풀어 물묻은 손을 씻으시였다.

《별로 차린건 없지만 아이들도 다 데리고 오랍니다. … 참, 할머니도 모셔오랍니다.》

《얘 철주야, 어서 옷 갈아입고 사돈집에 가서 할머니 모셔와라, 서당집에서 기다리신다는데.》

리보익할머님께서는 어떤 날에는 맏며느님께 와있고 또 어떤 날에는 셋째며느리가 있는 사돈집에 가계시였다.

녀사께서는 권씨의 성의를 물리칠수 없어 류민환을 보낸 다음 빨래함지를 부엌에 가져다놓고 옷을 갈아입으시였다.

얼마후 철주가 할머님을 모시고왔다.

《성주 에미야, 철주 삼촌에미때문에 참 걱정이다. 밥도 먹지 않고 시름시름 앓는것 같더니 오늘은 현기증이 난다면서 아예 일어나질 못하는구나.》

《그래요?》

녀사께서는 졸지에 낯빛을 흐리시였다. 동서가 무엇때문에 입맛을 젖히고 시름시름 앓고있는지 녀사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계시였다. 그것은 일년이 가까와오도록 소식이 없는 자기 남편때문이였다.

《왜 소식들이 없는지 모르겠구나.》

리보익할머님께서 1년이 가까와오도록 소식이 없는 맏손자님과 셋째아드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였다. 녀사께서는 기가 막히시여 망연히 서계시였다. 며칠전 류호의 집에서 본 례의 《동아일보》 기사에 대해서 아직 시어머니뿐아니라 자제분들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였다. 물론 채련옥이도 모르고있었다. 기쁨을 나누면 배로 커지고 슬픔을 나누면 덜어진다고 하지만 녀사께서는 혼자 속을 태우고계시였다. 맏아드님께서 또 체포됐다고 하면 모두가 절망에 빠져 더는 일어나지 못할것 같아서였다. 녀사께서는 다만 《金一成》이라는 그 사람이 맏아드님이 아닐수 있다는 가느다란 희망의 줄에 마음을 걸고계시였다.

녀사께서는 아무런 내색도 없이 시어머님께 말씀하시였다.

《서당집에서 일껏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고있는것 같은데 어머니가 애들을 데리고 가보세요. 전 아무래도 동서한테 가봐야겠어요.》

《그 집에서 음식을 차린건 성주 에미한테 인사차림을 하자는거겠는데 이 늙은게 가선 뭘하겠니. 아에미나 가봐라. 성의로 차린건데 안 가면 되겠느냐.》

《그러게 어머니가 가서 잘 말씀하세요. 동서가 급히 앓아서 못 온다면 그 집에서도 리해할거예요. 제가 가서 보구 동서한테 약을 좀 써야겠어요.》

《약을 써서 나을병 같지 않다.》

리보익할머님께서 토방에 주저앉으시였다. 지내보니 셋째며느리가 마음은 한정없이 곱지만 의지가 너무 약한것 같으시였다. 맏며느님은 몸에 몹쓸 병을 달고 온갖 마음고생을 하면서도 아픈 내색이 없이 오히려 시어머님을 위로하며 꿋꿋이 살아가지만 셋째며느리는 그렇지 못했다. 아마 맏며느님만 한 심리적부담이 그에게 쏠렸다면 몸져누운지가 오랬을것이다.

그러지 않아 할머님께서는 언제인가 한번은 소식없는 남편때문에 울적해있는 셋째며느리에게 《얘야, 마음을 굳게 먹구 살아야 한다. 네 형님을 봐라. 별의별 맘고생을 당하면서두 언제한번 속타는 말을 한적이 있더냐. 속타고 마음 아픈것으로 하면 성주 에미보다 더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하고 신칙하시였다.

녀사께서는 시어머님과 자제분들을 류호네 집으로 보내고 사돈집으로 가시였다.

채련옥은 강반석녀사께서 오신것도 모르고 수건을 이마에 동인채 죽은듯이 누워있었다. 그는 친가어머니가 녀사께서 오셨다고 몸을 잡아흔들어서야 신음소리를 내며 눈시울을 떠올리였다. 자기를 내려다보시는 녀사의 얼굴에서 따뜻한 련민의 정을 느꼈는지 불시에 그의 눈귀에서 눈물이 샘솟아올랐다.

《철주 삼촌이 어째 여직 소식이 없는지 답답하오다, 일년이 돼오도록…》

련옥의 어머니가 푸념조로 중얼거리였다.

《옛날부터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 그리구 동서도 그렇지, 밥도 먹지 않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떻게 해. … 그건 자기절로 병을 만드는거야.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고 건너야 할 강도 많은데 길이 좀 험하다구 벌써부터 주저앉으면 되나. 그래가지구야 어떻게 나라를 찾겠나.》

녀사께서는 엄한 낯빛을 지으시였다.

《형님, 이제 보니 난 약한 녀자예요.》

녀사께서는 흐느끼는 련옥의 손을 꽉 쥐시였다. 가슴이 아프시였다. 련옥이 나이또래의 흥룡촌녀인들은 모두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정답게 살고있었다. 야학방에서 글을 가르치거나 부녀회에서 모임을 지도할 때마다 녀사께서는 가정을 애국화하자면 먼저 부부간의 정을 두터이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군 하시였다. 그래서인지 흥룡촌의 젊은 부부들은 모두가 금슬이 좋아졌다. 날마다 목격하는 젊은 부부들의 다정한 생활이 련옥의 심리에 큰 자극을 주고있는지도 모른다. 그도 녀자이고 인간이기때문이다.

《동서, 밥을 짱짱 먹구 힘을 내야 해. 어지럼증이 일어나는건 밥

을 먹지 않아 뇌허혈이 생겨서 그러는거야.》

녀사께서도 드문히 현기증이 일어나군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강한 정신력으로 병을 이겨내고계시였다.

《내 미음을 쑤어올테니 한종발 쭉 마시라구. 입맛을 젖히거나 아플 때에는 미음이 보약이야.》

녀사께서는 댁으로 돌아가 풍로에 숯불을 피워 좁쌀미음을 쑤면서 자신께서 기르는 검정닭을 잡아 동서에게 닭곰을 해줄 생각을 하시였다. 인삼이나 단너삼 같은 보약재를 넣고 닭곰을 해야 효력이 좋은데 이제는 인삼뿌리도 거덜이 났다.

녀사께서는 련옥에게 미음 한종발을 먹이고 집을 나서시였다. 송강약방에 가서 닭곰에 쓸 보약재를 구해보시려는것이다.

6

강반석녀사께서 오방원이한테서 단너삼 두근을 얻어가지고 돌아서시였을 때는 벌써 한낮이 기울어질녘이였다.

녀사께서는 시간이 바빠 민옥이와 마춘욱이네 객주집에 들려보지 못하고 곧장 서문강다리를 건느시였다. 다리를 건너 얼마간 걸어가자부터 돌연 현기증이 일어나 길옆 풀밭에 앉으시였다. 웬간한 현기증이면 몰라도 눈앞의 물체들이 다람쥐 채바퀴 돌아가듯 빙빙 돌아가서 도저히 걸어낼수가 없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소나무줄기에 몸을 기대고 살풋이 눈을 감으시였다. 메슥메슥 구토감까지 일어나 눈을 뜨실수가 없었다.

(나까지 이 모양으로 되면 안되겠는데… 이러다 내가 정말 몸져눕게 되면 어찌할가?)

녀사께서는 가슴이 덜컥하고 눈앞이 막막해지시였다.

사실 그렇게 되면 큰일이였다. 지금 녀사께서는 한 집안을 먹여살리는 부엌일로부터 옷을 해입히고 자녀들을 키우는 바느질, 길쌈하는 일을 거쳐 한 마을을 깨우치고 단합시키는 애국계몽운동과 맏아드님의 혁명사업을 받들어나가는 구국의 성업에 이르기까지 모

든 크고작은 일들을 다 맡아하고계시였다.
그런데 병에 치여 자신께서 눕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집안이 무너지고 마을일들이 망가지고 맏아드님께서 옥고를 겪으며 하나하나 짜놓으신 조선독립의 방략과 경륜을 펴나가는 일들이 다 망쳐질수 있었다.
(절대로 쓰러져서는 안된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녀사께서는 정신이 하릿하릿한 속에서 누구인가 멀리서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였다.
《어머니!》
멀리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서 큰소리로 부르고있었다.
눈을 뜨는 순간 녀사께서는 소스라쳐 놀라시였다. 검은 학생복을 입은 름름한 청년이 급한 걸음으로 다가오고있었다. 자나깨나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걱정하던 맏아드님이 아닌가! 참으로 현실로 믿기에는 너무도 뜻밖의 일이 갑작스레 벌어진것이다.
《어머니!》
녀사께서는 가슴이 높뛰여 숨이 막히는것 같으시였다.
《이게 누구야, 성주가 아니냐?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냐, 땅속에서 솟아났냐?》
녀사께서는 아드님을 꽉 그러안으시였다. 어찌된 일인지 현기증은 간데없이 사라지고 그저 온몸이 기쁨과 놀라움에 떨리시였다.
《어머니, 왜 이렇게…》
김일성동지께서는 녀사의 여위고 거친 손을 꽉 쥔채 말씀을 잇지 못하시였다. 녀사께서도 가슴이 쿵쿵 울리고 기쁨이 북받쳐 말씀이 나가지 않으시였다.
《어머니, 왜 이렇게 수척해지셨습니까. 손이 왜 이렇게 찬가요?》
김일성동지께서 녀사의 손을 끌어당기며 호— 하고 입김을 부시였다. 펴그나 어리였을 때 **김일성**동지께서는 추운 겨울철 어머님께서 바깥일을 하다가 들어오시면 그렇게 손을 잡아당겨 입김을 불어 녹여드리군 하시였다.
《원, 이 봄철에 손이 얼었겠느냐.》
녀사께서는 입김을 불어주는 아드님을 보며 웃으시였다.

《어머니의 손이 얼음덩이 같습니다. 얼굴은 몰라보게 상하고… 병이 심하신가봅니다.》

《병은 무슨 병, 아무 일없다.》

녀사께서는 아드님의 손에 잡힌 손을 들며 《너야말로 그 좋던 얼굴이 상했구나, 살이 다 빠져 볼우물만 남구.》하고 걱정하시였다. 근 2년만에 보시는 아드님의 얼굴은 몹시 수척해지였다. 그러나 아드님의 몸에는 끌밋하고 의젓한 장부의 틀이 잡혔으며 얼굴의 살은 빠졌지만 인자하면서도 억세고 부드러우면서도 강직한 표정에는 강철같은 의지와 범접할수 없는 위엄이 어려있었다.

《할머니랑은 다 편안하십니까?》

《오냐. 할머니두 삼촌어머니두 네 동생들두 다 무탈하다. 모여앉으면 그저 네 소리다. 이제 할머니가 널 보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녀사께서는 솟구치려는 눈물을 참아내시였다.

《저를 얼마나 욕했겠습니까. 일년이 가까와오도록 편지 한장 없었으니…》

《원, 욕하다니… 할머니는 네가 모진 옥고를 치르고도 나라를 찾기 위해 집에도 오지 않구 다니는걸 장하게 여기신다. 그저 네가 몸성히 있는지 몰라 걱정했을뿐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감격이 북받쳐 어머니의 손을 더 굳게 잡아쥐시였다. 자신을 리해해주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눈물겹도록 고마우시였다.

《난 지난 3월 〈동아일보〉에 조선군대 3명이 중국공안국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실린걸 보구 네가 또 잡힌줄만 알구 속안이 새까맸댔다. 사람들이 너한테 날 일자, 이룰 성자로 된 **김일성**이란 이름을 지어주었다는데 한 일자, 이룰 성자로 된 金一成이 고유수에서 체포됐다니 딴 사람인게다 하면서도 혹시 네가 아닌가구 생각했지. 고유수야 너희들이 조선혁명군을 무은데가 아니냐. 그런데 네가 이렇게 꿈처럼 내앞에 와있으니 그 金一成은 다른 사람이였구나. 이젠 숨이 나간다.》

녀사께서는 신문에서 본 金一成이 체포됐다는 말을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하고 혼자서 벙어리 랭가슴 앓듯 했다며 웃으시였다.
《어머닌 이 산골에서도 돌아가는 세상소식을 다 알고계셨군요. 신문에 실린 金一成은 바로 저였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심상히 웃으시였으나 녀사께서는 무등 놀라시였다.
《아니, 신문에 실린 金一成이가 바로 너였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그러잖아 김성주로 밝히면 만경대에서랑 혹시 신문을 보구 놀랄것 같아 일부러 공안국사람들에게 金一成이라구 이름을 댔는데 어머닌 언제 벌써 동지들이 저한테 새 이름을 지어준것까지 다 알고계셨군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김일성동지께서는 낯빛을 흐리며 녀사의 손을 다시금 감싸쥐시였다.
고유수에는 현공서에서 파견된 독찰원과 줄을 잡고 밀정질을 하는 리출규라는 중국인지주가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자의 밀고에 의해 다난툰이라는 곳에서 보위단원들에게 붙잡혀 이통현 현공서감방에서 며칠동안 심문을 받다가 장춘으로 호송되여 20일동안 감옥생활을 하시였다. 마침 그때 천만다행히도 장춘에 와있던 길림육문중학교 교장과 하가 성을 가진 그 학교 선생의 보증으로 석방되시였다.
《정말 두분이 다 고마운 은사들이로구나.》
녀사께서는 그런 은인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이르고 《동아일보》 3월 13일부에는 리제우라는 정의부 독립군이 사형언도를 받았다는 기사가 실렸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고 물으시였다.
《무송에서 백산학교 교사를 한 리제우가 옳으냐?》
《예, 옳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해 여름 조선혁명군을 결성하고 김형권동지를 조장으로 하는 공작소조를 국내에 파견하실 때 리제우, 공영, 박진영을 중심으로 하는 또 하나의 국내소조를 무어 그들에게 신갈파로 해서 랑림산줄기를 타고 평북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혁명의 씨를 뿌려 곳곳에 우리의 조직을 꾸려놓을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김형권, 리제우들의 활동에 의해 장백땅에는 반일조직이 수없이 태

여나고 마을마다 학교와 야학이 생겨 애국계몽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그런데 리제우의 혁명군소조가 일제와 련결되여있는 마적단과 반동군벌군대의 습격을 받게 되여 박진영은 전투현장에서 놈들과 싸우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치고 리제우는 체포되였다. 그는 적들에게 욕을 보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으리라 독한 마음을 먹고 손발을 얽어매운 부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가까스로 칼을 꺼내 목을 찔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반동군벌들이 그를 일본경찰에 넘겨서 결국 리제우는 서울에 압송되여 사형언도를 받게 되였던것이다. 공영은 반일독립운동자들을 꾀여내기 위해 일제가 만들어낸 가짜공산주의자들에게 속히워 살해되였다.

김혁은 조선혁명군소조를 책임지고 할빈지구로 나가 지하공작을 하다가 잘못되였다.

사랑하는 네명의 동지의 희생에 대하여 녀사께 전하시는 **김일성**동지의 눈귀에는 피방울같은 눈물이 맺히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손발이 얼어들고 온몸이 굳어지는듯 하시였다. 또다시 현기증이 일어나 녀사께서는 소나무줄기에 손을 짚으시였다.

《어머니, 앉으십시오. … 저는 아버님께 큰 죄를 졌습니다. 리제우, 공영, 박진영이들은 다 아버님께서 사랑하시던 동무들입니다.》

《대쪽같이 마음 곧던 젊은이들이… 알맹이들이 다 죽었구나.》

《어머니, 저에게 잘못이 많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과업을 맡겼습니다.》

《어찌겠느냐. 나라를 찾는 일이 헐하겠느냐.》

녀사께서는 풀섶에 쓰러지듯 주저앉으시였다. 공영, 박진영, 리제우는 말할것 없고 아직 한번도 본적 없는 김혁이도 마음속으로 아들처럼 사랑하시였었다. 일찌기 부모를 잃은 젊은이이기에 정말로 친어머니처럼 사랑해주시려고 했었다. 그런데 《조선의 별》이라는 노래를 짓고 맏아드님과 생사를 같이하기로 맹약한 그 젊은이가 벌써 간것이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떨리는 손으로 단너삼보자기를 품에 안으시였다. 제일 묻고싶은것을 아직 묻지 못하시였다. 시동생분에 대한 소식이였다. 어째서인지 시동생분에 대해서는 묻기조차 두려워 가슴만

울렁거리고계시는데 마침 **김일성**동지께서 물으시였다.

《그건 무슨 보자깁니까. 참, 어머닌 어딜 가시던 길입니까?》

어머님과의 뜻밖의 상봉으로 하여 이야기의 두서도 생각할수없이 격동되였던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제야 그것을 물으시였다.

《네 삼촌어머니가 앓는다. 삼촌때문인것 같다. 너는 이렇게 오는데 삼촌은 지난해 여름에 흥륭촌을 떠난 이후 여직 돌아오지 않는다.》

녀사께서는 앓고있는 채련옥이의 일로 해서 단너삼 두근을 얻어가지고오는 사연을 말씀하시였다. 아드님께서는 오래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였다. 녀사께 있어서 아드님의 오랜 침묵은 더없이 괴롭고 두려우신것이였다.

《삼촌은 잘 싸웠습니다.》

《잘 싸웠다니 됐구나. …》

녀사의 목소리는 떨리였다. 아드님의 목소리가 아득히 먼곳에서 울려오는것 같으시였다.

《어머니는 조선신문들을 많이 보신것 같은데, 지난 여름 풍산군 파발리에서 네명의 무장단이 악질적인 오빠시순사부장놈을 사살해버린 사실을 알고계시겠지요?》

《그 소문은 이 산골에까지 퍼졌다. 오빠시놈을 쏴죽인게 네 삼촌이라구 생각하고있다.》

《옳습니다. 형권삼촌입니다. 파발리에서 울린 그 총소리는 세상을 들었다놓았고 이천만 우리 겨레의 가슴에 애국의 불을 달아주었습니다.》

《네 삼촌이 큰일을 했다. 지금은 어디서 싸우느냐?》

녀사께서는 드디여 결정적인것을 물으시였다.

《지금은 감옥에서 싸웁니다.》

《?!…》

강반석녀사께서는 숨이 떡 막히는것 같으시였다. 눈앞이 캄캄해지시였다. 급작스레 적이 뒤채이며 명치끝을 마구 쑤시였다.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는 채련옥의 병든 얼굴이 눈에 밟히시였다. 시어머님께서 이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놀라고 원통해하시겠는가. 생

각할수록 기가 막히시였다. 동서의 보신을 위해 단너삼을 사가지고 오지만 이제는 천하의 어떤 보약도 효험이 없게 되였다.

녀사께서는 어째서인지 오한이 난것처럼 온몸이 떨리시였다. 그러나 어금이를 꽉 깨물며 일어나시였다.

《성주야, 가자! 가면서 이야기하자.》

녀사께서는 비척거리며 겨우 발걸음을 떼시였다.

《어머니, 보자기를 주고 저에게 의지하십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단너삼보자기를 한손에 든채 어머님을 부축하고 걸으시였다.

《삼촌이 몇년형기를 받았느냐?》

《15년입니다.》

적들은 김형권동지의 생명을 말리워서 소멸할 가장 잔인하고 혹독한 형벌을 고안해낸것이다.

《15년?… 네 삼촌을 다시 보기는 힘들겠구나. … 그러나 잘 싸웠으니 됐다. 아무렴 네 삼촌이 어련하겠느냐.》

강반석녀사께서는 역경을 디디고 올라서듯이 한발자국한발자국 이를 악물고 걸음을 내짚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머님을 부축하고 걸으면서 김형권동지의 국내진출과정에 대하여 자상히 이야기하시였다. 녀사께서는 시동생분이 장하게만 생각되시였다. 그러다가 시동생분을 밀고한 일제의 주구가 최진용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시였다.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 않아 자신의 귀를 의심하시였다. 하지만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였다.

어쩌면 최진용이 그럴수 있단 말인가. 자신께서는 끼를 번지면서도 그놈에게는 몇달이나 매끼 번지지 않고 무송에서는 상밥이라고 하는 조밥을 따뜻이 지어서 먹이시였다. 명절이나 생일때이면 반주까지 놓아 푸짐한 밥상을 차려주시였다. 어찌 그뿐이랴. 추운 겨울에도 강가에 나가 그놈의 옷을 빨아주시였다. 그놈은 김형직선생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 분골쇄신하겠노라고 말끝마다 외우던 놈이였다. 선생님의 장례식날에는 제일 크게 통곡하였고 사람들앞에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청

년은 김형권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모든것이 거짓이였단 말인가. 세번씩 왜놈순사놈들을 꺼꾸러뜨리고 용감하게 사선을 넘어선 적은이였으니 최진용놈이 아니였더라면 틀림없이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왔을것이다. 녀사께서는 가슴을 치고싶도록 분하고 원통하시였다. 그러고보면 두분의 가까운 일가분이 다 변절자의 밀고로 감옥에 가시였다. 1924년 5월 강진석맏오빠께서도 주구의 밀고로 체포되여 지금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계시였다.

《성주야, 최진용이란 놈은 평시에 거짓말을 잘하고 늘 말이 앞서는 놈이여서 실속이 없는 놈이라고 생각은 했다만 애국자를 고해바치는 개짓까지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녀사께서는 최진용이와 헤여지던 때를 돌이켜보시였다. 장작림폭사사건이 일어나자 최진용은 이제는 나이가 있어 독립군시중을 하기가 힘에 부치다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다. 무송에서 강반석녀사께 작별인사를 올릴 때 그는 고향에 돌아가면 눈알이 바로 박힌 마을젊은이들을 묶어세워 그들에게 애국의 뜻을 심어주면서 여생을 보내겠다고 하였다.

그는 일후 일가분들중 누구든 조선으로 나오는 일이 생기면 꼭 자기 집에 들리라고 몇번이나 절절히 말했었다. 그 말을 믿었기에 김형권동지께서는 무장소조를 이끌고 풍산과 북청을 거쳐 단천방향으로 나갈 때 소조를 두개 조로 편성하면서 홍원 최진용의 집에서 만나도록 하셨던것이다.

《글쎄 그놈이 네 삼촌을 왜놈들에게 고해바칠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느냐. 정말 사람을 안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어머니, 저도 이번에 많은걸 체험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생사를 같이할수 있는가 하는것을 알게 됐습니다. 최진용이와 같이 인간성도 없고 량심도 없는자들은 어려운 처지에 들어서면 혁명가들을 적들에게 밀고하는 짐승같은짓을 합니다.》

《네 말이 옳다. 그놈이 무송에 있을 때에야 네 삼촌에게 얼마나 살뜰했냐. 그러나 본디 사람됨이 나쁜 놈이였으니 그런 개짓을 했다.》

녀사께서는 솟구치는 격분을 도저히 묵새길수 없으시였다.

《어머니, 그러나 설사 인정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상이 같지 않고 뜻이 같지 않을 때에는 운명을 같이할수 없습니다.

어머니, 리재순이란 사람을 잘 아시지요?》

리재순은 그전에 려관업을 하면서 독립운동자들을 많이 후원한 사람이였다. 김형직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이였고 인간됨이 괜치 않은 민족주의자였다.

《독립군중대장을 하던 장철호란 사람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게구요.》

김일성동지께서는 강반석녀사를 부축하고 천천히 걸으면서 그 두 사람을 상기시키시였다.

무송에 계실 때 장철호는 한식솔처럼 가까이 지낸 독립군지휘관이였다.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고싶구나.》

《장철호중대장은 군복을 벗고 지금 교하에서 정미업을 합니다. 지난해 8월에 교하에서 두분을 만나봤습니다.》

《그래? 널 보구 반가와했겠구나. 아버지의 친구들이지…》

《예, 몹시 반가워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동지께서는 서글픈 표정을 짓고 한동안 묵묵히 걸어가시였다.

지난해 8월 **김일성**동지께서는 8.1폭동이후 파괴된 조직들을 정비복구하기 위하여 길림시절부터 련계를 가지고있던 혁명조직원들을 만나러 교하에 가시였었다. 그때 반동군벌들의 가혹한 테로로 하여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 마을젊은이들은 모두 몸을 피해 숨어버려서 조직원들을 만날수가 없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선 몸을 숨길 은신처가 필요하시였다. 그래서 교하에서 정미업을 하고있다는 장철호를 찾아가시였다. 장철호는 그이를 보자 무척 반가와하면서도 여기 군경놈들은 낯선 외지사람들이 나타나면 무작정 잡아간다고 걱정할뿐 자기 집에 숨어있으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가 무척 겁을 내는 눈치여서 **김일성**동지께서는 교하에 찾아온 사유를 말씀조차 하지 않고 그와 헤여지시였다. 그다음에 알만 한 사람은 리재순이여서 그를 찾아가시였다. 리재순이 역시

오래간만에 친구의 아들이 왔다고 반가와하였지만 중국음식점에 가서 교즈 한그릇을 대접해드리고는 헤여지자고 하였다.

《그 사람과 이렇게 헤여졌습니다. 그때 저에겐 먹는것보다 숨어있을 은신처가 필요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라는 그 사람도 그만한것쯤은 짐작했겠는데 겁을 내며 헤여지자고 했습니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서운하기보다 놀라우시였다. 그이로서는 상상하실수 없는 일이였다. 독립운동을 같이하던 친구의 아들이 위험에 처한것을 알고도 몸을 사리고 곁을 주지 않았단 말인가. 그이께서는 그전에 김형직선생님의 친구들에게도 그랬지만 지금도 아드님의 친구들이 찾아오면 친혈육처럼 대해주고 마음놓고 먹고 잘수 있는 거처지를 정성껏 마련해주시였다. 더우기 그들이 적들을 피해다니는 위험한 처지에 있다면 하루이틀이 아니라 몇달이고 집에 숨겨두고 밤새도록 망을 보아주시였다. 집에 숨겨둘 형편이 못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안전한 곳을 구해주시였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구의 아들을 그렇게 꺼려했다니 믿어지지 않으시였다.

《사상과 뜻이 같지 않으면 아버지의 친구도 소용이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게 되였습니다.》

《정말 가슴아픈 일이다. 조직원들은 다 피신해버리구 아버지의 친구까지도 너를 외면하고 곁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몸을 부지했느냐?》

《마을에 그런 사람들만 있는건 아니였지요. 아닌게아니라 교하에서 반동군벌들에게 붙잡힐번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낯도 모르는 마을아주머니가 저를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산전막늙은이가 보호해주었습니다. 결국 믿고 의지할것은 인민들이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겠지. 아무렴 세상이 그렇게 박정하겠느냐. 너를 숨겨주고 보호해준 사람들도 있었다니 속이 후련하구나.》

《참 어머니, 장울화 있지 않아요. 제가 교하에 가기 전에 길림에서 청원으로 가는 기차칸에서도 왜놈령사관 경찰관들한테 잡힐번 했는데 장울화가 희생적으로 도와주어서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길수 있었습니다. 제 사진을 가지고다니는 순경놈들이 기차칸에까지 따라와서 승객들을 검속했습니다. 그들은 출입문을 봉쇄해놓고 한사람한사

람 신분을 조사하고 소지품까지 뒤져보았습니다. 그때 저의 몸에는 비밀문건이 있었기때문에 정말 큰일날번 했습니다.》

《저런!》

녀사께서는 우뚝 걸음을 멈추시였다. 손에 땀을 쥐고 아드님을 바라보시였다.

《비밀문건까지 있는데 어떻게 무사했느냐?》

《글쎄 놈들이 제앞에 다가와서 금시 검속을 하려는데 난데없이 장울화가 나타나서 〈성주.〉 하고 찾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도와주었다는것은 이런것을 두고 하는 말인지도 몰랐다. 장울화는 **김일성**동지를 자기가 있는 1등칸으로 모시고갔기때문에 검속하려던 순사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어안이 벙벙해있었다. 순경들이 1등칸에는 감히 드나들지 못했다. 실지 그들은 돈많은 신사들은 공산주의운동을 하지 않는것으로 여기고 시치근한 땀내와 오줌내가 풍기는 3등칸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다.

《장울화는 원래 장춘으로 공부하러 가는 길이였는데 인삼을 팔러 영구에 갔던 아버지가 자기를 만나러 일부러 해룡에 와있다고 하면서 같이 내리자고 해서 신변이 위험하던차에 잘됐다고 생각하고 해룡에 내렸습니다. 장울화 아버지는 저를 친자식처럼 잘 대해주었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장울화는 국적도 다르고 지주의 아들이지만 저와 사상이 같고 뜻이 같으니 희생을 무릅쓰고 저를 보호해주었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그 집 부자는 무송에 있을 때부터 우릴 진심으로 도와주었다.》

녀사께서는 가슴이 후더워지시였다.

문득 녀사께서는 김형직선생님의 장례식날을 추억에 떠올리시였다. 그날에 제일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 두명 있었으니 그것은 장만정이와 최진용이였다. 혁명의 시련은 진금을 갈라내는 시금석처럼 진짜눈물과 가짜눈물을 갈라보게 하였다.

장만정은 녀사께서 일가분들을 거느리고 무송에서 안도로 이사가실 때에도 약차한 돈을 먹여 봉천경찰국통행증을 내고 로자로 보태쓰라고 열근이나 되는 인삼뿌리를 려장에 넣어드리였다. 이번에 또

장씨부자는 정말로 희생을 무릅쓰고 아드님의 신변을 보호해드리였다. 사실 혁명운동을 하는 아드님의 정체가 발각되는 날에는 공산주의운동자를 감추어준 죄로 그들부자도 무사치 못할수 있었다.

《이제 보니 너는 출옥한 다음에도 내내 매일과 같이 사지판을 디디고 다닌것 같구나.》

녀사께서는 아드님의 걸음걸음에 슴배여있는 피의 로고를 몸으로 느끼며 큰숨을 쉬시였다. 멀고도 위험한 길을 헤쳐가야 할 아드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떨리시였다. 그러나 아드님께서는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어머니, 털어놓고말해서 앞으로 더 위험하고 더 간고한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 어떤 위험도 다 막아주면서 혁명의 길을 억세게 걸어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느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신심에 넘치신 아드님의 얼굴을 보니 녀사께서도 시름이 덜리고 힘이 생기시였다.

《우리를 보호해주고 받들어주는 하느님이란 곧 인민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믿을것은 인민이며 인민에 의거하면 이 세상 못해낼일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독립운동자들이 실패한것은 믿어야 할 인민을 믿지 않고 하느님처럼 받들어야 할 인민을 마소처럼 천시한데 있습니다. 교하의 아주머니와 산전막할아버지, 그런 인민들의 도움으로 저는 걸음마다 덮쳐드는 위험을 헤쳐나갈수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혁명조직들을 복구하고 새로 꾸리기도 하면서 천리길, 만리길을 걸어 오늘 이렇게 어머니곁으로 왔습니다.》

《그러니 네가 금의환향을 했구나.》

녀사께서는 지난 1년동안 아드님께서 걸어간 위험하고 먼길을 상상해보며 대견스레 아드님을 바라보시였다. 기실 **김일성**동지께서는 녀사께서 짐작하신것보다도 더 멀고 더 위험한 길을 걸으시였다.

길림에서 해룡, 해룡에서 청원, 청원에서 다시 길림으로 돌아와 교하로, 교하에서 할빈으로… 할빈에서는 어느 한 녀성조직원과 지짐한두짝으로 하루끼니를 굼때면서 파괴된 혁명조직을 복구정비하는

한편 국제당련락소사람들과 마주앉아 조선혁명과 국제혁명에 대한 론의를 하시였다. 리립삼의 영향하에 종파분자들이 일으킨 5.30폭동의 좌경적모험성에 대한 견해에서 국제당련락소사람들과 일치를 보게 되고 그들로부터 카륜회의에서 제시한 당건설방침에 대한 지지를 받은것은 바로 이때였다. 당시 할빈이 얼마나 위험한 곳이였는가 하는 것은 김혁이의 희생을 놓고도 짐작할수 있는 일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할빈에서 일을 보고는 돈화지구로 자리를 옮기여 혁명조직을 복구하고 청년공산주의자들에게 북부조선과 두만강연안의 주요도시와 농촌들에 기층당조직을 내올데 대한 과업을 주어 파견하시였다. 그리고 자신께서는 왕청현 석현일대에 가서 기층당조직을 내오도록 하고 두만강을 건너가 온성지구를 비롯한 륙읍일대에 반제청년동맹을 조직하고 그 핵심성원들로써 국내당조직을 결성하시였다. 그리고 되짚어 동만땅으로 돌아와 왕청현 량수천자를 거쳐 회덕현 오가자에 가서 민족주의자들이 유토피아적인 공상을 안고 꾸려놓은 《리상촌》을 혁명촌으로 개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오가자마을을 혁명화한데 기초하여 청년공산주의자들을 동만 각지에 파견하여 여러 현의 수십개 마을을 혁명화하시였다. 하여 한두달사이에 연길현의 삼도만, 차조구, 소명월구, 왕청현의 북하마탕, 마록구, 서위자를 비롯한 여러 마을들과 훈춘현, 화룡현, 류하현, 돈화현, 안도현, 녕안현의 수십개 마을들에 수없이 많은 기층당조직들을 결성하고 동만지구로 활동무대를 옮기기 위해 지금 일가분들이 계시는 안도로 찾아오신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먼길을 걷고 많은 일을 하였으나 이제 겨우 첫걸음을 디디였다고 생각하시였다.

《어머닌 저더러 금의환향을 했다는데 금의환향을 하자면 아직 멀고 멀었습니다.》

《하긴 그렇다. 나라를 찾고 만경대로 갈 때에야 진짜 금의환향이란 말을 할수 있지. 언제쯤이면 그렇게 되겠는지…》

녀사께서는 갈망에 타는 마음으로 그날을 그리시였다. 멀리 물줄기가 바라보이였다. 흥룡촌마을을 누벼오는 4도백하였다. 강변에 늘어선 버드나무들이 파랗게 물이 들어 4도백하의 물빛이 한결 더 푸

르러보이였다.

《나는 팔도구와 림강, 무송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안도에 와서도 조그마한 내물만 보아도 대동강물이 생각나군 해서 기분이 심란해지군 한다.》

《어머니, 만경대로 돌아가 대동강을 볼 때가 꼭 옵니다. 사실 우리는 조선혁명군을 결성할 때만 하여도 2～3년 지나면 나라를 찾을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그렇게는 빨리 찾을수 없을것 같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비장하게 말씀하시였다.

《얼마나 기다리면 되겠느냐?》

《한 10년은 걸려야 될것 같습니다.》

《10년도 지내고보면 그렇게 긴것은 아니다. 우리가 만경대를 떠나온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년이 되지 않았느냐.》

그때 맏아드님은 여덟살이시였다. 그런데 지금은 스무살이 되였으며 **김일성**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받은 혁명의 지도자로 되시였다. 그러니 이제 10년만 더 지나면 조선독립을 이룩할수 있다는 아드님의 예언에 믿음이 가시였다.

아드님의 머리속에는 10년동안에 나라를 찾으실 방략과 방법이 다 그려져있을것이다. 그만큼 녀사께서는 아드님을 믿으시였다.

《어머니, 저쪽에 가서 좀 쉬고 갑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땀발이 돋은 어머니의 수척한 얼굴에서 피로의 빛을 읽으시고 달구지길옆으로 펑퍼짐하게 펼쳐진 산자락을 가리키시였다.

《오냐, 좀 쉬자. …》

김일성동지께서는 녀사의 팔을 끼고 산자락으로 걸어가시였다. 이윽고 녀사께서는 새파랗게 풀싹이 돋아난 산기슭에 앉아 푸른 하늘에 날아예는 제비를 감회롭게 올려다보시였다.

《제비로구나. 봄에 제비를 처음 보았으니 금년엔 내가 몸이 가벼워져 훨훨 날아다닐게다.》

푸른 하늘에 원을 그리며 남남히 우짖는 제비들의 자유로운 비행은 녀사께 여러가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1년동안에는 녀사께서도 많은 걸음을 하시였다. 안도관내에 있는 마을이란 마을은 거의다 다니시였다. 그리하여 흥륭촌지구, 송강지구는 물론 소사하, 하소사하, 두름봉, 로도구, 동남차, 대사하, 대장강 등 어디라없이 혁명조직이 꾸려졌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수고를 헤아리는듯 녀사의 손을 감싸쥐시였다. 군데군데 상처자리가 있는 악마디지고 거칠어진 손이였다. 12년전 만경대를 떠나 북부압록강지구로 가시던 때만 하여도 어머님의 손은 희고 보근보근하고 그지없이 고왔었다. 그처럼 부드럽고 곱던 손이 12년세월에 악마디진 손가락은 구부러지고 손등은 나무껍질처럼 거칠어진것이다.

《어머님께서 이젠 마음을 푹 놓고 쉬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 안도에서 항일무장투쟁준비사업을 본격적으로 벌리자고 합니다. 나라를 찾자면 반드시 혁명을 이끄는 당이 있어야 하고 손에 총을 쥔 군대가 있어야 합니다. 어머님이랑 모두 수고하셔서 제가 일을 쉽게 할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체포된 흥륭촌의 한 청년을 석방하기 위해 반일부녀회원들이 중심이 되여 롱성투쟁을 벌리였다는데 그건 아주 잘한 일입니다. 어머니는 정말 큰일을 하셨습니다.》

《넌 외지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걸 다 알고있구나. 그게 어디 내 혼자서 한 일이겠니. 다같이 힘을 모아서 한 일이다.》

《다같이 힘을 모은것, 그게 바로 잘한겁니다. 조직을 통해 군중을 동원시킨 그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군중을 지휘하는 혁명가가 되셨습니다.》

《무슨 당치 않은 소릴… 이 촌녀자한테 혁명가라는게 뭐냐. …》

녀사께서는 당황한 기색을 지으며 손을 저으시였다.

《혁명가라고 해서 특수한 사람이겠습니까.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혁명가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존경과 신뢰의 마음이 어린 눈길로 어머님을 이윽히 바라보시였다.

《어머님은 이곳에 와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무송에서 가지고온 혁명의 씨를 이곳에 뿌려 곳곳에 혁명의 꽃이 피여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소사하, 대사하, 두름봉, 로도구, 동남차에는 당

세포까지 조직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어머니도 이제부터 비밀당원으로 활동하시게 됐습니다. 흥륭촌에는 당세포가 없으니 소사하세포에 소속됐습니다. 이것은 절대비밀입니다.》
녀사께서는 가슴을 치는 강한 충격으로 하여 아무 말씀도 못하시였다.
어디선가 뻐꾹새가 울었다. 녀사께서는 푸르러가는 주변의 풀밭을 의미깊이 둘러보시였다. 문득 그이께서는 야학생들에게 가르쳐주신 국어교과서의 한구절을 마음속으로 외워보시였다.
《새싹이 터져나오는 새움을 보라. 제 몸은 썩어서 희생이 된다. 그러나 푸른 나무와 푸른 풀과 붉은 꽃으로 가득찬 새로운 식물계를 이루어준다.》
다시 돌아올수 없는 곳으로 간 김혁, 리제우, 공영, 박진영이들이 바로 제 한몸을 희생하여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에 혁명의 푸른 숲을 가꾸어놓은 당원들, 혁명가들이라고 생각되시였다. 첫 당조직인 건설동지사의 당원인 시동생분은 지금 감옥안에서 혁명의 숲을 가꾸고있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고 깊이 생각한 녀사께서는 먼산을 바라보며 아드님께 말씀하시였다.
《성주야, 오늘 네가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한 말들을 나는 잊지 않을테다. 그건 이제 처음 듣는 귀에 선 말들이 아니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다. 지금까지 2년동안이나 너와 떨어져있으면서 나는 늘 발편잠을 못 자고 마음을 조여왔다만 이제는 네가 이렇게 내결에 와있으니 마음이 든든하다. 무슨 일이라도 다 할것 같다.》
《그런데 어머니, 저는 할머니한테 인사나 드리구 인차 또 떠나야 할것 같습니다. 다녀야 할 곳이 너무 많아서…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수척하고 창백해진 어머님의 얼굴을 죄스럽게 바라보시였다. 녀사께서는 왼쪽손을 아드님께 맡긴채 바른손으로 돌담벽같은 아드님의 든든하고 넓은 어깨를 어루만지시였다.
《마음놓고 떠나거라. 나라를 찾겠다고 결심한 남아대장부가 어찌

집에만 붙어있겠느냐. 아까도 말했다만 할머니는 다 리해하신다. 너를 장하게 여기신다. 너도 할머니를 잘 알지 않느냐.》

《그래요. 정말 훌륭한 할머니이시지요. 저는 인차 집을 떠나지만 이제부터 우리 동무들이 여기 안도로 모여듭니다. 제가 늘 말하던 차광수도 오고 곽명준형님네 부부도 안도에 와서 생활하게 됩니다. 수많은 동지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제가 어머니더러 쉬라고 했지만 이제 어머니는 우리 동무들의 뒤바라지를 해주느라 더 고생을 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난 그런 일이라면 백번이고 천번이고 하겠다. 그게 어찌 고생이겠느냐, 락이지. … 기운이 솟는다. 자, 이젠 또 걷자.》

녀사께서는 움쭉 일어나시였다. 달구지길은 길게 뻗어있었다. 녀사께서는 아드님의 팔에 의지하여 한결 가볍게 걸음을 옮기시였다. 어머님과 아드님께 있어서 더없이 행복한 순간이였다. 사랑하는 모자가 마음껏 정을 나누며 나란히 걸으신다는것은 정녕 얼마나 행복한 일이랴.

하지만 대홍툰을 지나 흥륭촌마을이 저앞에 바라보일 때 녀사께서는 갑자기 걸음이 무거워져 한자리에 멈춰서시였다.

아드님께 시아우님의 소식을 묻게 될 시어머님과 동서를 생각하시게 된것이다.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속이 편치 않으십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걸음을 떼지 못하고 한손으로 가슴을 문지르는 어머님을 걱정스레 바라보시였다.

《성주야, 형권삼촌소식을 할머니와 삼촌어머니한테는 숨기자고 생각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것 같다. 아무래도 알게 될 일인데… 다 말해야지…》

녀사께서는 길가에 서있는 소나무등어리에 손을 짚으시였다.

《예, 숨길 필요도 없고 또 숨길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실 장백조직에서는 형권삼촌이 체포되신것을 이미 오래전에 알고있었습니다.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흥륭촌엔 알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가슴아픈 일이니까요.》

《그러니 장백에 갔다온 오방원이도 형권삼촌의 소식을 다 알면서

도 나한테 숨겼단 말이냐?》
녀사께서는 놀라시였다.
《사실은 그랬습니다. 저도 오늘 밤만은 할머니와 삼촌어머니한테 그 소식을 전하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어머님께도 숨기자고 하다가…》
김일성동지께서는 뒤말을 잇지 못하신채 흥륭촌마을을 비통하게 바라보시였다.
녀사께서는 긴 한숨을 쉬시였다.
《오늘만은 그러자꾸나. 2년만에 만나뵙는 할머니이신데, 삼촌어머니도 그렇고… 삼촌이 조선에서 잘 싸우고있다고 말해주자. 정말로 잘 싸우고있지 않느냐.》
녀사께서는 옷고름으로 눈굽을 찍으며 걸음을 옮기시였다.

7

조반상을 물리기 바쁘게 세금명세장을 펼쳐놓은 김춘봉은 흥얼흥얼 코노래를 부르며 수판알을 튕기였다.
《림야세에 산아세, 호적등록세를 합산하면 으흐흥 으흐흥… 가만, 합산한게 왜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김춘봉은 올리고 내리던 수판알을 흔들어 제자리에 앉혀놓고 처음부터 다시 세금액합산을 시작하려고 잔기침을 깇으며 팔소매를 걷어붙이였다. 수판을 놓는데 서뿌른 그는 무한장과 관공서에 바칠 세금총액수를 합산할 때면 늘 애를 먹었다. 그것은 그가 마을사람들에게서 받아내는 30여종이나 되는 가렴잡세의 3할도 되지 않는 돈이지만 우에다 바치는 세금액수는 정확히 계산해야 되였으므로 한달에 두세번씩은 수판씨름을 하였다. 그의 수판은 대단히 값진것이였다. 수판알은 하늘빛호박이였고 수판틀은 령롱한 분홍빛을 띠는 옥석이였다. 값진 수판을 가지고있어야 집안에 돈이 붙는다는 미신적관념으로부터 여러곳에 수소문을 해서 구해들인것이였다.
그가 다시 수판을 놓으려고 버릇대로 흥얼흥얼 코노래를 부르

는데 마당에 매놓은 개가 갑자기 영악스레 짖어댔다. 누가 오는 모양이였다.

영악스레 짖어대던 개가 끙끙 갑자르는 소리를 내다가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아마 머슴총각이 구슬린 모양이였다.

《촌장님 계십니까?》

문득 마당에서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울리였다. 여태 들어본적이 없는 귀에 선 목소리였다.

《촌장님 계십니까?》

다시 울리는 우렁우렁한 소리.

김춘봉은 웬일인지 가슴이 울렁거려 머밋머밋하다가 지게문을 열었다. 순간 그는 몸을 흠칫하며 상체를 뒤로 젖히였다. 학생복을 입은 름름한 미남청년이 마당에 서있는것이였다.

《어디서 온 젊은인가요?》

《예, 좀 먼곳에서 왔습니다. 며칠 이곳에 와있어야겠기에 촌장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젊은이는 웃주머니에서 손바닥만 한 종이장을 꺼내여 촌장에게 보이였다. 통행증이였다.

이름은 김성주이고 현직은 이통현 고유수 삼광학교 교사, 려행지는 안도현 송강, 흥륭촌, 연길현 룡정, 화룡현 대립자, 함경북도 온성, 종성 등 여러곳이였다. 려행목적은 친척친우방문이였다.

《여기 흥륭촌에 친척이 있는가요?》

김춘봉은 문턱에 걸터앉아 오래도록 통행증을 뜯어보고나서 범상치 않은 준수한 용모의 젊은이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예, 강반석이가 저의 모친입니다.》

《어엉?! 강부인이 젊은이의 모친이란 말이요? 아하, 듣다 처음이다.》

그는 몹시 놀랐으나 류달리 영채가 도는 그이의 어글어글한 눈매며 량볼에 패우는 보조개가 모두 강부인과 신통히 같다고 생각하였다.

어제 밤 흥륭촌의 핵심조직성원들과의 담화를 통해 이곳 실정을 료해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흥륭촌의 촌장이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잘 알고있었으나 웃는 얼굴로 말씀하시였다.

《두루 다녀보구 이젠 어머니곁에 와서 교사질을 할가 합니다. 아직은 결심을 못 내렸지만 한바퀴 쭉 돌아보고 이다음 6월쯤에 와서 결심을 말하겠습니다.》

김춘봉은 그이의 말씀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뭐라고 혼자서 중얼거리였다.

《강부인한테 이런 끌끌한 아들이 있었구만.》

이때 세명의 보위단원이 촌장네 집 마당으로 들어섰다. 한명은 허리에 모젤권총을 차고 두명은 장총을 메고있었다. 그들은 마을을 순찰하다가 먼발치에서 학생복차림의 낯선 젊은이가 촌장네 집으로 들어가는것을 보고 황급히 달려왔던것이다.

《웬 청년이요?》

모젤권총을 찬 사람이 **김일성**동지께 온곱지 않게 물었다.

《강반석부인의 아들이라오.》

김춘봉이 알려주는 말에 보위단원들의 눈이 둥그래졌다. 그들도 강반석녀사께 이렇게 다 자란 아들이 있다는 말을 처음 듣고있기때문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어제 밤 핵심조직원들과의 담화에서 보위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였다. 마을주민들은 보위단사무실을 《범굴》이라 하고 김춘봉을 《염라졸》이라 부른다는것이였다. 마을사람들속에서 통하는 이 두개의 변말은 주민들이 보위단과 촌장을 얼마나 무서워하고 미워하는가를 말해주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직원들에게 보위단을 무서워하고 경계할것이 아니라 리용해야 된다고 하시였다. 어느 지방의 보위단이든 몇몇 상층인물을 제외하고는 거의다 빈한한 로동자, 농민의 자식들로 구성되여있었다.

《강씨부인의 아들이란 말이요? 모를 소리요. 난 그런 아들이 있다는 소릴 못 들었는데…》

모젤권총을 찬 보위단원이 못미더워하며 마뜩잖은 눈길로 **김일성**동지의 아래우를 훑어보았다. 그는 흥륭촌보위단 순찰대대장이였다.

《순찰대장은 뭘 그리 의심하오. 눈이랑 볼우물이랑 강부인과 신

통하지 않소.》

김춘봉이 통행증을 그이께 드리고 안주머니에서 양귀비의 초상이 그려있는 담배갑을 꺼내며 《자, 한대씩 태워보시오. 이건 보통 담배가 아니요. 이 담밸 피우면 양귀비와 입맞추는것과 갈소, 흐흐흐.》하고 메밀눈을 쪼프리고 음탕한 웃음을 터치였다. 순찰대장은 촌장이 내미는 담배곽에서 가치담배 한대를 꺼내여 입에 물었다.

《임자네들도 한대씩 피워보라구.》

김춘봉은 장총을 멘 보위단원들에게 담배를 한대씩 주고 **김일성**동지께도 권하였다.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양귀비상표담배갑을 처음 보는데 구경이나 합시다.》

그이께서는 담배곽을 들고 이쪽저쪽 번져보면서 양귀비의 고사를 이야기하시였다. 중국사람치고 양귀비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유명한 력사적인물인 그 녀자의 궁중비화를 구체적으로 알고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못하였다. 중국력사에 박식한 그이께서는 당나라 현종시기의 력사를 재미있게 개괄하고 현종과 양귀비사이의 애정관계를 서술한 《장한가》, 《장생전》과 같은 력사작품소개도 하면서 고담을 들려주시였다. 네사람은 **김일성**동지의 재미나는 고담에 끌려 시간이 가는줄도 몰랐다. 그이께서는 양귀비가 자기 시아버지 현종과의 련담을 벌리는 가장 재미있는 대목에서 뚝 끊어버리고 시간이 없어 이제는 가야겠다고 하시였다.

순찰대대장은 그이의 손을 붙잡고 옛말을 하다가 도중에 가버리는 법이 어디 있는가 하며 마저 끝내고 가라고 졸라댔다.

《이야길 다 끝내자면 아직 한시간도 더 걸려야겠는데 바쁜 세월에 언제 옛말만 하고있겠소. 저녁에 보구 시간이 있으면 마저 합시다.》

《선생, 꼭 오십시오. 내가 한상 차려놓고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여기 흥륭촌보위단 순찰대를 책임지고있습니다. 오갈량이라고 합니다. 사무실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순찰대대장은 언덕받이에 서있는 자기 사무실을 가리키고는 이 산골에서 책 한권 보지 못하고 살아가자니 답답하기 그지없다고 하면

서 선생과 같이 중국력사에 박식한 고담군은 매일 저녁 술상을 차려놓고 청하겠다고 하였다. 보위단원들은 거의다 문맹자이지만 순찰대대장은 소학교정도의 공부는 한것 같았다. 그는 고담을 듣는 과정에 그이의 해박한 지식에 감동을 했는지 선생이라고 개여올리면서 말투도 달리하였다.

《고담은 우리 동생도 잘하오. 삼국연의, 수호전, 무측천. 모르는 고사가 없소.》

김일성동지께서는 동생 김철주야말로 슬픈 대목에서는 울리고 기쁜 대목에서는 웃기는 진짜입담군이라고 하시였다. 김철주는 목소리만 하여도 푸는 목, 감는 목, 짜이는 목, 조이는 목 등 18가지 변성목소리를 낸다고 하시였다. 실지 연기술과 화술이 비상한 김철주는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는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있었다.

《아, 그런가요. 우린 그런줄 몰랐지요.》

《당신네들이 너무 무섭게 노니 우리 동생은 보위단근처에도 가기 싫어하는것 같소. 듣자니 모두들 보위단사무실을 범굴만큼이나 무서워한다고 하오. 나라잃고 이국땅에 피난을 온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못살게 구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색을 짓고 진지하게 말씀하시였다.

《아, 그건 여기 촌장도 있지만 공산당놈들때문이지요. 그놈들이 안도에서도 폭동을 일으키자고 하니 우리 도단장님이랑 부도단장님이랑 주민들 검속을 단단히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선생처럼 중국고담을 하는 사람들한테야 왜 무섭게 굴겠습니까. 저녁에 우리 사무실에 꼭 오십시오. 동생도 고담을 잘한다니 데리고 오십시오. 저녁을 푸짐히 차려놓겠습니다.》

순찰대대장은 고담이라면 자기는 오금을 못쓰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예상외로 일이 잘되였다고 생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약속대로 저녁녘에 김철주를 데리고 순찰대사무실로 찾아가시였다.

순찰대대장은 음식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가 정성껏 차려놓은 우동을 들면서 아침에 하

던 고담을 흥미있게 련속하여 순찰대대장을 황홀한 신비의 세계에 빠지게 하시였다. 김철주는 서유기의 한 장면을 방불히 연기하여 그를 경탄케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고담을 한 뒤끝에 반일교양을 하시였다. 지금 내외의 정세를 보면 일제의 만주침략은 시간문제라는것, 일제가 만주를 집어삼키면 재만중국인민들은 노예의 신세가 된다는것을 력설하면서 조중인민은 굳게 단결하여 공동의 원쑤 일제와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선생의 말씀이 옳습니다.》

순찰대대장은 열렬히 긍정하였다.

그이께서는 밤이 이슥했을 때 순찰대대장의 방을 나서면서 《우리는 벗이 되였소. 앞으로 고담을 듣고싶으면 우리 동생을 부르시오. 당신의 이름이 오갈량이라고 하니 다음엔 제갈량의 고담을 합시다, 허허허.》하고 통쾌하게 웃으면서 오갈량의 어깨를 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한주일남짓이 흥륭촌에 머물면서 혁명조직을 지도하고 연길쪽으로 떠나시였다. 흥륭촌에 있는 기간 리영배, 김철희를 비롯한 안도지구 핵심조직원들을 찾아다니며 살림형편과 사업정형들을 일일이 료해하느라 댁에서 쉰 날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으시였다.

흥륭촌을 떠나는 날 **김일성**동지께서는 강반석녀사께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어머니, 6월초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 와서는 좀 오래 있을것 같습니다. 안도에도 당세포들이 많이 생겼기때문에 6월에 와서 소사하에 구당위원회도 내오고 본격적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위한 준비사업도 하자고 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장투쟁준비를 위해 두만강류역인 연길현 룡정쪽으로 나간다고 하시였다. 거기서 일을 보고는 화룡, 왕청지구를 거쳐 륙읍일대 혁명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한 다음 다시 두만강을 건너 연길현 명월구에서 당 및 공청간부회의를 한틀 하고 안도로 돌아오겠다고 하시였다.

녀사께서는 맏아드님께서 걸어갈 그 멀고도 험한 길을 상상해보며

무장투쟁을 준비하시는 아드님의 사업을 힘껏 받들어나갈 결심을 굳히시였다.

8

녀사께서는 산나물을 뜯으러 뒤산에 오르시였다.

흥룡촌의 산들이 이제는 록음이 우거져 새들과 뭇짐승들의 활무대로 되였다. 산속 풀밭에는 여러가지 꽃들이 만첩으로 피여나고 도라지, 닥지싹 같은 갖가지 산나물들이 돋아있었다.

녀사께서는 눈에 띄는대로 산나물을 뜯어서 다래끼에 넣으시였다. 요즘은 매일과 같이 한낮때이면 산에 올라 나물을 뜯으시였다. 아드님을 위해서였다.

그런데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6월 초순이 지났으나 아드님은 오시지 않았다. 혹시 무슨 변고가 생기지 않았는가 하는 걱정으로 한시도 마음을 놓으실수가 없었다. 두만강을 건너 함경북도에까지 가서 당세포를 비롯한 여러 혁명조직들을 지도하고 돌아온다고 하였으니 아드님이 다니시는 길은 언제나 위험이 따라다니는 길이였다.

잠간사이에 녀사의 바구니엔 산나물이 가득찼다.

녀사께서는 혹시나 맏아드님이 보이지 않을가싶어 허리를 펴고 이마의 땀을 손등으로 씻으며 산밑을 내려다보시였다.

(오늘도 올것 같지 않구나.)

녀사께서는 바구니를 끼고 산을 내리시였다. 얼마후 내가에 가서 손을 씻고 일어서시는데 허술한 바지저고리에 바랑을 진 낯선 사람이 녀사께 다가오고있었다. 살결이 흰 그 사람의 입주변과 귀밑 턱언저리는 구두솔같은 수염이 한벌 덮여있었다. 수염때문에 얼핏 보면 쉰대여섯되는 중늙은이 같았지만 그리 늙은 사람갈지도 않았다. 그 사람옆에도 역시 바랑을 진 두명의 젊은이가 호위하듯이 붙어있었다.

《안녕하십니까, 강반석녀사이시지요?》

수염쟁이가 녀사께 깍듯이 인사를 하였다. 녀사께서는 의아하여 그

를 지켜보시였다.

《뉘신지?》

수염쟁이는 경계하는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고나서 자기 소개를 하였다.

《예, 최동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녀사께서는 저으기 놀라시였다. 무산혁명청년단을 조직하고 적색폭동을 선동하며 다니는 그 최동화란 말인가?

《선생님의 성함을 익히 들었습니다. 참, 언젠가도 저를 만나러 우리 집에 왔다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 그랬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부인님이 아니라 김성주동무를 만나러 왔습니다. 난 여태 김성주가 부인님의 맏아드님이라는걸 모르고있었습니다.》

최동화는 허구픈 웃음을 짓고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우리 아들은 지금 없는데요.》

《점심때에 오면 만날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녁에야 돌아오겠지요?》

최동화는 **김일성**동지께서 흥륭촌댁에 와계시는것으로 알고있는가보았다.

아드님께서 이곳에 안계신다는 녀사의 말을 듣고 최동화는 몹시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지난 5월에 옹성라자에서 회의를 하고 여기로 왔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직 오지 않았단 말인가요?》

《예, 모처럼 오셨는데 우리 집으로 갑시다. 다리쉼이라도 하고 가세요.》

녀사께서는 최동화네 일행을 데리고 댁으로 가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흥륭촌댁에 다녀가신 이후부터 녀사의 댁은 보위단순찰대 대장의 보호를 받아 안전해졌다. 김철주가 밤마다 그에게 고담을 들려주는 과정에 아주 친근해진것이다. 흥륭촌에서 연예공연도 몇번 조직하였는데 공연을 할 때마다 매번 보위단원들도 구경시키였다.

최동화일행을 웃방으로 안내한 녀사께서는 젊은이들의 허리에 찬

점심곽을 떠여보고 점심을 아직 못하지 않았는가고 물으시였다.
《예, 점심은 싸왔으니 랭수나 한사발씩 가져다주시오.》
최동화가 저고리자락을 들치고 점심보자기를 풀었다.
《잠간 기다리세요.》
녀사께서는 부엌으로 내려가 금방 뜯은 참나물을 메우고 풍로에 불을 지펴 나물국을 끓이시였다. 손님들의 점심차비를 하면서도 녀사께서는 최동화가 무슨 일로 아드님을 만나자고 할가 하는 불안스러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시였다.
얼마후 세사람은 두리상에 마주앉아 상긋한 식초와 알싸한 양념으로 맛스럽게 메운 참나물찬과 참기름을 살짝 띄운 뜨끈한 나물된장국을 게걸스럽게 먹어댔다. 그들은 나무밥곽에 무드기 눌러담은 보리밥을 한알도 남김없이 후무려먹었다.
《오뉴월에도 그저 뜨끈한 장국이 제일이야. 나물국, 나물찬이 별맛이여서 이렇게 점심곽을 다 비웠습니다, 허허허…》
최동화는 말끔히 가셔낸 운두높은 밥곽을 보이며 틀스럽게 웃었다.
《어찌다 오신 선생님께 푸대접을 해서 안됐습니다.》
《원 별말씀을… 혁명하는 사람이 고기반찬을 먹으며 호강하겠습니까.》
최동화는 손수건을 입에 대고 긴 트림을 하였다. 그는 보리밥에 된장을 찍어먹는 검소한 식생활에서 고난을 헤쳐나가는 혁명가의 궁지를 느끼는듯 하였다. 그는 안주머니에서 은도금을 한 회중시계를 꺼내면서 입을 열었다.
《김성주는 매우 총명한 청년입니다. 젊은 공산주의자들속에 대단히 신망이 높습니다. 그런데…》
최동화는 어두운 얼굴색을 지으며 김성주동무가 아직 사상이 여물지 못한 청년혁명가들을 우경으로 끌고가고있다고 하였다.
《5.30폭동에 대해 계속 비난해오던 댁의 아드님이 지난 5월 20일경에는 옹성라자에서 큰 회합을 열고 5.30폭동지도자들에 대해 좌경모험주의적망동을 하는 종파사대주의자라고 심히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전에 부인님도 5.30폭동에 대해 나쁜 선전을 해서 한번

만나자고 했지요. 부인님이야 프로레타리아혁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니 그럴수 있지만 아들이야 어찌 5.30폭동과 8.1폭동에 대해 그렇게까지 악선전을 할수 있습니까.》

최동화는 두툼한 입술을 약간 실그러뜨린채 고개를 저었다.

녀사께서는 잠자코 계시였다.

최동화는 다시 회중시계를 들여다보고 움쭉 일어섰다.

《시간이 없어 긴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들이 오면 최동화라는 사람이 만나잔다고 이르시오. 입씨름을 해서라도 바로잡아주자고 합니다. 아들이 오면 고등창에 꼭 련락하시오.》

최동화는 지게문쪽으로 두어걸음 내짚고 미안쩍은 표정으로 녀사를 돌아보았다.

《이거 부인한테 싫은소릴 너무 많이 해서 안됐습니다. 이젠 가겠습니다.》

최동화는 문턱에 걸터앉아 짚신을 꿰신고 마당으로 내려섰다.

《참, 한가지 잊었는데 부인은 흥릉촌순찰대 대장을 비롯해서 세명의 보위단원이 감옥에 들어간걸 알고있는가요?》

녀사께서는 놀라며 눈을 치뜨시였다.

《아직 그걸 모르고있는가요? 어저께 밤에 붙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들이 공산주의자들과 가까이 한다고 하여 체포했다는것 같습니다.》

녀사께서는 가슴이 덜컥하시였다. 순찰대대장과 가까이한 사람이라면 다름아닌 김철주였다. 하다면 놈들이 김철주를 공산주의자로 보고있단 말인가?

《부인, 보시오. 적대계급은 이렇게 가혹하고 무자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들이 적색폭동에 대해 비난한것을 보면 무심히 생각할수가 없습니다.》

언변이 좋고 말하기를 즐겨하는 최동화는 계급협조요, 계급투쟁이요 하는 리론문제들을 장황히 늘어놓고나서 젊은 처서군들의 호위를 받으며 마당을 나섰다.

그들이 어떻게나 민첩하게 행동을 하는지 녀사께서는 미처 작별인사를 하실새도 없었다. 최동화일행은 뒤산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녀사께서는 어쩐지 생각이 착잡하고 마음이 무거우시였다. 최동화의 말대로 아드님께서 죽음을 무릅쓰고 적색폭동을 단행하고있는 《혁명가》들에 대해 지내 과격한 비판을 하지 않았는가싶어 마음이 불안하시였다.

녀사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것은 김철주와 가까이 지낸 순찰대대장이 체포된것이였다. 그가 어제 밤에 체포되였다니 철주는 아직 모를수 있었다. 철주는 어제 아침 소년탐험대 연예공작조를 데리고 류가분방으로 갔었다. 김철주도 청소년사업으로 매일 분주히 다니였다.

공산주의자들과 가까이 지낸다고 하여 순찰대대장을 잡아갔다면 혹시 놈들이 몰래 김철주의 뒤를 캐본것이 아닐가.

번거로운 생각에 잠겨 마당가에 서있던 녀사께서는 와뜰 놀라시였다. 방금전에 뒤산으로 자취를 감추었던 최동화일행이 보위단원들에게 붙잡혀 끌려오고있는것이였다. 장총을 멘 세명의 보위단원들이 최동화일행의 손목을 묶어가지고 저쪽달구지길로 가고있었다. 보위단취조실이 아니라 김춘봉촌장네 집으로 끌려가는것 같았다. 강반석녀사께서는 그쪽으로 종종걸음을 치시였다.

《처서판에서 일하다가 벌이가 맞갖지 않아 삯일을 구하러 다닌다는데 왜 이리 죄인취급을 하시오.》

끌려가던 최동화일행중 한 젊은이가 길가에 버티고서며 반항하듯 크게 소리쳤다. 자기네쪽으로 급히 걸어오는 강반석녀사를 띠여보고 일부러 큰소리를 치는것 같았다. 자기네를 보증해달라는 신호같기도 하였다.

《잔말말고 가자!》

한 보위단원이 총탁으로 젊은이의 잔등을 떠밀며 사납게 소리질렀다. 녀사께서 짐작하신대로 보위단원들은 최동화일행을 촌장네 집으로 끌고들어갔다.

녀사께서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가시였을 때는 촌장이 문턱에 걸터앉아 마당에 서있는 최동화일행을 내려다보고있었다. 낮잠을 자다가 일어난듯 쩝쩝 입을 다시며 선하품을 하였다.

《뭐, 물동뒤산에서 이 사람들을 만났다구?》

김춘봉은 마치 보위단간부나 되는것처럼 허들허들한 볼을 한손으로 쓸어만지면서 보위단원들에게 틀스럽게 물었다.

최동화는 겁에 질려 아래도리를 후들후들 떨고있었다. 혁명가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폭력투쟁을 해야 한다고 비장하게 소리치던 방금전의 당당한 기상은 어디로 갔는지 볼수 없었다. 문턱에 걸터앉아 거드름을 피우던 김춘봉은 마당으로 들어서는 강반석녀사를 띠여보고 벌떡 일어섰다.

《철주 오마이가 어떻게?》

보위단원들과 최동화일행이 거의 동시에 녀사께 시선을 돌리였다.

《집을 나서는데 이 사람들을 붙잡아가기에 웬일인가싶어 왔어요. 우리 집에 와서 삯일을 할게 없는가고 물어서 삯군을 받을 집이 있는것 같지 않다구 말해서 돌려보낸 사람들이예요.》

《이 마을에 드나드는 일체 낯선 사람들은 검속하게 됐수다.》

김춘봉은 언짢게 내뱉고는 보위단원들을 돌아보며 《저 사람들도 삯일을 구하러 다닌다고 말하던가?》하고 물었다. 량쪽의 말이 일치한지 알아보는 모양이였다.

《예, 이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소.》

코등과 코언저리에 다문다문 콩알만 한 마마자국이 있는 보위단원이 어깨에 멘 장총을 추스르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하필 철주네 집엘 찾아갔소?》

김춘봉이 심문하듯이 따지였다.

《그거야 우리 집이 동산에서 제일 가까운 첫 집이니 산에서 내려오는 길로 들려보았겠지요.》

녀사께서는 덧붙여 삯일을 구하러 다니는 처서군들까지 덧대놓고 오라를 지어 끌고다니면 어떻게 하느냐고 좋지 않게 말씀하시였다.

《그건 무한장님의 지시로 하는 일이니 가타부타하지 마시오. 일체 낯선 사민들은 촌장이 책임지고 검속하라는 령이 내려 일이 바쁘지만 이렇게 일일이 다 간참하는거요. 부인도 매사에 조심하는게 좋겠소. 순찰대대장이 잡혀간걸 알고있는가요? 그 사람이 그 집 철주와 밀려다니더니 머리가 달라졌단 말이요. 이제 문초를 해보고 여차하면 그 집 철주도 잡아갈수 있소. 그 집 맏아들이 온 다음부터 보

위단속에 나쁜 기풍이 생겼거던. 글쎄 보위단원들속에서도 세금이 어쩌구저쩌구 감히 도단장님을 비난하는자들이 나타났단 말이요. 도단장님께서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하면서 공산당의 뿌리를 기어이 들춰내겠다고 했소. 전번에 류호의 아들녀석은 근거가 미약해서 내보냈지만 이제 그놈의 줄이 들장나고야말거요.》

김춘봉은 게거품을 물고 강반석녀사를 흘끔흘끔 흘겨보았다. 그리고는 슬금슬금 마당으로 내려오더니 사색이 되여 떨고있는 최동화의 코앞에 시뻘건 손바닥을 내보이였다.

《통행증을 보자!》

최동화는 여전히 사시나무 떨듯 하고있는데 그옆에 서있던 되박이마에 오목눈의 젊은이가 사려물고있던 옥은 이를 벌리였다.

《이보시오. 삯일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한테 무슨 통행증이 있겠소? 정 믿지 못하겠으면 로도구함바에 가서 확인해보시오. 내 이름은 선우봉창이요. 이 친구는 변창호고 이 아바이는 오군오요.》

오목눈에 옥은 이를 한 사람과는 맞서지 말라고 했다는데 과시 선우봉창은 만만치 않은 젊은이였다.

《잡아가두겠으면 나 한사람을 확인될 때까지 인질로 잡아두고 저 두사람은 돌려보내시오.》

김춘봉은 선우봉창이 당당하게 나서자 고개를 기웃거리며 잠시 덤덤히 서있었다. 그러자 변창호라는 청년이 《촌장네 집살림이 괜찮은것 같은데 그동안 날 삯군으로 받아주지 않겠소다? 그리고 저 오군오아바이는 폐병에 걸려 앓는 몸이니 이 집에서 며칠 치료를 받게 해주오다. 내가 삯일을 해서 값은 푼푼히 물어드릴테니.》하고 비위살 좋게 한술 더 떴다. 청년들의 림기응변이 대번에 효력을 냈다.

《폐병쟁일 우리 집에서 치라구? 별꼴 다 보겠다.》

김춘봉은 보위단원들에게 최동화일행을 쫓아버리라고 하였다. 공산당과는 아무런 연줄도 없는 막로동군이 분명하다고 생각한 모양이였다.

최동화일행은 무사해졌다.

김춘봉은 집안으로 들어가고 보위단원들은 다시 순찰을 나갔다.

큰길가에 나선 최동화는 젊은이들을 돌아보며 호기있게 말하였다.

《이것이 혁명이요!》

그는 강반석녀사를 돌아보며 사의를 표하였다.

《부인, 고맙습니다. 서로 토론도 없었는데 신통히 우리 말과 맞아떨어지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동산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강반석녀사께서 댁으로 걸음을 옮기시다가 뒤를 돌아보시니 김춘봉이 마당밖에 나와 이쪽을 유심히 지켜보고있었다.

녀사께서는 가슴이 섬찍하시였다.

누가 속이고 누가 속혔는지 가늠하실수 없었다.

문득 그이께서는 지난해 여름 송강거리에 최동화에 대한 용모파기 그림이 나붙었던 사실이 상기되시였다. 그때 그 그림에는 텁석부리 처서군모습을 한 오늘의 최동화의 모습이 아니라 사자머리를 하고 넥타이를 맨 양복쟁이가 그려져있었다. 화요파계렬에서 종파싸움을 하던 때의 최동화의 사진을 모사한 그림이였는지 모른다. 그 용모파기 그림을 보고는 오늘의 최동화를 알아볼수가 없었다.

(저 촌장놈이 왜 저렇게 나를 지켜보고있는가?)

그놈이 분명 자신과 아드님들에 대해 의심하고있는것 같았다. 악질촌장 김춘봉은 정녕 흥릉촌을 말리우고 괴롭히는 악성종처였다. 그자가 있는 한 마을은 한시도 편안할수가 없었다.

그 이튿날 저녁에 김철주네 연예공작조가 돌아오고 다음날 밤에는 일가분들이 손꼽아기다리던 **김일성**동지께서 흥릉촌에 오시였다.

9

허드레옷에 머리수건을 쓴 강반석녀사께서 낫을 들고 뒤산으로 오르시였다. 4도백하 동쪽에 있는 산이여서 흥릉촌사람들이 동산이라고 하는 이 산은 부녀회원들의 비밀모임장소인 곰바위터가 있는데다 땔나무를 마련하는 사활적인 신탄기지여서 녀사께서 자주 오르내리시는 산이였다. 혼성림이 넓게 펼쳐진 이 산에는 불담이 좋은 키나무들도 많고 여름철에 그시그시 아궁이에 넣기 좋은 싸리나무같은 떨

기나무들도 곳곳에 널려있어 사철 나무군들이 제일 많이 드나들었다.
녀사께서 산자락을 지나 숲속에 들어서니 오솔길옆에 피나무껍질로 묶은 나무단들이 보이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자작나무숲속에서 도끼질을 하시고 두 동생은 형님이 찍어놓은 장대들과 주변에 널려있는 마른 잔가지들을 그러모아 피나무껍질로 단을 묶고있었다.
방금 자작나무장대 한대를 넘어뜨린 **김일성**동지께서는 녀사를 띠여보고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훔쳐내시였다.
《아니, 어머니까지 나무하러 오셨어요?》
《이 산은 내가 늘 오르던 산이다. 저쪽에 부녀회 분회장들의 모임을 하는 바위터가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숙연한 표정으로 녀사께서 가리키는 동북쪽 덤불을 바라보시였다. 녀사께서 하얀 자작나무 잔가지들을 낫으로 치며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너희들이 있는데 내가 나무나 하자구 여기로 올라오겠니. 어제 밤에야 너하구 조용히 이야기할새가 없지 않았니.》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제야 녀사의 마음을 알아차린듯 도끼를 놓고 가까이 다가오시였다. 사실 어제 밤에 흥룡촌에 오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할머님과 동생들에게 붙들려 어머님과는 깊은 이야기를 하실 사이가 없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도 할머님께서 맏손자님을 옆에 끼고 주무시였다. 녀사께서는 하루를 천날같이 손자님을 기다려온 시어머님을 위해 말씀도 잠자리도 다 양보하시였다.
녀사께서 부엌에서 아침을 끓일 때 할머님께서는 손자님을 데리고 사돈집으로 가시였다.
사돈집에서 조반을 든 **김일성**동지께서는 댁에 땔나무가 얼마 없는것을 보았는지 아니면 소년탐험대의 활동정형을 알아보기 위해서인지 동생들을 데리고 곧장 산으로 올라가시였다.
하여 녀사께서는 이 시간이야말로 맏아드님과 품을 놓고 이야기할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로 보고 산으로 올라오신것이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녀사의 손을 잡고 나팔꽃이 수두룩이 피여있는 풀밭으로 가시였다.

《그전에 말씀드린것처럼 이번에는 흥륭촌에 좀 눌러앉아있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학교를 세우고 선생노릇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덟칸짜리 큰 집이 하나 있다니 그 집을 학교로 쓰자고 합니다. 한 두어칸은 청년구락부로 리용하렵니다.》

아드님의 말씀대로 흥륭촌에는 그전에 려관업자가 쓰던 기와집이 있었다. 그 사람은 소기업을 하면서 독립운동자들을 많이 후원해준 애국적인 민족주의자로서 날강도적인 《한일합병》이후 내도산에 진을 치고있는 독립군들을 돕기 위해 흥륭촌에 여덟칸짜리 집을 지어 독립군들의 도중숙박소로 리용하게 했었다. 내도산의 독립군부대가 몰락하면서 숙박소를 물남지역 청년회에서 관리하였다. 그러던것을 보위단에서 그 집을 강제로 가로챘는데 그후 온전히 관리하지 않고 사장해두어서 몇년새에 헌집이 되고말았다. 녀사께서는 그 집을 보수하여 학교 교사로 쓰겠다는 맏아드님의 말씀에 고개를 저으시였다.

《그 집이야 보위단 재산인데 어떻게 학교로 쓰겠니?》

《그게 어디 보위단 재산입니까? 려관업자가 돈을 내서 지은 우리 독립군들이 쓰던 집이 아닙니까.》

그 집의 주인출처를 까밝혀 사리를 따지면 당당히 학교건물로 쓸수 있는것이지만 권세앞에서 사리란 통하지 않는 무용지물이였다. 흥륭촌으로 이사해오는 강반석녀사를 모시기 위해 조직원들이 주인없는 헌집을 보수하여 야학방 겸 살림집으로 쓰던 그 집도 보위단에게 빼앗기지 않았는가.

《그 집은 다치지 못할것 같다. 네가 흥륭촌에 왔다간새에 심상치 않은 일들이 생겼다.》

녀사께서는 이곳에 학교를 세우고 청년구락부를 꾸리겠다는 아드님의 말씀에는 항일운동과 관련된 보다 큰 의도가 있다는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모든 일이 마음처럼 될것 같지 않으시였다.

《네가 간 다음 철주가 보위단 순찰대 대장서껀 여러 보위단원들을 쟁취하였다만 그게 되려 화로 되는것 같다.》

《예, 나도 철주한테서 다 들었습니다. 보위단 순찰대 대장이 감옥에 잡혀갔다지요? 흥륭촌 촌장놈이 그렇게 못되게 군다면서요?》

김일성동지의 얼굴빛이 근엄해지시였다.

《그렇다. 그놈은 흥륭촌의 변학도다. 그놈이 있는 한 흥륭촌사람들은 물론 안도주민들은 하루도 마음놓고 살수 없다. 그전에 류호선생이 안도주민들이 닭고기라면 그놈은 닭고기속에 끼운 근대와 같다고 했는데 그 말이 정말 옳다. 그놈을 그대로 놓아두면 우리 주민들이 모두 질러죽을게다.》

녀사께서는 무한장, 왕방초와 같은 안도의 최고권력자들을 끼고 안도주민들에게 참을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있는 김춘봉의 악행에 대하여 낱낱이 이야기하시였다. 이자가 주민들에게서 받아내는 가렴잡세는 수십가지가 되여 손으로 다 꼽을수 없는데다 그에 조금이라도 불응하거나 자기 비위에 거슬리게 되면 적색폭동가담자라느니, 공산파라느니 하는 죄명을 씌워 보위단이나 경찰서에 잡혀가게 만든다. 특히 이놈은 왕방초서장의 특별보호속에서 어떤 나쁜짓도 제 마음대로 거리낌없이 하고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었다.

이놈의 행패는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있었다.

《이놈을 놓아두어서는 안되겠기에 안도땅에서 내쫓아버리거나 처단해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걸 의논해보려고 네가 오기를 손꼽아기다렸다. 촌장놈은 지금 류호의 아들을 다시 잡아넣을 언터구를 만들고있고 네 어린 동생까지 잡아가둘 생각까지 하고있다.》

《촌장놈을 그대로 놓아두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결단을 내린듯 단호히 말씀하시였다.

《리영배는 이놈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자고 하는데 그건 오히려 소동이나 일으킬 일이다. 난 공개적인 방법으로 이놈을 쫓아버리든 처단해버리든 하자는거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김일성동지께서 기대감을 가지고 물으시였다.

《네가 늘 무슨 일을 하든 군중에 의거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전번에 롱성을 해보아도 그렇고 군중에 의거하는게 정말 만사의 천하

지대본이더라. 그런데 롱성만 해가지고는 안될것 같다. 그건 그저 그때뿐이다. 놈들이 다시 언질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못된짓을 하려고하니 아예 내쫓아버려야 될것 같다. 나는 그래서 군중회합 같은것을 열고 김춘봉놈의 죄행을 폭로하자는거다. 그러면 모두 들고일어날게다. 지금 곪을대로 곪았으니 조금 다치기만 해도 터지고만다.》

《어머니가 정말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제 생각엔 군중회합을 열되 김춘봉은 물론 무한장지주까지도 참가시키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들의 면전에서 폭로해야 합니다. 왕방초놈은 술좌석에서 일본군이 만주땅을 먹어치우면 무한장의 목은 저절로 떨어진다고 하면서 그의 땅을 다 제것으로 만들 밀담까지 했다는데 그런 자료들도 수집해서 론죄장을 묶어야 합니다. 김춘봉놈이 무한장의 이름을 걸고 수십가지의 가렴잡세를 받아낸다고 하는데 보나마나 그 세금돈의 대부분을 다 제 주머니에 집어넣을겝니다. 이런것을 다 폭로하면 무한장이 대경실색할겁니다. 아주 단단히 준비하고 군중회합을 열어야 합니다.》

녀사께서는 아드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시였다. 그러나 그러한 군중회합장에 김춘봉이와 무한장을 어떻게 불러내오는가 하는것이였다. 더우기 무한장을 불러내오는것은 매우 힘든 일이였다. 일반주민들은 무한장을 만날수 없게 격페시켜놓았다. 왕방초놈이 몇몇 한정된 사람외에는 누구도 무한장과 접촉할수 없게 만든것만 보아도 무한장 모르게 무슨 나쁜짓을 하고있는것이 분명하였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김춘봉의 죄행을 폭로하는 군중회합을 한다고 공개하지 말고 아무날 아무시에 재미있는 연예공연이 있으니 모두 와서 구경하라고 알리고 김춘봉을 포함한 모모한 관헌들에게는 연예공연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장을 보내는것이…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좋습니다. 무한장은 안 올수 있는데 그를 회합장에 데려오는것과 김춘봉의 론죄장을 만드는것은 제가 책임질테니 걱정마십시오. 군중을 집합시키는건 어머니가 능히 할수 있을겝니다.》

《그건 조직을 발동시키면 된다. 나는 네 의견에 찬동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중회합조직을 위해 좀더 구체적으로 토론

하고 조그마한 빈틈도 없이 용의주도하게 세밀한 작전을 해야 되겠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암행어사가 출동하여 흥륭촌의 변학도를 초달하면 그놈을 뒤에서 부추긴 왕방초놈도 속이 얼어들어 벌벌 떨며 어쩔바를 몰라할것이라며 웃으시였다. 한편 자기의 이름을 걸어 별의별 못된짓을 다한 왕방초와 김춘봉놈의 죄행을 알게 되면 무한장이 또한 가만있을수 없다고 하시였다.

《군중회합이 큰 효력을 낼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없는 사이에 그밖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드님의 물으심을 듣고 녀사께서는 지난번에 흥륭촌에 왔다간 최동화를 상기하시였다.

《참, 너 최동화라는 사람을 아느냐?》

《최동화요?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 사람이지요. 화요파에서 리론가로 이르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였다.

《그 사람이 찾아왔댔다. 네가 5.30폭동에 대해 나쁜 선전을 하고있다면서 한번 만나서 입씨름을 해야 하겠다고 하더라.》

《그래요? 어머니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웃음을 지으며 물으시였다.

《뭐라고 말할게 있니. 나야 입씨름을 할 대상도 안되니 그 사람이 내 소린 들으려고도 하지 않더라. 내 모르는 소견에도 5.30, 8.1폭동으로 알맹이가 다 없어지니 그게 미친놈의짓이라고 생각된다. 폭력투쟁도 이길걸 타산하구 해야지 알맹이들을 반반히 없애치우는 폭력투쟁을 하면 어찌겠느냐.》

녀사께서는 한숨을 지으시였다.

《최동화가 리론가라고는 하지만 어머니만큼도 사회현상을 옳게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때문에 혁명을 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렇지만 너는 젊고 그 사람은 나이도 있는 어른이니 례의도덕은 지켜야 될것 같다.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해서야 되겠니. 그 어른도 본심이야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싸우자는게 아니겠니.》

《극좌라는건 극우로 가기마련입니다. 시계추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치는겁니다. 그놈의 좌경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몇년동안 품들여 꾸려놓은 조직들이 파괴됐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비통하게 말씀하시였다. 녀사께서도 상실의 아픔때문에 한동안 말씀을 못하고 동북쪽하늘을 바라보시였다.

×

그날 밤 녀사의 댁에 리영배, 김철희, 리옥단 등 흥릉촌의 핵심조직원들이 모이였다. 녀사께서는 맏아드님과 토론한 군중회합에 대한 문제를 그들에게 제기하시였다.

조직원들모두가 대번에 흥분하며 찬동을 표시하여 녀사께서 모임을 인차 결속하시였다.

《그럼 모두가 찬동하니 해보자요. 내 생각엔 래일 하루 준비하고 모레 3시경에 회합을 시작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김춘봉의 죄행을 폭로하는 군중회합이란 말이 새나가면 안되겠어요. 이 비밀을 지켜야 해요. 초청장은 내가 쓸테니 리영배는 우리 철주랑 소년탐험대원들을 동원시켜 안도현의 모든 주민들이 참가하도록 련락을 띄우게. 광고를 내도 좋지. 철희는 춘봉놈의 죄행자료들을 모아서 우리 성주한테 주게.》

그들이 돌아간 다음 녀사께서는 가는 붓으로 초청장을 쓰기 시작하시였다. 군중회합장에서 벌어질 경이로운 광경을 그려보며 그이께선 맨먼저 김춘봉에게 보내는 초청장을 쓰시였다.

10

조희재의 속옷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버렸다. 소름이 끼치는 무시무시한 악몽에 시달리다 깨여난것이다. 옷을 입은채로 안방 침대에 누워 잠간 눈을 붙인 사이에 무서운 악몽을 꾸었는데 현실처럼 느껴지는 아주 생동한 꿈이였다. 물북의 수천명 농군들이 삽, 곡괭이, 쇠스랑, 낫 등속의 농쟁기를 들고 폭동을 일으켜 산과 마을이 시뻘

건 불바다로 되였다. 폭동군중은 조희재의 집에도 달려들어 본채, 사랑채 할것없이 모두 마스고 불을 질렀다.

조희재는 구척장신의 젊은 농군의 우악스러운 손에 목덜미를 잡힌채 앞마당 살구나무밑으로 개처럼 끌리여갔다. 올려다보니 살구나무 우죽에 당장 자기를 삼켜버릴듯 시뻘건 바오리가 호랑이아가리모양으로 둥그렇게 입을 벌리고있었다. 조희재는 기겁을 해서 뒤걸음을 치는데 농군 하나가 쫓개를 꽂은 긴 장대기를 들고 히죽히죽 웃으며 자기 딸에게 다가가고있었다. 그 농군은 장대기쫓개로 딸의 잔등을 명태처럼 찍어서 공중 들어올리더니 바오라기안에 목을 걸어놓는것이였다. 그런데 그 농군을 자세히 보니 뜻밖에도 김춘봉촌장이였다.

조희재는 목을 조인 바오라기에 매달려 발버둥을 치는 딸을 올려다보며 비명을 지르다가 깨여난것이다.

그가 손수건으로 얼굴과 목덜미에 내배인 식은땀을 닦고있는데 안방 쪽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안씨가 들어왔다.

《왜 그리 소리를 질렀소? 고함소리가 정지방에까지 들려왔어요. 에그, 속옷이 흠뻑 젖었군요. 웬일이예요?》

안씨는 제낀양복저고리안으로 들여다보이는 조희재의 속옷을 짚어보고 눈이 둥그래졌다.

《기분나쁜 꿈을 꾸었소.》

조희재는 저고리안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보며 기분없이 중얼거리였다. 낮 12시가 가까와오고있었다.

《점심때가 됐구만. 손님음식은 다 차비됐는가?》

조희재는 침대에서 일어나 퇴창밖을 내다보았다. 왕방초로부터 오늘 점심때 집으로 오겠다는 기별이 와서 손님음식을 차비하도록 일러놓고 잠간 눈을 붙였던 조희재였다.

조희재의 악몽은 우연한것이 아니였다. 자기 딸이 전번 롱성투쟁때 왕방초서장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표어를 들고나섰던 일로 해서 그는 지난 두달동안 내내 불안에 잠겨있었다. 그 사실이 왕서장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기에게 류달리 호의를 표하고 여러모로 보살펴준 왕서장이였다. 그런데 자기 딸이 왕서장을 공격하는 표어를 들고 롱성투쟁에 참가하였으니 실로 배은망덕한 일이였다. 왕서

장은 그것을 모르고있는지 여태 아무 소리 없었는데 문득 이날 점심녘에 그 사람이 집으로 온다는 전갈을 받은것이다.

왕서장이 왜 우리 집에 오겠다고 하는가?

《춘희는 어디 있소?》

조희재는 마뜩잖게 안해를 돌아보았다.

《어디로 갔는지 낸들 알겠어요. 그 애가 요즘 집에 붙어있는 날이 얼마 있다고요.》

《그 애가 말썽이요, 말썽. … 집안에 화근을 몰아오는 미친년이란 말이요. 애당초 강부인이라는 그 녀자를 우리 집에 들여놓지 말아야 하는건데 분명 그 녀자의 꾀임에 들어 그런 미친짓을 했거던. 제 애비가 미워하는 류호의 아들놈을 위해 롱성을 해? 그것도 왕서장을 욕되게 하는 표어를 쳐들고…》

조희재는 혀를 갈기면서 사랑채로 건너갔다. 그러나 조희재가 생각한것처럼 조춘희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그런 표어를 들고나간것이 아니였다. 그는 서명운동때 동네사람들에게 지은 아버지의 죄를 씻기 위해 스스로 롱성에 참가했던것이다.

사랑채에는 이미 술상이 차려져있었다.

십장생이 그려있는 장방형의 옻색식탁에 붕어탕을 끓인 곱돌장사귀를 비롯하여 온갖 음식그릇들이 가득 얹혀있었다. 왕방초를 위해 특별히 성의를 다해 차린 성찬이였다. 청년회 회장과 농민협회 회장이 주관한 술상인데 대여섯명분으로 푼푼히 차리였다.

《붕어탕이 식지 않을가?》

조희재가 음식상을 내려다보며 회장들에게 하는 말이였다.

《일없습니다. 겨울철에도 곱돌장사귀음식은 식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운 때여서 일부러 미리 내놓았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혀끝을 데니까요, 허허허…》

농민협회 회장이 너스레를 떨었다. 청년회 회장은 식탁우에 놓여있는 목이 기다란 중국 백주병을 바라보며 목젖이 꿈틀거리도록 침을 삼키고있었다.

얼마후 마당에서 말투레질소리가 요란스레 울리였다.

조희재는 주먹을 쥐고 급히 밖으로 달려나갔다.

마당에 들어선 유개마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두명뿐이였다. 그것도 왕방초는 보이지 않고 김춘봉촌장과 성근식이 표표한 얼굴들을 하고 걸어나왔다.

《왕서장은 일이 바빠 오시지 못하고 제가 서장님의 말씀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김춘봉이 허들허들한 한쪽볼을 쓸면서 제법 틀스럽게 말하였다. 그는 안도관내 주민들의 세금을 관할하는 특권을 얻은 다음부터 말투와 걸음걸이가 달라졌다. 조희재는 왕방초가 오지 않는다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였다.

《밖에서 이러지 말고 안으로 들어갑시다.》

조희재는 손님들을 사랑채로 데리고 들어갔다. 김춘봉은 요란스레 차린 음식상을 보고 입을 크게 벌리였다.

《이거 왕서장님을 위해 차린 음식을 불청객이 와서 다 먹는게 아니요? 좌우간 언제봐도 조선생님은 통이 크다니까.》

김춘봉은 물론이고 성근식이도 이 사랑채에서 술추렴을 여러번 한 사람들이였다.

《내가 먹을복은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 오래 앉아있지 못하겠습니다. 흥륭촌 보위단 훈련장에서 무슨 연예공연이 있다고 이렇게 초청장까지 보내서…》

김춘봉이 식탁에 마주앉으며 자랑하듯 초청장을 꺼내여 조희재에게 보이였다. 그런 초청장은 이날 아침 조희재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갈 생각일랑은 하지도 않았다. 보나마나 아이들이 하는 연예공연이겠는데 그것을 보겠다고 기신기신 물남땅에 찾아가겠는가.

《아니, 그것때문에 시간이 없다는거요? 변변히 차린건 없습니다만 오늘은 혁띠를 풀어놓고 밤이 가도록 술을 나눕시다.》

조희재가 김춘봉의 앞에 놓인 놋잔에 술병을 기울이였다. 그는 김춘봉이라는 인간의 금새를 서푼도 안되는것으로 보고있지만 무한장과 왕방초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있는 말단행정기관의 권력자여서 속에 없는 웃음을 지으며 아첨하였다.

《꼭 왕림해달라구 특별초청장을 보냈는데 안 가면 되겠소?》

김춘봉은 술을 들이키고 기름에 볶은 소고기 한점을 질근질근 씹었다.

《그런데 저한테 전달하실 말씀은 무엇인가요?》

《별게 아니요. 이제부터 공산당괴멸에 총집중합시다. 우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류호의 아들녀석도 다시 잡아갈수 있습니다. 공산당파라고 의심되는자들은 다 잡아다가 초달을 하라고 했으니까요.》

김춘봉의 얼굴빛이 다시 표표해지며 호기있게 말하자 청년회 회장이 제꺽 응수하였다.

《그렇단 말이웨다. 그놈을 석방시킨것부터가 잘못이지요. 간도에서 폭동자들에게 기관총을 갈기듯이 왜 롱성자들을 쏴갈기지 못했는가 이거요. 칼을 쥐고도 칼을 쓰지 않은게 심히 유감스럽단 말이웨다.》

《여보— 여보!》

성근식이가 붕어탕을 맛스럽게 훌훌 떠마시다가 청년회 회장에게 손을 내저었다.

《정치라는게 그런게 아니요. 세계적으로도 평화적인 롱성자들에겐 총질을 못하게 돼있소. 뭐 당신만 못해서 총질을 안했겠소?》

청년회 회장의 눈찌가 사나와졌다. 같잖은 성근식이가 자기더러 정치요, 뭐요 하며 훈시질을 하는것이 비위에 거슬렸던 모양이였다. 독립군에서 폭력투쟁론을 부르짖다가 투항의 길을 걷고있는 이 두 젊은이가 가까이 마주앉아있는것은 사실 무당과 점쟁이가 같이 앉아있는것처럼 어색하고 우습강스러운 일이였다. 하지만 성근식은 뻔뻔스럽게 청년회 회장에게 훈시질을 계속하였다.

《롱성자들에게 총질을 하면 말썽이 생긴단 말요. 여기 안도관헌들중에는 현장을 비롯해서 왕서장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소. 롱성자들에게 총질을 하면 그들한테 멯다꾼지울수 있소. 그날 롱성만 한게 아니라 그 대표들이 현장과 재판소 소장한테 찾아가 항의했다는것 같소. 아주 째인 롱성투쟁이였소. 중요한건 슬금슬금 뒤조사를 해서 롱성투쟁의 조직자를 잡아내는거요. 다 생각이 있어 롱성자들에게 흰기를 든것이니 떠들지 말고 시키는 일들이나 잘하오.》

《예, 우에서도 다 생각이 있어요.》

김춘봉이가 성근식의 말에 동을 달면서 안주머니에서 종이장을 꺼내여 조희재에게 보이였다. 무심결에 종이를 받아쥔 조희재는 거기에 씌여있는 글을 읽어보고 경악하였다.

《류민환의 석방을 요구하는 롱성의 조직자는 흥룡촌의 강반석이다. 그는 공산당과 련계되여있다. 신고자 조춘희.》

조희재가 읽은 글은 이런것이였다.

김춘봉은 조희재의 귀에 입을 대고 소곤거리였다.

《따님의 지장을 받아가지고 래일 아침 나한테 가져오시오. 아니, 내가 오겠습니다.》

《우리 애가 지장을 찍겠다고 하겠소? 롱성조직자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조희재는 가슴이 널뛰듯 하여 숨소리가 저절로 높아졌다.

《왜 모르겠소. 그날 댁의 따님이 어떤 표어를 들고 롱성에 참가했는지 선생도 잘 아시겠는데.》

《그건 무슨 소리요? 난 모르오.》

조희재는 딱 잡아뗐으나 목소리는 몹시 떨리였다.

《뭘 시치미를 떼시오. 우리가 알고있는데 조선생이 왜 모르겠소. 조선생의 일가가 살아날수 있는 길은 여기에 지장을 찍는겝니다. 강반석이란 녀자가 공산당파와 련계되여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롱성의 조직자라는건 불보듯 뻔하오. 사실 왕서장은 조선생을 각별히 보살펴주었지요. 그런데 선생의 집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따님이 여기에 지장만 찍으면 무사해집니다.》

조희재는 안방에서 꾼 악몽이 재현되는듯 한 공포감에 온몸이 오그라드는듯 했다. 김춘봉은 회중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이때 성근식은 청년회 회장과 농민협회 회장에게 만주의 시국형편을 력설하고있었다. 그는 일본의 만주침략은 시간문제라고 하였다. 지금 안도관헌들중에는 반일파가 8할이상이지만 일본이 만주를 먹으면 그들은 자연히 친일화된다는것이였다.

《친일을 하지 않으면 살수 없다는걸 다 알고있으니까… 물론 무한장과 같은 극심한 반일파는 돌아서지 않을수 있소. 그런 사람

은 제 명을 다 살지 못하오. 쌍병준이와 같은 친일지주가 전망이 있소, 허허허. … 일본군이 안도에 들어오는 날이자 무한장의 목이 떨어지는 날이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시국정세에 밝은 왕서장의 말이요.》

성근식은 평시에 살금살금 눈치만 보면서 필요없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날은 술이 들어가서인지 아니면 벌써 일본의 세상이 다 되였다고 생각해서인지 무한장의 귀에 들어가면 안될 말도 마구 지껄여댔다.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난 가야겠소.》

회중시계를 들여다보던 김춘봉이 긴 트림을 하며 일어섰다.

《촌장님, 같이 갑시다. 나한텐 초청장까진 안 왔지만 다들 흥륭촌에 구경을 간다니 나도 가봐야지요.》

성근식은 곱돌장사귀의 붕어탕물을 말끔히 들어마시고 청년회 회장의 어깨를 짚으며 일어섰다.

조희재는 그들을 따라 마당으로 나갔다.

《조선생, 래일 아침 다시 오겠습니다. 왕서장님도 같이 오실수 있습니다.》

김춘봉이 조희재에게 손을 흔들고 유개마차안으로 들어갔다.

《조선생, 따님더러 손도장을 찍으라고 하시오. 살구봐야지요. … 살구봐야지요. 모든건 다 살기 위한거지요. … 아하, 오늘은 내가 좀 취했군.》

성근식이 유개마차의 문고리를 붙잡고 중얼거리였다.

그들이 마당을 나서기 바쁘게 조희재는 본채 정지방으로 달려갔다. 마침 춘희가 어디로 가려는지 나들이옷을 입고있었다.

《야, 이걸 읽어보구 손도장을 찍어라. 그래야 너도 살구 우리 집안이 무사하다. 너때문에 우리 집안이 칠성판에 올라섰다.》

조희재는 다짜고짜 딸의 손에 운명의 종이장을 내밀었다. 조춘희는 영문을 모른채 종이장을 받아쥐였다. 일순 그 녀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였다. 그러나 인차 얼굴의 피기가 살아오르면서 두눈에서 비수와 같은 증오의 빛발이 흩날리였다.

조춘희는 종이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한참 지나서 나왔다.

조희재는 딸이 내미는 종이장을 받아보고 눈을 흡뜨며 전률을 일으켰다. 김춘봉이 준 그 종이장밑에 《나는 이따위 신고를 한적이 없다. 강반석녀사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는 잉크글이 씌여있고 시뻘건 지장이 찍혀있었다.

《이년, 환장을 했느냐? 이게 누가 보낸건지 알기나 하냐?》

조희재는 미친듯이 소리를 내질렀다.

《환장을 한건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진 무얼 무서워해요. 이것때문에 날 잡아가고 아버질 잡아가면 류민환을 위해 롱성투쟁을 벌린것보다 더 큰 롱성투쟁이 벌어집니다. 내가 잡혀가면 강반석녀사가 가만있지 않아요. 난 그걸 믿어요.

아버지, 지난 일을 생각해보세요. 박치근이, 윤현칠을 누가 어떻게 살려냈어요? 강녀사이지요. 쓰우리의 중국인부부의 애기를 누가 어떻게 살려냈어요? 그것도 강녀사이지요. 우리 동포들을 살리기 위해 단신으로 무한장지주에게 찾아가 담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것도 강녀사이지요.

그래 그런 녀사님을 공산주의자로 밀고하란 말이예요? 왕서장놈이 우리를 해치려들면 강녀사님은 또 희생적으로 나서서 우리를 살려줄거예요. 녀사님께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백수천명의 주민들이 녀사님을 따르기때문이예요. 난 하나도 무서운게 없어요.》

불덩이처럼 새빨갛게 달아오른 조춘희의 얼굴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확확 내뿜기는듯 했다.

《안도관헌들중에도 현장과 재판소 소장을 비롯해서 량심있는 관헌들이 적지 않아요. 그들도 왕서장놈이 이따위짓을 했다는걸 알면 가만있지 않을거예요. 설사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악마같은 그놈의 사환군이 될순 없어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간 오빠가 땅속에서 아버지의…》

조춘희는 오열이 터져나와 말을 잇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조희재는 공포로 하여 미친듯 사자같이 울부짖으며 딸의 뒤를 쫓아나갔다.

11

방금 점심상을 물린 무한장은 마당에서 소풍을 하고있었다. 그가 약담배를 입에 물고 련못가를 빙빙 돌고있는데 가병장이 달려와서 흥륭촌에서 전화가 왔다고 알리였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벽에 붙어있는 전화통에서 수화기를 벗기며 대뜸 송화구에 대고 소리쳤다.

《지택산인가? 무슨 일이야?》

지택산이란 흥륭촌보위단 지단장의 이름이였다. 흥륭촌에서 보위단 도단장인 무한장에게 전화를 걸수 있는 사람은 촌장과 지단장 두사람뿐이였다.

《안녕하십니까. 아시겠는지, 제 김성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한장은 수화기에서 울려나오는 무게있는 굵은 목소리에 눈이 둥그래졌다.

(김성주라니? 강부인의 아들이라는 그 김성주란 말인가?)

무한장도 지난 4월에야 강반석녀사께 김성주라는 맏아드님이 있다는것을 처음 알았었다.

《김성주란 누군데 알지도 못할 사람이 함부로 나한테 전화질이요?》

무한장은 짐짓 모른척 하고 언짢게 뇌까렸다. 그러지 않아도 강부인의 맏아드님이 흥륭촌에 온 다음부터 보위단의 질서가 문란해지고있다는 통보를 받고 신경이 곤두서있던 무한장이였다. 그는 바로 며칠전에 김춘봉촌장으로부터 순찰대대장을 비롯한 일부 보위단원들이 사무실에 사민들을 끌어들여 시시껄렁한 잡담패설을 하던 나머지 도단장을 비난하는 요설을 퍼뜨리고있다는 말을 듣고 노발대발하며 순찰대대장을 당장 감옥에 처넣으라고 호령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보위단의 규률을 문란시키게 만들었다는 김성주청년이 지단장사무실에까지 드나들며 전화질을 하고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였다.

《지단장놈은 어디 있는가? 전화통이 있는 제 방에 사민을 끌어들

이고있으니 그놈도 감옥에 처넣어야겠군.》
《지금 안도현관내의 수백명 주민들이 회합을 하자고 흥릉촌보위단 훈련장에 모였는데 지단장도 그 군중회합장에 가있습니다.》
수화기에서 울리는 목소리는 여전히 굵고 웅글은 침착한 목소리였다.
《군중회합이라는건 또 무슨 소리야?》
무한장은 가슴이 철렁하였다. 한해전부터 적색폭동이요, 뭐요 하며 흉흉한 소문이 떠돌더니 안도의 작인들도 들고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이 떠올랐다.
《군중회합은 제가 조직했습니다. 이 회합에 도단장님은 꼭 참가해야 합니다. 빨리 회합장에 오십시오. 그래 전화를 거는겁니다.》
무한장은 억이 막혀 말이 나가지 않았다. 귀신에 홀리운듯 뭐가 뭔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도단장님, 전화로는 구체적인 사연을 말할수 없습니다. 내려와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이 회합은 바로 도단장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직한겁니다. 꼭 내려와 보아야 합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회합을 조직했다구?)
무한장은 반신반의하며 서있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결단을 내린 무한장은 수화기를 제자리에 걸어놓고 대청으로 뛰쳐나갔다.
《가병장! 가병 전원을 앞마당에 집합시키고 마차를 준비하라!》
무한장은 자기 방으로 돌아와 황금색도단장복을 입고 앞마당으로 나갔다. 토담을 둘러친 넓은 앞마당에는 벌써 60여명의 가병들이 무장을 갖추고 정렬해있었다. 마당 한귀에는 금술을 늘인 화려한 쌍두마차가 무한장을 기다리고있었다.
소매와 량쪽가슴에 반짝거리는 자잘한 수정싸락을 붙인 도단장복을 떨쳐입은 무한장의 몸에서는 위엄이 풍기였다.
《듣거라. 흥릉촌에 무슨 일이 생긴것 같으니 속히 기마대렬을 짓고 떠나자!》
《옛! 도단장님께 멸사봉공!》
가병들은 기운차게 대답하였다.
무한장집에는 군마가 백필이나 있었다.

잠시후 으리으리한 60명 기마행렬이 흥륭촌을 향해 구보로 달리고 그뒤로 무한장의 유개마차가 위엄있게 굴러갔다.
무한장의 유개마차가 가병들의 호위를 받으며 흥륭촌보위단 훈련장에 도착한것은 오후 3시가 조금 지났을 때였다.
마차에서 내린 무한장은 학교운동장같은 넓은 훈련장에 조그마한 틈사리도 없이 빼곡이 앉아있는 수백명의 주민들을 보고 가슴이 서늘해졌다.
얼핏 둘러보니 집합된 군중의 옷차림은 각양각색이였다. 넝마같은 허술한 옷을 걸친 늙은이들이 있는가 하면 방금 밭일을 하다가 온듯싶은 농군허드레옷을 걸친 젊은이들도 있고 아이 업은 녀인들, 얼굴에 쥐광이를 그린 조무래기들, 그야말로 남녀로소가 군집한 대회합장이였다.
흥륭촌, 대홍툰, 쓰우리, 한홍툰은 물론 송강이북마을과 처서판의 처서군들까지 모이였다. 저 많은 사람들이 욱 하고 일어서면 보위단병력을 가지고도 당해내지 못할것 같았다.
군중과 마주한 느티나무그늘이 드리운 곳에 긴 책상과 나무의자 몇개가 놓여있었다.
《도단장님, 오셨나이까?》
명주바지저고리를 빼입은 김춘봉촌장이 신사용 둥근 밀짚모자를 손에 들고 갑삭거리며 무한장에게로 달려왔다.
《음, 임자도 왔구만. 도대체 무슨 회합인가?》
《저는 재미있는 연예공연을 한다는 초청장을 받고 왔는데 저렇게 립추의 여지도 없이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김춘봉은 그냥 머리를 갑삭거리면서 주석단쪽으로 무한장을 안내하였다. 말탄 가병들이 주석단주위를 에워쌌다.
주석단에 앉아있던 **김일성**동지께서 무한장을 향해 마주 걸어나가시였다.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겠습니다. 제가 김성주입니다.》
무한장의 얼굴에서 강한 파문이 일어나며 눈시울이 푸들거리였다.
(절세의 미남자로구나!)
무한장에게 반사적인 충격을 일으킨것은 눈을 번쩍 띄우는 그이의

준수한 용모였다. 선량한 미소를 지은 그 얼굴에는 대번에 사람을 끌어당기는 신비로운 매혹이 있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젊은이한테 다 녹아나는게 아닌가?)

무한장은 무중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우리 지단장도 왔소?》

무한장은 얼굴을 찌뿌둥하고 서서 김춘봉을 돌아보았다. 김춘봉이 대답을 못하고 머밋거리고있을 때 **김일성**동지께서 주석단중심에 놓인 의자를 가리키시였다.

《도단장님, 여기 앉으십시오. 지단장은 회합장을 지키고있는 보위단원들을 돌아보고있습니다. 이제 곧 옵니다.》

무한장은 그제야 훈련장가녁에 빙 둘러서있는 보위단원들을 보고 낯을 찡그리였다. 자기한테 알리지도 않고 제멋대로 군중회합에 보위단원들을 동원시킨 지단장이 괘씸하게 생각되였다. 그러자 김춘봉이 아첨기어린 웃음을 지으며 《도단장님의 신변을 보위하기 위해 보위단에서 출동했소이다. … 어서 앉으십시오.》하고 주석단중간에 놓인 의자를 가리켰다.

《촌장이란 사람이 제집에서 이런 큰 군중회합이 있는것도 모르고 왔으니 한심하지 않소.》

무한장은 푸르딩딩한 표정으로 김춘봉에게 눈을 흘기였다. 이때 지단장이 달려왔다. 서른한두살 되여보이는 키가 성큼하고 얼굴이 여윈 사람이였다.

《도단장님 오셨습니까.》

《도대체 무슨 회합이야? 너 언제부터 오만방자해졌나? 상급에 알리지도 않고 이런 버럭질을 하는가? 어벌장도 큰 녀석!》

무한장이 지단장을 노려보며 주먹으로 책상을 두드리였다. 그러자 **김일성**동지께서 웃으며 말씀하시였다.

《도단장님, 이 회합은 제가 조직한거라고 이미 말씀올리지 않았습니까. 지단장도 전혀 모릅니다. … 자, 모두 앉으시오. 시작합시다.》

김일성동지께서 주석단앞으로 나오면서 지단장더러 무한장의 바른쪽의자에 앉으라고 하시였다. 김춘봉은 누구도 자리를 권하지 않

았지만 자기도 응당 주석단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쿨렁쿨렁 헛기침을 하며 지단장옆에 책상을 마주하고앉았다.

《여러분! 조용하십시오.》

김일성동지께서 군중을 향해 손을 쳐드시자 소연하던 회합장이 일시에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더운 날씨와 바쁜 일도 무릅쓰고 회합에 참가한 주민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시고 《이제부터 무한장도단장의 이름을 도용하여 안도현관내의 주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그들의 가난한 돈주머니를 털어내여 사리사욕을 채운 안도현 흥륭촌 촌장 김춘봉을 단죄하는 군중회합을 시작하겠습니다.》하고 한번은 조선말로 또 한번은 중국말로 개회를 선언하시였다.

조용해졌던 회합장이 벌집을 쑤셔놓은것처럼 다시금 웅성거리였다. 모두가 놀란 얼굴을 하고 김춘봉을 지켜보았다. 태평스레 앉아있다가 불시에 마른벼락을 얻어맞은 김춘봉은 눈을 까뒤집고 사지를 떨면서 궁싯거리였다. 무한장은 자기 귀를 의심하는듯 둥그래진 눈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둘러보았다.

《먼저 김춘봉의 죄행을 밝힌 론죄장을 김철희, 진춘발씨들이 조선말, 중국말로 엇갈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흰색 조선바지저고리를 입은 김철희와 곤색 중국다부산자를 입은 진춘발이 종이장을 들고 주석단앞으로 걸어나오자 주석단 왼쪽끝에 돌아와 앉으시였다.

《아니, 창문틀을 보면서 입 구자도 모르던 진춘발이가 글을 읽는단 말인가?》

무한장은 눈이 사발만 해져서 진춘발을 바라보았다. 무한장은 2년전 어느 봄날 쓰우리근처에 사냥놀이를 나왔다가 그곳에서 살고있는 문맹자 중국인부부를 알게 되였다.

김철희가 먼저 조선말로 론죄장을 읽었다.

《자고로 역적 간신들은 가슴속에 시퍼런 독칼을 품고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꿀같은 말과 꽃같은 웃음으로 임금의 환심을 사고 신의를 얻기가 십상이였다. 여기 흥륭촌에도 무한장도단장앞에서 늘 꿀같은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도단장이 망할 날을 손꼽아 기다린자가 있으

니 그가 바로 저 김춘봉이다.》

김철희가 눈을 부릅뜬채 지시손가락으로 김춘봉을 가리켰다. 뒤이어 진춘발이 창을 찌르듯이 손가락으로 김춘봉의 가슴을 가리키며 중국말로 론죄장의 서문을 읽었다.

《아니 뭐, 내가 어쨌다구? 아하, 저것들이 사람을 모합해두 류만부득이지…》

김춘봉은 펄펄 뛰며 김철희, 진춘발에게 마주 손가락질을 하였다.

《이놈아, 떠들지 말구 듣기나 해라!》

김철희가 김춘봉에게 소리지르고 론죄장 랑독을 계속하였다.

《촌장이라면 마땅히 주민들의 공리를 위해 힘써야 한다. 그러나 김춘봉은 직무를 악용하여 협잡을 치고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자기 비위에 거슬린 사람들에게 터무니없는 죄명을 씌워 초달을 받게 하는 등 온갖 못된짓을 다 하였는바 이제 그 죄행을 구체적으로 렬거하겠다.

첫째로, 이자의 죄행은 각종 세금조항을 만들어내여 사리사욕을 채웠을뿐아니라 무한장도단장의 이름을 팔아먹은것이다.

이자는 무한장지주의 요구라고 하면서 소작세와 림야세 이외에도 물세, 농토세, 굴뚝세, 농쟁기세, 집터세, 학교터세, 통행세, 야경세, 보행세 등 이름도 모를 수십가지의 세금을 주민들에게서 받아내여 사취하였다. 이자는 세금도 성차지 않아 보위단건물보수후원금, 무기고수리지원금, 도로수리비, 보위단우마차수리비 등 보위단후원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가난한 농민들의 피땀 젖은 주머니에서 숱한 돈을 털어내여 제 주머니에 넣었으며 그에 불응하거나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산분자, 적색폭동가담자라는 감투를 씌워 도단장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잡아가고 죽이게 하였다.》

김철희는 무한장도단장명령에 의해 공산분자라는 《죄명》을 쓰고 참살당한 피해자들의 이름을 렬거하고 계속하였다.

《이자는 시달리는 주민들이 안타까움을 호소할 때마다 〈도단장이 제정한것이니 나도 어쩔수 없다. 이것을 어기면 도단장님이 창비하라! 한다.〉고 을러메군 하여 지금 항간에서는 늙은 할머니들까지도 무한장앞에서는 울고싶어도 울지 못하고 웃고싶어도 웃지 못한다

고 원망하고있다. 바로 이자때문에 무한장도단장은 진시황보다도 더 포악하고 범보다 더 무서운 전대미문의 폭군으로 유명해졌다.》

《저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김춘봉이 더는 참지 못하고 책상을 치며 일어섰다.

《도단장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 모함입니다. … 공산당작간입니다.》

김춘봉은 실성한 놈처럼 길길이 뛰였다.

무한장은 서쪽하늘에서 해가 떠올랐다는 말을 들은것보다 더 놀랐다. 그는 김춘봉의 말대로 론죄장이 김춘봉을 모함하기 위한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김춘봉에 대한 그의 믿음은 그만큼 철석같았다.

《도단장님! 이놈들이 적색폭동을 일으키려는것 같습니다. 빨리 저놈들을 〈창비!〉하십시오. 공산당입니다. …》

무한장은 허리에 찬 목갑총에 슬그머니 손을 가져갔다. 그러다가 생각을 고쳐먹었다. 함부로 총소리를 내는것은 위험한 일이였다. 회합장에 모인 전체 군중이 와 하고 일어서면 어찌하겠는가. 저들에게도 총이 있는지 모른다. 여기 보위단원들이 모두 순찰대대장처럼 주민들의 편으로 돌아섰는지도 모른다. 무한장은 가슴이 서늘하였다. 그때 마침 **김일성**동지께서 미친 놈처럼 고아대는 김춘봉에게 말씀하시였다.

《진정하시오. 론죄장을 읽은 다음 당신에게도 발언권을 줄테니 부인하거나 반박할것이 있으면 그때 다 말하시오.》

《촌장! 어서 앉으라. 다 들어보자!》

무한장이 김춘봉이 앉았던 의자를 가리키였다. 무한장의 눈빛에서 자기에 대한 믿음의 빛을 읽은 김춘봉은 다소 마음을 안정한듯 제자리에 돌아와앉았다.

론죄장랑독은 계속되였다.

《이자의 죄행은 둘째로, 일제의 만주침공을 손꼽아기다리면서 무한장도단장을 비롯한 반일애국자들을 안도땅에서 쫓아내거나 살해할 음모를 꾸며온것이다.

지난 8월 28일 오후 3시경 김춘봉은 조희재의 집 사랑방에서 술추렴을 하면서 이런 수작질을 하였다. 〈오늘은 당신네들을 믿고 중

요한 비밀을 하나 말해주겠소다. 왕서장의 말에 의하면 머지않아 일본군이 만주땅을 먹어치운다는거외다. 그때에 가면 반일지주인 무한장의 모가지가 뚤렁 떨어지고 여기가 왕서장의 세상이 될것이외다. 왜 이 비밀을 말해주는고 하면 당신네들도 왕서장을 믿고 왕서장이 하라는대로 해야 살턱이 나기때문이외다. 무한장이란건 병들고 다 늙어빠진 수사자 한가지외다. 눈뜬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머저리외다. 아무튼 칼자루는 왕서장과 내 손에 쥐여져있으니 우리와 손을 잡읍시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미워하는 류호령감도, 강부인도 다 물어메칠수 있수다.〉 하고 지껄였다. 여러분, 보시오. 김춘봉은 이렇게 무한장도단장과 동상이몽한자이고 양봉음위한자이라…》

《아하, 도단장님, 모함이오다, 모함! 저놈들은 공산당이외다. 여러분, 거짓말이요. 믿지 마시오!》

김춘봉은 공처럼 튕겨나와 불에 덴 소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기광을 부리였다. 무한장은 폐장 깊은 곳에서 뜨거운 피덩이가 거슬러 올라와 목안을 꽉 메워버리는것 같았다. 그는 온몸을 우들우들 떨며 김춘봉을 노려보았다.

《도단장님, 죄다 거짓말이오다. 모함이오다.》

《이놈아! 거짓말이라고?》

주석단 바로 앞에서 한 젊은이가 고함을 지르며 벌떡 일어섰다. 그는 조희재의 하인총각 돌쇠였다.

《네놈들이 지난 8월 28일 우리 주인집 사랑방에서 수작질을 할때 내가 이 귀로 부엌에서 다 들었다.》

돌쇠는 그날 사랑방에 조희재총재와 물북의 청년회 회장, 농민협회 회장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바로 오늘 점심녘에도 네놈들이 우리 주인집 사랑방에서 술추렴을 하지 않았느냐. 성근식이란자가 일본군이 안도에 들어오는 날이자 무한장지주의 목이 떨어지는 날이라고 지껄여대면서 이건 자기 말이 아니라 왕방초서장의 말이라고 하였다. 이놈! 이래도 모함이야!》하고 김춘봉의 가슴을 향해 주먹질을 하였다. 김춘봉은 미친듯이 그냥 《모함이다! 모함이다!》하며 무한장의 발목을 붙잡고 몸부림을 쳤다.

군중들속에서 격분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저놈의 입을 틀어막으라! 끌어내다 모두매를 안기라!》

억대우같은 젊은이 하나가 달려나와 무한장의 발목을 붙잡고있는 김춘봉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끌어냈다. 이때 회합장 한복판에서 흰 바지저고리를 입은 중늙은이가 일어섰다. 서당훈장 류호였다.

《저, 촌장이 론죄장을 인정하지 않으니 내 한마디 해야 하겠습니다.》

류호는 이렇게 허두를 떼고나서 무한장지주의 이름을 걸고 받아낸 세금을 하나하나 꼽았다. 《…이자는 이렇게 집집마다 지주에게 소작세와 림야세를 물고있는데도 발구를 만들면 지주의 산에 있는 나무로 만들었다며 발구세, 굴뚝을 세우면 굴뚝세, 목기를 깎으면 목기세, 지주의 땅에서 물을 먹는다고 하여 우물세, 개울물세, 집터세, 농터세, 마당세, 울타리세 등등 별의별 세금을 다 물게 하고는 세금징수에 불응하거나 불평을 부리면 공산분자라느니, 적색폭동련루자라느니 혐의를 씌워 잡아가고 때리고 죽이고 했는데 내 아들도 바로 저놈과 왕서장의 작간으로 적색폭동참가자라는 혐의를 쓰고 경찰서에 끌려가 죽을번 한걸 강부인을 비롯한 여러 주민들의 도움으로 석방됐습니다.》

류호는 기침이 터져나와 주먹으로 가슴을 두드리고나서 김춘봉에게 소리쳐 물었다.

《당신은 자기 죄행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래 주민들에게서 수십가지 세금을 받아내지 않았단 말인가? 그 수십가지 세금이 다 무한장지주가 요구한거란 말인가? 주민들에게서 받아낸 세금을 고스란히 무한장지주에게 바쳤단 말인가? 세금을 면제해달라고 하소하면 〈도단장님의 요구인데 낸들 어쩌는가, 한가지라도 세금을 물지 않으면 도단장님께서 창비한단 말이요.〉 하고 말하군 했는데 정말 도단장이 그랬단 말이요?

도단장님이 왕림한 이 자리에서 명백히 말해주길 바라는바요.》

뒤이어 최두현이 일어나서 김춘봉에게 담배대로 삿대질을 하며 다그어댔다.

《이놈! 뭐 모함이라고? 강반석부인이 우리 마을로 이사해올 때 마을 젊은이들이 헌집을 수리하여 부인일가의 살림집과 야학방을 꾸렸

는데 네놈은 무한장도단장님의 령이라고 하면서 이사온지 사흘도 되지 않는 강부인일가를 내쫓았지? 그래서 지금 강부인이 우리 집에 와서 곁방살이를 하시고 야학방은 또 다른 집으로 옮겼다. 네놈은 그렇게 하고도 성차지 않아 곁방살이를 하는 강부인한테서 집세를 받아내고있지 않느냐. 이놈아, 그래 정말 무한장지주의 지시로 강부인을 내쫓고 그런 집세를 받아냈느냐?》

최두현이 발을 구르며 소리를 지르자 여기저기서 련달아 사람들이 일어나 사실을 밝히라고 몰아댔다.

주석단밖으로 끌려나왔던 김춘봉이 또다시 벌렁벌렁 기여가서 무한장의 발목을 붙들고 엉엉 울었다.

《도단장님! 제가 강부인을 내쫓고 세금을 받아먹었소이다. 경찰서장이… 그렇게 하라구 해서… 도단장님과 토의가 있은줄 알고 세금항목을 만들고… 받아먹었소이다, 으흐흐… 그러나 조희재 사랑방에서 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외다.》

《더럽다, 이 추한놈아!》

무한장은 자기 발목을 그러안은 김춘봉을 힘껏 걷어찼다. 김춘봉은 무한장의 구두발길에 면상을 얻어맞고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무한장을 향해 두꺼비처럼 다시 기여가는 김춘봉의 코에서 걸직한 피가 흘러내려 입주변을 게발라놓았다.

《아, 내가 어리석었다. 눈깔이 멀었다. 10년을 같이 지내면서도 저놈을 몰랐구나! 미친개를 불러다 저놈의 몸뚱이를 뜯어먹게 하라!… 난 가겠다.》

벌떡 일어선 무한장은 의자를 넘어뜨리며 비칠비칠 뒤걸음을 쳤다. 지단장이 쓰러지려는 그를 부축하였다. 가병들이 주석단쪽으로 우르르 몰려와서 한패는 무한장을 부축하고 또 한패는 김춘봉을 바줄로 나무단을 묶듯이 꽁꽁 묶었다.

《가자, 난 가겠다.》

무한장은 쌍두마차가 서있는 곳으로 허청허청 걸어갔다.

김일성동지께서 움쭉 일어나시였다.

《도단장님, 론죄장을 끝까지 듣고 가셔야지요.》

《김선생!… 나는…》

무한장은 손을 내저었다. 그는 김춘봉의 죄행에 대하여 더 알고싶지 않았다. 그것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오장이 뒤번져지고 염통이 터질것 같았다.

《도단장님은 비록 괴로워도 마지막까지 앉아계셔야 합니다.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왕방초와 김춘봉은 술좌석에서 일제의 만주침략이 머지않았다고 했고 그때에 가면 도단장의 목이 떨어진다고 쾌재를 올리였습니다. 이것이 허황한 말인가? 아닙니다. 실지로 일제의 만주침략은 시간문제입니다.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인 일제는 도단장님께 있어서도 한하늘을 이고 같이 살수 없는 원쑤입니다. 조중인민의 공동의 원쑤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조중인민은 단결하여 공동의 원쑤 일제와 싸워야 합니다.

오늘 회합에 참가한 조중주민들, 보위단원들은 이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쩡쩡 울리는 **김일성**동지의 목소리는 넓은 회합장에 우뢰처럼 메아리쳐나갔다.

장내에서는 《옳소!》하는 격렬한 함성이 터지고 박수갈채가 일어났다. 회의장가녁에 늘어선 보위단원들도 뭐라 소리치며 열렬한 박수갈채로 호응하였다.

회합장 한쪽에 부녀회원들과 함께 앉아계시는 강반석녀사께서도 격정에 북받쳐 박수를 치시였다. 녀사와 함께 박수를 치는 녀인들속에는 흥륭촌의 리옥단, 김복진, 대흥툰의 송진녀, 정업툰의 김순애, 안선옥, 객주집의 백춘화 등 녀사의 손길아래 자라난 각지 반일부녀회원들이 있었다. 다만 조춘희가 보이지 않았다.

(저 김선생은 나이는 어리지만 비범한분이다. 권세와 재력이 등등한 무한장도 꼼짝을 못하고 보위단원들도 김선생의 목소리에 합세하니 이런 꿈같은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류호며 최두현이며 마을 늙은이들모두가 이러루한 생각을 하며 기쁨에 넘쳐 박수를 쳤다.

이날 무한장은 **김일성**동지의 권고에 의해 주석단에 마지막까지 앉아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페회를 선언할 때 물북, 물남의 장벽을 무너뜨

리고 전체 주민들이 애국의 기둥에 뭉칠것을 호소하시였다. 그리고 조중인민의 친선단결에 대해 다시금 강조하고 당면하게 합의를 보아야 할 몇가지 문제를 무한장에게 제기하시였다.

첫째, 안도현보위단을 조중인민의 친목과 반일애국을 제1헌장으로 삼는 민중보위무장단체로 강화발전시킬것.

둘째, 흥륭촌보위단 순찰대 대장과 보위단원들을 석방하고 왕방초와 김춘봉이 만들어낸 일체 가렴잡세를 페지하고 이자들을 조중인민의 이름으로 처벌할것.

셋째, 농작물의 3할을 지주에게 바치는 3.7소작료징수제도를 수립하며 새로 개간한 논은 4년동안, 밭은 2년동안 소작료징수를 면제시킬것.

넷째, 흥륭촌보위단에서 몇년째 사장하고있는 조선기업가의 건물을 흥륭촌주민들의 공동소유로 하여 조선인학교와 청년구락부운영을 인가할것.

무한장은 이 네가지 요구조건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회합장에서 공포하고 **김일성**동지께 사의를 표하였다.

《김선생은 안도주민들앞에서 내 루명을 벗겨준 은인이시오. 평생 잊지 않겠소.》

김일성동지께 절을 올리는 무한장에게 전체 군중이 요란한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우뢰와 같은 박수소리는 군중회합의 여운처럼 오래도록 가라앉지 않고 이 산, 저 산에 메아리쳤다.

12

강반석녀사께서는 새벽일찍 대흥툰으로 가는 길에 려관업자가 지은 여덟칸 기와집에 들리시였다. 나직한 언덕우에 동남향을 하고 한일자 모양으로 길게 서있는 그전날의 독립군숙박소 앞벽에는 벌써 《동창학교》라는 나무간판이 붙어있었다. 간판옆에는 이 집 지게문

크기만 한 광고종이가 붙어있었다. 주먹같은 붓글이 내리글로 씌여 있는 광고판에는 6월 20일부터 면비교육을 하는 5년제 학교(야간)를 개교한다는것과 그날부터 매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청년구락부를 운영한다는 소식이 실리였다. 청년들은 희망에 따라 누구든지 구락부성원이 될수 있으며 구락부에서는 연극, 노래, 유희 등 연예활동과 애국계몽사업을 하고 때에 따라 시국강연도 한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광고판에는 소작세, 림야세를 제외한 스물아홉가지 가렴잡세를 무한장지주와 현공서의 합의에 따라 법적으로 완전히 철페했다는것, 금년 가을부터는 농작물수확의 3할만을 소작세로 바치며 새로 개간한 논밭은 2년내지 4년동안 소작세를 바치지 않는다는것, 김춘봉이 소유하고있던 집과 5천평의 밭을 촌장집 머슴과 녀종, 촌장의 처 세사람이 나누어가진다는것 등 희한한 소식들이 실려있었다.

군중회합에서 흥룡촌사람들은 김춘봉의 처도 감옥에 집어넣든지 집재산을 다 빼앗아 알몸뚱이로 쫓아버리자고 하였으나 녀사께서 반대하시였다. 촌장의 처는 원래 의지할데 없이 가난하게 살아가던 녀자로서 먹고 살기 위해 나쁜 놈인줄 모르고 김춘봉에게 처녀의 몸으로 시집을 온 이후 머슴과 종을 잘 보살펴주었다, 그러니 그를 촌장과 같이 취급해서는 안되였다. 그 녀자는 김춘봉이 술좌석에서 한 말들을 알려주어 그놈의 죄문서를 작성하는데도 도움을 주었다.

녀사께서는 이 사실을 밝히고 김춘봉의 집과 토지를 촌장의 처와 그 집 머슴, 녀종 세사람이 나누어가지게 하며 그 집에 있는 돈과 뒤주에 가득찬 쌀들은 절량농민들에게 나누어주자고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도 녀사의 의사에 동의하시였다. 이튿날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중회합에서 이미 무한장과 합의를 본 농민생활개선을 위한 요구조항들을 법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하여 무한장을 데리고 현장을 찾아가시였다. (왕방초와 성근식은 군중집회가 있은 그날 저녁으로 도망쳐버리고 대흥툰 청년회 회장과 농민협회 회장도 동네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며칠 박혀있지 못하고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다. 보위단에서는 김춘봉을 발가벗겨 굶은 승냥이들이 울어대는 무인지경수림속에 내쫓았다고 한다. 그 이후 김춘봉의 운명에 대해서는 오늘까지도 아는 사람이 없다.)

김일성동지께서 문서장에 현공서의 공인을 받아가지고 가실 때 무한장은 서문강 다리목까지 따라와서 문득 이런 말을 꺼냈다.

《나는 김선생의 요구조건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김선생한테 요구조건을 내놓겠소.》

《무엇을 요구하려는지 말씀하십시오.》

무한장은 옆에 서있는 다섯명의 가병을 멀찌감치 물러서게 하고 입을 열었다.

《나는 어쩐지 김선생이 공산주의자라고 생각됩니다.》

느닷없이 내뱉은 무한장의 말에 **김일성**동지께서는 저으기 긴장하시였다. 왕방초도 말한것처럼 무한장은 극심한 반공반일분자였다. 당시 장개석의 영향으로 장학량은 일본놈보다도 공산주의자들을 더 위험한 존재로 보고있었다.

《내가 공산주의자라면 어찌하겠소? 그래 나를 해치려는건가요?》

김일성동지께서는 먼발치에 서있는 무한장의 가병들을 흘깃 스쳐보고 엄하게 물으시였다.

《내 어찌 그런 생각을 하겠소. 김선생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한 내가 그런 못된짓을 하겠소? 무한장이 그런 악한은 아니요. 나는 피차 안전을 위해서 김선생이 이 흥륭촌에서 떠나가주길 바랄뿐이요. 김선생의 정체가 드러나면 김선생을 도와준 나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제발 떠나가주시오. 려비와 생활비는 내가 충분히 대주겠소.》

김일성동지께서는 애원하는 무한장을 심각히 지켜보며 당신에게는 지금 두길이 놓여있다, 장개석국민당의 매국적인 투항의 길로 가는가, 중화민국을 지키는 애국의 길로 가는가 하는것이다, 당신이 투항의 길, 매국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반일투쟁을 하고있는 우리를 내쫓을 필요가 없다, 나는 당신을 믿고있기때문에 터놓고 말한다, 나는 당신과 다름없는 반일분자이다 라고 말씀하시였다.

무한장은 오래도록 침묵을 지키고 서있었다. 그는 끝내 자기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날 저녁 그는 강반석녀사께 찾아와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하였다.

《나의 어머니는 조선녀자입니다. 부인님만 알고계시길 바랍니다.》

자기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하지 않은 가정혈족의 비밀을 터놓은것은 몇천마디 말을 대신하는 굳은 맹세의 표시였다. 이것이 바로 사흘전에 있은 일이였다.

어제는 맏아드님께서 소사하에서 김정룡, 김일룡 등으로 구당위원회를 조직하시였다. 김정룡은 원래 어랑촌에서 당사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본명이 안성규였다. 앞으로 강반석녀사와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사업해야 했으므로 만경대일가분의 친척으로 가장하여 전주 김씨본을 딴 김정룡이란 이름으로 현공서에 호적등본을 올리였다. 김일룡은 지난날 독립군의 청년지휘관으로도 활동하고 쏘련에 가서 군사학교물도 먹은 무관출신의 청년공산주의자였다.

소사하에 구당위원회를 조직한것은 소사하를 비롯하여 하소사하, 두름봉, 로도구, 동남차, 무주툰, 대사하 등 안도현의 북부지역 여러곳에 당세포들이 꾸려져있기때문만이 아니였다. 여기에는 보다 더 크고 중대한 전략적의도가 있었으니 **김일성**동지께서는 적기관과 멀리 떨어져있는 외진 구역인 소사하지구에 항일무장투쟁의 본거지를 꾸릴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계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무렵, 반군사조직인 소년탐험대도 새로 정비하고 그 대장으로 김철주를 임명하시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바야흐로 도래하는 항일무장투쟁의 사변을 예감하고계시였다.

이 며칠사이에 벌어진 극적인 변화들을 생각하며 광고문을 들여다보고있던 녀사께서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흐느낌소리에 돌아서시였다. 저쪽 굴뚝모퉁이에서 웬 녀자가 쭈그리고앉아 울고있었다.

녀사께서는 그쪽으로 달려가시였다.

《아니, 이게 누군가? 춘희가 어떻게 이 새벽에?…》

그러지 않아 녀사께서는 바로 조춘희를 만나기 위해 대홍툰으로 가시려던 참이였다.

《사모님!》

조춘희는 벌떡 일어나서 녀사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녀사께서는 그 녀자의 들먹이는 등을 어루만지시였다. 조춘희는 그냥 울었다.

《우리 집은 사모님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이 글

을 남기고 집을 떠나가버렸습니다.》

조춘희는 오돌오돌 떨리는 손으로 녀사께 붓글종이를 드리였다.

《춘희야, 거울을 들여다보니 내 얼굴이 리완용의 얼굴과 비슷하구나. 여기서는 애국의 탈이 벗겨진 그 추한 얼굴을 들고다닐수 없기에 나는 탈가하여 멀리로 가련다.

아, 나라잃은 망국민이 구국투쟁에 등을 돌려대고 제 한몸, 한가정의 안녕, 안락을 꾀하여 원쑤들에게 아부순종하면 두벌, 세벌 욕된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걸 이제야 통감하고 회한에 몸부림친다.

바라노니 이제 너만이라도 어머니와 형님을 데리고 내내 변심없이 강부인을 따라 의로운 항일구국의 길을 걸어가거라.

우리 집 재산을 모두 애국운동에 바치자. …》

조희재의 글을 들여다보는 녀사의 마음은 자못 무거우시였다. 자신께서 춘희만이 아니라 조희재에게도 좀더 깊이 관계하여 적극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것이 후회되시였다.

《저는 아버님을 대신하여 사모님께 죄를 빕니다.》

조춘희는 자기 아버지의 붓글종이를 들고 묵묵히 서계시는 강반석녀사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죄를 빌었다.

녀사께서는 그를 일으켜세우시였다.

《춘희, 우리 함께 손을 잡고 나라를 찾는 싸움의 길에 나서자구. 아버지도 제 잘못을 알고 고치면 되는거야. 어디로 갔는지 아버지를 꼭 찾아내자.》

《어머니ㅡ》

조춘희는 별안간 녀사의 가슴에 몸을 던지며 크게 울음을 터치였다.

녀사께서는 조춘희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동남쪽하늘을 바라보시였다.

맑은 아침이였다. 푸른 하늘 저쪽에 하얀 백두산의 메부리가 솟아있었다.

농쟁기를 든 술한 마을사람들이 동창학교로 몰려왔다.

농터로 가는 길에 광고문을 보러 오는것 같았다.

《김선생님덕분에 이제는 우리 농군들이 기를 펴고 살게 됐군.》

《세금단련두 안 받구 소작세는 3할만 내구… 돈 안 내구 아이들 학교공부도 시키구…》

농군들이 이렇게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때 류호가 조춘희와 나란히 서계시는 강반석녀사께 찾아와 머밋머밋하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언제부터 부인님께 물어보고싶은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례가 될것 같아 주저했습니다. 김성주선생의 춘부장님의 존함을 알고싶소이다.》

류호의 갑작스러운 뜻밖의 청에 녀사께서는 일순 당혹해하시였다. 하지만 인차 태연해지시였다. 이제 마음도 뜻도 하나로 통하는 그에게 무엇을 더 숨길 필요가 있겠는가.

녀사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시였다.

《우리 성주 아버지의 이름은 김형직입니다.》

반사적으로 눈섭을 치켜올리는 류호의 얼굴에서 강한 파문이 일어났다.

류호보다도 조춘희가 더 놀라는것 같았다. 그도 아버지를 통해 김형직선생님의 존함을 들어도 많이 들었던것이다.

《저는 이미 짐작했습니다만… 아, 충격이 큽니다.

김형직선생님은 독립운동자들의 단합을 위해 한생을 바치셨지요.

저는 선생님을 존경했으나 뜻은 따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인과관계는 초자연적인 그 어떤 절대자의 조종을 받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의 그 관념은 강부인님에 의해 부정당하고 무너졌습니다. 저는 사회에 많은 해독을 끼친 죄인입니다.

부인님,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류호는 고개를 떨구며 오열할듯 목메인 소리를 하였다.

《선생님, 무얼 이러십니까. 어제보다 중요한건 오늘이고 오늘보다 더 중요한건 래일이지요. 일전에 김광문선생이 안도에서 자취를 감추더니 오늘은 또 조희재선생님이 탈가했습니다. 그분들을 다 찾아내여 손잡고 항일독립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지요.》

《그래야지요, 그래야지요!… 춘희야, 녀사의 말씀대로 네 아

버지를 꼭 찾아오자.》

류호는 이렇게 마음다지였으나 그후 조희재와 김광문의 행처를 종시 알아내지 못하였다고 한다.

조춘희는 아버지의 뜻대로 집에 있던 돈을 몽땅 동창학교에 바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돈으로 청년구락부에서 쓸 악기도 사고 학생들의 공책도 마련하시였다.

개교식날에 강반석녀사께서 학생들에게 공책을 나누어주고 격려사를 하시였다.

《저기 저 산이 백두산이다. 우리 조선의 조종의 산인 저 백두산은 언제나 너희들을 지켜본다. 열심히 공부하고 씩씩하게 자라서 나라의 기둥이 되거라!》

그날부터 **김일성**동지께서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소년탐험대를 지도하시였다.

흥룡촌 동창학교는 야간학교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낮에는 수십리 길을 걸어 각지 혁명조직들을 찾아다니며 항일무장투쟁을 위한 준비사업을 하고 밤에는 학생들을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글만 가르친것이 아니라 새벽이면 학생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군사훈련도 시키고 늙거나 병이 들어 일을 못하는 집들을 찾아가 일손을 도와주게도 하시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자주 학교에 찾아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시였다. 그러다 꿰진 옷을 입었거나 덞은 옷을 입은 어린이들이 있으면 옷을 기워주고 빨아주고 지어는 새옷을 해입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학교옆에 청년구락부를 꾸리고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성황당》 같은 연극도 하고 《단심줄》, 《13도자랑》을 비롯한 여러가지 유희도 조직하시였다.

밤이면 청년구락부가 흥성거리여 몇십리나 떨어진 먼 마을의 청년들까지 흥룡촌으로 모여들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구락부를 운영하면서 합법적인 대중단체인 반일회를 조직하여 모든 청장년들이 다 조직에 망라되여 생활하게 하

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한두달사이에 물북, 물남지역의 관계를 개선하고 그들모두를 반일애국의 기둥에 묶어세우시였다.

유희《단심줄》은 현실로 되여 이때부터 물북, 물남의 장벽은 완전히 허물어졌다. 류호는 혁명호제회 회원이 되고 류민환은 흥룡촌 반일회를 책임지고 청년구락부를 운영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강반석녀사를 비롯하여 김철희, 리영배들이 토대를 닦아놓은 안도지구의 혁명조직들을 한층 더 높은 궤도에 올려세우고 9월 중순에 흥룡촌을 떠나시였다.

제 6 장

1

일제가 만주침략을 개시한 9.18사변에 대한 소식은 전장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여기 안도의 벽촌에도 파다하게 퍼지였다.

무릇 전쟁은 매 인간들의 운명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다준다. 9.18사변은 친일파와 반일파의 어정쩡하던 계선을 명백히 해주고 동북지구의 모든 도시와 마을들에서 애국과 매국의 두 세계를 똑똑히 갈라볼수 있게 하였다.

전쟁에 대한 감정도 사람마다 달랐다. 반일반공분자인 무한장지주네는 초상난 집처럼 침울해졌지만 친일반공분자인 소사하의 쌍병준지주네는 잔치집처럼 흥성거리였다.

요즘은 모든 신문들에 전쟁소식이 실리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뒤산 바위터에서 부녀회 지회장들을 기다리며 신문을 보고계시였다.

수림으로 페쇄된 안도현의 농촌마을은 물론이고 소재지에서조차 이전에는 신문을 제때에 받아보기가 어려웠다. 소규모적으로 전화선을 가설하였지만 통화구역이 제한되고 통신시설이 락후하여 무송, 돈화, 연길 등 린접현들에도 제대로 전화련락을 할수 없었다. 그래서 그곳에 긴급히 전하거나 알아볼 일들이 생기면 현공서산하의 우편소로동자들이 열흘에 한번씩 파발마를 타고다니군 하였다. 그래서 세상소식이 뒤늦게야 전달되던 이 외진 안도마을에 전쟁소식만은 번개같은 속도로 전해졌다.

전쟁이 터지자마자 송강시가에는 지방신문들이 범람하였다. 목마른 놈이 우물을 판다고 전쟁으로 하여 마음이 불안해진 중국관헌들이 매일과 같이 저저마다 말을 타고 뛰여다니며 여기저기서 신문을 얻어왔기때문이다. 그 바람에 요즘은 강반석녀사께서도 여러가지

신문들을 마음대로 보실수 있게 되였다.

처음에는 일본령사관계통의 신문들이 많이 돌아갔다. 일본측의 신문들에 의하면 전쟁도발자는 중국의 장학량군대로 되여있었다. 일본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있던 장학량군대가 심양 북대영 서쪽 류조구에서 일본만철회사소속의 철도를 폭파하고 일본수비대를 공격하여 전쟁이 일어났다는것이다. 장학량군대의 불의적인 폭파행위에 분개한 일본군대가 맹호같이 복수의 반격을 들이댔는데 하루새에 북대영을 점령하고 봉천에 진입하였으며 한편 조선주둔 일본군이 압록강을 넘어와서 관동군과 합세하여 한주일도 되지 않는 사이에 료녕성과 길림성의 넓은 지역을 거의 다 삼켜버렸다는것이였다.

재만일본인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본군대는 란폭한 중국침략군에게 정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고 했다.

물론 녀사께서는 일본놈들의 말을 믿지 않으시였다. 며칠 지나자 류조구사건의 진상을 오도한 일제의 어용신문단체들을 공격하는 신문들이 나돌기 시작하였다. 그 신문들은 만주전쟁의 도발자가 중국이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자들이라는것을 까밝히였다.

세계를 휩쓴 경제공황으로 인한 정치경제적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래전부터 대륙침략을 준비하고있던 일제는 만주침공의 구실을 얻기 위해 제놈들의 소유인 일본만철회사산하의 류조구부근 철길을 스스로 파괴하고 그 책임을 중국측에 넘겨씌워 이른바 자위적조치에 따라 동북지방에 대한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수 없게 된듯이 사건을 날조했다는것이였다. 그것은 마치도 지난 19세기 미국이 아메리카대륙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고 에스빠냐식민지들을 탈취하기 위하여 꾸바의 아바나항에 있던 미국순양함 《메인》호를 저들이 파괴해놓고 그 책임을 에스빠냐에 넘겨씌워 침략전쟁을 감행한것과 류사하다고 하였다.

길림성의 어느 한 지방신문은 조선을 침략한 일제가 만주를 강점하고 계속하여 중국본토와 쏘련원동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쟁준비를 진행해온 사실을 장작림렬차폭사사건과 결부시켜 분석하고 류조구사건의 조직자가 다름아닌 일본놈들이라는것을 론증하였다.

3년전에 있은 장작림렬차폭사사건에 대해서는 강반석녀사께서도 명백한 견해를 가지고계시였다.

중국의 동북지방을 강점하기 위한 실제적인 폭력행위의 제1보를 내디딘것이 장작림폭사사건이였다. 일제는 만주와 몽골을 입안에 집어넣기 위하여 만족을 거머쥐고있는 군벌중의 하나인 장작림을 만주의 통수자로 내세워 써먹으려다가 오히려 거치장스러운 인물로 되여버리자 가차없이 처리해버렸다. 다시말해서 렬차폭사사건을 조작하여 장작림을 죽게 만들고 교활하게도 중국사람들이 암살한것으로 연극을 꾸미였다. 그때에도 만주의 모든 신문들에는 《세상을 경악하게 한 6월의 괴사》, 《장작림횡사의 수수께끼》등 장작림의 렬차폭사사건에 대한 기사들이 실려 민심이 흉흉해졌었다. 장작림의 횡사가 하나의 수수께끼로 되여있을 때 **김일성**동지께서는 렬차폭사사건의 진상을 폭로하는 글을 쓰시여 무송에 보내주시였다. 녀사께서 그 글을 여러번 읽고 익히여 반일부녀회원들에게 구두선전도 하고 《새날》신문을 통한 보도전도 벌리시였다.

맏아드님께서는 그때 벌써 장작림폭사사건은 일제의 만주침략전쟁의 전주곡이라고 하시였다. 당시 동북군벌은 장작림의 폭사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밝혀진 다음에도 이 연극의 각본을 연출한 관동군에 책임추궁을 하기는커녕 고인의 령전에 일본조객을 받아들이는 머저리짓을 하여 중국인민들속에 물의를 일으켰었다. 맏아드님께서는 그것이 단순한 머저리짓이 아니라 나라의 한쪽땅을 왜놈들에게 떼여주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 지배층들의 위협으로 되는 공산당과 로농홍군을 박멸하려는 장개석국민당의 속심이라고 하시였다. 아버지가 죽은 후 동북군의 사령이 된 장학량은 권력유지를 위해 장개석의 투항주의로선을 따라갔다. 염석산과 풍옥상의 장개석반대운동이 벌어졌을 때 그는 장개석과 손을 잡고 륙해공군부 사령이 되여 하북지방의 군사정치적실권을 장악하였으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장개석에게 추종하고 일본장교를 고문으로 들여앉히는 어리석은짓을 하였다.

《신문을 보면 왜놈들이 벌써 료녕성과 길림성을 거의다 삼켜버린것 같은데… 장학량군대가 그리도 맥을 못 추나?》

녀사께서는 번개와 같은 일제의 침공속도에 놀랐고 수십만대군을

가지고도 일제의 침공을 막아내지 못하는 장학량군대의 유약성에 실망하시였다.

장학량이 통솔하는 수십만대군은 총 한방 쏴보지 않고 1만명도 되나마나한 일본군에게 봉천을 내주고 마침내는 서북지방으로 쫓겨갔다. 이것은 자기에게 동북군사령의 높은 자리를 준 장개석으로부터 일본이 불집을 일으키는 경우 교전을 피하고 신중히 행동하라는 지령을 받고 움직인 매국적행위였다. 그가 자기의 지반인 동북땅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시각에 이르러서도 일본군에게 저항을 하지 않고 패주해버린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였다.

이미 오래전부터 **김일성**동지께서는 장학량한테서 기대를 걸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시였다.

지난 6월, 군중회합때에도 **김일성**동지께서는 무한장에게 이것을 암시하면서 일제의 만주침공이 시간문제로 되였으므로 조중인민은 일치 단결하여 공동의 원쑤 일제와 싸워야 한다고 일깨우시였다.

맏아드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일제는 만주침략의 포성을 울리였다.

9.18사변은 재만조선동포들과 만주땅에 의거하여 항일운동을 벌리던 모든 독립운동자들에게 험악한 난국을 조성하였다.

일제는 봉천, 영구, 장춘, 길림, 돈화 등 동북땅의 대도시들을 다 점령하고 파죽지세로 점령구역을 확대해가고있었다. 안도현을 정치, 군사, 행정적으로 관할하던 봉천이 일제의 점령구역으로 되였으니 머지않아 여기 심산벽지에도 침략의 무쇠바퀴가 굴러오게 될것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그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 송강이남구역 핵심조직원들이 여기 곰바위터로 모이게 된것이다.

제일 선참으로 모임장소에 도착한 녀사께서는 반시간 좋이 신문을 보며 기다리시였다. 기다리기에 지친 녀사께서는 덤불을 헤치고 나가 앞을 내다보시였다.

울창한 수림속에서 사람들의 몸체가 언뜻거리였다. 얼마후 그들의 얼굴까지 확연히 가려볼수 있게 되였을 때 녀사께서는 와뜰 놀라며 눈을 비비시였다. 무리지어 올라오는 녀인들속에 조선녀의 얼굴이 보

였기때문이였다. 염색하지 않은 본바탕의 흰 치마저고리를 입은 조선녀는 하얀 천색갈과 살갗이 맑은 고운 얼굴이 조화되여 나래를 편 흰비둘기처럼 아릿다왔다.

녀사께서는 자신도 모르게 달려가시였다.

《사모님!》

녀사를 띠여본 조선녀가 소리치며 마주 달려왔다.

《선녀!》

녀사께서는 두팔을 벌려 조선녀를 꽉 그러안으시였다.

《사모님! 정말 보고싶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상했어요? 병이 더하신가요?》

조선녀는 갈퀴처럼 구부러지고 나무껍질처럼 꺼칠꺼칠해진 녀사의 두손을 모두어쥐고 울먹거리였다. 무송야학방 칠판에 백묵글을 쓰시던 그때만 하여도 녀사의 손이 이처럼 여위고 손거죽이 피나무껍질처럼 되지는 않았었다.

얼굴의 살은 또 얼마나 깎이였는가. 5년전만 하여도 인자한 웃음을 지을 때엔 아름다운 두볼에 보조개가 패여지고 어글어글한 정찬 눈에서 옥돌같은 맑은 빛이 뿌려지던 절세의 미녀이시였었다.

《사모님, 1년새에 왜 이렇게 되셨어요?》

《얼굴이 뭐 어떻게 됐다는거냐. 너는 내 나이 먹는것은 생각지 않는것 같구나. 한해 지나면 마흔살이다.》

《마흔살이 뭐 많아요. 도회지의 유한 부인들은 마흔살이 넘었어도 색시처럼 연지곤지 바르고 다니는데요 뭐. 할머니랑 편안하신가요? 그런데 왜 련옥이가 보이지 않아요?》

조선녀는 주변을 돌아보며 무송의 딱친구를 찾았다. 그는 김형권동지의 소식을 지난해 가을 오가자에서 들었었다.

《련옥인 다른 일이 있는가 보네. 참, 보위단에게 빼앗겼던 집을 다시 찾아서 이젠 우리 식구가 다 한집에서 사네.》

곁방살이를 하던 녀사께서 군중회합이 있은 이튿날로 옛집으로 다시 이사하시여 리보익할머님과 채련옥이도 한집에 모이게 되였다.

《당신이 혼자 어머닐 붙들고있으니 우린 인사도 못 드리겠구만.》

누구인가 하는 소리에 녀사께서 고개를 돌리시였다. 누른색로동복

에 배낭을 진 곽명준이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하고 인사를 올리였다.

《명준이로구만. 반갑네, 반가와! 이렇게 모두 불쑥 나타나니 생시같지 않고 꿈만 같네.》

녀사께서는 검실검실하게 얼굴이 타고 어깨가 쩍 벌어진 곽명준의 등이며 어깨며 팔죽지를 쓰다듬으시였다. 이때 곽명준의 옆에 서있던 안경을 낀 젊은이가 강반석녀사께 정중히 허리를 굽혔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제가 차광수입니다.》

《아니, 누구라구? 차광수!》

녀사께서는 눈을 치뜨며 차광수의 팔목을 두손으로 움켜쥐시였다. 그랬다가 한손을 풀어 차광수의 어깨와 등을 어루만지며 동글납작한 그의 얼굴을 보고 또 보시였다.

《임자가 차광수란 말이지. 무송에 있을 때부터 성주한테서 임자와 김혁의 이야길 들었네. 그때부터 임자를 보게 될 날을 기다려왔네.》

《저야말로 어머님을 뵈올 날을 가슴이 타들도록 기다렸습니다.》

차광수는 동무들에게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무한한 행복감에 휩싸이군 했다고 하였다. 아드님의 동지들이 덟고 꿰진 옷을 입었으면 밤새 빨아 말리워 기워주고 얼고 젖은 신발을 신었으면 아궁이불에 말리워 깨끗이 닦아 보드라운 깔창을 깔아준 어머니, 없는 살림에도 정성껏 음식상을 차려주고 떠날 때는 하다못해 겨떡이라도 빚어서 도중음식으로 꾸려주고 다문 몇푼이라도 로자를 손에 쥐여주며 몸성히 일 잘하라고 뜨겁게 격려해주신 그 어머님을 드디여 차광수도 만나뵈옵게 된것이다.

《성주가 이번에 흥륭촌에 와서도 임자소릴 하면서 이제 곧 오게 된다더니 정말 왔구만. 김혁이도 함께 왔다면 얼마나 좋겠나.》

강반석녀사께서는 차광수를 보니 김혁을 잃은 슬픔이 물밀듯이 가슴에 밀려오시였다. 강반석녀사를 늘 그리워한 김혁이였다. 할빈으로 떠날 때에도 녀사의 이야기를 하며 임무를 수행하고 꼭 만나뵙겠다고 하던 그 젊은이를 영영 보실수 없게 된것이다.

차광수도 잃어버린 사랑하는 동지에 대한 생각에 눈물이 나는지 주

머니에서 파란 천쪼박을 꺼내여 안경유리를 닦았다.

녀사께서 목메인 소리로 말씀하시였다.

《김혁이랑 공영, 최효일, 리제우랑 기둥감들이 다 원쑤놈들에게 희생됐네. 독립의 한을 품고 숨진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일을 잘해야겠다고 우리는 늘 말하고있네. 오늘도 만주사변에 대처하여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 의논을 해보려던 참인데 마침 임자네들이 왔으니 잘됐네.》

《우리가 바로 그 문제때문에 **김일성**동지의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개울가에서 우연히 이 동물(김철희) 만나서 곧장 여기로 옵니다.》

《그럼 이야긴 이따 하구 저기로 가세. 저기가 우리 비밀모임터라네.》

녀사께서 이깔나무숲을 가리키며 앞장서 걸음을 옮기시였다. 뒤따라 조직원들이 껍진껍진한 거미줄이며 나무검부레기들이 달라붙는 덤불을 헤치고 들어갔다. 이윽고 그들은 마치 커다란 검정곰이 웅크리고앉은것 같은 바위앞에 모여앉았다. 곰바위뒤로는 울창한 숲이 펼쳐졌다.

송강이남 여러 마을들의 조직책임자들이 한두명씩 참가하여 모임인원은 20여명 되였다.

리영배로부터 소개를 받은 차광수가 먼저 발언을 하였다.

《영배동무가 소개한것처럼 제 이름은 차광수입니다. 별명은 덜렁광창입니다, 허허허.》

차광수가 먼저 고개를 제끼며 웃음을 터쳐 조직원들모두가 웃었다. 틀이 없고 서글서글한 차광수의 언행은 대번에 조직원들에게 친근감을 불러일으켰다.

《동무들, 저는 만주사변에 대처한 금후행동방향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지시를 전달하기 위하여 여기로 왔습니다.》

조직원들은 숙연한 표정을 지었다.

《다 알고있는바와 같이 일제의 만주침략으로 하여 우리앞에 엄중한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동무들은 우선 만주사변의 성격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자면 누구나 다 **김일성**동지께서

쓰신 이 글을 읽어봐야 합니다.》

차광수는 신문 한장을 들어 쭉 펼쳐보이였다. 그것은 바로 강반석녀사께서 읽으신 신문이였다. 거기에 《만주사변의 진상》이라는 제목으로 된 필자의 이름이 밝혀있지 않은 긴 론평이 실려있었다. 녀사께서는 박력있는 필치로 일제의 만주침략의 본질을 예리하게 분석한 그 글에서 강한 충격을 받으시였다.

그런데 그 글이 바로 아드님께서 쓰신 글이라니 자못 놀라우시였다.

차광수는 오래전부터 중국의 동북지구를 집어삼킬 야심을 품고 야금야금 만주땅을 갉아먹고있던 일제가 이제는 통채로 삼켜버릴 작정으로 9.18사변을 조작했다고 강조하였다.

《처음에는 약 1만명정도의 일본군이 봉천을 들이쳤는데 이제는 수만명의 일본군이 달려들어 동북지방을 거의다 삼켜버렸습니다.

이것은 비단 중국인민들뿐아니라 일제의 탄압을 피해 이주해온 재만조선동포들과 독립운동자들에게 커다란 위험으로 되고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우리의 피신처 망명지가 그대로 왜놈의 통치구역으로 되고말았습니다. 범의 굴이 되였습니다.》

목을 한쪽으로 약간 기울이고 이야기하던 차광수는 별안간 안경알을 번뜩이면서 두손으로 험악한 범의 아가리를 형용하였다. 그 서슬에 어느 녀인인가 《어마나!》하고 비명을 질러 회의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웃음통이 터졌다.

차광수도 비명을 지른 녀인을 돌아보며 통쾌하게 웃었다. 그 녀자는 안선옥이였다. 그전날 마춘욱의 객주집에서 위경련을 일으켜 강반석녀사와 인연을 맺게 된 그 처녀가 지금은 정업툰마을의 핵심부녀회원이 되였다. 그곳 분회장인 김순애가 오지 못할 사정이 생겨 그가 대신 참가하였다.

《범굴속에 들어왔다고 하니 당장 범한테 잡혀먹을것 같아 기겁을 하는데 너무 무서워할건 없습니다. 조선속담에 범의 굴에 들어가야 범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범을 때려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범굴에서 빠져나와 도망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있다. 만주땅에 거처하

고있던 독립군잔여세력들은 이젠 일이 다 글러졌다고 한숨을 지으며 혹은 로씨야 원동으로 혹은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져가고있고 실력배양이요, 자아수양이요 하던 독립운동자들 대부분은 아예 왜놈의 품으로 기여들어갈 생각을 하고있다.

《친일변절자가 많이 나오고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만주사변은 애국과 매국, 용감한자와 비겁한자를 갈라놓는 시금석으로 되고있다고 하시였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만주사변이 우리 혁명에 미치는 불리한 점만 생각하고 주저앉을것이 아니라 유리한 점을 찾아 일어나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과연 유리한 점이 있는가?》

차광수는 주먹을 쳐들며 조직원들을 둘러보더니 현소재지에서 온 동무들이 있는가고 물었다.

《예, 제가 송강에 있습니다.》

오방원이가 대답했다.

《지금 거기 형편이 어떻습니까? 거기 관공서와 공안국경찰서가 제대로 일을 합니까?》

오방원은 장학량군대가 총퇴각했다는 소문이 난 다음부터 관공서 관헌들과 경찰서 순경들이 모두 문을 닫아매고 겁에 질려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고작 한다는것은 말을 타고 린근 현에 찾아가서 신문을 얻어보는것이라고 하였다. 무한장산하 보위단들도 이제는 세상이 다 망한것으로 생각하고 순찰도 안하고 야경도 돌지 않는다고 하였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난날 노상 울기가 올라 반일을 부르짖던 무한장은 아예 기가 질려 머리를 동인채 방안에 박혀있고 역어빠진 쌍병준은 살살 눈치를 보며 일본군의 쇠바퀴가 자기 집 대문앞으로 굴러올 날을 학수고대하고있었다.

왜놈들은 봉천, 길림 등 료녕성, 길림성의 큰 도회지들을 강점하였지만 자동차길도 변변히 나있지 않는 안도의 심산벽지에까지 군대를 끌고 들어오자면 아직도 많은 날자가 걸려야 했다.

차광수가 말하는 유리성이란 바로 이것이였다. 중국동북지구의 군벌들은 서북, 서남지구로 도망쳐버리고 모든 관공서, 경찰서, 보위단들은 마비상태에 있으며 왜놈들은 도회지와 군사요충지들에만 몰켜들어갔으므로 조선혁명가들이 항일무장투쟁을 보다 자유롭게 준비

할수 있는 유리한 공간이 생겨난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하고 차광수는 말하였다. 《동북지구가 무정부상태로 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조직적인 항일무장투쟁을 벌리기 위한 준비사업을 벼락같이 다그쳐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당면하게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차광수는 일제와 싸우자면 손에 무장을 쥐여야 하므로 첫째로 무기를 구입하고 무기 쓰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였다. 그밖에 혁명조직에 의거하여 곳곳에 반군사조직인 적위대, 소년탐험대를 조직하는 문제, 군사훈련기지와 무기보관소를 꾸리는 문제 등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준비사업에 총력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하였다.

차광수는 무장투쟁준비를 위해 곽명준, 조선녀를 비롯한 여러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안도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였다. 곽명준부부는 지금까지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길림, 오가자, 고유수, 카륜 등지에서 혁명활동을 하다가 항일무장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과업을 받고 안도구당위원회가 있는 소사하로 활동지점을 옮기게 되였다.

《동무들, 그렇습니다. 만주사변의 발발로 하여 결국 항일무장투쟁의 새로운 사변이 도래하게 되였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조직원들은 누구를 물론하고 항일대전을 위한 반일교양사업, 무기구입, 군사학습, 군사활동에 총력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김일성**동지께서는 억압기구들이 마비되여있는 때에 동만각지에서 소작료 3.7제를 요구하는 추수투쟁을 벌려 농민대중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킬데 대한 새로운 방도를 제시하시였습니다.》

차광수는 돈화, 연길, 룡정 등 적색폭동의 참패로 피젖은 동만의 대지들에 벌써 추수투쟁조직위원회들이 조직되고 소작쟁의가 벌어져 승리를 거두고있다고 하였다.

그는 여기 안도에서도 때를 놓치지 말고 추수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선동하였다. 보호해주던 폭압기구들이 마비되여있다는것을 알고있는 지주들은 농민대중이 들고일어서면 그전처럼 배심을 부리지 못하고 농민들의 요구에 응할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5.30폭동때처럼 농쟁기를 들고 정미소와 학교건물들까지 마구 들부시며 지주, 자산가 일반에게 폭력을 가하는 놀음을 하지 말아야 한다, 3.7제요

구에 응하지 않는 악질적인 지주들에게만 폭력을 가한다, 그것도 쇠스랑으로 지주의 대갈통을 까는것이 아니라 현지에 나가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수확량의 7할을 농민들이 가지고 3할을 지주에게 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투쟁위원회가 추수투쟁을 잘 조직하면 일거삼득의 효력을 볼수 있다고 하시였습니다. 첫째로, 농민들이 7할의 쌀을 얻어 생활의 곤경을 면하게 되고 둘째로,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주어 혁명적인 앙양을 일으킬수 있고 셋째로, 추수투쟁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핵심들로 항일무장대오를 꾸릴수 있다고 하시였습니다. 어떻소, 여기 안도에서도 해봐야지?》

차광수는 반제청년동맹 책임자들인 리영배와 김철희를 갈마보며 물었다.

리영배가 김춘봉촌장놈을 제거한 군중회합에 대해 간추려 이야기하고나서 《무한장의 소작지에선 3.7제가 실시되고있습니다. 쌍병준지주놈도 역은 놈이라 3.7제를 한다는것 같습니다. 그러니 안도에서는 특별히 추수투쟁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하고 자랑기를 담고 말하였다.

《그러니 안도에선 소문없이 선코를 뗐구만.》

《소문이 없다니요. 김춘봉놈을 때내깔리는 군중회합이 세상을 들었다놓았습니다. 그 바람에 악질서장인 왕방초놈도 도망갔습니다. 이젠 마을이 애국화되구 군중이 각성됐기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자신있습니다. 그저 딱 한가지 걱정되는게 있습니다.》

《한가지 걱정이란게 뭐요?》

차광수가 의아해하였다.

《사모님께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병약해지시는겁니다.》

차광수의 얼굴빛이 대뜸 흐려졌다.

그는 자기가 벗어놓은 등산용배낭을 녀사께 들고와서 아구리를 헤치였다. 배낭안에서 십자형으로 삼노끈을 묶은 커다란 천꾸레미와 우물 정자형으로 묶은 판지꾸레미를 꺼내였다.

《이건 우리 동무들이 어머님께 드리라고 해서 가져온겁니다.》

천꾸레미는 속병에 좋다고 하는 약재들을 싼것이고 판지꾸레미는 건위와 보신제첩약꾸레미였다.

녀사께서는 약꾸레미를 애틋이 만져보시였다.

그들의 지성이 정말 고마우시였다. 그러나 자신의 병때문에 큰 일을 하는 젊은이들이 아까운 시간을 흘린것 같아 마음이 무거우시였다.

《성의는 고맙네만 큰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에 시간을 바쳐서야 되겠나. 내 병이란건 아이낳이를 한 녀자들은 다 가지고있는 병이야. 속병으루 말하면 광수가 더 걱정이야. 성주의 말을 들으면 광수는 위병으로 국수 한그릇도 비우지 못한다는데 한창나이에 그래서야 되겠나. 이게 다 보약과 건위약 같은데 광수가 쓰는게 좋겠네. 나야 원래 의원집 녀자니 약을 쓸만큼 다 썼네. 내 병은 내가 잘 알고있으니 다시는 이런 일에 시간을 빼앗기지 말게.》

녀사께서는 배낭아구리를 여미시였다.

《자꾸 그러시지 말구 이 약은 어머니가 다 쓰셔야 합니다. 그리구 이젠 우리 동무들이 오면 옷을 빨아주신다, 기워주신다, 로자를 보태주신다 마음쓰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의 뒤바라지를 다 해주시겠어요. 피를 한동이씩 차고있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머니가 그런 고생을 하신단 말입니까.》

차광수는 안타까운듯 한숨을 지었다. 그러자 흥륭촌부녀회 지회장 리옥단이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다.

《차선생님, 우리 부녀회에서 사모님의 건강을 잘 돌봐드릴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안도에 혁명가들이 많이 온다는데 그들의 빨래, 바느질, 밥 등속을 우리 부녀회원들이 다 맡아하겠어요. 사모님은 손도 다치지 못하게 하겠어요. 그걸 약속하는 뜻에서 우리 흥륭촌부녀회원들이 노랠 불러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흰 저고리에 깜장치마를 받쳐입은 여섯명의 젊은 녀인들이 덤불속에서 불쑥 뛰쳐나왔다.

조직원들은 깜짝 놀라 눈들이 휘둥그래졌다. 녀사께서도 땅속에서 솟아나듯이 돌발적으로 나타난 녀인들을 보고 놀라시였다.

얼마후 바이올린을 손에 든 김철주와 조춘희가 천천히 덤불을 헤치고 나왔다.

《〈〈토벌〉가〉를 부르라!》

누구인가 요청했다. 바로 며칠전 연예공연에서 김철주와 조춘희의 바이올린 2중주를 받쳐 흥룡촌부녀회원들이 《〈토벌〉가》를 불러 군중을 울리였다.

슬픈 노래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였다. 비애의 눈물은 결코 사람들을 약하게만 하는것이 아니였다. 《〈토벌〉가》의 처절한 선률은 순진한 농군들의 가슴을 눈물로 정화시키고 역경을 디디고 일어서도록 신비로운 열정으로 충만시켰던것이다.

시내가의 물버들처럼 청초한 젊은 녀인들, 여섯명의 부녀회원중창조가 늘어선 앞에서 김철주와 조춘희가 바이올린의 활을 켜기 시작하였다. 연예전문학교중퇴생인 조춘희의 기악연주수준은 대단하였다.

김철주가 구슬픈 《〈토벌〉가》의 선률을 끌자 조춘희는 피타는듯 한 고음으로 뜨거운 화음을 조성하였다.

바이올린의 절절한 반주를 타고 녀인들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어머니 어머니는 왜 우십니까
어머니가 울으시면 울고싶어요
품안에 안기여서 울음을 운다

노래부르는 부녀회원들의 맑은 눈에 구슬같은 눈물이 어리였다.

녀사께서도 조용히 입안으로 불러보시였다.

벌써 10여년세월이 흘러갔다. 명신학교 종소리가 울리는 강동 내동부락에서 밤이면 김형직선생님의 바이올린소리에 맞추어 부르신 《〈토벌〉가》이다.

이 노래를 부르느라면 일제의 총칼에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은 이 나라 녀인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듯싶어 뼈가 저리고 눈물이 나시였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들이여, 슬픔을 번디디고 일어나시라! 원쑤를 갚으시라! 하고 웨치는 어머니들의 격렬한 증오의 목소리를 듣는것 같아 온몸에서 뜨거운 피가 끓어번지시였다.

노래부르는 녀인들의 얼굴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노래속의 어머니와 딸은 저 녀인들자신이였다. 이 나라의 어머니와 딸들이였다.

돈이 없고 무기없는 우리 민족은
총에 맞고 칼에 찔려 죽은자중에
네 아버지 그가운데 한사람이다

(저 녀인들을 불러일으키자!)

새로운 맹세를 다지시는 녀사의 눈앞에 두자루의 권총이 떠올랐다. 때가 되면 맏아드님께 그 총을 주라고 하신 김형직선생님의 마지막 당부의 목소리가 쾅쾅 가슴을 울리였다.

2

강반석녀사께서는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시였다.

야학방으로 쓰던 맨 웃방에는 차광수와 곽명준이 누워있고 가운데 방에는 리보익할머님께서 두 손자분들과 함께 주무시고 맨 아래방에 강반석녀사께서 채련옥, 조선녀들과 나란히 누워계시였다.

날이 밝으면 차광수는 **김일성**동지께서 추수투쟁을 지도하고계시는 간도쪽으로 떠나고 곽명준이와 조선녀는 소사하로 간다.

그 어느날이건 녀사께서 편히 잠드는 밤이 별로 없지만 이밤은 더욱 잠이 오지 않으시였다.

채련옥은 지금 녀사의 옆에 자는듯이 눈을 감고 누워있었다. 그러나 가끔 몸을 뒤채는것으로 보아 자는것 같지 않았다. 먼길을 걸어온 조선녀는 로독에 지쳐 세상모르게 굳잠에 들어있었다. 처녀시절 곡절도 많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강물에 몸을 던지기까지 했던 조선녀가 이제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지내고있었다. 물론 나라를 찾기 위해 부부가 다 어려운 혁명의 길을 걷고있으니 남들처럼 안락한 생활은 할수 없을것이다. 그러나 투쟁의 반려가 되여 원앙새처럼 만주의 광야를 같이 날아다니고있으니 얼마나 보람차고 행복한것이랴.

녀사께서는 그것이 기쁘시였다. 그러나 련옥은 짝을 잃은 원앙새

가 된것이다.
녀사께서 이밤 잠들지 못하는 또 하나의 리유는 김형직선생님의 유물인 두자루의 권총때문이였다. 아까 차광수한테서 항일무장투쟁의 새 사변이 도래했다는 말을 들은 때부터 두자루의 권총이 자꾸만 눈앞에 갈마들어 마음을 진정하실수 없었다. 선생님의 묘소에 묻어두었던 권총이였다.
그처럼 소중히 간수했던 두자루의 권총을 이제 비로소 아드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되였다고 생각하니 격정을 금하실수 없었다.
저 무송의 양지촌에 누워있는 김형직선생님께서도 이날을 기다리고기다리셨을것이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두자루의 권총과 함께 오래도록 생각하신 무기가 또 있었다. 그것은 백두산기슭 내도산에 묻혀있는 독립군들의 무기였다.
강반석녀사께서 내도산지구에 독립군들이 쓰던 총기류가 묻혀있다는 말을 들은것은 6년전이였다.
구한국군부대 잔여성원 수백명이 내도산수림속에서 한갖 짐승잡이로 세월을 허송하고있다는 소문을 들은 김형직선생님께서 그들을 독립성전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해 병든 몸으로 지팽이를 짚고 300여리 집없는 산길을 걸어 내도산에 들어갔다가 돌아와 그런 말씀을 하시였었다.
구한국군인출신의 장정들이 무리를 지어 백두산기슭의 내도산수림속으로 밀려들어가기 시작한것은 1905년 망국적인 《을사5조약》이 날조된 이후부터라고 한다. 총을 메고 백두산기슭으로 찾아가는 군인들의 수효가 점점 많아져 1만여명으로 되였다고 한다. 그때 안도현 소사하에만도 독립군분견대가 80여명 되였으니 독립군무력이 가장 번성한 때라고 할수 있었다. 흥륭촌에 여덟칸짜리 독립군숙박소를 지은것도 바로 이 시기에 있은 일이였다.
내도산독립군부대에는 화승총과 같은 성능이 낮은 구식무기가 대부분이고 신식총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1만여명의 무력이면 간단한것이 아니였다. 그만한 병력에다 일반군중력량을 보충하여 싸움을 잘 조직하기만 하면 능히 왜놈들을 내쫓고 나라를 찾을수도 있

었을것 같으시였다.

그러나 내도산독립군 총사령인 리규는 인민에게 의거하지 않고 상해림시정부 각료들과 같은 이른바 독립운동의 상층인물들과 련계를 가지고 독립군부대를 지휘하다가 망해버리고말았다. 파쟁으로 하여 상해림시정부가 사분오렬되여 유명무실해질 때 내도산독립군부대 상층부속에서도 의견충돌로 와해분렬작용이 일어나 대부대가 뿔뿔이 흩어져 아침안개처럼 형체없이 되고말았다. 혹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혹은 다른 독립군부대에 배속되거나 로령으로 넘어가고 혹은 순수 포수군이 되여 왜놈이 아니라 짐승을 잡으러 다니였다. 홍범도도 한때 리규산하의 독립군부대에서 한개 대대를 지휘한적이 있었다고 한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내도산에 가시였을 때 그곳에는 군대의 체모를 갖추고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들은바 그대로 모두가 다 포수의 형색을 하고 짐승을 잡으러 다니였다.

선생님께서는 세상과 담을 쌓고 짐승을 잡아먹으며 덧없이 허송세월을 하고있는 그들에게 칠성판에 오른 나라의 운명에 대한 시국해설을 하면서 며칠을 두고 교양하여 마침내 명사수 수백명을 독립성전에 나서도록 하시였다. 그때 그들은 내도산을 나오면서 그전에 어느 한 독립군중대가 땅속에 묻어두고 간 신식무기들을 파내려고 하였으나 종시 장소를 알아내지 못하였다.

《내도산에 신식무길 50여정이나 묻어놓았다는데 그걸 종시 못 찾았거던.》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내도산이야기를 할 때마다 파내지 못한 신식무기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터놓군 하시였다. 그것이 1925년 4월에 있은 일이였다. 그로부터 3년후 맏아드님께서 아버님의 피어린 발자취를 따라 내도산으로 가시였다.

그때는 군사문제가 아니라 혁명조직을 내오기 위해 맹수들이 욱실거리는 수백리 무인지경을 걸어 외진 산속마을을 찾아가시였다. **김일성**동지보다 앞서 리제우가 내도산에 들어가서 혁명조직을 내오기 위한 공작을 하였으나 그곳에 있는 완고한 천불교도들때문에 발도 붙여보지 못한채 쫓겨오다싶이 하였다.

리제우는 천불교도들을 타도하지 않고는 마을을 조직화할수 없다고 하였다.

천불이란 일천개의 부처라는 말이다. 천불교에 의하면 전세, 현세, 래세에 각각 천개의 부처가 나타나 인간세상을 다스린다는것이다. 내도산의 천불교인들은 현세의 천불을 공양하는 신자들이였다.

1925년 수백명 군인포수들이 내도산을 떠난 다음 장두범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틀고앉아 천불교선교를 강화하면서 그 마을을 외지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금단의 땅으로 만들었다. 인가와 수백리나 떨어진 산속의 섬(내도산은 산속의 섬이라는 뜻이다.)이다보니 사실 속세와 인연을 끊은 딴세상이라고 말할수 있었다.

내도산사람들은 마을에 천불사를 지어놓고 매주 토요일이면 교주 장두범을 따라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절간앞에 모여서서 북과 목탁을 두드리면서 조선에는 복을 내리고 왜나라에는 천벌을 내려달라는 기도를 드리였다.

신자들의 애국심을 발견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열흘남짓이 내도산에 계시면서 꾸준히 혁명적인 계몽사업을 벌려 천불교 이외의 그 어떤 신앙도 사상도 허용치 않는 금단의 땅에 백산청년동맹을 내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때 아버님께서 자주 외운 신식보총 50여정에 대해 알아보시였으나 당시의 내도산마을사람들속에는 그것을 알고있는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

그이께서는 백산청년동맹 책임자에게 총기류를 묻은 자리를 꼭 알아보라고 이르고 내도산을 떠나오시였다.

그때로부터 3년세월이 또 흘러갔다. 맹수가 욱실거리는 수백리 수림의 광야가 심연처럼 가로놓여있어 그동안 내도산과의 련계는 끊어져있었다. 누구도 그곳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없었고 그곳에서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이제 누구든 또다시 내도산을 찾아가야 할 때가 되였다고 생각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을 하자면 뭐니뭐니해도 총구입이 중대요건으로 나선다는데 내도산에서 신식보총 50자루를 얻어낼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누구를 보낼가?

녀사의 생각속에는 둘째아드님 김철주가 잡히시였다. 공청과 소년탐험대에서 그 일을 맡아해야 될것 같으시였다. 그러나 총을 묻은 위치를 모르는 조건에서 그것은 바다가 모래불에서 바늘찾기만큼 힘든것이다.

그러나 찾아야 했다. 강반석녀사께서 이때처럼 한자루의 총을 나라의 운명과 련결시켜보신적은 없었다.

문득 홰대에서 새벽닭이 울었다. 방안은 아직 어두웠으나 녀사께서는 손으로 머리를 비다듬고 일어나시였다. 조용히 새문을 열고 부엌으로 내려가서 기장쌀을 불구어놓은 이남박을 손더듬하여 찾으시였다. 귀한 손님들에게 기장떡을 맛보이려고 어제 밤에 팥을 삶아놓고 비상으로 쓰려고 조금 남겨두었던 기장쌀을 긁어내시였었다.

문득 부엌바닥 어디선가 귀뚜라미가 울었다. 소슬한 가을바람소리와 귀뚜라미소리는 이국살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처량한 망향의 설음을 자아낸다.

녀사께서 귀뚜라미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데 새문이 방싯 열리더니 채련옥이 등잔불을 들고나왔다.

《아니, 왜 더 자지 않고 일어났나. 들어가 눕게.》

녀사께서 등잔불을 받아 선반우에 올려놓으시였다.

채련옥이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말없이 솥을 가시였다.

새벽닭이 또 울었다. 부엌문창이 부드러운 비파소리마냥 조용히 울고 그 소리에 장단을 맞추듯 등잔불이 률동적으로 흐느적거리였다.

그날 아침 차광수는 녀사께서 싸주신 기장떡을 배낭속에 넣고 연길쪽으로 가고 곽명준이와 조선녀는 구당위원회가 있는 소사하로 갔다. 하소사하에는 이미 그들의 집이 마련되여있었다.

강반석녀사께서는 그들을 배웅하고나서 김철주를 데리고 흥륭촌에서 남쪽으로 20여리 떨어져있는 사방정자에 가시였다.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인가없는 수백리수해가 펼쳐진다. 그 아득한 밀림의 바다를 지나야 내도산이라는 하늘아래 첫 동네에 이르는것이다.

녀사께서는 김철주의 팔에 의지하여 사방정자에 망루처럼 우뚝 솟

아있는 포태산봉우리(당시에는 그 산의 이름이 없었다. 수년후에 일제가 그곳에 포대를 설치하였기때문에 그때부터 사방정자의 산을 포태산이라고 불렀다고 한다.)에 올라 끝간데없이 펼쳐진 태고의 밀림을 바라보시였다.

《철주야, 여기서 한 100여리 가면 내도산이란 마을이 있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창백한 이마에 내돋힌 땀을 손등으로 닦으며 신식보총 50여정이 묻혀있는 내도산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였다.

《이제 네 형님이 군대를 무어가지고 왜놈들과 싸우자고 한다니 무기가 필요하다. 나는 네가 저 수림을 샅샅이 다 뒤져서라도 총을 찾아냈으면 한다. 화승총이 아니라 신식보총이 쉰자루나 묻혀있다니 그게 어디냐.》

김철주는 아래입술을 지그시 깨문채 울창한 밀림의 바다를 생각깊이 내다보았다. 우중충한 밀림속 어디에선가 승냥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꼭 총을 찾아내겠어요.》

김철주는 결연히 대답하였다.

《해봐라. 6년전에 아버지는 좁쌀 반말과 된장 한단지를 경호원에게 지워가지고 내도산에 가셨다.》

아버님의 병이 너무 심해서 자신께서 반대하였지만 아버님께서는 기어이 내도산에 가서 덧없이 짐승잡이만 하고있는 수백명의 포수들을 독립성전에 떨쳐나서게 하였다고 녀사께서 감회깊이 말씀하시였다.

천신만고를 다 이겨내신 아버지와 그리고 지금 그렇게 싸우고있는 형님과 삼촌을 본받아야 한다고, 너도 만경대가문의 아들이라는걸 잊어서는 안된다고 녀사께서는 거듭 철주에게 이르시였다.

《어머니말씀을 명심하겠어요.》

김철주는 다시금 굳은 결심을 다지였다.

《꼭 그래라. 자, 그럼 이젠 내려가자.》

어머니와 아들은 산을 내리였다.

며칠후 김철주를 조장으로 한 소년탐험대원들로 무어진 원정대가 무기구입을 위하여 내도산으로 떠났다. 열다섯살에서 열일곱살까지의 훈련받은 소년들로 구성된 원정대였다.

3

화려한 유개마차 한대가 소사하의 언덕길을 넘어 토벽담장을 둘러친 기다란 단층기와집 솟을대문앞에서 멎었다. 늙은 마부가 유리를 댄 마차문을 열자 곤청색봄가을외투에 쥐빛중절모를 쓴 현대풍의 중년신사가 밤색단장을 짚으며 틀지게 마차에서 내렸다.

대문안에서 립초를 서고있던 가병이 신사에게 굽석 절을 하였다.

《그새 누가 오지 않았나?》

신사가 대문안으로 들어서며 물었다. 그의 뒤로 보위단제복을 입은 두명의 젊은이가 따랐다.

《농민협회 회장들이 왔습니다.》

《뭐, 회장들이?》

신사의 얼굴빛이 달라졌다. 이 신사가 소사하 이북의 안도땅을 차지하고있는 쌍병준지주였다. 얼핏 보면 그는 벽지의 지주가 아니라 큰 도회지의 자산가같은 인상을 주었다. 보통키에 약간 철색을 띠는 그의 얼굴에서 특별히 인상적인것은 없지만 오른쪽볼에 팥알만 하게 돋아있는 새까만 군살이 유표하였다.

《회장들이 어디 있나?》

《병실앞에서 기다립니다.》

불길한 예감이 든 쌍병준은 중문을 지나 자그마한 련못을 마주하고 서있는 별채앞으로 걸어갔다. 본채와 조금 떨어져 지은 그 별채가 가병들이 거처하는 병실이였다.

련못가에 놓인 푸른 도색을 한 참대의자에 세사람이 앉아있었다.

《어떻게들 왔소?》

쌍병준은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지만 애써 웃음을 지어보이였다. 농민협회 회장들은 대체로 소작인들의 생활문제를 들고 찾아오기가 일쑤여서 반가울수가 없었다.

쌍병준은 그들의 표표한 얼굴표정들을 보자 불현듯 며칠전에 읽은 《다사지추(여러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겨나는 때라는 뜻.)의 경

난에 설상가상으로 농민소요 동만각지를 휩쓸어》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가 상기되였다.

만주전쟁바람에 관공서와 공안국들이 업무를 중단하고 갈팡질팡하고있는 때에 연길현, 돈화현, 훈춘현, 화전현 등 동만각지의 농민들이 소작료 3.7제를 요구하여 들고일어났다는것이다.

쌍병준은 바로 그 농민소요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송강에 갔다오는 길이였다. 현장이하 관공서 관헌들이 모두 문을 닫아걸고 출근도 하지 않아 현장네 집을 찾아가 알아보았는데 모든것이 사실이였다.

지난해에 적색폭동때처럼 농민들이 쇠스랑이나 곡괭이를 들고 자산가들의 집을 들부시는 란동은 없었지만 농민들의 3.7제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 지주들에 대해서는 강압적인 방법을 적용한다고 하였다. 지난해에는 동북군 군인들과 공안국의 순경들이 지주들을 착실히 보호해주어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지금은 일제의 만주강점으로 사정이 달라졌다고 한다. 가병을 가지고있는 지주들조차 수백명의 농민군중이 욱욱거려 3.7제에 응하지 않을수 없는 형편이라는것이다.

지난해에 안도에서는 적색폭동이 일어나지 않아 쌍병준은 편안히 지냈다. 설사 폭동이 일어났다고 해도 보위단과 경찰서무력이면 얼마든지 폭동자들을 제압할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안도의 통치기관들이 모두 마비되였기때문에 폭동이 일어나면 큰일이였다.

쌍병준은 무한장네 집에도 찾아가보았는데 얼마나 규률이 해이됐는지 가병들이 마당보초조차 서지 않고 빙빙 돌아갔다. 무한장은 만주땅이 왜놈들한테 다 먹히운판에 마당에 가병을 세워선 뭘하겠느냐며 연방 탄식을 하고있었다. 쌍병준은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는 무한장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형님, 정신차리시오. 관공서와 공안국이 문을 닫아맨 형편에서 보위단을 틀어쥐야 합니다. 우선 부도단장자릴 비워두지 말구 손탁이 센 사람을 데려다 앉혀놓아야 합니다. 정 사람이 없으면 내라도 그 자릴 지켜야 될것 같수다. 이러다간 큰일납니다. 여기가 공산당판이 됩니다.》

쌍병준은 왕방초가 앉아있던 부도단장자리를 타고앉고싶었다. 그렇게만 하면 장차 무한장을 밀어버리고 안도땅을 몽땅 자기 줌안에 집어넣을수 있기때문이였다. 일본군이 만주의 정국을 수습하고 통치하게 될 날이 눈앞에 박두한 조건에서 사실상 반일파인 무한장의 운명은 서산락일이였다.

《임자, 고맙네만 쓸데없는 걱정말구 제 자리나 잘 지키게.》

별안간 무한장이 자리를 차고 뛰쳐일어섰다. 기가 죽었던 그의 눈에서 불이 펄펄 일었다. 뜻하지 않은 그의 고함소리에 쌍병준은 어리벙벙해졌다.

지난날 장작림부대에 있을 때 무한장은 중대장이고 쌍병준은 고작 분대장이였다. 나이로 보아도 무한장은 칠팔년이나 우이지만 그보다도 이전의 관직관념의 타성으로 하여 쌍병준을 아이취급하듯 하였다. 쌍병준이 또한 뒤에서는 무한장을 동급의 지주로, 지어는 자치동갑 친구처럼 희떱게 굴지만 앞에서는 감히 그러지 못하고 《형님.》 또는 《도단장님.》하고 웃사람으로 섬기였다.

《난 이젠 누구도 믿지 않네. 부도단장걱정은 하지 말게. 우리 무태극이가 부도단장겸 참모장이야. 고양이 쥐생각 한단 말이야.》

무한장은 쌍병준을 무섭게 노려보았다.

《부도단장자릴 채워넣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형님, 왜 그리 성을 내십니까?》

《그걸 몰라서 묻나. 왕방초놈과 김춘봉놈이 모여앉으면 나는 반일파여서 명이 짧고 임자는 친일파여서 명이 길다고 수작질을 했다는데 짜장 지금 웃음집이 흔들거리겠구만, 만주가 일본판이 됐으니 말일세.》

《형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쌍병준은 가슴이 섬찍하였지만 펄펄 뛰는 시늉을 하였다.

《그놈들이 형님과 이 동생사이에 리간을 조성시켜 어부지리를 얻자고 별 못된짓을 다했습니다. 그러지 않아 지난 6월 군중회합소식을 듣고 살인죄를 지는 한이 있어도 내 손으로 왕방초놈의 목을 치자고 했는데 달아뺐단 말이웨다.》

쌍병준은 이를 가는 시늉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왕방초가 일본특

무기관과 련계된 인물이라고 어렴풋이 눈치채고있었고 따라서 앞으로 언제이건 그의 덕을 입어볼 속궁리를 하고있었다. 지난 6월 군중회합이후 사라져버린 일본의 밀정 성근식은 지금 바로 쌍병준의 집에 숨어있었다. 비록 지금은 성근식을 숨겨놓고 공짜밥을 먹이고있지만 장차 그를 숨겨준 공로로 몇십배의 리득을 얻게 되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무한장은 왕방초에 대한 《적의감》으로 이를 갈고있는 쌍병준의 표정을 일별하고는 목소리를 한결 가라앉히였다.

《임자가 친일을 한다는 소문을 듣구 기분이 좋지 않았네만 중국을 반대하는 알짜친일파로 됐다군 생각지 않았네. 그러나 장학량이 중국민족의 신의를 저버리고 항일을 포기한걸 보면 누구도 믿을수 없네.》

무한장은 머리를 세차게 내저었다.

《저도 천만뜻밖이웨다. 국민당이 공산당을 치는데 너무 옴하다보니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일본에 못지 않게 위험한건 사실이웨다. 그놈들이 득세하면 우리같은 지주는 죽는판이지요. 거 흥륭촌에 있는 강반석이라는 아주머니와 김선생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을 주의해야 될것 같아요. 공산당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모자가 다 범상치 않은 인물들인데다 모두 골고루 살걸 요구한다는것 같습니다. 형님의 땅도 농군들에게 노나주었으면 한다는것 같아요.》

《그따위 소린 하지도 말게. 그분들은 안도군중들앞에서 왕방초놈과 김춘봉놈의 죄행을 폭로하고 내 루명을 벗겨준 은인들이야. 그분들은 3.7제를 요구할따름이네. 그분들을 해치는자는 누구든 용서치 않겠네. 내앞에서 다신 그따위 소릴 하지 말어! 임자도 빨리 돌아가서 3.7제나 하게!》

(저 머저리가 있는 한 내가 편안치 못하겠군.)

쌍병준은 못내 개탄하면서 무한장의 집을 나섰다. …

《어떻게들 왔소?》

쌍병준은 세명의 회장들을 둘러보며 다시금 캐물었다.

《소작료때문에 왔습니다.》

고등창의 농민협회 회장 김주현이 불쑥 내뱉는 말에 쌍병준은 속이 불뚝하였으나 내색이 없이 태연히 물었다.

《소작료라니?》

《아시다십이 지금 어디에서나 소작료 3.7제가 적용됩니다. 무한장도단장도 작인들에게 7할을 주고 3할을 받습니다. 주인님도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해야지, 허허허.》

쌍병준은 대범하게 웃었다.

일본군이 들어올 때까지 당분간은 작인들에게 아량을 보여주어야 했다.

《그럼 여기에 도장을 찍어주십시오.》

김주현이 글종이를 내보이였다.

금년(1931년) 가을부터 모든 작인들에게 소작료징수를 3.7제로 한다. 즉 수확량의 7할을 작인들이 가진다.

쌍병준

쌍병준은 문서장을 들여다보고 양복주머니에서 도장을 꺼내여 입김을 여러번 불고나서 자기 이름옆에 힘있게 눌러박았다.

농민협회 회장들은 곧 돌아갔다.

쌍병준은 이를 사려물었다.

(누가 소작쟁의를 하도록 부추기는가? 김선생이란 그 젊은이가 아무리 봐도 이상해.)

쌍병준은 생각에 잠겨 별채앞마당을 천천히 거닐었다.

도대체 언제쯤이면 일본군이 안도땅에도 들어올것인가? 쌍병준은 그것때문에 생각을 굴리고 또 굴리였다.

《쌍병준씨!》

쌍병준은 갑자기 자기를 부르는 목소리에 깜짝 놀라며 공중을 올려다보았다. 마치 공중에서 자기를 부르는듯 한 착각을 하였던것이다. 쥐색양복을 입은 낮모를 30대의 사나이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사나이는 겸손하게 인사를 하고 자기 명함장을 보여주었다. 명함장을 들여다보는 순간 쌍병준은 눈을 흡떴다. 그는 자기 눈을 의심하고 다시 들여다보았는데 틀림없이 명함장에는 《안도현 부현장 후꾸모도 센지》라고 찍혀있었다.

쌍병준이 그처럼 놀란것은 새로 임명되여온 부현장이 일본인이였기때문이였다.

쌍병준은 입이 굳어져서 말도 못하고 후꾸모도 센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작을사한 키에 이마가 도드라지고 오목한 눈은 서양사람처럼 새노란 빛을 띠고있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 일본군이 벌써 안도를 점거했구만요, 허허허… 과시 황군은 무적강군입니다. 저는 이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쌍병준은 이렇게 말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데다 천성이 역어빠진 그는 일본인부현장이 새로 임명되여온데는 무슨 쪼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일본군이 벌써 안도를 점거했는가요?》하고 조심스레 한마디 내뱉고 명함장을 돌려주었다.

《아닙니다. 일본군이 안도에까지 오자면 아직 1, 2년은 더 있어야 합니다. 돈화에는 일본군이 와있습니다.》

쌍병준의 눈이 또다시 휘둥그래졌다. 일본군이 없는 안도에 어떻게 일본인부현장이 임명되여온단 말인가?

최근에 만주땅에 친일파들이 많아지고있지만 안도에는 친일파가 몇명 되지 않고 절대다수가 반일파였다. 더더구나 안도의 기본보위무력인 보위단 도단장은 일본이란 말만 들어도 이를 악물고 치를 떠는 반일파가 아닌가. 일본당국이 너무 때이르게 자기네 사람을 보낸것 같았다. 군대를 보내고 그다음에 관리를 보내야지 거꾸로 관리를 먼저 보내고있으니 될법한 일인가.

《안도에 일본관헌들이 몇명이나 왔는가요?》

《저 혼자뿐입니다.》

후꾸모도의 중국말은 아주 류창하였다.

《혼자뿐이라니요?》

후꾸모도를 말없이 지켜보는 쌍병준의 눈빛은 이 사람아, 여기는 모두가 반일파야, 벌써 반일구국군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 500명의 보위단원들을 통솔하고있는 무한장은 반일파중의 반일파야, 일본인부현장이 왔다고 하면 그는 즉시 칼을 빼들고 달려올게다 하고 암시하고있었다.

《후꾸모도씨는 안도실정을 전혀 모르고있군요.》

《허허허… 왜 모르겠습니까. 반일파가 많다는거지요? 난 벌써 무한장도단장과 통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 그 사람이 가만있습디까? 싫어하지 않습디까?》

《중국인들을 도와주러 온 부현장을 왜 싫어하겠습니까. 중국이 망하고 일본이 흥하기를 바라는 중국인이 있듯이 일본의 만주침략을 반대하는 량심적인 일본인도 있습니다. 후꾸모도 센지가 바로 이런 일본인인지도 모르지요, 허허허.》

진담인지 롱담인지 알수 없는 후꾸모도의 말이였으나 쌍병준의 가슴은 섬찍하였다.

각기 자기 나라를 배반하는 반중친일중국인과 반일친중일본인이 마주서있단 말인가?

쌍병준은 후꾸모도앞에서 자기의 친일감정을 나타내지 않은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였다. 하마트면 큰일을 저지를번 했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일본사람들의 손탁에 들어간 봉천인사국에서 일본의 만주침략을 반대하는 사람을 안도현 부현장으로 들여보낼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머리를 쳤다.

《쌍병준씨, 우리 서로 힘을 합쳐 중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투쟁합시다.》

후꾸모도는 손을 내밀었다. 쌍병준은 석연치 못한 기분에서 그의 손을 잡았다. 굳고 단단한 손이였다.

후꾸모도는 반일친중분자가 아니였다. 그는 9.18사변의 조직자의 한사람인 봉천특무기관장 도히하라 겐지대좌로부터 《정탐의 천재》라는 칭찬을 받고있는 일본특무기관의 소좌였다. 그는 여태 건축기술자의 신분을 가지고 만주의 여러 건설공사장을 찾아다녔다.

《나는 원래 건축기술자입니다. 안도현소재지를 번듯하게 꾸려

보자고 합니다.》

그는 송강시가의 앞에는 강이 있고 주변에는 수림이 우거졌으므로 풍치 아름다운 멋쟁이도시를 건설할수 있다고 하였다. 현대적인 건축물을 많이 짓고 거기에 도로망을 형성하면 시가의 면모가 일신된다는것이였다.

《쌍병준씨는 더 부유해집니다. 지금 사장하고있는 림지들이 몇백만금의 황금덩이로 될겁니다, 허허허.》

후꾸모도는 실눈을 지으며 통쾌하게 웃었다. 쌍병준이도 웃음집이 흔들거렸다.

(알쏭달쏭한 소리를 하지만 어쨌든 이 후꾸모도놈을 써먹어야지.)

쌍병준은 자기의 앞날을 락관하였다.

부현장은 잠시 무엇인가 생각하더니 주머니에서 종이 한장을 꺼내여 쌍병준이더러 읽어보라고 하였다. 어느 책에선가 오려낸듯 한 종이장에는 이런 중국문이 활자로 찍혀있었다.

《…먼 옛날의 력사는 만주가 각 민족성쇠의 고전장이였다는것을 가르치며 조선이 이곳에서 패권을 부르짖었다는것이 사실이다. 만주는 고려의 조선민족의 옛땅이다. 오늘 조선사람들이 무리를 짓고 만주로 흘러드는것은 옛땅 회복의 귀환심리에 기초한것이다. …》

이것은 일본의 어느 력사학자가 조중인민들사이에 쐐기를 박아넣기 위해 쓴 글이였다. 일제의 특무기관들은 벌써 몇년전부터 이 글쪼박을 들고 만주땅을 돌아쳤다.

《쌍병준씨도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조선공산주의자들에 대해 눈을 밝혀야 합니다. 그들은 례의 귀환심리로부터 만주땅에 와서 무장투쟁을 획책하고있습니다. 적색폭동에서도 본바와 같이 그들은 쌍병준씨와 같은 유산자는 무조건 타도합니다.》

후꾸모도는 쌍병준이더러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용감한 반공투사가 되여야 한다고 하였다.

《지금 안도땅으로 장학량동북군에 반변한 반일구국군부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들에게 그 선전을 해야 합니다.》

후꾸모도는 반일구국군들이 우선 공산주의자들과 피를 물고 싸우게 해야 한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공산주의를 소멸하는데 력량을

돌려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이 있는 한 쌍병준씨는 편안할수 없다고 력설하였다.

쌍병준은 자기와 후꾸모도의 감정이 점점 융합되여가는것을 느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안도땅에 단신으로 들어선 이 일본인이야말로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쌍병준씨, 중국인지주와 자산가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지난해의 적색폭동, 올해의 추수투쟁은 다 공산당이 뒤에서 조종한겁니다.》

《나도 알고있습니다.》

쌍병준은 방금전 소작료문서장에 도장을 찍은 일을 생각하며 주먹을 돌처럼 그러쥐였다. 쌍병준의 표정을 유심히 지켜보던 후꾸모도는 문득 왕방초의 소식을 알고있는가고 물었다. 그것이야말로 쌍병준이 제일 알고싶은 문제였다.

《저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말을 타고 안도관내를 빠져나가던 도중 마적단들에게 붙잡혀 개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식으로 공산당과 싸우면 안됩니다. 그 사람은 늘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한다고 손자병법을 념불처럼 외우던 량만가였는데 실지는 자기도 모르고 공산당도 모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백전백패했지요. 교훈으로 삼으시오, 경적필패입니다. 허허허…》

후꾸모도는 크게 웃었지만 쌍병준은 뜻밖의 소식에 놀라 멍청히 서 있었다.

(왕방초가 죽었단 말인가?)

쌍병준의 마음속으로 음침한 그늘이 천천히 스며들었다.

후꾸모도는 얼마후 쌍병준이와 헤여졌다.

4

연길, 훈춘지방에서 추수투쟁을 지도한 **김일성**동지께서 흥룡촌에 돌아오신지 며칠되였다.

그이께서는 보위단 지단장사무실에서 무한장에게 전화로 새로 임

명된 일본인부현장에 대하여 몇마디 물어보고 학교로 가시였다. 야간학교이므로 낮에는 교실들이 모두 조용하였다. 원래 8칸이던 건물을 통방하여 4칸으로 만들어 그중 3칸은 교실로, 한칸은 구락부로 리용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부엌옆에 있는 첫 교실로 들어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요즘 이 방에서 밤낮 책을 읽으시였다. 강반석녀사께서 찬방에서 밤깊도록 책을 읽으시는 아드님의 학습에 방해될세라 땔나무가지를 치마폭으로 싸서 소리없이 분질러 아궁이불을 지피신 그 유명한 일화는 바로 어제 밤에 있은 일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실에 들어서시자 노전을 깐 방바닥에 앉아서 푸른 뚜껑을 씌운 책을 보고있던 녀사께서 고개를 쳐들며 《너하고 좀 토론할게 있어서 왔다. 그런데 여기에 웬 병서들이 이렇게 많으냐?》 하고 옆에 무드기 쌓여있는 책들을 가리키시였다. 기실 그것들은 모두 동서고금의 군사서적들이였다. 그중에는 우리 나라 옛 병서들인 《동국병감》이나 《병학지남》 같은것들도 있고 중국의 《손자병법》, 《삼국지》도 있었다. 그런가하면 엥겔스의 군사리론을 비롯하여 1812년 프랑스와의 전쟁시기 로씨야농민부대의 유명한 지도자였던 제니스 다위도브의 빨찌산전법에 대해 쓴 글들과 임진조국전쟁 당시 인민무장대를 지휘한 곽재우, 신돌석, 김응서, 정문부, 서산대사와 근대의 의병장들인 최익현, 류린석의 군사활동에 대한 책들도 있었다.

《왜놈들과 싸우자니 병서를 읽을수밖에요.》

김일성동지께서 책 한권을 집어들며 그윽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만주사변이 일어난 때부터 일제와 싸울 상비적인 무력을 건설하고 대중적지반을 닦기 위한 군사연구에 집념하시였다. 9월 중순과 하순에는 돈화, 안도, 연길 등 여러 지역에서 무장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당 및 공청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면서 간도일대의 10여만 농민군중을 추수투쟁에로 불러일으켜 일제와 결탁한 악질지주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시였다. 그후 두만강을 건너 함경북도 종성지구에 진출하여 핵심조직원들을 찾아다니며 항일무장투쟁을 위한 군사적준비를 할데 대한 행동방향을 제시하고 다시 동만지

구로 돌아오시였다. 그때부터 그이께서는 만주사변에 대처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당 및 공청간부회의 준비사업에 모든 힘을 집중하시였다. 회의준비란 보고서나 결정서와 같은 문건준비가 아니라 항일무장투쟁의 형식과 방법을 비롯한 전략전술적문제를 정확히 규정하는것이였다. 그러자니 동서고금의 병서들을 탐독하고 연구할수밖에 없었으나 지금까지 읽어본 군사서적들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전투형식과 방법을 찾아보실수 없었다. 그래도 임진조국전쟁시기와 리조 말기의 의병장들이 적용한 다양한 전투형식과 방법들이 어느 정도 참고되시였다.

《그러니 정말 군대를 무어가지고 일본군과 싸워보겠다는게지.》

강반석녀사께서는 아드님을 대견하게 그리고 의미심장히 바라보시였다.

《그렇습니다, 어머니. 때가 됐습니다.》

녀사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그이께서 토론하자고 하신 문제도 바로 그것이였다. 구당위원회가 나온 소사하지구에 군사정치적으로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있는 아드님의 의도를 간파한 녀사께서는 그동안 손때를 묻혀 길러낸 핵심조직원들을 그쪽으로 이주시키는 한편 날파람있는 청년들로 무기공작대를 무어 무기구입과 무기운반사업을 벌리시려는것이다. 내도산으로 간 김철주네 소년탐험대원들로부터는 아직 소식이 없지만 그들이 50자루의 무기를 얻어낸다면 무기보관장소와 운반방법 등 실무적인 문제들이 당장 토론되여야 하였다.

녀사께서는 소사하산과 대사하산을 군사훈련장소로 하며 구입한 무기들을 그곳에 보관할수 있도록 지하무기저장고를 꾸릴 생각을 하고계시였다. 한편 무기를 운반하는 도중 리용하는 중간보관장소도 있어야 하므로 옛날 독립군들의 비밀무기저장고였던 마춘욱이네 객주집 다락을 중간보관장소로 써볼 생각도 하시였다.

이러한 녀사의 의견을 들은 **김일성**동지께서는 몹시 감동되시였다.

《이심전심(마음으로 마음에 전한다는 뜻.)이라더니 어머니는 언제나 제가 마음쓰는 일들을 신통히 알아내여 좋은 방안을 내놓습니다. 그러지 않아 우리는 소사하와 대사하수림지대에 군사훈련지를

꾸릴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군사적의의로부터 소사하마을을 철저히 애국화하여야 합니다. 어머니를 그곳으로 보낼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이제 12월에 옹성라자에서 항일무장투쟁과 관련한 큰 회의를 하게 됩니다.》

《12월이면 금방이로구나. 나는 조직에서 소사하에 가라면 소사하에 가구 대사하에 가라면 대사하에 가겠다. 그러니 조금도 주저하지 말아라. 참, 그리구 류호선생이 새로 임명된 일본인부현장이 건축기술자를 구한다는 말이 있다면서 건설물계를 조금 알고있는 자기 아들을 거기에 붙이면 어떨가 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일본인부현장의 내속을 알아내자는거다.》

《류호선생이 그쯤 됐으니 어머니가 정말 마을사람들을 애국화했습니다. 친중파로 가장하고 나타난 일본인부현장에 대해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을 이으시려다가 문득 끊으시였다. 김철희, 리영배들이 교실안으로 들어왔기때문이였다.

성미급한 리영배가 앞뒤련결도 없이 급히 입을 열었다.

《김선생님, 왔습니다.》

《오다니, 누가 왔단 말이요?》

김일성동지께서는 무기를 구하러 내도산으로 들어간 김철주네가 왔는가싶어 반색을 지으시였다.

《최동화가 왔습니다. 김선생님을 만나보겠다고 합니다.》

《최동화가?》

김일성동지께서 어머님을 돌아보시였다. 지난 5월 최동화라는 사람이 김성주를 만나면 입씨름을 하겠다고 벼르고있다고 하신 어머님의 말씀이 상기되신것이다.

《김선생님, 그 사람하곤 대상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만나야 그저 맑스의 고타강령비판이 어쩌구 레닌의 일보전진 이보퇴각이 어쩌구… 우리와는 관계없는 장황한 리론만 풀어대며 남의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데 만나서 뭘하겠습니까. 제가 가서 없다구 하겠습니다.》

리영배는 이러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돌아섰다. 녀사께서 급히 그

를 불러세우시였다.

《나이많은 사람이 일껏 먼걸음을 했는데 거짓말을 해서 돌려보내면 되겠나.》

《그런 말방구령감은 만나야 하등 필요가 없습니다.》

리영배는 엉거주춤 서서 응석이 섞인 볼부은 소리를 하였다.

《그러면 못쓰네. 그 사람으로서는 젊은이들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들고 걱정돼서 벌써 여러번 흥륭촌을 드나들었는데 거짓말을 해서 돌려보내다니… 내 모르는 소견에는 인간도리가 없는 사람은 혁명을 옳게 할수 없다고 보네. … 성주야, 난 네가 만나보는게 옳다고 생각한다. 5.30폭동에 대한 네 비판이 가슴에서 내려가지 않는 모양인데 만나서 힘자라는껏 풀어줄건 풀어주구 고쳐줄건 고쳐주는게 옳다고 본다. 물론 하루이틀 고쳐질 사람같지는 않다만…》

(정말 훌륭한 어머니시구나.)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려깊고 도량이 넓은 어머님의 인격에 대하여 새삼스레 생각하게 되시였다.

《어머니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그래라. 나하고 의논하던 문제는 그만하면 됐으니 이제 곧 나가서 만나보거라.》

녀사께서 먼저 일어나시였다.

×

김일성동지께서는 리영배를 따라 뒤산으로 오르시였다. 항상 위험을 느끼고있는 최동화는 숲속에 숨어있었다. 그는 여전히 수염으로 얼굴을 위장한채 허술한 처서군차림을 하고있었다. 이날도 젊고 건장한 호신병 두명이 그의 곁에 그림자처럼 붙어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김성주입니다.》

그이께서는 소나무를 등지고 너럭바위에 앉아있는 최동화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시였다. 최동화는 천천히 일어섰다.

《최동화요. 우리는 초면이지만 서로 잘 알고있는 사이지요. 피차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니 찾아온 용건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합시다. 나

는 지금 간도일대를 휩쓸고있는 추수폭동에 대해 말하자고 왔소.》

최동화는 머리우에 드리운 새파란 소나무바늘잎 대여섯잎을 뭉청 잡아뜯으며 **김일성**동지를 쳐다보았다.

《예, 어서 말하십시오.》

그이께서는 5.30폭동이 아니라 대뜸 추수투쟁을 론제로 내거는 최동화가 뜻밖이시였다.

《김동무, 일제의 칼부림이 최절정에 이른 때에, 다시말해서 만주전쟁이 일어난 때에 추수폭동과 같은 모험적인 폭력운동을 벌리면 어떻게 되오? 소작료 3.7제를 요구하는 순수경제투쟁이 점점 모험적인 정치적폭력을 띠고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수 없소.》

안도지구에서 폭력투쟁의 합법칙성을 론하면서 5.30폭동을 적극적으로 선동하던 사람이 돌발적으로 폭력투쟁의 모험성과 유해설을 들고나오니 **김일성**동지께서는 의아해지시였다.

그이의 얼굴에서 의문의 표정을 간파했는지 최동화는 주석을 가하였다.

《5.30폭동과 8.1폭동을 좌경모험맹동적인 폭동이라고 규탄하던 김동무가 일제의 군사적침공이 개시된 가장 불리한 시기에 하필 위험한 폭력투쟁을 조직하는가 하는거요. 이것을 어떻게 리해하겠소?》

열병환자의 얼굴에 충혈성꽃돋이가 일어나듯 최동화의 하얀 이마에 붉은 반점이 무수히 돋아났다. 그에게는 몹시 흥분하거나 열이 오르면 이마와 볼에 발진이 일어나는 병적증세가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의 흥분을 누잦혀주기 위해 가라앉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선생님, 5.30폭동과 8.1폭동들은 어떤 결과를 빚어내고 이번 추수투쟁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먼저 그것을 대비해보시지요.》

5.30폭동과 8.1폭동은 동만지구를 피로 물들이였다. 수천명의 인명피해를 내고 혁명조직들을 파괴하는 참혹한 결과를 빚어냈을뿐이다. 그러나 이번 추수투쟁은 한마디로 말하여 크게 성공하였다. 간도일대에서 악질지주들의 죄행이 폭로되고 소작료 3.7제와 4.6제가

실현되였다.
《선생님, 결과는 이러합니다. 그리고 추수투쟁을 순수 폭력투쟁으로 오해하면 안됩니다.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악질적인 지주들에게만 폭력을 행사하여 요구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정미소와 학교를 들부셔버리는 망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동무, 바로 그것이 문제요!》
최동화는 성급히 그이의 말씀을 막으며 손을 쳐들었다.
《맹수를 철저히 죽여버리지 않고 슬 다치면 반드시 상처입은 그 맹수로부터 보복을 받소. 피해를 입은 적대계급이 당분간 상처처치를 하고는 무섭게 달려들것이요. 이제 간도땅에 경신년 대 〈토벌〉과 같은 무서운 참상이 벌어질수 있소. 혁명의 성황기에 때를 맞춰 일으킨 우리의 적색폭동이 그처럼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니 혁명의 퇴조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불집을 일으킨 추수폭동이 이제 어떤 참혹한 결과를 빚어내겠는지는 불보듯 뻔하오.》
최동화는 자신의 웅변에 도취되기 시작하자 항용 그러했듯 상대에게 발언할 틈을 주지 않고 호호탕탕한 웅변의 격류를 터치였다.
그는 1929년부터 자본주의나라들을 휩쓸기 시작한 세계적인 경제공황이 혁명의 고조기, 성황기를 가져왔지만 불행하게도 그 파장이 너무도 짧았다고, 그래서 여기 만주에서는 1931년부터 급작스레 퇴조기에 들어섰다고 하였다.
《불행한 퇴조기가 왜 그렇게도 빨리 찾아왔는가?》
최동화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그 원인은 일제가 아시아대륙에 대한 침략에서 대공황으로부터 벗어날수 있는 출로를 찾아낸데 있다고 하였다. 일제는 만주의 큰 고기를 삼켜버려 경제공황의 영양실조에서 벗어나 원기왕성해졌으며 그리하여 만주에 존재하는 모든 반일요소들을 모조리 쓰러눕힐수 있게 되였다는것이다.
《하여 고조되였던 혁명의 파도는 가라앉게 되였소. 마치 밀물에 불어났던 강물이 썰물에 찌워지듯이…》
열에 떴던 최동화는 이마의 땀을 씻으며 잠간 입을 다물고 **김일성**동지를 지켜보았다.

《그러니 지금은 한마디로 말해서 퇴조기란 말이지요?》

비로소 말씀할 틈을 찾은 **김일성**동지께서 조용히 반문하시자 최동화는 《그렇소, 퇴조기요.》하고 힘있게 팔대짓을 하며 또다시 폭포같이 격렬한 열변을 토하기 시작하였다.

《이보퇴각의 시대요. 암담한 퇴조기요. 쓰똘리삔반동기도 오늘처럼 위협하지는 않았을거요. 일제가 전만주땅을 강점하여 칼부림을 하고있는 때에 서뿔리 폭력을 행사하면 칼탕에 맞아 혁명력량은 콩가루처럼 되고맙니다. 폭력 이외의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는 적대계급을 전복할수 없다는 맑스주의의 공변된 진리와 레닌의 투쟁원칙을 내가 몰라서 동무들에게 이런 구차한 말을 하는게 아니요. 그러나 락심하지 마시오. 혁명의 고조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혁명의 고조기가 닥쳐올 광명의 시기를 기다립시다. 그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최동화는 론쟁의 폭을 더 넓혀나갔다.

《말이 난김에 부언하면 최근에 김동무가 항일전쟁을 하기 위한 상비군을 조직할 구상을 하고있다는데 그것도 시기상조요.》

그는 국가도 물자공급기지도 없는 형편에서 더우기 망명지를 잃어버린 오늘의 험악한 난국에서 어떻게 강적과 대전할 상비군을 조직할수 있는가고 하였다. 공상적공산주의자 쌩시몽의 공상보다도 더 맹랑한 공상이라는것이다. 엥겔스의 군사론에 의해도 군대가 자기 존재를 유지하자면 의거할수 있는 국가와 물자공급기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나서 일제가 강점한 만주땅 그 어디에 발을 붙이며 쌀, 옷, 무기를 어디서 공급받겠는가고 들이댔다. 망명지에 존재했던 수천수만의 독립군들이 사멸하고 도태하는 몰골을 보지 못하는가고, 독립군의 사멸은 이제 본격화될것이라고 하였다. 독립군이 자멸하고있는 때에 군대를 조직하겠다고 하니 언어도단이 아닌가고 고개를 내저었다.

《소규모적인 빨찌산의 활동도 정규군에 의거할 때만이 가능한거요. 로씨야의 유명한 빨찌산영웅 제니쓰 다위도브도 꾸뚜조브장군의 정규군에 의거해서 활동했소. 엥겔스의 군사론에도 그것이 명시되여있소. 싹 걷어치우시오. 시기상조요. 나는 전망이 양양한 김동무가

그 상비군놀음으로 때이르게 스러질가봐 그러는거요.》

최동화는 너그럽게 웃었다. 그제야 그는 팔짱을 끼고 실눈을 지으며 **김일성**동지의 반응을 기다리였다.

《저는 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우리 혁명이 퇴조기에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9.18사변이후 중국의 반동통치기관은 마비되고 일제는 아직 통치체계를 수립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동만지방 인민들이 반일항쟁에 일떠설수 있는 계기를 지어주고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농민들의 소작쟁의와 반일투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습니다.

동만에서의 추수투쟁을 통해 단결하여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 신심을 얻은 인민들은 더 각성되고 단련되여 투쟁의 기세를 늦추지 않고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혁명군중을 투쟁에로 이끌고 항일혁명무장대오를 편성하여 일제와의 항전을 개시하여야 할 때입니다. 물론 항일군의 조직방법, 전투형식에 대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추어 더 모색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군사경험과 맑스, 엥겔스, 레닌의 군사리론을 참조하되 거기에 전적으로 의거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오늘의 우리 실정과 다른 조건에서 고찰한것이기때문입니다. 맑스주의는 교조가 아니라 지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조는 형이상학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맑스주의대가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형이상학적인 사고를 합니다. 선생님도 례외가 되지 않습니다. 엥겔스의 일반군사리론에 매달려 우리가 상비군을 조직할수 없다고 주장하는것도 교조입니다. 선생님은 마치도 우리가 고립무원한 상태에서 상비군을 조직하는것으로 생각하시는데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인민에 의거해서 인민이라는 광활한 대지우에서 무궁무진한 영양분을 배출하는 옥토우에 상비군이라는 나무모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인민의 토양우에서 거목으로 자랄것입니다. 선대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끊임없이 실패의 길을 걸은것은 인민을 무시하고 지어 경멸했기때문입니다. 선생님은 괴롭더라도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당을 재건하기 위해 만주총국을 만들어놓고 어딜 찾아다녔습니까. 저마끔 국제당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떤 결과를 빚어냈습니까. 만주총국마저 해산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실패의 일로

를 걸어온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하려고 합니까. 사실 우리를 가르칠 체면도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하라는대로만 하면 실패가 차례지는것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적색폭동에서 또 실패했습니다. 감히 단언하건대 우리는 선생님들의 가르치심을 따를수 없습니다.

선생님,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운명의 갈림길에 놓여있으니 솔직한 심정을 터놓지 않을수 없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계속하여 인민에 대한 태도와 립장, 관점에서 우리는 서로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있기때문에 선생님은 오늘을 퇴조기로 보지만 우리는 고조기로 보고, 선생님은 5.30폭동을 혁명적인것으로 보지만 우리는 망동으로 보며, 선생님은 오늘의 상비군조직을 시기상조라 하지만 우리는 가장 적중한 시기라고 하며, 선생님은 사대주의를 하지만 우리는 사대주의를 반대한다고 준절히 타이르시였다.

《선생님은 인민을 선생으로 생각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예로부터 인민은 하늘이라는 말이 전해오지만 지난날 의병과 독립군지도자들이 그러했던것처럼 선생님은 인민을 한낱 무지렁이, 양떼로 여겨왔습니다. 이제라도 자신을 구원하려거든 깊이 반성하고 인민에 대한 관점을 바로세워야 합니다.》

최동화의 목에서 갑자기 가래 끓는 소리가 나더니 기침이 터져나왔다. 그는 주먹을 입에 대고 한참 쿨럭거리였다.

불현듯 어디선가 총소리가 울리였다. 남쪽 수림속에서 보위단원들이 짐승사냥을 하고있었다. 하지만 최동화는 겁기에 질려 눈을 뒤집고 허둥거리였다.

《좋소, 오늘은 이만하기요. 시간은 진리를 판정해줄거요. 김동무네가 하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보겠소. 아, 머리가 아프군.》

최동화는 호신병들에게 손짓을 하고 북쪽 수림속으로 도망치듯 걸어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멀어져가는 선대공산주의자의 모습을 오래도록 비감에 잠겨 바라보시였다.

5

어느덧 12월이 되였다.

쪽배모양의 하얀 반달이 은하수 비낀 밤하늘에 떠있었다. 넓은 하늘 어디라 없이 총총히 박혀있는 홍주석같은 별들은 눈덮인 안도의 은빛대지를 내려다보며 무엇인가 의미심장히 속삭이는듯 했다.

《한해가 또 저물어가누나.》

녀사께서는 혼자소리로 조용히 뇌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며칠째 밤마다 이렇게 마당에 나와 내도산쪽을 바라보군 하시였다. 9월 하순에 총을 구하러 내도산으로 간 김철주네 탐험대원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아 녀사의 마음은 몹시 초조하시였다.

여러가지 불길한 생각이 갈마드시였다. 지어 마적단이나 맹수들의 피해를 입지 않았는가 하는 몸서리치는 예감에 가슴이 얼어드는 때도 있었다.

철주네가 내도산으로 간 두달남짓한 사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일제는 만주땅을 다 삼키고 이제는 점령구역의 통치체계를 정비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웬간한 도시와 농촌들에는 친일통치기구들이 서고 친일분자들로 인사교체를 한 관공서와 공안국들에 일본인고문들이 들어앉아 섭정을 하였다. 9.18사변이후 몇달사이에 조선과 일본에서 일본인들이 만주땅으로 밀물처럼 밀려들어와 이제는 봉천, 길림, 영구, 돈화, 연길 등 동북지구의 주요도시들에 왜색이 짙어지고 게다짝소리가 높이 울리였다. 그러나 안도와 같은 산간벽지에는 아직 일제의 통치가 미치지 않아 무정부적인 무풍지대로 남아있었다.

만주사변이후 장개석과 장학량의 투항주의에 불만을 품은 왕덕림, 당취오, 리두, 마점산 등 여러 동북군 지휘관들이 반일부대를 조직하여 만주 각지에서 구국운동을 벌릴 준비들을 하였다. 안도지구에는 오의성산하 반일구국군인 우사령부대가 들어와있었다.

구국군이 출현하였으나 안도현 관헌들은 실제상 점점 더 친일화되

여가고있었다. 만주사변이전에 벌써 일본의 꼭두각시가 된 봉천경찰국에서는 후꾸모도가 안도현 부현장으로 임명되여 온지 얼마 안있어 왕방초의 후임으로 극심한 친일반공분자를 안도에 보내였다. 새로 임명된 서장은 얼마나 친일광인지 안도에 오자마자 6년전의 《미쯔야협정》을 상기시키면서 만주에서의 조선인반일운동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그가 무한장을 비롯한 반일관헌들에 눌리워 마음대로 활개짓은 하지 못하였다.

교활한 일본인부현장은 여전히 건설실무주의자로, 친중분자로 가장하고 돌아쳤다.

감각이 예민한 이자는 건설직업을 요구하는 류호의 아들과 담화해보고는 어떤 륙감이 왔는지 받아주지 않았다. 그가 중국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위험한자인지 모두 모르고있었다. 안도현소재지 가까운 량강구에 진을 치고있는 우사령부대에서도 일본인부현장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만주사변으로 세상이 뒤번져지고있을 때 **김일성**동지께서는 동북지대와 두만강연안 조선국경지대를 끊임없이 왕래하면서 군사적준비를 다그쳐 드디여 옹성라자에서 항일무장투쟁을 개시하기 위한 당 및 공청간부들의 회의를 소집하시게 되였다.

이 모임에는 조선과 만주 각지에 분포된 혁명조직대표 40여명이 참가하게 된다. 안도에서는 김정룡이와 김일룡이 회의에 참가하도록 지시를 받고 떠날 차비들을 하고있었다. 이 소식을 들으신 때부터 녀사께서는 총을 구하러 내도산으로 간 철주네가 더 기다려지시였다. 철주네가 신식총 50여정을 얻어가지고 왔다는 말을 들으면 맏아드님과 회의참가자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그런데 안도의 산야에 눈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지금까지도 탐험대원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녀사께서는 불안하고 안타까우시였다.

문득 어디선가 울리는 말투레질소리가 깊은 밤의 정적을 깨뜨리였다.

털모자에 긴 덧저고리를 입은 웬 사람이 말달구지를 끌고 언덕길을 올라오고있었다. 달구지는 곧장 녀사의 집마당으로 들어섰다.

《아니, 이게 누구예요. 중조 아버지가 어떻게?》

말달구지를 끌고온 사람은 서문밖마을의 객주집주인 마춘욱이였다.

《예, 제 내도산에 갔다오는 길입니다.… 와, 와… 이놈의 말새끼가 왜 이리 야단이야.》

마춘욱은 뒤발질을 하며 빙빙 돌아가는 공골말의 살찐 엉덩판을 채찍으로 휘갈기였다.

《아니, 어딜 갔다왔다고요?》

《내도산으로 들어간 철주네가 돌아오지 않는다기에 속이 답답해서 가보았습니다. 내도산길은 나도 좀 알고있어서…》

《객주업에 분주한 중조 아버지가 그 먼델 갔다오셨단 말인가요?》

녀사께서는 자못 놀라시였다. 그러지 않아도 언제부터 흥륭촌 청년들이 내도산에 가보겠다는것을 굳이 막은 녀사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말달구지에 실린 물건들을 살펴보시다가 와뜰 놀라시였다. 달구지에는 시신을 넣는 커다란 널관이 두개나 놓여있었다.

내도산에서 누가 잘못됐는가?

《무슨 널관이?…》

녀사께서는 온몸이 굳어져 말이 제대로 나가지 않으시였다.

《허허허… 그 널속엔 시신이 아니라 총기류가 있습니다.》

마춘욱은 흥그럽게 웃으면서 내도산쪽을 바라보았다. 하늘에서 별찌 하나가 대공에 새빨간 줄을 그으면서 백설의 광야 한끝으로 살같이 내리꽂지였다.

《그건 어디서 난 총인데요?》

《철주네 탐험대가 내도산에서 얻어낸겁니다.》

철주네 탐험대가 여태 돌아오지 못한것은 신식보총 50여정을 묻어두었다는 장소를 찾아내지 못하였기때문이였다. 일껏 내도산에까지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갈수 없었던것이다. 어지간히 날자가 지나자 내도산사람들한테서 사냥총을 몇정 구해가지고 돌아가자는 축도 있었으나 철주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림속을 뒤지였다. 내도산청년들도 몽땅 떨쳐나서 총기류탐색을 도와주어 마침내 한 장소를 발견하게 되였다. 아름드리로송이 서있는 돌모래밭밑에서 신식보총

30여정과 모젤권총 10여정을 얻어냈다. 기름종이로 방수대책을 하고 묻었으나 더러 녹이 쓴 총들도 있었다. 신식보총 50여정을 묻었다는것은 좀 보태진 말이였으나 어쨌든 대단한 수확이였다.

마춘욱이 내도산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소년탐험대원들이 널관속에 총기류를 넣고 떠날 차비를 하고있었다. 내도산의 어느 한 로인한테서 그전날 독립군들이 무기를 운반할 때면 널관을 리용했다는 말을 듣고 그 경험을 참고한것이다.

내도산사람들은 6년전에 김형직선생님께서 찾아오셨던 일을 잊지 않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 조직하신 반제청년동맹조직도 아직 살아있다고 한다.

《철주네도 이번에 내도산사람들에게 반일애국교양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철주랑은 지금 어디 있는가요?》

《쓰우리에 있습니다. 탐험대원들이 그새 고생을 많이 했길래 거기서 하루밤 푹 쉬라고 하고 제가 먼저 왔습니다. 사모님이랑 애타게 기다리실것 같아…》

마춘욱은 그길로 소사하산으로 가겠다고 하였다. 지금 소사하산과 대사하산에서는 곽명준을 책임자로 한 당원들과 반제청년동맹원들이 군사훈련소를 꾸리고있었다. 원래는 곽명준이도 명월구회의에 참가하게 되여있었으나 훈련소를 꾸리는 일로 떨어지도록 지시를 받았었다. 그러고보면 안도땅에는 벌써 항일무장투쟁의 예령이 내린것이다.

《이젠 내도산소식을 알았으니 중조 아버지도 여기서 주무시고 날이 밝은 다음 천천히 떠나세요. 참, 무슨 말인지 량강구에 와있는 우사령부대 구국군들이 걸핏하면 조선청년들을 보고 공산당이라 트집을 쓰며 잡아간답니다. 죽이기까지 한대요. 조심히 다녀야겠어요.》

녀사께서는 크게 기대했던 반일구국군들까지 공산주의라면 피를 물고 대드는판이니 걱정이라고 하시였다.

《예, 구국군이 오히려 우환거리로 되는가 봅니다.》

마춘욱이도 한숨을 쉬며 머리를 저었다.

잠시후 그는 하루밤 쉬고 가라는 녀사의 권고도 마다하고 총총히 흥륭촌을 떠났다.

녀사께서는 군사훈련소를 꾸리고있는 소사하산과 대사하산을 눈앞에 그려보며 이슥토록 마당가에 서계시였다.

6

명월구(옹성라자)에서 12월 16일부터 시작된 당 및 공청간부회의는 12월 25일까지 열흘동안이나 진행되였다. 회의가 끝나자 강반석녀사께 회의소식을 알려드리려고 김정룡은 인차 흥륭촌으로 떠나고 김일룡은 소사하산 훈련소로 갔다.

김정룡은 흥륭촌에 들어서자바람으로 곧장 강반석녀사의 댁으로 달려갔다. 방금 저녁설겆이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던 녀사께서는 불시에 나타난 김정룡을 보고 너무 반가와 저도 모르게 손벽까지 치시였다.

《난 구당서기가 언제 오겠나 하고 손꼽아기다렸네.》

녀사께서는 김정룡을 방안에 앉히고 회의소식을 성급히 물으시였다.

김정룡은 성수가 나서 귀환보고를 하였다.

명월구회의에는 차광수, 리광, 량성룡, 오빈, 오중화, 오중성을 비롯한 40여명의 당 및 공청간부들이 참가하였다고 한다. 이 회의에서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하여》라는 제명의 연설을 한 **김일성**동지께서 일제의 만주강점으로 하여 조성된 국내외의 정세와 우리 나라 반일해방운동의 력사적교훈을 분석하고 유격전의 형식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한 전략적 방침을 제시하시여 온 장내가 격동으로 끓어번졌다고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연설에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하고 유격근거지를 창설하며 당 및 공청조직사업을 한층 더 강화하고 조중인민의 반일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 등 혁명운동의 실천적문제들을 제시하시였다.

《차광수동지가 **김일성**동지의 연설은 일제를 격멸하기 위한 항일전쟁을 정식으로 선포한것이나 같다, 〈무장에는 무장으로! 반혁명적폭력에는 혁명적폭력으로!〉 하고 구호를 웨치자 회의참가자들 전체가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부르며 들썩했습니다. 모두들 이 회의는 항일무장투쟁의 시초를 열어놓은 회의이고 우리 나라 반일해방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민족사적이고 세계혁명사적인 의의를 가지는 회의라며 환성을 터쳤습니다.》

강반석녀사께서는 가슴이 울렁거리시였다. 드디여 우리 조선군대가 총을 들고 왜놈들과 싸우게 된것이다. 한다하는 열혈청년들 40여명이 한데 모여 열흘씩이나 회의를 한것만 보아도 보통 큰 회의가 아니라고 짐작되시였다.

《우리 성준 언제 오겠다나? 할머니가 이번 양력설은 성주랑 같이 쇠였으면 하네.》

1932년 1월 1일은 당장 래일 모레였다. 그러나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뒤처리를 하느라 빨라서 새해 초순에야 오실것 같다고 하였다.

《큰 회의를 했으니 그럴테지. 40여명의 회의손님들이 여러날이나 있었으니 거기 마을사람들이 수고가 많았겠네.》

《예, 회의손님들을 위해 있는 정성을 다 기울였습니다. 전 이번에 거기서 영채김치라는걸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별맛이였습니다. 회의기간에 꿩고기와 닭고기꾸미를 한 메밀국수도 먹었는데 얼마나 맛이 있는지 황포군관학교출신인 박훈이란 사람은 국술 세그릇이나 먹어서 〈국수대감〉이란 별명까지 받았습니다, 허허허.》

박훈이도 이번에 김일룡이와 함께 소사하산 훈련소로 갔다고 한다. 군사정규교육을 받은 이 사람들이 이제 훈련교감이 되여 군사교련을 지도하게 된다고 한다.

김정룡의 귀환보고는 모두가 다 충격적인것이였다.

이날부터 거의 매일과 같이 외지의 청년들이 강반석녀사의 댁으로 찾아와 하루밤씩 묵고는 어디론가 떠나가군 하였다. 그들이 바로 군사훈련을 받기 위하여 소사하산과 대사하산훈련소로 찾아가는 각지 조직에서 선발된 청년들이였다.

흥륭촌부녀회원들이 강반석녀사와 채련옥을 도와 손님들의 밥시중

도 하고 길음식도 싸주었다. 이해에는 흥륭촌에서 소작료 3.7제와 2.8제를 하고 개간한 논밭들은 수확의 전량을 작인들이 가지게 되여 례년에 비해 집집마다 알곡예비가 생기게 되였다.

1932년 1월초 눈내리는 밤 그토록 녀사께서 기다리던 맏아드님께서 흥륭촌으로 돌아오시였다.

그날밤 녀사께서는 **김일성**동지께 조용히 물으시였다.

《이젠 우리가 총을 들고 왜놈들과 싸우게 된다지?》

《예, 정식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선포하고 모두다 무장을 잡고 나서자고 호소하였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금 일부 사람들은 령토도 국가도 없고 자원도 다 빼앗긴채 남의 나라에 와서 곁방살이를 하는 적수공권의 망국노들이 신식무기로 무장한 정예의 일본군과 어떻게 싸우겠느냐고 도리질을 하며 코웃음까지 치지만 자신께서는 인민을 믿고 항일전쟁을 선포했다고 하시였다. 나라는 없으나 인민이 있으니 그 인민이 다름아닌 우리의 국가이고 정규군이고 후방이며 무기생산의 원천지라고 분연히 말씀하시였다. 따라서 우리의 항일전쟁은 전인민이 동원되는 인민전쟁이라고 하시였다.

녀사께서는 가슴속이 찌릿찌릿해지고 온몸으로 뜨거운 피가 격렬히 굽이치는듯 한 흥분에 저도 모르게 주먹을 그러쥐시였다. 녀사께서는 김형직선생님께서 물려주신 두자루의 권총을 량손에 거머쥐고 항일전장으로 돌진하는 아드님의 영용한 모습을 그려보시였다. 그 권총이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을가.

《성주야, 이젠 내가 소사하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군사들이 모여드는 곳에 가서 무엇이든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

김일성동지께서는 병색이 도는 어머님의 수척한 얼굴을 그러나 무엇으로도 굽힐수 없는 강직한 의지의 빛이 넘쳐있는 어머님의 강단있는 모습을 뜨겁게 바라보시였다.

《어머니, 어머니는 만경대에서부터 여기까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이사짐을 몇번이나 싸고 풀고 하셨습니까. 어머니는 너무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그 소리냐. 나라잃은 백성치고 나만큼 고생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걱정일랑은 하지도 말아라. 나는 이미 이사짐을 싸가지고 기다리고있었다.》

그것은 사실이였다. 항일혁명군을 조직하기 위한 모든 사업이 소사하지구에 집중된다는것을 직감한 녀사께서는 명월구회의소식을 접한 날부터 출전하는 용사마냥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조직의 지시를 기다리고계시였다. 그리고 모든 부녀회원들에게도 이제부터는 항일무장투쟁을 뒤받침하고 후원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 하자고 호소하였으며 예비적으로 무기운반대까지 조직하시였다.

《성주야, 조직이 령을 내리면 나는 이밤으로라도 소사하로 떠나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어머님의 손을 잡아쥐시였다.

《어머니는 언제나 저에게 힘과 신심을 안겨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하군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직에서는 어머니를 다문 한달이라도 몸을 보하게 한 후에 소사하로 보내자고 토의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성미에 몸이나 보하며 가만히 앉아있질 않는다는걸 제가 잘 알고있기에 소사하로 가기 전에 먼저 그전처럼 마춘욱이네 객주집에 머물면서 무기운반사업을 지도하도록 제기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의견대로 우리는 객주집다락을 림시무기보관고로 리용하기로 했습니다.》

녀사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단을 내린듯 말씀하시였다.

《네 말대로 하겠다. 그런데 요즘 걱정이 하나 생겼다.》

녀사의 걱정거리는 매우 심각한것이였다. 맏아드님의 뜻대로 항일전쟁을 하자면 이제부터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여기저기 분주히 뛰여다니며 무기를 구입하고 참군자와 훈련생들을 모집하며 유격근거지를 창설하기 위한 대중적지반을 닦아야 하겠는데 반일구국군들이 말썽을 일으키고있기때문이였다. 그들은 총기류를 가지고다니는 조선청년들을 보면 무조건 공산당이라고 잡아다가 죽인다는것이였다. 낯선 청년들이 구국군주둔구역에 나타나기만 하여도 붙잡아다 공산당이 아니냐며 초달을 한다고 하였다.

《성주야, 이게 사실이라면 야단이 아니냐.》

김일성동지께서는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잠시 묵묵히 서계시였다.

그것은 떠돌아가는 랑설이 아니였다. 상비적인 항일무장군을 조직하여야 할 결정적인 시각에 반일구국군들로 하여 뜻하지 않은 험악한 사태가 빚어지고있는것이다.

지금 동만에서 제일 세력이 강한 반일부대는 왕덕림부대였다. 장작상산하의 길림군에서 대대장으로 복무하던 왕덕림은 자기 상관이였던 려단장이 9.18사변이후 일제에게 투항하자 수백명부하들을 데리고 산속에 들어가 중국국민구국군을 조직하여 일본침략군에 대한 항전을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오의성, 사충항, 채세영, 공헌영 등 그의 충실한 부하들이 지역을 하나씩 차지하고 항일전을 개시하였는데 그들은 거의다 공산당이라고 하면 덧대놓고 머리를 내젓는 반공분자들이였다. 특히 안도의 산간오지대로 밀려든 오의성산하의 우사령부대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을 불구대천의 원쑤로 생각하는 사납고 무지한 반공반일부대였다. 그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일제의 앞잡이로, 왜놈들을 만주대륙침략에로 끌어들인 장본인으로 생각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조중인민들사이에 쐐기를 박는 일제의 리간정책과 함께 만보산사건, 5.30폭동으로 하여 조선사람들에 대한 나쁜 인상이 이들의 머리속에서 지워지지 않고있는것이였다.

반일구국군은 적이 아니라 통일전선을 하여야 할 대상이였다. 구국군과의 사업에서 중중첩첩한 난관이 가로놓여있었으나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머님을 안심시키시였다.

《여기 반일구국군의 실태를 정룡동무한테서도 들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마십시오. 원쑤들의 간계에 넘어가 구국군들이 일시 오해하고있지만 반드시 우리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랬으면 오죽 좋겠느냐. 아무튼 어서 군대를 무어라. 지금 부녀회원들의 기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무송에서도 해보니 비밀리에 무기를 나르는 일은 녀인들이 하면 더 안전하더라.》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어머님의 열망을 가슴뜨겁게 느끼시였다.

《어머니, 꼭 군대를 뭇겠습니다.》

그날밤 두분께서는 조선독립의 날을 눈앞에 그려보며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밤깊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많은것을 추억하시였다. 만경대와 칠골에 대하여, 강동 내동부락의 명신학교 종소리와

중강진, 림강, 팔도구 등 압록강국경마을에서의 반일투쟁에 대하여, 무송 소남문거리와 양지촌마을의 김형직선생님의 묘소에 대하여… 그중에서도 김형직선생님께서 물려준 두자루의 권총에 대한 이야기는 두분의 가슴을 항일성전의 열망으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때가 됐다. 성주야, 어서빨리 반일항전에 나서라!》하고 김형직선생님께서 웨치고 부르시는것 같아 **김일성**동지께서는 흥분을 억제하지 못하시였다.

어머님께서 아버지의 묘소에 묻어두셨던 두자루의 권총, 그 총을 아버지의 산소에 묻어둔것은 어디 둘데가 없어서 그런것은 아니였다. 넓으나 넓은 땅에 권총 두자루를 감출데가 없었겠는가. 어머니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아들이 되기를 바라서 묘지에 묻어두셨던것이다. 그 총에는 선렬들의 피가 스며있고 동포들의 념원이 깃들어있었다.

그렇다, 이제는 때가 되였다. 그 두자루의 총을 밑천으로 삼아 항일무장투쟁의 강행군을 시작하리라. 그 두자루의 권총에서 천자루, 만자루, 백만자루의 혁명의 총이 새끼치게 하리라. 그래서 기어이 내 나라를 찾으리라.

김일성동지께서는 결사의 맹세를 다지시였다.

7

1932년 대소한철의 추운 저녁.

이사짐을 실은 말달구지 한대가 서문강다리를 지나 마춘욱이네 객주집을 향해 굴러가고있었다.

강반석녀사께서 또다시 여기 서문밖마을로 이사오시는것이다. 녀사께서는 조직으로부터 서문밖마을에 약 한달동안 체류하면서 무기공작을 지도할데 대한 과업을 받으시였다.

어찌된 일인지 그이께서는 매번 바람 사나운 한겨울철에 이사다니시였다. 2년전 무송에서 안도로 이사오실 때에도 설한풍이 불어치던 1월이였다. 서문밖마을에서 흥륭촌으로 이사가신것도 싸락눈이 내리던 겨울철이였다.

말달구지는 객주집 뒤마당으로 들어갔다.

살진 공골말이 요란스레 코투레질을 하자 객주집 부엌문이 열리더니 행주치마를 두른 장영숙이 뛰쳐나왔다.

《어머니! 형님! 사모님이 오셨어요, 사모님이…》

장영숙은 어린애처럼 기뻐하며 새되게 소리쳤다.

《아니, 누가 왔다고?》

김씨가 뛰쳐나오고 뒤따라 백춘화도 반색을 지으며 달려나왔다. 세 녀인은 아직도 2년전에 녀사께서 만들어주신 앞치마를 두르고있었다.

무명솜저고리에 밤색털목도리를 두른 강반석녀사께서 자제분들을 데리고 부엌앞으로 걸어오시였다.

《잘들 계셨어요?》

자제분들도 녀인들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였다.

김씨는 두 자제분들의 어깨며 잔등을 두드려주며 2년새 몰라보게 컸다고 혀를 끌끌 찼다.

장영숙이와 백춘화는 말파리에 싣고온 짐들을 안방으로 날라갔다. 이사짐이라야 손재봉기, 나무궤짝 한개, 이불보따리 하나가 전부였다. 흥륭촌을 떠나올 때 마을사람들이 넣어준 꾸레미들이 이불짐만큼 큰 보짐이 되였다. 아무리 받지 않겠다고 하여도 막무가내로 안겨주어서 어쩔수없이 가지고오시였다.

녀사께서는 오늘 새삼스레 지난 2년동안 마을사람들과 나눈 정이 얼마나 뜨겁고 깊은것인가를 생각하시였다. 녀인들과 아이들은 마치도 녀사께서 영원히 만나지 못할 천리 먼곳으로 가시기나 하는듯 거의다 울면서 대흥툰가까이까지 따라왔었다. 특히 류호네 식구들은 대흥툰을 지나 정업툰마을에까지 따라왔었다.

진춘발을 비롯한 여러 청년들이 이사짐달구지를 저마끔 몰겠다고 나서는것을 겨우 떼놓으시였다.

말달구지는 김철주가 몰아왔다. 둘째아드님은 새해에 잡혀 열여섯살이지만 무슨 일이든 어른스럽게 하였다.

이윽고 정지방에 오른 강반석녀사께서는 안방을 거두느라 복새통을 피우는 백춘화와 장영숙을 보고 《손님시중이 바쁘겠는데 괜히 방을 거두느라고 그러누만, 우리가 거두지 않으리.》하면서 안방으로 올라가시였다.

《방이 너무 어지러워서… 우린 사모님이 래일 오시는줄 알았어요.》
백춘화가 뽀얗게 먼지가 오른 삿자리를 민망스럽게 내려다보았다. 오래동안 안방을 쓰지 않은것 같았다. 마춘욱이도 강반석녀사께서 래일 오시는줄로 알고 이날 점심때가 훨씬 지나 녀사께 대접할 반찬감을 구하러 성안으로 들어갔다고 하였다.
《방걱정은 말고 어서 일을 보세요.》
녀사께서는 두 녀인의 등을 밀어 정지방으로 내려보내시였다.
김철주는 벌써 아래구석에서부터 비질을 해나가고 동생은 뒤따라서 걸레질을 하였다.
녀사께서는 방구석에 쌓아놓은 짐들을 헤쳐 재봉침이며 궤짝이며 이부자리들을 예전에 놓아두었던 그 자리에 가져다놓으시였다. 마을사람들이 넣어준 꾸레미들을 풀어보니 거의다 익은 음식들이고 더러는 쌀주머니도 있었다. 종이에 돈을 싸넣은것들도 있었다.
녀사께서는 마을사람들의 지성에 눈굽이 저려나시였다. 그이께서는 익은 음식들을 모두 정지방에 내려가시였다. 어디에 가나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성미인 그이께서는 솜저고리를 벗고 부엌에 내려가 녀인들의 일손을 도우시였다. 예전과 다름없이 손님방에서는 저가락장단을 치며 타령을 뽑는 소리, 꿱꿱 고아대며 주정을 부리는 소리 등 어지러운 세상에 대한 항거의 목소리인듯 또는 불우한 인생에 대한 하소와 통탄인듯 갖가지 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었다.
《사모님, 오시자마자 부엌엔 왜 내려와요.》
백춘화가 부엌일을 하시는 녀사를 만류하는데 손님방 쪽문이 열리더니 낡은 사지양복을 입은 사람이 시뻘개진 얼굴을 내밀고 장영숙에게 손짓을 했다.
《오이 접대, 술 한상 더 차려오라, 여기 와서 권주가도 부르구.》
《무시게 어쨌다구?》
김씨가 눈알을 굴리며 양복쟁이를 노려보았다.
《여긴 술집이 아니라 려인숙이야. 어디다 대구 술집녀자 다루듯해! 권주가가 무시게 어쨌다구?》
김씨의 사나운 기상을 보고 양복쟁이가 수그러들었다.
《아마이, 잘못했소다. 남자가 술 한잔 먹으면 그럴수 있지비, 싱숭생숭해지니까나… 내 잘못했으니 술 한상 잘 차려 올려옵소다, 그

잘난 때문은 돈은 얼마든지 낼테니까.》
양복쟁이는 딸꾹질을 하며 고개를 끄덕거리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그 사람을 인차 알아보시였다. 김춘봉의 집에 자주 다니던 성근식이였다. 흥릉촌에서 군중회합이 있은 후 그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어서 어디 먼곳으로 간줄 알았는데 여기서 술을 마시고있는것이다.
《저 사람이 흥릉촌에서 돌아가던 사람인데 지금 어디에 있는가요?》
장영숙이 술상을 가지고 손님방에 들어갔을 때 녀사께서 백춘화에게 물으시였다.
《지금은 소사하 쌍병준이네 집에 들어가 개짓을 하며 밥술이나 얻어먹는것 같아요. 우리 중조 아버지도 저놈을 잘 아는데 독립군에 있을 때에도 간에 붙었다 섬에 붙었다 하더니 왜놈들과 공안국의 밀정질을 하며 돌아간다고 합니다. 요즘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동북군 군복을 입은 사람들을 데리고 사흘이 멀다하게 여기 와서 술을 처먹구 가군 합니다.》
녀사께서는 심각해지시였다. 동북군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란 분명 장학량을 반변한 반일구국군들이겠는데 그들과 섭쓸려 다닌다는것이 심상치 않으시였다. 한동안은 사람의 눈이 무서워 숨어있던자가 이제는 제 세상이 된듯이 활개치며 다니는것을 보면 구국군들의 보호를 받고있는것 같기도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구국군들의 감정이 좋지 못한것은 뒤에서 리간질을 하는 나쁜 놈들이 있기때문이라고 하시였다. 그리고 그것이 일제의 모략책동과 련결되여있다고 하시였다.
얼마후 손님방에서 나온 장영숙이가 녀사께 다가와서 성근식이가 녀사에 대해 아는 소리를 하더라고 하였다.
《사모님께서 어떻게 이 집 부엌에 계시는가고 묻지 않아요?》
《그래 뭐라고 말했어요?》
《당분간 삯바느질을 하러 왔다고 했어요. 삯바느질을 하는데는 흥릉촌보다 여기가 좋기때문에…》
장영숙은 자의대로 지어서 한 말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여 불안해하였다. 그도 성근식이 밀정질을 하는 나쁜 놈이라는것을 알고있었다.

《잘 말했어요.》

녀사께서는 불안해하는 장영숙을 안심시키시였다. 그날밤 성근식은 손님방에서 자고 갔다.

녀사께서는 이때부터 안방에서 삯바느질을 하면서 혁명사업을 도우시였다. 녀사의 바느질솜씨는 이미 서문밖마을주변일대에 소문이 난터여서 많은 손님들이 옷을 맡기러 왔다. 그중에는 반일부녀회원들이 태반이였는데 그들과의 사업에서 기본이 무기공작이였다. 부녀회원들이 떡, 지짐을 비롯한 익은 음식들을 담은 함지를 이고 객주집에 팔러 다니였다. 이 음식장사군의 함지밑에는 권총들이 있었다. 이따금 긴 궤짝을 지고 행상을 하는 젊은 남자들이 객주집에 와서 물건거래를 하였는데 그 행상군의 궤짝밑에는 보총들이 있었다.

녀사께서는 조직원들이 날라온 보총, 권총들을 객주집다락에 감추어두었다가 소사하에서 온 무기운반조들에게 넘기군 하시였다. 무기운반조란 곽명준이와 조선녀였다. 이들부부도 말파리로 장사짐을 싣고다니는 되거리장사군으로 가장하고 객주집에서 무기를 받아가군 하였다.

얼핏 생각하면 객주집에 무기를 감추어두는것이 위험할것 같지만 사실은 더 안전하였다. 사람들의 왕래가 심하고 보위단과 경찰들이 자주 술먹으러 다니는 객주집에 무기를 감추어두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였다. 더구나 객주집다락으로 올라가자면 부엌에 나있는 개구멍을 통해서 지붕과 천정사이의 컴컴한 공간으로 들어가야 하므로 수색하기도 어려웠다.

사람들은 객주집의 다락은 사용을 목적하지 않고 겉멋으로 지은것으로 생각하고있었다.

객주집으로 이사해온 후 김철주는 리건배, 로중봉이와 같은 똘똘한 소년탐험대원들을 데리고 다니며 반일구국군들의 주둔장소들을 탐지하였다. 소년탐험대원들이 탐지한데 의하면 아직은 반일구국군의 대부대가 들어오지 않고 소부대들이 량강구와 대사하주변일대에 널려있다고 하였다. 비적출신이 많은 구국군들은 주민가옥들에 들어가 토색질을 하기가 일쑤여서 큰 우환거리로 되고있었다. 소문그대로 그들은 공산당이라고 하면 무조건 잡아가거나 쏴죽이였다.

무기운반을 하면서 제일 경계하여야 할 대상이 반일구국군들이였다. 그들이 아직은 보위단원들이 집결되여있는 송강—흥륭촌일대의 주민지역에는 나타나지 않고 한두명씩 객주집에 와서 술을 먹고 돌아가는 정도이지만 머지않아 보위단을 누르고 안도에서 주인행세를 하게 될것은 명백하였다.

보위단은 조락하는 부대였다.

8

함박눈이 내리는 늦은 아침이였다.

떡함지를 인 안선옥이와 긴 궤짝들을 진 윤현칠, 박치근, 진춘발이 제집처럼 객주집 부엌으로 들어와 안방에 계시는 강반석녀사께 찾아갔다.

녀사께서는 방금 객주집녀인들을 도와 조반설겆이를 하고 재봉기앞에 마주앉으시려던 참이였다. 자제분들은 소년탐험대활동을 하느라 벌써 밖에 나가고 없었다.

안선옥은 떡함지에서 모젤권총 두자루를 꺼내고 궤짝패들은 각각 보총을 한자루씩 내놓았다.

그것들은 모두 그전날 독립군생활을 한 늙은이들과 련계를 가지고 얻어낸 총기류들이였다.

그전날 객주집에서 위경련을 일으켜 소동을 피웠던 안선옥이 이제는 거지때를 말끔히 벗어버렸다. 달덩이같은 얼굴에 옷차림과 머리단장을 단정히 하여 아주 의젓하고 예쁜 처녀로 되였다. 가리마를 타고 머리를 곱게 빗어 량쪽으로 갈라묶어 저고리뒤의 고대까지 땋아 끝을 붉은 댕기로 쪽지였다.

그가 입고 온 무명솜저고리치마는 이태전에 녀사께서 지어준것이고 댕기로 머리끝을 쪽지는 법도 녀사께서 배워주신것이였다. 옷을 얼마나 정히 입었는지 이태전에 지은 옷이 아직도 새옷 같았다. 가난하기는 예전과 크게 차이가 없었으나 깔끔한 옷차림과 단정한 머리단장이 가난티와 거지때를 벗겨내게 하였다.

녀사께서는 숙박한 손님들이 조반을 먹고 나가버린 조용한 때여서

무기운반조원들에게 가지고온 물건들을 급히 다락으로 올려가도록 지시하시였다.

윤현칠이와 박치근이 총기류들을 걷어안고 부엌으로 내려가고 진춘발은 뒤마당으로 나가 망을 보았다. 객주집녀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손님방문과 부엌문을 안으로 걸어놓고 방을 지키였다.

부엌에서는 지붕서까래가 그대로 보이였다. 부엌과 정지방의 경계면에 대들보를 가로 지르고 그우 지붕용마루까지 벽을 쳤는데 그 벽 한쪽끝에 어른들이 겨우 엎디여 드나들수 있을만 한 구멍이 나있었다. 그것이 바로 다락으로 들어가는 통로였다. 그 구멍으로 들어가자면 사다리를 놓아야 했다.

박치근이 먼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총기류를 집어넣고 그안으로 기여들어갔다. 윤현칠이 초롱불을 들고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지붕과 천정사이의 컴컴한 공간을 초롱불로 비치며 걸어갔다. 얼마후 다락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보이였다.

지붕우에 올라앉은 다락은 20평정도 되는 마루방인데 한쪽벽에 조그마한 창구가 있어 엷은 해빛이 스며들었다. 마루방 한옆에 총기류들이 무져있었다.

한편 강반석녀사께서는 부엌바닥에 서서 다락으로 간 그들이 돌아나오기를 기다리시였다. 다락으로 올라갔다 돌아오는데는 10분이면 충분한데 웬일인지 반시간 좋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무슨 일인가싶어 직접 초롱불을 들고 다락으로 올라가보시였다. 다락방에서는 뜻밖의 광경이 벌어졌다. 박치근은 보총을 분해해놓고 조립을 하지 못해 끙끙 갑자르고있고 윤현칠은 모젤권총 한개를 집어들고 여기저기 만져보고있었다. 그들은 오늘까지 세번째 총기류를 운반하였지만 총 한방 쏴보지 못한 생둥이들이였다.

《아니, 임자네들은 밑에서 기다릴건 생각지 않고 무슨 장난들을 하고있나, 아이들처럼.》

녀사께서 그들을 핀잔하시였다.

《사모님, 총이라는게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아보자구 뜯어놓았는데 맞추질 못하겠습니다.》

박치근이 총기름이 묻은 손으로 더수기를 긁적거리며 한숨을 지었다.
《총쏘는 법과 총다루는 법은 소사하 훈련소에 가면 배운다고 하지 않았나.》하고 녀사께서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땅! 하고 요란한 총성이 울렸다. 순간 녀사께서 무릎우가 선뜩하여 윤현칠이 집어든 모젤권총에 눈길을 돌리시였다. 권총총구에서 하얀 연기가 날리였다. 그 맞은편벽에 구멍이 뚫리였다.
총을 오발한 윤현칠의 얼굴은 새까맣게 되였다. 무릎우에 대였던 녀사의 손에 피가 묻고 치마폭에도 붉은 피가 배여있었다. 오발한 총알이 녀사의 무릎우 살거죽을 스치고 지나간것이다.
녀사의 손과 치마폭에서 피를 본 두 젊은이는 어쩔줄 몰라했다. 박치근이 급히 물었다.
《사모님! 총에 맞았습니까?》
《아, 아…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나.》
윤현칠은 피에 젖은 녀사의 무릎에 손을 짚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녀사께서 청년들을 안심시키시였다.
《일없네. 총알이 무릎우 살을 스친것 같네. 피가 좀 나올뿐이네.》
녀사께서 지혈시키기 위하여 치마천을 찢어 무릎우를 꽉 동이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독립군부상자들을 치료하는것을 여러번 보고 직접 간호도 하신 녀사께서는 외상치료에도 일정한 상식이 있었다.
《자, 보게. 이렇게 걷지 않나. 심한 상처가 아니야.》
녀사께서는 다리가 저려나기 시작하였으나 오히려 웃으며 걸어보이시였다. 그러나 어쩔수없이 다리를 절룩거리시였다.
안선옥이 다락방으로 뛰여올라온것은 이때였다. 그는 녀사의 찢어진 치마자락과 피에 젖은 치마폭을 띠여보고 두눈이 사발만큼 커졌다.
《사모님, 무슨 일이예요? 치마폭이 왜 그래요?》
이때 문득 윤현칠이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
《그만하게, 현칠이! 소동피우지 말라구… 다 큰 사내가 계집애들처럼 울긴!…》

녀사께서는 잠시 생각하고 세사람을 둘러보며 말씀하시였다.
《권총 오발로 상처를 입었다는 소리는 누구보고도 하지 말게. 소문이 퍼지면 위험하네. 그저 내가 산비탈을 내리다가 다리를 다쳤다고만 하자요. 어서 총들을 제자리에 잘 쌓아놓고 내려가자요. 뜯어놓은 총은 이따 선녀 남편이 오면 맞추어놓게 하고…》
박치근이와 안선옥이 녀사를 부축하고 내려갔다. 윤현칠은 실성한것처럼 맨 뒤에서 비칠거리며 따라왔다.
진춘발이와 객주집녀인들은 찢어지고 피묻은 녀사의 치마를 보고 눈들이 둥그래졌다.
녀사께서는 그들에게도 당부하고 안방에 들어가 객주집에 있는 중국빼주로 상처를 소독하고 새 붕대를 감으시였다. 마침 손님들이 없을 때였으니 천만다행이였다. 박치근이와 윤현칠은 상처때문에 걱정스러워 집에도 가지 않고 저녁까지 남아있었다. 녀사께서 걱정말고 돌아가라고 거듭 말씀하시여도 가지 않았다.
저녁에 곽명준이와 조선녀가 말파리를 가지고 객주집에 나타났다.
조선녀는 다리를 저시는 녀사를 보고 의아해하였다.
《넘어져 다쳤네. 이제는 늙었는가봐.》하고 녀사께서는 짐짓 시치미를 떼시였다.
《이제 겨우 마흔인데 뭘 늙으셨다고 그래요. 병약하니 넘어지시는거예요. 그 몸으로 계속 일만 하니 어쩌자구 그래요.》
녀사께서는 얼른 말머리를 돌리시였다.
《선녀의 몸이 가볍지 않은것 같은데 입쓰리는 하지 않나?》
선녀의 희고 말쑥한 얼굴이 감빛으로 물들었다. 그는 태기가 있은지 두달이 되였으나 부끄러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있었다.
《어머닌 어떻게 그걸 아셔요?》
《왜 모르겠나. 원래 첫 아이해산은 본가집에서 하네. 그러니 이다음 내결에서 아이를 낳아야지.》
녀사께서는 따뜻한 웃음을 짓고 조선녀의 고운 얼굴을 새삼스레 찬찬히 들여다보시였다. 녀사의 본을 따서 바른 가리마를 내고 낭자를 튼 선녀의 숱많은 머리는 칠갈이 까맣고 윤기가 돌았다. 흰 이마밑에서 별처럼 반짝이는 두눈과 일매지게 휘여진 긴 속눈섭, 연지를 바르지 않아도 붉은 꽃잎처럼 빨간빛을 머금은 입술이며 아름다운 곡

선을 그은 코날이며 모든것이 리상적인 조화를 이루어 보면 볼수록 얼굴의 미모가 더욱 두드러졌다. 임신초기에는 입쓰리로 하여 얼굴이 초강초강해지고 심한 경우 검버섯이 돋아나기가 십상인데 선녀는 오히려 얼굴살갗이 젖빛처럼 더 뽀얗게 희여졌다.

《어머니, 아이낳을 생각을 하면 난 막 무서워요. 어머니, 정말 그때 내곁에 앉아계셔야 해요.》

《이 세상의 수천수만명의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는데 뭐가 무섭다고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야. 먹고싶은게 뭔가? 말하게.》

《이상해요. 난 아무것이나 다 맛있어요. 먹성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 그 사람은 금년에 틀림없이 흉년이 된다지 않아요. 내가 너무나 먹어대니까, 호호호.》

그날 곽명준이와 조선녀는 객주집에서 저녁을 먹은 다음 인차 총기류들을 실은 말파리를 몰고 소사하로 돌아갔다. 녀사께서는 다리상처의 아픔을 참고 다리목까지 나가 그들을 바래워주시였다.

댁으로 돌아오시니 윤현칠이 안방에 이불을 쓰고 누워있고 박치근은 그의 머리맡에 쭈그리고 앉아 한숨을 쉬고있었다. 알고보니 그들은 곽명준이한테 되게 욕을 먹은것 같았다.

박치근이 제딴에는 보총을 분해했다고 생각했지만 마구 뜯어놓아서 못쓰게 만든것이다. 물론 수리하면 쓸수 있었으나 피로 바꾼 보총을 아이들장난감처럼 제멋대로 다루는 박치근에게 단단히 버릇을 떼주느라고 곽명준이가 호되게 비판을 한 모양이였다. 그가 만약 오발사고로 강반석녀사께서 다리를 상한 사실까지 알았더라면 무슨 변이 났을것이였다.

《사모님, 오늘사고는 다 제 잘못으로 생긴것입니다. 저 현칠은 얼음구멍에 빠져죽겠다고 야단입니다.》

박치근이 기가 질려 얼굴을 짓수긋하고 한숨처럼 중얼거리였다.

인자한 녀사의 눈에 불현듯 엄한 빛이 번쩍이였다. 녀사께서는 윤현칠이 뒤집어쓴 이불을 벗기시였다.

《현칠이, 일어나앉게.》

윤현칠은 울먹울먹하며 일어나앉았다.

《현칠이, 죽겠다는게 무슨 소린가?》

녀사께서 현칠의 어깨를 잡아흔드시였다.

《임자는 대흥툰의 온 마을사람들이 아니, 안도의 수많은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이 임자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린걸 알고있겠지? 수백명 주민들이 그렇게 살려준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겠단 말인가? 그게 도리가 됐나. 죽겠으면 왜놈 하나라두 잡아죽이구 죽을게지 맹랑하게 제 목숨을 끊어? 여태 야학방과 혁명조직에서 무엇을 배웠나? 그런 청년이 어떻게 반제청년동맹원이 됐는지 모르겠네.》

윤현칠은 어깨를 떨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박치근이도 주먹으로 눈물을 씻었다.

《임자네들이 총을 다룰줄 모르니 그런 실수를 할수 있는거야. 오늘 일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군사공부를 열심히 하여 백발백중의 명사수가 될 결심을 다져야지 죽겠다는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상처를 입힌게 죄스러워 그러는것 같은데 하나도 죄스러울게 없네. 난 사실 속으로는 내가 상처를 입길 잘했다고 생각했네. 임자네들이 오늘을 교훈삼아 백발백중의 명사수가 되고 훌륭한 군인이 될거라고 믿었기때문이야.》

《어머니!》

윤현칠은 끝내 자기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병고로 연약해진 녀사의 가슴에 커다란 상체를 기울이며 더 큰 오열을 터뜨리였다.

녀사께서는 여윈 가슴을 떠박지르는 강한 타격과 중량감에 몸을 비칠하다가 청년을 그러안고 잔등을 어루만지시였다.

《현칠인 인제 훌륭한 군대가 될거야. 자, 이젠 그만해. 그만하라구.》

녀사께서 울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쓸수록 윤현칠은 더욱더 어깨를 떨며 울음소리를 높이였다. 박치근이도 꺽꺽 숨막히는 소리를 내며 크게 울었다.

녀사께서는 총상치료를 하기 위해 그 이튿날부터 거처지를 객주집에서 얼마 떨어져있는 최씨성을 가진 혁명호제회 로인네 집으로 옮기였다.

9

무한장도단장귀하

급변한 만주사변에 대처하여 안도현관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관공서, 공안국, 보위단 수좌들의 회합을 하오니 부디 왕림해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장소… 현장사무실
시간… 오후 3시

안도현 현장 손주봉

무한장은 정자체의 붓글로 쓴 공문서를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최고책임자라는 의미로 《수좌》라는 표현까지 쓴 공문이였다.

현장이 이런 회합을 조직해보기는 처음이였다. 자족불욕을 좌우명으로 삼고있는 현장은 직위욕이 없는 사람이고 현재의 고통과 불행을 체념하고 애써 자족을 느끼려고 하는 일종의 무저항주의적인간이였다. 원래 중학교 교원이였던 그는 현장자리를 내놓고 조용한 곳에서 훈장질이나 했으면 하지만 우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아 여의치 못하고있었다. 이런 사람이 만주사변에 대처하기 위한 관공서, 공안국, 보위단 수좌들의 회합을 조직했다는것이 잘 믿어지지 않았다.

(좌우간 회합에 가보자.)

무한장이 현장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방안에는 이른바 현내 관청의 수좌들이 앉아있었다. 그런데 현장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새로 임명된 후꾸모도부현장이 현장 사무탁에서 조금 비켜놓은 안락의자에 앉아있었다.

무한장은 방안사람들을 쭉 둘러보았다. 회합주최측인 관공서에서는 부현장, 사법과장, 인사과장이 와있고 공안국에서는 서장, 부서장, 감찰계장이 참석하였다. 오직 보위단에서만 자기 한사람뿐

이였다. 회합의 격식을 편중없이 갖추자면 보위단의 부도단장 겸 참모장인 무한장의 아들 무태극이도 불러야 했다.
무한장은 주최측에서 보위단을 무시하는것 같아 저으기 불쾌하였다.
《아, 도단장님이 오셨군요. 여기 앉으십시오.》
후꾸모도가 현장 사무탁가까이에 놓인 안락의자를 가리켰다. 그는 나이로 보나 사업년조와 권위로 보나 말그대로 현의 좌상인 무한장을 례절있게 대하였다.
《다 왔으면 빨리 회합을 하지요.》
무한장이 안락의자에 앉으며 후꾸모도에게 말하였다.
《아직 올 사람이 한분 더 있습니다.》
《올 사람이 누군가요? 참, 이 방주인이 없구만.》
《현장님은 몸이 아파 나오시지 못합니다. 이제 오실 한분은 쌍병준씨입니다.》
부현장이 여전히 공손한 태도로 조용히 말하였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무한장에게 주는 충격은 대단히 컸다. 참모장이며 부도단장인 내 아들을 부르지 않고 일개 지단장인 쌍병준을 불렀단 말인가.
범이 제소리를 하면 온다더니 이때 고급털외투에 오소리털모자를 쓴 쌍병준이 방안으로 들어섰다. 빈 안락의자는 사법과장옆에 하나 남아있었다.
《안녕들 하십니까?》
쌍병준은 털모자를 벗고 모두거리로 인사를 하였다.
《거기 앉으십시오.》
부현장은 빈 안락의자를 가리켰다.
쌍병준은 군소리없이 거기에 가앉더니 회의장에 림하는 정중한 태도를 보이려는듯 품속에서 만년필과 수첩을 꺼내였다.
부현장이 현장사무탁의 한쪽 모서리에 손을 짚고 일어섰다.
《자, 그럼 회합을 시작합시다.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장님이 몸이 아파 참석하지 못하고 위임에 의해 제가 회합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본 회합에서는 알려드린것처럼 만주사변이후 문란화되고 무정부화된 현내의 질서를 시급히 수습하기 위한 문제를 토론하고저 합니다. 먼저 제가 실태보고를 하겠습니다.》

후꾸모도는 현장사무탁에서 두툼한 종이장묶음을 집어들고 천천히 읽어나갔다. 만주사변이후 관공서, 공안국, 보위단들에서 업무를 중단하고 제멋대로 돌아친데 대하여, 밀주업이 늘어나고 아편밀매자와 아편중독자들이 많아진데 대하여, 경찰서와 보위단들에서 총기류를 분실한데 대하여 수자를 밝혀가며 구체적으로 통보하였다.

《분실한 총기류들은 어디로 갔겠는가. 무장준비를 획책하고있는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후꾸모도는 이렇게 단정하고나서 지금 안도땅에는 공산주의유령이 떠돌고있다고 하였다. 이제부터 공안국과 보위단에서는 검문단속사업을 강화하여 한놈의 공산주의자도 붙어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안도는 깊은 산림지대이지만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지점에 놓여있기때문에 옛날부터 반란음모자들이 둥지를 틀고 활동한 곳이라고 실례를 들어 밝히고 경각성을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지금 흥륭촌 같은데는 보위단이 순찰도 하지 않고 야경도 주민들에게 맡기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고양이에게 반찬그릇을 지키게 하는것과 같다고 핀잔하였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위험한것은 공산주의입니다. 지금 만주땅에 들어온 일본군은 반항하지 않는 이상 중국인 지주, 자본가, 군인, 관헌들의 소유권과 정치적지위를 그대로 보장해주고있지만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쥐면 우리모두를 소탕해버립니다. 적색폭동에서 본바와 같이 그들은 조그마한 타협도 용서도 모르는 붉은 마귀들입니다. 때문에 장개석은 일본군과 공산당을 대비하면서 일본군의 해독은 피부병정도라면 공산당의 해독은 심장병과 같은 치명적인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장개석이 먼저 반공을 하고 후에 반일을 하자고 주장하는것입니다.》

후꾸모도는 한시간가까이 통보문을 읽었다. 모두들 놀란것은 외지에서 갓 임명되여온 사람이 현내의 실정을 손금처럼 꿰들고있는것이였다. 그를 권력욕이 없고 정치에 무관심한 기술자형의 인간으로 보았던 인상도 완전히 뒤집혀졌다.

무한장도 여간 놀라지 않았다. 더우기 그는 일개 부현장이 그것도 일본인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데 대해 심히 불쾌감을 느끼였다.

후꾸모도는 통보문을 다 읽고나서 의견들을 제기하라고 하였다. 무

한장이 벌떡 일어섰다.

《부현장이 좋은 말을 많이 했소만 우리 보위단에 대한 간섭이 너무 심하오. 현공서가 보위단의 상급인줄 아는가? 흥륭촌이 뭐 어쨌다고? 고양이한테 반찬그릇을 맡긴다고? 어디다 대고 그따위 헛 나발을 불어! 지금 흥륭촌처럼 화목하고 편안한 마을이 어디 있는가. 야경을 누구한테 맡기건 불상사가 없으면 되지 않는가. 뭐, 선반공, 후반일? 그따위 말이나 하겠으면 물러가시오. 아직 여기는 우리 중국사람이 주인이지 너 일본사람이 주인이 아니야! 나는 공산당한테 재산을 빼앗겨 알거지가 될지언정 일본놈의 치하에서 지주질을 하지 않겠다.》

무한장은 고함을 지르고 의자에 앉았다.

잠시 얼음같은 랭랭한 정적이 방안을 짓눌렀다.

《허허허…》

후꾸모도의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긴장한 침묵을 깨뜨리였다.

《제가 어찌 도단장님을 지시하겠습니까. 저의 표현이 잘못된것 같은데 널리 량해하십시오. 저는 다만 경비를 강화하자는 뜻에서 한 말입니다, 허허허. 공산당은 지주를 거러지로 만드는것이 아니라 아예 죽여버립니다. 그에 대해선 좀 깊이 생각해보십시오, 허허허.》

후꾸모도는 조금도 불쾌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밝은 웃음을 지었다.

그러자 얼굴색이 붉은, 긴 말상인 경찰서 서장이 일어나서 장개석이 왜 반공을 먼저 하고 반일을 후에 하자고 주장하는지 리치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무한장에게 엄한 시선을 돌리며 공격하였다.

《예, 공산주의자들은 나라와 민족보다도 계급과 이데올로기를 중시합니다. 때문에 우리도 공산당을 박멸하자면 중국이요 일본이요 하고 나라에 신경을 쓸게 아니라 계급과 이데올로기문제에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총통께서 선반공, 후반일의 슬로간을 내놓은겁니다.》

뒤따라 쌍병준이 주먹을 입에 대고 헛기침을 깇으며 일어섰다.

《저는 검문검속사업을 강화해야 된다는 부현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지금 현내의 질서는 말이 아닙니다. 무법천지입니다. 이 틈을 타서 정말 공산패들이 자기 할짓을 다 할것 같습니다.》

쌍병준은 돈화현, 무송현, 연길현, 화룡현 등 주변현으로 나가는 길목마다에 검문소를 세우자는 의견을 내놓고 자리에 앉았다. 그후 사법과장을 비롯하여 관공서와 공안국의 대표들이 저마끔 한마디씩 발언을 하였는데 모두가 검문소를 세우자는 쌍병준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였다. 그것은 결국 부현장 후꾸모도에 대한 지지의 표시였다. 령리한 사람들은 모두 이제는 반일을 하지 말아야 무사히 지낼수 있다고 생각하고있는것이다.

무한장은 그들에게서 배신당하고 모욕을 받는것만 같아 눈을 부릅뜨고 이 사람, 저 사람 노려보았다. 저 시라소니같은것들이 일본군이 쳐들어오면 화를 입을것 같아 벌써 한놈의 일본부현장한테 굽신거리고있구나.

분통이 터졌다.

그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 《더러워서 나는 가겠다. 나는 먼저 반일이고 후에가 반공이다.》하고 웨치고 마루방을 탕탕 울리며 나가버렸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이 없었다.

이튿날부터 안도현내에 7개의 검문소가 생겨 주민들의 통행에 대한 검문검속을 하였다.

10

강반석녀사께서는 주민들에 대한 검문검속이 심해지고있던 2월초에 소사하로 이사하시였다.

처음 그이께서는 낡은 집을 수리한 토기점골의 어느 한 집에 와계시였다.

안도현소재지에서 북쪽으로 40여리 올라가면 모래불을 누비며 동북방향으로 흘러가는 자그마한 강이 있다. 이 강을 건너 나지막한 산등을 넘어서면 펑퍼짐한 골짜기가 나지는데 소사하사람들은 이 골안을 토기점골이라고 한다.

하소사하에서 살던 김병일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토기를 구워팔면서부터 집이 한두채밖에 없던 이 적막한 골안에 살림집이 부쩍

늘어나고 토기점골이라는 새 이름이 생겨났다. 골안을 따라 한참 내려가면 무성한 갈발속으로 실개울이 흐르는데 개울좌우에 세채의 귀틀집이 서있다. 개울 오른켠 첫번째의 추녀낮은 이영집이 바로 강반석녀사께서 이사해오실 집이고 그뒤로 구당서기 김정룡과 농민협회 회장 김두만의 집들이 있었다. 집주변에 갈발이 펼쳐져있어 이 마을을 토기점골 갈발덕마을이라고 하였다.

소사하관내에는 여섯개의 마을이 띠염띠염 널려있었다.

그중 쌍병준이가 있는 소사하 본마을만이 30여호의 가옥이 있는 큰 마을이고 그밖의 강영툰(하소사하), 사하툰, 양초구, 동남차 마을들은 대여섯채 또는 여라문채의 집이 널려있는 작은 부락들이였다. 토기점골 갈발덕마을은 소사하부락에서 서북쪽으로 5리 떨어진 곳이였다.

녀사께서는 갈발덕에 새로 지은 집 구들이 아직 마르지 않아 림시 토기점골 웃마을에 있고 가구와 부엌세간들만 먼저 새집에 가져다놓으시였다.

부엌이 달린 단칸방을 절반 막아 웃방을 헛간처럼 쓰고 아래방에 단출한 가구들을 들여놓았는데 집안물건은 여전히 손재봉기 한대, 신문으로 바른 나무궤짝, 이부자리, 앉은책상이 전부이고 부엌세간으로는 솥 두개와 나무함지, 대버치, 간단한 식기류들과 헌 바가지가 있을뿐이였다.

녀사께서 소사하로 이사해오실무렵 정업툰의 반일부녀회 분회장 김순애는 하소사하로, 안선옥은 무주툰으로 조직적으로 이사하였다.

강반석녀사께서 토기점골에 이사해오신지 사흘째되는 날 저녁 소사하농민협회 회장 김두만의 안해인 최정숙이네 집에서 반일부녀회 핵심조직원들의 모임이 있었다. 소사하지구에는 다만 두집이 무소속일뿐 그밖에는 모두 혁명조직원들의 집이여서 무슨 일을 하든 안전하였다. 현내의 관헌들과 경찰들은 소사하중심구역을 제외한 무주툰, 동남차, 양초구 등 여러 마을들이 습지대와 수림지대에 몇집씩 앉아있는 인구밀도가 매우 성근 지역이여서 관심밖에 두고있었다.

소사하의 지주 쌍병준이조차도 깊은 수림속에 대여섯채씩 서있는 산골마을들에 혁명조직이 꾸려져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다만 소작료 3.7제를 요구하여 자기 집에 드나든

50리밖에 있는 대사하 고등창의 농민협회 회장 김주현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였으나 그를 공산당패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김주현을 공산당패라고 생각지 않은 까닭은 그가 한때 고등창에 거처지를 정하고 적색폭동을 선전하며 돌아다니던 최동화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는 말을 들었기때문이였다. 어찌다 최동화와 만나면 개와 고양이처럼 싸운다는것이였다. 최동화는 적색폭동이 실패한 이후 고등창에서 아예 자리를 뜨고 자취를 감추었다. 쌍병준은 앓는 이 뽑은것처럼 시원해하였다. 경찰을 풀어 잡으려고 해도 기름쥐처럼 살살 빠져나가는 최동화는 사실상 우환거리였다.

황량한 갈밭이 설레이는 이 적막한 땅에 안도지구 구당위원회가 있고 장차 일본제국주의를 쳐물리치고 조선을 해방하실 **김일성**동지의 어머니가 와계시게 된다는것을 적들중에는 누구도 알고있는 놈이 없었다.

세상사람들은 근간에 만주땅을 격동시키며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김일성**과 김성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서로 다른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이날 최정숙이네 집에는 구당서기 김정룡의 안해인 남철옥, 무송반일부녀회출신으로서 최근 소사하지구로 거처지를 옮긴 조선녀(소사하 본마을), 김순애(하소사하), 정업툰에서 이사해온 안선옥(무주툰) 등 소사하지구의 핵심부녀회원들이 모이였다. 이들은 부녀회모임을 지도하러 내려오게 된 구당산하 당원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좁은 방안에 한가득 모여앉아 이야기들을 주고받고있었다.

조선녀가 소사하지구 부녀회조직을 책임진 최정숙에게 민망한 표정을 짓고 조용히 속삭이였다.

《난 김순애아주머니와 저 안선옥이가 소사하로 이사해왔다는건 알고있었지만 강반석어머니가 토기점골로 오신줄은 전혀 모르고있었어요.》

그러자 남철옥이가 웃으며 응대하였다.

《사모님이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우리 애 아버지(김정룡)가 말파리 한대를 가지고 가서 조용히 이사짐을 옮겨왔어요. 이제 며칠있으면 요 앞집에 이사오시게 돼요. 아직 구들이 마르지 않아서… 그런데 사모님이 어찌나 수척해지셨는지 정말 걱정이예요. 그

래서 구당에서 소사하에 용한 의원을 데려왔는데 그 령감은 어떻게 고쳐드리겠는지.》

그는 녀사께서 총상을 입은 몸으로 무기공작을 지도하느라 더욱 병약해지신것 같다고 걱정하였다. 윤현칠의 권총오발사고로 녀사께서 총상을 입은 사실이 이제는 조직원들속에서는 비밀로 되지 않았다.

이때 마당에서 남자의 기침소리가 들려 부녀회원들은 일제히 자리를 정돈하였다.

최정숙이 재빨리 부엌으로 내려가는데 김정룡이 회색갖저고리를 입은 강반석녀사를 모시고 들어왔다.

녀사께서는 아직도 조금씩 다리를 저시였다.

김정룡은 겨울바람을 막느라고 봉해놓은 지게문앞에 서서 녀사를 둘러싼 녀인들에게 말하였다.

《자, 조용들 하시오. 오늘 회의지도를 위해 구당위원회에서는 강반석녀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어마나!》

어느 녀인인가 저도 모르게 놀란 소리를 질렀다. 그들은 자기들의 회의를 지도하러 나오는분이 강반석녀사이신줄은 몰랐던것이다.

녀사께서는 인자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회원들은 녀사를 모신것을 더없이 기뻐하면서도 가슴을 허비는듯한 아픔으로 눈물을 머금었다. 문창호지로 스며든 붉은 석양빛에 비친 녀사의 얼굴이 너무도 수척했기때문이였다.

살이 쪽 빠진 녀사의 창백한 얼굴빛, 잔주름이 잡힌 이마에 내배인 촉촉한 땀기, 바른 가리마를 탄 머리에 다문다문 섞인 서리같이 하얀 오리들… 하지만 녀사의 어글어글한 눈에서는 무한한 힘과 열정이 용솟는듯 강렬한 빛이 번쩍거리고있었다.

《형수님, 그럼… 전 가겠습니다.》

김정룡은 인사를 올리고 돌아섰다. 만경대일가분의 친척으로 가장하고 호적등본을 올린 김정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녀사의 존칭을 쓰지 않고 형수님이라고 불렀다.

《자, 그럼 시간을 끌지 말고 회의를 시작하자요.》

녀사께서 회의를 재촉하시자 모두가 정숙한 몸가짐을 하고 자리에

앉았다. 필요이상의 격식을 차리는 회의와 질질 시간을 늘쿠는 번다한 토론을 싫어하는 녀사께서는 이날도 격식을 차리지 말고 실속있는 토론들을 제꺽제꺽해서 회의를 빨리 끝내자고 하시였다.

부녀회를 책임진 최정숙이 첫 발언을 하였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안건은 〈부녀회원들은 항일무장투쟁을 위한 무기공작에 적극 참가하자〉입니다.

보고를 하기 전에 먼저 회의지도를 나오신 강반석녀사께서 〈무장은 우리의 생명이다! 무장에는 무장으로!〉라는 호소문을 랑독하겠습니다.》

이 호소문은 **김일성**동지께서 명월구회의에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방침에 기초하여 구당위원회에서 작성한것이였다.

녀사의 호소문랑독이 있은 다음 최정숙은 명월구회의이후 소사하지구 반일부녀회원들이 무기공작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데 대하여 자료적으로 보고하면서 특히 조선녀와 안선옥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무기공작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것은 초보에 초보라고 하였다. 앞으로 항일대전을 하자면 무수히 많은 총이 요구되므로 무기공작문제는 가장 절실한 문제로서 계속 중대한 과업으로 제기될것이라고 하였다.

최정숙은 이렇게 전제하고 무기공작과 관련하여 긴급히 제기된 문제를 이야기하였다.

《지난해 12월 옹성라자에서 당 및 공청간부들의 회의가 있은 후부터 동만각지의 혁명조직들에서 무기공작을 적극적으로 벌리고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도에서도 무기공작이 활발히 벌어져 적지 않은 총기류들을 구입했습니다. 두만강근처의 어느 녀인들은 빨래방치로 악질순사놈의 대갈통을 까고 총을 빼아냈다고 합니다.》

최정숙은 이처럼 동만각지의 혁명군중들은 《무장에는 무장으로!》라는 구호를 들고 떨쳐나서 일본군대와 일만경찰들, 친일관료들과 지주들에게서 무기를 빼앗아내기 위한 투쟁을 결사적으로 벌리고있다고 하면서 《요창부요밍! (무기만 요구되고 목숨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중국말)》이란 말이 널리 퍼지고있다고 하였다.

《밥상다리를 내대고 〈요창부요밍!〉하고 소리치면 원쑤들은 부들부들 떨면서 총을 내놓습니다. 여기 조선녀아지미도 혼자서 경

찰서에 들어가 장총 두자루를 걸어가지고 나왔어요.》
부녀회원들의 놀란 시선이 부엌쪽에 한쪽 무릎을 세우고 단정히 앉아있는 조선녀에게 쏠리였다.
《저렇게 고운 아지미가 담두 크다야. 아지미두 빨래방치로 순사들을 까눕혔소? 밥상다릴 내놓고 〈요창부요밍!〉 했소?》
양초구에서 온 중년녀인이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조선녀대신 보고자가 빨래방치로 순사를 까눕힌게 아니라 경찰서 옆을 지나가다가 보초병도 없고 경비실도 비여있기때문에 거기에 있는 보총 두자루를 걸어가지고 나왔다고 하였다.
무기공작경험담으로서는 너무도 싱거운 이야기였다. 그러나 그것은 일상적으로 무기공작에 관심을 가지고있을뿐아니라 나라를 찾기 위한 투쟁에 한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여있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이였다.
보고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나서 회의안건으로 제기된 기본문제를 토의에 붙이였다.
《지금 화룡에서 동남쪽으로 수백리 떨어진 평두산근처에는 안도에 보낼 신식보총 열다섯자루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검문검속이 심해져서 총을 날라오기가 힘들게 됐어요. 아다싶이 여기 안도에도 검문소가 여러곳에 새로 생겨나지 않았나요.》
보고자는 만주사변으로 하여 일시 무정부화되고 마비되였던 통치기관들이 정신을 차리고 경비를 강화하고있다고 하였다. 특히 엄중한것은 일제의 강점구역이든 아니든 모든 통치기관들이 반공화되여가고있는것이며 심지어는 반일구국군들까지도 먼저 반공을 하고 후에 반일을 하자고 부르짖고있는것이라고 하였다.
《총기류를 날라오다가 경찰서나 보위단에 붙잡혀도 죽고 구국군의 눈에 들켜도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총기류들을 빨리 훈련소가 있는 소사하산과 대사하산에 날라가야 훈련도 할수 있고 항일군대도 무을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날라오겠는가. 지금 소사하에서는 조직별로 이 문제가 토론되고있습니다. 우리 소사하산에 날라와야 할 무기이기때문이예요. 그럼 이제부터 서슴없이 의견들을 내놓으세요.》
부녀회원들은 고개를 소곳한채 잠자코 앉아있었다. 최정숙이 빨리

의견들을 내놓으라고 재촉하였다. 녀사께서 웃으며 너무 급하게 다그지 말고 회의참가자들에게 다문 몇분이라도 시간을 주어 생각해볼수 있게 하자고 하시였다.

《그럼 10분동안 휴식하면서 방안들을 생각해보세요.》

최정숙은 콩알만 한 낡은 손목시계를 차고있었다. 그는 소학교 졸업생으로서 안도의 반일부녀회원들중에는 조춘희 다음으로 높은 학력을 가진 녀인이였다. 그래서인지 그는 우월감이 있고 일반부녀회원들의 의견을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일종의 소총명이 있는 녀성이였다. 지난 기간 녀사께서 그 점에 대해 여러번 충고하시여 이제는 많이 고쳐졌다.

지금도 최정숙은 이 녀자들한테서 무슨 신통스러운 방안이 나오랴 하는 실망감에 잠겨있었다.

10여분 지나 속회를 하였으나 여전히 신통한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

반시간 좋이 지나서 김순애가 일어나서 화룡과 안도의 지형적특성을 이야기하면서 네댓사람이 등짐을 지고 사람의 왕래가 없는 험한 산을 타고 다니면 될것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의견은 조선녀한테 반박당하였다. 평두산에서부터 소사하훈련소까지 몇백리나 되는 무인지경의 길없는 산을 타고다니는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여름철도 아닌 이 엄동설한에 어방대고 산을 타다가 방향을 헛갈리면 큰일이라고 하였다. 길없는 산을 타고 무기를 운반하자면 온통 생눈밭이여서 행군하기도 힘들거니와 어차피 발자국을 남기게 되므로 재미가 없다고 하였다.

《고급유개마차 한대와 중국귀부인옷을 구해주시면 제가 혼자서 열다섯자루의 총을 날라오겠어요. 본가집에 나들이다니는 중국대부호의 며느리로 가장하면 됩니다. 고유수에서 그런 공작을 해보았습니다.》

《선녀는 중국말이 서툰데 어떻게 중국 귀부인행세를 했나?》

조선녀한테 반박을 당한 김순애가 따져물었다.

《중국말 잘하는 소년탐험대원을 심부름군아이로 가장시켜 데리고 갔어요. 여긴 그런 아이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조선녀는 유개마차는 지금 소사하산훈련소에 와있는 진춘발에게

조력자 몇명을 붙여주면 며칠새에 만들어낼것이라고 하였다. 중국귀부인옷은 민태감로인에게 부탁하면 무한장의 며느리를 통해 구할수 있다고 하면서 안도의 검문소를 통과하는것도 문제로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송강검문소는 경찰서 순사들이 서지만 송강이남의 검문소들은 모두 무한장산하의 보위단원들이 서기때문에 순사들보다는 한결 낫고 유리하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고급유개마차와 중국귀부인옷을 구해달라고 하던 조선녀가 종당에는 자체가 모든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부녀회원들은 모두 혀를 차며 감탄하였다. 누구보다도 최정숙이 강한 충격을 받았다. 사실 그는 무송반일부녀회출신들까지도 눈아래로 내려다보고있었다. 그들의 학력을 보면 모두 몇년전까지만 하여도 낫놓고 기윽자도 모르는 문맹자들이였다. 정규교육이 아니라 머리가 굳어진 성인시기에 야학에서 문맹을 퇴치한 녀인들이 알면 얼마나 알고 하면 얼마나 하겠는가. 이것이 야학출신에 대한 최정숙의 관점이였다. 그러나 이 시각 그는 조선녀의 식견과 지성이 자기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자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인물고운 우리 선녀가 귀부인차림을 하고 마차에 올라앉으면 모두 속아넘어갈거요. 화룡경찰들은 통행증은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굽석굽석할거야.》

김순애가 미모의 중국귀부인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굽석거리는 순사들의 흉내를 내서 방안에 웃음보가 터졌다.

웃음이 가라앉았을 때 최정숙은 강반석녀사의 의사를 조심스레 물었다.

《부녀회원들은 모두 조선녀동무의 의견에 찬성하는것 같은데 사모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회장의 의견은 어떤가요?》

녀사께서 조용히 반문하시였다.

《모험적인데가 없지 않지만 십분 가능하며 성공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녀사께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그런데 그 일을 선녀에게 맡기면 안될것 같아요.》하고 심중한 표정을 지으시였다.

최정숙은 의아해하였다. 다른 부녀회원들도 영문을 몰라 수선거리였다. 녀사께서 무기운반과업을 선녀에게 맡기면 안되겠다고 하시는 까닭을 정확히 알고있는 사람은 조선녀자신뿐이였다.

총상을 입으신 그날 조선녀의 몸이 가볍지 못하다는것을 알게 된 그이께서는 임신부가 너무 놀라거나 긴장하면 애기를 지울수 있다고 하시면서 무기공작을 중단시키도록 구당위원회에 제기했었다. 하물며 그때보다도 몇갑절 더 위험하고 모험적인 오늘의 무기공작에 선녀를 내보내자고 하실수 없었다.

그이께서는 선녀가 일어서려는것을 보고 좌중을 둘러보며 앞질러 말씀하시였다.

《선녀는 임신부예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있는것처럼 임신부가 너무 놀라면 애기를 지울수 있습니다. 몸안에 어린 생명을 가지고있는 선녀동무에게 그런 과업을 맡기는것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녀인들은 또다시 술렁대며 조선녀에게로 눈길을 옮기였다.

김순애가 움쭉 일어섰다.

《아이를 대여섯이나 뽑아낸 이 다산모가 옆에 있는 선녀의 몸에 태기가 있는것도 몰랐으니 정말 한심합니다. 내가 귀부인역을 해보겠어요. 부자집귀부인들은 선녀처럼 인물이 고운게 아니라 사실은 나처럼 얼굴이 울퉁불퉁하고 못생겼어요. 내 한번 부자집마나님행셀 해봅시다.》

김순애는 롱조의 말처럼 하였으나 그의 울딱불딱한 얼굴에는 결연한 빛이 짙게 어려있었다. 그러나 조선녀가 대뜸 반대하였다.

《순애아주머니는 안됩니다. 왜 안되는가? 첫째로 중국말을 전혀 못합니다. 서툴게 뜯개말이라도 번질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순애아주머니는 총을 쏠줄 모릅니다. 털어놓고말해서 이번 공작에서는 최악의 경우 총격전을 벌릴것도 예견해야 합니다. 셋째로 순애아주머니는 체질적으로 귀부인역을 못합니다.》

《야 선녀야, 너 이 김순애를 어떻게 보구 하는 소리야. 내가 왜 못해, 총 쏘는거야 배우면 되는거지. 너도 아다싶이 무송에서 난 가갸거겨를 이틀동안에 다 뗐다. 그까짓 총쏘는거야 30분이면 된다. 중국말도 너만큼은 한다. 귀부인역은 너보다 더 잘할거다. 무송에서 내가 지주녀편네역을 한게 생각나지 않니? 너만 할수 있다고 생각하

는게 개인영웅주의야!》

《사모님, 제 생각에도 순애아주머니는 안될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두의 시선이 안선옥에게로 쏠리였다.

녀사께서는 당돌하게 일어나서 야무지게 말하는 안선옥을 대견하게 바라보시였다. 안선옥은 부녀회원들을 둘러보며 다시금 제기하였다.

《부녀회 어머니, 언니들, 제가 해보겠어요. 전 할수 있어요. 저는 총을 쏠줄 알아요.》

녀사께서는 가슴이 찌릿하시였다. 위험한 일에 앞다투어 발벗고 나서는 부녀회원들을 보니 더없이 기쁘시였다.

안절부절하던 선녀가 또 일어났다.

《선옥이야말로 이런 일은 할수 없어요. 저 처녀 연기술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연극에 뽑혔다가 종시 못했어요. 중국말도 못하고… 이번 공작에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단지 무기공작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항일무장투쟁을 위한 전반준비사업에 엄중한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잘나서 이 일을 할수 있다고 나서는게 아닙니다. 우월감도 개인영웅주의도 아니예요. 저는 고유수에서 이런 일을 해본 경험이 있기때문에 나서는거예요.》

조선녀는 눈물이 글썽해서 강반석녀사를 바라보며 애원하였다.

《어머니, 전 애기를 지우지 않습니다. 절대로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애기를 지울수 있어요. 조바심과 걱정때문에… 여러분, 저와 저의 어린 생명을 아끼신다면 제발 저에게 이 일을 맡겨주세요.》

방안엔 숙연한 침묵이 흘렀다. 녀사께서는 눈앞이 뿌잇해져서 선녀의 모습이 안개속에 잠겨있는것 같으시였다.

《사모님, 선녀가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어찌겠어요. 저 동무의 의견을 눌러버리면 안될것 같아요.》

최정숙은 옷고름으로 눈굽을 찍으며 귀속말로 속삭이였다.

녀사께서는 묵묵히 앉아계시였다. 그이께서 조선녀의 절절한 제기에 선뜻 응해나설수 없는 또 하나의 리유가 있었다. 지금 그의 남편 곽명준은 푸르허마을에 가있었다. 푸르허공작은 무기공작에는 대비도 되지 않는 위험한 공작이였다.

푸르허마을은 안도에서 돈화를 비롯한 중요지역으로 나가는 길목에 있는 마을이였다. 돈화지역과 련락을 취하려면 반드시 푸르허마을을 거쳐야 하는데 이 마을은 구당위원회 서기 김정룡의 표현에 의하면 《반동마을》, 《밀정마을》이였다.

김일성동지로부터 과업을 받고 구당위원회가 지난해 6월부터 다섯번에 걸쳐 공작원을 파견하였는데 2명의 공작원이 희생되고 3명의 공작원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채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돌아왔다. 이상하게도 공작원이 가기만 하면 며칠 안있어 돈화에 주둔한 일제의 기마부대가 푸르허에 들이닥쳐 공작원이 거처한 집에 달려들었다. 이 마을에 적들과 내통하는 반동단체가 아니면 밀정이 들어박혀있는것이 확실하였다. 소사하는 두 집이 무소속이고 전체가 다 조직원들의 집이지만 푸르허는 반대로 한 집이 조직원이고 전체가 다 공산당이라면 일본놈들보다도 더 미워하는 무소속집들이였다. 이 마을을 혁명화하지 않으면 돈화지구나 남만지구로 마음대로 다닐수 없을뿐아니라 항일무장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기본거점인 소사하와 대사하, 류수하마을의 안전을 담보할수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공작경험이 많은 곽명준이가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자진해서 푸르허마을로 들어갔었다. 이것은 당원들만이 알고있는 비밀이였다. 조선녀도 남편이 어디로 공작을 나갔는지 알지 못했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이제 또 조선녀를 위험한 곳으로 보내자니 가슴이 떨리시였다. 그러나 조선녀를 막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되시였다.

《회장, 그럼 가부를 물어봐요.》

《네.》

최정숙은 마주앉아있는 부녀회원들을 엄숙히 둘러보았다.

《조선녀동무를 무기공작대에 파견하는데 대해 동의하는 회원들은 손을 드세요.》

운명의 시각에 봉착한 부녀회원들은 손을 들가말가 좀자르다가 김순애와 회장이 먼저 손을 높이 쳐들자 하나둘 손이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안선옥을 제외한 전원이 동의하였다.

《핵심부녀회원들의 가부는 결정되였습니다. 그러나 구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할것은 오늘 토의된 문제는

절대비밀이라는것입니다. 왜 비밀을 지켜야 하는가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거예요. 그러면 회의지도를 나오신 강반석어머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최정숙은 강반석녀사를 돌아보며 조금 뒤로 물러앉았다.

녀사께서는 무릎을 짚고 일어나시였다. 순간 빈혈이 일어나 잠시 가만히 서계시였다.

부녀회원들모두가 앉아서 말씀하시라고 하였으나 녀사께서는 앉지 않으시였다.

《회의도중 여러 회원들이 좋은 이야기들을 하였기때문에 특별히 말할것이 없습니다. 혁명정세에 대해서 조금 말하겠어요.

다 아는것처럼 일본놈들은 만주땅을 끝내 삼켜버렸습니다. 신문을 보니 일본놈들은 소위 대본영의 어전회의에서 청나라의 마지막황제인 부의를 〈황제〉로 하는 만주국을 세우도록 결정했다고 합니다. 일본놈들이 조선에서는 〈총독부〉를 세워놓고 그안에 몇놈의 친일파들을 끌어넣었지만 만주에서는 반대로 부의를 〈황제〉로 내세우고 그밑에 일본고문관들을 앉히려고 합니다. 조선과 만주의 통치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모두 똑같은 식민지통치예요. 허수아비 〈황제〉를 올려앉힌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격이예요.》

녀사께서는 기침이 나와 말씀을 잠간 중단하시였다.

《돈화에까지 일본군이 들어왔습니다. 돈화에서 안도는 멀지 않아요. 기필코 얼마후에는 왜놈의 피묻은 수레바퀴가 안도에도 굴러올거예요. 놈들은 벌써 안도에 들어올 차비를 하고있어요. 그것은 후꾸모도라는 일본관료가 부현장자리에 앉아있는것만 보아도 알수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친중분자인것처럼 너스레를 떨고있지만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지금 현소재지에는 일본식건물이 일떠서고있어요. 장차 왜놈들이 와있을 집입니다. 그놈은 지금 선반공, 후반일을 해야 한다면서 중국사람들과 조선사람들사이에 쐐기를 박아넣으려고 해요. 그놈의 잔꾀에 넘어간 구국군들은 낯선 조선청년들이 자기들의 주둔지역에 얼씬거리기만 해도 공산당으로 의심하고 잡아간다고 합니다. 새로운 위협이 도래했어요.》

부녀회원들의 얼굴빛이 어두워졌다. 녀사께서는 주먹을 들고 힘있

게 말씀하시였다.

《그러나 우리가 굳게 뭉치기만 하면 겁날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반일구국군들속에 들어가 해설사업을 잘하면 그들을 능히 쟁취할수 있어요. 이제 용감한 조선의 젊은 무사들이 여기 소사하로 무리를 지어옵니다. 지금도 소사하산과 대사하산에서는 청년들이 군사훈련을 하고있어요. 우리 부녀회원들은 비록 녀자의 몸이지만 항일무장군을 조직하는 일에 전심전력으로 도와나서야 할거예요. 나라없는 백성은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는것을 우리는 뼈가 저리도록 체험했지요. 모두 나라찾는 싸움에 나설 때가 왔어요. 모두다 일어나자요.》

《왜놈쪽발이를 때려부시자요!》

김순애가 벌떡 일어나서 주먹을 내뻗치며 구호를 웨치였다.

《때려부시자! 때려부시자!》

우렁찬 녀성들의 함성이 벽을 무너뜨릴것 같았다.

밖은 이미 어두워졌다.

회의는 끝났다. 부녀회원들은 녀사를 모시고 앞집으로 걸어갔다. 녀사께서 이사해오실 집이였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그이께서 마당으로 들어서시는데 누구인가 뒤에서 《어머니!》하고 불렀다.

《선녀!》

《어머니!》

조선녀는 달려와 녀사의 품에 안기였다.

《선녀, 나는 생각했네. 귀부인의 심부름군총각으로 누굴 붙여보낼가 하고… 우리 철주가 맞춤해. 그 애는 중국말도 잘하고 공작경험도 있지. 연기를 하는데서 그 애를 따를만 한 아이는 없어.》

《어머니이—》

조선녀는 세차게 흐느끼였다. 무엇때문에 그렇게 우는지 그자신도 알지 못했다. 유난스레 반짝이는 밤하늘의 뭇별들이 갈발 설레이는 조그마한 덕마을을 의미심장히 굽어보고있었다.

그로부터 며칠후 귀부인차림을 한 조선녀와 머슴행색을 한 김철주가 화려한 유개마차를 타고 화룡현 평두산쪽으로 떠났다.

유개마차의 마부는 진춘발이였다.

11

강반석녀사께서는 밤이 퍼그나 이슥했을 때 부엌에서 소여물을 끓이시였다. 소사하에 와서 다문 몇평이라도 땅을 얻어 농사를 지으려고 서문밖마을을 떠날 때 마춘욱의 도움으로 윤두소 한마리를 끌고 오시였다. 잔등에 어룽어룽한 무늬가 진 중소였다. 이제는 녀사의 기력으로 중소 한마리를 먹이기도 힘에 겨우시였다. 밭김을 단숨에 매고 소꼴도 잠간새에 한임이 되게 단을 묶으시던것은 아득한 옛일로 되였다.

부엌아궁이에서는 분비나무장작개비가 탕탕 소리를 내고있고 소가마로 쓰는 큰 솥에서는 소여물이 벌렁벌렁 끓었다. 마당에 매놓은 칡소는 배가 고픈지 엄매—엄매— 영각을 하며 보채였다.

소여물은 자제분들이 맡아서 끓이고 나르고 했지만 연길쪽으로 무기공작을 간 김철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며 막내는 요즘 소사하산훈련소에 가서 형님들을 따라다니며 군사훈련을 하고있었다.

녀사께서 보채는 칡소한테 소여물을 두버치나 날라다 먹이고나서 돌아서시려는데 장정 셋이 마당으로 불쑥 들어섰다.

《어머니!》

귀에 익은 차광수의 목소리가 크게 울리였다.

《광수로구만. 임잔 덜렁광창이란 말을 듣게 생겼네. 언제 봐야 무슨 변이 난것처럼 소리치며 마당에 들어서군 하니 말일세.》

녀사께서는 즐겁게 롱담을 하시였다. 요즘 차광수는 자주 녀사의 댁에 찾아오군 하였다. 어떤 때는 녀사의 댁에서 자고갔다. 무슨 볼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녀사를 뵙고싶어 찾아오는 때가 많았다.

두 젊은이가 녀사께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리자 차광수가 그들을 소개하였다.

《어머니, 이 사람들이 어머니를 뵙고싶어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 동문 박훈이라고 황포군관학교출신인데 량손에 권총을 쥐고 순식간에 왜놈들을 열놈, 스무놈을 해제끼는 싸움군입니다.》

훤칠한 키에 어깨가 돌담벽같이 든든해보이는 박훈을 소개한 차광

수는 옆에 서있는 건장한 체구의 청년을 가리키였다.
《이 동무는 김일룡이라는 무관인데 독립군에서도 이름을 내고 아라사에 가서 군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김일룡은 소사하 구당위원이지만 늘 소사하산훈련소에 나가있어서 녀사께서 이날 처음으로 보시였다.
《나라의 장수들이 다 모여드는군. 김일룡은 우리 구당사람이니 이름을 들을대로 들었고 박훈에 대한 소문도 여러번 들었네. 옹성라자에서 〈국수대감〉이란 별명을 받았다면서…》
녀사께서 하시는 롱조의 말씀에 세 젊은이는 웃음을 터뜨리였다.
《예, 국수대감이 훈련대감이 됐습니다. 이 동무들이 훈련소 군사교관들입니다. 앞으로 **김일성**동지는 우리 군대 사령관이 되고 이 동무들은 군사고문으로 있게 됩니다.》
《우린 이 차광수를 참모장 시킬가 하는데 좀 두고봐야 될것 같습니다. 맑스주의는 잘 푸는데 군사엔 아예 백지입니다. 하하하.》
박훈이 목을 제끼고 큰소리로 웃었다.
《어머니, 사실 난 책상물림이지요. 군사를 전혀 모르니 참모장이 아니라 병졸구실도 제대로 못할것 같습니다.》
《이제 배우면 되네. 예로부터 문무를 겸비한 장군이 진짜 장군이라고 했네. 을지문덕, 강감찬, 리순신 같이 당대에 이름을 떨친 장군들은 다 문무를 겸비하지 않았나. 이거야 임자네들이 나보다 더 잘 알테지. 이제 차광수가 그 학식에 군사까지 터득하면 대단한 장군이 될거야.》
녀사께서는 정색을 짓고 애틋이 세 젊은이를 둘러보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이건 그저 해보는 소리가 아니네. 나는 정말 임자네들이 모두 항일군의 명장이 되여 하루빨리 나라를 찾아주길 바라네. 깊은 밤 방안에 누워있느라면 피흘리며 쓰러지는 우리 동포들의 참혹한 정상이 자꾸만 눈앞에 감쳐들어 잠들수가 없네.》
《어머니, 기어이 나라를 찾겠습니다.》
차광수가 주먹을 부르쥐며 격동된 어조로 말씀올리였다. 박훈이와 김일룡이도 비분강개한 모습을 하고 서있었다.
《자, 어서들 방으로 들어가세.》

녀사께서는 그들을 방으로 들여보내고 부엌으로 내려가시였다. 댁에 찾아온 귀한 젊은이들에게 대접할 음식이 없어 두손을 맞잡고 잠시 서성거리시였다. 마침 뒤집에서 반찬감으로 쓰라고 가져다놓은 감자가 양재기에 담겨있었다. 그것이라도 삶을 작정으로 양재기에 물을 붓고 숟갈로 껍질을 벗기기 시작하시였다.

《어머니, 뭘 하십니까. 여기 오십시오. 이걸 보십시오.》

차광수가 방안에 무엇이 있는지 빨리 들어오시라고 독촉하였다.

《들어가겠네. 조금만 기다리게.》

손이 빠르신 녀사께서는 잠간새에 감자껍질을 다 벗기고 새물로 깨끗이 씻어낸 다음 솥안에 쏟아넣으시였다.

솥뚜껑을 닫고 방안으로 들어가시니 노전바닥에 약초와 첩약봉지들이 무져있었다.

《이 동무들이 어머니께서 앓으신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첩약을 많이 지어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박훈동무가 직접 캔 단너삼입니다.》

《임자네들의 성의가 고맙네만 다시는 이러지 말게. 임자네들이 독립운동만 잘하면 내 병은 저절로 낫네.》

녀사께서는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성의가 고마와 방바닥에 쌓인 약초며 약봉지들을 하나하나 만져보시였다. 박훈이 그러시는 녀사의 손목을 한손으로 잡고 한손으로 그이의 여위고 터갈린 손을 쓸어만지였다.

《어머니,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박훈은 그냥 녀사의 손을 쓸어만지였다.

《뭘 이러나. 나이든 녀자의 손이 이렇지… 참, 푸르허에 간 명준이는 아직 오지 않았나?》

녀사께서는 차광수를 돌아보며 말머리를 돌리시였다.

《오늘 점심녘에 돌아왔습니다.》

《그래?… 갔던 일이 어떻게 됐다나?》

녀사께서는 불현듯 조바심으로 가슴을 조이시였다.

차광수는 대답대신 한숨을 지었다. 그의 얼굴에 비친 어두운 그늘은 공작이 실패했다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녀사께서는 손맥이 풀리시였다.

차광수는 래일 아침 구당위원회에서 **김일성**동지의 참가하에 푸르

허공작에 대한 총화사업이 있다고 하였다. 그동안 **김일성**동지께서는 소사하훈련소에서 훈련정형을 보아주면서 인민들을 항일투쟁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격문을 비롯한 각종 선전물들과 교양자료들을 집필하시였다. 한편 그이께서는 다가오는 봄철에 지난해 가을의 추수투쟁과 같은 춘황투쟁을 조직하실 준비를 하고계시였다.

차광수는 시름에 잠겨 덤덤히 앉아있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참, 화룡현에 간 사람들의 소식은 아직 없습니까?》

《아직 없네. 이젠 돌아올 때가 됐는데…》

녀사께서는 실패한 푸르허의 소식을 들으니 화룡현 평두산으로 간 무기공작대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시였다.

부엌에서 구수한 냄새가 풍겨왔다. 벌써 감자가 익어가는 모양이였다. 녀사께서는 약봉지들을 보자기에 싸서 앉은책상밑에 밀어넣고 부엌으로 내려가시였다.

솥뚜껑을 여시자 물이 다 잦아버린 솥안에서 노르끼레한 감자알들이 빠작빠작 소리를 내고있었다. 나무저가락으로 감자를 찔러서 익었는가를 확인한 다음 양재기를 가져다놓고 밥주걱으로 퍼담으시였다. 이윽고 감자봉우리가 진 양재기를 들고 방안으로 들어가시였다.

《자, 삶은 감자라도 맛보게.》

녀사께서는 다시 부엌에 내려가 김치사발과 소금종지 그리고 수저를 담은 나무그릇을 들고 들어오시였다.

《감자가 먹고싶었는데… 우리 어머닌 내가 먹고싶어하는걸 신통히 알아맞히십니다. 어머니, 여기 오세요. 같이 드시자요.》

차광수가 무릎을 치며 덜렁거리였다. 박훈이와 김일룡이도 좋아하였다.

《나야 늘 먹는 감자인데 어서들 들게.》

녀사께서는 웃으시였다. 이런 때는 동만일대에 리론가로 이름을 낸 차광수가 어린애같아보이시였다.

세 사나이는 감자를 맛스럽게 먹어댔다.

녀사께서 밖으로 나가 토방에 벗어놓은 언 신발들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와 아직도 잉걸불이 이글거리는 아궁이앞에 가져다놓으시였다. 험한 길을 걸어온듯 거무데데한 흙물에 꽛꽛이 얼어버린 지하족

들이였다. 녀사께서는 젖은 걸레로 신발들을 빡빡 닦으시였다.
《어머니, 왜 자꾸 부엌에 내려가세요. 어머니하고 이야기하고싶어 왔는데… 어서 들어오세요.》
《그래, 이제 들어가겠네.》
녀사께서는 차광수의 성화에 못이겨 신발을 닦다말고 방안으로 들어가시였다.
그날 밤 세사람은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녀사의 댁에서 잤다. 늘 잠이 모자라고 피곤이 몰려있는 그들은 업어가도 모르게 곯아떨어졌다. 덩치 큰 세 사나이가 네활개를 쭉 펴고 드러누우니 방안이 별로 좁아보이였다.
녀사께서는 그들이 잠든 사이에 신발을 말끔히 닦고 어지러워진 양말을 빨아서 부뚜막에 펴서 말리우시였다. 군데군데 꿰지고 바닥이 난 양말들이였다.
녀사께서는 반짇고리에서 천쪼박들을 골라내여 밤새도록 등불심지를 돋구며 양말들을 기우시였다.
밖에서는 바람이 부는지 문풍지가 자주 구슬프게 울어댔다.
(화룡에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이제는 올 때가 됐는데 왜 소식이 없을가?)
속이 타드는 녀사의 가슴에 재가 앉았다. 이럴 때마다 녀사의 몸에서 살이 빠지고 피가 마르는듯 하시였다.

12

이튿날 한낮이 기울어 김정룡의 집 웃방에서 푸르허마을공작총화가 진행되였다. 아래방에서 드나들지 못하게 두텁게 벽을 쳐서 독방처럼 만든 그 수수한 농촌방이 구당위원회 사무실이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이날 소사하산과 대사하산 훈련소에 보낼 솜버선과 장갑을 만드느라 아침부터 내내 재봉기를 돌리다가 푸르허공작총화모임에 참가하라는 전갈을 받고 김정룡의 집으로 가시였다.
총화회의에는 **김일성**동지를 비롯한 몇명의 당간부들이 참가하였는데 공작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곽명준에게 아무런 책임추궁도 비

판도 하지 않았다. 이번까지 여섯차례에 걸쳐 거듭 공작이 실패한데는 공작원의 어떤 실수나 불찰이 아니라 어찌할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았기때문이다.

곽명준은 푸르허마을에 들어가자마자 마을청년들로부터 된벼락을 맞았다고 한다. 공산당이 자기네를 해치러 왔다고 하면서 마을청년들이 모여들어 그에게 돌과 흙덩이를 던지며 야료를 부렸다는것이다. 심지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었다. 그는 매를 맞으면서도 그들을 설복하려고 하였으나 이가 들지 않았다. 게다가 얼마 안있어 공산마귀를 잡으러 기마부대가 달려온다고 하여 어쩔수없이 자리를 피하게 되였다. 피값도 못하고 맹랑하게 죽을수는 없었던것이다.

곽명준이보다 앞서 푸르허마을에 들어갔던 다른 공작원들도 다 마을청년들의 폭행과 기마부대의 칼부림으로 하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돌아왔었다. 이상한것은 공작원이 푸르허마을에 들어가면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영낙없이 적들이 달려드는것이였다.

푸르허마을이 그처럼 험악하기때문에 공작총화모임에 참가한 박훈을 비롯한 일부 당원들은 적위대원들로 습격대를 무어 그놈의 반동마을을 요정내자고 하였다. 김정룡이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김일성**동지께 이렇게 제기하였다.

《우리 적위대원들이 그동안 군사훈련을 많이 했으니 그놈의 반동마을을 능히 해제낄수 있습니다. 그놈들때문에 우리 공작원이 두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정룡은 돌덩이와 흙덩이를 던지던 놈들,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던 놈들을 모조리 잡아내서 처단해버리자고 했다.

박훈은 자기가 적위대원들중 날파람있는 청년들을 뽑아서 하루동안 습격훈련을 시키겠다고 하였다.

그 의견은 차광수에 의해 부정당하였다.

그는 적수공권의 주민들을 해치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하였다. 주민들에게 무력행사를 하자고 군사훈련을 하였는가, 항일혁명군을 결성하기도 전에 인민들을 해치는 일부터 한다면 어떤 결과를 빚어내겠는가.

《동무들은 푸르허주민들중 90프로가 반동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

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실지 나쁜 놈은 1프로도 되나마나할거요. 한두명의 나쁜 놈들의 꾀임에 넘어가 순진한 청년들이 우리 공작원동무들에게 그런 폭행을 가했을겁니다.》

이번에는 차광수의 말을 김정룡이 반박하였다.

《나도 처음에는 차광수동무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섯번에 걸치는 실패를 통해 90프로는 몰라도 70프로이상이 반동놈들로 구성된 마을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마을에 침투되여있는 송동무도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반동놈들에게 정의의 타격을 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김일성동지, 안 그렇습니까?》

김정룡은 그때까지 아무 말씀도 없이 앉아계시는 **김일성**동지의 의향을 물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이께 돌려졌다. 애바른 심정으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던 강반석녀사께서도 아드님을 지켜보시였다.

《나는 차광수동무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시한번 공작원을 파견해야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곽명준이 결사의 각오를 하고 주먹을 흔들며 웨쳤다.

그러나 **김일성**동지께서는 허락하시지 않았다.

《곽동무는 안됩니다. 마을에서 쫓겨나온 사람이 다시 들어가서 어찌겠단 말입니까. 새 사람이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차광수가 나섰다. 그는 지금까지 심사숙고한것 같았다.

《차동문 안되오. 이런 일엔 이 박훈이 나서야 합니다.》

그러자 김정룡이 머리를 저었다.

《박훈동문 총이나 잘 쐈지 그런 지하공작은 하지 못하오. 아무래도 내가 들어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반동마을인지 무슨 마을인지 내 눈으로 직접 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랑촌에서 지하공작을 많이 해본 김정룡은 아까와는 달리 신심을 가진 표정으로 **김일성**동지를 바라보았다.

김일성동지께서 천천히 일어서시였다.

《나는 반대입니다. 푸르허에 들어갈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사람뿐입니다.》

《그게 누구인가요?》

김정룡이 성급히 물었다.

《바로 이 김성주입니다.》

깜짝 놀란 모든 당원들이 입이 굳어진듯 멍하니 그이를 지켜보았다. 녀사께서도 자못 놀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정색을 짓고 말씀하시였다.

《이번에 우리 철주가 부자집 심부름군총각으로 가장하고 화룡현으로 갔다는데 나도 머슴군으로 가장하고 들어가자는겁니다. 먼저 푸르허에 있는 송동무를 부릅시다. 그 동무의 집에서 일손이 딸려 머슴군을 구한다는 소문을 퍼뜨려놓은 다음 거지행색을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당원들은 공작의 가능성과 성공여하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였다. 그들은 **김일성**동지께는 1프로의 모험성도 허용할수 없기때문이였다.

《**김일성**동지가 거길 들어가면 어찌겠다는겁니까. 안됩니다. 당원동무들, 승인할수 있소?》

김정룡이 성난 사람처럼 시퍼렇게 질린 얼굴을 하고 당원들을 둘러보았다. 모두가 승인할수 없다고 소리쳤다.

김일성동지께서 사정하시였다.

《동무들, 푸르허를 장악하는것은 항일무장투쟁을 준비하는 사업에서 운명적인 고리로 됩니다. 그 마을을 장악하지 못하면 우리의 련락통로가 마비됩니다. 모두가 일치하게 말한것처럼 푸르허를 장악하지 못하면 소사하도 편안치 못합니다. 놈들도 푸르허마을의 가치를 알고있기때문에 매우 높은 급의 악질특무를 박아넣은것 같습니다. 그놈들을 적발하자고 해도 그렇고 나쁜 놈의 꼬임에 넘어가 반공사상으로 굳어진 푸르허군중을 설복하자고 해도 그렇고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왜 내가 들어가야 하는가?》

그이께서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 까닭은 첫째로 자신께서는 별의별 지하공작을 다 해본 여러가지 공작경험을 가지고있기때문이라고 하시였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였다. 오늘까지 그이께서 걸어오신 혁명의 길은 사선을 헤쳐온 지하공작의 길이라고 말할수 있다. 김정룡이 지하공작경험이 많다고 하지만 그이와는 대

비도 되지 않았다. 최근 몇해동안만 하여도 그이께서는 교하, 할빈으로부터 두만강연안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만주땅을 밟으며 무려 30여지역에서 지하혁명조직을 지도하시였다. 둘째로는 자신께서는 그 어떤 위급한 정황에 부닥치고 막다른 골목에 다달을 때마다 어김없이 구원자가 나타나군 했다고 하며 몇가지 실례를 드시였다.

재작년 교하의 골목길에서 군벌들과 맞다들었을 때 전혀 낯모를 농촌아주머니가 구원해주었으며 길림에서 청원으로 가는 기차칸에서 몸수색을 하는 경찰들이 다가들었을 때에도 장울화가 나타나 위험을 모면하시였다.

지난 여름 국내 온성으로 들어가기 위해 두만강을 건느실 때 국경수비경찰들이 달려들었으나 그들속에 무송소학교동창생이 끼여있어 구원되시였다. 지난해 고유수에서 체포되여 장춘감옥으로 이송되였을 때에는 뜻밖에도 육문중학교 은사들이 나타나 인차 석방되게 되시였다. 이런 실례는 무수하였다.

하지만 **김일성**동지의 그 어떤 설복도 먹어들지 않았다.

김정룡은 당결정으로 락착짓기 위해 서둘러 가부를 물었다. 강반석녀사를 제외한 모든 당원들이 **김일성**동지의 푸르허공작을 반대하는 의견에 손을 들었다.

녀사께서는 무릎을 짚고 일어서시였다.

《내가 한마디 의견을 말하겠어요.》

일시에 방안은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들이 녀사의 수척하고 창백한 얼굴에 집중되였다. 그 수많은 눈길속에서 녀사께서는 아드님의 눈을 보시였다.

《나는 성주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나라의 독립을 일일천추로 기다리는 이 나라의 한 녀인으로서 구당에 제기합니다. 우리 성주를 푸르허로 들어가게 해줘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성주가 적임자예요.》

녀사께서는 차광수를 돌아보며 말씀하시였다.

《광수, 임자야 우리 성주를 나보다 더 잘 알지 않나. 임자가 우리 성주를 믿는다면 지지해주게. 나라를 찾느냐 찾지 못하느냐 하는 이때에 무얼 주저하나. 김혁, 최효일, 공영, 리제우…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는 우리 적은이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표해서 나는 우리

성주를 푸르허공작에 보내자는데 손을 드네.》
녀사께서는 주먹을 머리우로 들어올리시였다.
차광수는 방안공기의 비중이 몇배로 높아지는것 같은 중압감에 머리를 수그리였다.
우리의 곁에 이런 큰 어머니가 있단 말인가.
누구도 입을 벌릴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까마득히 높은 애국, 애족, 애민의 절정에서 엄숙히 제기하신 녀사의 의견에 대해서는 누구도 감히 꺾지 못하였다. 방안에는 오래도록 침묵이 계속되였다.
오늘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는 **김일성**동지의 푸르허공작은 이런 과정을 거쳐 실현되였던것이다.

13

강반석녀사께서는 며칠째 잠들지 못하고 긴 겨울밤을 곤두새우시였다.
맏아드님은 푸르허로, 둘째아드님은 평두산으로 두 아드님을 위험한 사지판으로 보낸 녀사의 마음은 불안하시였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더 억차게 일을 해나가시였다.
이날도 녀사께서는 적위대원들이 동기군사훈련을 하고있는 소사하산과 대사하산 훈련소에 보낼 버선, 장갑, 배띠와 같은 방한용도구들을 밤새워 만들다가 어뜩새벽에 부엌으로 내려가시였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 소여물을 끓인 다음 어제 저녁 종발에 남겨놓은 좁쌀죽에 물을 부어 순갈로 저으시였다. 종발의 죽이 미음처럼 멀겋게 풀어졌을 때 뚜껑을 덮고 작은 솥에 넣으시였다. 이제는 된음식은 소화가 되지 않아 끼마다 미음이나 죽을 쑤어 조금씩 마시시였다.
속병은 호전되지 않고 날이 갈수록 악화되였다.
녀사께서 걸레를 들고 가마전을 닦으시려는데 문득 마당에서 말투레질소리가 요란하게 울리였다.
부엌문을 열고 내다보시니 어둑시근한 마당에 말파리 한대가 서있는데 웬 사람이 기침을 깇으면서 녀사께로 달려왔다.
녀사께서는 가까이 다가온 사람의 얼굴을 가려본 순간 소스라

쳐 놀라시였다. 그는 조선녀, 김철주들과 같이 평두산에 갔던 진춘발이였다.

《아니, 이게 누군가? 임자… 언제 왔나?》

《저, 지금… 오는 길입니다.》

진춘발은 추위에 몸이 얼어서인지 반벙어리처럼 명확치 못한 발음으로 떠듬거리였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나?》

《흥룡촌에 있습니다.》

《소사하로 오지 않고 왜 흥룡촌으로 갔나? 총은 어떻게 됐나? 무슨 변고는 없었겠지?》

마음이 조급해진 녀사께서는 단꺼번에 많은것을 물으시였다.

《총은 가져왔습니다. … 그런데 조선녀아주머니가…》

《선녀가 어쨌단 말인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뭐라구?!》

녀사께서는 자신도 모르게 진춘발의 손목을 움켜쥐시였다.

《선녀아주머니가… 어머니를 자꾸 부릅니다. 보고싶어…》

진춘발은 몸을 부르르 떨면서 말을 잇지 못하였다.

녀사께서는 눈앞이 아찔해지고 순식간에 손과 발이 싸늘하게 식어버리는듯 하시였다.

《중상을 입었다니 어느 정돈가? 왜 나를 부른단 말인가? 선녀한테 가보세.》

녀사께서는 밖으로 뛰쳐나와 말파리에 앉으시였다.

《어머니, 덧저고릴 입으세요. 춥습니다.》

녀사께서는 허둥거리며 방안으로 들어가 갖저고리를 입고 솜버선을 꿰시였다.

《가세, 빨리 가세. 어서 말파리를 돌려세우게.》

녀사께서는 길을 독촉하시였다.

《쩌!》

진춘발은 회초리를 휘둘렀다. 말파리는 마당밖으로 나와 황량한 갈밭을 누비며 달리였다. 토기점골의 언덕을 넘고 얼어붙은 소사하강을 건는 말파리는 숲사이로 뉘엿이 뻗은 눈덮인 길을 최속력으로 달

리였다. 아츠럽게 소리치는 맞바람이 칼날처럼 녀사의 볼을 저미고 목도리를 날리고 귀청을 때리였다.
진춘발은 말파리를 몰면서 무기공작과정에 있은 일들을 녀사께 말씀올리였다.
그들 무기공작조는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여 열다섯자루의 총을 마차마루바닥밑에 집어넣고 돌아오다가 일본령사관경찰서 검문소에서 단속을 받게 되였다. 평두산에서 서쪽으로 10여리 떨어진 산골검문소인데 들어갈 때에는 통행증만 보고 그냥 통과시키던 놈들이 상급으로부터 모든 통행자들의 소지품들을 검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마차안을 수색하겠다고 하였다. 검문소 경찰관들의 인원은 6명이나 되였다.
매우 위험한 정황이였다.
놈들이 마차마루바닥밑에 감춰둔 총기류는 발견하지 못할수 있으나 공작조의 몸에 간수된 권총이 문제였다.
놈들이 김철주와 진춘발은 물론 귀부인차림을 한 조선녀의 몸까지 수색하겠다고 달려들었다.
이렇게 되여 총격전이 벌어지게 되였다. 1 대 2의 총격전에서 왜놈순경 6놈은 모두 사살되고 우리측에서는 조선녀가 복부에 중상을 입었다. 인가로 들어갈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흥륭촌과 통해있으므로 공작조는 마차를 흥륭촌으로 몰아왔었다.
조선녀는 심한 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진 속에서도 가쁜숨을 몰아쉬며 《사모님… 어머님.》하고 그냥 강반석녀사를 찾았다.
진춘발은 조선녀의 상태가 위급해진것을 보고 녀사께 알리러 말파리를 소사하로 몰아왔다고 한다.
(선녀야, 오냐, 내가 간다. 조금만 참아라.)
녀사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지시였다.
녀사를 태운 말파리가 흥륭촌 4도백하의 얼음장을 짓이기며 건너가서 채련옥의 본가집마당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날이 환히 밝아진 아침이였다.
녀사께서 부엌문을 열고 들어서시자 어디선가 녀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가슴을 뜯는 슬픈 곡성에 녀사께서는 몸을 비칠하며 부엌벽에 손을 짚으시였다. 진춘발이 그이를 부축하고 울음소리 울리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채련옥이 알룩달룩한 중국귀부인의 옷차림을 한채 반듯이 누워있는 조선녀의 어깨를 흔들며 오열하고있었다.

《선녀야, 선녀야, 너 혼자서 어디로 가느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고 하던 네가 어디 가냐 말이다.》

조선녀는 조용히 눈을 감은채 대답이 없었다.

녀사께서는 방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가 조선녀에게 한무릎 다가앉으시였다. 그리고 세차게 떨리는 손으로, 수많은 녀인들의 인생길을 거머쥐고 걸음을 받들어준 그 여위고 갈퀴같이 구부러진 손으로 흰 대리석처럼 굳어진 선녀의 얼굴을 쓰다듬으시였다.

《선녀야! 내가 왔다.》

숨지는 마지막순간까지도 녀사를 부른 조선녀이건만 아무런 응대도 하지 않았다. 채련옥의 곡성이 더 높아졌다.

《선녀야, 어째 대답이 없니. … 어머니가 오셨는데 어째 대답이 없어.》

선녀의 피에 젖은 가슴을 훑으며 불룩하게 언덕을 지은 배허벅으로 천천히 흘러가던 녀사의 눈길이 못박힌듯 굳어지셨다. 세상의 해빛을 보지 못한 하나의 생명이 그안에서 숨져버렸다. 태줄을 물고 쌔근쌔근 숨쉬던 어린 생명의 꺼져가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져 녀사께서는 진저리를 떨며 오열하시였다.

《선녀야, 네가 이렇게 가면 어쩐단거냐. 이젠 나도 살 힘이 없다. 더 견디여낼수가 없다, 선녀야!》

녀사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이 선녀의 하얀 이마에, 고운 볼에, 코등에, 눈두덩에 락수물처럼 떨어졌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서거하셨을 때에도 사람들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던 녀사께서 어찌하여 오늘은 오열하시는가. 그것은 수십년세월 가슴에 쌓이고 덧쌓인 모진 슬픔이 응축된 골수에서 슴새나오는 눈물이였다.

《성주 에미야, 그만해라. 성주 에미가 그러면 안도의 온 녀인들이 힘을 잃는다.》

시어머니의 목메인 소리를 듣고 녀사께서는 고개를 돌리시였다. 리보익할머님께서 떨리는 손으로 맏며느님의 잔등을 어루만지시였다. 녀사께서는 시어머님의 가슴에 와락 안기시였다.

《어머니, 세상이 왜 이다지도 모진가요. 나라를 찾는 일이 왜 이

렇게도 힘든가요.》
《아에미야, 음달에도 볕 들 날이 있다질 않니. 이제 우리 성주가 나라를 찾구 원쑤를 갚아줄게다. 우리 성주더러 하늘의 해님이 되여 달라구 온 나라 백성이 빌고있는데 어련하겠니.》
할머님께서도 말씀을 잇지 못하고 어깨를 떨며 우시였다. 녀사의 갖저고리 어깨우에 할머님의 굵은 눈물이 뚤렁뚤렁 떨어졌다. 녀사께서는 눈물을 거두고 시어머님을 부축하시였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만…》
녀사께서는 시어머님앞에서 자신의 아픈 마음을 드러낸것을 후회하시였다.
흥룡촌의 반일부녀회원들이 방안으로 몰려들었다. 녀인들의 곡성이 터졌다. 리영배, 김철희, 류민환, 류호, 최종진 등 흥룡촌의 청년들과 로인들도 와있었다.
녀사께서 녀인들의 울음을 달래고 분연히 말씀하시였다.
《눈물을 그치고 선녀의 원쑤를 갚자요. 나라를 찾기 위해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선렬들의 원한을 풀어주자요. 선녀는 너무도 젊은 나이에 갔지만 그는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해놓았어요. 선녀는 우리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함께 있을거예요!》
녀사께서는 아직도 어깨를 떨며 흐느끼고있는 채련옥에게 말씀하시였다.
《동서, 울음을 그쳐! 우리 선녀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는데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머리단장도 시키자구.》
채련옥이 일어나 선반에 얹은 빗접을 내리웠다. 빗접에서 얼레빗을 꺼낸 녀사께서는 선녀의 틀어올린 머리를 푸시였다. 칠칠한 머리가 흐트러지며 피젖은 가슴우에 드리웠다.
녀사께서는 얼레빗으로 선녀의 윤기도는 머리를 빗기 시작하시였다. 무송에서 선녀의 머리를 빗겨주던 일이 생각나시였다. 그곳 지주의 노리개로 될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송화강에 몸을 던졌던 선녀이다. 그때 녀사께서는 얼레빗으로 선녀의 머리를 빗겨주며 값없이 헛되게 죽을것이 아니라 보람있게 살아야 한다고 일깨우시였다. 보람있게 산다는것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다는것이였다. 그때부터 선녀는 강반석녀사의 손길아래서

글을 배우고 반일부녀회원으로 자라나 참으로 보람있는 반일투쟁의 길을 걸어왔었다.
녀사께서는 주변에 둘러서있는 부녀회원들에게 말씀하시였다.
《김순애아주머니와 민옥이한테 빨리 알려줘야겠소. 마지막으로 선녀의 얼굴을 보도록… 그들은 무송에 있을 때부터 선녀와 고락을 같이한 부녀회원들이요.》
녀사께서는 곽명준의 이름은 차마 부르지도 못하시였다. 이 소식을 그에게 어떻게 전할수 있겠는가. 생각만 하여도 몸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지시였다.
조선녀의 목숨과 바꾼 열다섯자루의 총은 그날로 소사하산훈련소로 들여갔다.
이틀후 대흥툰뒤산 박씨의 묘옆에 그의 딸 조선녀의 봉분이 생겨났다. 결국 조서방네 세 식구는 후대를 남기지 못한채 모두 낯설은 이국땅에서 사망하였다.
그날 1932년 3월 1일 대흥툰반일부녀회원 조춘희가 읽은 추도문의 마지막구절을 여기에 적는다.

조선동포들이 수없이 죽은 슬픈 날 3월 1일 무송의 첫 반일부녀회원이며 조선의 슬기롭고 용감한 딸 조선녀도 조선독립의 원한을 품고 숨지였다.
사랑하는 그대여 고이 눈을 감으시라.
우리가 그대의 원한을 기어이 풀어주리라.

강반석녀사를 모시고 무덤앞에 모여선 흥륭촌과 대흥툰사람들은 오열을 터뜨리며 반일항전을 맹세하였다. 무덤앞에서 오열하는 사람들속에는 류호부자와 권씨도, 조춘희의 어머니 안씨도 있었다.
녀사께서 조선녀의 장례를 치르고 댁으로 돌아오시자 김정룡이 푸르허공작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달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푸르허공작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먼저 소규모의 유격대를 조직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구당위원회에서는 김철주와 강남철을 **김일성**동지의 련락원으로 임명하였다고 하였다.
기쁨과 슬픔이 엇갈리는 속에서 새봄이 찾아오고있었다.

제 7 장

1

강반석녀사께서는 오래간만에 소사하의 초가집에 세 아드님과 함께 앉아계시였다. 소사하에 이사해온 후 한가정이 이처럼 오붓하게 앉아보기는 처음이였다. 혁명의 지도자이신 맏아드님은 물론 둘째, 셋째들도 공청사업과 소년선봉대활동으로 밤낮없이 분주히 뛰여다니여 네 모자가 한자리에 모여앉으실 사이가 없었다. 소사하, 대사하지구의 부녀회원들을 총지도하는 녀사의 사업이 또한 여간 바쁘시지 않았다.

소사하로 모여드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밥을 지어주고 옷, 신발, 버선, 양말을 빨아말리워 기워준 녀사께서 오늘은 아드님을 위해 진지를 끓이시였다.

방금 저녁설겆이를 마치고 아드님들과 마주앉은 녀사께서는 최근 맏아드님께서 조직한 유격대소조명단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겨가며 읽으시였다.

차광수, 박훈, 김일룡, 김철희, 리영배, 곽명준, 박치근, 윤현칠, 진춘발, 조덕화, 방인현… 모두하여 18명밖에 안되는 말그대로 유격대소조이지만 녀사의 가슴은 긍지와 기쁨으로 뿌듯해지시였다. 이 조그마한 부대가 씨앗이 되여 장차 대부대로 자라나게 되리라는 것을 믿어의심치 않으시였다. 맏아드님께서는 조만간 왕청, 화룡, 연길, 훈춘지방들에도 안도와 같은 소규모형태의 유격대를 조직할 준비를 하고있다고 하시였다.

녀사께서는 18명의 이름을 보고 또 보시였다. 그들이 바로 닭알노란자위였다. 녀사께서는 얼마나 간고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그 노란자위가 형성되였는지 잘 알고계시였다.

언제부터인가 동만각지와 두만강연안의 혁명조직원들이

맏아드님과의 련계를 가지기 위해 끊임없이 소사하로 찾아왔었다. 맏아드님께서 안도지구에 항일무장부대를 조직하신다는 소문이 왜놈이나 반동군벌들이 모르게 소곤소곤 혁명군중들속으로 퍼져나갔고 그리하여 반일애국열에 끓는 청년들이 쌀자루들을 지고 안도지구로 밀려들었었다. 그들은 소사하산훈련소에서 군사강습을 받고 소사하에 그냥 떨어지기도 하고 타지방으로 파견되여가기도 하였다.

소사하의 부녀회원들은 훈련소청년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였다. 강반석녀사의 본을 따서 옷을 빨아주고 양말을 기워주고 버선을 만들어 보냈으며 점심밥들을 싸가지고 찾아갔었다.

마침내 유격대소조가 조직되였고 적위대, 생산규찰대를 비롯한 반군사조직들이 곳곳에 꾸려져 머지않은 앞날에 유격대의 대부대를 조직할수 있는 군사후비가 마련되였다.

녀사께서는 래일의 대부대를 그려보며 맏아드님께 말씀하시였다.

《구당위원회에 말해서 이제부터 광목천을 여러필 마련하고 마선도 두세대쯤 구해야 될것 같다.》

《광목천을 말입니까?》

앉은책상에 마주앉아 글을 쓰시던 **김일성**동지께서 고개를 드시였다.

《머지않아 큰 부대가 조직될것 같은데 군복을 지어야 할게 아니냐. 군대라면 일색으로 지은 군복이 있어야지. 군복을 만드는건 우리 부녀회원들이 책임지겠다.》

《어머닌 벌써 그런걸 생각하시는군요.》

산바람과 해별에 그슬려 검실검실해진 맏아드님의 얼굴에 감동의 파문이 지어지셨다.

《벌써가 뭐냐. 난 늦은것만 같다. 언제쯤이면 큰 부대를 무을것 같으냐?》

《늦어서 두달전으로 반일유격대창건을 선포하자고 합니다.》

맏아드님의 영채로운 눈에서 결연한 의지의 빛이 번뜩이시였다.

《그것 봐라. 금방 닥쳐오지 않았느냐.》

평생 삯바느질을 하며 남의 옷을 많이 지은 녀사께서 이제 자신의 손으로 조선군대의 옷을 짓게 되리라고 생각하니 벌써 나라를 찾은

듯 한 기분이시였다.

하지만 맏아드님의 얼굴에는 무거운 그늘이 덮이시였다.

《어머닌 군복걱정을 말고 쉬셔야 하겠습니다. …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수척해지셨는지… 이 손을 보세요.》

《넌 또 그 소리냐. 일없다, 일없어. 이제 큰 부대까지 조직하면 내 병이 다 나아 훨훨 날아다니게 될거다.》

녀사께서는 지금 소사하산과 대사하산훈련소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적위대와 로농규찰대의 인원들만으로도 대부대를 무을수 있다고 확신하시였다.

《나도 이번에 유격대소조에 들어가자고 했는데 형님이 반대했어요. 남아 열다섯살 대장부라 했는데 내 나이가 뭐 어린가요?》

김철주가 흥륭촌구락부에서 가지고온 바이올린을 무릎에 얹어놓고 손질하다가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네 말이 옳다. 남아 열다섯살 대장부지. 형님은 그 나이때 〈ㅌ.ㄷ〉를 결성하지 않았니. 네 나이 어려서 유격대소조에 안 받아들인게 아니다. 네가 하는 공청지하사업은 군사에 못지 않게 중요한게다. 그리고 넌 형님의 련락원이 아니냐.》

《어머닌 언제나 형님편이예요.》

일부러스러운 김철주의 볼부은 소리에 따뜻한 웃음이 방안에 넘쳐났다. 녀사께서는 앉은책상을 마주하고 계속 글을 쓰시는 맏아드님께 물으시였다.

《아니, 넌 어찌다 집에 와서도 무슨 글을 그렇게 쓰느냐? 너야 말로 몸을 돌봐야겠다.》

김일성동지께서 펜을 놓고 종이장들을 간종그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지금 반일구국군에게 보내는 격문을 쓰시였다. 9.18사변이후 동북지방에는 항일구국군, 항일의용군, 동북자위군, 홍창회, 산림대와 같은 각이한 명칭과 각이한 형식의 중국반일부대들이 조직되여 활동하고있었다. 그런데 이 반일부대들의 행패와 드살이 여간 아니였다.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조선청년들은 거의다 공산주의자이고 공산주의자들은 다 만주를 침략한 왜놈들과 한패라고 하면서 조선청년들을 마구 잡아가고 죽이였다. 안도의 수림속에 틀고앉은 우사령반일부대도 마찬가지였다.

유격대소조를 조직하였지만 우사령부대의 행패질로 하여 마음대로 밖에 나다닐수도 없게 되였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은 유격대소조를 비밀유격대라고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기막힌 사연을 어머님께 자상히 이야기하고 자신의 단호한 결심을 말씀하시였다.
《우리와 구국군사이에 쐐기를 박는 놈들을 우선 소멸해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사령부대에 찾아가 반일련합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공작을 하자는것입니다. 일부 우리 동무들은 구국군을 적으로 보고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현재 구국군의 수가 우리들보다 대비할수없이 많은데 구국군까지 적으로 보는것은 스스로 사면초가의 포위환에 들어서는거나 같습니다. 반일이라는 기본목적이 같은데 왜 적이 되겠습니까. 문제는 리간정책을 쓰는 일제의 검은 속심을 발가내고 왜놈의 앞잡이가 되여 돌아치는 놈들을 소멸해버리는것입니다. 그래서 일제의 잔꾀를 발가내는 격문을 써서 우리 동무들에게도 보여주고 구국군부대에도 배포하자는것입니다.》
녀사께서는 마음이 무거워지시였다. 맏아드님께서 걸으시는 항일의 길에 가로놓인 벼랑을 보시였다. 아슬하게 높고 험한 그 벼랑을 타고넘는 일이 수월치 않겠다고 생각되시였다.
《어머니, 일본놈과 한짝이 되여 우리와 구국군사이에 쐐기를 박는 나쁜 놈들이 바로 우리가까이에도 있습니다. 소사하에 있습니다.》
《소사하에?》
《쌍병준지주놈이 바로 간교한 친일분자입니다. 내 련락원으로 배치된 강남철이라는 아이가 구국군부대에 있다가 온 소년입니다. 쌍병준의 집에 있는 리도선가병장과 성근식이라는자들이 구국군들과 술놀이를 하면서 **김일성**부대가 반중공산주의부대라고 악선전을 하는것도 직접 보았다고 합니다.》
문득 녀사의 뇌리에 구국군병졸을 데리고 마춘욱이네 객주집에 나타났던 성근식의 얼굴이 떠오르시였다. 그때 벌써 객주집녀인들은 그자를 좋지 않게 보고있었다. 지어 시동생분의 무장소조가 국내에로 진출한 사실을 일제에게 밀고한자가 성근식이라고도 하였다. 이제 아드님의 말씀을 듣고보니 성근식, 리도선들이 왜놈의 개들이라는것이 확실히 알려지시였다.

《어머니, 유격대소조의 첫 총성을 쌍병준지주놈의 집에서 울리자고 합니다.》

녀사께서는 심중한 표정을 지으시였다.

《쌍병준은 가병도 많고 산하에 보위단원이 40명이나 된다더라. 그리고 경찰서가 그놈을 보호하고있다.》

《알고있습니다. 우리가 정찰을 잘하고 불의에 습격하면 40명이 아니라 100명, 200명이 있어도 다 제낄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슬기와 용맹을 겸비한 군대는 백전백승한다고 했다. 슬기만 있고 용맹이 없어도 패하고 용맹만 있고 슬기가 없어도 적을 이기지 못한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저의 군사고문을 하시면 백전백승하겠습니다, 허허허.》

《원, 당치않을 소리…》

녀사께서 아드님의 등을 치며 유쾌히 웃으시였다.

며칠후 자정이 지난 깊은 밤 유격대소조원들과 적위대원들로 편성된 습격조가 소사하 본마을에 있는 쌍병준지주집을 향해 행군하였다.

길안내는 김철주가 하였다. 그동안 철주는 지주집의 소년머슴과 가까이 지내면서 쌍병준이와 가병들의 침실위치는 물론 방내부구조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냈다.

은밀히 소사하 본마을에 들어선 습격조원들은 지주집 토담을 비호같이 날아넘어 쌍병준의 침실과 가병들의 병실을 불의에 기습하였다. 옷을 벗고 태평스레 잠을 자다가 불벼락을 맞은 가병들은 손을 싹싹 비비면서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그런데 기본타격대상으로 삼았던 쌍병준은 공교롭게도 이날 리도선, 성근식이와 함께 후꾸모도 부현장의 첩자인 송강건설업주네 잔치집에 가고 없었다.

습격조원들은 사색이 된 가병들을 마당에 정렬시켜놓고 쌍병준의 친일매국행위를 폭로하면서 반일선전공세를 들이댄 다음 《조중인민의 공동의 원쑤 일제와 싸우자! 쌍병준이와 같은 배신자, 친일역적들을 모조리 처단하자!》라는 표어를 지주집 안팎과 소사하마을 곳곳에 붙여놓고 철수하였다. 많은 총기류들과 식량을 로획하고…

한편 송강건설업주네 잔치집에서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은 쌍병준, 리도선, 성근식이들은 공포에 질려 보위단원들에게 집을 맡기고 일제의 통치구역으로 달아뺐다.

유격대소조의 첫 총성은 안도주민들의 가슴을 크게 울리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조선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반일구국군들의 오해와 적의감을 해소시킬수 없었다. 우사령부대는 여전히 공산주의자들을 친일파로 여기였고 군대에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안도로 찾아오는 청년들을 닥치는대로 참살하였다.

이런 어려운 정황속에서도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해 가을의 추수투쟁과 같은 춘황투쟁을 조직하시였다. 춘황투쟁은 당장 굶게 된 농민들에게 있어서 사활적인것이였다. 하여 동만각지에서 춘황투쟁이 활화산처럼 터져올랐다.

《절량민들에게 쌀을 주라!》, 《고리대금업적인 장리빚을 취소하라!》등등의 정당한 구호를 들고 싸운 춘황투쟁은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조선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반일구국군의 행패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2

장기간의 신병으로 하여 강반석녀사의 기력은 쇠진해질대로 쇠진해졌다. 그러나 녀사께서는 강심으로 사방 뛰여다니며 군복천들을 마련하시였다. 티끌모아 큰 산이라고 부녀회원들이 조금씩 돈과 천을 보태여 수백벌의 군복을 만들수 있는 광목천이 장만된것이다. 재봉기는 대흥툰 부녀회 분회장으로 된 조춘희가 석대나 구해들이였다. 천과 재봉기는 녀사의 댁과 김정룡, 김두만의 집들에 골고루 나누어 놓았다. 그러나 유격대소조는 군복을 입을 형편이 못되여 사민복을 입고 밤에만 몇사람씩 비밀리에 나다니였다.

이것이 무슨 군대란 말인가.

강반석녀사께서는 분개하시였다. 알고보니 연길, 왕청, 화룡, 훈춘에 생겨난 유격대소조들이 다 일본놈들뿐아니라 반일구국군들의 행패로 하여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고있다고 한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빨리 아드님을 만나고싶으시였다. 그러나 항일혁명의 전반사업을 지도하느라 늘 바삐 다니시는 맏아드님을 조용히 만나기란 수월치 않으시였다.

《벌써 4월이 됐는데…》

녀사께서는 방문을 여시고 신록으로 단장한 산발들을 바라보시였다. 황량한 갈밭에서는 물새들이 끼륵거리며 떼를 지어 날아오르고 날아내리였다. 완연히 봄이였다.

산을 뚜지여 농사를 지어보려고 윤두소까지 마련하였으나 이제는 녀사께서 호미질을 할 기운도 없으시였다. 이즈음에는 그이께서 가끔 자신의 생명이 머지않았다는 예감이 들군 하시였다. 그러나 맏아드님께서 창설한 조선의 떳떳한 항일혁명군대를 보기 전에는 눈을 감을수도, 병자리에 누우실수도 없었다. 기어이 조선독립의 날을 보아야 하시였다.

녀사께서는 마당으로 나와 집모퉁이에 내다놓은 호미와 종자곡을 담은 다래끼를 들고 돌아서시였다. 둘째아드님이 바쁜 공청사업을 하면서 짬짬이 윤두소로 갈아놓은 밭에 강낭씨를 묻으시려는것이다. 그러나 몇걸음 옮기지 못하고 우뚝 멈춰서시였다. 검은 학생복을 입은 맏아드님께서 개울을 건너 이쪽으로 걸어오고계시였다.

녀사께서는 반가움으로 가슴이 설레이시였다.

《어머니!》

급한 걸음으로 다가선 **김일성**동지께서는 녀사의 여윈 손에 다래끼와 호미가 들려있는것을 보고 낯빛을 흐리시였다.

《어머니, 어딜 가십니까? 밭일을 하시자고요?》

《봄이 오니 호미질을 하고싶구나. 이맘때면 만경대와 칠골에서도 밭갈고 씨를 뿌렸지.》

녀사께서는 추연한 눈길로 남쪽하늘을 바라보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도 눈길을 들고 묵묵히 서계시였다. 저 먼 하늘밑에 내 나라의 땅이 있고 고향의 옥답이 있는것이다.

《어찌된 일이냐. 아직도 군복소리가 없으니… 지금 우리 부녀회원들은 혁명군복을 입은 유격대원들을 보고싶어 한다.》

녀사의 목소리는 준절하시였다.

《어머니,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무슨 결단을?》

《어머니, 저기 가서 앉읍시다.》

김일성동지께서 통나무굴뚝앞에 펴놓은 거적때기를 가리키시였다. 그것은 씨오쟁이를 거풍시키느라고 녀사께서 펴놓으신 거적때기였다.

어머니와 아들은 거적때기에 나란히 앉으시였다.

《며칠전에 저 뒤집에서 우리는 중요한 회의를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송강으로 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송강에 간 날이라면 그저께로구나.》

그날 녀사께서는 군복천감을 사러 가시였었다. 수년세월 삯바느질을 한 녀사께서는 피복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였다. 군복천감을 잘 골라야 했으므로 앓는 몸이지만 젊은 부녀회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왕복 80리길을 갔다오시였다.

바로 그날 김정룡의 집에서 반일구국군들과 공동전선을 하겠는가 아니면 대적관계를 가지겠는가 하는 심각한 로선상문제가 론의되였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반일구국군과 공동전선을 하는것은 계급적원칙에도 어긋나고 실천적경험으로 보아도 실현불가능한것임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자산계급출신들로 상층부가 구성된 구국군은 실제상 자산계급과 관료계급의 리익을 대변하는 군대이므로 공산주의자들을 불구대천의 원쑤로 여긴다는것이다. 물론 적들의 악선전으로 하여 구국군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오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본질상 반공적군대라는데 대해서는 부인할수 없다고 하였다.

과격파들은 걸음마다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방해를 놀고있는 구국군들과 피의 결산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구국군과 싸우자고 하는것은 더없이 위험하고 저돌적인것이라고 깨우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반일이라는 투쟁목적이 같은데 왜 전략적인 공동전선을 못하겠는가, 구국군을 적으로 삼고 대결하는것은 반일과 조중친선이라는 대의명분에 어긋나는 일이며 청소한 우리 유격대를 자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분별없는 처사이다, 왜놈들이 들어오지 못한 동만의 수림지대에 주둔하고있는 구국군의 수는 수천수만을 헤아린다, 군사전술적측면으로 보아도 그렇고 정치전략적측면으로나 반일을 하는 투쟁목적으로 보아

도 반드시 구국군과의 공동전선을 하여야 한다고 거듭 설복하시였다. 그이의 진지한 설복과 호소에 종당에는 모두가 호응해나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후날 사가들이 소사하회의라고 명명한 이날의 회의과정을 어머님께 자상히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구국군과의 반일련합전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사령부대와 마주앉아 담판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담판에 제가 나서게 됩니다.》

《우사령부대와 담판을 한단 말이냐?》

녀사께서는 불안을 느끼며 물으시였다. 토비출신이 많은 구국군들은 무지몽매하고 야성적인 기질이 있다는 말을 녀사께서도 여러번 들으시였다.

《어디서 담판을 하느냐?》

《우사령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해야지요.》

《너를 따라가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느냐?》

《네명이 따라갑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박훈, 진한장, 호진민 그리고 또 한사람의 이름을 부르시였다. 그중 박훈을 제외한 세사람이 중국인이였다.

《이번에도 동무들은 모두 내가 가는데 대해 반대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위험한 담판이였다.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적의감으로 가득찬 우사령이 공산당이라고 무작정 잡아제끼면 끝장인것이다. 푸르허공작때는 머슴으로 가장하였기때문에 무사하였지만 이 담판은 정체를 감추지 않고 조선의 반일혁명가대표자의 명색으로 나서야 하는 담판이였다. 더우기 그즈음은 왕청에 있는 비밀유격대가 관부대라는 명칭을 띤 반일부대의 무장을 해제한 사건으로 하여 유격대와 구국군사이의 관계가 한층 더 악화된 때였다. 관부대사건이 있은 후 여러명의 왕청유격대원들이 구국군에 잡혀가 총살당하였다고 했다. 그 소문이 소사하에까지 퍼져서 녀사의 마음은 불안하시였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꼭 성공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녀사의 손을 잡고 위로하시였다.

《왜 걱정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나는 네가 가는 길을 막지 않는다.》

녀사의 목소리는 비장하게 울리였다. 그이께서는 이번 길 역시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것이여서 아드님께서 간다는것을 너무도 잘 아시였다.

《언제 떠나겠느냐?》

《오늘 떠납니다.》

《오늘?》

녀사께서는 아드님의 얼굴을 심중히 지켜보시였다.

《일단 결심을 내렸으면 시간을 끌게 있니. 어서 가거라.》

녀사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고는 《언제부터 너하고 의논해보려던게 있다.》하며 무릎을 짚고 일어서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도 따라 일어서시였다.

《어머니, 말씀하십시오.》

《이제는 할머니를 만경대에 보내드리는게 어떠냐?》

너무도 뜻밖의 말씀이여서 **김일성**동지께서는 선뜻 대답을 못 올리시였다.

《할머니가 두 며느리때문에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다. 일전에도 내 병이 걱정되여 소사하에 오셨다가 네 삼촌어머니가 마음놓이지 않아 흥륭촌으로 되짚어가셨다. 형권삼촌이 저렇게 되여 삼촌어머니의 신경이 약해졌다. 심화병이란 고치기 힘들다. 그래서 내가 할머니더러 소사하 걱정은 말고 삼촌어머니의 곁에 계시라고 했다. 삼촌어머니도 할머니 걱정을 한다.》

채련옥은 도리가 있는 녀자였다. 리보익할머님을 만경대에 보내드리자고 한것도 채련옥이였다.

《할아버님을 만경대에 남겨두고 온 할머님의 마음이 편안하시겠느냐. 할머님은 앓고있는 두 며느리때문에 못 가신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죄스럽다.》

녀사께서는 비칠거리며 몇걸음 뜻없이 걸어가시였다. 그리고 또다시 먼 남쪽하늘을 바라보시였다.

《물론 형록삼촌내외의 효성이 지극하다는걸 나도 잘 안다. 그러나 천하의 효자라 해도 부모자식간에는 말 못하는것이 있다. 틈이 있다. 오직 부부사이에만 조그마한 틈도 없다. 그래서 예로부터 부부일심이라고 했다. 그 틈때문에 할아버님은 종종 불편스러운 때가 있

을게다. 그 불편은 오직 할머님만이 풀어드릴수 있다. 여기 계시는 할머님 역시 며느리들에게는 말씀 못하시는 불편이 있다.》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며 인생의 심원한 세계를 더듬어보는 **김일성**동지의 가슴은 더욱더 젖어드시였다.

《물론 할머님은 만경대로 가시자고 안할게다. 그러나 갔다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만경대에 가보시게 하는게 옳을것 같다. 그래야 할아버님에 대한 걱정, 거기 자손들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수 있을것 같다.》

《저도 어머님의 생각이 옳다고 봅니다.》

《알겠다. 그럼 이젠 어서 가봐라.》

강반석녀사께서는 흔연한 표정으로 아드님의 등을 미시였다. 하지만 **김일성**동지께서는 등에 닿는 어머님의 손이 무등 떨리고있음을 감촉하시였다. 참기 어려운 비통이 그이의 발목을 붙들었다.

어머님께 불안과 고통을 끼쳐드리지 않고 나라를 찾는 길은 없단말인가.

《어서 가거라. 나는 네가 일을 성사시키고 돌아오리라고 믿는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밝은 웃음을 지으며 또다시 아드님의 등을 미시였다.

×

강반석녀사께서는 밭에 나가 가까스로 호미질을 하며 씨앗을 묻으시였다. 부드러운 흙에 묻히는 한알한알의 씨앗을 보며 녀사께서는 힘을 얻으시였다. 그 씨앗에서 푸르싱싱히 자라날 혁명의 미래를 련상하신것이다.

중낮때 댁으로 돌아와 소여물을 끓이고 다시 밭으로 나간 녀사께서는 해질무렵에야 밭일을 끝마치고 댁으로 돌아오시였다. 둘째도, 셋째도 없는 빈방이 그이를 기다리고있었다.

녀사께서 좁쌀미음을 한종지 마시고 저녁소여물을 끓이려는데 김정룡, 김두만 부부들이 좁쌀자루를 들고 찾아왔다.

녀사께서는 그들을 통해 차광수가 **김일성**동지를 목숨으로 보위하기 위해 결사대를 조직한 사실을 알게 되시였다. 차광수는 무지한 구

국군이 담판장에 나선 **김일성**동지께 총부리를 내대는 최악의 상태가 빚어지는 경우 결사전을 벌리려는것이였다.

차광수가 인솔한 결사대에는 **김일성**동지의 련락원들인 김철주와 강남철이도 망라되여있었다. 훈련을 받은 몇명의 소년탐험대원들도 따라갔다고 한다.

이튿날 아침 차광수의 글쪽지가 구당본부에 날아왔다.

《**김일성**동지께서 행군도중에 구국군부대와 조우. 구국군부대 참모장 류본초와 담화. 류본초는 길림육문중학교 교원출신으로서 **김일성**동지와 각근한 사이. 유리한 국면이 조성됨.》

녀사께서는 안도의 숨을 내쉬시였다. 구국군지휘관들속에 육문중학교의 옛 스승이 있다니! 정말로 맏아드님은 천출남아로 생각되시였다. 그러나 저녁에 날아온 글쪽지는 녀사의 가슴을 섬찍하시게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우사령과 담판하기 위해 안도성시로 들어가심. 우사령과 상봉. 연길에서 푸르허로 가는 조선청년 70여명이 공산당이라는 혐의를 받고 우사령부대에 감금됨. 긴장 격화. 피의 격전을 각오!》

녀사께서는 조바심에 가슴이 타드시였다. 구당본부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컴컴하게 질리였다.

이튿날 아침 또 한장의 글쪽지가 날아왔다.

《긴장이 완화됨.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청년 70여명과 담화하고 우사령앞에서 그들을 보증.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도록 우사령을 설복. 담판은 계속된다.》

이것이 마지막글쪽지였다. 웬일인지 그다음에는 련락원이 오지 않았다. 감감 소식이 없었다.

그로부터 이틀후 **김일성**동지께서 소사하로 돌아오시였다.

《담판 성공!》

삽시에 소사하마을이 환희의 폭풍으로 설레였다. 유격대소조를 비롯한 혁명조직원들은 기쁨에 휩싸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조선청년들로써 **김일성**동지를 대장으로 하는 별동대가 결성되였다고 한다. 별동대의 탄생으로 하여 비밀유격대의 활동을 합법화하고 구국군과 련합하여 일본제국주의와 항전을 벌릴수 있는 광활한

통로가 열리게 된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별동대안에 안도에 있는 비밀유격대와 우사령부대에 감금되여있던 70여명의 조선청년들을 망라시키기로 하시였다.

이것은 합법적인 대부대 반일인민유격대창설의 고고성이였고 장엄한 서곡이였다.

깊은 밤에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머님을 찾아뵈오시였다.

《어머니, 군복을 지어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유격대가 씩씩하게 노래를 부르며 거리를 행군할수 있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이날을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기다렸다, 기다리구 말구. 우리 부녀회원들이 모두 춤을 출게다. 그래 우리 군대복을 어떻게 지을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색갈로…》

녀사께서는 기뻐서 어쩔줄 몰라하며 흰 광목천을 꺼내놓고 아드님께 펼쳐보이시였다.

《이제 토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도 의견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머님의 피땀과 사랑이 어린 광목천을 쓸어보고 또 쓸어보시였다.

며칠후 유격대복장이 제정되였다. 군복색갈은 록색으로 정하였다. 그것은 흰 광목천에 가둑나무물을 들이면 된다.

왼쪽가슴에는 오각형 붉은천을 오려붙이고 풀빛군모에는 붉은별을 단다. 다리에는 흰 행전을 쳐서 행군에 간편하게 한다.

그때부터 군복제작을 위하여 부녀회원들이 밤을 새우기 시작하였다.

3

부녀회원들은 몇집에 재봉기를 나누어놓고 조별로 일을 하였다. 구당위원회에서는 건강때문에 군복을 짓는 일에서 강반석녀사를 빼놓기로 결정하였으나 군복천에 물을 들이고 옷을 마르는 일로부터 바

느질에 이르는 세공작업에 이르기까지 녀사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안되였다. 가난하게 살아온 대부분의 부녀회원들은 재봉기술이 부족하고 옷을 지어본 경험도 없었다. 하여 녀사께서는 이집저집 다니면서 옷깃과 섶은 어떻게 누비고 단추구멍은 어떻게 내며 옷자락단은 어떻게 말아올리는가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셔야 했다.

녀사께서는 자신의 몸이 약해진것이 한스러우시였다. 몇푼의 삯돈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헐벗은 몸을 감싸주기 위하여 녀사께서는 얼마나 많은 옷을 지으셨던가.

그런데 아드님께서 조직한 항일무장대오의 군복을 지어야 하는 더없이 요긴한 모퉁이에 와서 한벌의 군복을 지을 기력도 없어졌으니 안타까우시였다.

《어머닌 옆에서 가르쳐만 주시고 바느질엔 손을 대지 마세요. 구당에서 우리한테 신신당부했어요.》

늘 녀사의 곁에 붙어서 재봉기 돌리는 법을 배우며 군복을 짓고있는 안선옥이 자주 이런 말씀을 올리군 하였다. 그 처녀는 녀사께서 삯바느질을 하시던 그 재봉기를 쓰고있었다. 그전날 녀사께서 바로 그 재봉기로 자기와 남동생의 옷을 지어주셨다고 생각할 때 선옥은 무어라 형언할수 없는 뜨거운 감회에 눈굽이 젖어들었다.

실지 안선옥은 군복짓는 일에서 녀사께서 무리하지 않도록 옆에서 잘 보살펴드리라는 과업을 받았었다. 그것은 조직의 결정이였다. 그러나 녀사께서는 아드님의 군복만은 자신께서 직접 짓고싶으시였다. 아드님의 몸은 잴 필요도 없었고 재단의 본을 따로 뜨지 않아도 되였다. 장대한 체격으로 자란 아드님의 품의 수치는 물론이고 회장의 길이까지도 정확히 알고계시였다. 비단 오늘뿐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이날까지 매 성장기간 변화되는 체격의 수치를 도표처럼 고스란히 기억하고계시였다.

녀사께서는 아드님의 웅장한 체격을 눈앞에 그려보면서 바늘의 한뜸한뜸을 정성을 다해 박아나가시였다. 천만리 가시덤불길을 헤쳐가도 해지지 않게, 그 어떤 적탄도 뚫지 못하게 철의 갑옷이 되도록 온갖 정성과 념원을 담아 누비고 시치고 감치고 징그고 호아매시였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기력이 진해서 이전처럼 빨리 못하시였다. 전같으면 하루도 안 걸릴 일을 이틀, 사흘이 걸려도 끝을 내지 못하시

였다. 아드님과 구당이 알지 못하게 지으시는 옷이였다. 이따금 차광수, 김정룡, 박훈, 김일룡이들이 군복제작정형을 알아보러 올때면 녀사께서 바느질감들을 슬그머니 감추시였다. 안선옥이도 그 한벌의 군복만은 눈을 감아주었다.

그러나 마침내 아드님의 눈에 들키고말았다.

녀사께서 군복을 거의다 짓고 단추구멍을 감치다가 고개를 드시는데 아드님께서 산같이 앞에 서계신것이였다.

누구보다도 안선옥의 가슴이 덜컥하였다. 조직은 자기를 믿고 어머님의 건강을 보살펴드릴 과업을 주지 않았는가. 안선옥은 죄스러워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하지만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금도 탓하지 않고 녀사께서 지은 옷을 만져보시였다.

《어머니, 제 옷을 지으셨군요. 어머니가 지으신 군복을 입고싶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머님의 여윈 손을 잡고 바늘에 찔리워 무수히 검붉은 흑점이 생긴 손끝을 여겨보시였다.

순간 안선옥은 인두에 지지우는듯 눈뿌리가 따가와지고 온몸이 저릿저릿해졌다.

《한번 입어봐라. 아직 단추는 못 달았다.》

녀사께서 군복을 들어 아드님께 주시였다. 방안에 앉은 부녀회원들모두가 어머님과 아드님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김일성동지께서 학생복 웃저고리를 벗고 록색군복을 오래오래 지켜보다가 정중한 몸가짐을 하고 천천히 입으시였다.

어머님의 사랑과 정성이 깃든 군복은 아드님의 름름한 체격에 꼭 맞고 잘 어울려 호연한 기상을 풍기게 하였다.

《야, 멋있네!》

부녀회원들은 손벽을 치며 기뻐하였다.

《어머니, 이젠 좀 쉬세요. 천천히 옷을 지어도 됩니다.》

《오냐, 내 걱정은 말아라. 난 하는 일이 없다. 여기 부녀회원들이 다 한다. 며칠만 기다려라. 요구한 수자만큼 군복을 다 지어낸다.》

녀사께서는 자신있게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뜨거운 눈

길로 부녀회원들을 둘러보시였다.

《고맙습니다. 부녀회원들의 수고를 잊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겠습니다. 부녀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이 군복은 적탄을 막아내는 갑옷이 되여 우리 군대의 생명을 보호해줄것입니다.》

부녀회원들은 감격이 북받쳐 옷고름으로 눈굽을 찍었다.

며칠후 아침 군복을 실은 말달구지 넉대가 소사하산훈련소로 떠났다. 밤새워 군복을 지은 반일부녀회원들이 모두 따라갔으나 녀사께서는 방안에 자리를 펴고 누우시였다. 군복에 대한 시름이 풀리자 강한 정신력으로 막아내고있던 겹쌓인 피로가 걷잡을수없이 온몸에 덮쳐들었던것이다. 팔을 들어올릴 기운마저 없어져 그만 노그라지시였다. 그러나 중대한 임무를 수행해낸 기쁨과 안도감으로 마음이 편안하시였다.

녀사께서는 눈을 감은채 안도에서 흘러보낸 다난한 2년세월을 돌이켜보시였다. 그 2년세월에 수많은 사람들과 새로 인연을 맺고 희로애락을 같이 하면서 여기 안도지구를 애국화, 조직화하시였다. 여기서 혁명의 인연을 맺은 수백명사람들속에는 리옥단, 안선옥이와 같은 농군녀인들, 박치근, 윤현칠이와 같은 농민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진춘발부부와 같은 중국인들도 있었다. 류호나 조춘희를 비롯하여 바른길로 이끌어가기가 조련치 않은 지식인들도 있었다. 이제는 각계각층의 그 모든 사람들이 반일애국의 단심줄에 한데 뭉쳐 맏아드님께서 손들어가리키는 항일투쟁마당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이다.

그 2년세월 가슴아픈 일도 많았다. 혁명의 길에서 희생된 김혁, 공영, 리제우, 박진영 등 열혈청년들의 비보와 시동생분의 감옥행의 슬픈 소식을 들은것도 이 안도에서였다.

문득 조선녀의 얼굴이 눈에 밟히시였다. 선녀가 살아있었더라면 군복을 실은 말달구지가 소사하산훈련소로 간 이날에 얼마나 좋아했을가.

녀사의 가슴은 미여지시는듯 하였다.

소사하산훈련소로 갔던 반일부녀회원들은 점심전으로 돌아왔다.

《군복을 실어온걸 보구 모두들 좋아했겠구만.》

녀사께서 소사하산에 군복을 인계하고 돌아온 부녀회원들에게 물으시였다.

《좋아하고 말고요. 이제 며칠새 반일인민유격대창건식을 크게 한답니다. 그런데 김선생님은 만나뵙지 못하고 왔어요. 흥륭촌의 류호훈장령감이 어디로 모시고 갔다지 않아요.》

차광수, 박훈, 김일룡, 곽명준 등 지휘관들도 따라갔다고 한다.

녀사께서는 뜻밖이시였다. 류호훈장이 맏아드님을 어디로 모시고 갔는지, 무슨 중대한 일이기에 차광수를 비롯한 지휘관들까지 따라갔는지 전혀 짐작하실수 없었다.

×

소사하산훈련소에서 동남쪽으로 20여리 숲속길을 헤쳐가면 이깔나무덤불속에 웅크리고앉은 집채같은 츠렁바위가 나진다.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소사하산을 떠난 류호는 그 츠렁바위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김선생님, 제가 말씀드린것은 바로 이 츠렁바위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림속에 홀로 외롭게 앉아있는 바위를 유심히 지켜보시였다. 얼핏 보면 특별한것이 없는 츠렁바위였다.

《자, 여길 보십시오. 글이 새겨져있습니다.》

류호는 바위뒤면을 가리키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바위뒤로 돌아가시였다. 푸르틱틱한 이끼가 돋아있는 평평한 바위벽에 정자체의 한문글자들이 새겨져있었다. 어떤 글자는 세월의 비바람에 퇴색되여 잘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앞뒤글을 련결시키면 다음과 같은 글의 내용을 되살려 읽을수 있었다.

《대낮에도 호랑이가 뛰여다니며 뭇짐승들을 물어메치는 험산 심산, 무엄해라. 산중의 제왕은 만물의 령장도 제 먹이로 여기누나.

묻노니, 그대는 어이하여 인간법도가 없는 심산속에서 맹수의 위협을 받으며 사느뇨?

나에게 묻지 말고 공자님께 물어보시라.

인간세상의 제왕은 산중제왕보다 더 무섭도다. 서쪽 평안실의 태후님을 피해 여기서 사노라!》

누가 이런 글을 바위벽에 쪼았을가?

지휘관들은 전설적인 신비감에 사로잡혔다. 그들이 리해할수 없는

것은 **김일성**동지께서 반일인민유격대조직사업에 참고할만 한 비문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데리고 오신것이였다.

이 비문에 무슨 참고할만 한 가치가 있단 말인가? 기실 군사와는 아무런 련관도 없는 글이였다.

류호가 이 비문을 처음으로 본것은 3년전이였다. 그때 인간세상의 무상함에 놀라기는 하였으나 별로 크게 관심을 돌리지 않았었다. 그런데 어제 흥륭촌 혁명호제회에서 마련한 후원물자들을 가지고 소사하산훈련소에 갔을 때 문득 츠렁바위비문이 상기되여 **김일성**동지께 그저 지나가는 말로 여쭈었었다.

그 이야기를 아주 심중히 들은 **김일성**동지께서 래일 같이 비문을 보러 가자고 하시여 여기로 오게 된것이다.

《류호선생님, 어떻습니까. 이 글은 청나라시기의 어느 정객이나 문객이 통치자들의 탄압을 피해 여기서 숨어살면서 짬짬이 쪼아새긴 석문같지 않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 츠렁바위너설을 손으로 쓸어만지면서 류호에게 물으시였다.

《옳습니다. 서태후실권시기입니다. 그는 아주 고약한 악녀였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이 비문을 새긴 수난자가 여기에 숨어서 살 때에는 이곳 수백리안팎이 집 한채 없는 무인지경이였을것이다. 그러던것이 가혹한 봉건통치에 시달린 사람들이 《치외법권》지역인 이 산중으로 계속 모여들기 시작하여 마침내는 송강이라는 인가마을이 생겨 청나라정치지도에 오르게 되였을것이다. 안도현이라는 행정기구가 생겨난 다음에도 철도와 자동차길이 없는 여기 대밀림지대에는 국가통치가 적게 미치였다. 일제도 수백리밀림에 둘러싸인 이 지대에는 들어설 엄두조차 못하였다. 하여 20세기초부터는 나라잃은 조선의 망명객들과 독립운동자들이 왜놈들을 피해 이곳으로 찾아들어 현소재지주변에 흥륭촌, 대흥툰, 소사하와 같은 조선주민들의 마을이 생겨난것이다.

안도현의 연혁사를 이렇게 상상해본 **김일성**동지께서 차광수네 지휘관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시였다. 《나쁜 정치가 범보다 더 무섭다는 말은 기원전시기에 나온 말인데 나쁜 정치는 오늘까지도 그쳐지

지 않고있습니다. 사실 나는 많은 생각을 하고 여기로 왔습니다. 무엇을 생각했는가? 우리는 단지 왜놈들을 몰아내는데 그치지 말고 모든 인민들이 행복하게 잘살수 있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는 생각이였습니다. 인민들이 통치자들을 범보다 더 무서워하는 그런 나라야 있은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 글을 보면 그것을 통절히 느끼게 됩니다.

동무들, 우리는 총을 가진 군대가 되였습니다. 인민들이 우리를 범처럼 무서워하게 되여서는 안됩니다. 지난날 독립군들은 인민들에게 무섭게 굴었습니다. 군자금을 내지 않으면 반역자라고 하면서 총을 내댔습니다. 우리는 그런 군대가 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바늘 하나라도 인민의 물건은 다치지 말아야 합니다.

손에 총을 쥐고 권력이 커지면 인생관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총의 위력이 커질수록 인민을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것이 지휘관의 풍모입니다. 대원들이 지휘관을 범처럼 무서워하게 되면 안됩니다. 지휘관들은 대원들의 어머니가 되고 누나가 되고 형님이 되여야 합니다.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을 세상에 선포하기 전에 지휘관동무들에게 그것을 말하고싶어 여기로 데리고왔습니다.》

《**김일성**동지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박훈이 격동된 어조로 온 산판이 울리도록 크게 웨치였다. 황포군관학교출신인 그는 훈련을 지도하면서 대원들에게 조폭하게 행동한 때가 적지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민의 군대가 됩시다.》하고 강조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류호를 돌아보며 이틀후에 반일인민유격대창건식을 하게 되는데 조언을 달라고 하시였다.

《제가 무슨 조언을 드리겠습니까. 저는 방금 김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감동됐습니다. 김선생님을 모시고 오면서도 그 깊은 뜻을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 백성으로서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받으신 김선생님을 이름그대로 태양으로 받들어모시겠습니다.》

류호는 중절모를 벗고 두루마기 앞섶을 바로하며 머리를 깊이 수그리였다.

《선생님도!… 아들같은 젊은 사람을 보고 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자, 그럼 돌아갑시다. 훈련소에 가서 점심을 하고 말파리 한대를 내드릴테니 타고가십시오.》

《아니올시다.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분에 넘치게 륭숭한 대접을 받았는데 무얼 또 가서 군량을 축내겠습니까. 여기서 지름길을 타면 흥륭촌까지 그리 멀지 않습니다.》

류호는 끝내 고집을 부려 **김일성**동지의 일행과 헤여졌다.

그는 기분이 좋아 흥얼흥얼 코노래를 부르며 숲속길을 걸어갔다. 10여리를 걸어갔을 때 숲속 고샅길로 마주걸어오는 처서군차림의 사나이를 띠여보고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이게 누구요. 최동화선생이 아니시오?》

《뉘신지?》

최동화는 눈을 쪼프리고 류호를 바라보았다.

류호는 3년전에 최동화를 만나본적이 있었다. 그때 최동화는 계급혁명론을 풀었고 류호는 음양론을 말하였다. 그후 최동화는 류호를 반혁명분자라고, 제1차적으로 타도해야 할 민족주의자라고 규탄하고 헐뜯으며 돌아다녔다.

《내가 바로 최선생이 반혁명분자라고 노상 욕을 한 류호라는 사람이올시다.》

최동화는 놀라며 부지중 뒤걸음을 쳤다.

《최선생이 소사하 어디에 숨어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뜬소문이 아니였군요.》

류호는 빈정거리듯 입술을 실그리였다.

《나는 소사하에 더 있지 않겠습니다. 림시 좀 와있었지요. 자, 그럼.》

최동화는 말하고싶지 않은지 류호의 어깨를 스치며 재빨리 지나갔다.

《소사하를 떠나더라도 며칠후에 떠나시오. 래일모레 반일인민유격대창건식을 한다니 구경하고가시오.》

류호는 벌써 저발쯤 걸어간 최동화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최동화는 우뚝 멎어섰다. 오래도록 까딱 움직이지 못하고 서있는 그 모양이 꼭 돌조각상같았다.

최동화는 그후 소사하에서 사라져버렸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4

마침내 반일인민유격대창건을 선포하는 날이 왔다.

울창한 이깔나무숲에 에워싸인 토기점골등판에 새 군복을 입고 총을 멘 청년들이 긴 횡대형으로 정렬하였다. 안도, 연길, 화룡, 돈화 등 동만각지와 조선국내에서 온 청년들이였다.

수백명군중들이 토기점골등판가녁에 반달형으로 둘러서서 청년군인들을 바라보며 감격에 설레이고있었다. 지도에도 명백히 새겨있지 않는 이 적막한 심산마을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보기는 처음이였다. 소사하마을사람들은 거의다 모이고 대사하, 송강, 흥륭촌, 류수하마을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차렷!》

구령이 울리였다. 참모장 차광수의 구령소리였다.

군복을 입은 **김일성**동지께서 대렬앞으로 걸어나오시였다.

차광수가 거수경례를 한채 절도있게 걸어가 그이께 보고를 올렸다.

《**김일성**동지! 부대는 반일인민유격대창건식을 하기 위해 정렬하였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경례를 받으시였다.

한순간 그이께서는 눈앞이 뿌잇하게 흐려지고 목이 메여올라 아무 말씀도 못하시였다.

수천년 민족의 력사가 그이의 눈앞으로 흘러갔다. 압록강, 두만강을 뛰여넘어다니는 고구려무사들의 함성이 들려온다. 기치창검이 번뜩인다. 을지문덕, 강감찬, 리순신… 오랑캐들을 물리친 이 나라 용맹하고 슬기로운 애국명장들의 군상이 연줄연줄 흘러간다.

찬란한 문화와 자랑스러운 애국전통을 지니였건만 무능하고 잔인한 봉건통치와 썩어빠진 사대주의로 하여 망한 우리 나라!

나라를 빼앗긴지도 어언 20여년, 얼마나 많은 우리 동포들이 간악한 일제의 총검에 찔리고 군화발에 짓밟혀 쓰러졌던가. 이 땅에 수

천수만의 주검을 쌓은 3.1인민봉기, 6.10만세의 항거, 처참하고 치욕스러운 패전의 기록을 남긴 의병과 독립군의 항전…

사대와 파쟁으로 자멸해버린 독립운동단체는 그 얼마였던가. 실패와 좌절로 이어진 항일구국의 슬픈 력정을 통감했기에 우리는 사대도 파쟁도 탐위도 없는 진정한 인민의 당과 군대를 갈망하였다. 하여 오늘 드디여 인민의 토양에 뿌리를 박은 반일인민유격대의 탄생을 맞이하게 된것이다!

《동지들, 우리는 오늘 세계를 향해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을 선포하고있습니다.》

드디여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슴에 응축되여있던 애국의 열정과 구국의 사색을 터치며 열화같은 연설을 시작하시였다.

이날은 1932년 4월 25일이였다.

소사하의 하늘은 유난히 밝았다.

×

《어머니!》

반짇고리에서 실패를 집어들던 강반석녀사께서 마당에서 급히 부르는 소리에 흠칫하며 고개를 드시였다. 차광수의 목소리였다. 지게문이 벌컥 열리였다.

《어머니, 전체 부대가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겠다구 지금 토기점골에 정렬했습니다.》

《그래?》

움쭉 일어선 녀사께서 휘친하며 벽에 손을 짚으시였다. 차광수가 얼른 방안으로 들어가 녀사를 부축해드렸다.

《어머니, 가십시다.》

차광수는 오늘 반일인민유격대가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며 안도성시에 입성하여 무력시위를 하였다고 하였다. 송강시가의 주민들뿐아니라 반일구국군들과 관공서의 관헌들, 공안국의 순경들까지 붉은기를 휘날리며 행진하는 반일인민유격대의 장쾌한 무력시위를 보고 탄성을 올리며 엄지손가락을 내밀었다는것이였다.

《반일인민유격대는 송강시가를 몇바퀴 돌고 토기점골로 돌아왔습

니다. 우리 유격대창설을 위해 온갖 수고를 다하신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자고요.》

《내가 뭘 한게 있다구… 그러나 우리 군대가 기다리고있는데 가야지, 가구말구!》

녀사께서는 머리를 비다듬고 나들이옷을 입으시였다.

군대가 정렬해있는 토기점골산기슭까지는 멀지 않았다. 하지만 녀사께서는 차광수의 팔에 의지하여서도 오랜 시간 걸려 가시였다. 조그마한 돌에 발을 채워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칠거리시였다.

나지막한 언덕을 넘어서자 **김일성**동지께서 마중나오시였다.

《어머니, 저기 정렬한게 우리 군대입니다.》

녀사께서는 새 군복에 무기를 잡고 산기슭에 긴 대오를 지은 젊은 군인들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탄성을 올리시였다.

《훌륭하구나! 장하다!》

병색이 짙은 여위고 창백한 녀사의 얼굴에 붉은 혈조가 피여오르시였다. 순간 **김일성**동지께서는 《너희들이 혁명을 잘하면 내 병은 저절로 낫는다.》고 하던 어머님의 말씀이 상기되시였다. 진정 어머님의 병이 나아지는것만 같아 그이께서는 기쁨에 겨워 말씀하시였다.

《어머니, 우리 동무들이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겠답니다.》

《조선사람모두가 받아야 할 인사를 내가 받는단 말이냐.》

언제나 겸손한 녀사께서는 군대의 인사를 받는것이 분에 넘치다고 생각하시였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들이 보고싶어 그이의 발걸음은 저절로 대오를 향해 옮겨졌다.

《차렷!》

차광수가 힘차게 구령을 울리였다.

《우리 어머니, 강반석어머님께 경례!》

차광수는 오각별 빛나는 군모밑에 손을 붙이고 어머님께 경례하였다.

녀사께서는 감격에 가슴을 설레이며 손을 드시였다.

《장해요, 훌륭해요!》

녀사께서는 또다시 그 말씀을 반복하시였다. 긴 대렬을 지은 름름한 군인들을 둘러보시니 모두가 낯익은 청년들이였다. 찰조밥을 뭉그려 길량식으로 바랑에 넣어보낸 젊은이도 있고 여투어모은 지전을

로비로 주어보내신 사람도 있었다.

그이의 지도밑에 혁명활동을 하던 청년들, 그이한테서 글을 배우고 병을 고친 청년들, 모두가 강반석녀사의 사랑을 받은 청년들이고 그이를 우리 어머니라고 부르던 아들들이였다.

녀사께서는 사랑하는 아들들을 향해 걸어가시였다. 먼저 소사하의 산바람에 세차게 퍼덕이는 붉은 기발앞에 다가서시였다.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열혈청년들의 얼굴이 녀사의 눈앞으로 흘러갔다. 김혁, 김형권, 공영, 리제우, 최효일, 박진영… 손으로 꼽을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이날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 철창속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 그들의 끓는 피에 젖어 이 기발이 이렇게도 붉구나!

녀사께서는 붉은기를 쓸어만지시였다. 이윽고 붉은기뒤에 서있는 청년에게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곽명준이였다.

《명준이로구만!》

녀사께서는 그의 군복어깨를 쓰다듬다가 허리에 찬 권총집에 손을 가져가시였다. 불현듯 조선녀의 얼굴이 명준이의 얼굴과 나란히 놓이며 녀사의 시야를 꽉 채우는듯 하였다.

녀사께서는 명준이의 권총집을 이슥토록 어루만지시였다.

《이게 비싼 값을 치른 총이네. 선녀가 구한 총이야!》

《어머니!》

억대우같은 젊은 사나이의 청동빛두볼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녀사께서는 고개를 돌리며 몇자국 걸어가시였다. 윤현칠이가 서있었다. 녀사께서는 그가 잡은 보총이며 군복이며 탄띠를 만져보시였다.

《현칠이가 이젠 명사수가 됐다지?》

《어머니!》

윤현칠은 울먹이며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자기의 오발로 녀사의 다리에 상처를 입혔던 죄스러운 실책을 생각했던것이다.

녀사께서는 윤현칠이 입은 군복이 몸에 맞는가 보며 옷자락을 당겨 주름을 펴주고 깃고대도 바로잡아준 다음 왼쪽가슴에 붙인 오각별을 오래오래 생각깊이 지켜보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렇게 진춘발, 박치근, 리영배, 김철희, 박훈, 김일룡 등 여러 지휘관들과 대원들의 앞을 지나면서 총을 쓸어만지고 어

깨를 애무하고 탄띠를 집어보며 연신 《장해요, 장해!》하고 감탄해 마지 않으시였다.

한참만에야 대렬에서 몇걸음 뒤로 물러난 녀사께서 전체 대원들에게 말씀하시였다.

《앞으로 잘들 싸워요. 총을 더잘 익히고 훈련을 더 잘해서 모두가 쇠소리나는 군사들이 되세요.》

강반석녀사께서는 숨이 차서 잠간 말씀을 끊었다가 계속하시였다.

《젊은이들의 어깨에 메여있는 그 총들을 다시 찬찬히 보세요. 그 총에는 동지들의 피가 스며있고 부모, 형님, 누나들의 절절한 소원이 담겨있어요.》

녀사께서는 먼산을 가리키시였다. 《저 산너머에서 젊은 군사들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와요. 〈사랑하는 조선의 아들들, 내 아들들아, 잘 싸워라!〉, 이것이 이 나라 어머니들의 목소리이고 부탁이예요. 어머니들을 생각해서라도 잘 싸우세요.》

손을 높이 드시는 녀사의 얼굴은 땀에 흠뻑 젖어있었다.

《우리 어머니 강반석어머님께 다시한번 경례!》

구령소리에 이어 전체 대원들이 받들어총을 하고 《우리 어머니 강반석어머니 만수무강! 만수무강! 만수무강!》하고 뜨겁게 3창을 하였다. 티끌만 한 가식도 없는 이 나라 군인들의 진정한 축원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강반석녀사께로 다가오시였다.

《어머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저기 앉아쉬면서 우리 동무들이 훈련하는걸 보십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머님을 산기슭 한쪽에 놓여있는 진대나무에 모시였다. 앉기에 맞춤한 대형천연의자였다.

이윽고 류창한 나팔소리가 울리고 뒤따라 구분대별로 훈련이 시작되였다. 각종 형식의 총쏘기, 말달리기, 창격전과 장애물극복, 격술, 수십종의 군사훈련을 보시며 녀사께서는 손벽을 치고 탄성을 올리시였다.

《정말 훌륭하다. 네 아버지가 저것을 보셨더라면 얼마나…》

녀사께서는 목이 꽉 메이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늘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자면 군민을 옳게 이

끌어갈 당이 있어야 하고 무장한 일제를 무장으로 때려부실수 있는 군대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하기에 림종의 시각에 두자루의 권총을 녀사께 내놓으셨던것이다. 아버님의 그 유훈을 받들어 아드님께서는 조선의 만년주추돌이 될 당조직을 내오고 오늘은 반일인민유격대라는 무장부대를 창설하였으니 녀사의 기쁨은 무어라 형언할수 없는것이였다.

댁으로 돌아와 누운 녀사께서는 우리 군대의 훈련모습이 그냥 눈앞에 밟히여 흥분을 진정시킬수 없으시였다. 훈련장에서 들은 나팔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하시였다. 그것은 이날 처음으로 들으시는 것이 아니였다. 만경대에서도 봉화산에서도 아침이면 저렇게 나팔소리가 울리군 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잠자는 학생들에게 울려주신 기상나팔소리였다. 단지 학생들만이 아닌 이 나라 모든 동포들에게 울려주시는 기상나팔소리였던지 모른다. 그 나팔소리가 소사하의 푸른 하늘에 진군의 나팔소리로 이어지고있었다.

《저 소리를 들으시나요? 우리 군대 훈련하는걸 보시는가요?…》

녀사께서는 온밤 선생님을 생각하며 베개잇을 눈물로 적시시였다.

5

녀사께서는 이틀째 진지를 못들고 좁쌀미음을 쑤어 끼마다 조금씩 마시시였다. 날이 갈수록 그이의 병은 악화되였다. 이제는 미음도 삭이지 못해 속에 들어가면 내려가지 않았다.

녀사께서는 벽에 비스듬히 등을 기대고 앉아 괴뢰만주국신문의 소식란에 실린 글을 읽으시였다.

《명월구에서 안도로 가던 위만군수송부대가 밤 12시경 소영자령에서 정체모를 무장단의 습격을 받아 수십명의 사상자를 내고 말파리 12대에 싣고 가던 수송물자 전량과 17정의 보총과 1정의 권총을 로획당하였다. 10여명의 위만군이 포로되여 행방을 알수 없는데 그중에는 수송부대를 인솔하던 일본군 하사관도 있다.》

여기서 정체모를 무장단이라고 한것은 다름아닌 **김일성**동지께서 지휘하시는 반일인민유격대였다.

반일인민유격대는 소사하의 외진 등판에서 고고성을 울리자마자 빛나는 전과를 올리여 벌써 동만각지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었다.

김일성부대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것은 바로 소영자령전투때부터였다. 소영자령은 안도에서 명월구로 넘어가는 중간지점이였다. 소사하에서 지름길을 타면 4시간안팎으로 가닿을수 있는 곳이였다.

녀사께서는 지척에서 활동하는 맏아드님을 한달남짓이 보지 못하시였다. 지금은 반일인민유격대가 토기점골에서 15리밖에 안되는 가까운 곳에 주둔해있다고 했다. 몇달전만 하여도 15리길을 단숨에 걸어다니던 녀사께서 이제는 단 1리도 몇숨을 쉬여서 겨우 다니실수 있게 된것이다.

《너희들이 혁명을 잘하면 내 병은 저절로 낫는다.》하고 무시로 외우던 녀사이시였다. 그런데 아드님께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고 날마다 무공을 세우시고있건만 어찌하여 녀사의 병은 낫지 못하고 더해만지시는가.

녀사께서는 자주 문밖에서 일어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였다. 어쩐지 아드님께서 찾아오실것만 같은 예감이 드신것이다.

문득 삽짝문어방에서 발자국소리가 나는것 같으시였다. 착각일가? 아니, 분명히 귀익은 발자국소리였다. 저벅, 저벅, 땅을 힘있게 디디는 발자국소리는 마당으로 가까이 흘러오고있었다. 녀사께서는 무언중 문설주를 짚고 일어서며 지게문을 여시였다.

《어머니!》

무슨 쌀자루같은것을 진 맏아드님께서 소리쳐부르며 토방앞으로 다가오시였다.

《성주로구나. 글쎄 네가 꼭 올것 같았다.》

녀사께서는 버선발로 토방으로 뛰쳐나오시였다. 그러고는 맏아드님께서 벗어놓은 불룩한 무명자루를 어루만지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그 자루를 들고 방안으로 들어오시였다. 쌀자루였다. 오늘 부대를 찾아온 철주동생으로부터 어머님의 병이 심해진다는 말을 들은 그이께서 동무들이 모아준 돈으로 좁쌀 대두 한말을 사가지고 오신것이였다.

《그래 차광수랑 박훈이랑 명준이랑 다 잘있느냐?》

어머님께서는 아드님의 손을 잡고 수많은 유격대원들의 이름을 부르시였다.

《다 잘있습니다. 차광수가 이제는 제법 무관의 맛이 납니다. 소영자령에서 싸움을 해보더니 〈별게 아니로군, 참모장을 꽤 해낼가 했는데…〉하더니 대원들앞에서 〈일본놈들이 망할 때까지 우리는 오늘처럼 내내 그놈들한테서 무기공급을 받읍시다, 이것이 우리 유격대의 생존방식이고 투쟁방식입니다〉하고 한바탕 연설했습니다.》

《아닌게아니라 소영자령소문이 대단한것 같다. 이것 봐라, 벌써 신문에까지 났다.》

녀사께서는 보시던 신문을 아드님앞에 내놓으시였다. 하지만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문장이 아니라 내내 녀사의 얼굴을 살펴보시였다.

녀사께서는 무탈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시였다. 그러나 아드님의 눈을 어떻게 속이실수 있겠는가. 우선 수척하고 창백해진 얼굴의 병색을 가리우실수 없었다. 팽팽히 헹기우던 저고리품이 이제는 훌렁훌렁해졌다. 모든 옷이 다 커져서 마치 남의 옷을 입으신것만 같았다. 귀밑머리에는 흰오리가 많아지시였다.

아드님께서는 떨리는 눈길로 어머님의 온몸을 더듬으시고 《할머니는 만경대로 돌아가셨다지요?》하고 조용히 물으시였다.

얼마전 리보익할머님께서는 마춘욱이 마련한 말파리를 타고 홀로 흥륭촌을 떠나시였다. 림강까지만이라도 보살필 사람을 달아보내려고 하였으나 할머님께서 완강히 거절하시였다. 앓고있는 두 며느리를 두고 떠나는 할머님의 마음이 오죽하셨겠는가. 할머님께서는 흐느껴우는 채련옥에게 돌아가서 만경대일을 얼마간 보아주고는 곧 돌아오겠다고 하시였다.

《할머니는 가셨다. 무송에 들려 리면장네 집에서 며칠 로독을 풀고 가시라고 했는데 어쨌는지 모르겠구나. 그 성미에 무얼 남의 집에 앉아계셨겠니.》

만경대는 먼곳이니 할머님께서 아직 도착하지 못하시였을수도 있었다. 늙은이로서는 너무도 고생스럽고 지난하고 슬픈 려행길이였

다. 그러나 **김일성**동지께서는 할머님의 고생스러운 려행길만이 걱정되는것이 아니시였다. 어머님의 일이 더 불안하시였다.

아드님의 표정에서 그러한 불안을 읽은 강반석녀사께서는 집안일과 관련한 화제를 될수록 피하려고 하시였다.

《왜놈들이 지금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왜군과 위만군이 소영자령을 넘어다니는걸 보니 안도도 편안할것 같지 못하다.》

《예, 왜놈들이 이제는 안도로 들어설 차비를 하고있습니다.》

《국제련맹이 릿든조사단이라는걸 만주에 파견해서 9.18사변에 대해 시비를 가르고 왜놈들에게 추궁을 한다는 말이 돌았는데 그게 다 쓸데없는 일같다.》

《국제련맹에 기대를 거는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도 사대주의입니다. 력사적으로 사대주의의 쓴맛을 한두번 보았습니까.》

국제련맹이 릿든조사단을 만주에 파견하여 9.18사변의 진상을 밝히게 하였지만 일제는 코웃음을 치면서 만주전역으로 계속 싸움을 확대해나갔다. 몇달사이에 동북만의 도시와 농촌을 거의다 점령하였을뿐아니라 이해 정초에는 금주를 삼켜버리고 중국본토침략을 위한 야심에서 상해사변을 조작하였다.

상해사변이란 일제가 상해홍구에 있는 일본승려 다섯명이 중국인들한테 매를 맞았다는 구실로 해군륙전대를 동원하여 상해에 대한 대규모적인 무장공격을 감행한것이다.

상해의 애국적인 군인들은 일제의 공격에 반격을 가하였으나 장개석의 반동국민당정부의 매국배신적인 정책으로 상해항전은 실패로 끝나고 굴욕적인 송호협정이 체결되였다.

《만주가 이 모양으로 번져가는데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할 작정이냐?》

녀사께서는 계속 정치문제로 대화를 이끌어가시였다.

《유격대가 요 좁은 골안에 앉아 안도관내에서만 활동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활동무대를 넓히고 통일련합전선도 더 광범히 확장하자는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남만으로 원정하여 량세봉사령의 독립군부대와 련합전선을 맺자고 결심했습니다. 일부 동무들은 반공사상이 뼈속까지 사무쳐있는 국민부의 민족주의자들과 합작이 실현될수 있겠는가고 우려하지만 남의 나라의 구국군과 통일전선을

한 우리가 한피줄을 이은 제 나라 독립군과 왜 손을 잡지 못하겠습니까.》

남만원정이라는 말에 녀사께서는 일순 놀라시였다. 너무도 먼 곳이였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인차 아드님의 통이 큰 작전에 동의하시였다.

《그래 언제 떠나려느냐?》

《오늘, 래일 당장 떠나려고 합니다. 사실은 어머니에게 떠난다는 인사도 하고… 두루 그래서 왔는데… 남만으로 가면 몇달동안은 어머니를 뵙지 못하게 됩니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아드님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시였다. 아드님의 눈빛에서 자신의 병때문에 동요하고 걱정하는 어두운 마음을 읽으신 녀사께서는 밝은 웃음을 지으며 아드님을 고무하시였다.

《성주야, 집걱정은 말고 떠나거라. 너희들의 결심이 장하다. 련합전선을 맺을분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량세봉선생이니 너를 반겨맞을게다. 화전에서 량세봉선생과 김시우선생은 너의 아버지와 의형제를 무은분들이다. 량선생 부인도 나와 동서간처럼 가까왔다.

나라를 잃고보니 가까이 모여서 살 혈육, 친척, 친구들이 서로 천리나 떨어져 살고있구나. 통화에 가면 내 인사를 전해다오. 성공하고 돌아오너라. 나는 여기서 기다리겠다.》

6

그날밤 강반석녀사께서는 아드님과 자정이 넘도록 이야기하시였다. 만경대고향집에 대하여, 무송의 소남문거리와 양지촌 김형직선생님의 묘소에 대하여, 서울에서 옥고를 치르고있는 김형권선생님과 강진석선생님에 대하여, 독립의 한을 품고 돌아간 애국선렬들에 대하여 오래오래 이야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튿날 아침 일찌기 동생을 데리고 방을 나서시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아드님께서 남만으로 가기 전에 구당에 필요한 조직사업을 하러 간다고 생각하시였다. 그런데 웬일인지 점심때가 지

나도록 아드님은 돌아오시지 않았다.

녀사께서는 불안하시였다. 어디서 무슨 변고가 생기지 않았는가 하는 불길한 예감에 마당으로 나가 주변을 둘러보시였다. 신록이 짙어가는 초여름의 푸른 수림이 시야에 안겨올뿐 사방이 인적없이 고요하였다. 먼 산기슭에 바라보이는 조밭에 흰옷들이 얼른거리였다. 김매기철이 시작되였다.

녀사께서는 삽짝문밖으로 걸어나가 무심결에 뒤산을 바라보시였다. 순간 몸을 흠칫하며 눈을 비비시였다. 맏아드님께서 군복웃저고리를 벗어놓고 쉬나무며 싸리나무들 같은 잡관목들이 빽빽이 자란 뒤산중턱에서 낫질을 하고계시였다. 그이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허드레옷을 입은 김철주가 나무단을 묶고있었다. 한아름이 벌게 묶어놓은 나무단들이 여러곳에 널려있었다.

녀사께서는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무시였다. 점심도 건느고 나무를 하는 두 아드님을 보니 가슴이 아프시였다. 한편 맏아드님에 대한 서운한 생각도 드시였다.

남만원정을 앞두고 할일이 많겠는데 종일 나무를 하다니…

녀사께서는 되짚어 마당으로 돌아와 문턱에 걸터앉으시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던지 발자국소리가 들려 녀사께서는 무릎을 짚고 일어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지게뿔이 보이지 않게 쉬나무단을 높이 실은 지게를 지고 마당으로 들어서시였다. 그이께서 지게를 작시미에 버티여놓고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씻으며 돌아서실 때 녀사께서 불쑥 언짢게 물으시였다.

《아니, 이 산골에서 땔나무가 걱정돼서 점심두 안 먹구 종일 나무를 하느냐?》

《산에 올라가 풀냄새랑 맡으니 기분이 좋습니다. 뒤산에 나팔꽃이 많구만요.》

김일성동지께서는 일부러 딴전을 피우며 부엌에 들어가 랭수를 한사발 들이키고 나오시였다.

그날 저녁 녀사께서는 기력이 빠지는 몸으로 맏아드님께서 구해오신 좁쌀로 밥을 짓고 어린 아드님들이 앞개울에서 낚은 버들치를 잉걸불에 구우시였다.

네식구가 이날 저녁 오래간만에 한상에 오붓이 둘러앉아 저녁을 드

시였다. 맏아드님께서는 버들치구이가 별맛이라고 하며 저녁을 달게 드시였다.

녀사께서는 맏아드님의 눈을 속이느라 숭늉사발에 밥을 말고 숟갈을 뜨는척 하시였다. 그러다가 가마물이 잦아서 가마치가 탄다고 하며 밥사발을 들고 부엌으로 내려가시였다.

밤이 깊어 어린 자제분들이 잠에 들었을 때 녀사께서는 어두운 안색을 짓고 앉아있는 맏아드님께 물으시였다.

《성주야, 뭘 그리 생각하느냐? 얼굴색이 밝지 못하구나.》

김일성동지께서는 인차 대답을 못하고 조용히 한숨을 쉬시였다. 한참만에야 정작 남만으로 떠나자니 어머님의 병이 걱정된다고 하시였다.

녀사께서 안색을 흐리시였다.

《성주야, 내가 늘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혁명을 잘하면 내 병은 저절로 낫는다고. 나라를 찾겠다고 나선 사람이 집걱정에 발목이 잡혀서야 되겠느냐. 그래서는 아무 일도 못한다. 그렇다고 내가 나라와 가정을 떼여놓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그렇다, 녀사께서는 늘 부녀회원들에게 나라와 가정은 한피줄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가정을 애국화해야 마을이 애국화되고 나라의 온 백성이 단합될수 있다는것은 녀사의 생활지조이시였다.

녀사께서는 한결 가라앉은 목소리로 아드님께 말씀하시였다.

《나는 오늘 네가 산에 올라가 나무하는것을 보고도 생각이 많았다. 물론 혁명하는 사람이라고 집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 아니다. 시간이 있으면야 집의 일도 해야지. 그러나 네게는 조선독립운동의 명줄과 매여있는 더 큰 일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집안일은 걱정말고 네 할 일을 하고 네 갈 길을 가거라. 그래야 내 병이 낫는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오늘밤은 어머니곁에서 자고 래일은 곧 남만으로 떠나겠습니다.》

《그래라.》

녀사께서는 흔연한 표정을 지으며 부엌으로 내려가 엊그제 김정룡의 안해가 보내온 한되박되는 콩을 불구시였다. 아침에 맏아드님께 비지를 해주시려는것이였다.

새벽에 조용히 일어난 녀사께서는 콩을 갈려고 망돌앞에 마주앉으

시였다. 먼길 떠나는 맏아드님께 꼭 자신의 손으로 만든 음식을 차려주고싶으시였다.
그러나 망돌은 두세바퀴를 겨우 돌고 멎어버렸다. 녀사께서는 안타까움에 잠겨 망채를 잡은 손을 한참이나 바라보시였다.
어느새 감촉했는지 철주가 곁에 와 어머니의 손을 슬그머니 내리우고 힘차게 망질을 하기 시작하였다. 눈을 내리깔고 돌아가는 망돌을 지켜보는 철주의 두눈이 축축히 젖고있었다.
이 광경은 맏아드님의 시야에도 비껴드시였다. 가슴이 쓰리였으나 내색을 하지 못하시였다.
조반상에는 시래기를 잘게 썰어 거리로 넣은 콩비지가 올랐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콩비지가 별맛이라고 하면서도 골숨하게 담은 놋종발의 밥을 절반도 비우지 못하시였다. 사발에 담은 비지도 절반이나 덜어내시였다.
《왜 밥을 안 먹느냐. 골숨하게 담은 밥도 다 내지 못하느냐.》
《많이 먹었습니다. 비지가 있으니 밥을 더 먹지 못하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상을 물리고 밤새 어머님께서 손질해주신 군복상의를 입으시였다.
녀사께서는 조반설겆이를 하고 아래방구석에 놓인 고리짝을 여시였다. 소사하로 이사올 때 마춘욱이네가 가구라고는 궤짝 하나밖에 없는 녀사께 물건가지를 넣으라고 드린것이다. 왕골로 겯은 고리짝에는 옷가지들과 겨울버선들 그리고 무명천쪼박들이 차곡차곡 쌓여있었다. 맨 밑창에 백로지로 싼 자그마한 물건이 있었다.
녀사께서는 그것을 꺼내여 백로지를 헤치시였다. 5원짜리 지전 넉장이 있었다. 그 20원의 돈은 삯바느질과 삯빨래를 하면서 한푼한푼 모아두신것이였다. 언제이건 바로 오늘과 같은 일이 있으리라 예견하고 모으신 사랑의 돈이요, 조선독립에 대한 갈망과 념원의 루적이였다.
아드님께서는 문턱에 걸터앉아 신발끈을 매고계시였다.
《성주야, 남자의 주머니엔 급할 때 쓸 돈이 있어야 한다. 이걸 받아라, 겨우 20원이다.》
녀사께서는 백로지로 싼 돈을 아드님의 군복웃주머니에 넣어주시였다.

《어머니, 이 많은 돈을… 전 일없습니다. 앞으로 돈쓸 일이 많겠는데 집에서 쓰십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돈을 꺼내여 고리짝우에 놓으시였다.

《어서 넣어두거라. 밖에 나가다니느라면 별일이 다 있다. 요긴할 때 쓰거라. 네 아버지가 가끔 말씀하시군 했는데 중국의 손문선생도 감옥살이를 할 때 청소부한테 돈을 찔러주어 감옥을 빠져나왔다더라.》

녀사께서는 돈을 싼 백로지를 한번 쓰다듬고 아드님의 웃주머니에 넣어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사적으로 움쭉 일어서시였다. 그러나 아무 말씀도 못하고 굳어진듯 서계시였다.

녀사께서는 부엌에 내려가 물사발을 들고 아드님께서 서있는 토방으로 올라오시였다.

《옛날에 장수들이 전장으로 떠날 때면 어머니와 안해들이 정화수를 떠서 마시게 했다더라. 오늘 새벽 샘터에서 떠온 소사하의 물이다. 조선의 샘물이라 생각하고 한모금 마셔라.》

《어머니!》

하얀 물사발을 받아드는 **김일성**동지의 손은 세차게 떨리시였다. 정갈한 샘물을 마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온몸으로 뜨거운것이 전류처럼 퍼져나가는것을 느끼며 동남쪽하늘을 바라보시였다. 그 순간 망망한 광야와 거대한 산악들이 모두 어머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처럼, 뜨거운 손길처럼 그이의 가슴에 안겨왔다.

《아무래도 가야 할 길인데 이젠 어서 떠나거라.》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머님께 경건히 인사를 드리고 토방을 내리시였다. 녀사께서는 손을 흔들어주고는 아드님앞에서 눈물을 보일것만 같아 얼른 방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시였다.

아드님의 발자국소리를 들으시였다. 아드님의 정겨운 목소리처럼 들으시면 인차 알리는 발자국소리, 그 소리가 삽짝문쪽으로 멀어져갔다. 아드님의 발소리는 이제 삽짝문을 지나 실개울쪽으로 사라질것이다. 그런데 웬일인가. 발소리는 실개울쪽으로가 아니라 뒤마당으로 돌아 다시 되짚어 앞마당으로 가까와오지 않는가. 한바퀴, 두바퀴 집둘레를 돌아가는 아드님의 발자국소리는 어머님의 귀청을 울

리였다.
녀사의 예민한 청각은 아드님의 발자국소리를 따라가며 갖가지 아픈 생각을 하시게 하였다.
성주가 왜 저렇게 집둘레를 돌아갈가? 골이 난 이영지붕을 보았는가? 장마철이면 그 이영지붕으로 비가 샐수 있었다. 허술한 방벽과 찌그러진 삽짝문이, 내 병든 얼굴이 성주의 발목을 잡고있는가? 원, 그렇게도 마음이 여리다니…
녀사께서는 지게문을 벌컥 여시였다. 마당으로 걸어가던 **김일성**동지께서 우뚝 멈춰서시였다.
《넌 왜 아직도 못 가고 집둘레를 빙빙 돌고있느냐?》
김일성동지께서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을 못하시였다.
《너는 간밤에 내가 한 말을 무얼로 들었느냐?》
녀사의 목소리는 준절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여전히 못박힌듯 마당에 서계시였다. 그이께서는 감히 어머님께 시선을 돌리지 못하시였다.
녀사께서는 문턱에 손을 얹은채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이제 보니 넌 그전보다 썩 달라진것 같다. 금시 원정을 하겠다면서 집에 와서 종일 나무를 하지 않나, 쌀자루를 지고오지 않나. 물론 이 에미를 걱정하는 네 효성에 대해서만은 나도 알만 하다. 그러나 나는 그런 효성을 바라지 않는다. 그런 효성을 바라는 어머니라면 무송에서 아버지장례를 치른지 며칠 안돼서 너를 화성의숙에 보냈겠느냐. 내가 이런 효성이나 받자고 무송에서랑 너와 손을 잡고 험한 길을 다니며 부녀회사업을 했겠느냐. 네가 좁쌀 백말을 가져다놓고 나무단 백짐을 해와도 내겐 아무런 위안도 되지 않는다. 너는 오직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야 하고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이 나라 백성들과 동지들의 소원을 풀어주어야 할 몸이다. 나보다도 더 못한 처지에 있는 조선사람들이 많고 나보다도 더 고생하는 어머니들이 많다.》
녀사께서는 숨이 차고 기침이 터져나와 잠시 말씀을 끊으시였다. 한줄기 세찬 바람이 소리치며 마당을 휩쓸고 지나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뿌리깊이 내린 거목처럼 까딱없이 그냥 서계시였다.

《지금 삼촌과 외삼촌이 옥고를 치르고있다. 김혁이랑 공영이랑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떠나갔느냐. 그들을 생각한다면 네가 어찌 이럴수 있느냐. 아버지가 눈을 감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을 나라에 바쳤다고 말씀하셨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 동포들이 20여년이나 왜놈의 구두발에 짓밟혀 신음하고있지 않느냐. 왜놈들과 싸우겠다고 유격대를 뭇고도 집걱정때문에 갈길도 못 가고있으니 참 답답하구나.… 일후에도 그런 걱정때문에 네가 집으로 돌아온다면 이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겠다.》

녀사께서는 주먹으로 문턱을 두드리시였다. 어머님의 꾸짖음은 뢰성처럼 아드님의 가슴을 울리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얼마나 강한 충격을 받았는지 얼굴색이 창백해지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주신 어머니에 대하여 끝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되시였다.

어머니의 뜻과 넋은 무한히 높은 곳에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비로소 고개를 쳐들고 어머님의 얼굴을 마주바라보시였다.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군모를 벗고 어머님께 깊이 허리굽혀 절을 올리시였다. 다시 고개를 쳐들고 어머님을 바라보신 그이께서는 주먹을 부르쥐며 돌아서시였다.

저벅, 저벅… 모래를 밟는 아드님의 발자국소리가 쇠북소리처럼 녀사의 귀전을 울리였다. 녀사께서는 문설주를 짚고 일어서시였다.

삽짝문을 지나 실개울을 건너서 숲언저리에 이른 아드님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시였다. 그때까지 어머님께서는 문설주에 손을 짚고 서계시였다.

드디여 아드님께서는 숲속길로 돌아서시였다. 아드님의 그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녀사께서는 온 세상이 텅텅 비여버리는것 같은 공허감에 쓰러지듯 주저앉으시였다.

녀사께서는 문설주에 머리를 기대신채 오래도록 눈을 감고 앉아계시였다. 그이의 눈앞으로 붉은 기발을 휘날리며 원정의 길을 떠나는 유격대의 행군대오가 흘러갔다. 수많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할 멀고도 험한 길을 사랑하는 아들들이 걸어간다.

녀사께서는 번쩍 눈을 뜨시였다. 천리먼길을 떠나는 유격대원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한것이 가슴에 걸리시였다.

(그들이 먼길을 간다는데 내가 집안에 앉아있다니?)

녀사께서는 안절부절하시였다.

×

그날 오후 녀사께서는 유격대원들이 토기점골 웃마을에서 원정준비를 하고있다는 말을 듣고 나들이옷을 갈아입으시였다. 유격대원들을 만나보시려는것이였다.

지팡이를 짚고 집마당을 나선 녀사께서는 몇참이나 쉬면서 가까스로 현지에 도착하시였다.

뜻밖에 찾아오신 녀사를 보고 유격대원들은 무척 놀라기도 하고 한편 반가와 어쩔줄 몰라하며 그이의 주변에 빙 둘러섰다. 맏아드님께서는 유격대에 들어오려고 찾아온 청년들을 만나보기 위해 소사하 본마을로 가고 안계시였다.

녀사께서는 주위에 둘러선 유격대원들을 정겹게 바라보며 말씀하시였다.

《임자네들이 남만으로 간다기에 보고싶어 왔네. 임자네들이 가게 될 통화는 아주 먼곳이네. 숱한 산을 넘고 많은 강을 건너야 할거네. 큰길을 걸을 때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산길을 걸을 때는 나무에 의지하게. 나는 여기서 임자네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네.》

그지없이 소박하면서도 뜻이 깊은 말씀이시였다.

사람에게 의지하라는것은 인민에게 의거하라는것이였고 나무에 의지하라는것은 군사에서 지형지물을 리용해야 된다는 뜻이였다.

녀사께서 유격대원들을 얼마나 사랑하였으면 한발자국을 옮기기도 힘겨운 때 그들을 찾아가 이런 말씀을 하셨을것인가.

유격대원들은 그 이튿날 어머님을 다시 만나뵈올 그날을 생각하며 소사하를 떠났다.

그날은 1932년 6월 3일이였다.

7

반일인민유격대가 남만으로 진출한 이후 강반석녀사의 신병은 더욱 악화되였으나 그이께서는 안도지구의 애국력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말달구지를 타고다니며 각지 혁명조직을 지도하시였다.

녀사께서는 자제분들에게도 유격대가 없는 틈을 타서 적들이 준동할수 있다고 주의를 주고 이제는 공청과 소년탐험대가 유격대를 대신해서 안도마을을 철통같이 지켜내야 하며 그 일에서 **김일성**의 동생들인 너희들이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이때부터 자제분들은 집에 있는 날보다 밖에 나가있는 날이 더 많아지게 되였다. 김철주가 변장을 위해 안경을 가지고다닌것도 이무렵부터였다. 그는 능란한 변장술로 자기 신변을 보호하는 한편 숨어서 돌아가는 왜놈의 밀정놈을 모조리 잡아냈다. 그는 6월에만도 일곱놈의 왜놈밀정을 적발하였는데 그자들은 모두 일본인부현장 후꾸모도와 련결된자들이였다. 친중분자로 가장하고 나타난 일본인부현장이 만주침략군의 척후병이라는것이 명백해졌다.

안도의 공청조직은 무한장부자를 살해하러 들어온 두놈의 자객을 잡아내여 보위단에 넘기였는데 알아보니 그놈들은 소사하에서 쫓겨나 일본군점령지역에 가있는 쌍병준이한테서 돈을 받아먹고 테로행위를 하는자들이였다.

녀사께서는 부녀회원들에게도 유격대가 돌아올 때까지 마을에 한건의 변고도 생기지 않도록 적들의 준동을 막아내는데 총력량을 돌리게 하시였다.

녀사의 용의주도한 지도와 문자그대로 초인간적인 불면불휴의 노력에 의하여 안도지구의 반일력량은 한층 더 강화되고 주민들의 각성은 비상히 높아졌다. 그 어떤 교활한 밀정도 안도마을에는 감히 발을 붙일수 없게 되였다. 반면에 녀사의 신병은 급격히 악화되여 7월 하순에 이르러서는 그이께서 위중한 병세를 더는 숨길수 없게 되시였다. 녀사께서는 마침내 몸져누우시였다.

소사하마을은 무거운 근심에 잠기게 되였다.

구당에서는 용한 의원을 데려오고 각지 혁명조직에서는 녀사의 병에 효험이 있을만 한 약첩들을 저마끔 지어보냈다. 류호, 최두현을 비롯한 홍륭촌의 반일호제회에서는 여러해 묵은 오각발산삼과 함께 녀사의 건강회복을 축수하는 글월을 올리였다. 그 글월에는 산삼노래가 적혀있었다.

산삼일세 산삼일세
일년 자란 산삼은 십년을 젊게 하고
삼년 자란 산삼은 백년장수 령약이라네
륙년을 자랐으니 천년장수 산삼일세

그러나 병이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녀사께는 백약이 무효였다.

녀사께서는 병자리에 누워서도 혁명조직을 지도하시였다.

궂은비 내리는 아침 좁쌀미음을 쑤어가지고 온 최정숙이와 남철옥에게 녀사께서는 간절히 말씀하시였다.

《임자네들한테만은 숨기지 않겠네. 내 명은 며칠 남지 않았네. 그러나 소문을 내지 말게. 우리 애들한테도 말하지 말고 조직원들모두가 자기 일에 옴하게 하게.》

녀사께서는 그들의 손을 량손에 잡고 혼신의 힘을 다해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남만으로 간 유격대원들이 머지않아 돌아올거네. 그들이 돌아오면 임자네들이 잠자리랑 끼식이랑 잘 보살펴주게. 나는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네.》

《어머니—》

가쁜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이어지던 녀사의 말씀은 돌연히 터치는 두 녀인의 울음속에 삼켜지고말았다.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린 어머닐 안 보내겠어요. … 어머닌 절대로 돌아가시지 않아! 우린 안 보내!… 엄마!…》

이제는 30대에 가까와오는 녀인들이 어린애처럼 녀사의 팔을 붙

들고 엄마를 부르며 목놓아울었다. 녀사께서는 떨리는 손으로 그들의 어깨를 쓰다듬고 눈물에 얼룩진 볼을 닦아주시였다.

《그래, 나는 안 간다. 내 혼은 내내 너희들과 같이 있을게다.》

비물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있었다. 지게문에 번개불이 번쩍 비치면서 요란하게 울리는 천둥소리가 하늘땅을 깨버리는듯 했다. 천정 한귀퉁이가 젖어들더니 뚤렁뚤렁 흙물이 떨어져내렸다. 억수로 퍼붓는 비물이 골이 난 초가지붕으로 슴새들어오는 모양이였다.

최정숙이 얼른 부엌으로 뛰여내려가 놋대야를 들고 들어왔다.

놋대야에 부딪치는 비방울소리는 우는 녀인들을 위로하듯 금속타악기처럼 명랑한 음향을 울려주었다.

강반석녀사께서는 가락맞게 울리는 그 소리에 취해 혼곤히 잠드시였다.

이튿날은 비가 멎었으나 침침한 하늘에 걸레짝같은 매지구름들이 널려있었다.

조반때가 좀 지나서 머리수건을 쓴 중로배의 녀인이 녀사의 댁으로 찾아왔다. 그는 마춘욱의 어머니 김씨였다. 조그마한 주머니 하나를 손에 든 그는 토방에서 인기척을 한번 내고는 제집처럼 지게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래목에 누워계시는 녀사를 보는 순간 김씨는 눈을 흡뜨며 주머니를 방바닥에 떨구었다. 주머니아구리로 노란 좁쌀알들이 흘러나와 방바닥에 널리였다.

《아니 철주 엄마, 이게 어찌된 일이오다?》

김씨는 한껏 수척해지신 녀사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던것이였다.

《중조 할머니가 그 먼데서 오셨군요. 어서 앉으세요.》

녀사께서 가까스로 일어나 벽에 몸을 기대고 앉으시였다.

《어서 눕소다. 철주 엄마의 병이 산삼을 쓰구 나아졌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되다니… 세상에 원… 이런 변이라구사! 이 일을 어찌우, 이 일을…》

김씨는 녀사의 여윈 손을 잡고 울먹거리였다.

《중조 할머니, 명이야 어찌하겠어요. 중조 아버지랑 어머니랑 다 편안한가요, 식모랑…》

《우리야 무시게라구! 다 잘있습지. 어서 눕소다.》

김씨는 녀사께서 누우시는것을 보고야 방바닥에 흩어진 좁쌀을 그러모아 주머니안에 넣었다. 그는 객주집에 있을 때 강반석녀사께서 자주 좁쌀미음을 쑤어 마시는것을 보았기때문에 좁쌀 한되를 가지고 온것이다. 지금 샘터에서는 식모 장영숙이가 일가분들에게 밥 한끼를 해드리려고 쌀을 일고있었다. 물론 장영숙이도 녀사의 병이 이렇게까지 중태에 빠진것은 모르고있었다.

《아들들은 다 어디로 갔소다? 조선군대를 무은 맏아드님은 어디메를 갔는지? 어머니 앓는것두 모르구, 에구참…》

《왜 모르겠어요. 나는 그 애들이 집에 붙어있지 못하게 해요. 나라를 잃고 백성들모두가 병들어 죽어가는데 제 어미병 하나가 뭐겠어요. 우리 성주는 왜놈을 치러 멀리 통화라는 곳으로 갔어요.》

김씨는 눈물이 질벅한 얼굴로 녀사를 쳐다보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는 지금 왜놈들의 목을 삼대베듯 하는 하늘이 낸 장수로 항간에 소문이 떠도는 **김일성**장군이 바로 강반석녀사의 맏아드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있었다.

녀사께서는 산을 날아넘고 강을 뛰여넘는 유격대의 씩씩한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며 김씨의 손을 잡아쥐시였다.

《중조 할머니, 우리 군대를 받들고 도와서 나라를 독립하고 고향에 돌아가려댔으나 내 명이 짧아서 그날을 보지 못할것 같아요.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아들 성주가 돌아오거든 내가 대하듯 해주세요. 일본놈들이 조선땅에 남아있고 조선을 독립하지 못한채 오거든 내 무덤을 파가지도 못하게 해야 해요. 그렇지만… 내 아들이래서가 아니라 성주는 싸우다 도중에서 돌아서지는 않을거예요. 조선이 독립되는 그날에 중조 할머니도 우리 평양 만경대에 꼭 가보세요. 참 좋은 곳이랍니다. 왜놈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무엇때문에 낯선 이국땅에 와서 이 고생을 하겠어요.》

비감을 걷잡지 못한 김씨는 녀사의 두손을 붙들고 온몸을 떨며 오래도록 세차게 흐느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강반석녀사의 이 유언은 그이의 신념이고 념원이였다.

8

또다시 락수물소리가 들려온다.

림종의 시각이 다가오고있었으나 웬일인지 녀사께서는 정신이 더욱 또렷해지며 지나간 일들이 유난스레 회상되시였다. 굽이굽이 곡절도 많고 아픈 일도 많았던 한생이였다. 그러나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한생이였다. 다만 자신마저 나라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저세상으로 가게 된것이 한스럽고 죄스러우시였다.

《용서하세요, 성주 아버지. 나더러 성주를 잘 도와서 기어이 나라를 찾으라고 하셨는데 정말 죄스러워요.》

녀사의 눈귀에 따뜻한 물방울이 맺히였다.

문득 녀사께서는 만경대에 갓 시집을 와서 김형직선생님을 따라가 대동강얼음이 풀리는 장쾌한 광경을 보던 일이 생각나시였다.

참으로 그것은 장엄한 광경이였다. 마침 밀물이 거슬러올라올 때였다. 수십, 수백척의 군함마냥 우줄거리며 떠내려가던 성에장들이 밀물에 도로 밀리여 우에서 떠내려오는 집채같은 얼음장들과 맞부딪쳐 허공에 번쩍 들려서 한참 버티고있다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태처럼 무너져내렸다. 그때마다 물방울들이 사방에 날려 대동강수면은 흰구름에 덮인듯 했다.

성에장들의 충돌은 어느 한곳에서가 아니라 강전체 어디서나 벌어져 마치 흰 군함들이 좌충우돌하는 치렬한 해전을 방불케 하였다. 대동강변의 봄은 그렇듯 요란스러운 성에장들의 충돌속에서 찾아오군 하는것이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성에장들이 부딪치는 광경을 바라보며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나는 해마다 봄이면 여기 강변에 나와서 성에장들의 싸움을 보면서 투쟁의 리치를 되새기군 하였소. 지금 우리 나라는 왜놈들에게 먹혔지만 저렇게 얼음장을 들부시며 봄이 오듯이 반드시 어느 한때에 가서는 왜놈들을 내쫓고 나라를 찾는 날이 있을거요. 저렇게 힘차게 오는 봄을 막을 힘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소.》

그때에 하신 김형직선생님의 말씀을 신념으로 삼고 슬픔도 고난도 이겨내며 꿋꿋이 한생을 살아온 녀사이시였다.

(그래, 나는 죽어도 이제 우리 성주는 기어이 왜놈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찾을거야!)

녀사의 눈앞으로 그날의 광경이 펼쳐지고있었다.

승리의 개가를 울리며 압록강이 들끓고 두만강이 뒤번진다.

뗑, 뗑, 뗑 독립의 종소리가 울린다. 온 삼천리강산이 환호성으로 메아리친다. 만경대 시부모님들이 만세를 부르며 달려나오시고 칠골의 강돈욱아버님도 기쁨의 눈물을 지으며 조선독립 만세를 웨치신다. 김형권적은이와 강진석오라버님이 감옥문을 박차고 뛰쳐나오신다.

조선아, 믿어다오. 독립의 날은 오리라!

장마비는 멎을줄 모르고 그냥 내린다. 하늘도 슬퍼서 우는것이다.

우리 어머니,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녀사께서는 여기 이국의 외진 산골마을 갈발덕초가집에서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숨을 거두시였다. 그 시각 갈발에 내려앉았던 물새들만이 슬피 울며 비내리는 하늘로 날아올랐다.

아, 가장 슬픈 날, 그날은 1932년 7월 31일이였다.

온 안도마을이 울음에 잠겼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사하 갈발덕마을로 모여들었다.

구당에서는 강반석녀사의 령구를 느릅나무 한그루가 서있는 언덕받이에 안치하였다.

장례식날 류호는 수박무늬모양으로 떼장을 덮은 강반석녀사의 묘소앞에서 상복을 입고 비애의 눈물을 뿌리며 추도문을 읽었다.

《강반석녀사님!

우리모두가 녀사님을 우러러 만년장수를 빌었사온데 어찌하여 우리를 남기고 가셨습니까, 녀사님!…》

류호가 추도문의 허두를 떼자마자 녀인들속에서 울음이 터졌다. 류호자신도 추도문을 읽지 못하고 어깨를 떨며 오열하였다.

《여러분, 그만 울음을 그치시오. 추도문을 읽어야 하지 않습니까.》

김정룡이 통곡하는 군중을 가까스로 진정시켜 류호의 추도문랑독이 계속되였다.

《사랑과 미덕으로 불행한이들을 보살피고 모르는이들을 깨우치고

뒤떨어진이들을 손잡아이끌면서 구국의 한길을 앞장서 헤쳐나가던 강반석녀사께서 임신년 7월 31일 애석하게도 우리의 곁을 떠나시였다.

슬프다, 이제 누가 녀사님처럼 우리를 보살펴주고 누가 녀사님처럼 우리를 배워주고 이끌어줄손가?

느릅나무 한그루와 벗하고 소사하 낮은 언덕에 누워계시는 녀사님께서는 임진년(1892년) 4월 21일(음력 3월 25일) 여기서 천여리나 떨어진 평안남도 대동군 룡산면 하리 칠골에서 탄생하시였다. 나라찾는 일이 그리도 소중해 친가분, 시가분들을 다 멀리에 두고 산설은 이국땅에서 만난신고 이겨내며 독립운동에 분골쇄신하다 남은 마지막 한방울의 피, 한점의 심령마저 애국의 불에 태우고 녀사님은 의로운 40년륜을 새기고 가시였다!

녀사님의 한생은 헌신의 한생이고 분투의 한생이시였다.

고명한 독립운동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을 따라 꿋꿋이 독립운동의 한길을 걸어오신 녀사님, 그 길에서 혁명군의 피젖은 옷을 빤적은 몇백번이고 오고가는 애국지사들의 진지상을 차려준적은 몇천번이며 무시로 찾아오는 가난한 병자들에게 첩약을 달여주고 옷을 지어주신적은 그 얼마이랴.

녀사님의 한생은 희생의 한생이고 잃음의 한생이며 아픔의 한생이시였다. 30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절망의 슬픔도 당하고 오빠와 시동생을 령어의 길에 보내는 가슴찢는 아픔도 누르며 몽매하고 협애한 사람들의 상쟁을 만류하고 일깨우느라 애간장 태우는 고통도 받으시였다. 자애로운 인품과 외유내강한 의지로 첩첩한 역경도 웃으며 디디고 온갖 슬픔도 내색없이 이겨내면서 자신의 모든것을 내버리고 애오라지 남을 위해 사랑을 주고 정을 기울이시였다. 장장세월 그러느라 물을 움켜쥐여도 새지 않던 녀사님의 고운 손은 악마디지고 트고 갈라지고 째지셨으니 이 세상 그 어느 손보다도 거룩하고 아름답도다.

헐벗은 어린이에게는 밥을 먹이고 옷을 지어주시고 약 못쓰고 앓는 가난한 집에는 한밤중에도 수십리를 걸어 기어이 생명을 살리신 우리 녀사님!…

우리 녀사님의 한생은 인애의 한생이고 애국의 한생이시였다. 림

종의 시각을 예감하면서도 아드님을 항일의 원정길로 떠나보내시고 유격대원들을 찾아가 격려하신 녀사님. 위독한 병상에서도 안도주민들의 안녕을 지키라고 어린 자제분들마저 밖으로 떠미셨으니 이런 어머니를 이 세상 어디에서 보았던가.

부모에는 효녀이고 남편에는 렬녀이며 자녀들에겐 현모이신 우리 녀사님은 이 세상 모든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해야 하고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에게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자신의 모범과 실천으로써 배워준 인민의 교사이고 혁명의 어머니, 조선의 어머니이시다.

녀사님은 한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키우는 부엌일과 바느질, 길쌈하는 일로부터 한 마을을 깨우치고 단합시키는 애국계몽사업과 나라를 찾는 구국의 성업에 이르기까지 인간세상의 대소사를 다 맡아한 절세의 녀중군자이시다.

아, 애통하다! 이처럼 거룩하고 이처럼 자애롭고 이처럼 현숙하신 녀사님께서 우리의 곁을 영영 떠나가셨으니 그 슬픔, 그 아픔을 어찌 이겨낼수 있겠는가.

허나 녀사의 사랑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녀사의 깨우침을 받고 애국의 길에 나선 모든 혁명가들이 녀사의 뜻을 받들어 기어이 조선독립을 이룩하고 자손만대로 녀사님의 그 수고, 그 사랑, 그 공덕을 길이 전해가리니…

우리모두의 어머님이신 강반석녀사이시여! 어머님은 영원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리라!》

추도문을 다 읽은 류호는 녀사의 묘소앞에 엎드려 세번 큰절을 올리고 상돌에 술을 치면서 《녀사님, 이제 나라가 독립되면 녀사님께서 그리도 가고싶어하신 그리운 고국으로, 만경대로 저희들이 녀사님을 모시고 가겠나이다.》하고 녀인들처럼 목놓아울었다.

군중의 울음소리는 오래도록 그치지 않았다.

그때로부터 15년세월이 지난 1947년 5월 하순 수백명 안도주민들이 강반석녀사의 분묘를 조국으로 모셔간다는 소식을 듣고 저마다 상복차림에 제상을 차려가지고 소사하 갈발덕마을로 모여들었다.

《현여유인전주강씨지묘》라는 묘비가 서있는 소사하의 언덕으

로 그윽한 꽃향기를 실은 5월의 따스한 바람이 유정히 불어오는데 갈발덕상공에는 녀사를 추모하듯, 지나간 15년세월의 만단사연을 전하듯 뭇새들이 목메여 우짖으며 끊임없이 날아옜다.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안도주민들은 해방된 첫날부터 강반석녀사의 분묘를 조선으로 모셔가자고 거듭 청원을 올리였으나 수령님께서 만주산야에는 나의 부모님들뿐아니라 항일혈전에서 희생된 전우들의 유골이 수없이 묻혀있고 그들이 남기고간 자녀들이 있다, 전우들의 유골을 다 찾아오고 그들의 유자녀들을 내 나라 강산으로 데려오기 전에는 부모님들의 묘소를 모셔올수 없다고 강경히 말씀하시여 이태씩이나 천묘를 미루게 되였던것이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왜놈들은 강반석녀사의 묘소를 파헤치려고 악랄하게 돌아쳐서 안도주민들은 놈들의 눈을 속여가며 녀사의 분묘를 지켜내고 관리하다가 해방후에 묘비를 세웠다.

향나무로 정성스레 녀사의 령구를 마련한 안도주민들은 5월 23일 《추모 **김일성**장군의 자당, 조선녀성운동의 선도자 고 강반석녀사》라고 쓴 붉은 만사(고인을 애도하여 지은 글을 천이나 종이에 적어 기발처럼 만든것.)를 령구우에 덮고 추모식을 하였다.

석대의 무장호위차들의 호위를 받으며 령구차는 안도를 떠나 명월구, 조양차, 연길을 거쳐 도문으로 향하였는데 수백리 연도마다에는 제상을 차려가지고 나와 조의를 표하는 수천명 조중인민들로 산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었다. 령구차뒤로 따라가는 만사만 하여도 수백대나 되였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였다. 재만조중인민들은 누구라없이 **김일성**장군님과 강반석녀사를 진심으로 경모하고 있었기에 자연군중들에 의해 행사가 성대해진것이였다.

령구차가 도문에서 국경다리를 건느려 할 때 사람들이 모두 녀사님의 령구를 모시고 조국으로 들어가는데 어찌 정중성없이 발동소리를 내겠는가고 하며 령구차에 명주필을 걸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서 다리를 건너갔다.

얼마나 정중히 령구차를 움직였는지 다리를 건느는데 한시간이나 걸렸다.

한편 조국땅 남양에서는 수천명 주민들이 온성군내무서 남양분소

안마당에 조의장을 정중히 꾸려놓고 대기하고있었다. 조의장안팎을 정갈한 옥양목천으로 정성스레 감싸고…

령구차가 남양으로 들어선것은 5월 29일이였다.

그날밤 조의장주변은 대낮처럼 밝았고 흰 옷을 입은 수천명의 주민들이 모두 녀사님을 추모하여 밤샘을 하였다.

령구차를 호위하고 온 항일투사들은 온성군인민들이 5월 30일 군중추모회를 하고 녀사님의 령구를 평양으로 바래우려 한다고 수령님께 보고를 올리고 특별렬차로 모셔가려고 하였다.

보고를 받으신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우리 어머님은 언제나 소박하게 지내셨다고 하시면서 군중추모회를 하지 말고 령구도 특별렬차가 아니라 일반화차에 모셔오라고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어찌할수 없이 강반석녀사의 령구를 수수한 일반화차에 모시게 되였다. 그러나 온성인민들의 한결같은 절절한 제의에 의하여 추모식은 성대하게 진행되였다.

1947년 5월 31일 남양을 출발한 령구화차는 6월 2일 드디여 평양에 도착하였다. …

그때로부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가.

오늘 강반석녀사의 동상을 모신 만경대와 칠골로는 국내외의 손님들이 매일과 같이 끊임없이 찾아온다.

나라없던 모진 세월 사랑의 손길로 동포들을 이끌고 깨우치며 새날을 불러 어둠을 헤쳐가신 강반석녀사! 인민의 밝은 세상이 펼쳐진 조국땅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녀사께서는 생전의 인자하신 그 모습 그대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정겹게 바라보며 자랑높은 강성대국건설의 한길로 불러주신다.

장편소설 **새날을 불러**(하)

저 자	**백 보 흠**
편 집	**조 상 호**
표 지	**김 정 화**
편 성	**리 설 희**
교 정	**정 경 진**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 2
인 쇄	주체100(2011)년 8월 20일
발 행	주체100(2011)년 8월 30일

ㄱ—16233 값 250원

D P R Korea
ISBN 978—9946—22—375—9